

明史 外國傳 譯註 · 6

—土司傳·中—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운남토사 1 운남·대리·임안·초웅·징강·경동·광남·광서·진원·영
 녕·순녕·몽화·맹간·맹정·곽정진
- 해제 / 365
- 운남토사(雲南土司) / 369
- 운남(雲南) / 371
- 대리(大理) / 388
- 임안(臨安) / 398
- 초웅(楚雄) / 408
- 징강(潞江) / 414
- 경동(景東) / 415
- 광남(廣南) / 421
- 광서(廣西) / 426
- 진원(鎭元) / 429
- 영녕(永寧) / 431

순녕(順寧) / 436

몽화(蒙化) / 439

맹간(孟艮) / 442

맹정(孟定) / 444

곡정(曲靖) / 448

참고문헌 / 459

- 운남토사 2 요안·학경·무정·심진·여강·원강·영창·신화·위원·복승·만진·진강·대후·난창위·녹천·평년진

해제 / 465

요안(姚安) / 471

학경(鶴慶) / 479

무정(武定) / 487

삼진(尋甸) / 501

여강(麗江) / 504

원강(元江) / 513

영창(永昌) / 523

신화(新化) / 529

위원(威遠) / 531

복승(北勝) / 536

만진(漫甸) / 538

진강(鎮康) / 541

대후(大侯) / 543

난창위(瀾滄衛) / 547

녹천(麓川)·평면(平緬) / 550

참고문헌 / 59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운남토사 3 편전·간애·노강·남진·망시·자락전·차산·맹린·리마·뉴울·동당·와진·축와·산금·목방·맹양·차리·노과·팔백전
해제 / 601
- 면전(緜甸) / 605
- 간애(干崖) / 642
- 노강(潞江) / 648
- 남진(南甸) / 653
- 망시(芒市) / 659
- 자락전(者樂甸) / 662
- 차산(茶山) / 663
- 맹린(孟連) / 664
- 리마(里麻) / 665
- 뉴울(紐兀) / 666
- 동당(東倘) / 667

와진(瓦甸) / 668

축와(促瓦)·산금(散金) / 669

목방(木邦) / 669

맹양(孟養) / 691

차리(車里) / 707

노과(老撾) / 717

팔백(八百) / 723

참고문헌 / 734

- 귀주토사 귀양·사남·진원·동인·여평·안순·도균·평월·석천·신침위전
해제 / 741
- 귀주토사(貴州土司) / 746
- 귀양(貴陽) / 753
- 사남(思南) / 786

[상권 차례]

- 호광토사 시주·영순군민선위사
사·보정주군민선위사사전

해제
참고문헌

- 사천토사 2 파주선위사·영녕선위
사·유양선무사·석주선무사전

해제
참고문헌

- 사천토사 1 오봉오살동천진용사군
민부·마호·건창위·영번위·월수
위·염정위·회천위·무주위·송반
위·천진육번초토사·여주안무사전

해제
참고문헌

진원(鎭遠) / 795

등인(銅仁) / 802

여평(黎平) / 808

안순(安順) / 818

도균(都勻) / 828

평월(平越) / 840

석천(石阡) / 847

신첨위(新添衛) / 848

참고문헌 / 85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권 차례]

- 광서토사 1 계림·유주·경원·평
악·오주·심주·남녕진

해제
참고문헌

- 광서토사 2 태평·사명·사은·진
안·진주·은성·상릉·도강진

해제
참고문헌

- 광서토사 3 사성·이주·용주·귀
순·향무·봉의·강주·사릉진

해제
참고문헌

연표
지도
색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운남·대리·임안·초용·징강·
경동·광남·광서·진원·영녕·
순녕·몽화·맹간·

맹정 경마안무사부·곡정진
(雲南·大理·臨安·楚雄·澂江·
景東·廣南·廣西·鎮沅·永寧·
順寧·蒙化·孟良·

명사(明史) 권313 운남토사(雲南土司) 1

孟定 耿馬安撫司附·曲靖傳)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明史 外國傳 譯註

「운남·대리·임안·초웅·징강·경동·광남·광서·진원·영녕·순녕·몽화·맹간·맹정 경마안무사부·곡정진(雲南·大理·臨安·楚雄·澂江·景東·廣南·廣西·鎮沅·永寧·順寧·蒙化·孟艮·孟定 耿馬安撫司附·曲靖傳)」 해제

명(明)을 건국한 후, 태조는 홍무(洪武) 14년(1381)에 정남장군(征南將軍) 영천후(穎川侯) 부우덕(傅友德)으로 하여금 원(元)의 양왕(梁王)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의 운남(雲南)인 진(滇) 지역을 정벌하도록 했다. 부우덕이 이끄는 명의 대군은 그해 11월에 이곳에 이르러 양왕을 공격하였는데, 명군에 대패한 양왕은 보녕주(普寧州)로 도망가 결국 죽었다. 이로써 명조는 이곳을 점령하여 이듬해(1382)에 운남부(雲南府)를 설치했는데, 이로부터 여러 군(郡)이 차례로 귀부해 왔기나와 명조는 차례로 이들 지역에 부(府), 주(州), 사(司), 위(衛) 등 여러 행정구획을 정하였다. 그러나 진성(滇省)의 대부분 지역에는 소수민족이 섞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명조는 이들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유관(流官)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원대(元代)의 토사제도(土司制度)를 이어받아 예전대로 토직(土職)을 두기도 했으며, 유관에게 정인(正印)을 수여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토사에게 이(유관)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명대 진성(滇省) 지역의 토사제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명사』 토사전 전체 10권 중 운남 토사전 3권에 나뉘어 기술되었기나와 본 『명사』 권313 『토사전』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전이다.

본전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듯이 토사라는 명칭은 혼잡하여 세세하게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토사에 관한 내용을 이를 관할하는 부(府)와 주(州) 등 행정구획에 연계하여 묶어 서술하고 있다. 운남 토사전은 전체 49개의 행정구획과 연계하여 서술하고 있거니와 그 가운데 본전은 운남부(雲南府)를 시작으로 대리(大理)·임안(臨安)·초웅(楚雄)·징강(澂江)에 이어서 곡정(曲靖)에 이르기까지 15개 부(府)에 속한 토사를 서술하고 있다. 본전에서 다루고 있는 15개 부(府)는 대체로 진지(滇池)와 이해(洱海)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 즉 강줄기가 여러

곳으로 흐르는 평원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고 또한 기후조건도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당하여 운남 경제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고원지대로 출거나 다른 나라와 접경하고 있는 여타의 운남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은 중원 내지의 정치·경제·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일찍부터 받아 한화(漢化)의 정도가 빨랐던 곳이며, 중앙 정권의 지지와 도움을 많이 받았기나와 기본적인 통치의 형식도 중원 내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용된 곳이다. 이런 점 때문에 토관이 통치하거나 혹은 토관과 유관이 공동으로 통치했던 운남의 여타 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주로 유관을 임명하여 통치하도록 하면서 토관으로 하여금 유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명 중기 이후에 개시된 개토귀류(改土歸流)가 다른 지역보다 광서부(廣西府), 순녕부(順寧府) 등지에서 일찍 시작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명 초기 위소제도(衛所制度)가 시행되면서 많은 한족(漢族) 병사와 인구가 이 지역에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둔전(屯田)제의 실시와 수리시설의 건설은 물론 외부의 생산공구와 기술이 전해 들어와 경제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이루어졌다. 이후로도 외부에서 많은 한인이 계속해서 유입되었기나와 중원의 선진문화가 전래해 들어와 여러 면에서 사회생활의 조건이 개선되었으며, 여러 지역에 학교도 설립되어 운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학문과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본권의 서술 내용 가운데 특징적인 형식과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식적인 면을 보면, 운남 토사전의 첫 번째 전이기 때문에 맨 앞에 간단하게 서문격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운남 지역의 정토(征討)와 아울러 행정구역의 설정 및 유관과 아울러 토관의 설치에 대한 대강을 설명하였고, 다스리는 데에 거물로 삼도록 하기 위해 토사의 사직(事蹟)에 대해 그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에 관계된 대강을 기재하되, 토사를 부와 주에 연계해 묶어 서술한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15개 부에 속한 토사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약간의 뒤바뀜은 있으나 대체로 운남·대리·초용 등 정치의 핵심부를 이루는 지역을 앞부분에 배치하여 서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경동(景東)·광서·진원(鎮沅) 등 경제와 문화가 비교적 발전된 지역을, 그리고 군사적 거점을 이루고 있는 영녕(永寧)·맹간(孟艮)·맹정(孟定)부 등을 맨 뒤에 배치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 전에 대한 대체적인 서술 방식은, 먼저 해당 지역의 연혁을 서술하고 이어서 시대 순에 따른 해당 지역 토관의 설치와 승습(承襲) 및 조공(朝貢) 상황, 정토(征討)를 서술하고 있으며, 맨 뒤에 지리와 경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권 가운데 특징적인 주요 내용만을 간략히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무 15년에 운남부가 설치된 이후로, 여러 소수민족이 계속해서 귀부해 옴으로 이곳에 여러 행정

부서를 설치하고 토사를 임명했지만 그러한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미 홍무 초기부터 여러 지역에서 이들 소수민족의 반란이 일어났으며, 이후로도 명조에 대항한 크고 작은 많은 반란이 단속적으로 일어났다. 그 중에는 예컨대 운남부의 토관 양제(楊直)가 20여 만 명의 소수민족을 규합하여 봉기했고, 명 말에도 역시 운남부에서 사정주(沙定洲)가 72영(營)을 규합해 난을 일으킬 정도로 대규모의 반란도 있었다. 이는 명조에 대한 이들 소수민족의 민족적 반감이 매우 거세었음을 보여주거나와 민족적 결합력 또한 실로 대단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반기를 든 원인 가운데는 토사들 간의 세력다툼 때문에 일으킨 경우도 많지만 참장(參將) 오현충(吳顯忠)이 순녕부의 토지부인 맹정서(猛廷瑞)가 부자임을 정탐하고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그의 재물을 약탈하니, 이에 분개해 순녕부의 13寨(寨)가 궤기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례에서 보듯 명조 관리들의 수탈에 대응해 반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한편 운남을 평정하고서 서평후(西平侯) 목영(沐英)이 이곳에 진수하였기나와 그의 위세가 소수민족이 사는 지방에 크게 떨쳤다. 이후로 서평후의 작위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졌으며, 매년 대경절이 있을 때마다 검부(黔府)의 목씨(沐氏)들은 경남장군의 인(印)을 수여받아 군중(軍中)에 있지 않음이 없었다. 이 때문에 본권의 여러 곳에 이들 목씨에 관한 세세한 활동이 단편적이지만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특히 검부에서 보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여러 번부(番部)는 의장(儀仗)을 갖추고 영접했으며, 손을 씻고 봉투를 열면서 “이것은 영지(令旨)입니다”라고 했다. 내용은 당시 검부의 은혜와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초용부의 동지(同知)인 고경(高政)이 아들이 없이 죽자 그의 처가 직을 세습하고, 그 처가 죽자 그녀의 딸이 세습했다는 내용에서 토사직의 승계 방식을 엿볼 수 있지만 곡정의 군민지부(軍民知府)인 안의(晏毅)가 진의한 내용 중에, 토관의 계승은 어느 때는 자손이, 어느 때는 형제가, 어느 때는 처가 남편을 잇고, 어느 때는 침(媵)이 적처(嫡妻)를 잇는 데, 모두 미리 정한 순서가 없고 이어야 할 때에 닥쳐서야 다편이 일어나고 원한과 살육이 이어졌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토관의 계승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다편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초용부의 내용 가운데, 북(燹) 종족은 성품이 온화하고 학업에 관심이 많거나와 정강부의 나라(羅羅)족은 성정이 비록 완강하고 사나우나 상관(上官)을 공경하는 습성이 있고, 경동부의 북 종족은 순박하나 활쏘기를 잘하고 전투에 코끼리를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사는 각 종족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선덕(宣德) 연간(1426~1434)에 임안부의 치안을 위해 처음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했는데, 이후 유관(流官)이 설치된 이후 토지주는 오로지 순포(巡捕)의 직무만을 맡았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임안부 영주(寧州)에서 토관을 폐하고 일찍이 유관을 설치했지만 토관 녹봉(祿俸)이 사례태감(司禮太監) 유근(劉瑾)에게 뇌물을 바쳐 다시 토관을 설치했으며, 이후 토관이 난을 일으킴으로 해서 다시 토관을 폐지하고 유관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개토귀류의 원인과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라 여겨진다. 그리고 광남(廣南)의 농문거(農文擧)가 사문(四門)의 사목(舍目)들에 의해 동지로 추거된 이래로 농씨 직의 세습이나 교체가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명 조정이 토관을 임명하지만 일방적이기보다는 소수민족의 민심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명 말 장헌충(張獻忠)의 부장 손가망(孫可望)이 검국(黔國) 초부인(焦夫人)의 동생을 자처하며 운남에 들어와, 이정국과 함께 사정주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 지역을 한 때 점거했다는 내용 역시도 운남 지역이 명 말 농민반란군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라 여겨진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전은 운남의 주요 지역 토사의 여러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니와 명대 토사제의 실상과 운남 지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전은 맨 앞에 토사의 사적에 대해 단지 치란과 홍망에 관계된 대강만을 모아 기재한다고 했듯이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기 그지없다. 또 시기적으로 명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약간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후 시기에 대한 내용은 생략된 부분이 매우 많다. 뿐만 아니라 실록 기사나 지방지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서술된 내용이라 해도 극히 소략하며, 심지어 잘못된 기재된 부분도 매우 많이 보인다. 따라서 본전의 내용을 자료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실록이나 지방지의 관련 내용을 같이 견주어 보아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明史 外國傳 譯註

「운남·대리·임안·초웅·징강·경동·광남·광서·진원·영녕·순녕·몽화·맹간·맹정 경마안무사부·곡정진(雲南·大理·臨安·楚雄·澂江·景東·廣南·廣西·鎮沅·永寧·順寧·蒙化·孟良·孟定 耿馬安撫司附·曲靖傳)」역주

雲南土司
운남토사

明洪武十四年，大軍至滇，梁王走死，遂置雲南府。自是，諸郡以次來歸，垂及累世，規制咸定，統而稽之。大理·臨安以下，元江·永昌以上，皆府治也。孟良·孟定等處則爲司，新化·北勝等處則爲州，或設流官，或仍土職。今以諸府州概列之土司者，從其始也。蓋滇省所屬，多蠻夷雜處，卽正印爲流官，亦必以土司佐之。而土司名目淆雜，難以鑿折，故係之府州，以括其所轄。而於土司事迹，止攝其大綱有關乎治亂興亡者載之，傳控取者識所經焉。

명(明)나라 홍무(洪武)¹⁾ 14년(1381)에 대군(大軍)이 전(滇)²⁾에 이르자³⁾ 양왕(梁王)⁴⁾이

- 1) 洪武: 명 왕조를 창립한 태조 朱元璋의 年號이다. 明 태조는 1世 1元制, 즉 한 명의 황제가 하나의 연호만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이후 명청시대 중국의 황제는 하나의 연호만을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 2) 滇: 지금의 雲南省 東部に 위치한 瀘池 附近 일대를 일컫는데, 雲南省의 別稱으로도 사용된다. 顏師古는 “그 지역에 瀘池가 있는 까닭에, 이를 좇아 이름한 것이다. 瀘의 음은 顧이다(地有瀘池, 因爲名也. 瀘音顧)”이라 했다. 滇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동북아역사자료총서 21, 『史記』 『西南夷列傳』 譯註 주5) 참조.
- 3) 洪武 14년(1381) 11월에 征南將軍 顧川侯 傅友德이 명의 대군을 이끌고 曲靖에 이르렀다.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0 洪武 14년 11월 戊辰條 참조.
- 4) 梁王: 把匝剌瓦爾密(Bazalawarmi)을 가리킨다. 元 世祖의 다섯 번째 아들로 至元 4년(1267)에 雲南王에

달아나서 죽으니, 마침내 운남부(雲南府)⁵⁾를 설치했다.⁶⁾ 이로부터 여러 군(郡)이 차례로 귀부해 왔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규범과 제도가 모두 다 정해졌다. 이를 종합해서 고찰하면, 대리(大理)⁷⁾·임안(臨安)⁸⁾ 이하 원강(元江)⁹⁾·영창(永昌)¹⁰⁾ 이상은 모두 부처(府治)이다.¹¹⁾ 맹간(孟良)¹²⁾·맹정(孟定)¹³⁾ 등 지역은 사(司)로 하고, 신화(新化)¹⁴⁾·북승(北勝)¹⁵⁾ 등 지역

책봉된忽哥赤(Hugachi)의 후예이다. 洪武 14년(1381)에 明軍의 공격을 받고서 梁王은 정예군 10여만 명을 잃는 대패를 당하였다. 梁王은 普寧州로 도망 가 龍衣를 붙태우고, 妻子를 滇池로 내몰아 죽게 했으며, 그 역시도 左丞 達의·右丞 難兒 등과 함께 발흥에 草舍에 들어가 목매달아 죽었다. 이후 洪武帝는 그의 家屬을 耿羅로 옮겼다. 『明史』 卷124 『把匝刺瓦爾密傳』과 『太祖實錄』 卷140 洪武 14년 11월 戊辰條 및 壬申條 참조.

- 5) 雲南府: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南部 및 玉溪市 易門縣 지역이며, 昆明·富民·宜良·羅次·呈貢·練易·易門 등 7개 縣과 嵩明·晉寧·安寧·昆陽 등 4개의 州를 관할했다.
- 6) 雲南府를 설치한 것은 洪武 15년(1382)이다. 『太祖實錄』 卷142 洪武 15년 2월 乙卯條 참조.
- 7) 大理: 大理府로,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이며, 元나라 至元 7년(1270)에 路를 설치했고, 明 洪武 15년(1382)에 府로 바꾸었는데, 지금의 雲南省 大理·祥雲·賓川·洱源·雲龍 등 여러 縣을 관할했다.
- 8) 臨安: 紅河州라고도 한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族自治州 지역인데, 元나라 至元 13년(1276)에 臨安路를 설치했고, 明 洪武 16년(1383)에 臨安府로 고쳤다. 남으로는 交趾와 인접해 있고, 북으로는 會城과 연결해 있으며, 5개의 州와 5개의 縣을 관할하였다.
- 9) 元江: 雲南省 中南部에 있으며, 元江 中上流에 위치한 지금의 元江哈尼族傣族自治縣을 일컫는다. 至元 2년(1265)에 元江府가 세워졌는데, 至元 25년(1288)에 元江路로 바꾸었다가 明 洪武 15년(1382)에 다시 元江府로 했다. 이후 清代에 들어와 乾隆 35년(1770)에 元江直隸州로 되었다가 民國 2년(1913)에 元江縣으로 강등되었다.
- 10) 永昌: 8세기 무렵 南詔가 설치한 府인데,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保山이다. 清代에는 지금의 永平·保山·施甸·龍陵·永德·鎮康 등 여러 縣을 관할했다.
- 11)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 보면, 洪武 15년(1382)에 雲南을 평정한 후 府를 설치했는데, 大理·臨安·元江·永昌을 포함한 20개 府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 12) 孟良: 孟良禦夷府를 일컫는데, 元나라 때에는 木肯寨였으며 八百宣慰司에 예속했다. 洪武 연간(1368~1398)에 麓川平緬宣慰司에 兼並되었고, 永樂 3년(1405)에 孟良禦夷府를 설치하여 雲南都司에 예속시켰는데, 후에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지금의 雲南省 서남쪽에 위치한 西雙版納傣族自治州 소속의 猛海縣 지역이다.
- 13) 孟定: 孟定禦夷府를 일컫는데, 元나라 至元 31년(1294)에 孟定路가 설치되었다가 洪武 15년(1382)에 府로 고쳐졌다.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에 속해 있는 耿馬傣族佤族自治縣 지역이다.
- 14) 新化: 본래 馬龍他郎甸長官司였고 洪武 17년(1384)에 설치되었는데, 弘治 8년(1495)에 新化州로 바꾸었다.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지금의 雲南省 玉溪市 新平傣族佤族自治縣 지역이다.
- 15) 北勝: 元나라 때에는 北勝府였고 麗江路에 屬했는데, 洪武 15년(1382)에 布政司에 예속시켰으며 州로

은 州(州)로 했으며, 어느 곳은 유관(流官)¹⁶⁾을 설치하고 어느 곳은 예전대로 토직(土職)을 두었다. 지금 여러 부(府)와 주(州)에 대체로 토사(土司)¹⁷⁾를 배열한 것은 이를 좇아서 시작한 것이다. 대체로 전성(滇省)에 속해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만이(蠻夷)가 섞여 거주하고 있어서, 정인(正印)을 유관(流官)에게 수여하였지만 또한 반드시 토사에게 이(유관)를 보좌하도록 했다. 그런데 토사(土司)라는 명칭은 혼잡하여 세세하게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부와 주에 연계해서 그 관할하는 곳을 뜻했다. 그리고 토사의 사적(事迹)에 대해 단지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에 관계된 대강만을 모아 기재하여 다스리는 자에게 거울로 삼아야 하는 바를 알도록 하였다.

雲南 운남

雲南, 滇國也. 漢武帝時始置益州郡, 蜀漢置雲南郡. 隋置昆州, 唐仍之. 後爲南詔蒙氏所據, 改都闍府. 歷鄺·趙·楊三氏, 至大理段氏, 以高智昇領都闍, 遂世其地. 元初, 置都闍萬戶府, 既改置中慶路, 封子忽哥爲雲南王鎮之, 仍錄段氏子孫守其土. 忽哥死, 其子嗣封爲梁王.

운남(雲南)¹⁸⁾은 전국(滇國)이다. 한(漢)나라 무제(武帝, 전156~전87; 재위 전141~전87)의

강동시제 鶴慶府에 예속시켰다. 이후 洪武 29년(1396)에 滄源衛로 예속시켰다가 正統 7년(1442)에 布政司에 直屬시켰다.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永勝縣 北部와 永平縣 그리고 四川省 攀枝花市 小部 일대의 지역이다.

- 16) 流官: 世襲하는 土官에 대한 상대적인 말인데, 明清시대 四川·雲南·廣西 등 少數民族 居住地에 중앙에서 일정한 기간 임기를 두어 파견한 地方官을 일컫는다.
- 17) 土司: 土官이라고도 한다. 元代에 중국의 서남쪽 여러 省에 거주하는 苗·獠·僮 등 이민족 추장에게 그들의 부족을 다스리도록 하면서 수여한 관직이다. 元朝를 이어 明朝도 土司制度를 이어받아 이를 확대 시행하였는데, 명 초 이래 서남 이민족의 추장에게 宣慰使·宣撫使·安撫使·招討使 등의 관직을 주고 세습토록 하였다. 그러나 명 중기 이후 土官을 없애고 이를 대신해 중앙에서 임명한 流官을 파견하여 內地와 같이 통치하는 이른바 改土歸流를 시행하였다. 개토귀류정책 책은 清代에 들어와 더욱 확대 시행하였지만 土司制度는 민국시대가까지도 여전히 이어져 왔다.

때에 [이곳에] 처음으로 익주군(益州郡)을 설치했다.²⁰⁾ 촉한(蜀漢)²¹⁾은 운남군(雲南郡)을 설치했다. 수(隋)나라는 곤주(昆州)를 설치했는데, 당(唐)나라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후에 남조(南朝)²²⁾의 몽씨(蒙氏)에게 점거되어서²³⁾ 선천부(鄯闡府)로 고쳤다. 정(鄭)·조(趙)·양(楊) 3씨(三氏)를 거쳐 대리(大理)의 단씨(段氏)²⁴⁾에 이르러 고지승(高智昇)이 선천(鄯闡)을 다스

- 18) 雲南: 「尚書」 「禹貢」의 梁州 塞外의 지역이다. 元代에 雲南等處行中書省을 설치하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이를 평정하고 雲南等處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여 府 58·州 75·縣 55·蠻部 6곳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후에는 府 19·觀察府 2·州 40·觀察州 3·縣 30·宣慰司 8·宣撫司 4·安撫司 5·長官司 33·禦夷長官司 2곳을 관할케 하였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雲南은 雲南省이 아니라 省內에 설치된 雲南府를 일컫는다.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 의하면, 雲南府는 원나라 때는 中慶路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雲南府로 바꾸었고, 4개의 州와 9개의 縣을 管領하였다.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남부와 玉溪市 易門縣 지역이다.
- 19) 武帝: 前漢 제7대 황제인 劉徹의 諡號이다. 7세 때 황태자로 봉져서 16살에 등극했다. 제임시에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儒學을 官學으로 채택했다. 또한 桑弘羊의 건의에 따라 소금과 철을 전매했으며, 무엇보다도 南과 郭去病 등의 장군을 파견해 흉노를 무찌른 황제로 이름이 높다. 그의 흉노정책 덕분에 오늘날 널리 알려진 비단길이 개척되었다. 그는 한나라를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흉노와의 전쟁 등으로 국가 재정이 많이 소모되었으며, 말년에는 토지경쟁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가 나타났다.
- 20) 元封 2년(전109)의 일이다. 동북아역사자료총서 22 「漢書」 「西南夷南粵朝鮮傳」 譯註 참조.
- 21) 蜀漢: 三國時代 때 前漢 景帝의 후손인 玄德 劉備가 蜀(지금의 四川省) 지역에 세운 나라이다. 漢 宣宗의 후예가 세운 마지막 한나라이기에 季漢이라고도 불린다. 202년에 漢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던 魏王 曹조가 獻帝를 내쫓고 帝位를 찬탈하자, 당시 益州와 漢中을 점거하고 있던 劉備가 漢 황실의 후예라는 정통성을 내세워 이듬해에 황제임을 선언하고, 國號를 漢이라 하였다.
- 22) 南詔: 7세기 무렵 雲南 지방에서 티베트·미얀마어 계통의 민족이 세운 나라로서 738년에 6詔를 통일하면서 唐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였지만, 902년 鄯闡驢의 반란으로 멸망하였다(649~902). 6詔는 蒙巒·越析·施暎·道攀·浪穹·蒙舍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詔는 部 혹은 長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6詔 중에서 蒙舍詔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南詔라고 불렸다. 649년 티베트·미얀마계 部族인 烏의 細奴邏가 蒙舍詔를 일으켜 大蒙國을 세웠고, 唐과 독자적으로 修交하였다. 南詔는 大蒙國을 세운 細奴邏로부터 2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南詔는 다양한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국가로서 각 부족의 독립성이 강해 왕권이 제한되었다. 烏蠻이라고 불리는 티베트·미얀마어 계통의 종족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으며 白蠻이라고 불리는 종족을 융합해 나라를 구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烏蠻은 오늘날의 彝族과, 白蠻은 白族이나 타이족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국유 10載, 6節度, 2都督區로 나누어 통치했으며, 8세기 이후에는 불교가 전래되어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화려하게 발달하였다.
- 23) 南詔 蒙氏: 때는 拓東節度의 지역이었고, 지금의 昆明市·曲靖傳區·昭通傳區·玉溪傳區·紅河州와 文山州를 관할했다.

리게 됨으로써 마침내 세대로 이 지역을 관장(管掌)하였다.²⁵⁾ 원(元)나라 초에 선천만호부(鄯闡萬戶府)를 설치하였다. 이후 [이를] 고쳐 중경로(中慶路)를 설치하고, 아들 흘가(忽哥)²⁶⁾를 운남왕(雲南王)에 봉하여 이곳을 진수(鎮守)하도록 했으며, 예전처럼 단씨(段氏)의 자손(子孫)을 임용하여 그 지역을 지키도록 했다. 흘가(忽哥)가 죽자,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양왕(梁王)에 책봉되었다.²⁷⁾

洪武六年，遣翰林待制王禕等齎詔諭梁王，久留不達，卒遇害。八年復遣湖廣行省參政吳雲往，中途爲梁使所害。十四年，征南將軍傅友德·藍玉·沐英率師至雲南城，梁王赴滇池死，定其地，改中慶路爲雲南府，置都指揮使司，命都督倉事馮誠署司事。二月詔諭雲南諸郡蠻，十五年，友德等分兵攻諸蠻寨之未服者，土官楊嘉善陳作亂，集蠻衆二十餘萬攻雲南城，時城中食少，士卒多病，寇至，都督謝熊·馮誠等據城固守，賊不能攻，遂遠營爲久困計，時沐英方駐師烏撒，聞之，將曉騎還救。至曲靖，逢平入報城中，爲賊所得，給之曰：「總兵官領三十萬衆至矣。」賊衆驚愕，拔營宵遁，走安寧·羅次·邵向·富民·普寧·大理·江川等處，復據險樹柵，謀再寇。英分調將士剿降之，斬首六萬餘級，生擒四千餘人，諸部悉定。二十五年，英卒，命其子春囊封西平侯，仍鎮雲南。

홍무 6년(1373)에 한림대제(翰林待制)²⁸⁾ 왕의(王禕)²⁹⁾ 등을 파견하여 조서(詔書)³⁰⁾를 가

- 24) 段氏: 大理國을 세운 段氏를 가리킨다. 通海節度使였던 段思平이 937년에 大理國을 세워, 이후 200여 년간 지속되었다. 일설에는 段氏가 春秋時代 초기 鄯나라에서 나왔다 하는데, 권력투쟁에서 밀린 세력이 운남으로 들어와서 姓을 段으로 바꾼 것이 그 시작이라는 것이다. 몽골제국의 쿠빌라이(忽必烈, Kubilai)란은 대리국을 정복한 후 직접 그 지역을 관리하였는데, 대리국의 국왕이 大理總管이 되었다.
- 25) 大理 段氏: 때는 鄯闡節度의 지역이었고, 南詔 蒙氏 때보다 작은 겨우 동남부 지역만을 관할했다.
- 26) 忽哥: 忽哥赤(Hugachi)을 말함. 원나라 世祖 쿠빌라이칸의 다섯째 아들로, 至元 4년(1267)에 雲南王에 책봉되어 駝紐鑄金印을 하사받았다.
- 27) 이에 관한 내용은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의 洪武 5년 춘정월 癸丑條에 보이는데, “元나라 世祖는 雲南에 들어와 段興智를 붙잡고 大理國을 멸하고서, 그의 아들 忽哥를 雲南王으로 삼아 이를 진수하도록 하고, 段氏의 자손을 임용하여 그 지역을 지키도록 했다. 忽哥가 죽자 그의 아들 松山을 梁王으로 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지고 양왕(梁王)을 효유(晚諭)하도록 했는데, 오랫동안 붙잡아두어 보내주지 않았으며 결국 해(害)를 당했다.³¹⁾ [홍무] 8년(1375)에 다시 호광행성(湖廣行省)³²⁾ 참정(參政)³³⁾ 오운(吳雲)을 파견하여 보냈는데, [그 역시도] 충도에 양왕의 사자(使者)에게 해를 당했다.³⁴⁾ [홍무] 14년(1381)에 정남장군(征南將軍) 부우덕(傅友德)³⁵⁾·남옥(藍玉)³⁶⁾·목영(沐英)³⁷⁾이 군대

- 28) 翰林待制: 明 초기 翰林院에 속해 있는 從五品の 관직인데, 洪武 14년(1381)에 翰林院의 學士를 正三品에서 正五品으로 낮추고 아울러 承旨·直學士 등과 함께 待制를 革除하였다.
- 29) 王禕(1321~1372): 字는 子充이고, 號는 華川이며, 義烏 鳳林鄉(지금의 尙陽鄉) 來山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영민하였거니와 柳貫, 黃潛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至正 18년(1358)에 朱元璋이 婺州를 취했을 때 부름을 받았으며, 至正 23년(1363)에 江南儒學提舉에 제수되고 이후 漳州府 通判이 되었다. 洪武 2년(1369)에는 「元史」 편찬에 總敎官으로 참여하였고 이후에 翰林待制로 승임하였으며, 同知制誥蒙國史院 編修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洪武 5년(1372) 정월에 詔書를 받들고서 雲南에 갔다가 洪武 6년(1373) 12월에 피살되었다. 建文 연간(1399~1402)에 文節이라는 諡號를 받았는데, 正統 6년(1441)에 바꾸어 忠文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洪武 29(1396)년에 王禕의 아들 王紳이 부친의 유해를 찾으러 雲南에 갔으나 찾지 못하였다. 著書로는 「王忠文公集」·「厄辭」·「大事記續編」이 있다.
- 30) 詔書: 明代에 황제가 반포하는 문서에는 詔語·嚴劄·制·勅·聖旨·冊文·諭·書·令·符·批·散答·敕書 등이 있었다. 詔는 중대한 政令을 천하 臣民에게 포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丁曉昌·冒志祥, 2000: 429 참조.
- 31) 이때 洪武帝가 내린 詔書의 내용과 이 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71 洪武 5년 춘정월 癸丑條에 있다. 본문 내용에는 王禕가 詔書를 가지고 梁王을 晚諭하러 간 시기가 洪武 6년(1373)의 일처럼 보이나, 그가 雲南에 간 시기는 洪武 5년(1372) 정월이고, 그가 함을 당해 죽은 시기는 洪武 6년 12월이다(『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6年條 참조).
- 32) 湖廣行省: 湖廣等處行中書省의 簡稱인데, 元나라 당시 民間에서는 簡稱하여 鄂州行省, 潭州行省이라고도 했다. 元 世祖 至元 11년(1274)에 荊湖等路行中書省을 설치했는데, 鄂州의 명칭을 취해 달리 鄂州行省이라 칭하기도 했다. 至元 12년(1275)에 荊湖行省의 治所를 江陵路에 두었으나 곧 鄂州路로 옮기고, 至元 13년(1276)에 다시 潭州路로 옮겼다. 至元 14년(1277)에 江陵에 荊湖北道宣慰司를 설치하였고 潭州路에 湖廣行省을 설치했다.
- 33) 參政: 명대에 각省的 布政使 아래에 左右 參政을 두고 각 道를 나누어 다스렸다.
- 34) 吳雲은 梁王이 보낸 使臣 鐵知院 등에게 살해되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8년 9월 조 및 「太祖實錄」 卷101 洪武 8년 9월 戊辰條 참조.
- 35) 傅友德(?~1394): 宿州(지금의 安徽省 宿縣) 사람인데, 후에 陽山(지금의 安徽省 陽山縣)으로 이주했다. 무과라 말에 舉兵한 諸將을 따르다가 至正 21년(1361)에 朱元璋이 江州를 공격할 때, 무리를 이끌고 투항했다. 이후 鄱陽湖의 전투에서 奮戰하고, 廬州와 武昌을 점령하는데 공을 세워 威武衛指揮使에 제수되었다. 이로부터 安徽, 湖北, 湖南, 江蘇 각지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徐州에서 元軍을 격파하고 지켜 江淮行省參知政事에 임명되었다. 至正 27년(1367)에는 徐達를 따라 北征에 참여하고, 洪武 元年(1368)에 山東 각지를 취하고, 또 河南, 河北, 山西에서 멀리 陝西 및 甘肅에까지 진출하여 전투에 참여하였다.

를 이끌고 운남성(雲南城)에 이르자 양왕이 진지(滇池)³⁸⁾로 달아나 죽으니, 그 지역이 평정되었다.³⁹⁾ 중경로를 운남부(雲南府)로 고치고⁴⁰⁾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⁴¹⁾를 두었으며, 도독

洪武 3년(1370)에는 漢中을 공략하고, 이듬해는 四川을 평정하는데 최고의 殊勳을 세웠으며, 洪武 5년(1372)에 副將軍 湯勝과 함께 西涼을 정벌하고 이어서 亦集乃路(지금의 內蒙古 額濟納旗)를 공략하였다. 洪武 14년(1381)에 征南將軍에 임명되어 藍玉, 沐英과 함께 30만 대군을 이끌고 雲南 방면으로 원정을 나갔다. 이후에도 매년 남과 북으로 출동하였거니와 明의 天下統一 과정에서 크나큰 武功을 세워 親國公에 봉해지고 太子太師가 되었다. 그러나 洪武 27년(1394)에 황제의 기본을 상하게 해 죽임을 당하였다. 諡號는 武靖이다.

36) 藍玉(?~1393): 명 초의 武將으로 安徽 鳳陽府 定遠縣 사람이다. 明朝의 개국공신이자 저명한 將領이다. 開平王 常遇春의 처남으로 처음에는 그의 휘하에 있었는데, 謀略이 있고 용감하여 여러 차례 戰功을 세워 管軍鎮撫에서 大都督府僉事로 승진하였다. 洪武 14년(1381)에 永昌侯로 봉해졌고, 洪武 20년(1387)에는 大將軍으로 拜受되었다. 洪武 21년(1388)에는 捕魚兒海 전투에서 北元の 太尉 蠻子 등을 죽이고 그 무리들을 항복시켰으며, 말과 낙타, 소와 양 등 15만 마리를 획득하는 등의 큰 전과를 올렸다. 이에 태조는 그를 優遇하여 遼國公으로 봉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세운 공을 자랑하고 교만해졌으며, 날로 오만방자하고 발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휘하의 假子 수천 명을 끌어 橫暴한 행동을 자행했으며 東宮의 民田을 侵古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각종 추문에 이어지자 洪武帝는 그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藍玉은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하여 둘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그러던 중 洪武 26년(1393)에 錦衣衛에서 藍玉의 謀反 사실을 고발하자, 그를 하옥시킨 뒤 鞫問하여 반란을 획책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藍玉은 誅殺되고, 관원자로서 公·侯·伯으로부터 文武官員에 이르기까지 약 2만 명이 연루되어 모두 피살되었다. 이것이 바로 藍玉의 獄囚인데, 이에 관한 공식 기록이 「逆臣錄」이라는 속명으로 간행되었다.

37) 沐英(1345~1392): 字는 文英이며, 安徽 鳳陽 사람이다. 어려서 고아가 되어 朱元璋이 養子로 삼음으로 殊勳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나이 18세 때에 飯前部郎에 제수되어 鄧江을 지켰다. 이후 福慶을 정벌하는데 참여하여 崇安을 경략하고 閩溪十八寨를 격파했으며, 洪武 원년(1368)에는 다시 沐姓을 사용했다. 大都督府僉事, 同知를 거쳐 洪武 10년(1377)에 征西副將軍에 임명되어 鄧愈를 따라 吐蕃을 토벌하고, 서쪽으로 川·藏을 공략하여 西平侯에 봉해졌다. 이듬해 征西將軍에 임명되어 西番을 토벌하였으며, 洪武 13년(1380)에 朱元璋의 命을 받들어 陝西의 군대를 통령하여 북방으로 나가 亦集乃路를 공략하고, 黃河를 건너 賀蘭山(지금의 寧夏 지역)에 올라 北元軍을 대패시키고, 元의 國公 脫火赤 등을 붙잡았다. 洪武 14년(1381)에는 大將軍 徐達를 따라 北伐에 참여하여 全寧四部를 점령하였다.

38) 滇池: 英文으로는 Tien Lake, Tien Chih 혹은 Dian Chi로 표기되며, 옛날에는 滇南澤 또는 昆明湖로 불렸다. 雲南省 最大의 淡水湖이며, 지금의 昆明市 西南쪽에 위치해 있다.

39)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14년 9월 조 壬午條 및 「太祖實錄」 卷140 洪武 14년 11월 戊辰條 참조.

40) 實錄에 보면 中慶路를 바꾸어 雲南府를 설치한 것은 洪武 15년(1382)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太祖實錄」 卷142 洪武 15년 2월 乙卯條 참조.

41) 都指揮使司: 간략하게 都司라고도 하는데, 明 초기 전국 각지에 衛所를 설치하면서 이를 관할하는 지방

첨사(都督僉事)⁴²⁾ 풍성(馮誠)⁴³⁾에게 사(司)의 일을 대리하도록 명하였다.⁴⁴⁾ [그해] 2월에 조서를 내려 운남 여러 군(郡)의 만인(蠻人)을 효유했다. [홍무] 15년(1382)에 부우덕 등이 군대를 나누어 아직 귀복(歸服)하지 않은 여러 만채(蠻寨)를 공격하자, 토관(土官)⁴⁵⁾ 양지(楊直)가 이 틈을 타 난을 일으켜 만(蠻)의 무리 20여만을 끌어모아 운남성(雲南城)을 공격했다. 당시 성 안에는 양식이 적고 병사를 대부분은 병이 들었는데, 적구(賊寇)가 이르자 도독(都督)⁴⁶⁾ 사용(謝應)·풍성(馮誠) 등이 성을 에워싸고 굳게 지키니, 적들이 공파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멀리 떨어진 곳에 군영을 구축하고 오랫동안 포위하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목영(沐英)은 마침 오산(烏撒)⁴⁷⁾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서 날랜 기병을 되돌려 보내 구하고자 했다. 곡정(曲靖)⁴⁸⁾에 이르러서 병졸(兵卒)을 보내 성 안에 잠입시켜 [소식을]

알리다가 적에게 붙잡혔는데 [붙잡힌 병졸이 적을] 속여 말하기를, “총병관(總兵官)⁴⁹⁾이 3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이르렀다”고 하니, 적들은 경악(驚愕)하여 군영을 빠져나와 야간에 도망쳐 안녕(安寧)⁵⁰⁾·나차(羅次)⁵¹⁾·소전(邵甸)⁵²⁾·부민(富民)⁵³⁾·보녕(普寧)⁵⁴⁾·대리(大理)·강천(江川)⁵⁵⁾ 등지로 달아났으며, 다시 험준한 곳을 접거하여 책(柵)을 세우고 재차 침범하고자 도모하였다. [이에] 목영이 장병(將兵)을 나누어 정찰하여 이들을 초멸(剿滅)하고 항복시켰는데, 6만여 명의 수급을 배었으며 4천여 명을 사로잡아 각 부락은 모두 평정되었다.⁵⁶⁾ 홍무 25년(1392)에 목영이 죽자 그의 아들 목춘(沐春)⁵⁷⁾에게 서평후(西平侯)를 습봉(襲封)하도록 하고, 예전처럼 운남을 진수하도록 명하였다.⁵⁸⁾

- 최고의 군사기관으로 세워졌다. 전국에 13개의 都指揮使司와 3개의 行都指揮使司를 요충지에 설치했는데, 후에 都指揮使司의 수가 16개로 증가했다. 이 기관의 장관인 都指揮使(正二品)는 중앙의 五軍都督府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都指揮同知와 都指揮僉事의 보좌를 받아 지방의 군정을 관장했다.
- 42) 都督僉事:明代 전국의 군대를 통괄하는 五軍都督府에 속해 있는 관직으로, 正一品인 左·右都督, 從一品인 都督同知 다음에 위치한 正二品의 관직이다.
- 43) 馮誠: 生卒年 未詳. 定遠 사람으로, 馮國用的 아들이다. 馮國用이 紹興에서 病으로 죽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아직 어려 부친의職을 세습하지 못하고 叔父 馮勝이 대신 親軍指揮職을 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장성하여 征南將軍 傅友德을 따라 雲南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워 右軍左都督에까지 올랐다.
- 44)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2 洪武 15년 2월 癸丑條 참조.
- 45) 土官: 元代에 서방과 남방의 苗·羌·番 등의 이민족 추장에게 관직을 수여하여 그 부족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를 토고리 또는 土官이라고 했다. 명은元の 토관제도를 이어받아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명조는 陝西 등 북변 지역에는 衛司의 관직인 武職을, 서남 지역에는 州·縣 등을 설치하여 文職을 제수하였다. 洪武 7년(1374)에 西南諸蠻가 朝貢하자 元대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宣慰司 11·招討司 1·宣撫司 10·安撫司 19·長官司 173곳이었다. 府·州·縣의 正官과 佐官은 土官 혹은 중앙에서 파견한 流官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疆土를 지키면서 명조에 貢物과 賦稅와 徭役을 제공하였다.
- 46) 都督: 明代 전국의 군대를 통괄하는 五軍都督府의 長을 말한다. 左·右都督이 있으며, 品階는 正一品이고, 그 밑에 從一品인 都督同知와 正二品인 都督僉事가 이를 보좌하였다.
- 47) 烏撒: 지금의 雲南省 鎮雄縣과 貴州省 威寧縣·赫章縣 지역으로, 洪武 15년(1382)에 이 지역에 烏撒衛가 세워졌는데, 洪武 17년(1384)에 軍民府로 승격시켰으며, 永樂 12년(1414)에 貴州都司에 예속시켰다. 그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威寧彝族自治州自治縣이었다.
- 48) 曲靖: 曲靖軍民府를 일컫는다. 洪武 14년(1381)에 曲靖路總管府를 고쳐 曲靖府라 했으며, 洪武 27년(1394)에 曲靖府를 승격하여 曲靖軍民府라 했다. 雲南省 東北部에 위치해 있는데, 東으로는 貴州省·廣西壯族自治區와 인접해 있고, 南으로는 文山州·紅河州와 접해 있으며, 西로는 昆明市·東川市와 連接해

있고, 北으로는 昭通地區와 貴州 畢節地區에 기대어 있다. 曲靖은 “滇黔鎖鑰”, “雲南咽喉”로 칭해 지는 지역이다.

- 49) 總兵官: 전쟁 등 유사시에 公·侯·伯 등의 勳臣이나 都督 등의 관리 가운데 充任하고, 일이 끝나면 본래의 직부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변경에 일이 많아지자 領지에 계속 머물면서 鎮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鎮의 최고 무관직으로 고정되었다. 황제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권한은 매우 컸으며, 品級과 定員은 없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설치된 곳이 날로 늘어나 점차 流官으로 충임되었고, 총독과 순무의 지휘를 받았다.
- 50) 安寧: 지금의 雲南省 昆明 安寧市임.
- 51) 羅次: 지금의 雲南省 楚雄市 祿勳縣 지역임. 元代에 安寧州에 속했는데, 弘治 13년(1500)에 雲南府에 직속시켰다.
- 52) 邵甸: 지금의 雲南省 昆明 嵩明縣·西南省의 白邑村이다.
- 53) 富民: 지금의 雲南省 富民縣임.
- 54) 普寧: 지금의 雲南省 昆明 普寧縣 지역임.
- 55) 江川: 지금의 雲南省 玉溪市 江川縣임.
- 56) 土官 楊直의 난과 그 진압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8 洪武 15년 9월 乙亥條 및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15년 9월條 참조.
- 57) 沐春: 生卒年 未詳. 字는 景春이며, 西平侯 沐英의 長子이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을 따라 西南 지역의 征伐戰에 나갔으며, 이후에 雲南 등지의 반란을 평정하기도 했다. 이 전공으로 後軍都督府僉事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여러 신하들은 試職(實習職位)을 내리기를 청하였으나 洪武帝는 實職을 제수했다. 후에 沐英이 죽자 부친의 爵位를 계승하고 雲南에 鎮守했으며, 維摩十一寨 및 平越의 亂蠻·阿資 등의 叛亂을 진압했다. 그러나 그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죽었다. 諡號는 惠襄이다. 『明史』 卷126 『沐春傳』 참조.
- 58)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22 洪武 25년 10월 乙亥條 및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25년 10월 丁卯條 참조.

自英平雲南，在鎮十年，恩威著於蠻徼：每下片楮，諸番部具儀出郭迎迓，盟而後啓，曰：「此命旨也。」沐氏亦皆能以功名世其家。每大征伐，輒以征南將軍印授之，沐氏未嘗不在行間。數傳而西平裔孫當農侯，守臣爭之，謂滇人知有黔國公，不知西平侯也。孝宗以爲然，許之。自是，遂以公爵佩印，爲故事，諸土司之進止予奪，皆咨稟。及承平久，文網周密，凡事必與太監撫·按·三司會議後行，動多掣肘，土官子孫承襲有積至二三十年不得職者。土官復慢令玩法，無所忌憚；待其罪大惡極，然後興兵征剿，致軍民日困，地方日壞。大學士楊一清等因武定安銓之亂，痛切陳之。黔國公沐紹勳亦以爲言。雖得旨允行，亦不能更革。馴至神宗之世，朝廷情媿，封疆敗壞日甚一日。緬·莽之叛，皆土官之失職者導之。雖稍奏膚功，而滇南喪敗，卒由土官沙定洲之禍。

목영(沐英)이 윤남을 평정해서부터 10년간 [이곳에] 진수하였고, [그의] 은혜와 위세가 만인(蠻人)이 사는 변방에 떨쳤는데, 매년 편지(片紙)를 내려보낼 때마다 여러 번부(番部)는 모두 의장(儀仗)을 갖추고서 성곽을 나와 영접하였으며, 손을 씻은 후 [그 편지들] 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영지(令旨)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목씨(沐氏) 역시 모두 능히 공명(功名)을 세대로 그의 가문에 전할 수 있었다. 매년 대정벌이 있을 때마다 빈빈이 정남장군(征南將軍)의 인(印)을 수여받았고, 목씨가 군중(軍中)에 있지 않음이 없었다. 여러 대(代)에 전해져서 평(西平)의 후손이 옹당 후(侯)의 작위를 이어받았는데, 수신(守臣)⁵⁹⁾들이 다두어 말하기를, 전인(滇人)은 검국공(黔國公)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서평후(西平侯)는 모른다고 하였다. 효종(孝宗, 1470~1505; 재위 1487~1505)⁶⁰⁾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를 윤택하였다. 이로부

59) 守臣: 각 지역을 지키고 다스리는 臣下, 즉 각 省의 巡撫, 布政使, 都事 등 鑑選官을 일컫는다.
60) 孝宗: 명 양조 10대 황제인 弘治帝 朱祐樞의 廟號이다. 憲宗 成化帝의 아들로, 그의 생모는 廣西 孫族의 土官의 딸인 紀氏이다. 이에 따라 그의 성장과정은 정상적이지 못했다. 생모 기씨는 현종에게 총애를 한것 같은 万貴妃의 질투와 감시를 피해 內安樂堂에서 효종을 낳았고, 부친과 처음 대면할 때까지 효종은 이곳에서 숨어 지냈다. 6살 때 황실로 영접되어 황태자에 책봉되었으나 周太后에게 양육되었다. 이후 1487년 8월에 현종이 세상을 떠남으로 18세의 나이로 황제가 즉위했다. 弘治帝는 즉위와 동시에 전 시대의 佞臣들을 물리치고 徐溥, 劉健 등을 내각에 등용하였거니와 劉大夏, 馬文升 등 어진 신하를 기용하여 각료를 일신하고, 天順 연간(1457~1464) 이래 단절되었던 황제와 대신의 직접 협의에 의한 정치를 부활시켰으며, 환관에게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국가의 기강은 크게 쇠신되었으

터 마침내 공(公)의 작위를 새겨 패용하도록 했는데, 관례가 되었다. 여러 토사(土司)들의 승진과 머무름, 수여와 삭탈은 모두 [그에게] 물어 내려주었다. 태평세월이 오래 계속되어, 법망(法網)은 빈틈없이 자세해지고 모든 사안은 반드시 태감(太監)⁶¹⁾·무(撫)·안(按)·삼사(三司)⁶²⁾가 상의한 이후에 시행되니, 걸맞으면 견제를 받는 일이 많아 토관(土官)의 자손이 이어 계승하는 것이 [했수가] 쌓여 2·30년이 되도록 직위를 얻을 수 없는 자도 있게 되었다. [이에] 토관(土官)이 다시 법령을 엄선여기고 농락하였으며 거리끼는 바가 없게 되었는데, 그들의 죄가 매우 극악해지기를 기다린 연후에야 군대를 일으켜 정벌하여 초무(劊撫)하니, 군민(軍民)은 날로 곤궁해지고 지방은 날로 파괴되었다. 대학사(大學士)⁶³⁾ 양일청(楊一清)⁶⁴⁾

며, 정국도 상당히 안정되었다. 그의 치적으로는 법전의 편찬이 크게 주목되는데, 『大明律』을 그 시대에 적용시키고자 이를 개정하여 『開刑條例』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며, 洪武 이래의 행정법규를 집대성하여 『明會典』을 편찬하였다. 그의 치세는 弘治 18년(1505) 5월에 그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諡號는 敬肅帝이며, 능은 泰陵이다.

- 61) 太監: 宦官에 대한 칭호이다. 隋唐 이후 지위가 높아진 內監을 太監이라고 불렀는데, 唐 高宗이 황제의 생활을 보좌하는 殿中省을 中御府로 바꾸고 宦官으로 하여금 太監과 少監을 맡게 하자, 이후 환관들을 太監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명대에는 환관 기구인 12監(司禮, 內官, 御用, 司役, 御馬, 神宮, 尚膳, 尚寶, 印綬, 直監, 尚衣, 都知監)의 長官을 太監이라 했으며 正四品職이었다.
62) 三司: 명조의 3司는 행정을 담당하는 承宣布政使司, 검찰을 담당하는 提刑按察使司, 군사를 담당하는 都指揮使司를 가리킨다.
63) 大學士: 內閣 大學士를 일컫는다. 內閣은 明代 政務를 논하는 최고의 官署인데, 洪武 13년(1380)에 명 태조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상제도를 폐지한 후, 洪武 15년(1382)에 宋代의 制度를 모방하여 華蓋殿·護身殿·武英殿·文淵閣·東閣 등을 설치하고 이곳에 大學士를 두어 皇帝의 顧問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文華殿 大學士를 두어 太子를 보필토록 하였다. 이후 永樂 연간(1403~1424)에 들어와 文淵閣의 대학사를 機務에도 참여하게 하였으며, 이때부터 內閣이라 칭하게 되었다. 대학사는 초기에 正五品의 낮은 품계였지만 宣德 연간(1424~1425)에 尚書의 職에 있던 楊士奇·楊榮을 華蓋殿·護身殿의 大學士에 임용하면서 내각의 權力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로 점차 大學士의 階位班次도 六部 尚書의 앞에 서게 되었고,宰相의 이لمات은 없지만 실제로宰相의 權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內閣 大學士의 地位도 높아졌다.
64) 楊一清(1454~1530): 字는 應寧, 號는 蓬庵으로, 隸江 丹徒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神童으로 불렸으며, 14세에 鄉試에 참가하여 翰林秀才에 추거되기도 했다. 成化 8년(1472)에 進士에 급제하여 中書舍人에 제수되었다. 弘治 末에 陝西巡撫의 職을 맡았으며, 武宗이 即位해서는 三邊(延綏·寧夏·甘肅) 總制軍務를 수행하고, 右都御史로 승임하였다. 이후 劉瑾을 따르지 않아 파직되었으나 劉瑾이 괴살된 후 吏部 尚書에 임명되고 武英殿 大學士를 겸임하여 내각의 機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江彬이 권횡하면서 다시 사직하였으나 武宗이 즉위해서 다시 仕宦하였다. “大禮의 議” 사건 때에 張璠 등이 楊廷和를 공격하는데 幫助하였고, 이후 兵部 尚書의 職에 있으면서 陝西三邊의 軍務를 總制하였으며, 곧 華蓋殿 大學士에 임명

등이 무정(武定)과 안진(安鎔)의 난(亂)⁶⁵⁾을 계기로 통절(痛切)하게 이러한 상황을 진술하여 상주했다. 검국공 목소훈(沐紹勳)⁶⁶⁾ 역시도 진언했다. 비록 윤허를 받아 시행했지만 역시 [옛 폐해를] 바꾸어 없앨 수는 없었다. 그대로 신종(神宗, 1563~1620; 재위 1572~1620)⁶⁷⁾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어서 조정은 게으르고 일을 소홀히 하여, 변강(邊疆)은 날로 더 심하게 무너져갔다. 면(緘)·망(莽)의 반란은 모두 다 토관 중에 직을 잃은 자가 일으켰다. 비록 걸치레의 공이 있다는 몇몇 상주가 있던 했지만 전남(滇南)⁶⁸⁾의 상실과 파괴는 결국 토관인 사정주(沙定洲)의 화란(禍亂)⁶⁹⁾에서 연유하였다.

沙定洲者，王弄山長官司沙源之子也。源驍勇有將材，萬曆中，數從征調有功，巡撫

되어 內閣의 首輔가 되었다. 그러나 만년에 張璠·桂萼과 불화하여 이들의 공격을 받아 사직하였으며, 친 구들과 魚山에서 自選하다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文襄이며, 『楊文襄公集』·『關中奏議』·『石滄詩鈔』 등의 저서를 남겼다.

- 65) 武定安鎔之亂: 安鎔之亂이라고도 부르는데, 嘉靖 7년(1528)에 왕후의 彝族大土司인 安鎔과 그의 妻家인 武定の 彝族大土司 鳳朝文이 知府 馬性魯의 부당한 歲禮徵收에 항거해서 일으킨 반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86 嘉靖 7년 3월 癸巳條 참조.
- 66) 沐紹勳(?~1536): 沐昆의 아들로 安徽 定遠 사람이다. 부친이 죽자 黔國公의 작위를 이어 받아 正德 16년(1521)부터 嘉靖 15년(1536)까지 黔府를 지키면서 鳳朝文의 직당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死後 太師에 追贈되었고 諡號는 敏端이다.
- 67) 神宗: 명 황조 14대 황제인 萬曆帝 朱翊鈞의 廟號임. 明 穆宗의 셋째 아들로 隆慶 2년(1563) 6세 때 황태자가 되었고 10세 때 아버지 穆宗이 승하하여 계위하였다. 隆慶帝는 죽음에 임박하여 황태자의 선생인 大學士 張居正에게 어린 황제를 보필하도록 유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神宗 萬曆帝의 즉위와 함께 장거정은 내각 首輔의 지위에 올라 독단적으로 전횡한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혁신정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장거정이 죽은 뒤, 황태자 책봉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일어났으며, '萬曆 三大臣'이 일어나 국가체정이 극도로 궁핍해졌거나와 抗租운동도 일상화하는 등 明朝의 정치와 사회는 다시 혼란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동북방면에서는 興京에서 누르하치가 거병하여 중원으로 압승해 왔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던 시기에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三案'사건이 일어났으며 당파싸움의 불씨가 일어났거나와 이로 인해 정치와 사회는 극도로 피폐하게 되었다. 이처럼 國運이 급속히 기울어져 가는 萬曆 48년(1620) 7월에 그는 58세의 나이로 병에 들어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顯皇帝이며, 陵은 定陵이다.
- 68) 滇南: 雲南省의 別稱이다. 雲南은 본래 滇이라 簡稱했는데, 國土의 南部에 위치했기 때문에 滇南이라고도 불렀다.
- 69) 沙定洲의 邊謀에 대한 내용은 佚名, 1986: 34~35, 『沙魯謀逆』 참조.

委以王弄副長官事，繼以征建武功，以安南長官司廢地界之。後征東川·水西·馬龍山等處，全雲南會城，稱首功，累加至宣撫使，時號沙兵，定洲，其仲子也。

사정주(沙定洲)란 자는 왕룡산장관사(王弄山長官司)⁷⁰⁾ 사원(沙源)의 아들이다. 사원은 날썩고 용맹하여 장수가 될 재간이 있었는데, 만력(萬曆)⁷¹⁾ 연간(1573~1619)에 여러 차례 징발되어 정벌에 참여하여 공이 있어, 순무(巡撫)⁷²⁾가 [그에게] 왕룡(王弄)의 부장관(副長官)의 일을 맡겼다.⁷³⁾ 이어서 건수(建水)⁷⁴⁾를 정벌한 공으로 인해 폐지된 안남장관사(安南長官司)⁷⁵⁾의 지역을 그에게 [상으로] 주었다. 이후에 동천(東川)⁷⁶⁾·수서(水西)⁷⁷⁾·마룡산(馬龍山)⁷⁸⁾ 등지를 정토(征討)하고 운남 성성(省城)을 온전히 하여 공(功)이 으뜸이라 칭해졌으며, [공적]이 쌓이고 [봉작(封爵)]이 더해져 선무사(宣撫使)에 이르렀고, 당시 [그가 거느린 군대는] 사병(沙兵)이라 불렀다. 사정주는 그의 둘째 아들이다.⁷⁹⁾

- 70) 王弄山長官司: 元代의 王弄山 大小二部를 洪武 15년(1382)에 弄山長官司로 바꾸어 설치하고 臨安府에 직속시켰는데,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文縣 지역임.
- 71) 萬曆: 명 황조 14대 황제인 神宗 朱翊鈞의 年號임.
- 72) 巡撫: 明清시대의 지방장관으로 總督과 함께 督撫라고 불렀다. 明 초기에는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한 임시직이었으나, 宣德 원간(1426~1434)부터 常設化되어 省 또는 그 일부를 관할하였으며, 명 말에는 20여 개나 되었다. 원래는 文官을 임명하여 주로 民政을 專權하도록 했으나, 이후로 軍事職까지 兼執하고 都御史를 兼하기도 하여, 漕의 布政使, 按察使, 都指揮使를 지휘하는 지방장관으로서 實權을 가지게 되었다.
- 73) 道光『雲南志鈔』, 『土司志』開化府에 보면, 萬曆 48년(1620)에 建水의 土酋 刀春琪가 文陞의 군대와 결탁해 침입하여 五邦 등지를 攻破했는데, 王弄山 土目 沙源이 무리를 이끌고 이를 물리치고 가차 侯와 伯 3명을 베니, 巡撫가 그에게 王弄副長官의 일을 위임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 74) 建水: 建水州를 일컫음. 元代 至元 13년(1276)에 建水州를 설립하여 臨安路에 예속시켰는데, 至元 22년(1285)에 建水州에 臨安廣西道宣撫司를 설치했다. 이후 明代에 臨安路를 臨安府로 고치고, 府治를 建水州로 옮겼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의 建水縣 지역이다.
- 75) 安南長官司: 元代의 捨資千戶를 明 洪武 15년(1382)에 安南長官司로 바꾸었으며, 正德 6년(1511)에 蒙自縣에 편입시켰다가 天啓 2년(1622)에 다시 설치했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蒙自縣 지역이다.
- 76) 東川: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東北部 지역임.
- 77) 水西: 貴州 彝族土官이 管轄한 지역임.
- 78) 馬龍山: 雲南省 昆明市 남부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임.
- 79) 沙源에게는 定海, 定洲, 定漢 3명의 아들이 있었다.

崇禎中，元謀土知州吾必奎叛。總兵官沐天波剿之，調定洲從征。定洲不欲行，出怨言。會奸徒饒希之·余錫朋者連天波金，無以償。錫朋常出入土司家，誇黔府富盛。定洲心動，陰結都司阮顯嘉諸人爲內應。既定洲入城辭行，天波以家諱日不視事，定洲喙而入，焚劫其府。天波聞變，由小竇遁。時寧州土司祿永命在城，方巷戰拒賊，從官周鼎止天波，留討賊。天波疑鼎爲定洲誘已，殺之，其母妻皆走城北自焚死。定洲據黔府，盤踞會城。劫巡撫吳兆元，使題請代天波鎮滇，傳檄州縣，全滇震動。祿永命與石屏州龍在田俱引所部去。

승정(崇禎)⁸⁰⁾ 연간(1628~1644)에 원모(元謀)⁸¹⁾의 토지주(土知州) 오림규(吾必奎)⁸²⁾가 반기를 들었다.⁸³⁾ 총병관 목천파(沐天波)⁸⁴⁾가 그를 초토(剽討)하려는데, 사정주를 정발하여 정도(征討)에 따르도록 했다. 사정주는 출정하려 하지 않고서 원망하는 발언을 하였다. 마침 간사한 무리인 요희치(饒希之)·여석봉(余錫朋)이라는 자가 목천파에게 돈을 체납하고 값을 방법이 없었다. 여석봉은 늘 도사의 집에 출입을 하였는데, 검부(黔府)가 부유하다고 떠벌렸다. 사정주는 마음이 움직여 도사(都司)⁸⁵⁾ 완운가(阮韻嘉) 등 여러 사람과 비밀리에 결탁하여 내응(內應)하였다. 사정주가 성에 들어갔다가 작별을 고하고 나온 후에, 목천파가 집안에서 끼리는 날이어서 일을 보지 않아 사정주는 떠들어대며 들어가 검부를 불사르고 검략(劫掠)하였다.⁸⁶⁾ 목천파는 변고를 듣고서 작은 하수구를 통해 달아났다. 당시 영주(寧州)⁸⁷⁾ 도사

80) 崇禎: 명 마저막 황제인 思宗 朱由檢의 연호이다.

81) 元謀: 지금의 雲南省 楚雄彝族自治州 元謀縣임.

82) 吾必奎(?~1645): 元謀縣 사람으로 傣族이며, 世襲土司였다. 그의 家族은 300여 년간 元謀를 통치했으며, 元·명시기에 6명이 世襲土知縣, 4명이 土巡捕를 지냈다. 그는 性格이 強悍하고 謀略이 있으며, 兵法를 잘 알아 전투에 능했다. 그러나 그는 順治 2년(1645)에 沐天波에 不服하고 반기를 들었으나 겨우 한 달 만에 사로잡혔다.

83) 吾必奎의 반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佚名, 1986: 32~34, 『必奎作叛』 참조.

84) 沐天波(?~1661): 黔寧王 昭靖 沐英의 11世孫이다. 崇禎 3년(1630)에 부친 沐啓元이 죽자 黔國公의 작위를 이어받고 征南將軍을 겸임하였다. 明末 永曆帝 朱由榔을 따라 緬甸으로 들어갔으며, 『泥水의 때』 때에 緬甸의 병사들에게 붙잡혔는데 이들 병사들의 칼을 빼앗아 저항하다가 射殺당했다.

85) 都司: 都指揮使司를 일컫으며, 一省의 軍政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都指揮使(正二品) 1명, 都指揮同知(從二品) 2명, 都指揮僉事(正三品) 4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본문의 都司는 內容상 宣慰使司에 속해 있는 正八品의 都事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土司) 녹영명(祿永命)이 성 안에 있었는데 바로 거리에서 싸우며 적을 막았고, 종관(從官) 주정(周鼎)이 목천파를 저지하고서 남아 적을 토벌하였다. [그런데] 목천파가 주정이 사정주를 위해 자기를 유인한다고 의심하여 그를 죽이니, 그의 어머니와 처가 모두 성 북쪽으로 도주하여 스스로 불살라 죽었다. 사정주는 검부를 쫓겨하고 성성(省城)을 차지하여 지켰다. [그리고] 순무 오조원(吳兆元)⁸⁸⁾을 검박하여 [자신이] 목천파를 대신해 진(滇)을 진수하도록 하는 주청을 올리도록 하고, 격문을 각 주와 현에 전하니, 진(滇)의 진 지역은 놀라 진동했다. 녹영명(祿永命)은 석병주(石屏州)⁸⁹⁾의 용재진(龍在田)과 함께 모두 소속 부락의 무리를 이끌고 떠나버렸다.

天波走楚雄，倉滄副使楊畏知奉調駐城中，謂天波曰：「公何不走永昌，使楚得爲備，而公在彼犄角，首尾牽制之，上策也。」天波從之。定洲至楚雄，城閉不得入，乃去。遣其黨王翔·李日芳等，攻陷大理·蒙化。畏知乘間撤城外居民盡入城，築障渡險，調土·漢兵守之。定洲聞祿永命等各固守，不敢至永昌，恐畏知截其歸路，急遣兵攻楚雄。畏知坐城樓，賊發巨砲擊之，煙焰籠城，衆謂畏知已死，而畏知端坐自如，賊相驚謂神。畏知伺賊間，輒出奇兵殺賊甚衆，賊引去，攻石屏不下，還攻寧州，祿永命戰死。賊計迫東稍穩定，乃復攻楚雄，分兵爲七十二營，環城掘濠，爲久困計。

목천파는 초웅(楚雄)⁹⁰⁾으로 달아났으며, 금창(金滄)⁹¹⁾ 부사(副使) 양위지(楊畏知)가 명을

86) 順治 2년(1645) 12월의 일이다. 康熙『雲南府志』卷5 『沿革志』 참조.

87) 寧州: 지금의 雲南省 玉溪市 華寧縣 寧州鎮임.

88) 吳兆元(?~1644): 福建省 興化府 莆田縣 사람으로, 字는 公業이다. 萬曆 41년(1613)에 進士에 급제하여, 確山縣令에 제수되었다. 이후 韶州府 知府를 거쳐 廣東參政이 되었고, 崇禎 원년(1628)에 江西左布政使로 승진한 이후 崇禎 3년(1630)에 江西副使, 江西按察使, 崇禎 4년(1631)에 廣東右布政使를 거쳐 雲南左布政使로 개임하였으며, 崇禎 12년(1639)에 雲南巡撫가 되었다.

89) 石屏州: 元나라 때에 石平州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石屏州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西北쪽에는 寶秀關 巡司가 있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石屏縣 지역이다.

90) 楚雄: 楚雄府를 일컫음. 洪武 15년(1382)에 威楚 開南路를 바꾸어 楚雄府라 했으며, 楚雄·定遠·廣通·大姚 등 4縣과 鎮南·南安·姚 등 州를 관할했다. 지금의 楚雄彝族自治州의 남부 일대임.

91) 倉滄: 金滄道를 일컫는데, 雲南省 내 개의 分道 중 하나로, 金沙江과 瀾滄江에 위치하며, 大理·永昌·鶴

발돋고서 성 안에 주둔하여 지키고 있었는데, 목천과에게 말하기를, “공(公)은 어찌 영창(永昌)으로 달아나지 않고 초웅에서 방비하도록 했소이까? 공이 이곳에서 앞뒤로 협공하여 사정주를 견제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오”라고 하니, 목천과가 이를 따랐다. 사정주가 초웅에 이르렀는데, 성이 닫혀 들어갈 수 없자 이내 가버렸다. [사정주는] 그의 무리인 왕상(王翔)·이일방(李日芳) 등을 보내 대리(大理)·몽화(蒙化)⁹²를 공격하여 함락했다. 양외지는 이 틈을 타 격문을 보내 성 밖에 거주하는 백성 모두를 성 안에 들어오도록 하여 성가퀴를 쌓고 해자(壕字)를 깊이 팠으며, 토병(土兵)과 한병(漢兵)을 징발하여 이를 지켰다. 사정주는 녹영명 등이 각기 굳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영창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양외지가 그들의 귀로를 끊을까 염려하여 급히 군대를 돌려 초웅을 공격했다.⁹³ 양외지가 성루(樓城)에 앉아 있는데, 적이 큰 포(砲)를 발사해 그를 공격하여 연기와 불꽃이 성의 망루에 가득 앉으며, 무리들이 양외지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양외지가 태연하게 정좌하고 있음으로 적은 서로 놀라 [그를] 신(神)이라고 말하였다. 양외지는 적들의 틈새를 엿보고서 갑자기 기병(奇兵)⁹⁴을 내보내 수많은 적을 죽였다. 적이 물러나 석병(石屏)을 공격하였으나 황복시(黃復時)가 무자(無子)를 공격하였는데, 녹영명이 진사하였다. 적은 동쪽으로 조금 안정되었다고 여기고 다시 초웅을 공격하였다. 군대를 나누어 72영(營)으로 편성하고, 성을 둘러 해자를 파고서 오랫동안 포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會張獻忠死，其部將孫可望率餘衆由遵義入黔，稱黔國焦夫人弟來復仇。民久困沙兵，喜其來，迎之。定州解楚雄圍，迎戰於草泥關，大敗，遁阿迷。可望破曲靖及交水，俱屠之。遂由陸涼·宜良入雲南城，分遣李定國徇迤東諸府。而可望自率兵西出，畏公禦於啓明橋，兵敗，被執。可望聞其名，不殺，語之曰：「吾與爾共討賊，何如？」畏知要以三事：「不用獻忠偽號，不殺百姓，不擄婦女，吾從爾。」可望皆許之。即折

慶 麗江·順慶·永寧·蒙化 등 7府와 北勝州·瀾滄南을 관할했다.

92) 蒙化: 蒙化府를 일컫는다. 유나라 때는 蒙化州였고 大理路에 속했는데, 正統 13년(1448)에 蒙化府로 승격시켜 布政司에 예속케 했다. 지금의 雲南省 巍山彝族自治州 지역이다.

93) 이 당시 楚雄防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佚名, 1986: 35~36, 「堅守楚雄」에 있음.

94) 奇兵: 奇襲을 주로 하는 군대를 말함.

箭相誓，乃以書論天波如長知言，天波亦來歸。而李定國之徇臨安者，定洲部目李阿楚拒戰盡力。定國穴地置砲，砲發城陷，遂入。驅城中官民於城外白場殺之，凡七萬八千餘人，斬獲不與焉。當時皆意定國破臨安，必襲阿迷，取定洲，乃僅掠臨安子女而回，所過無不屠滅。逸西以長知在軍，得保全。

마침 장헌충(張獻忠)⁹⁵이 죽었는데, 그의 부장(部將) 손가망(孫可望)⁹⁶이 남아 있는 무리를 이끌고 준의(遵義)⁹⁷를 거쳐 검(黔)⁹⁸에 들어와서는 검국(黔國) 조부인(焦夫人)의 동생이

95) 張獻忠(1606~1646): 字는 秉忠이고, 號는 敬軒이며, 萬曆 34년(1606)에 陝西省 延安縣 柳樹灣의 민농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성년이 되어 군대에 들어가 한때 延安府의 捕快가 되었고, 곧 延綏鎮 수비대 병사가 되었다. 그러나 죄를 지어 곤장 100대의 형을 받고 면직되었다. 이후 崇禎 3년(1630)에 王嘉胤이 이끄는 米脂縣의 農民起義軍에 가담하여 八大王이라 칭하였다. 이듬해 王自用的 聯合軍에 참가하여 36營의 하나를 맡아 분투하였다. 崇禎 6년(1633)에 왕자용이 진사하자 高迎祥을 闖王으로 세우고 闖將이 되어 농민군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崇禎 8년(1635)에는 秦陽大會에 참여하여 작전을 논의하고 高迎祥和 함께 東方을 공략하였다. 그러나 곧 李自成과의 분열이 일어나 張獻忠은 長江流域을 공략하고, 李自成은 黃河流域을 공략했다. 崇禎 10년(1637)에 官軍과의 전투에서 패했으며, 이듬해 고립된 그는 官軍에게 거짓 투항하고 谷城(지금의 湖北省 谷城縣)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崇禎 12년(1639)에 다시 명조에 반기를 들고, 四川 지역을 轉戰했다. 崇禎 14년(1641)에는 開縣 黃陵城에서 명군을 크게 패주시키고 襄陽을 격파한 후, 襄王 朱湘銘을 살해하였다. 楊嗣昌은 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자결하였다. 崇禎 16년(1643)에 그는 武昌을 점거하고 大西王이라 칭했으며, 崇禎 17년(1644) 8월에 成都를 격파하고 이곳에서 帝位에 올라 國號를 大西, 元號를 大順이라 하고 成都를 西京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清이 건국되자 順治 3년(1646)에 그는 川北의 西充縣과 鹽亭縣 接境 지점에서 清朝 親王 豪格과 격전을 치루는 중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

96) 孫可望(?~1660): 陝西 米脂縣 사람(일설에는 陝西 延長 사람)으로, 本名은 孫可旺 혹은 孫朝宗라고도 불리는데, 字는 茂堂이고, 號는 蓮山이다. 張獻忠의 義子가 되었고 몸이 날제어서 ‘一堵牆’이라 칭해졌다. 大西政權이 세워져서 平東將軍에 봉해졌으며, 張獻忠이 죽은 후에도 李定國 등과 함께 남은 大西軍을 이끌고 南明세력과 연합하여 清에 대항하였다. 사람들이 난폭하고 투기를 좋아하여 順治 8년(永曆 5년, 1651)에 秦王을 冊封한다고 하고서 南明의 大學士 30명을 擊殺하였다. 이후 李定國과 불화하여 順治 14년(1657)에 貴州에서 군대를 이끌고 雲南으로 들어가 李定國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部將에게 호위려 공격을 당해 곤경에 빠지 결국 清에 투항하였으며, 清兵을 이끌고 滇·黔에 들어와 漢軍 正白旗에 소속되었다. 이후 順治 17년(1660)에 병으로 죽었는데, 일설에는 사냥 중에 清軍에게射殺되었다고도 한다.

97) 遵義: 지금의 貴州省 北部에 위치한 遵義시립.

98) 黔: 貴州省의 簡稱임. 본문에는 ‘入黔’이라 했지만 道光「雲南志鈔」 등에는 ‘入滇’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상 ‘入滇’이 옳다.

인수를 갔으려 한다고 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사정주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어서 그가 오는 것을 기뻐하며 맞이했다. 사정주는 초용의 포위를 풀고서 초니관(草泥關)⁹⁹⁾에서 [손가망이 이끄는 군대를] 맞아 싸웠지만 대패하고 아미(阿迷)¹⁰⁰⁾로 달아났다. 손가망은 곡정(曲靖)¹⁰¹⁾과 교수(交水)¹⁰²⁾를 공파하고 이들을 모두 도륙(屠戮)하였다.¹⁰³⁾ 마침내 육량(陸涼)¹⁰⁴⁾·의량(宜良)¹⁰⁵⁾을 경유하여 운남성(雲南城)에 들어왔으며, 나누어서 이정국(李定國)¹⁰⁶⁾을 보내 동쪽의 여러 부(府)를 초무하였다. 그리고 손가망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나갔는데, 양외지가 계명교(啓明橋)¹⁰⁷⁾에서 [그를] 막다가 패하여 붙잡혔다. 손가망은 그의 이름을 듣고서 죽이지 않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대와 함께 적을 토벌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라고 하자, 양외지가 세 가지 사안을 요구하기를, “장헌충의 거짓 명호(名號)를 사용하지 않고, 백성을 죽이지 않으며, 부녀자를 노략질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를 따르겠노라”고 하니, 손가망은 모두 이를 허락했다. 곧 화살을 꺾어 서로 맹서를 하고 양외지가 말한 내용대로 서신을 보내 목친과도 효유하니, 목친과도 역시 귀부해 왔다. 그런데 이정국이 임안(臨安)을 초무할

때,¹⁰⁸⁾ 사정주의 부장(部將) 이아초(李阿楚)가 온 힘을 다해 막아 싸웠다. 이정국은 땅에 구멍을 뚫어 포(砲)를 거치하고서 포를 발사하여 성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입성(入城)하였다. 성안에 있는 관민(官民)을 성 밖 백장(白場)으로 몰고 가 이들을 죽였는데, 무릇 7만 8천여 명이었고 참살하고 포로로 잡은 자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 당시 모두 이정국이 임안을 공파하고 반드시 아미를 습격하여 사정주를 붙잡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겨우 임안의 자너들만을 약탈하고 들어왔으며, 지나는 곳마다 도륙하여 없애지 않은 곳이 없었다. 서쪽은 양외지가 군중(軍中)에 있어서 보전될 수 있었다.

始定淵跡，屯兵洱草龍，且借安南援自固。會可望與定國不協，聲其罪，杖之百，責以取定淵自贖。定國既至，定淵土目楊嘉方迎定淵就其營宴。定國偵知之，率兵圍營，相拒數日，乃出降。遂械定淵及妻隸數百人回雲南，剝其皮市中。可望遂據滇，而天波卒走死於緬甸。

당초에, 사정주가 돌아와 이혁룡(洱革龍)¹⁰⁹⁾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또한 안남(安南)의 원조를 받아 자신을 굳건히 했다. 마침 손가망이 이정국과 불화하여 그(이정국)의 죄를 선포하고 장(杖) 백(百)에 사정주를 붙잡는 것으로 속죄하도록 했다. 이정국이 이윽고 이르렀는데, 사정주의 토목(土目)¹¹⁰⁾ 양가(楊嘉)¹¹¹⁾가 마침 사정주를 영접하여 그의 영(營)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이정국은 이를 정담하여 알아차리고 군대를 이끌고 영(營)을 포위하고는 서로 수일간 싸웠는데, 곧 [이들을] 나와서 항복하였다. 마침내 사정주 및 [그의] 처 만씨(萬氏)와 수백 명을 형구(刑具)에 채워 운남으로 돌아와 시가지에서 그의 가족을 벗겼다.¹¹²⁾ 손가망은

- 99) 草泥關: 『明史』卷46 「志」22 地理7에 보면 草泥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의 彌勒과 路南縣이 접하는 지역에 있었다.
- 100) 阿迷: 阿迷州를 일컫는다. 元代에 阿寧萬戶라 했는데, 洪武 15년(1382)에 阿迷州를 설치하여 臨安府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開遠市 지역이다.
- 101) 曲靖: 曲靖軍民府를 일컫으며,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지역이다.
- 102) 交水: 交水縣을 일컫으며,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富源縣 지역이다.
- 103) 이와 관련한 내용은 佚名, 1986: 37~38, 『流寇入滇』에 보임.
- 104) 陸涼: 六涼, 陸良이라고도 불리는데, 洪武 30년(1398)에 六涼衛(陸涼衛)가 설치되었다.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陸良縣 지역이다.
- 105) 宜良: 宜良縣을 일컫으며,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宜良縣임.
- 106) 李定國(1621~1662): 字는 鴻遠, 寧字이며, 陝西 延安 사람(일설에는 榆林 사람)이다. 張獻忠의 義子가 되어 安西將軍에 봉해졌다. 隆武 2년(1646)에 張獻忠이 죽자 孫可望 등과 함께 南明 세력과 연합하여 清에 대항했다. 永曆 6년(1652)에 廣西에 돌아와 桂林을 함락하고 北上하여 연이어 永州와 衡陽을 함락시킴으로 清으로 하여금 西南 7개 省을 방기하도록 했다. 그런데 孫可望의 시기와 절투로 廣西로 되돌아왔으며, 다시 雲南에 주둔하였다. 永曆 10년(1656)에 비밀리에 永曆帝를 맞아 滇에 들어갔고, 晉王에 봉해졌다. 이후 孫可望이 清에 투항하여 西南防務의 機密이 모두 새어 나가게 되었고, 淸軍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다. 戰勢가 불리해진 그는 緬甸으로 들어갔으며, 永曆 16년(1662)에 永曆帝가 被殺되자憤에 病을 얻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
- 107) 啓明橋: 雲南省 楚雄彝族自治州 綠勸縣城의 남쪽 5km에 위치해 있으며, 明 天啓 연간(1621~1627)에 처음 건설되었다.

- 108) 孫可望은 李定國과 劉文秀를 보내 臨安을 공략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佚名, 1986: 42~44, 『東略臨安』 참조.
- 109) 洱革龍: 다른 서적에는 洱革龍으로 기재되어 있다. 阿迷(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開遠市 지역)의 東山에 위치하는데, 9개의 山이 있어 매우 험준한 곳이며, 소수민족이 살던 곳으로 溪鳥라고도 불린다.
- 110) 土目: 土司制度 下에서 土司에 隸屬된 一種의 官銜이다. 封土와 軍隊 등을 융유하여 文武를 兼理하는 비교적 높은 지위이며 世襲職인데, 그들의 권력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 111) 楊嘉: 道光 『雲南志』 등에 楊嘉賓으로 기재되어 있다.
- 112) 이상의 내용은 佚名, 1986: 48~50, 『政圖安治』를 참조.

이욱고 전(演)을 점거하였고, 목천과는 결국 도망하여 먼진(緬甸)¹¹³에서 죽었다.

大理 대리

大理, 唐葉榆縣地也. 麟德初, 置姚州都督府. 開元末, 蒙詔皮羅閣建都於此, 爲南詔, 治太和城. 至開羅鳳, 號大蒙國. 異牟尋改大禮國. 其後, 鄒賈賜·趙善政·楊千貞互篡奪, 至五代晉時, 段思平得之, 更號大理國. 元憲宗取雲南, 至大理, 段智興降附, 乃設都元帥, 封智興爲摩訶羅囉, 管領八方. 又以劉時中爲宣撫使, 同智興安輯其民.

대리(大理)는 당나라 때 엽유현(葉榆縣) 지역이다. 인척(麟德)¹¹⁴ 초에 요주도독부(姚州都督府)를 설치했다. 개원(開元)¹¹⁵ 말에 몽조(蒙詔)¹¹⁶의 피라각(皮羅閣)¹¹⁷이 이곳에 도성을

- 113) 緬甸: 지금의 미얀마를 가리킨다. 미얀마는 1044년에 통일 국가를 형성한 이후, 1278년에 원 왕조가 緬中行省을 설치함으로써 200여 년에 걸친 파간(Pagan) 왕조의 통치가 종식되었다. 몽골의 원 왕조가 패망한 후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따웅우(Taungoo) 왕국(1531~1752)에 의해 통일되었다.
- 114) 麟德: 唐 高宗 李治의 年號로, 그 기간은 664년~665년까지이다.
- 115) 開元: 唐 玄宗 李隆基의 年號로, 그 기간은 713년~741년까지이다.
- 116) 蒙詔: 당나라 초기 운남 洱海 지역에서 나타난 6개 부족연맹 중 하나인 蒙舍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6詔는 蒙巽詔·越析詔·施浪詔·道曠詔·浪穹詔·蒙舍詔로 그 중에서 蒙舍詔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南詔라고 불렀다. 649년에 티베트·미얀마계 部族인 烏의 細奴邏가 蒙舍詔를 일으켜 大蒙國을 세웠고, 독자적으로 唐과 修交하였다.
- 117) 皮羅閣(?~748): 皮邏閣이라고도 한다. 南詔國 제1대 王인 盛邏皮의 아들로, 728년에 부친이 병으로 죽자 왕위를 계승했으며, 東洱海嶽을 공격하여 河東州를 설치했다. 唐 玄宗은 그를 台登那王에 봉했다. 729년 2월에 唐朝는 吐蕃을 격파하고 昆明 鹽源(지금의 雲南 鹽源)을 손에 넣었는데, 6詔 중 道曠詔·浪穹詔·施浪詔 및 河隴依가 吐蕃에 의부하고, 越析詔·蒙巽詔 및 蒙舍詔(南詔)가 唐에 귀부했다. 당시 南詔는 세력이 강했고, 六詔를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唐朝는 吐蕃과의 邊患을 염려하여 南詔가 각 부족을 통일하는 것을 도왔다. 결국 開元 26년(738)에 皮羅閣은 唐의 지원을 받아 五詔를 겸병하였는데, 唐朝는 그에게 雲南王의 작위를 수여했으며 蒙歸義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이후 그는 西洱河(지금의 洱海) 지역을 근거지로, 南詔國을 건립하고 이듬해 太和城(지금의 雲南省 大理市 太和村)으로 遷都하였으나 748년에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歸義王이다.

세우고 남조(南詔)라 하였으며, 태화성(太和城)¹¹⁸을 치소(治所)로 삼았다. 가라봉(閣羅鳳)¹¹⁹에 이르러서 대몽국(大蒙國)이라 불렀는데,¹²⁰ 이모심(異牟尋)¹²¹이 대례국(大禮國)으로 고쳤다.¹²² 그 후로 정매사(鄭賈賜)¹²³·조선정(趙善政)¹²⁴·양간정(楊干貞)¹²⁵이 서로 찬탈했으며, 오대(五代)¹²⁶ 진(晉)¹²⁷나라 때에 이르러 단사평(段思平)¹²⁸이 이 [나라]를 얻어

- 118) 太和城: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大理市 太和村 西蒼山 佛頂峰 山麓에 위치해 있었다.
- 119) 閣羅鳳(712~779): 南詔의 제2대 王으로, 從樂鳳이라고도 불린다. 부친인 皮邏閣을 이어 748년에 계위했다. 그는 일찍이 부친이 六詔를 통일하는 活動에 참여했지만 즉위 후에도 계속해서 세력을 확대시켰으며, 동방의 東巒·西巒을 정벌하여 滇東 지역을 석권하였다. 755년 이후 閣羅鳳은 '安史의 亂'이 일어난 틈을 타 唐朝의 嵩州·姚州·戎州를 침략하여 점거하였고, 769년에 長壽로 改元하였다. 779년에 세상을 떠나자 그의 손자 異牟尋이 뒤를 이었다. 諡號는 神武王이다.
- 120) 大蒙國은 唐 貞觀 23년(649)에 細奴邏가 唐 王朝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나라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처럼 閣羅鳳에 이르러서 大蒙國이라 불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다.
- 121) 異牟尋(754~808): 大曆 14년(779)에 그의 祖父인 南詔王 閣邏鳳이 죽었는데 그의 부친 鳳迦異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조부를 이어 南詔의 제3대 國王으로 즉위했다. 南詔는 일찍이 吐蕃에 귀부했던 것이지만 貞元 10년(794)에 그의 동생 濠羅棟과 淸平官 尹仇寬 등을 唐에 보내 地圖와 吐蕃에게서 받은 金印을 바치고 귀부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唐으로부터 高溪那王에 책봉되었다. 이후 唐에 협력하여 토벌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는데, 元和 3년(808)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尋勳이 繼位하였다. 諡號는 孝桓王이다.
- 122) 大禮國이라 國號를 정한 것은 異牟尋에 의해서 아니고 이후 몇 대를 지나 唐 宣宗 시기 859년에 扈佑가 죽고 그를 이은 坦絳僧龍이 계위해서인데, 그는 860년에 帝를 칭하고 建康으로 改元하였으며, 國號를 大禮라 했다. 『新唐書』 卷222 「南詔下」 참조.
- 123) 鄭賈賜(?~909): 다른 여러 서적에는 鄭賈蘭으로 기재되어 있기나와 鄭賈賜는 誤記로 보인다. 902년에 南詔의 3대 皇帝인 舜化貞이 죽자, 당시 淸平官으로 專權을 휘두르고 있던 鄭賈賜가 舜化貞의 8개월 된 어린 아들 蒙氏 親族 800여 명을 죽이고 蒙氏 南詔를 망망시켰으며, 大長和國을 세우고서 皇帝를 칭하였다. 그는 909년까지 7년간 재위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鄭仁 뜻이 계위했다. 廟號는 聖祖이고, 諡號는 聖明文武獻德桓皇帝이다.
- 124) 趙善政: 生卒年 未詳. 白蠻의 族人으로 大長和國의 淸平官이 되었는데, 928년에 東川 節度使 楊干貞과 함께 大長和國의 마지막 황제인 鄒隆倉을 죽이고, 大天興國을 세우고 皇帝를 칭했으며, 睿聖으로 改元했다. 그러나 재위 1년만인 다음해에 楊干貞에게 廢立되었다. 諡號는 悼康皇帝이다.
- 125) 楊干貞: 生卒年 未詳. 大長和國의 東川 節度使로 928년에 淸平官 趙善政과 함께 남조의 황제 鄒隆倉을 시해하고 大天興國을 세웠으나 이듬해(929)에 그는 황제가 된 趙善政을 폐하고 자립하여 大義寧國을 세웠다. 그러나 그 역시도 937년에 海通 節度使인 段思平에 의해 폐립이 되고, 이후 大理國에 세워졌다. 그의 諡號는 肅恭皇帝이다.
- 126) 五代: 五代十國時代의 簡稱이다. 5대10국시대는 唐이 멸망한 이후부터 사이 건국되기까지, 즉 907년에서 960년까지 54년간의 시대이다. 이 시기는 분열의 시대로 中原地區에는 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

대리국(大理國)¹²⁹⁾으로 바꾸어 불렀다. 원나라 헌종(憲宗, 1209~1259; 재위 1251~1259)¹³⁰⁾이 운남을 취하고 대리에 이르자 단지흥(段智興)¹³¹⁾이 투항하여 귀부하였으며, 이에 도원수(都元帥)를 설치하고 단지흥을 마가라차(摩訶羅嵯)¹³²⁾에 책봉하여 팔방(八方)을 관령(管領)하도록 했다. 또 유시중(劉時中)을 선무사(宣撫使)로 삼아 단지흥과 함께 그곳 백성을 안무하도록 했다.

동 5개 왕조가 교세했고, 서蜀·江南·嶺南과 河東에는 10개의 정권이 할거했다.

- 127) 晉: 五代의 다섯 왕조 중 石敬瑭(後晉의 高祖)이 건국한 後晉(936~947)을 일컫는다.
- 128) 段思平(893~944): 大理 喜脣(지금의 喜洲) 사람으로, 大理國을 세운 인물이다. 그의 가족은 世代로 南詔의 武將이며, 부친은 段實龍이다. 段思平은 軍功을 쌓아 通海節度使가 되었다. 그런데 趙善政의 位를 찬탈하고 大義寧國을 세운 楊干貞이 그를 죽이려하였다. 이에 그는 937년에 滇東 烏蠻 三十七部の 도움을 받아 楊干貞을 몰리쳐 大義寧國을 멸하고 大理國을 세웠으며, 文德이라 建元하였다. 그런데 그는 944년에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神聖文武帝, 廟號는 太祖이다.
- 129) 大理國: 중국 송나라 때 雲南 지역에 존속한 왕국으로, 938년 段思平이 南詔(649~902)를 계승하여 세웠으며, 300여 년간 존속하다가 1253년 몽골제국 쿠빌라이(忽必烈, Kubilai)칸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段思平은 白蠻이라고 불리는 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大理國은 南詔의 정치체제와 행정조직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그 영역은 북쪽으로는 四川省 서부,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 서쪽으로는 인도와 미얀마, 동쪽으로는 貴州省과 廣西省의 일부에까지 미쳤다. 대리국에서는 佛教가 융성하였다.
- 130) 元 憲宗: 칭기스칸의 손자이며 툴루이(拖雷, Tolui)의 장자로, 1251년 定宗 구유크(貴由, Güyük)칸을 뒤이어 몽골제국의 제4대 칸에 오른 몽케(蒙哥, Mongke)칸의 廟號이다. 원종은 칸위에 오르기 전 몽골칸의 유립 원정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칸위에 올라서 카라코름(和林, Karakorum)을 중심으로 큰 변역을 누렸으며, 몽골제국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켰다. 1255년에 동생 훌라구(Huilaq)로 하여금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게 하였으며, 1258년에 암바스 왕조를 멸하고 일칸국(Ilkhanate)을 건설하였다. 그런가 하면 바로 밑 동생인 쿠빌라이(忽必烈, Kubilai)와 함께 남송정벌에 착수하였고, 1259년에는 고려를 항복시켰다. 그러나 남송정벌을 강행하는 중에, 四川까지 진군하였으나 병을 얻어 1259년에 세상을 떠났다.
- 131) 段興: 大理國의 皇帝로, 1172년~1200년까지 28년간 재위하였다. 특히 그는 재위 기간 중에 佛堂를 크게 건조했는데, 60여 座의 寺院을 세웠다. 廟號는 宣宗이고, 諡號는 功極皇帝이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언나라 憲宗 때에 투항한 大理國의 황제는 段興智로, 본문의 段智興은 段興智의 誤記로 보인다. 段興智는 段祥興의 아들로 大理國의 마지막 皇帝이다. 1251년에 즉위하여 1254년까지 3년간 재위하였으며, 定天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는 몽골족에 투항하였지만 이후로 7년간 大理를 통장하였다. 死後 蒙古는 그에게 向義天定賢王이라는 諡號를 내렸다.
- 132) 摩訶羅嵯: 몽골 왕조가 大理 段氏에게 내린 封號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徐琳의 고증에 의하면, 印度 梵語의 '大王'이 아니고 또한 梵語의 '摩何羅羅'도 아니며, 華語의 '大天神'을 가리키는데, 白語의 뜻으로는 '蒙家虎氏'이라 한다(徐琳, 1996 참조).

段氏有大理, 傳十世至寶。聞太祖開基江南, 遣其叔段良由會川奉表歸款。洪武十四年, 征南將軍傅友德克雲南, 授段明爲宣慰使。明遣都使張元亨詣征南將軍書曰:「大理乃唐交綏之外國, 鄩閩賞宋斧耒之除邦, 難列營屯, 徒勞兵甲。請依唐·宋故事, 寬我蒙·段, 奉正朔, 佩筆耒, 比年一小貢, 三年一大貢。」友德怒, 辱其使。明再貽書曰:「漢武冒戰, 僅置益州。元祖親征, 祇緣鄩閩。乞賜班師。」友德書答曰:「大明龍飛淮甸, 混一區宇。陋漢·唐之小智, 卑宋·元之淺圖。大兵所至, 神龍助陣, 天地應符。汝段氏接武蒙氏, 運已絕於元代, 寬延至今。我師已殲梁王, 報汝世仇, 不降何待?」

단씨(段氏)가 대리(大理)를 점유했는데, 10세대(世代)가 전하여 단보(段寶)¹³³⁾에 이르렀다.¹³⁴⁾ [이때 그는 명(明)] 태조(太祖, 1328~1398; 재위 1368~1398)¹³⁵⁾가 강남(江南)에서

- 133) 段寶: 段功의 長子로, 1365년에 부친이 죽자 大理總管의 직을 이어받았고, 1381년에 병으로 죽을 때까지 15년간 大理를 다스렸다. 그가 죽은 뒤 그의 아들 段明이 뒤를 이었다.
- 134) 大理總管府는 1257년에서 1387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世系는 天定賢王(段興智)을 뒤이어 段寶, 段忠, 段慶, 段正, 段隆, 段俊, 段義, 段光, 段功, 段寶, 段明, 段世로 이어졌다.
- 135) 太祖: 명 왕조를 창업한 洪武帝 朱元璋을 가리킨다. 그는 아버지 朱世宗(朱五四라고도 불림)과 巫術師 陳氏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막내아들로 1328년에 태어났다. 그의 처음 이름은 興宗(重八라고도 불림)이었으나 郭興의 사위가 되면서 元璋으로 개명하였다. 빈궁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7세 무렵 전염병으로 부모와 큰 형을 잃고, 부근에 있는 皇覺寺에 들어가 중이 되어 3년여에 걸친 유랑 생활을 하였다. 이후 그는 至正 12년(1352)에 고향인 濠州(지금의 안휘성 鳳陽縣)에 근거지를 둔 郭興의 紅巾軍에 가담하여 점차 그의 세력을 키워나갔고, 駱子興이 죽은 뒤 실질적으로 駱子興 군단을 이끌면서 강소·안휘·절강 등지를 경략하여 세력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명망이 있는 유학자와 지주들을 대거 흡수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일대 세력을 형성했다는 하연, 白蓮教의 색제도 점차 탈락시켜 나갔다. 이윽고 그는 至正 23년(1363)에 강서 지역에서 漢王을 자칭하며 세력을 넓혀던 陳友諒을 鄱陽湖 위에서 타도하여 화중 지방을 손에 넣었으며, 이어서 2년의 사투 끝에 1367년에 강소 지역에 세력을 떨치며 吳王을 칭하고 있던 張士誠을 그의 근거지인 平江(현재의 蘇州)에서 멸하였다. 이어 그는 원의 군대에 패배 의탁해 와 濠州에 머물고 있던 小明王을 영접해 오는 도중에 양자강 상에서 익사시킨뒤 다음, 1368년 정월에 應天府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고 국호를 大明, 年號를 洪武라 정하였다. 그는 31년의 재위 동안 명 왕조의 기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과 정책을 행했으며, 1398년 윤 5월에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字는 國瑞이고, 諡號는 高皇帝이며, 廟號는 太祖이다.

창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숙부 단진(段眞)을 회천(會川)¹³⁶⁾을 경유하여 보내어 표(表)¹³⁷⁾를 바치고 귀부하였다. 홍무 14년(1381)에 정남장군(征南將軍) 부우덕(傅友德)이 운남을 점령하였으며, 단명(段明)에게 신위사(宣慰使)¹³⁸⁾를 제수했다. 단명이 도사(都使)¹³⁹⁾ 장원형(張元亨)을 파견하여 정남장군에게 서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대리(大理)는 당(唐)의 군대가 이르렀다가 물러난 외국(外國)이며, 선천(鄯闡)은 실로 송(宋) 왕조가 도끼로 떼어낸 통할 밖의 지역으로, 영채(營寨)를 세워 주둔하기 어려우니 군대만 헛수고할 따름입니다. 당·송의 옛 사례에 의거하여 우리 몽(蒙)·단(段)에 관용을 베풀어, 정삭(正朔)¹⁴⁰⁾을 받들고 중화의 진(筵)¹⁴¹⁾을 패용하고서 매년 한 차례 소공(小貢)을, 3년에 한 차례 대공(大貢)을 하도록 청하나이다”라고 하였는데, 부우덕은 노하여 그의 사신을 모욕하였다. 단명이 재차 서신을 보내 아뢰기를, “한무(漢武)¹⁴²⁾는 전쟁에 익숙하나 겨우 익주(益州)를 설치했을 뿐입니다. 원조(元祖)¹⁴³⁾는 친히 정벌에 나섰지만 단지 선천(鄯闡)에 접근했을 뿐입니다. 군대를

- 136) 會川: 지금의 四川省 會理縣 서쪽이다.唐나라 때 이곳에 會川縣을 설치했는데,天寶末에 南詔의 소유로 되었다.南詔는 이곳에 都督府를 설치했고,大理國은 府를,元朝는 路를,明朝는 衛를 설치했으며,清代에 이르러서는 이를 폐지했다.
- 137) 表: 황제에게 바치는 문서, 즉 表文을 일컫는다.洪武 14년(1381)에 進賢表 慶禮儀를 정하였는데, 황제의 생일인 天壽聖節과 正旦·冬至에 在外 각 衙門은 미리 상주문(표문)을 바치고 賀禮하였다.天壽聖節인 경우에 在外 五品 이상의 衙門은 단지 表文 1通을 바치고, 正旦·冬至에는 中宮과 皇太子에게 箋文 各 1通을 더 바쳤다.조선·베트남 등도 명조에 입조할 때 표문을 바쳤다.明初에 表文 등으로 인해 朝鮮과 明朝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는 朴元鶴, 2002: 6~30 참조.
- 138) 宣慰使: 唐 憲宗 때 潘青十二州宣慰使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었으나, 늘 두었던 관직은 아니었다.元代에는 宣慰使司를 설치하였는데, ‘宣慰使司都元帥府’나 ‘宣慰司兼管軍萬戶府’라고 불렀고 군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다. 명칭시대에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토리들에게 세습하는 관직으로 수여하였다.
- 139) 都使: 내용상 宣慰使司에 속해있는 正八品의 都事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140) 正朔: 曆法을 가리킨다. 正朔을 받든다는 것은 明朝의 臣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제후가 천자로부터 달력을 하사받아 그에 따라서 정치를 행하였다. 천자의 달력을 사용하는 것은 천자의 통치권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141) 筵: 篆字, 즉 篆書體의 문자를 말한다. 篆書란 중국의 5가지 字體(篆, 隸, 楷, 行, 草書) 가운데 가장 먼저 출현한 서체로, 大篆과 小篆으로 구분된다. 양의의 大篆이란 秦代 이전의 甲骨文, 金文, 籀文과 춘추전국 시기 六國에 통행된 古文을 말하고, 小篆이란 秦나라 始皇帝가 ‘書同文字’한 이후 秦代에 통용된 전서체를 말한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篆은 篆書로 刻印된 印信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 142) 漢武: 漢나라 武帝를 일컫음. 漢 武帝에 대해서는 앞의 注 참조.

철수시켜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자, 부우덕이 회신하여 말하기를, “대명(大明)의 용(龍)이 회하 유역을 날아, 천하를 하나로 합하였다. 한·당의 작은 지혜를 가버어 보고, 송·원의 좁은 계획을 천하게 여기노라. 대병(大兵)이 이르는 곳에 신훘(神龍)이 진영(陣營)을 돕고, 천지(天地)가 부합(符合)하노라. 그대 단씨(段氏)는 몽씨(蒙氏)의 뒤를 이어서 운수(運數)가 이미 원대(元代)에 끊어졌지만, 관용을 베풀어 지금에 이어서 이르렀노라. 우리 군대가 이미 양왕을 섬멸하여 그대에게 세대(世代)의 원수를 갚아주었거늘, 투항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는가?”라고 했다.¹⁴⁴⁾

十五年, 征南左將軍藍玉·右將軍沐英率師攻大理。大理城倚點蒼山, 西臨洱河爲固。聞王師至, 聚衆扼下關。下關者, 南詔皮羅閣所築龍尾關也。號極險。玉等至品甸, 遣定遠侯王弼以兵由洱水東趨上關, 爲持角勢, 自率衆抵下關, 造攻具。遣都督胡海洋由石門間道渡夜河, 繞出點蒼山後, 攀木援崖而上, 立旗幟。昧爽, 軍抵下關者望見, 皆踴躍譁噪。蠻衆驚亂。英身先士卒, 策馬渡河, 水沒馬腹, 將士隨之, 遂斬關入。蠻兵潰, 拔其城, 酋長段世就擒。世與明皆段寶子也。至京師, 帝降諭曰: 「庸父寶曾有降表, 朕不忍廢。」賜長子名錦仁, 授永昌衛鎮撫; 次子名錦義, 授雁門鎮撫。大理悉定, 因改大理路爲大理府, 置衛, 設指揮使司。

[홍무] 15년(1382)에 정남좌장군(征南左將軍) 남옥(藍玉)·우장군(右將軍) 목영(沐英)이

- 143) 元祖: 元나라 世祖를 일컫음. 元 世祖는 칭기스칸의 손자이자 몽골제국 제5대 칸이며, 중국 원나라의 시조인 쿠빌라이(忽必烈, Kubilai)의 중국식 廟號이다. 1251년에 형인 몽케(蒙哥, Möngke)칸이 제4대 칸의 자리에 오르자, 쿠빌라이는 중국 방면의 대총독에 임명되었다. 그는 고비사막 남쪽의 金蓮川을 근거지로 삼고 지금의 雲南省에 있던 大理國을 멸망시켰으며, 티베트와 베트남까지도 공격하였다. 1259년 南宋을 공격하던 4대 칸 몽케가 四川의 병영에서 병사하자, 쿠빌라이는 圍都인 카라코룸(和林, Karakorum)을 지키고 있는 막내아우 아릭 부케보다 먼저 중국의 開平府(上都)에서 大洋의 자리에 올랐으며, 중국식으로 建元하여 中統이라 하였다. 그 뒤로 두 칸이 싸우기를 4년, 마침내 아릭 부케를 공격시킨 쿠빌라이는 도읍을 大都(오늘날의 北京)로 옮기고, 1271년에 나라 이름을 元이라 하였다. 이후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키고 이민국으로서 최초의 중국 통일을 이루었다. 쿠빌라이는 밖으로 미얀마·참파·자바·일본 등을 공격하여,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그 영역 안에 넣었다.
- 144) 이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讀史』 卷10 洪武 15년 3月記에도 있음.

군대를 이끌고 대리를 공격했다. 대리성(大理城)은 점창산(點蒼山)¹⁴⁵에 기대어 있고, 서쪽은 이하(洱河)¹⁴⁶에 임해 있어 견고하였다. 조정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모아 하관(下關)¹⁴⁷을 제압하여 용유했다. 하관은 남조(南詔)의 피라각(皮羅閣)이 쌓은 용미관(龍尾關)인데, 매우 험준하다고 한다. 남옥 등이 품진(品畝)¹⁴⁸에 이르러서 정원후(定遠侯) 왕필(王弼)¹⁴⁹을 보내 군대를 이끌고 이수(洱水)를 경유하여 동쪽으로 향해 상관(上關)으로 나가게 하여 앞뒤로 협공하는 형세를 이루게 하고는, 친히 무리를 이끌고 하관에 이르러 [성을] 공격할 기구를 만들었다. 도독 호해양(胡海洋)을 보내어 석문(石門)을 거쳐 셋길로 달려 야간에 하천을 건너서 점창산(點蒼山)¹⁵⁰ 후면으로 나가 둘러싸고, 나무를 붙잡고 벼랑에 올라

145) 點蒼山: 雲嶺山脈 南端의 主峰으로, 蒼山이라고도 한다.

146) 洱河: 옛 명칭은 葉榆水라고 하며, 洱海·西洱河·昆彌川이라고도 부른다.

147) 下關: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大理市 下關 西北에 위치해 있다. 蒼山과 洱海 사이에 좁고 긴 통로를 가지고 있으며, 옛 南詔國, 大理國 都城의 남쪽 門戶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唐 開元 16년(728)에 南詔(蒙舍諾)의 王 皮羅閣이 六詔를 통일하여 南詔國을 세우고 治所를 太和城(지금의 大理縣 太和村)으로 옮겼다. 大曆 14년(779)에 다시 羊苾詳城(지금의 大理縣)으로 遷都하여 방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로 남쪽 양 끝에 關을 쌓았는데, 북쪽의 것을 上關(혹은 龍首關, 河首關이라고도 부름), 남쪽의 것을 下關(혹 龍尾關, 河尾關이라고도 부름)이라 칭했다. 兩關 사이의 거리는 100리이며 상호 의지하여 도성을 방위하였다. 明 洪武 15년(1382)에 藍玉과 沐英이 大理로 진군했을 때, 酋長 段世가 下關을 버딯목으로 삼아 방어를 굳건히 했지만, 교묘히 군대를 운용하여 下關을 돌파하여 大理를 점령했다. 지금도 下關은 큰 길이 東으로는 昆明, 西로는 保山과 芒市에 이르고 北으로는 麗江 등지로 이르고 있어, 雲南省 西部 交通의 요충지로 일컬어지고 있다.

148) 品畝: 지금의 雲南省 祥雲橋子읍.

149) 王弼(1332~1393): 號는 雙刀王이고, 先代의 孫은 定遠인데, 臨淮(지금의 江蘇省 盱眙縣)에서 출생했다. 그는 오랫동안 雙刀를 사용했기에 사람들은 雙刀王이라 불렀다. 일찍이 朱元璋을 추종하여 宿衛를 썼으며, 이후 湖州에서 張士誠을 공파하고 池州·溧州를 점령하여 守將 鐵木兒不花를 斬殺했으며, 3,000명의 적을 투항시켰다. 元帥로 승임해서도 蘭溪·金華·諸暨·吉安 등지를 공파하고 涇江口에서 陳友諒을 격파했는가 하면 武昌·廣州·安慶·襄陽·湖州 등지를 평정하였으며, 이 공로로 驍騎右衛親軍指揮使에 올랐다. 이후 常遇春과 함께 張士誠을 大破하고 중원 여러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黃河를 건너 陝西를 공파하고 察罕腦兒로進攻하였다. 이 공로로 洪武 3년(1370)에 大都督府僉事에 제수되었다. 洪武 11년(1378)에는 沐英을 따라 西部 지역 정벌에 나서 尕甘 등 여러 부락을 항복시켜 定遠侯에 봉해졌다. 이후로 傅友德을 따라 雲南 정벌전에 나섰으며, 洪武 20년(1387)에는 副將軍으로 馮勝을 따라 北夜에 나서 納哈出를 항복시켰다. 이듬해(1388)에는 藍玉을 따라 出征하여 捕魚兒海로 진군하여 脫古思帖木兒를 물리쳤다. 洪武 25년(1392)에 馮勝·傅友德을 따라 山西·河南 지역에서 練兵했는데, 이듬해에 召還되어 賜死되었다. 『明史』 卷132 「王弼傳」 참조.

150) 點蒼山: 蒼山이라고도 부르며, 雲南省 서북부에 위치한 雲嶺山脈 南端의 主峰이다.

가 뒷발을 세웠다. 동이 틀 무렵, 하관에 도달한 군대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모두 감정이 들떠 뛰고 떠들어댔으며, 만인 무리들은 놀라 혼란스러웠다. 목영이 몸소 사병의 앞에 서서 말을 제적잡하여 도하하였는데, 물이 말의 배까지 차자 장졸(將卒)들이 그를 따랐으며, 마침내 관문을 공파하고 진입하였다. 만인의 군대는 무너지고, 그 성을 빼앗았으며, 추장 단세(段世)는 사로잡혔다.¹⁵¹ 단세와 단영은 모두 단보(段實)의 아들이다. 경사(京師)¹⁵²에 이르자, 황제가 유지(諭旨)를 전하여 이르기를, “너희 부친인 단보가 일찍이 표문을 올려 항복하여, 짐은 차마 폐(廢)하지 못했노라”라고 하고, 장자(長子)에게 귀인(歸仁)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영창위(永昌衛)¹⁵³ 진무(鐵撫)를 제수하였으며, 차자(次子)에게 귀의(歸義)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안문(雁門) 진무를 제수하였다. 대리는 모두 평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리(大理路)를 바꾸어 대리부(大理府)로 하였으며, 위(衛)를 설치하고 지휘사사(指揮使司)를 세웠다.¹⁵⁴

十六年, 品尙土酋杜惠來朝, 命爲千夫長, 命六安侯王志·安慶侯仇成·鳳翔侯張龍督兵往雲南品尙, 繕城池, 立屯堡, 置郵傳, 安輯人民. 十七年以上官阿這爲鄧川知州, 阿散爲大和府正千夫長, 李朱爲副千夫長, 楊奴爲雲南縣丞. 十九年置雲南洱海衛指揮使司, 以賴鎮爲指揮僉事. 洱海, 本品尙也. 兵燹後, 人民流亡, 室廬無復存者. 鎮至, 復城池, 建譙樓, 治廬舍市里, 修屯堡·堤防·斥堠, 又開白鹽井, 民始安輯. 二十年詔景川侯曹夔及四川都司選精兵二萬五千人, 給軍器農具, 卽雲南品尙屯種, 以俟征討.

151) 洪武 15년(1382)에 征南左副將軍 永昌侯 藍玉과 右副將軍 西平侯 沐英이 大理를 정벌한 과정에 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2월 癸卯條 및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15년 2월條 참조.

152) 여기서 京師란 당시 明의 수도인 南京을 지칭한다. 1421년에 永樂帝가 北京으로 천도하기 전에 明初의 수도는 南京이었다. 明代의 행정구역으로 南直隸 應天府에 소속되어 있으며, 長江의 南岸과 맞닿아 있다.

153) 永昌衛: 洪武 18년(1385)에 永昌府(지금의 雲南省 保山市)에 金昌衛를 설치했는데, 洪武 23년(1391) 말에 金昌軍民衛로 고쳤다가 嘉靖 원년(1522)에 永昌衛로 바꾸어 설치했다.

154) 洪武 15년(1382) 3월의 일이다. 『明史』 卷46 「志」 22 地理7 참조.

[홍무] 16년(1383)에 품건(品甸) 토추(土酋) 두혜(杜惠)가 내조(來朝)하니, [그를] 천부장(千夫長)에 임명했다.¹⁵⁵ 육안후(六安侯) 왕지(王志)¹⁵⁶·안경후(安慶侯) 구성(仇成)¹⁵⁷·봉상후(鳳翔侯) 장웅(張龍)¹⁵⁸에게 명하여 군대를 독술(督餉)하여 운남 품건으로 가 성지(城池)를 수선(修繕)하고 둔보(屯堡)를 세우고 역관(驛館)을 설치하여 백성들을 안무하도록 했다.¹⁵⁹ [홍무] 17년(1384)에 토관(土官) 아적(阿適)을 등천(鄧川)¹⁶⁰ 지주(知州)로 삼고 아산

- 155)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3 洪武 16년 4하월 己亥條 참조.
- 156)王志(1335~1386): 臨淮(지금의安徽省 鳳陽) 사람으로, 明 太祖 朱元璋이 처음 起兵할 때에 참여하여 右副元帥에 제수되었다. 이후 鄱陽湖 전투와 張士誠 토벌에 참여하였으며, 大將軍 徐達을 따라 서방정벌에도 참여하여 그 공로로 洪武 3년(1370)에 同知都督府事에 임명되고 六安侯에 봉해졌다. 이후로 漢中 지방에 나가 진수하고, 다시 大將軍을 따라 漢北을 정벌하였으며 승세를 공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洪武 16년(1383)에 군대를 이끌고 雲南 品甸으로 나가 城池를 수선하고, 屯堡와 驛傳을 세워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 洪武 19년(1386)에 세상을 떠났는데, 許國公에 追封되고 諡號는 襄簡이다. 『明史』 卷131 「王志傳」 참조.
- 157) 仇成(1324~1388): 崑山縣 開闢 人 사람으로, 1355년에 太祖 朱元璋이 처음 起兵할 때에 참여하였고, 大將軍 徐達을 따라 江蘇의 溧水·溧陽을 공략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1359년에는 常遇春을 따라 衢州를 공략하는데 큰 공을 세워 統軍大元帥에 임명되었다. 이후 陳友諒에 대한 征討에 나서 涇江에서 적을 섬멸함으로 留守中衛指揮使사에 임명되었고, 이어 張士誠을 폐쇄시키므로 留守左衛指揮使에 임명되었다. 洪武 2년(1369)에는 大都督府 都督使사에 임명되어 遼東에 나가 鎮守하였고, 洪武 11년(1378)에 藍玉의 西征에 대한 논공행상 시에 安慶侯에 봉해졌다. 洪武 14년(1381)에 四川의 少數民族이 叛亂을 일으키자 征南副將軍에 임명되어 이를 평정하였고, 이어 大將軍 傅友德을 따라 雲南을 정벌하였다. 그러나 그해 洪武 21년(1388) 8월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統國公에 追封되고, 諡號는 莊襄이다. 『明史』 卷130 「仇成傳」 참조.
- 158) 張龍(?~1397): 濠州(지금의安徽省 鳳陽) 사람으로, 일찍이 太祖 朱元璋이 처음 起兵할 때에 참여하여 濠州·峯國·婺州·江州·武昌 등지를 공략하는데 공을 세워 花廳千戶에 제수되었다. 이후 張士誠과의 漢口交戰에서 공을 세우고 通州로 진공함으로 威武衛指揮使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山東·河南으로 진군하여, 洪武 3년(1370)에 鳳翔衛指揮에 임명되었고, 徐達을 따라 沔州·興元으로 공격해 들어가 守將 劉德忠을 투항시키고 아울러 吳仁을 격퇴시켰다. 이어 李文忠을 따라 洗州로進攻해 들어갔는데, 이때의 공으로 鳳翔侯에 봉해졌다. 이후로 傅友德을 따라 雲南 征討에 참여하여 大理·鶴慶을 공략했다가 허연 湯勝을 따라 산으로 나가 納哈出을 항복시켰다. 이후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洪武 30년(1397)에 세상을 떠났다. 『明史』 卷130 「張龍傳」 참조.
- 159)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4 洪武 16년 5월 丁卯條 및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16년 5월條 참조.
- 160) 鄧川: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洱源縣 지역이다. 唐 貞元 10년(794)에 南詔가 吐蕃을 공략하고 浪穹·施浪·鄧賧 3縣을 병합하여 浪穹州라 칭했는데, 유나라 憲宗 7년(1257)에 이곳에 鄧川千戶所를 설치했다. 이후 至元 11년(1274)에 鄧川千戶所를 鄧川州로 바꾸었고, 民國 원년(1912)에 鄧川州를

(阿散)을 태화부(太和府) 정천부장(正千夫長)으로 삼았으며, 이주(李朱)를 부천부장(副千夫長)으로 삼고 양노(楊奴)를 운남 현승(縣丞)으로 삼았다.¹⁶¹ [홍무] 19년(1386)에 운남 이해위(洱海衛)¹⁶² 지휘사사를 설치하고 뇌진(賴鑑)을 지휘첨사(指揮僉事)¹⁶³로 삼았다. 이해(洱海)는 본래 품건(品甸)이다. 전쟁이 끝난 후, 백성들은 유망하고 가옥은 완전한 것이 없었다. 뇌진이 이르러서 성지(城池)를 복구하고 망루를 세웠으며, 시가지에 집들을 짓고 둔보(屯堡)·계방(塊防)·척후(斥堠)를 수리하고 또 백염정(白鹽井)을 파니, 백성들은 비로소 편안해지게 되었다.¹⁶⁴ [홍무] 20년(1387)에 경천후(景川侯) 조진(曹震)¹⁶⁵과 사천(四川)¹⁶⁶ 도사(都司)에게 조서를 내려 정병(精兵) 2만 5천 명을 선발해서 [이들에게] 군기(軍器)와 농기구를 주어 곧 운남 품건에 주둔하여 개간토록 하고서, 정토(征討)를 기다리도록 하였다.¹⁶⁷

永樂以後，雲南諸土官州縣，率按期入貢，進馬及方物，朝廷賜予如制。嘉靖元年改十二關長官司於一泡江之西，從巡撫何孟春奏也。

영락(永樂)¹⁶⁸ 연간(1403~1424) 이후, 운남의 여러 토관(土官)[이 다스리는] 주와 현이

- 鄧川縣으로 바꾸었다.
- 161)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9 洪武 17년 춘정월 壬子條 참조.
- 162) 洱海衛: 洪武 19년(1386)에 雲南縣(지금의 大理白族自治州 鶴慶縣)에 설치하였다.
- 163) 指揮僉事: 從三品의 관직으로 京衛指揮使司가 관할하였다.
- 164)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77 洪武 19년 4하월 癸丑條 참조.
- 165) 曹震(?~1393): 濠州(지금의安徽省 鳳陽) 사람으로, 어린 나이에 太祖 朱元璋의 起兵에 참여하여 指揮使에 임명되었다. 洪武 12년(1379)에 西征에 대한 논공행상에서 景川侯에 봉해졌고, 이후 藍玉을 따라 雲南 征討에 나가 臨安·威武 등지를 공격해 점령하였다. 이후 洪武 21년(1388)에 葉昇과 함께 東川叛亂을 평정하였으나 이후 곧 '藍玉의 案'에 연루되어 그의 아들 曹炳과 함께 誅殺되었다. 『明史』 卷132 「曹震傳」 참조.
- 166) 四川: 『尚書』 禹貢의 梁·荊二州의 지역이다. 元代에 四川等處行中書省을 두었고, 羅羅蒙慶等處宣慰司를 설치하여 雲南行中書省에 예속했다. 洪武 4년(1371)에 明夏정권의 明유를 평정하고, 다음 달에 四川等處行中書省을 설치하였는데, 招討司 1·宣慰司 2·安撫司 5·長官司 22곳 및 諸衛所를 관할하였다.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고, 府 13·直隸州 6·宣撫司 1·安撫司 1·屬州 15·縣 111·長官司 16곳을 관할하였다.
- 167)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84 洪武 20년 8하월 癸酉條 및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의 洪武 20년 4하월 庚申條 참조.

모두 기일을 살피 입공(入貢)하여 말과 방물(方物)¹⁶⁹⁾을 진헌하니, 조정은 예제(禮制)에 따라 상을 내렸다. 가정(嘉靖)¹⁷⁰⁾ 원년(1522)에 십이관장관사(十二關長官司)를 일포강(一泡江)¹⁷¹⁾의 서쪽으로 바꾸어 옮겼는데, [이는] 순무 하맹춘(何孟春)¹⁷²⁾의 주청에 따른 것이다.¹⁷³⁾

臨安 임안

臨安, 古句町國. 漢置縣. 唐爲羈縻州地. 天寶末, 南詔蒙氏於此置通海郡. 元時內附, 置阿樊部萬戶府. 至元中改臨安路, 屬臨安·廣西·元江等處宣慰司.

임안(臨安)은 옛 구정국(句町國)이다. 한나라 때에 현(縣)을 두었다. 당나라 때는 기미(羈

168) 永樂: 명 왕조 3대 황제인 成祖 朱棣의 年號임.

169) 方物: 지역의 특산물을 가리킨다.

170) 嘉靖: 명 왕조 12대 황제인 世宗 朱厚熜의 年號임.

171) 一泡江: 雲南 鮮雲縣 北梁王山에서 흐르는 원류가 남으로 흘러 九鼎山에 이르러서 3개의 지류로 갈라진다. 그 중 남쪽으로 흐르는 줄기는 萬花溪를 이루고, 동남쪽으로 흐르는 줄기는 靑龍海를 이루며, 동북쪽으로 흐르는 줄기는 品甸海를 이루는데, 靑海水가 靑龍海와 함께 동쪽으로 흐르다 북으로 꺾어 一泡江을 이루고, 동북으로 你旬河와 만나며, 姚安縣에 이르러 金沙江에 이거진다.

172) 何孟春(1474~1536): 字는 子元이고, 湖廣 郴州(지금의 湖南省 郴州市) 사람이다. 弘治 6년(1493)에 進士에 급제하여 兵部主事에 제수되었으며, 施政에 대한 많은 上書와 諫言을 했다. 이후 貢外郎·郎中이 되어 陝西의 馬政을 잘 관리했으며, 京師에 돌아와 弊端을 시정하기 위한 方略을 上言했는데 가 하면 직무를 소홀히 한 巡撫大臣을 탄핵하였다. 正德 연간(1506~1521)에 들어 河南參政을 거쳐 太僕寺少卿·永樂寺卿에 올라서도 많은 諫言을 하였고, 右副都御史의 신분으로 雲南의 巡撫가 되어 十八寨의 蠻人 阿勿·阿寺 등이 일으킨 叛亂을 평정하였으며, 永昌府의 설립과 五個 長官司·五個 守衛司의 增設을 奏請하였다. 嘉靖 연간(1522~1566)에 南京兵部右侍郎을 거쳐 吏部右侍郎에 임명되었고, 蘇州府·松州府의 災害를 잘 극복하여 吏部左侍郎을 거쳐 吏部尚書에 올랐다. 그러나 ‘大禮의 議’ 사건에서 그는 世宗 嘉靖帝의 ‘改變皇考’에 반대 상소를 올렸고, 이로 인해 南京工部左侍郎으로 좌천되었는데, 이후 사임하여 집안에서 칩거하다 세상을 떠났다. 隆慶 初에 禮部尚書에 追贈되고 諡號는 文簡이다. 『明史』 卷191 「何孟春傳」 참조.

173)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14 嘉靖 원년 5월 甲戌條 참조.

縻)¹⁷⁴⁾ 가주(荊州)의 지역이다. 천보(天寶)¹⁷⁵⁾ 말에 남조(南詔) 몽씨(蒙氏)가 이곳에 통해군(通海郡)을 설치했다. 원나라 때에 조정에 귀부하여, 아북부(阿樊部) 만호부(萬戶府)를 설치했다. 지원(至元)¹⁷⁶⁾ 연간(1264~1294)에 임안로(臨安路)로 고치고, 임안(臨安)·광서(廣西)·원강(元江) 등처선위사(等處宣慰司)에 예속시켰다.

洪武十四年, 征南將軍下雲南, 遣宣德侯金朝興分道取臨安. 元右丞兀卜台·元帥完者都及土官楊政降, 改路爲府, 廢宣慰司, 置臨安衛指揮使司. 十七年以土官和寧爲阿迷知州, 弄甥爲寧州知州, 陸義爲蒙自知縣, 普少爲納婁茶甸副長官; 俱來朝貢, 因給誥敕帶符以命之. 十八年, 臨安府千戶納達丁等來朝, 人賜米十石.

홍무 14년(1381)에 정남장군이 운남을 함락시키고서 선덕후(宣德侯) 김조흥(金朝興)¹⁷⁷⁾을

174) 羈縻: 羈는 말의 굴레를, 縻는 쇠고삐를 이어서 통제한다는 의미로, 四夷를 제어하는 것이 牛馬를 羈縻로 부리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듯 속박하고 얻어내는 견제·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민족에 대한 외교정책의 한 방식을 지칭하게 되었다. 漢代에는 주변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려 오면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반방을 공격하면 군사적으로 물리쳤지만, 그들을 공격하여 지배하고 漢人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는 적극정책이나 일체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방임정책도 아닌 일종의 소극적인 외교정책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기미정책의 전형적인 형태는 唐代 전기에서 볼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都羅制를 채택하여 府·州·縣을 두고, 다른 민족의 왕·추장을 都督·刺史·縣令 등에 임명하여 각치하도록 하고, 보호영으로서 都護府 등을 두어 감독하게 하였다. 번장했을 때는 羈縻府·州가 856개나 되었다고 한다. 복시의 돌궐·위구르, 북동의 거란, 중앙아시아의 여러 오아시스로부터 남시의 티베트와 마요족(苗族)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통치하였다.

175) 天寶: 唐 玄宗 李隆基의 年號로, 그 기간은 742년 정월~756년 7월까지이다.

176) 至元: 元나라 때 世祖와 惠宗(順帝) 두 황제가 사용한 年號이다. 여기서 至元 연간은, 世祖 3차에 걸쳐 雲南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던 것과 관련해서(유인선, 2002: 144~150) 世祖 쿠빌라이칸의 연호로 보인다.

177) 金朝興(1331~1382): 安徽省 集縣 사람으로, 俞通海 등과 함께 朱元璋의 起兵에 가담하여 常州·宜興을 공격하는데 공을 세워 左翼副元帥가 되었고, 이후 武昌 등지를 정벌하는데 공을 세워 鎮武衛指揮使가 되었다. 洪武 3년(1370)의 論功行賞에서 都督僉事兼秦王左相에 오르고 후에 都督府사가 되었으며, 大軍을 따라 四川으로 進攻하였다. 3년 뒤에는 黑賊에 전공하여 元나라 太尉 盧伯顏과 平章 帖兒不花 등을 생포하였다. 이후 李文忠을 따라 카라코룸(和林, Karakorum)을 정벌하였고, 洪武 11년(1378)에 沐英을 따라 西征하였으며, 이듬해 論功에서 宣德侯에 봉해졌다. 洪武 15년(1382)에는 傅友德를 따라 雲南 정벌에 참여하여 元나라 右丞 兀卜台·元帥 完者都, 土酋 楊政 등을 항복시켰다. 그러나 이후 舍川으로

보내 길을 나누어 임안을 공격하여 취했다.¹⁷⁸⁾ 원나라 우승(右丞) 올복태(兀卜台·원수(元帥) 완자도(完者都)¹⁷⁹⁾ 및 토관 양정(楊政)이 투항하였고, 노(路)를 고쳐 부(府)로 하였으며, 신위사(宣慰司)를 폐지하고 임안위(臨安衛) 지휘사사(指揮使司)를 설치했다.¹⁸⁰⁾ [홍무] 17년(1384)에 토관 화녕(和寧)을 아미(阿迷)의 지주(知州)로 삼고¹⁸¹⁾ 농생(弄甥)을 영주(寧州) 지주로 삼았으며,¹⁸²⁾ 육선(陸羨)을 몽자(蒙子)¹⁸³⁾ 지현으로 삼고 보소(普少)를 남부차친(納婁茶甸)¹⁸⁴⁾의 부장관(副長官)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모두 조공해 옴으로 고척(誥敕)¹⁸⁵⁾과 관대(冠帶)¹⁸⁶⁾를 주어 이들을 임명했다.¹⁸⁷⁾ [홍무] 18년(1385)에 임안부 천호(千戶)¹⁸⁸⁾ 남속

- 진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死後 新國公에 追封되고, 諡號는 武毅이다. 『明史』 卷131 『金朝興傳』 참조.
- 178) 洪武 14년(1381) 12월에 征南左副將軍 永昌侯 藍玉은 景川侯 曹瑄, 定遠侯 王弼 그리고 宣德侯 金朝興으로 하여금 2만 3천의 군대를 이끌고 가 臨安 諸路를 공격하여 취하도록 했다. 『太祖實錄』 卷140 洪武 14年 12월 甲戌條 참조.
- 179) 完者都(1280~1316; 재위 1304~1316): 完者拔都(Oljeitü)라고도 하는데, 蒙古인이다. 阿魯渾(Arghun)의 셋째 아들이며, 合贊(Ghazan)의 동생으로, 伊兒汗國(Ilkhanate)의 제8대 君主이다. 完者都의 母親 兀魯克哈敦이 네스토리우스(Nestorius)파의 교도여서 그는 일찍이 세례를 받았으나 후에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1304년에 그의 형 合贊이 세상을 떠나자 형을 이어 王位를 계승했다.
- 180)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1 洪武 15년 춘정월 庚戌條 참조.
- 181) 『土官底簿』 卷上 阿迷州知州條에 보면, 和寧은 寧和의 誤記이고 普氏 姓이며, 그는 羅羅人으로 阿迷州 萬戶府 土官을 世襲하고서 洪武 16년(1383) 明에 朝覲하여 阿迷州 知州에 敍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182) 『土官底簿』 卷上 寧州知州條에 보면, 赤那은 寧州의 羅羅人으로 土官을 세습하고, 明에 朝覲하여 洪武 17년(1384) 4월에 知州에 敍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183) 蒙自: 元代 至元 13년(1276)에 建된되었다. 明清時代 蒙自는 雲南과 越南 貿易의 重要 지역이었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蒙自縣이다.
- 184) 納婁茶甸: 納婁茶甸長官司를 일컫는다. 元代에 納婁茶甸千戶를 설치하여 和泥路에 豫속시켰다. 明 洪武 15년(1382)에 明軍이 雲南을 평정하자 納婁茶甸土官 普少가 歷代印符를 바치고 歸順하였는데, 明 朝廷은 그를 納婁茶甸副長官에 敍用했다. 이후 洪武 17년(1384)에 納婁茶甸長官司로 바꾸어 설치했고 臨安府에 豫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建水縣 남쪽 坡頭鄉彝族聚集村에 治所를 두었다.
- 185) 誥敕 誥命 혹은 誥라고도 한다. 황제가 관원을 임명하거나 追贈하는 때 사용하는 문서를 통칭한다. 여기서는 副長官으로 임명하는 사령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明代에 公·侯·伯을 追封할 경우 모두 1등급을 변경하 승진시키는데, 三品 이상으로 정치의 업적이 대단히 뛰어나거나 死諫·死節·陣亡者에게는 모두 贈官하였다. 現任으로서 처음으로 散階를 除授받거나, 京官으로 一考(3년간의 功績)가 끝난 자 및 外官으로 一考가 끝난 자 중에서 으뜸인 자는 모두 본인에게 誥敕을 지급하였다. 七品 이상은 모두 그 선조를 推恩할 수 있었다. 五品 이상은 誥命을, 六品 이하는 敕命을 敍用하였다. 살아있는 자에게 줄 때는 封이라 하고, 죽은 자에게 줄 때는 贈이라 한다.
- 186) 冠帶: 帽子和 腰帶를 일컫는다.

정(納速丁) 등이 내조했는데, 한 사람마다 쌀 10석(石)을 하사했다.¹⁸⁹⁾

永樂九年, 溪處向長官司副長官自思來朝, 貢馬及金銀器, 賜費如例. 自思因言:「本司歲納海肥七萬九千八百索, 非土所產, 乞准鈔銀爲便。」戶部以洪武中定額, 難准折輸. 帝曰:「取有於無, 適以厲民, 況彼遠夷, 尤當寬恤, 其除之。」

영락 9년(1411)에 계치진장관사(溪處旬長官司)¹⁹⁰⁾ 부장관(副長官)인 자은(自思)이 내조하여 말과 금은기(金銀器)를 바치니 예제에 따라 하사품을 내렸다.¹⁹¹⁾ 자은이 이에 아뢰기를, “본 장관사는 매년 바다조개(海肥) 7만 9천 8백 소(索)를 바치는데, 본토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교초(交鈔)와 은(銀)으로 바꾸어 편하도록 허락해주시기를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호부(戶部)는 홍무 연간(1368~1398)에 정한 액수라서 바꾸어 납부하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황제가 이르기를, “없는 데에서 있다고 하여 취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인데, 하물며 저 먼 곳의 만이(蠻夷)는 더욱 마땅히 관대히 구휼해야 하거늘, 이를 없애버려라”라고 했다.¹⁹²⁾

宣德五年, 中官雲仙還自雲南, 奏設東山口巡檢司, 以故土官後普覺爲巡檢. 八年, 勸客向長官司奏:「河底自洪武中置渡船, 路通車里·八百. 近年軍民有逃出境詐稱使者, 迫令乘載, 往往被害, 又沿河時有劫盜出沒. 乞置巡檢司, 以故把事袁凱

- 187)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61 洪武 17년 8월 甲戌條 참조.
- 188) 千戶: 明代 각 지역에 주둔하는 衛所制下 世襲職의 하나인 千戶所의 長으로서 軍戶 1,120명을 거느린다.
- 189)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73 洪武 18년 5월 癸酉條 참조.
- 190) 溪處旬長官司: 元代에는 七溪部라 하여 和泥路에 豫속시켰으며, 溪處旬軍民副萬戶를 두었다. 洪武 15년(1382)에 이를 바꾸어 溪處旬長官司를 설치하고 臨安府에 豫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紅河縣 東部 지역에 위치했다.
- 191)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15 永樂 9년 5월 辛巳條 참조.
- 192)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116 永樂 9년 6월 丁未條에 있는데, 溪處旬長官司는 해마다 바다조개를 臨安府에서 사서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之子瑀爲巡檢。」從之。

선덕 5년(1430)에 중관(中官)¹⁹³ 운선(雲仙)이 윤남에서 돌아와 동산구(東山口)¹⁹⁴ 순검사(巡檢司)¹⁹⁵를 설치하도록 주청함으로써, 예전 토관의 뒤를 이은 보각(普覺)을 순검(巡檢)으로 삼았다.¹⁹⁶ [선덕] 8년(1433)에 휴용전장관사(虧容甸長官司)¹⁹⁷에서 주청하기를, “하저(河底)에는 홍두 연간(1368~1398)부터 관부(官府)에서 도선(渡船)을 설치했는데, 길이 차리(車里)¹⁹⁸·팔백(八百)¹⁹⁹으로 통합니다. 근년에 군민(軍民)이 도망하여 경계를 나가 사신을 사칭하고 수령을 다그쳐 수레에 [물건을] 싣게 하여 왕왕 해를 입히며, 또 강 언저리에는 때때로 강도가 출몰합니다.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해서 예전에 일을 맡았던 완개(袁凱)의 아들 완우(袁瑀)를 순검(巡檢)에 임명해 주기를 청하옵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²⁰⁰



193) 中官: 內職의 官, 京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宦官을 일컫으며, 閹人·寺人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周代부터 清末까지 현관이 있었다. 『明史』卷74 『職官志』3 宦官條에 의하면, 명대에는 宦官十二監이 있었고, 이들의 기관에서는 政事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히, 司禮監은 그 중심에 있었고, 각 기관에는 太監(正四品)·小監(從四品)·監丞(正五品)·典簿(正六品)와 從六品인 長隨·奉御 등의 職官이 있었다.

194) 東山口: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族自治州 文山縣 東山鄉 지역임.

195) 巡檢司: 元, 明, 清代에 縣級 衙門의 밑에 治安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下級官署이다.

196)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宣宗實錄』卷66 宣德 5년 5월 乙丑條 참조.

197) 虧容甸長官司: 洪武 15년(1382)에 설치하여 臨安府에 예속시켰는데,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族自治州 紅河縣 猛龍鄉 지역임.

198) 車里: 元代에 윤남에 설치된 車里軍民宣慰使司로, 洪武 15년(1382)에 軍民府로 되었다. 洪武 19년(1386)에 軍民宣慰使司로 고쳤으나, 永樂 연간(1403~1424)에 폐지되었다가 宣德 6년(1431)에 다시 설치되었다. 현재의 雲南省 景洪市이다.

199) 八百: 八百國을 일컫는다. 元代에 八百等處宣慰使司가 설치되었는데, 明初는 洪武 24년(1391)에 명칭을 변경하여 八百大甸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하였다. 永樂 2년(1404)에 八百大甸의 땅을 나누어 軍民宣慰使司를 설치했으나 후에 폐하였다. 현재의 태국 치앙마이(Chiang Mai)주 사라피(Saraphi)동 농땡(Nong Phueng)市이다.

200)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卷106 宣德 8년 9월 庚子條 참조.

嘉靖元年復設寧州流官知州，掌州事，土知州祿氏專職巡捕，寧州舊設流官，正德初，土官祿休陰賄劉瑾罷之。遂交通彌勒州十八寨強賊爲亂，爲官軍捕誅，其子祿世爵復以罪論死，撫按請仍設流官，從之。

가정 원년(1522)에 다시 영주(寧州)에 유관(流官) 지주(知州)를 설치하여 주의 정사를 관장하도록 하니, 토지주(土知州) 녹씨(祿氏)는 오로지 순포(巡捕)의 직두만을 맡았다. 영주는 옛날에 유관(流官)을 설치했었는데, 정덕 초에 토관인 녹봉(祿休)이 비밀리에 유근(劉瑾)²⁰¹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없애버렸다. 마침내 [녹봉이] 미륵주(彌勒州)²⁰² 십팔寨(十八寨)의 세력이 강한 적과 서로 내통하여 난을 일으켰는데, 관군에게 붙잡혀 주살되고 그의 아들 녹세작(祿世爵)은 또 논죄(論罪)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이에] 무안(撫按)²⁰³이 예전처럼 유관을 설치하기를 청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²⁰⁴

初，臨安阿迷州土官普柱，洪武中爲土知州，後設流，錄其後覺爲東山巡檢，既而以他事廢。正德二年以廣西維摩·王弄山與阿迷接壤，盜出沒，仍令普覺後納繼前職。

당초에, 임안(臨安) 아미주(阿迷州) 토관 보주(普柱)가 홍무 연간(1368~1398)에 토지주(土知州)가 되었다.²⁰⁵ 후에 유관(流官)이 설치되고, 그의 후손인 보각(普覺)이 임용되어 동산

201) 劉瑾(?~1510): 陝西省 興平縣 사람으로 魏忠賢, 王振과 더불어 명대 惡宦官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원래 姓은 劉氏였으나 그를 천거한 태감의 姓을 따서 劉氏로 改姓하였다. 成化 연간(1465~1487)에 입궁하여 太監이 되었고, 正德 연간(1506~1521)에 武宗의 총애를 받아 司禮監을 관장하였다. 당시 武宗을 같이 모셨던 馬永成·高鳳·羅祥·魏彬·丘聚·谷大用·張永 등과 함께 이른바 八虎라 불렸는데, 이들 가운데 유근이 가장 교활하고 잔인하였다. 그는 각종 전횡을 일삼다가 모반죄로 태감 張永에 의해 고발당하여 1510년에 磔刑에 처해졌다. 『明史』卷304 『劉瑾傳』 참조.

202) 彌勒州: 元 憲宗 7년(1257)에 彌勒部가 元朝에 歸附하였는데, 至元 12년(1275)에 이곳에 彌勒千戶를 설치했다. 이후 至元 27년(1290)에 彌勒千戶를 고쳐 彌勒州라 칭했는데, 清 乾隆 35년(1770)에 彌勒縣으로 강등되었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族自治州 彌勒縣이다.

203) 撫按: 巡撫와 巡按을 일컫음.

204)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卷12 嘉靖 원년 3월 丁卯條 참조.

205) 『太祖實錄』卷161 洪武 17년 8월 甲戌條에 보면, 和寧을 阿迷州 知州로 삼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東山) 순검이 되었는데, 곧 다른 사정으로 인해 폐해졌다. 정덕 2년(1507)에 광서(廣西) 유마(維摩)²⁰⁶·왕룡산(王弄山)이 아미(阿迷)와 접해있음으로 도적이 출몰하니, 예전대로 보각(普覺)의 후손인 보납(普納)에게 이전의 직무를 계승하도록 했다.²⁰⁷

普維藩者，與寧州祿氏構兵，師殲焉。維藩子名聲，幼育於官，既長，有司俾繼父職，名聲收拾舊部，勇於攻戰，從討奢安有功，仍授土知州，漸驕恣。

보유빈(普維藩)이 영주(寧州)의 녹씨(祿氏)와 서로 싸웠는데, 섬멸당했다. 보유빈의 아들 보명성(普名聲)은 어려서 관부(官府)에서 양육되었는데, 장성한 후에 담당 관원이 아버지의 직책을 잇도록 했다. 보명성은 옛 부락을 수습(收拾)하고 전투에서 용맹하였으며, 사안(奢安)²⁰⁸을 토벌하는데 참여하여 공이 있어 예전대로 토지주(土知州)에 제수되었는데,²⁰⁹ 점차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崇禎五年，御史趙洪範按部，名聲不出迎，已，出戈甲旗幟列數里，洪範大怒，謀之巡撫王侑，請討，得旨。官軍圍州城，名聲恐，使人約降，而陰以重賄求援於元謀土官吾必奎。時官軍已調必奎隨征，必奎與名聲戰，兵始合，倖敗走。官軍望見，遂大潰，布政使周士昌戰死。朝廷以起罪侑，遠治，而名聲就撫。然驕恣益甚，當事者頗以爲患。已而廣西知府張繼孟道出阿迷，以計毒殺之，必奎聞名聲死，遂反，連

和峯이 普社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206) 維摩: 지금의 雲南省 文山壯族苗族自治州 峨山縣의 維摩鄉임.

207) 이에 관한 내용은 『武宗實錄』卷32 正德 2년 11월 癸卯條의 巡撫雲南右副都御史 吳文度가 올린 上奏文 참조.

208) 奢安: 奢安의 亂을 말하는데, 天啓 연간(1621~1627) 四川 永寧(지금의 敘永) 宣撫使 奢崇明과 貴州 水西(지금의 大方一帶) 宣慰司 同知인 安邦彥이 일으킨 叛亂이다. 奢崇明은 天啓 원년(1621) 9월에 重慶에서 起兵하여 成都를 100여 일간 포위하였다. 安邦彥은 天啓 2년(1622) 2월에 起兵하여 貴陽을 200여 일간 포위했다. 이후 이들은 合流하여 崇禎 3년(1360)까지 전투 9년간에 걸쳐 난을 일으켰다.

209) 『熹宗實錄』卷27 天啓 2년 10월 丙子條에 援黔의 功으로 인해 “加土守備職銜，增賜銀幣，仍給本品服色衣一襲”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陷定·禮賓·楚雄諸城。寧州土官祿永命·石屏州土目龍在田，俱與必奎·名聲從征著名。至是，黔國公沐天波撤之統兵，合剿擒必奎。名聲妻萬氏，本江西寄籍女，淫而狡。名聲死後，改嫁王弄山副長官沙源之子定洲。名聲有子曰服遠，與萬氏分家居，定洲誘殺服遠，併其地。天波撤定洲取必奎，定洲不欲行，遂反，詳前傳。

승정 5년(1632)에 어사(御史)²¹⁰ 조홍범(趙洪範)²¹¹이 부락을 순시했는데, 보명성이 나와 영접하지 않았다. 조금 후에 전장에 나가는 깃발이 몇 리(里)에 늘어섰다. 조홍범이 크게 노하여 순무 왕항(王侑)과 모의해서 [보명성에 대한] 정토(征討)를 청하였는데, 성지(聖旨)를 얻어냈던 것이다. 관군이 진격하여 주(州)의 성(城)을 포위하자 보명성은 두려워 사람을 보내 항복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몰래 원모(元謀)의 토관 오필규(吾必奎)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원조를 청하였다. 당시 관군은 이미 오필규를 징발하여 정벌에 수행하도록 하였고 오필규는 보명성과 싸웠는데, 전투가 시작되자 거짓으로 패하고는 도망쳤다. 관군은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마침내 크게 궤멸당했으며, 포정사(布政使)²¹² 주사창(周士昌)이 전사했다.²¹³ 조정 이 일의 단서를 일으켰다 하여 왕항에게 죄를 물어 [그를] 체포하여 정치(懲治)하자, 보명성은

210) 御史: 周代에는 立法을 公布하는 官을 일컫었고, 秦漢시대에는 御史大夫의 屬官으로 上奏事務와 百官을 監察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그 官府를 御史府라 했다. 후한시대에 御史府를 御史臺로 개칭하였고, 이때 부터 御史는 監察官으로서 전문직이 되었다. 明代에 이르러 御史臺는 都察院으로 바뀌고, 그 장관을 都御史(正三品)라 칭했는데, 그 밑에 左·右副都御史(正三品), 左·右僉都御史(正四品)가 있고, 十三道 監察御史(正七品)의 경우는 浙江·江西·河南·山東에 각 10명, 福建·廣東·廣西·四川·貴州에 각 7명, 陝西·湖廣·山西에 각 8명, 雲南에 10명이 두어졌다.

211) 趙洪範: 生卒年 未詳. 字는 符鑑, 號는 芝亭이다. 萬曆 43년(1615)에 舉人이 되고 天啓 2년(1622)에 進士에 급제하여 2년 뒤, 湖北省 麻城縣 知縣이 되었다. 이후 崇禎 원년(1628)에 監察御史로 승임하여 陝西와 雲南을 巡按했는데, 雲南土司 普名聲에 대한 토벌과 관련하여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清代에 들어와 仕宦하지 않았으며, 康熙 元年(1662~1722)에 죽었다.

212) 布政使: 명대 지방의 民政을 담당하는 官이다. 명 태조는 洪武 14년(1381)에 지방 관료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행하였는데, 전국 13개 省에 承宣布政使司·都指揮使司·提刑按察使司를 설치하여 각각 民政·軍事·司法의 일을 분담케 하였다. 승선포정사사에는 從二品인 左·右布政使 각 1명과 그 밑에 從三品인 左·右參政을 두어 省의 民政과 財政의 일을 담당토록 했다. 그러나 명 중기 이후 포정사의 위에 總督·巡撫·巡按 등의 官이 설치되면서 지방 최고행정장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이들의 屬僚로 전락하였다.

213) 이에 관한 내용은 『洪雲歷年傳』卷9 崇禎 4년 辛未條 참조.

안무에 옹했다. 그러나 교만하고 방자함이 더욱 심해져서, 일을 담당하는 자는 [보명성이] 매우 근심스럽게 생각했다. 오래지 않아 광서(廣西) 지부(知府)²¹⁴ 장계맹(張繼孟)이 아미(阿迷)로 나아가서 계책을 써 그를 독살시켰다. 오필규는 보명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침내 반기를 들었으며, 무정(武定)·녹봉(祿豐)·초용(楚雄) 등 여러 성을 연이어 함락하였다. 영주 토관 녹영명(祿永命)·석병주(石屏州) 토목(土目) 용재전(龍在田)은 모두 오필규·보명성과 더불어 정토에 참여한 저명한 자들이었지만 이에 이르러서 검국공 목천파(沐天波)는 이들에게 격문을 보내 [그들이 통솔하는] 군대를 소집하고, [이들과] 회합해서 오필규를 토벌하여 사로잡았다.²¹⁵ 보명성의 처 만씨(萬氏)는 본적이 강서(江西)이지만 이곳에 의탁하여 적(籍)을 두게 된 여자인데, 음탕하고 교활했다. 보명성이 죽은 뒤, 왕룡산(王弄山) 부장관(副長官)인 사원(沙源)의 아들 사정주(沙定洲)에게 개가(改嫁)했다. 보명성은 복원(服遠)이라 부르는 아들이 있고, 만씨(萬氏)와는 다른 채(寨)에 거주했는데, 사정주는 복원을 유인하여 죽이고 그의 토지를 병탄했다. 목천파가 사정주에게 격문을 보내 오필규를 공격하여 붙잡도록 하자, 사정주는 가려고 하지 않고 마침내 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의 전(傳)에 보인다.

臨安領州四，縣四。其長官司有九，曰納樓茶甸，曰教化三部，曰溪處甸，曰左能寨，曰王弄山，曰虧容甸，曰思陀甸，曰落恐甸，曰安南，其地皆在郡東南，西平侯征安南，取道於此。蓮花灘之外即交廣外，而臨安無南而之虞者，以諸甸爲之備也。但地多瘴，流官不欲入，諸長官亦不請代襲，自相冠帶，日尋干戈。納樓部內有礦場三，曰中場·鶴黃·摩訶。封閉已久，亡命多竊取之。其安南長官司，本阿雙蠻所居，舊名褒古，後名捨資。元爲捨資千戶所，以地近交趾，改安南，屬臨安路。正德八年，

214) 知府: 府의 장관으로 官品은 正四品이다. 知府는 1명이 두어졌다. 知府는 한 府의 정무를 주관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옛 官名에 따라 太守 혹은 郡守라고도 한다. 직부는 한 府의 풍속과 교화를發揚하고, 訟事를 공평히 하며, 세금과 요역을 균등히 하여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3년마다 소속 관리의賢否를 살펴 그 성적의 고하를 매겨 省에 보내고 吏部에 보고하였다.
215) 吾必奎의 반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佚名, 1986: 32~34, 『必奎作叛』에 보이는데, 여기에 '吾必奎는 乙酉年(1645) 8월에 반기를 들었으나 겨우 한 달 만에 그해 9월에 사로잡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蒙自土舍祿祥爭襲父職，矯殺其嫡兄祿仁，安南長官司土舍那代助之以兵，遂稱亂，守臣討平之。事聞，命革蒙自土官，改長官司爲新安守禦千戶所，調臨安衛中所管軍戍之。

임안은 네 개의 주, 네 개의 현을 관할하고 있다. 그 장관사(長官司)는 아홉 개가 있고, 남루차전(納樓茶甸), 교화삼부(教化三部),²¹⁶ 계처진(溪處甸), 좌능채(左能寨),²¹⁷ 왕룡산(王弄山), 휴용전(虧容甸), 사타전(思陀甸),²¹⁸ 낙공전(落恐甸),²¹⁹ 안남(安南)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모두 군(郡)의 동남쪽에 있다. 서평후(西平侯)가 안남을 정토하면서 이곳을 지나갔다. 연화탄(蓮花灘)²²⁰의 맑은 곧 황폐한 외지와 접해 있고, 임안은 남쪽으로 우환이 없는데 여러 전(甸)이 방비하고 있어서이다. 다만 이곳은 풍토병이 많아 유관(流官)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여러 장관 역시 대신하여 세습하겠다고 청하지 않으며, 스스로 관직을 봉하고 날마다 싸움판을 일삼았다. 남루부(納樓部) 안에는 광장(礦場) 세 곳이 있는데, 중장(中場)·아황(鶴黃)·마가(摩訶)라 한다. 봉금하여 폐쇄한 지 오래되었는데, 떠도는 무리를 대부분이 광석을 몰래 취했다. 그 안남장관사는 본래 아부만(阿雙蠻)이 거주하는 곳인데, 옛날에는 포고(褒古)

216) 教化三部: 教化三部長官司를 일컫는다. 원나라 때는 教化三部(強理三部)라 하여 阿摩戶에 속했는데, 洪武 15년(1382)에 教化三部長官司를 설치하여 臨安府에 직속시켰다. 지금의 文山城 서쪽에 위치했는데, 八寨(阿雅)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馬關縣 八寨鎮, 木枝 지금의 文山縣 木木樹, 教化(지금의 文山縣 城 서쪽 皎花山)의 지역이다.
217) 左能寨: 옛 思陀에 속했는데, 후에 그곳에 左能山이 있어 左能寨로 고쳤다. 명 洪武 연간(1368~1398)에 氏民 吳鉅船가 무리를 이끌고 荒山을 開辟하여 長에 추가되었는데, 곧 安南을 방어하는데 징발되어 공을 세워 하나의 甸을 이루었으며, 副長官에 제수되었다. 그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族自治州 紅河縣 寶華鄉 지역이다.
218) 思陀甸: 元代에는 和泥路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和泥府로 바꾸어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洪武 17년(1484)에 이를 바꾸어 思陀甸長官司를 설치하고 臨安府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族自治州 紅河縣 西南部 樂育鄉 지역이다.
219) 落恐甸: 元代에는 伴溪部였고 和泥路에 예속시켰으며, 伴溪落恐部軍民萬戶를 두었다. 洪武 15년(1382)에 이를 바꾸어 落恐甸長官司를 설치하고 臨安府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 紅河哈尼族族自治州 紅河縣 西南部 寶華鄉 지역이다.
220) 蓮花灘: 明清시대에 雲南省 臨安府 蒙自縣에 속했고, 예로부터 베트남으로 통하는 중요한 교통 요지이며 군사적 요충지였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族自治州 河口瑯族自治縣 蓮花灘鄉이다.

라 불렀고 후에는 사자(捨資)라 불렸다. 원(元)나라는 사자(捨資) 천호소(千戶所)²²¹⁾라 했다. 지역이 교저(交陟)²²²⁾와 가까워서 안남(安南)이라 고치고, 임안로(臨安路)에 예속시켰다.²²³⁾ 정덕 8년(1513)에 몽자(蒙自)의 토사(土舍)²²⁴⁾ 녹상(祿祥)이 싸워 아버지의 직을 잇고서 독주(毒酒)로 그의 말형 녹인(祿仁)을 죽였으며, 안남장관사의 토사(土舍) 나대(那代)가 군대를 움직여 그를 도와 마침내 난을 일으키자 수신(守臣)이 이를 토벌하여 평정했다. 사정이 [조정에] 알려지자 몽자 토관(土官)을 혁제(革除)하고, 장관사를 신안(新安) 수어천호소(守禦千戶所)²²⁵⁾로 바꾸었으며, 임안위(臨安衛)에 소속된 관군을 징발하여 이를 지키도록 했다.²²⁶⁾

楚雄 초음

楚雄，昔爲威楚，元憲宗置威楚萬戶府，至元後，置威楚開南路宣撫司。

초음(楚雄)은 옛날에는 위초(威楚)라 했다.²²⁷⁾ 원나라 현종(憲宗)이 위초(威楚) 만호부(萬

- 221) 千戶所: 지방의 군사제도인 衛所制 하에서 1府에 1개씩 설치된 衛 이하의 所로, 1,120명의 병력을 이끌고 주둔하여 지방을 지켰으며, 千戶所 아래에는 百戶所가 있다.
- 222) 交陟: 옛 南交의 땅으로 周代에는 越裳氏의 땅이었고, 秦始皇 初에 百粵과 병합하여 桂林南海象郡을 두었다. 前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南越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9郡 중의 하나로 후에 交州로 개칭되었다. 元帝(전48~전33) 때는 交陟刺史가 七郡을 다스렸는데, 그중 交陟·日南·九眞이 지금의 안남 땅이다. 교저는 지금의 통킹만 지역, 구진은 통킹만 남쪽 해안지대로 淸化·安河·靜省 등 지역이 해당하고, 일남은 구진의 남쪽인 廣華·廣治·承天省 등 지역을 가리킨다.
- 223) 安南長官司에 관한 내용은 『明一統志』 卷86 「臨安府」 참조.
- 224) 土舍: 토사의 屬官이다. 그의 權力은 토사의 속관인 一般 大頭人과 같으나 그 地位는 大頭人보다 높다. 土舍는 토사의 親屬으로 토사의 職을 이을 자가 없을 경우에 그 職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 225) 守禦千戶所: 簡稱하여 守禦所라고 한다. 明의 軍制의 하나로 洪武 23년(1390)에 전국에 衛所制度가 설립되어, 각 省의 都指揮使司의 관할 하에 몇 개의 衛가 설치되고 그 밑에 일정한 千戶所와 百戶所가 설치되었다. 이들 천호소 가운데 어느 한 곳에 單獨으로 주둔하여 직접 都指揮使司가 관할하는 千戶所를 守禦千戶所라 부른다.
- 226) 이에 관한 내용은 『武宗實錄』 卷101 嘉靖 8년 6월 丁巳條 참조.
- 227) 南詔가 세워지기 전에 饒族 酋長인 威楚가 이곳에 거주하였는데, 성을 축조하여 威楚城이라 했다. 이후 南詔 때는 銀生節度의 治所로 삼았고, 大理 때는 威楚郡을 설치했다.

戶府)를 설치했다. 지원 연간(1264~1294) 이후에 위초 개남로(開南路) 선무사(宣撫司)를 설치했다.

洪武十五年，南雄侯趙庸取其地，十七年以土官高政爲楚雄府同知，阿魯爲定邊縣丞，永樂元年，楚雄府言：「所屬蠻民，不知禮義，惟焚種賦性溫良，有讀書識字者，府州已嘗設學教養，其縣學未設，縣所轄六里，楚人過半，請立學置官訓誨。」從之。

홍무 15년(1382)에 남용후(南雄侯) 조용(趙庸)²²⁸⁾이 이 지역을 공격하여 취하였다. [홍무] 17년(1384)에 토관 고정(高政)²²⁹⁾을 초용부(楚雄府) 동지(同知)로 삼고 아노(阿魯)²³⁰⁾를 정변(定邊)²³¹⁾ 현승(縣丞)으로 삼았다.²³²⁾ 영락 원년(1403)에 초용부에서 아뢰기를, “소속되어 있는 만민(蠻民)이 예의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북(楚)²³³⁾ 종족만이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228) 趙庸: 生卒年 未詳. 廬州(지금의 安徽省 合肥) 사람으로, 그의 형 趙仲中과 함께 무리를 모아 水寨를 세워 巢湖에 주둔하다가 明 太祖에 歸附했다. 그의 형은 여러 차례 功을 세워 行樞密院僉事가 되어 安慶을 지냈다. 陳友諒이 安慶을 함락하자 仲中이 城을 버리고 도망해 와 誅戮당하고, 그의 관직이 趙庸에게 제수되었다. 이후 參知政事로 승진하여 俞通海·廖永忠 등과 함께 康郎山으로進攻하고, 이후 武昌·廬州·安慶·淮東·海安·泰州를 점령하였으며, 中書左丞으로 승진하여서는 山東으로進攻하였다. 洪武 원년(1368)에 太子副詹事를 겸하였고, 이후 大軍을 따라 河南·河北·山西·陝西를 攻破하였는가 하면 常遇春을 따라 北으로 元의 皇都를 추격하였으며, 이후 副將軍에 임명되어 李文忠과 함께 慶陽을 공격했다. 洪武 3년(1370)에 다시 李文忠을 따라 北伐을 하였고 그 공이 가장 컸지만, 應昌에서 개인적으로 奴婢를 거두었던 일로 인해 공에 책망되지 못하고 南雄侯에 봉해졌다. 이후 福建·廣東의 叛亂을 평정하여 8,000여 명을 참수했고, 洪武 20년(1387)에 左參將으로 傅友德을 따라 納哈出을 토벌했으며, 洪武 23년(1390)에는 左副將軍으로 燕王을 따라 古北口로 나가 乃兒不花를 항복시켰으나 이후 胡惟庸의 黨에 연루되어 피살되었다.

229) 高政: 楚人으로, 楚雄府 楚雄縣民인데, 元나라 때 그의 祖父는 威楚開南等路軍民總管에 제수되었다. 그는 洪武 15년(1382)에 明에 歸附하여 이듬해에 楚雄府同知에 임명되었는데, 실제로 제수된 것은 洪武 17년(1384)이다. 『土官底簿』 卷下 楚雄府同知條 참조.

230) 阿魯: 小百夷人으로, 定邊縣 土縣尹이었는데, 洪武 15년(1382)에 明에 歸附하여 定邊縣 縣丞에 임명되었으나 실제로 제수된 것은 이듬해였다. 『土官底簿』 卷上 定邊縣丞條 참조.

231) 定邊: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南澗彝族自治縣인.

232)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9 洪武 17년 춘경월 王子條 참조.

233) 楚: 지금의 四川省 남쪽과 雲南省 동부 지역 일대에 살던 소수민족으로서, 서남 지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다. 史書의 기록에 의하면 春秋시대와 戰國시대 초기부터 周 왕조는 이들과 대치

선량하며, 책을 읽고 글자를 아는 자가 있습니다. 부(府)와 주(州)에는 이미 일찍이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치고 기르고 있지만, 그 현(縣)에는 학교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은 여섯 개의 리(里)를 관할하고 있고 복인(樊人)이 과반이온데, 학교를 세우고 관원을 두어서 가르치기를 청하옵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²³⁴⁾

宣德五年命故土知府高政女襲知府。政初爲同知，永樂中來朝，時仁宗監國，嘉其勤誠，陞知府，子孫仍襲同知。政卒，無子，妻襲。又卒，其女奏乞襲知府。帝曰：「皇考有成命。」命襲同知。

선덕 5년(1430)에 옛 토지부 고정(高政)의 여식(女息)에게 동지(同知)를 잇도록 하였다. 고정은 일찍이 동지가 되어 영락 연간(1403~1424)에 내조하였는데, 당시 인종(仁宗, 1378~1425; 재위 1424~1425)²³⁵⁾이 감국(監國)²³⁶⁾하면서 그의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움을 가상히 여겨 지부(知府)로 승진시켰지만,²³⁷⁾ 자손(子孫)들은 예전대로 동지를 세습하였다. 고정이 죽고 아들이 없자 처가 이었다. 또 [고정의 처가] 죽자 그녀의 딸이 지부(知府)를 잇기를 주청했다.²³⁸⁾ [이에] 황제가 이르기를, “돌아가신 부황(父皇)께서 내린 명령이니라”라고 하며, [그녀에게] 동지의 직을 잇도록 하였다.²³⁹⁾

했으며, 西漢 초기에 이르러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樊道를 설치했는데, 그 중심지는 宜賓縣이었다. 漢代부터 이 지역은 불산이 매우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많은 漢族들이 거주하였다.

- 234)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권22 永樂 원년 8월 庚申條 참조.
- 235) 仁宗: 洪熙帝의 廟號로 諱는 高竈이다. 成祖 永樂帝의 長子로, 모친은 仁孝文皇后이며, 洪武 28년(1395)에 燕王의 世子로 책봉되어 成祖가 舉兵할 때 北平을 지켰다. 永樂 2년(1404)에 황태자에 책봉되었고, 永樂 22년(1424)에 永樂帝가 몽골 친정 중에 榆木川에서 죽자 황제위에 올라 다음해를 洪熙 元年(1425)으로 하였다. 즉위하여 곧 鄭和의 원정을 중지시키고, 雲南·交趾의 採辦을 중지시키는 등 內治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해 5월에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獻陵에 장사되었다.
- 236) 監國: 황제가 자리를 비울 때 황태자가 國事庶政을 대신 裁決하는 것을 말하는데, 永樂帝가 몽골을 친정할 때마다 황태자, 즉 훗날의 仁宗으로 하여금 監國하도록 했다.
- 237) 『土官底簿』 卷下 楚雄府同知條에 보면, 土知府에 임명된 것은 高政이 아니라 그의 妻 高納의 斤이었으며, 永樂 7년(1409) 정월에 임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38) 『土官底簿』 卷下 楚雄府同知條에 보면, 高納의 斤이 죽고 아들이 없자 그녀의 庶長女 高冬梅가 襲職을 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八年陞南安州瑛井土巡檢李保爲州判官：以鄉老言：「本州俱羅蘇·和泥·烏蠻雜類，粟性頑強，以無土官管束，多致流移，差役賦稅，俱難理辦。衆當推保署州事，撫綏得宜，民皆向服，流移復歸，乞投本州土官。」吏部言：「南安舊無土官，難從其請。」帝以爲治在順民情，從之。

[선덕] 8년(1433)에 남안주(南安州)²⁴⁰⁾ 낭정(瑛井)²⁴¹⁾의 토순검(土巡檢)인 이보(李保)가 주(州)의 판관(判官)²⁴²⁾이 되었는데, 향노(鄉老)들이 “본 주(州)는 모두 나무(羅蘇)²⁴³⁾·화니(和泥)²⁴⁴⁾·오만(烏蠻)²⁴⁵⁾이 뒤섞여 있고, 풍성(粟性)이 완고하고 사나워 토관이 관속할 수 없으며, 대부분 유망하여 떠나버려 차역(差役)²⁴⁶⁾과 부세(賦稅) 모두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일찍이 이보를 추거하여 주(州)의 일을 대리하도록 했는데 안무하는 것이 적절하여, 백성들이 모두 [그를] 사모하여 따르고 유망하여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니, 이보를 본 주의 토관에 제수해주시기를 청하옵니다”라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부에서 아뢰기를, “남안은 원래 토관이 없었으니, 그들의 청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황제는 다스림이란 백성들의 어른을 따르는 데에 있다고 여기고, 이를 허락하였다.²⁴⁷⁾

- 239)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67 宣德 5년 6월 辛未條 참조.
- 240) 南安州: 지금의 雲南省 楚雄市 남쪽 지역임.
- 241) 瑛井: 지금의 雲南省 楚雄彝族自治州 祿勳縣 安南村的 瑛井村임.
- 242) 判官: 재판 등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從七品職이다.
- 243) 羅蘇: 緬蘇의 이전 명칭으로, 여러 史書에 羅蘇·羅武라고도 기재되어 있는데, 雲南省 元江의 彝族 중 가장 큰 지파이다.
- 244) 和泥: 지금은 哈尼라 부르는데, 哈尼族을 일컫는다.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雲南省 西南部 禮社江 하류인 紅河 서쪽 哀牢山區 新平·鎮源·墨江·元江·紅河·元陽·綠春·金平·江城 등 縣에 분포한다.
- 245) 烏蠻: 중국 史書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 서남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을 칭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지금 雲南의 東川 및 巧家縣 지역에 거주한 토착민인 蠻族과 蠻族에서 갈라진 乾羅羅族·魯機族·孟族·披沙族·披族·招服族 등을 일컫는다.
- 246) 差役: 중국의 전통 왕조시대 백성들에게 부과한 노역을 말한다.
- 247)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9월 乙巳條 참조.

九年，黔國公沐晟等奏：「楚雄所屬黑石江及泥坎村銀場，軍民盜礦，千百爲羣，執兵擄奪。楚雄縣賊首者些糾合武定賊者惟等，劫掠軍民，殺巡檢張積。又定遠縣阿苴里諸處強賊，聚衆抄掠景東等衛。大理·蒙化·楚雄·姚州皆有盜出沒。」帝敕責晟等，期以三年，討靖諸爲亂者。

[선덕] 9년(1434)에 검국공 목성(沐晟)²⁴⁸ 등이 상주하기를, “초웅(楚雄)이 관할하는 흑석강(黑石江) 및 니감촌(泥坎村) 은장(銀場)에서 군민(軍民)이 광물을 도둑질하고, 천·백의 무리를 이루어 무기를 들고 약탈을 합니다. 초웅현의 적 우두머리인 자사(者些)는 무정(武定)의 적 자유(者惟) 등을 규합해서 군민(軍民)을 위협하여 약탈을 하고, 순경(巡檢)인 장경(張頤)을 죽였습니다. 또 정변현(定邊縣) 아저리(阿苴里) 등 여러 곳의 세력이 강한 적들은 무리를 모아 경동(景東)²⁴⁹ 등 여러 위(衛)를 노략질 했습니다. [또한] 대리·몽화·초웅·요주(姚州)²⁵⁰ 등 모두에서도 도적이 출몰했습니다”라고 하자, 황제는 칙서를 내려 목성 등을 꾸짖고, 3년을 기한으로 해서 각지의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토벌하여 평정하도록 했다.²⁵¹⁾

嘉靖四十三年，楚雄叛蠻阿方等兵起，先攻易門所，流劫增峨·昆陽·新化各州縣。

- 248) 沐晟(?~1439) : 南京 鳳陽府 定遠縣 사람이다. 昭靖王 沐英의 아들로, 洪武 연간(1368~1398)에 後軍都督僉事에 임명되었다. 부친 목영이 죽자, 목성이 西平侯 작위를 세습하고 雲南을 진수하였다. 永樂 4년(1406)에 征夷副將軍의 印을 패용하고 雲南·四川의 군사를 통할하여 운남을 토벌하였다. 이 공적으로 승진하여 黔國公에 봉해졌으며, 계속해서 雲南을 진수하였다. 永樂 말에 藍州의 叛寇를 항복시킨 공로로 太傅가 더해졌다. 이후로 正統 3년(1438)에 麓川의 思任發이 반란을 일으키자 토벌에 나섰으나 이듬해 돌아오던 중에 병에 걸려 楚雄 峨驛에서 죽었다. 定遠王에 追封되고, 諡號는 忠敬이다.
- 249) 여기서의 景東은 景東衛를 일컫는데, 洪武 23년(1390)에 景東府(지금의 雲南省 景東彝族自治州 지역) 서쪽 景蓋山 위에 景東衛를 설치했다.
- 250) 姚州: 지금의 雲南省 姚安县 西北쪽에 옛 城이 있을, 唐나라 때에 이 지역에 姚氏 姓의 백성이 많아 姚州都督府를 설치하였는데, 서남 여러 민족과의 교통 요충지였다. 天寶 연간(741~756)에는 南詔의 囊氏가 이를 弄棟府로 바꾸었으며, 宋나라 때에 段氏가 姚州로 바꾸었다. 元나라 至元 12년(1275)에 이곳에 統千戶所를 설치하고, 天曆 원년(1328)에 姚安路로 승격시켰다. 明代에 이를 姚安府로 했으나 清代에 들어 楚雄府에 예속시켰다.
- 251) 沐晟의 上奏와 이에 대한 勅諭의 내용은 『宣宗實錄』 卷108 宣德 9년 2월 甲戌條 참조.

僭稱王，約土官王一心·王行道爲援，一心後悔，詣軍門請討賊自效。撫巡呂光洵許之，招降數百人。官軍分道進，擒獲賊黨，乘勝攻大·小木止二寨，克之，斬阿方首，餘賊悉平。

가정 43년(1564)에 초웅의 반만(叛蠻) 아방(阿方) 등이 군대를 일으켜 먼저 역문소(易門所)²⁵²⁾를 공격하고, 습아(巔峽)²⁵³⁾·곤양(昆陽)²⁵⁴⁾·신화(新化) 등 각 주와 현을 이리저리 약탈하고 왕을 참칭(僭稱)하였으며, 토관 왕일심(王一心)·왕행도(王行道)와 맹약을 맺고 원조하였다.²⁵⁵⁾ [그런데] 왕일심이 후회하고 군문(軍門)에 이르러 적을 토벌하는데 자신을 바치겠다고 청하였다. 순무 여광순(呂光洵)²⁵⁶⁾이 이를 허락하자 수백 명을 불러와 투항했다. 관군이 길을 나누어 진군하여 적당을 사로잡았다. 승기를 타고 대·소목지(大·小木止) 2寨(寨)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아방의 머리를 베니, 나머지 적이 모두 평정되었다.²⁵⁷⁾

- 252) 易門所: 易門守禦千戶所를 일컫는데, 洪武 24년(1391)에 지금의 雲南省 玉溪市 易門縣에 세워졌다.
- 253) 巔峽: 瞻縣을 일컫는다. 元나라 때에는 雲州에 속했는데, 洪武 15년(1382)에 臨安府에 직속시켰다. 2. 西南쪽에는 伽羅圖巡司가 있고, 서쪽에는 興衣鄉巡司가 있다. 지금의 雲南省 玉溪市 峨山彝族自治州 지역이다.

- 254) 昆陽: 昆陽州로,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晉寧縣임.
- 255) 『韻史』 卷13에 보면 “嘉靖四十二年癸亥，易門縣莊戶倚勢苛虐，衆不能堪。於是，李向陽等糾結爲亂。時易門土縣秦王一心，素行縱賊劫掠分隸，遂與同陽合，僭稱電天大王。以書文爲軍師，構黨七千人，分布四掠安寧·昆陽·易門·三泊·祿豐等州縣”이라 기재되어 있거나와 嘉靖 43년(1564)의 일이 아니라 嘉靖 42년(1563)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 또 주보자도 阿方이 아니라 李向陽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56) 呂光洵(1508~1580): 字는 信卿이고, 號는 沃洲이며, 浙江 紹興 新昌 사람이다. 嘉靖 10년(1531)에 舉人이 되고 이듬해에 進士에 급제하여 翰林院 庶吉士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福建 崇安 知縣으로 나갔다. 母親喪을 당해 사직했다가 다시 江蘇 溧陽 知縣에 임용되어 善政을 베풀었다. 嘉靖 19년(1540)에 河南 監察御史에 발탁되어 遼陽守備를 條陳하고 陝西, 甘肅을 巡撫했다. 이후에도 蘇·蘇·揚 지방을 巡按했으며, 治水를 잘 하여 황제로부터 金綺를 하사받았다. 또 당시 倭寇가 동남 연해안에 출몰했는데, 水軍을 이끌고 이들을 섬멸하기도 했고, 嘉靖 29년(1550)에 알탄(俺答)이 古北口를 침범하고 京師로 진격하자 有戰無和·有進無退의 策을 陳說했다. 父親喪으로 사임했다가 돌아와 太僕寺·大理寺 少卿, 南京 光祿寺卿, 應天府尹을 역임했다. 嘉靖 42년(1563)에 雲南에서 李向陽과 王應朝가 叛亂을 일으켰을 때, 그는 右都御史로 있었는데 雲南巡撫로 나가 叛亂을 평정하고 兵部尚書에 올랐다. 이후 雲南 黔國公 沐氏가 罪를 얻자 南京工部尚書에 改任되었는데, 그는 歸鄉을 청했다.
- 257)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545 嘉靖 44년 4월 己未條 참조.

激江 징강

激江, 唐爲南寧·昆二州地. 天寶末, 沒於蠻, 號羅伽甸. 宋時, 大理段氏號羅伽部. 元置羅伽萬戶府. 至元中, 改激江路. 洪武十五年, 雲南平, 激江歸附, 改激江府. 地居滇省之中, 山川明秀, 蠻衣耕食, 民安於業. 近郡之羅羅, 性雖頑狠, 然恭敬上官. 官至, 爭迎到家, 刲羊擊犖, 罄所有以供之, 婦女皆出羅拜, 故於諸府獨號安靜云.

징강(激江)²⁵⁸⁾은 당나라 때에 남녕(南寧)·곤주(昆州) 두 주(州)의 지역이 되었다. 천보(天寶) 말에 만(蠻)에게 함락되어 나가전(羅伽甸)이라 불렸다. 송나라 때에 대리(大理) 단씨(段氏)가 나가부(羅伽部)라 불렸다. 원나라는 나가만호부(羅伽萬戶府)를 설치했다. 지원 연간(1264~1294)에 징강로(激江路)로 고쳤다. 홍무 15년(1382)에 운남이 평정되자 징강이 귀부해 와 징강부(激江府)로 고쳤다.²⁵⁹⁾ 지역은 전성(滇省) 가운데에 있고, 산천은 환하고 아름다우며, 양잠을 하여 옷을 만들어 입고 농사를 지어 먹으며, 백성들은 안거낙업(安居樂業)하였다. 군(郡) 가까이 있는 나라(羅羅)²⁶⁰⁾는 성정(性情)이 비록 완강하고 사나우나 상관(上官)을 공경한다. 관원이 이르러 다투어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여 양과 돼지를 잡고, 가진 것 모두 그에게 배품며 부녀자들은 모두 나가 들어서서 절하하였는데, 이 때문에 여러 부(府) 가운데서 홀로 안정(安靜)이라 불렀다고 한다.

258) 激江: 激江府로, 지금의 雲南省 玉溪市 동북부와 昆明 石林彝族自治縣 지역에 위치했다.

259) 『雲南貴州府志(明志)』의 激江府에 보면, “激江府, 元激江路, 明洪武十五年三月爲府, 領州二縣三”이라 기재되어 있다.

260) 羅羅: 바로 烏蠻을 일컫는다. 이들은 현재 彝族의 先民이다. 元代에는 烏蠻의 여러 부족들이 대부분 각자의 部名을 가지고 있었는데, 羅羅는 그들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南詔에서는 烏蠻 7개 부족 중에 鹿盧蠻이라고 부르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羅羅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몽골인들은 이 명칭 뒤에 복수를 의미하는 철자(-s)를 붙였는데, 漢譯을 하는 과정에서 羅羅斯로 표기되었고, 지금의 四川省 涼山自治州와 西昌 지역에 거주하는 羅羅 사람들만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元代에 이 지역에 羅羅斯宣慰司를 설치하였다. 烏蒙·烏撒 지역도 羅羅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景東 경동

景東, 古柘南也, 漢尚未有其地. 唐南詔蒙氏始置銀生府, 後爲金齒白蠻所據. 元中統三年討平之, 以所部隸威楚萬戶. 至元中, 置開南州.

경동(景東)²⁶¹⁾은 옛날의 자남(柘南)인데, 한나라 때만 해도 아직 그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다. 당나라 때 남조의 몽씨가 처음으로 은생부(銀生府)를 설치했으며, 후에 금치(金齒)의 백만(白蠻)²⁶²⁾에게 점거되었다. 원나라 중통(中統)²⁶³⁾ 3년(1262)에 이를 토벌해 평정하여 소속 부락을 위조만호(威楚萬戶)에 예속시켰다. 지원 연간(1264~1294)에 개남주(開南州)를 설치했다.

洪武十五年平雲南, 景東先歸附. 土官俄陶獻馬百六十四·銀三千一百兩·馴象二. 詔置景東府, 以俄陶知府事, 賜以文綺襲衣. 十八年, 百夷思倫發叛, 率衆十餘萬攻景東之北吉寨. 俄陶率衆禦之, 爲所敗. 率其民千餘家遷於大理府之白崖川. 事聞, 帝嘉其忠, 遣通政司經歷楊大用齎白金文綺賜之. 二十三年, 沐英討平思倫發, 復景東地, 因奏景東百夷要害, 宜置衛, 以錦衣衛舍事胡常守之, 俄陶仍舊職. 二十四年, 帝以景東爲雲南要害, 且多腴田, 調白崖川軍士屯守. 二十六年命洱海衛指揮同知賴鎮守景東, 從沐春請也.

261) 景東: 景東府를 일컫는데, 元나라 至順 2년(1331)에 설치하여 威楚路에 예속시켰다. 明 洪武 15년(1382)에 景東州로 강등시켰지만 洪武 17년(1384)에 다시 府로 승격시켜 雲南布政司에 예속시켰다. 그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景東彝族自治縣이다.

262) 白蠻: 현재 白族의 先民인데, 漢代와 晉代의 僰人이 변화한 것이다. 僰人은 羌族의 別稱으로 氐羌에서 분화된 이들이었다. 일찍이 四川省 서부와 雲南 境內에 분포하여 생활했다.

263) 中統: 元나라 世祖 쿠빌라이(Kublai)칸이 사용했던 年號로, 1260년에서 1264년까지 사용했는데, 이를 뒤이어 至元이라는 연호로 바꾸어 사용했다.

흥무 15년(1382)에 운남을 평정하자 경동이 먼저 귀부했다. 토관 아도(俄陶)가 말 160필·은(銀) 3,100냥·길들여진 코끼리 2두를 바쳤다. [이에] 조사를 내려 경동부(景東府)를 설치했으며, 아도(俄陶)를 지부에 임명하고 문기(文綺)²⁶⁴와 승의(曠衣)²⁶⁵를 하사했다.²⁶⁶ [흥무] 18년(1385)에 백이(百夷)²⁶⁷의 사윤발(思倫發)²⁶⁸이 반기를 들고서 무리 10여 만을 이끌고 경동의 북길제(北吉黎)를 공격하였다. 아도는 무리를 이끌고 이를 막았으나 패배했으며, 그의 백성 천여 가(家)를 이끌고 대리부(大理府)의 백애천(白崖川)²⁶⁹으로 피하였다. 사경이 [조정]에 전해지자, 황제는 그의 충성을 가상히 여기고 통정사(通政司)²⁷⁰ 경력(經歷)²⁷¹ 양대용(楊大用)을 보내 백금(白金)²⁷²과 문기(文綺)를 가지고 가 그에게 하사했다.²⁷³ [흥무] 23년

264) 文綺: 화려한 무늬가 있는 비단이다.

265) 曠衣: 황제가 신하에게 내리는 服裝을 일컫는다. 고대에 예의를 행할 때, 褐衣 위에 입는 상의이다.

266)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윤2월 己酉條 참조.

267) 百夷: 雲南省 부근에 살던 傣族을 일컫는다. 傣族은 漢代에 滇越, 押이라 칭했고, 唐代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環圀이나 服飾의 특징과 관련하여 茫蠻·茫天連 및 黑齒蠻·金齒蠻 등으로 불렸다. 이후 宋代에는 白夷, 元代에는 金齒百夷, 簡稱해서 百夷라 칭했으며, 明代에도 그대로 百夷라 칭했다. 이들은 洪武 15년(1382)에 明에 歸附함에 따라 明 太祖는 百夷土司區를 설치하고 百夷土司制度를 제정했으며, 이후 成祖는 百夷土司의 印信·底簿·勘合 등 제도를 제정하여 百夷에 대한 통치를 강화시켰다.

268) 思倫發(?~1399): 明代 麓川(孟卯)土司이다. 1382년에 祖父인 思可發이 開創한 麓川을 이어받았으며, 1384년에 明朝로부터 麓川平緬宣慰使에 책봉되었다. 그런데 1385에 이를 景東宣慰使로 고치자, 思倫發은 이에 不服하여 明에 반기를 들었다. 1388년에 沐英이 火銃과 神機箭을 갖춘 明軍을 이끌고 麓川을 정벌하자, 思倫發은 大敗하여 이듬해에 謝罪하였으며, 1394년에 明朝는 그에게 公服을 내렸다. 1397년에 刀幹孟이 난을 일으키자 그는 高黎山으로 유랑하였는데, 1398년에 沐春이 刀幹孟을 말하자 다시 麓川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399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思發行이 뒤를 이었다.

269) 白崖川: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東南部 彌渡縣에 있는 彌渡河인.

270) 通政司: 明代 內外의 문서를 전달하고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나 황제가 발표하는 칙령 등을 총괄하는 중앙 부서로, 본래의 명칭은 通政使司이다. 洪武 3년(1370)에 신설되었다가 곧 폐지되었다. 하지만 洪武 10년(1377)에 다시 설치되었다. 황제와 각 부서간의 문서출납을 담당하였는데, 장관인 通政使는 正三品이고, 차관인 左·右通政은 正四品 관직이다. 청대에는 명대의 제도를 수용하여 通政司를 존속시켰는데, 지방의 衙門에서 상주되는 공식적인 문서인 題本을 받아서 열람한 후, 內閣에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271) 經歷: 明清시대 都察院: 通政使司·布政使司·按察使司·宣慰使司 등의 관청에서 文書를 出納하는 일을 맡은 관직으로, 官品은 正六品이다.

272) 白金은 銀을 가리킨다.

273) 이상의 내용은 『太祖實錄』 卷176 洪武 18년 12월 癸丑條 및 卷180 洪武 20년 춘정월 丙子條에 있음.

(1390)에 목영이 사윤발을 정토해서 평정하고 경동 지역을 수복하고서, 경동 백이는 요충지이니 마땅히 위(衛)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의위(錦衣衛)²⁷⁴ 첨사(僉事) 호상(胡常)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하고, 아도에게는 그대로 옛 직에 임명했다.²⁷⁵ [흥무] 24년(1391)에 황제는, 경동은 운남의 요해지(要害地)이고 또 대부분이 비옥한 전토임으로, 백애천 군대를 정벌해서 주둔하여 지키도록 했다. [흥무] 26년(1393)에 이해위(洱海衛) 지휘동지(指揮同知) 너진(額竊)에게 경동을 지키도록 명했는데, [이는] 목춘(沐春)의 청에 따른 것이다.²⁷⁶

宣德五年置孟緬長官司。時景東奏所轄孟緬·孟梳，地方遐遠，屢被外寇侵擾。乞并孟梳於孟緬，設長官司，授把事姜嵩爲長官，以隸景東，歲增貢銀五十兩。六年，大侯土知州刀奉漢侵據孟緬地，敕黔國公沐晟遣官擒誅。

선덕 5년(1430)에 맹편장관사(孟緬長官司)²⁷⁷를 설치했다. 당시 경동에서 그 관할 지역인 맹편(孟緬)·맹소(孟梳)는 지방이 멀고 여러 차례 왜구의 침략을 받아 어지러웠다고 상주했다. 맹소를 맹편에 병합하기를 청하자 장관사를 설치하고, 일을 맡고 있는姜嵩(姜嵩)에게 장관을 제수하고 경동에 예속시켰으며, 매년 공은(貢銀) 50냥을 늘렸다.²⁷⁸ [선덕] 6년(1431)에 대후(大侯)²⁷⁹의 토지주(土知州) 도방한(刀奉漢)이 맹진 지역을 침략하여 절기하니, 검국

274) 錦衣衛: 명대의 軍事特務機構인 錦衣衛親軍都指揮使司의 약칭이다. 明 太祖는 洪武 원년(1368)에 御用 拱衛司를 설치하였으나 곧 이를 儀衛司로 고치고, 이듬해에 다시 이를 大內親軍都督府로 고쳤으며, 이를 토대로 洪武 15년(1382)에 錦衣衛를 설치하였다. 금의위의 長에는 勳功이 있거나 혈연관계가 있는 都督을 임명하여, 남북의 두 鎮撫司와 14개의 소를 통할토록 하였다. 이 기관의 임무는 황제가 거동할 때 儀仗, 宮廷 守護, 京城 안팎에 대한 巡察, 罪人の 逮捕 및 訊問 등을 담당하였으며, 따로 詔獄을 두어 刑部의 법률절차를 따지 않고도 부속할 수 있었다. 兵權·刑權을 모두 가진 황제 독재 권력의 수호으로서, 永樂帝 이후로 宦官이 장관을 맡고 있는 東廠·西廠 등과 더불어 공포정치를 행하였다.

275)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06 洪武 23년 11월 乙卯條에 있음.

276)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25 洪武 26년 2월 乙巳條에 있음.

277) 孟緬長官司: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 雲縣에 위치했음.

278) 孟緬長官司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67 宣德 5년 6월 丙子條 참조.

279) 大侯: 洪武 24년(1391)에 麓川平緬 지역을 나누어 長官司를 설치하고, 百夷人 刀奉偶를 官사로 삼았다.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 雲縣이며, 雲南指揮司에 예속시켰다. 宣德 4년(1429)에 州로 승격시키

공 목성(沐晟)에게 칙서를 내려 관원을 보내 안무하고 효유하도록 했다.²⁸⁰⁾

正統中，思任發叛，官軍征麓川，知府陶瓚從有功，進階大中大夫，弘治十五年正月，景東雲霧晦暗，晝夜不別者凡七日，巡撫陳金以聞，命廷臣議考察，以謝天變。南京刑部·都察院承旨，考黜文武官千二百員，嘉靖中，者東向稱亂，勅景東府印去，土舍陶金追斬其頭目，奪印歸。

정통 연간(1436~1449)에 사임발(思任發)²⁸¹⁾이 반기를 들자 관군이 녹천(麓川)²⁸²⁾을 정벌했는데, 지부(知府) 도찬(陶瓚)이 정토에 중군하여 공을 세워²⁸³⁾ 대중대부(大中大夫)로 승진하였다.²⁸⁴⁾ 홍치(弘治)²⁸⁵⁾ 15년(1502) 정월에 경동위는 구름과 안개로 암흑이 되어 무릇

고 刀奉漢을土知州로 삼았다. 萬曆 연간(1573~1619)에 土官의 內訌를 평정하였으며, 萬曆 25년(1597)에 雲州로 고치고 流官을 설치했다.

280) 이와 관련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82 宣德 6년 8월 丙辰條 참조.

281) 思任發(?~1445): 원래 이름은 思任이었는데, 후에 자칭 法(演)이라 했기에 와전되어 思任發이라 했다고 한다. 明代 麓川宣慰使 思可發의 아들로, 아버지의職을 이었으며, 明朝와 잘 지내면서 이후 각 부락을 겸병하여 점차 세력이 강성해졌다. 正統 2년(1437)에 주변 일대를 점거하고서 무리들을 이끌고 명조에 반기를 들었다. 이듬해에 南甸·騰冲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明의 黔國公 沐晟이 이끄는 군대를 공격하여 패배시켰다. 그러나 正統 6년(1441)에 兵部尙書 王驥·定西伯 蔣貴 등이 대군을 이끌고 진압하자 점차 세력이 약해졌으며, 正統 8년(1443)에 緬甸으로 敗走하였다. 明軍은 다시 征討에 나섰다가 결국 正統 10년(1445) 12월에 그는 緬甸宣慰使 卜剌浪과 馬哈省에게 사로잡혔으며, 絕食하고 죽었다.

282) 麓川: 지금의 雲南 瑞麗縣 畹町鎮 등의 지역으로 緬甸에 접해 있다. 언라라 때 이 지역에 宣慰使司를 설치했는데, 明 太祖가 雲南을 평정한 후 洪武 17년(1384)에 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하고 이 지역 수명을 宣慰使로 삼았다. 正統 2년(1437) 10월에 麓川宣慰使 思任發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듬해에 孟養, 騰衝을 공격하고 潞江을 점령하여 스스로 滇王이라 칭하였다. 이에 明朝는 수년에 걸쳐 이를 진압했는데, 이를 '麓川의 役'이라 한다. 이후 正統 9년(1444)에 麓川軍民宣慰使司를 宣撫司로 바꾸고 治所를 隴把에 두었는데, 이 때문에 隴川宣撫司라고도 일컫는다.

283) 麓川의 賊 思任發이 百夷의 數萬 무리를 규합하여 반기를 들자, 雲南 總兵官 都督同知 沐昂이 署都指揮僉事 方瑄과 指揮 柳英, 土官知府 陶瓚 등을 督率하여 그들의 寨를 격파하고 500의 首級을 베었다. 『英宗實錄』 卷69 正統 5년 추7월 丁未條 참조.

284) 『英宗實錄』 卷69 正統 5년 추7월 己酉條에 “景東府 土官知府 陶瓚 階爲大中大夫”라 기재되어 있다. 285) 弘治: 명 황조 10대 황제인 孝宗 朱祐楨의 연호이다.

7일간이나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는데,²⁸⁶⁾ 순무 진금(陳金)²⁸⁷⁾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조정대신에게 고찰(考察)한 바를 의논하고 하늘의 변고에 사죄하도록 명했다.²⁸⁸⁾ 남경(南京)²⁸⁹⁾ 형부(刑部)²⁹⁰⁾·도찰원(都察院)²⁹¹⁾이 유지를 받들고 조사하여 문무관 1,200명을 과면시켰다. 가정 연간(1522~1566)에 자동천(者東甸)²⁹²⁾이 반란을 일으켜 경동부의 입장을 빼앗아 갔다. 토사(土舍) 도금(陶金)이 그 무복을 쫓아가 참살하고, 입장을 빼앗아 돌아왔다.

286) 『明史』 卷28 「五行志」와 「國權」 卷44에는 이 일이 弘治 15년(1502) 11월에 일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87) 陳金(1446~1529): 字는 汝礪이고, 號는 西軒이요, 湖廣 武昌縣(지금의 湖北省 武昌) 사람이다. 成化 8년(1472)의 進士로 參議知縣에 제수되었고 이어 南京御史로 승임하였다. 弘治 初에 浙江 지역을 巡按하고 돌아와 災異와 관련하여 文武臣僚 19명을 탄핵하였고, 곧 山西副使를 이어 雲南左布政使를 역임하면서 竹子筴 叛亂을 토벌하였다. 弘治 13년(1500)에 右副都御史로 雲南의 巡撫가 되어 孟養 酋長 思祿과 孟密 酋長 思祥을 征討하였다. 이후 南京戶部右侍郎이 되었고, 正德 元年(1506~1521)에 들어와 左都御史가 되어 兩廣軍務를 總督했으며, 甯民의 起釁을 평정한 공으로 正德 3년(1508)에 南京戶部尙書가 되었다. 이듬해 左都御史에 임명되어 江西·福建 등지의 農民起義를 토벌하여 太子少保가 더해졌다. 正德 10년(1515)에 다시 兩廣軍務를 총독했으며, 正德 14년(1519)에 都察院의 員을 관장했다. 그러나 正德 16년(1521)에 나이를 이유로 歸鄉을 청했으며, 嘉靖 8년(1529)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83세였다. 『明史』 卷187 「陳金傳」 참조.

288) 이에 관련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99 弘治 16년 5월 戊子條 참조.

289) 南京: 明 初 太祖 朱元璋이 수도로 정한 곳으로, 처음에는 德安府로 불리다가 北京으로 京師를 옮긴 뒤에 南京으로 불렸다. 建康이나 金陵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290) 刑部: 六部의 하나로 天下의 刑名 및 徒隸·勾覆·關繫의 政務를 관장하였다. 명칭시대에 刑部는 都察院, 大理寺와 함께 중대한 안건에 대한 최종 심리를 맡았는데, 이를 三法司라 부른다.

291) 都察院: 明清시대의 政務監察기관이다. 元代의 감찰기관인 御史臺는 明朝에 답습되었지만 洪武 13년(1380)에 察院만 남기고 폐지되었다. 그러나 감찰의 임무가 중요시되자 洪武 15년(1382)에 都察院을 설치하여 중앙에 監察都御史를 두고, 전국외 12도에 監察御史를 分派시켰다. 이어 左右都御史·左右副都御史·左右僉都御史·經歷·都事 등 여러 官을 定하고, 또 그 수를 늘려 전국을 巡察하도록 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百司에 대한 糾察과 부정한 관리를 적발하여 彈劾하는 일이고, 특히 監察御史는 지방 관청의 政務·刑獄을 감시하고, 賦冊을 檢査하며, 鄉試 및 武舉에도 臨場했다. 明 중기 이후에는 지방의 總督, 巡撫, 提督 밑에도 都御史를 두어 政令의 統一을 기렸던 것으로 이들 諸官은 文武監察의 권한을 장악하게 되었다.

292) 者東甸: 者東甸長官을 일컫는다. 永樂 원년(1403)에 설립되어 雲南都司에 예속되었는데, 지금의 雲南省 思茅市 景谷傣族彝族自治縣 지역이다.

景東部皆樊楚，性淳樸，習弩射，以象戰，歷討鐵索·米魯·那鑑·安銓·鳳繼祖諸役，皆調其兵及戰象。天啓六年，貴州水西安邦彥反，率衆二十萬入滇境，至馬龍後山，去會城十五里。總兵官調景東土舍陶明卿率兵伏路左，賊分道并至，官兵禦之，賊拒戰，勢甚銳。明卿乃以象陣從左翼衝出橫擊，賊潰，追奔十餘里。巡撫上功，推明卿第一。景東每調兵二千，必自效千餘，餉士之費，未嘗仰給公家，土司中最稱恭順。其府治東有邦泰山，頗險峻，土官陶姓所世居也。

경동부(景東部)는 모두 북(樊) 종족인데, 성정(性情)이 순박하고 활쏘기에 익숙하며 코끼리를 사용하여 전투를 한다. 철쇄(鐵索)·미로(米魯)·나감(那鑑)·안진(安銓)·봉계조(鳳繼祖) 등을 토벌하는 여러 전투를 치르면서, 모두 그들의 군대와 전투용 코끼리를 징발하였다.²⁹³⁾ 천계(天啓)²⁹⁴⁾ 6년(1626)에 귀주(貴州)²⁹⁵⁾ 수서(水西)의 안방언(安邦彥)²⁹⁶⁾이 반기를 들고 무리 20만을 이끌고 진(滇)의 지경에 들어와 마룡(馬龍) 뒷산에 이르렀는데, 성성(省城)과는 15리(里)²⁹⁷⁾ 떨어져 있었다. 총병관은 경동의 토사(土舍) 도명경(陶明卿)이 이끄는 군대를

293)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景東府에 보면, 陶舍이 즉자 그의 아들 陶澗이 뒤를 이어 嘉靖 연간(1522~1566)에 鐵索·米魯·那鑑·安銓·鳳繼祖 등을 정벌하는데 참가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鐵索에 대한 정벌은 萬曆 원년(1573) 雲南省 大姚縣 서북에 위치한 鐵索菁에서 羅思가 일으킨 난에 대한 정벌이고, 米魯에 대한 정벌은 弘治 15년(1502)에 貴州 普安州 苗族土司인 隆柳의 妻 米魯가 일으킨 난에 대한 정벌이다. 또 那鑑에 대한 정벌은 嘉靖 29년(1550)에 元江府 土舍 那鑑이 일으킨 난에 대한 토벌이고, 安銓에 대한 정벌은 嘉靖 6년(1527)에 尋甸土舍 安銓이 일으킨 난에 대한 토벌이며, 鳳繼祖의 토벌은 嘉靖 44년(1565)에 武定土舍 鳳繼祖의 난에 대한 토벌을 말한다.

294) 天啓: 명 왕조 16대 황제인 嘉宗 朱由校의 年號임.

295) 貴州: 「尚書」 「禹貢」의 荊·梁 二州의 徼外 지역이다. 元代에는 湖廣·四川·雲南 三行中書省의 지역이었는데, 洪武 15년(1382)에 貴州都指揮使司를 두고, 貴州宣慰司를 治所로 삼았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等處承宣布政使司를 두고, 府 8·州 1·縣 1·宣慰司 1·長官司 39곳을 관할케 했다.

296) 安邦彥(?~1629): 貴州省 織金那威(지금의 織金官寨) 사람이다. 天啓 2년(1622)에 四川 永寧宣撫使 奢崇明的 起義에 호응해 기병하여, 羅甸大王이라 칭하였다. 彝族을 끌기시켜 反明大起義를 든 그는 隊伍를 갖추어 貴州 대부분과 四川·雲南·湖南 등지에 그 여파를 미쳤으며, 3차에 걸쳐 朱陽을 포위 공격하였다. 그러나 崇禎 2년(1629)에 起義는 失敗하고 四川에서 전사했다.

297) 里: 明代에 길이를 표시하는 尺度는 戴衣尺·量地尺·營造尺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明代 量地尺의 1里는 360步이고, 『算法統宗』 卷3에 의하면 '五尺爲一步'로 되어 있음으로 1里는 1,800尺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里는 576m이다.

징발하여 길 좌편에 매복했다. 적이 길을 나누어 동시에 이르렀고, 관병이 이를 막자 적이 대적하여 싸웠는데, 형세가 매우 첨예(尖銳)했다. 도명경이 이에 코끼리의 진(陣)을 좌익(左翼)으로 내보내 가기로 공격하자 적은 깨달았으며, 도망하는 적은 10여 리나 추격하였다. 순무는 공격을 상실했는데, 도명경을 제일로 추천하였다. 경동은 매년 병사 2천을 징발할 때마다 반드시 스스로 천여 명을 충당해 바치고, 병사들의 양식에 드는 비용은 일찍이 조정에 의뢰하지 않았으며, 토사 가운데 가장 공순하다고 칭했다. 그 부의 처소 동쪽에는 배태산(邦泰山)이 있는데, 매우 험준하며 토관 陶(陶)씨 성이 세대로 거주하는 곳이다.

廣南 광남

廣南，宋時名特磨道。土酋儂姓，智高之裔也。元至元間，立廣南西路宣撫司。初領路城等五州，後惟傾安寧·富二州。

광남(廣南)²⁹⁸⁾은 송나라 때에 특마도(特磨道)라 불렀다. 그 지역 추장 농(儂)씨 성(姓)은 지고(智高)²⁹⁹⁾의 후예이다. 원나라 지인 연간(1264~1294)에 광남서로(廣南西路) 선무사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노성(路城) 등 다섯 개 주를 관령했는데, 후에 오직 안녕(安寧)³⁰⁰⁾·부주(富州)³⁰¹⁾ 두 개 주만을 관령했다.

298) 廣南: 廣南府를 일컫는다. 원나라 때는 廣南西路宣撫司였는데, 洪武 15년(1382) 11월에 廣南府로 고쳐 富州(지금의 富寧縣) 한 개의 州만을 管領했다. 지금의 雲南省 文山壯族苗族自治州 동북부 지역임.

299) 儂智高: 宋代 廣源州의 소수민족 출신이다. 廣南을 점거하고 邕州를 공격해서 南天國을 건국했으며, 仁惠皇帝라 稱하였다.

300) 安寧: 安寧州를 일컫으며,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文山壯族苗族自治州 富寧縣 西南 지역이었고 廣南西路에 속했으나 明나라 초에 廢해졌다.

301) 富州: 원나라 至元 13년(1276)에 설치했으며,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文山壯族苗族自治州 富寧縣이고 廣南西路에 속했다. 明代에 이르러 廣南府에 예속되었고, 淸 光緒 26년(1900)에 富州土廳으로 바꾸었다.

洪武十五年歸附，改廣南府，以上官儂郎金爲同知。十八年，郎金來朝，賜錦綺鈔錠。二十八年，都指揮同知王俊奉命率雲南後衛官軍至廣南，築城建衛。郎金父貞佑不自安，結衆據山寨拒守。後遣人招之，不服。時伏草莽中劫掠，覘官軍追迫。後乃遣指揮歐慶等分兵攻各寨，自將取貞佑；又以兵扼問道，絕其救援。請寨悉破，衆潰，貞佑窮促就擒，械送京師。降郎金爲府通判。

흥무 15년(1382)에 귀부해 와, 광남부(廣南府)로 고치고 토관 농낭금(儂郎金)을 동지로서 삼았다.³⁰² [흥무] 18년(1385)에 농낭금이 내조하니 금기(錦綺)³⁰³와 초정(鈔錠)³⁰⁴을 하사했다.³⁰⁵ [흥무] 28년(1395)에 도지휘동지(都指揮同知) 왕준(王俊)이 명을 받들고 운남후위(雲南後衛)의 관군을 이끌고 광남에 이르러 성을 쌓고 위(衛)를 세웠다. 농낭금의 부친인 농정우(儂貞佑)³⁰⁶는 불안함을 느껴 무리를 모아 산채를 점거하고 항거하며 지켰다. 왕준이 사람을 보내 그를 초무했지만 부종하지 않고, 때때로 풀숲에 매복하여 노략질을 하며 관군의 들어오고 나감을 엿보았다. 왕준은 곧 지휘(指揮)³⁰⁷ 구경(歐慶) 등을 보내 군대를 나누어 각 채를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농정우를 붙잡으려 했으며, 또 군대를 보내 셋길을 체압해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을 단절시켰다. 여러 채는 모두 격파되고 적의 무리는 궤멸되었으며, 농정우는 결국 사로잡혀 형구에 세워져 경사에 압송되었다.³⁰⁸ 농낭금을 강등시켜 부(府)의

- 302)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0 洪武 15년 11월 甲戌條 참조.
 303) 錦綺: 錦은 여러 빛깔을 섞어 짠 무늬가 있는 비단이며,綺는 緇織을 짜면서 무늬를 같이 수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錦綺는 여러 빛깔로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을 일컫는다.
 304) 鈔錠: 明代에 유통되었던 지폐를 말한다. 송과元代에는 交鈔라 했으며, 명대에는 寶鈔라 불렀다. 원나라 때는 世祖 中統 원년(1260)에 中統元寶交鈔를, 至元 24년(1287)에 至元通行寶鈔를 발행하였다. 명조는 洪武 8년(1375)에 大明寶鈔를 발행했으며, 寶鈔提舉司를 戶部 관할에 두어 그 발행과 보관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조를 발행할 때만 이 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清代에는 초기에 한 번 발행한 적이 있으나 바로 중지했으며, 咸豐 3년(1853)에 大清寶鈔를 발행했지만 역시 바로 중지되었다.
 305) 洪武 18년(1385) 3월의 일이다. 『太祖實錄』 卷172 洪武 18년 3월 庚午條 참조.
 306) 儂貞佑: 본문에는 儂郎金의 부친으로 기재되었으나 儂郎金의 부친은 儂不花이고 儂貞佑는 儂不花의 동생으로, 즉 그의 叔父이다.
 307) 指揮: 衛所를 책임 짓는 守備隊長을 지칭한다. 지방의 군정장관인 都指揮使 밑에 都指揮同知 2명(從二品)과 都指揮僉事 4명(正三品)이 보좌하는데, 이들과 함께 衛事를 담당했다.
 308)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42 洪武 28년 동10월 己未條 참조.

通判(通判)³⁰⁹으로 하였다.³¹⁰

永樂六年，富州土知州沈絃經入貢，值仁孝皇后喪，絃經奉香幣致祭。宣德元年，土官儂郎舉來朝，貢馬。

영락 6년(1408)에 부주(富州)의 토지주인 심현경(沈絃經)이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는데, 마침 인효황후(仁孝皇后)³¹¹의 상사(喪事)가 있어서 심현경은 제사를 지내는 예물로 향과 폐백(幣帛)³¹²을 바쳤다.³¹³ 선덕 원년(1426)에 토관 농낭거(儂郎舉)가 내조하여 말을 바쳤다.³¹⁴

正統六年，廣南賊阿羅·阿思等劫掠，命總兵官沐昂等招撫之。時富州土官沈政與郎舉互訐糾衆侵地，帝命昂等勸處。七年，昂奏二人叛送無實跡，因有隙相妄奏。兵部請治政等罪，帝以蠻人宥之。政·舉相仇殺已十餘年，時方征麓川，憚兵不敢動。未幾，郎舉以從征功陞同知，死無嗣，四門舍目共推儂文舉署事，屢立戰功。萬曆七

- 309) 通判: 府의 副職으로, 知府 밑에서 糧運·水利·屯田·牧馬·江海防務 등의 일을 분장한 正六品의 관직이다.
 310) 天啓(頤志)와 『天下郡國利病書』에 의하면, 儂郎金이 죽고 그 뒤를 승부인 儂貞佑가 잇고서 亂을 일으켰으며, 명조는 난을 평정한 후 貞佑의 아들 儂郎舉를 通判으로 삼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11) 仁孝皇后(1362~1407): 명 成祖 永樂帝의 嬪이다. 漳州 사람으로, 명 開國功臣 徐達의 長女이고 모친은 謝氏(謝再興의 次女)이다. 洪武 9년(1376) 정월 27일에 燕王의 妃로 책봉되었고, 建文 4년(1402) 11월 13일에 황후로 책봉되었으나 永樂 5년(1407) 7월에 46세의 나이로 南京에서 세상을 떠났다.
 312) 幣帛: 오늘날에는 新婦가 婚禮를 마치고 시댁에 와서 媵父母를 비롯한 여러 시댁 어른들에게 드리는 첫 人事를 말하지만, 이전에는 禮를 갖추어 보내는 물건이란 뜻으로 쓰였다.
 313) 이에 관한 내용은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廣南府에 있는데, 沈絃經의 先祖인 沈光이 원나라 때에 富州 및 安寧州의 土官이 되었고, 梁王는 그의 아들 永秀를 元帥로 삼았으며, 洪武 연간(1368~1398)에 永秀가 明에 귀부하자 明朝는 그를 富州 土知州에 임명하였다. 永秀가 죽자 그의 아들 大忠이 이었고, 大忠이 죽자 그의 아들 瑄經이 세습하였으며, 永樂 6년에 瑄經이 明에 入貢하였는데, 마침 仁孝皇后의 喪이 있자 香幣를 바쳐 祭祀를 드렸다.
 314) 雲南 廣南府 土官通判 儂郎舉 등이 來朝하여 말을 바친 것은 宣德 원년(1426) 9월의 일이다. 『宣宗實錄』 卷21 宣德 원년 9월 己亥條 참조.

年，實授同知，子應祖從征三鄉，親獲賊首，賞賞銀百兩。播州之役，徵其兵三千討尋甸叛目，皆有功，賜四品服。

정통 6년(1441)에 광남의 적 아라(阿羅)·아사(阿思) 등이 약탈을 하니 총병관 목양(沐昂)³¹⁵ 등에게 명하여 이들을 초무하도록 했다. 당시 부주의 토관 심정(沈政)³¹⁶과 농낭거가 서로 비방하며 무리들을 모아 침범했는데, 황제는 목양 등에게 명하여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했다.³¹⁷ 정통 7년(1442)에 목양은 두 사람이 반역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같들이 있어서 함부로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상주하였다. 병부(兵部)³¹⁸는 심정 등을 죄로 다스리도록 청하였으나 황제는 [이들이] 만인이라 하여 용서했다.³¹⁹ 심정과 농낭거가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이려고 한 지 10여 년이 되던 당시 마침 녹천(麓川)을 정벌하였는데, 군대의 위세를 꺼려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농낭거가 정토에 종군하여 공을 세워 동지(同知)로 승임(陞任)하였고, [그가] 죽고 이를 자가 없자 사문(四門)의 사목(舍目)들이 공동으로 농문거(農文舉)를 추거하여 일을 대신 맡도록 했는데,³²⁰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이후] 만력 7년

- 315) 沐昂(?~1445): 字는 景高이고, 明朝 開國功臣 沐英의 아들이며, 沐春의 동생이다. 그는 처음 府軍左衛 指揮僉事에 임명되었다. 成祖가 沐英에게 南征을 명했을 때, 沐昂을 都指揮同知로 승진시켜 雲南都司를 통령하도록 했으며, 이후 右都督에 올랐다. 正統 4년(1439)에 沐晟이 병으로 세상을 떠남으로, 沐昂은 帥印을 계승하여 兵部尚書 王驥 등을 도와 思任發의 叛亂을 정토하였다. 正統 10년(1445)에 그는 雲南에서 죽었는데, 定邊伯에 追封되었다. 諡號는 武襄이다.
- 316) 沈政은 沈瓚의 아들이다.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廣南府 참조.
- 317)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7 正統 6년 2월 癸未條에 있는 雲南 總兵官 都督同知 沐昂 및 雲南 都·布·按 三司 巡按御史 등에게 내린 勅書의 내용을 참조.
- 318) 兵部 隋唐시대에 설치된 관청으로, 武官의 임용, 兵籍, 軍械, 軍食 등을 담당하였다. 清末까지 존속하였으나, 그 職權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 宋·遼·金·元에서는 兵政을 관할하지 않았다. 明代의 兵部尚書는 本兵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한은 가장 컸다. 清代의 兵部에서는 武官의 임용이나 驛站의 관리는 담당하였지만 兵權은 갖지 못하였다. 光緒 32년(1906)에 새로운 정치체도를 시행하면서 兵部라는 명칭은 없어졌다.
- 319)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96 正統 7년 3월 戊辰條 참조.
- 320) 본문에서는 僂郎舉가 죽고 後嗣가 없어 農文舉가 토司의 職을 이은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雲南省 廣南僂氏土司 世系表를 보면, 僂郎舉를 이어 그의 장자 儂印祖가 토사의 직을 계승했고, 그 뒤를 이어 7세대가 이어져 儂承恩에 이르렀다. 儂承恩을 이어 農文舉가 세워졌는데, 農文舉는 儂承恩의 숙부였지만 承恩에게 후사가 없자 그가 뒤를 이었다.

(1579)에 실제로 동지에 제수되었다.³²¹) [그의] 아들 농응조(農應祖)가 삼향(三鄉)을 정토하는데 종군하여 친히 적의 우두머리를 사로잡으니, 조서를 내려 은 100냥을 상으로 주었다. 파주(播州)의 전역(戰役)³²² 때에 그의 군대 3,000명을 징발하여 심진(尋甸)³²³의 반적(叛賊) 두목을 토벌하였는데, 모두 공이 있어 사품(四品)의 관복을 하사하였다.

儂氏自文舉籍四門舍目推擁之力得授職，後儂氏襲替必因之。土官之政出於四門，租稅僅取十之一。道險多瘴，知府不至其地，印以臨安指揮一人署之。指揮出，印封一室，入取，必有瘡癘死亡。萬曆末，知府廖鉉者，避瘴臨安，以印付同知儂任英子添壽。添壽死，家奴竊印并經歷司印以逃，既而歸印於其族叔儂任祥。時任英親弟任鄉例得襲，索任祥印，任祥不與，遂虜地與泗城土官岑接，與連婚構兵，減任鄉家。及任祥死，子琳以府印遂接，而經歷司印又為琳弟瓊所有。巡撫王懋中調兵往問，瓊覆還印於通判周憲，接亦出府印獻於官。時兵方調至境，述違歸。廷議治鉉擅離與守巡失撫之罪，瓊·接已輸服，勿問，詔可。未幾，儂紹湯兄弟爭襲，各糾文陞兵象，焚掠一空。

농씨(儂氏)는 농문거가 사문(四門)의 사목(舍目)들이 추거하여 올림하려는 역망에 의해 직(職)에 제수되면서부터 이후 농씨의 세습이나, 교체는 반드시 이들이 의해서 이루어졌다.

- 321) 이에 관한 내용은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廣南府에도 보인다.
- 322) 播州之役: 萬曆 三大征의 하나로, 四川省 播州의 宣慰使 楊應龍이 일으킨 苗族의 반란을 진압한 전쟁을 일컫는다. 양응룡의 집안은 唐나라 때부터 四川 播州의 豪族으로 명나라에서도 대대로 宣慰使에 책봉되었다. 양응룡도 隆慶 6년(1572)에 선위사가 되어 말·목재 등의 供出 및 치안유지 등에 힘써, 萬曆 15년(1587)에는 都指揮使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다른 苗族에 대한 지배권 확장책이 무자비하였기 때문에 四川·貴州 지방관의 반감을 사 고소를 당했고, 그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다. 萬曆 22년(1594)에 그는 체포하러온 관군을 살상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한 때 귀순할 뜻을 비치기도 하였으나 다시 湖廣의 표족에게까지 지배권을 뻗쳤으며, 이 때문에 萬曆 28년(1600)에 중앙정부는 李化龍을 총합으로 기용하여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양응룡은 결국 자결하였다.
- 323) 尋甸: 尋甸府를 일컫는데, 元나라 때에 仁德直隸府로 삼았으며, 洪武 15년(1382)에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이듬해(1383)에 仁德軍民府로 고쳤다가 다시 尋甸軍民府로 했으며, 成化 12년(1476)에 다시 尋甸府로 고쳤다.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북부 지역에 위치했으며, 爲美縣과 歸厚縣을 관할했다.

토관의 정령(政令)은 사문에서 나왔고, 조세는 겨우 10분의 1만 취하였다. 길은 험준하고 풍토병이 많아 지부가 이 지역에 이르지 않으니, 관인(官印)은 임안(臨安)의 지휘(指揮) 한 사람이 대신 맡았다. 지휘가 나갈 때면 관인을 하나의 방에 봉해놓는데, [누군가] 들어와 [이것을] 가져가면 반드시 열병에 걸려 죽었다. 만력 말에 지부 요현(饒鉉)이 풍토병을 피해 임안에 이르러서 관인을 통지 농사영(農仕營)의 아들 농침수(農添壽)에게 주었다. 농침수가 죽자 가노(家奴)가 부인(府印)과 아울러 경력사인(經歷司印)을 훔쳐 도망쳤는데, 오래지 않아 그의 족속(族叔) 농사상(農仕祥)에게 관인을 가지고 돌아왔다. 당시 농사영의 친동생인 농사해(農仕癸)가 법식에 따라 세습하고 농사상에게 관인을 요구했는데, 농사상은 주지 않고 마침내 사성(泗城)³²⁴ 토관 잠접(岑接)에게 땅을 바쳤으며, [그와] 혼인을 맺고 군대를 일으켜 농사해 가문을 멸하였다. 농사상이 죽자 그의 아들 농림(農琳)이 부인(府印)을 잠접에게 보였으나 경력사인(經歷司印)은 또 농림의 동생 농경(農瓊)이 소유하게 되었다. 순무 왕무중(王懋中)이 군대를 징발해 [그곳에] 나가 수소문하자 농경이 두려워하여 경력사인을 통판(通判) 주현(周憲)에게 돌려주었으며, 잠접 역시도 부인(府印)을 가지고 나와 관부(官府)에 바쳤다. 당시 군대가 막 징발되어 경내에 이르렀지만, 곧 되돌려 보냈다. 조정대신들이 의논하여, 지키고 살피야 할 직책에서 체맞대로 떠나 [백성들을] 아무만지지 못한 요현의 죄를 정치하도록 하고, 농경과 잠접은 이미 순복했으므로 추구(追究)하지 말라고 하니, [황제는]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 오래지 않아 농소탕(農紹湯) 형제가 서로 세습하겠다고 다투면서 각기 교지(交趾)의 전투용 코끼리를 규합하였으며, 불사름과 노략질로 모든 것이 없어져버렸다.

廣西 광서

廣西，隸屬羈州，後爲東楚·烏蠻等部所居。唐隸黔州都督府。後師宗·彌勒二部浸盛，蒙·段皆莫能制。元憲宗時始內屬。至元十二年籍二部爲軍，置廣西路。

324) 泗城 泗城州를 일컫는데, 송나라 皇佑 5년(1055)에 지금의 廣西省 汝雲縣에 泗城州를 설치하고 治所를 下甲 汾洲(지금의 汝雲縣 下甲郡 政府의 汾洲)에 두었다. 明 洪武 6년(1373)에 治所를 下甲 汾洲에서 古勤峯(지금의 汝雲縣城 所在地 泗城鎮)으로 옮겼다가 汾洲를 다시 州治로 삼았다.

광서(廣西)³²⁵는 수나라 때에 장주(羈州)에 속했고, 후에 동북(東契)·오만(烏蠻) 등 부족이 거주하게 되었다. 당나라 때에는 검주(黔州) 도독부에 예속되었다. 후에 사종(師宗)·미록(彌勒) 두 부족이 점차 강성해져, 몽씨(蒙氏)·단씨(段氏)가 모두 제어할 수 없었다. 원나라 원종 때에 비로소 귀부하여 속지(屬地)가 되었다. 지원 12년(1275)에 두 부족을 군적(軍籍)에 편입시키고 광서로(廣西路)를 설치했다.

洪武十四年歸附，以上官普德署府事。二十年，普德及彌勒知州赤善·師宗知州阿的各遣人貢馬，詔賜文綺紗錠。二十四年，布政使張統奏：「維摩·雲龍·永寧·浪渠·越順等州獯蠻民頑惡，不遵政教，宜置兵戍守，以控制之。」是後，朝貢賜予如制。

홍무 14년(1381)에 귀부해 오자 토관 보덕(普德)에게 부(府)의 일을 대신 처리하도록 했다.³²⁶ [홍무] 20년(1387)에 보덕 및 미록의 지주 적선(赤善)·사종의 지주 아적(阿的)이 각각 사람을 보내 말을 바치니, 조서를 내려 문기와 초정을 하사했다.³²⁷ [홍무] 24년(1391)에 포경사 장담(張紘)³²⁸이 주청하기를, “유마(維摩)·운용(雲龍)³²⁹·영녕(永寧)³³⁰·낭기(浪

325) 廣西: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族自治州 북부에 있는 瀘西縣 지역임.

326) 土官 普德에게 雲南 廣西府의 일을 임시로 맡긴 것은 洪武 16년(1383) 4월의 일이다. 『太祖實錄』 卷153

洪武 16년 4월 庚子條 참조.

327) 洪武 21년(1388) 4월의 일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90 洪武 21년 4월 庚午條 참조.

328) 張紘(?-1403): 字는 昭亭이며, 陝西省 富平縣 사람이다. 明 洪武 初에 經明行修에 선발되어 京兆教授가 되었으며, 이후 東宮侍正, 通政司 左參議, 通政使, 布政司 左參政 등을 역임했다. 洪武 15년(1382)에 雲南을 평정할 때 태조는 그에게 雲南政務를 맡도록 했는데, 여러 직무를 잘 수행하였다. 洪武 20년(1387)에 京師에 돌아와 황제로부터 讚賞을 받고 左布政使에 임명되었는데, 그의 노력으로 운남은 크게 안정되었다. 建文帝가 즉위해서 그는 吏部尙書에 올라 削藩·改制 등에 참여하여 宗室의 政治活動을 규제하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燕王 朱棣가 즉위해서는 奸臣 29명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되어 解職되었다. 이에 그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고, 처자식은 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329) 雲龍: 雲龍州를 일컫는다. 원나라 때에는 雲龍軍民府였는데, 洪武 17년(1384)에 雲龍州로 강등시켜 大理府에 예속시켰다. 이후 正統 연간(1436~1449)에 蒙化府에 예속시켰다가 후에 다시 大理府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雲龍縣 지역이다.

330) 永寧: 永寧府로 보이는데, 원나라 때에는 雲寧州로 麗江路에 속했다. 洪武 15년(1382)에 北勝府로 바꾸어 예속시켰다가 洪武 17년(1384)에 鶴慶府에 예속시켰으며, 洪武 29년(1396)에 瀾滄軍民衛에 속하게 했다. 이후 永樂 4년(1406)에 永寧府로 승격시켜 布政司에 속하게 했다.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寧蒗彝族自治县 지역이다.

業)·월순(越順) 등 주현의 만민은 완고하고 흉악하며 다스림과 교화에 따르지 않으니, 마땅히 군대를 두어 지킬으로써 이들을 제어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후에 예제에 따라 조공과 사여(賜子)를 했다.

正統六年，總兵官沐昂奏師宗州及廣南府賊阿羅·阿思糾合爲亂，命昂等招諭，未幾平。成化中，土知府昂貴有罪，革其職，安置彌勒州，乃置流官，始築土城。嘉靖元年設雲南彌勒州十八寨守禦千戶所。其部衆好擄掠，無紀律，至水西·烏撒用兵，始征調之。崇禎間，巡按御史傅宗龍由滇入黔，招普兵以行。時滇中最勦稱沙普兵，亦曰昂兵。

정통 6년(1441)에 총병관 목양이 사종주(師宗州)³³¹ 및 광남부(廣南府)³³²의 적(賊) 아라(阿羅)·아사(阿思)가 [무리]를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다고 상주하니, 목양 등에게 명하여 초무하여 효유하도록 했으며, 곧 평정되었다.³³³ 성화 연간(1465~1487)에 토지부 양귀(昂貴)가 죄를 지어 그 관직을 혁제(革除)하고 미륵주(彌勒州)에 안치시켰으며, 이에 유관(流官)을 두어 토성(土城)을 쌓기 시작했다.³³⁴ 가정 원년(1522)에 운남 미륵주 십팔寨(十八寨) 수어천호소를 설립하였다.³³⁵ 그 부락의 무리들은 노략질을 좋아하고 기율(紀律)이 없었는데, 수서(水西)·오살(烏撒)에 대한 용병(用兵) 시에 처음으로 이들을 징발했다. 승정 연간(1628~1644)에 순안어사(巡按御史)³³⁶ 부종룡(傅宗龍)³³⁷이 진(滇)을 경유하여 검(黔)에 들어갔는데, 보

自治縣 지역이다.

- 331) 師宗州: 元나라 至元 27년(1290)에 師宗部를 고쳐 師宗州를 설치했는데, 淸 乾隆 35년(1770)에 縣으로 강등되었다.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師宗縣 지역이다.
- 332) 廣南府: 洪武 15년(1382)에 元代의 廣南西路 宣撫司를 廣南府로 고쳐 설치하였고, 富州, 羅佐州, 安寧州를 관할했다. 지금의 雲南省 文山壯族苗族自治州의 동북부 지역이다.
- 333)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76 正統 6년 2월 癸未條 참조.
- 334) 『憲宗實錄』 卷214 成化 17년 8월 4일 壬申條에 보면, 廣西府 土官知府 昂貴가 襲職한 이후 그의 伯母 등을 毒殺했다고 家人들이 고발한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 내용이 보인다.
- 335) 嘉靖 원년(1522) 2월의 일이다. 『世宗實錄』 卷11 嘉靖 원년 2월 戊戌條 참조.
- 336) 巡按御史: 본래 唐代에 御史들을 설치하여 감찰의 임무를 맡도록 했는데, 明代에 어사대 대신 都察院을 설치하였다. 이때 都察院의 말직으로 13道에 監察御史를 두고 지방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그 별칭이

(普)의 군대를 초모(招募)하여 출정했다. 당시 진(滇) 지역 안에서 최강은 사·보병(沙·普兵)이라 칭하였는데, 또한 양병(昂兵)이라고도 일컫었다.³³⁸

鎮沅 진원

鎮沅, 古濮·洛雜蠻所居, 『元史』謂是和泥·昔棧二蠻也. 唐南詔蒙氏銀生府地. 其後, 金齒雙蠻據之. 元時爲威遠蠻棚府, 屬元江路總管.

진원(鎮沅)³³⁹은 옛날에 복(濮)³⁴⁰·낙(洛) 집안(雜蠻)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원사(元史)』에서는 이를 화니(和泥)·석박(昔棧)³⁴¹ 두 만족(蠻族)이라 일컫고 있다. 당나라 때는 남조

巡按御史이다. 都察院 소속으로天子를 대신하여 지방을 순찰하고, 각 지방 정치의得失, 군민의利病 등을直言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고, 官品은 正七品으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지방 정국에 관여하는 바가 많았다. 北直隸에 2명, 南直隸에 3명, 直府·大同에 1명, 遼東·甘肅 및 13省에 각 1명을 두도록 했다. 『明史』 卷73 『職官志』 2 참조.

- 337) 傅宗龍(?~1642): 字는 仲倫·元憲이며, 號는 括蒼이다. 萬曆 38년(1610年)의 進士로, 銅梁縣, 巴縣의 知縣을 거쳐 戶部主事가 되었다. 天啓 4년(1624)에 貴州巡撫兼監軍이 되었고, 崇禎 3년(1631)에 右叅都御史에 임명되어 順天을 巡撫했다. 崇禎 10년(1637)에는 楊嗣昌의 천거로 四川巡撫에 임명되었고, 崇禎 12년(1639)에 京師로 물러와 兵部尙書에 올랐지만 3개월도 못되어 황제의 뜻에不合하여 解職되었으 며, 2년간 下獄되었다. 崇禎 14년(1641)에 遼寧가 河南 지역을 격파했는데 당시 楊嗣昌이 병으로 죽고 北京이 진동하자 尙書 陳新甲의 추천으로 그는 출옥이 되어 兵部右侍郎兼副都御史에 임용되어 丁啓睿를 대신하여 陝西三邊軍務를 總督했다. 그런데 그해 8월에 李自成이 55만대의 병력으로 河洛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는데, 이때 그는 겨우 2만의 병력으로 맞서 싸우다 불참해 살해당하였다. 死後 太子少保에 追封되었으 며, 諡號는 忠壯이다.

- 338) 沙兵은 王莽副長官 沙源의 土兵으로, 建水·東川·水西·馬龍山 등을 정벌하는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얻은 명칭이고, 普兵과 昂兵은 廣西土知府 普德과 昂貴의 土兵을 가리키는데, 역시 용감히 싸워 얻은 명칭이다.

- 339) 鎮沅: 鎮沅府를 일컫는데, 지금의 雲南省 思茅地區 鎮沅彝族哈尼族拉祜族自治縣 지역임.
- 340) 濮: 南나라 湯王 당시 江漢 유역 일대에 분포해 있던 중국 고대 민족으로, 武王이 紂王을 정벌할 때 이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春秋戰國시대에는 楚나라 西南(지금의 滇·黔)에서 江漢流域 서쪽에 이르는 지역) 지역 여러 곳에 分散되어 部落을 이루었는데, 總稱하여 百濮이라 불렀다.
- 341) 昔棧: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布理族이라고도 하고 花蠻이라고도 한다. 이들의 主要 聚居地는 雲南

몽씨의 은생부(銀生府) 지역이었다. 그 후로 금치(金齒) 북만(契蠻)이 이곳을 점거하였다. 원나라 때는 위원만봉부(威遠蠻棚府)라 하여, 원강로(元江路) 총관(總管)에 예속시켰다.

洪武十五年，總管刀平與兄那直歸附，授千夫長。建文四年置鎮沅州，以刀平爲知州。永樂三年，刀平率其子來朝，貢方物，賜紗文綺。從征八百，又從攻石崖·者達寨外部。整線來降，入貢方物。陞爲府，以刀平爲知府，置經歷·知事各一員。貢賜皆如例。成化十七年，以地方未平，免鎮沅諸土官朝覲。正統元年復免。

홍무 15년(1382)에 총관 도평(刀平)과 [그의] 형 도나직(刀那直)이 귀부하니 천부장(千夫長)을 제수했다.³⁴²⁾ 건문(建文)³⁴³⁾ 4년(1402)에 진원주(鎮沅州)를 설치해서 도평을 지주로 삼았다. 영락 3년(1405)에 도평이 그의 아들들 거느리고 내조하여 방물을 바치니 초(鈔)와 문기를 하사했다.³⁴⁴⁾ 팔백(八百)을 정벌하는데 참여하고, 또 석에(石崖)·자달채(者達寨)의 외부를 공격하는데 참여했다. [이때] 정선(整線)이 투항해 왔으며, 임조하여 방물을 바쳤다.³⁴⁵⁾ [주를] 승격시켜 부(府)로 하여 도평을 지부로 삼았으며,³⁴⁶⁾ 경력(經歷)·지사(知事) 각 1명을 두었다. 조공과 사어는 모두 예제에 따랐다. 성화 17년(1481)에 지방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음으로 진원(鎮沅)의 여러 토관에게 조근(朝覲)하는 것을 면제하였다. 정통 원년(1436)³⁴⁷⁾에 다시 면제하였다.

省 西部의 西雙版納傣族自治州 猛海·景洪縣과 臨滄地區의 雙江·永德·雲縣·耿馬, 思茅地區의 澜滄·墨江 등의 縣에 分屬해 있다.

342) 이와 관련한 내용은 天啓『滇志』『霸縣志·土司官氏』鎮沅府에 있음.

343) 建文: 明 王朝 2대 皇帝인 建文帝 朱允炆의 年號이다.

344)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卷45 永樂 3년 8월 壬辰條에 있는데, 永樂帝는 刀平에게 鈔 500錠, 文綺表裏 50疋을 하사했다.

345) 『讀史方輿紀要』卷116 『雲南』4에 보면, “永樂初攻石崖·者達寨, 外夷整線來降”라 기재되어 있다.

346) 永樂 4년(1406)에 鎮沅府로 승격시키고 刀平을 知府로 승임시켰다. 『土官底簿』卷上 鎮沅府知府條 참조.

347) 成化 17년의 내용을 이어서 正統 원년의 내용이 서술된 것은 서술 年次에 맞지 않으며, 아마도 正統은 正德의 誤記가 아닌가 한다.

嘉靖中征安鈞，調鎮沅兵千人，命刀寧息領之。復調其子刀仁，亦率兵千人，征那繼，克魚復寨。初，鎮沅印爲那氏所奪，至是得印以獻，命給之。

가정 연간(1522~1566)에 안건(安鈞)을 정벌하는데 진원의 군대 1,000명을 징발하였으며, 도영식(刀寧息)에게 이를 통령하도록 했다.³⁴⁸⁾ 다시 그의 아들 도인(刀仁)을 불러 썼는데, 역시 군대 1,000명을 이끌고 나감(那繼)을 정벌하였으며, 어복채(魚復寨)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다.³⁴⁹⁾ 당초에, 진원의 부인(府印)은 나씨(那氏)에게 빼앗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부인을 얻어 헌상하니, 이를 [원래의 주인에게] 주도록 명하였다.

領長官司一，曰祿谷寨，永樂十年置。

장관사(長官司) 하나를 통령하고, 녹곡寨(祿谷寨)³⁵⁰⁾라 부르는데, 영락 10년(1412)에 설치했다.³⁵¹⁾

永寧

영녕

永寧，昔據頭眩地，接吐蕃，又名答藍。唐屬南詔，後爲麼些蠻所據。元憲宗時內附，至元間，置答藍管民官，尋改永寧州，隸北勝府。

영녕(永寧)은 옛날에 누두섬(樓頭談)의 지역이고 토번(吐蕃)³⁵²⁾에 접해있는데, 또 답람(答

348) 이에 관한 내용은 天啓『滇志』『霸縣志·土司官氏』鎮沅府에 있음.

349) 『讀史方輿紀要』卷115 『雲南』3에 보면, “明嘉靖三十年，鎮沅知府刁仁攻那繼克魚復寨”라 기재되어 있다.

350) 祿谷寨: 祿谷寨長官司를 일컫는데, 永樂 10년(1412)에 祿平寨에 祿谷寨長官司를 설치하여 鎮沅府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思茅地區 鎮沅傣族哈尼族拉祜族自治縣 지역에 있었음.

351) 『明史』卷46 『志』22 地理7에 보면, “祿谷寨長官司府東北，永樂十年四月以祿平寨置”라 기재되어 있음.

藍)이라고도 부른다. 당나라 때는 남조(南詔)에 속했는데, 이후에는 마사만(麼些蠻)³⁵³에게 점거되었다. 원나라 현종 때에 조정에 귀부하여, 지원 연간(1264~1294)에 담랍(答臘) 관민관(管民官)을 설치했으며, 곧 영녕주(永寧州)로 고쳐 북승부(北勝府)에 예속시켰다.³⁵⁴

洪武平雲南時，屬鶴慶府。二十九年，改屬瀾滄衛。十二月，土賊卜百如劫殺軍民。

352) 吐蕃: 현재 중국 西藏藏族自治州로, 정식 명칭은 '뽕첸뽕: 위대한 뽕'(bod chen po; 大蕃)이며, 토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 정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佐藤仁는 토번이라는 말이 어떻게唐에 전달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몽골계 언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비계 민족을 통해 토번이라는 말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佐藤仁, 1978: 163~165). 실제로 몽골어에서는 티베트를 투벳(Töbed)이라고 하는데,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추적해 볼 여지가 있다. 토번의 구성원 蕃人에 대한 기원을 논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첫째로 자칭 뽕(bod)라고 부르는 티베트 민족 공동체의 구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둘째는 토번 왕실의 구성원이 어떤 기원을 갖는가 하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는, 중국 학자들은 중심으로 西羌의 일부였던 羌(Qiang)을 기원으로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티베트 학자들은 현재 사천성에 거주하고 있는 羌族과 토번을 구성했던 羌을 동일시 할 수 없으며, 또한 史書에 등장하는 고대의 羌 집단이 토번의 주요 구성원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T. Kapstein은 역사적으로 토번 시대를 비롯해 티베트인 뽕의 형성 과정에서 주된 민족 이동이 동부에서 서부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현재 내용을 책에서 간략, 차례로 이어지는 몽골 고원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토번 시대 이전부터 오랜 동안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T. Kapstein, 2006: 29). 다음 두 번째의 경우, 토번 왕실의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 기원설, 鮮卑 기원설 등이 있으나 전자는 종교적인 원인에서, 또 후자는 종원과 연상시키려는 의도에서 중국 史書에 등장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티베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야르룽 계곡을 중심으로 푸젠(pu rgyal), 즉 푸 왕조의 나치켄뽕(nya khri btsan po)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집단이 토번 왕실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353) 麼些蠻: 納西族의 다른 이름이다. 중국 남방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고대 羌族을 한 갈래이다. 모계 중심의 부족으로 일차대부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納西族이라는 이름은 1954년부터 사용되었다. 元代와 明代에 雲南의 麗江 지역에 沃氏 토씨세력이 일어날 때, 이들 納西族도 활발하게 활동하여 지금의 사천성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현재 중국 雲南省 麗江市 古城区·玉龍 納西族自治縣·維西·香格里拉·寧蒗縣과 四川省 鹽源縣·木里縣, 西藏 自治區 芒康縣 鹽井鎮 등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는 티베트·미얀마語族에 속하며, 인접한 彝語에 가깝다. 농업이 생업이지만, 산지에서는 양 등의 목축도 중요시하고 있다. 종교는 주로 샤머니즘으로서 주술사가 의식을 집행한다. 독특한 상형문자와 많은 경전이 있다.

354) 이에 관한 내용은 『元史』卷63 『地理志』에 있음.

前軍都督僉事何福達指揮李榮等討之。其子阿沙進入革失瓦都寨，官軍齋三日糧，深入追之。會天大雨，衆機疲，引還。

홍무 연간(1368~1398)에 운남을 평정했을 때, 학경부(鶴慶府)³⁵⁵에 예속시켰다. [홍무] 29년(1396)에 난창위(瀾滄衛)³⁵⁶로 바꾸어 예속시켰다.³⁵⁷ [그해] 12월에 토적(土賊) 북백여가(卜百如加)³⁵⁸가 군민(軍民)을 약탈하고 살해하자, 전군(前軍) 도독첨사(都督僉事) 하복(何福)³⁵⁹이 지휘 이영(李榮) 등을 보내 이를 토벌하였다. 그의 아들 아사(阿沙)가 혁실와도체(革失瓦都寨)에 숨어들니, 관군은 3일간 양식을 휴대하고 깊숙이 들어가 이들을 쫓았는데, 마침 하늘에서 내리는 큰 비를 만나 무리들이 굶주리고 지쳐서 돌아왔다.³⁶⁰

355) 鶴慶府: 鶴慶軍民府를 일컫음. 원나라 至元 23년(1286)에 鶴慶路를 설치했는데, 明 洪武 15년(1382)에 이를 鶴慶府로 바꾸었으며, 治所를 지금의 雲南省 鶴慶縣에 두었다.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북부 및 麗江地區 永勝縣 지역이다. 淸 乾隆 35년(1770)에 鶴慶州로 강등시켰다.

356) 瀾滄衛: 洪武 29년(1396)에 雲南 邊疆民族地區에 대한 통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치했다. 城址는 지금의 雲南省 麗江地區 永勝縣에 남아있다.

357) 『雲南貴州府志(明志)』의 永寧府에 보면, 『永寧府, 元屬麗江永寧州路, 明洪武十五年三月, 屬北勝府, 十七年, 屬鶴慶府, 二十九年, 改屬瀾滄衛』라 기재되어 있다.

358) 卜百如加: 실록에는 永寧州 土賊 卜八如加로 기재되어 있음.

359) 何福(?~1410): 濠州(지금의 安徽省 鳳陽縣) 사람이다. 洪武 초에 여러 공을 세워 金吾後衛指揮同知가 되었다. 이후 傅友德을 따라 雲南 征討에 나가 공을 세워 前軍都督府都督僉事로 승임했으며, 藍玉과 함께 北元을 공격하여 捕魚兒海에서 大勝을 거두었다. 洪武 24년(1391)에 平羌將軍에 임명되어 越州의 叛賊 阿峽를 토벌하였으며, 洪武 30년(1397)에는 征虜左將軍에 임명되어 西平侯 沐春을 보좌하여 麗川의 叛賊 刀幹孟을 토벌하였고, 이듬해 都督 瞿能과 함께 高良公山을 넘어 南甸으로 들어가 그 酋長 刀名孟을 붙잡았다. 建文 원년(1399)에 刀幹孟이 再次 叛亂을 일으키자, 何福은 征虜將軍에 임명되어 敵寨를 공략하고 刀幹孟을 사로잡았는데, 이때 敵軍 七萬여 명이 투항하였다. 이에 대한 論功에서 都督同知가 되었다고, 곧 左都督에 올랐고, 燕王이 即位해서 召將에 임용되어 征虜將軍印을 패용하고 總兵官이 되어 寧夏에 鎮守하여 山西·陝西·河南 등의 부대를 관령했다. 이때 그는 德意을 宣布하였는데, 이로 인해 塞外의 여러 민족이 투항해 왔다. 永樂 7년(1409)에 本雅失里가 瓦剌에게 패하여 騰胸河로 逃走해 왔으며, 이때 何福은 반란의 전무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遼北의 王子·國公·司徒 이하 10여 명이 亦集乃에 이르러 땅에 귀부해 왔다. 何福은 이를 조정에 보고하고 친히 亦集乃를 巡撫하여 이 공로로 寧遠侯에 봉해졌다. 그런데 永樂 8년(1410)에 永樂帝의 漠北에 대한 친정에 참여한 그는 황제에게 많은 충애를 받음으로 시기와 절투의 대상이 되었고, 左都御史 陳瑛에게 彈劾을 당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 『明史』 卷144 『何福傳』 참조.

永樂四年設四長官司，隸永寧土官，以上酋張首等爲長官，各給印章，賜冠帶綵幣。尋陞永寧爲府，隸布政司，陞土知州各吉八合知府，遣之齎敕往大西番撫諭蠻衆。宣德四年，永寧蠻寨失不刺非糾四川鹽井衛土官馬利非殺各吉八合，官軍撫定之。命卜撒襲知府，復爲失不刺非所殺。已，命卜撒之弟南八襲，馬利非又據永寧節卜·上·下三村，逐南八，大掠夜白·尖住·促卜瓦諸寨。事聞，帝命都督同知沐昂勒兵諭以禍福，并移撤四川行都司下鹽井衛論馬利非還所據村寨。正統二年，馬利非爲南八所攻，拔烏節等寨，南八亦言馬利非殺害。詔鎮巡官駁問，令各歸侵地，乃罷。

영락 4년(1406)에 네 개의 장관사를 설치하여 영녕 토관에 예속시키고 토주 장수(張首) 등을 장관으로 삼았으며, 각기 인장을 주고 관대와 채폐(綵幣)³⁶¹를 하사했다.³⁶² 오래지 않아 영녕을 부(府)로 승격시켜 포정사에 예속시키고, 토주주 각길팔합(各吉八合)을 지부로 승진시켰으며,³⁶³ 그에게 칙서를 가지고 대서번(大西番)으로 가 만(蠻)의 무리를 안무하고 효유하도록 허였다.³⁶⁴ 선덕 4년(1429)에 영녕의 만세(蠻寨) 시불랄비(矢不刺非)가 사천(四川) 영정위(鹽井衛)³⁶⁵의 토관 마랄비(馬刺非)³⁶⁶를 규합하여 각길팔합을 죽이자, 관군이 이들을 초무하여 평정하였다. 부살(卜撒)에게 지부를 계승하도록 명했는데, 또 시불랄비에게 살해당했다. 그 후 부살의 동생 남팔(南八)에게 계승하도록 했는데, 마랄비가 또 영녕의 절북(節卜)·상(上)·하(下) 세 개의 촌(村)을 점거하고 남팔을 쫓아냈으며, 야백(夜白)·첨주(尖住)·촉복와(促卜瓦) 등 여러 채(寨)를 크게 약탈하였다. 사정이 [조정에] 보고되자, 황제는

360)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48 洪武 29년 12월 癸丑條 참조.
 361) 綵幣: 縵는 무늬가 있는 비단이고, 幣는 緝織의帛을 말하는 것으로, 무늬가 있는 緝織物을 일컫는다.
 362)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53 永樂 4년 4월 甲戌條에 있는데, 刺次和, 瓦魯之, 革甸, 香羅 등 4개의 長官司를 설치하여 雲南 永寧衛에 예속시키고, 土酋 張首를 刺次和長官에 阿藍을 瓦魯之長官에 阿措를 革甸長官에 八非를 香羅長官으로 삼았다.
 363)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53 永樂 4년 4월 癸未條에 있음.
 364)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53 永樂 4년 4월 戊子條에 있음.
 365) 鹽井衛: 洪武 26년(1393)에 설치했는데, 治所는 지금의 四川省 鹽源縣 東衛城이며, 四川都司에 예속시켰다. 이듬해에 바꾸어 四川行都司에 예속시켰으며, 지금의 四川省 鹽源·鹽邊 등 縣을 管轄했다. 清 雍正 6년(1728)에 鹽源縣으로 바꾸었다.
 366) 馬刺非: 『土官底簿』 卷上 永寧府知府條에는 刺馬非로 기재되어 있음.

도독동지(都督同知)³⁶⁷ 목양에게 명하여 군대를 조련하고 화를 택할 것인지 북복을 택할 것인지로 효유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사천(四川) 행도사(行都司)³⁶⁸에게 격문을 보내 영정위(鹽井衛)에 하달하여, 마랄비에게 점거한 촌채(村寨)를 반환하도록 효유하였다.³⁶⁹ 정통 2년(1437)에 마랄비는 남팔에게 공격을 당해 오절(烏節) 등 채(寨)를 빼앗겼으며, 남팔 역시 마랄비를 살해하겠다고 했다. [이에] 진순관(鎮巡官)³⁷⁰에게 조서를 내려 조사하도록 하고 각기 침범하여 점령한 지역을 되돌려주도록 하니, 곧 잠잠해졌다.³⁷¹

永寧界，東至四川鹽井衛十五里，西至麗江寶山州，南至浪渠州，北至西番。領長官司四，曰刺次和，曰瓦魯之，曰革甸，曰香羅。

영녕(永寧)의 지계(地界)는 동쪽으로 15리의 거리에 사천 영정위가 있고, 서쪽으로 여강(麗江)³⁷² 보산주(寶山州)³⁷³에 이르며, 남쪽으로 낭거주(浪渠州)에 이르고, 북쪽으로 서번(西番)에 이른다. 장관사 네 개를 통령하고 있는데, 날차와(刺次和), 와로지(瓦魯之), 혁전(革甸), 향라(香羅)라 부른다.

367) 都督同知: 明代 전국의 군대를 통괄하는 五軍都督府의 관직으로 從一品職이며, 그 위로 正一品인 左·右 都督이 있고, 그 밑으로 正二品인 都督僉事가 있다.
 368) 行都司: 行都指揮使司의 약칭이다. 明代에 16都司 5行都司를 설치했는데, 5行都司는 陝西·四川·湖廣·福建·山西이다. 본문의 四川行都司의 治所는 建昌(지금의 四川省 西昌)이며, 建昌·寧番·會川·鹽井·越馬 5개 衛와 體州後·體州中中·建昌打冲河中前·德昌·鹽井打冲河中左·冕山橋後·鐵西·迷易 등 8개 千戶所를 管轄하였다.
 369) 이와 관련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59 宣德 4년 10월 丁亥條 참조.
 370) 鎮巡官: 각 省의 巡撫, 布政使, 都事 등을 鎮巡官이라 일컫는다.
 371)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8 正統 2년 3월 丁酉條의 四川 三司와 巡按御史 등에게 내린 勅書 참조.
 372) 麗江: 洪武 15년(1382)에 麗江路를 바꾸어 麗江府를 설치했고, 이후 麗江軍民府로 고쳤다.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서부 지역임.
 373) 寶山州: 元나라 至元 14년(1277)에 寶山縣을 설치했고, 至元 16년(1279)에 寶山州로 바꾸었다.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玉龍納西族自治縣 지역이다.

順寧
순녕

順寧府，本蒲蠻地，名慶向。宋以前不通中國，雖蒙氏·段氏不能制。元泰定開始內附。天曆初，置順寧府并慶向縣，後省入府。

순녕부(順寧府)³⁷⁴)는 본래 포만(蒲蠻)³⁷⁵)의 지역이며, 경전(慶甸)이라 부른다. 송나라 이전에는 중국과 왕래하지 않았고, 비록 몽씨(蒙氏)·단씨(段氏)라 하더라도 제약할 수 없었다. 원나라 태정(泰定)³⁷⁶) 연간(1324~1327)에 비로소 조정에 귀부했다. 천력(天曆)³⁷⁷) 연간 초에 순녕부와 아울러 경전현(慶甸縣)³⁷⁸)을 설치했는데, 후에 축소하여 [경전현을] 부(府)에 넣었다.

洪武十五年，順寧歸附，以土酋阿悅貢暑府事。十七年命阿日貢為順寧知府。二十三年，土酋猛丘·土知府子丘等，不輸徵賦，自相仇殺。大理衛指揮鄭祥征蒙化賊，移師至甸頭，破其寨。猛丘請降輸賦，乃還。猛丘死，把事阿羅等復起兵相攻擊。二十九年，西平侯沐春遣鄭祥與指揮李榮等，分道進討，擒阿羅等誅之。後貢賜如制。

홍무 15년(1382)에 순녕이 귀부해 오니, 토주 아일공(阿悅貢)에게 부(府)의 일을 대신 처리하도록 했다.³⁷⁹ [홍무] 17년(1384)에 아일공(阿日貢)³⁸⁰)을 순녕 지부에 임명하였다.³⁸¹ [홍

374) 順寧府: 지금의 雲南省 臨滄地區 북부 지역에 위치했으며, 治所는 臨滄地區 鳳慶縣이었다.
 375) 蒲蠻: 唐代에는 濮子蠻이라 칭했고, 元·明·清 시대에는 蒲蠻이라 칭했다. 그를 스스로는 布期이라고도 칭하고, 阿瓦·伊瓦·翁拱 등으로도 칭하는데, 漢族과 傣族은 濮滿·蒲滿 등이라 칭한다. 景東·景穀·普洱·思茅·西雙版納·瀾滄·耿馬·臨滄·鎮康·雲縣·保山 등지에 거주하는 민족이 모두 蒲蠻族이다. 記錄上 濮·濮는 모두 布의 同音異寫이다. 또 布朗族과 佤族(自稱 布幸)·崩龍族(自稱 布雷, 즉 지금의 佧郎族)은 같은 言語系의 族屬이다.
 376) 泰定: 元나라 제6대 皇帝인 泰定帝 也孫鐵木兒(Yesün Temür)의 年號로, 그 기간은 1324~1328년이다.
 377) 天曆: 元나라 제7대 皇帝인 天順帝 阿速吉八(Ragibagh Khan)의 年號로, 그 기간은 1328년 10월~1328년 11월이다.
 378) 慶甸縣: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 鳳慶縣이다.

무] 23년(1390)에 토주 맹구(猛丘)·토지부 자구(子丘) 등이 징수한 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서로 원수가 되어 죽였다. 대리위(大理衛) 지휘(指揮) 정상(鄭祥)이 몽화(蒙化)의 작구(賊寇)를 정토하였고, 군대를 이동시켜 전두(甸頭)에 이르러서 그들의 제(寨)를 격파했다. 맹구가 투항하여 부세를 바치겠다고 청하자, 곧 되돌아갔다.³⁸² 맹구가 죽고, 일을 맡은 아라(阿羅) 등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 서로 공격하였다. [홍무] 29년(1396)에 서평후 목춘(沐春)이 정상(鄭祥)과 지휘(李榮) 등을 보냈는데, 길을 나누어 진군하여 토벌하고 아라 등을 붙잡아 주살하였다.³⁸³ 이후로 예제에 따라 조공과 사역을 했다.

順寧與大侯接壤，萬曆中，大侯土舍奉敕，奉學兄弟不相能，奉學倚妻父土知府猛廷瑞，與兄敵日構兵，巡撫陳用賓撤參將李先著，副使邵以仁勸處，以仁執廷瑞，因請改順寧為流官，先著被撤，極言不可討，被謗語，逮下獄處死，然廷瑞實無反謀，以參將吳顯忠視其富，誣以助惡，索金不應，遂讒於巡按張應揚，轉告巡撫陳用賓，廷瑞大恐，不得已新奉學以獻，顯忠益誣其陰事，傳以反狀，撫按會奏，得旨大剷，廷瑞出，獻印獻子以候命，不從，顯忠帥兵入其寨，盡取猛氏十八代舊貲數百萬，誘廷瑞至會城執之，獻捷於朝，於是所部十三寨盡憤，始聚兵反，官兵悉剷除之，并殺其子，以仁超擢右都御史，廢子，未幾坐大辟，繫獄，應揚亦病卒，人以爲天道云。

순녕은 대후(大侯)와 접경해 있다. 만력 연간(1573~1619)에 대후의 토사(土舍) 봉사(奉敕)·봉학(奉學) 형제가 서로 불화하였다. 봉학은 빙부(聘父)인 토지부 맹정서(猛廷瑞)³⁸⁴)를 밀고서 형 봉사와 날마다 싸웠다. 순수 진용빈(陳用賓)³⁸⁵)이 참장(參將)³⁸⁶) 이선저(李先著)·

379) 洪武 15년(1382) 3월의 일이다.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3월 庚戌朔條 참조.
 380) 阿日貢: 『土官底簿』 卷上 順寧府知府條에는 阿日貢으로 기재되어 있다. 雲南 順寧府 蒲人으로, 本府의 土知府였으며, 洪武 19년(1386)에 죽자 그의 아들 猛衰가 뒤를 이었고, 洪武 21년(1388)에 猛衰가 죽자 次男인 猛吾가 이었으나 또 그가 죽자 洪武 23년(1390)에 猛丘가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381)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9 洪武 17년 춘정월 壬子條 참조.
 382) 이와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06 洪武 23년 12월 戊子條 참조.
 383)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48 洪武 29년 12월 癸丑條 참조.
 384) 猛廷瑞: 天啓7 滇志와 『天下郡國利病書』에 의하면, 猛廷瑞는 奉學의 女夫, 즉 사위로 기재되어 있다.
 385) 陳用賓(1550~1617): 字는 道亨이고, 號는 毓台이며, 福建 晉江 사람이다. 隆慶 원년(1567)에 舉人인

부사(副使) 소이인(邵以仁)에게 격문을 보내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소이인이 맹정서를 습격하여 붙잡았는데, 이로 인해 순녕에 [토관을] 바꾸어 유관을 두기를 청하였다. 이선저는 격문을 받고서 경도해서는 안 된다고 힘을 다해 진언했지만 중상모략을 당해 체포되어 옥에 갇혀 죽었다. 그런데 맹정서는 실제 모반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참장 오현충(吳顯忠)이 그가 부자임을 정탐하고서 악인(惡人)을 도왔다고 무고하여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마침내 순안(巡按)³⁸⁷ 장용양(張應揚)에게 참소(讒訴)하고 또 순부 진홍빈에게 고했던 것이다. 맹정서는 매우 두려워하여 부득이 봉학을 배어 바쳤다. [그러나] 오현충이 더욱 그가 비밀리에 꾸민 일을 무고하고 반기를 든 정황을 전하였으며, 순부와 순안은 회동하여 주청을 올려 성지(聖旨)를 얻어내 대거 초멸(剿滅)하였다. 맹정서가 나와서 인장(印章)과 자식을 바치고서 명령을 기다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오현충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의 세에 들어가 맹씨(猛氏) 18세대가 쌓아놓은 재물 수백만을 모두 약탈하여 취했으며, 맹정서를 유인해 상성(省城)에 이르게 하고는 붙잡아 조정에 진리품으로 바쳤다. 이에 그가 관령하는 13체가 모두 분노하여 비로소 군대를 모아 반기를 들었는데, 관병이 이들을 모두 쓸어 없애고 아울러 그의 아들을 죽였다. 소이인은 승진하여 우도어사(右都御史)에 발탁되었고, 아들에게 음서(蔭敍)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중죄(重罪)에 연루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장용양 역시도 병으로 죽었다. 사람들은 [이를] 하늘의 응보(應報)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順寧附境有猛狻·猛撒·猛緬，所謂三猛也，猛狻最强，部落萬人，時與二猛為難。

되고, 隆慶 5년(1571)에 進士에 급제하여 長洲수에 제수되었는데, 근면하게 정무에 임했고 백성을 위해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이후 御史가 되어 河東을 巡按했고 淮陽을 순안하면서 學政을提督하기도 했으며, 오로지 私心 없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張居正을 따르지 않음으로 四川參議로 좌천되어 浙江副使, 參政을 전전했다. 그러다 按察使로 승임하고, 湖廣布政使를 지냈다. 마침 西南邊陲에 일이 많았는데, 萬曆 21년(1593)에 그는 都御史가 되어 雲南 巡撫에 임명되었다. 그는 雄略을 가지고 있었고, 用兵을 잘하여 緬賊의 침략을 잘 막았으며, 滇西 騰冲 등 많은 地方을 성공적으로 平定했다. 그러나 그는 鹽稅監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극력 막았는데, 이로 인해 모함을 받아 下獄되고, 9년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병을 얻어 결국 죽었다. 諡號는 襄毅이다.

386) 參將: 明代에 변경지역을 수비하는 관직으로 정원은 없고, 지위는 總兵과 副總兵 다음으로 각각 路를 지켰다. 명청시대 漕運 官員 중에는 參將이 있었는데, 식량 운반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387) 巡按: 巡按御史의 약칭임. 巡按御史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서술한 주를 참조.

其地田少畜多，射獵為業，猛緬地雖廣，而人柔弱，部長賜冠帶，最忠順，猛撒微弱，後折入於耿馬云。

순녕 부근의 지역에는 맹맹(猛猛)·맹살(猛撒)³⁸⁸·맹면(猛緬)³⁸⁹이 있는데, 이른바 3맹(三猛)이라 한다. [이 가운데] 맹맹이 가장 강대했는데, 부락민이 만 명이었을 때때로 두 맹(猛)과 더불어 환난을 일으켰다. 그 지역의 전토는 적고 대나무 숲이 많으며, 활을 쏘아 사냥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 맹면의 지역은 비록 넓지만 사람들은 유약했다. 부락의 추장은 관대를 하사받았으며, 가장 충성하고 순복했다. 맹살은 [세력이] 미약했는데, 후에 경마(耿馬)³⁹⁰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蒙化 몽화

蒙化，唐屬姚州都督府。蒙氏時，細奴邏築城居之，號蒙舍詔，段氏改開南縣。元為州，屬大理。

몽화(蒙化)는 당나라 때에 요주(姚州) 도독부(都督府)에 예속했다. 몽씨(蒙氏) 때에 세나라(細奴邏)가 성을 쌓고 이곳에 거주하였는데, 몽사조(蒙舍詔)라 불렀다. 단씨(段氏)는 개남현(開南縣)으로 고쳤다. 원나라는 주(州)로 하여, 대리에 예속시켰다.³⁹¹⁾

388) 猛撒: 明代 猛緬長官司에 속해 있던 土巡司로,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 耿馬傣族佤族自治縣에 소속된 猛撒鎮 지역에 위치했음.

389) 猛緬: 猛緬長官司를 일컫는데, 宣德 5년(1430)에 景東府 猛緬·猛狻 지역에 猛緬長官司를 설치해 景東府에 예속시켰다가 후에 布政司에 직속시켰으며, 萬曆 25년(1597)에 바꾸어 雲州에 예속시켰다. 東北쪽에 大猛麻土巡司가 있고, 西南쪽에는 猛撒土巡司가 있다.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 雲縣 지역이다.

390) 耿馬: 지금의 雲南省 耿馬傣族佤族自治縣이다. 耿馬의 耿은 傣語로 地方 혹은 地域이라는 뜻이고, 馬는 漢語로 '말이 있는 地方'이라는 의미인데, 明代에 耿馬安撫司를 설치했다.

391) 元 憲宗 7년(1257)에 蒙舍에 千戶를 세우고 大理 土萬戶에 예속시켰다. 至元 11년(1274)에 蒙化府를 세우고 至元 14년(1277)에 路로 승격시켰으나, 至元 20년(1283)에 州로 강등시켜 다시 大理路에 예속

洪武十七年以土酋左禾爲蒙化州判官·施生爲正千夫長。二十三年，西平侯沐英以蒙化所屬蠻火頭字青等梗化不服，請置衛。命指揮僉事李聚守蒙化。賊高天惠作亂，大理衛指揮使鄭祥捕斬之，傳首雲南。

홍무 17년(1384)에 토추 좌화(左禾)를 몽화주 판관(判官)으로, 시생(施生)을 정천부장(正千夫長)으로 삼았다.³⁹²⁾ [홍무] 23년(1390)에 서평후 목영(沐英)이 몽화에 소속된 만인(蠻人) 화두자청(火頭字青) 등이 완고하여 순복하지 않음으로 위(衛)를 설치하기를 청하였다. 지휘 첨사 이취(李聚)에게 몽화를 지키도록 명하였다.³⁹³⁾ 적(賊) 고천혜(高天惠)가 난을 일으키자, 대리위(大理衛) 지휘사 정상(鄭祥)이 이를 붙잡아 참수하고 수급을 운남에 보냈다.³⁹⁴⁾

永樂九年，土知州左禾·正千夫長阿東來朝，貢馬。賜予如例。既，左加從征麓川，戰於大侯，功第一，進秩臨安知府，掌州事。正統中，陞州爲府，以左禾爲知府，世襲。所部江內諸蠻，性柔，頗馴擾，江外數枝，以勇悍稱，每應征調，多野戰，無行伍。

영락 9년(1411)에 토지주 좌화(左禾)³⁹⁵⁾·정천부장(正千夫長) 아송(阿東)이 내조하여 말을 바치니, 규정에 따라 사여(賜予)했다.³⁹⁶⁾ 이후 좌가(左側)³⁹⁷⁾는 늑천(麓川) 정벌에 참여하여

시켰다.

- 392)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卷159 洪武 17년 춘정월 壬子條 참조.
 393)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206 洪武 23년 11월 乙卯條 참조.
 394)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206 洪武 23년 12월 戊子條 참조.
 395) 左禾는 洪武 17년(1384) 州判官에 제수된 이래 20여 년간 授任하면서 夷民의 信服을 받고 法度を 어기지 않아 永樂 3년(1405)에 知府로 승진하였다. 『土官底簿』卷上 蒙化府知府條 참조.
 396)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卷122 永樂 9년 12월 癸丑條에 있는데, 阿東은 雲南 麗江軍民府의 正千夫長이고, 左禾는 蒙化州 土官知州였다.
 397) 左側: 左禾의 嫡長子로, 永樂 13년(1415)에 蒙化州 土知州의 職을 이어받았다. 正統 6년(1441)에 명조에 징발되어 이후 ‘三征麓川의 役’에 참여하여 1,000여 人馬를 거느리고 大侯, 猛痛, 鎮康 등지에서 싸워 係族土司 思任法의 軍隊를 대패시키고 잃은 지역을 수복하는 등 큰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臨安府(지금의 建水) 同知를 거쳐 大理府 知府로 승임함과 아울러 蒙化州의 일을 관장했다. 正統 13년(1448)

대후(大侯)에서 싸웠는데, 공이 제일이어서 임안(臨安) 지부로 승진하여 주(州)의 일을 관장하였다. 정통 연간(1436~1449)에 주가 부로 승격되어서³⁹⁸⁾ 좌가는 지부가 되었고 [지부의 직은] 세대로 이어졌다. 관찰하는 강(江) 안쪽의 여러 만인은 성정이 유약하고 매우 길들여졌는데 강 밖의 여러 지파는 용감하고 사납다고 한다. 매번 징발에 응하여 대부분 들에서 싸웠는데, 행오(行伍)가 없었다.

成化十七年，巡撫奏地方未寧，免蒙化土官明年朝貢。正統元年詔復免。

성화 17년(1481)에 순무가 지방이 아직 안정하지 못하다고 주청하니, 몽화 토관에게 다음 해 조공을 면제하였다. 정통 원년(1436)³⁹⁹⁾에 조서를 내려 다시 면제하였다.

萬曆四十八年，雲龍土知州段龍死，子嘉龍立，養子進忠殺嘉龍爭襲，流劫殺掠。官軍進討，進忠從間道欲趨大理，官軍擒誅之，改設流官，授段氏世吏目一人。

만력 48년(1620)에 운룡(雲龍) 토지주 단룡(段龍)이 죽자 아들 단가룡(段嘉龍)이 세워졌는데, 양자(養子)인 단진충(段進忠)이 단가룡을 죽이고 싸워서 세습하니,⁴⁰⁰⁾ 살인과 노략질이 도처에 넘쳐났다. 관군이 토벌에 나서자 단진충은 셋길을 통해 대리(大理)로 달아나려 했는데, 관군이 그를 붙잡아 주살하였으며, [토관을] 바꾸어 유관을 세우고 단씨(段氏)에게는 세대로 이목(吏目)⁴⁰¹⁾ 한 사람만 제수했다.

에 蒙化州가 府로 승격되어 蒙化府 知府를 맡아 從三品職의 관직에 오르고, 中憲大夫에 제수되었다. 398) 正統 13년(1448) 6월에 蒙化州가 府로 승격되었다. 『太宗實錄』卷167 正統 13년 6월 庚申條 참조. 399) 成化 17년의 내용을 이어 正統 원년의 내용이 서술된 것은 서술 年次に 맞지 않으며, 아마도 正統은 正德의 誤記가 아닌가 한다.

400) 道光『雲南志鈔』, 『土司志』大理府 雲龍州에 보면, “嘉龍妻縱虐, 失心衆心, 其叔父士會段進忠謀奪其職, 計誘潛潤夾殺嘉龍而篡之”라는 내용이 있거나 段進忠을 段嘉龍의 叔父로 기재하고 있다.

401) 吏目: 관부의 문서를 관장하는 직이다. 이미 元나라 때에 提舉司 및 中·下 규모의 州에 관원을 보좌하는 吏目을 두었고, 明代에도 太常寺·鹽課提舉司·市舶提舉司·京衛指揮使司·太醫院·五城兵馬司 및 지방의 知州 아래 吏目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하였다. 淸朝에서도 太醫院·五城兵馬司 및 知州 아래 吏目を

孟良
맹간

孟良, 蠻名孟措, 自古不通中國. 永樂三年來歸, 設孟良府, 隸雲南都司, 以土酋刀哀爲知府, 給印誥冠帶. 時刀哀遣人來朝, 請設治所, 歲辦差發黃金六十兩. 六年, 土知府刀文達弟刀哈哄貢象及金銀器. 禮部言: 「刀文嘗構兵攻劫隣境, 詐譎不誠, 宜却其貢.」帝曰: 「蠻夷能悔過來朝, 往事不足責.」命賜鈔及絨錦絳帛. 是後, 貢賜皆如例. 宣德六年, 命內官楊琳齋綵幣往賜孟良知府刀光. 正統間, 孟良地多爲木邦所并. 景泰中, 入貢知府名慶馬辣, 不知於刀氏何屬也.

맹간(孟良)은 만인들이 맹금(孟措)이라 부르는데, 예로부터 중국과 왕래하지 않았다. 영락 3년(1405)에 귀복해 와 맹간부(孟良府)를 설치하고 운남도사(雲南都司)⁴⁰²에 예속시켰으며, 토추 도에(刀貢)를 지부로 삼고 인고(印誥)⁴⁰³와 관대를 주었다. 당시 도에는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치소를 설치하기를 청하고, 해마다 황금 60냥을 부세로 내겠다고 했다.⁴⁰⁴ [영락] 6년(1408)에 토지부 도교(刀交)가 동생 도합홍(刀哈哄)을 보내 코끼리와 금은기를 마쳤다.⁴⁰⁵ 예부에서 아뢰기를, “도교는 일찍이 군대를 몰아 인접 지역을 공격하고 약탈하였으며 거짓으로 속이고 상실하지 않으니, 마땅히 그들의 전공을 물리쳐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황제

두어 刑罰과 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 본문에서의 吏目은 知州를 보좌해서 문서를 담당하는 관원으로 보인다.

402) 雲南都司: 明代 地方의 軍政을 管轄하는 機構인 雲南都指揮使司를 일컫는다. 洪武 15년(1382)에 雲南行省의 軍政을 管장하기 爲에 設치되었고, 그 소속 衛所를 이끌고 右軍都督府에 예속되었다. 洪武 26년(1393)에 定制된 후, 雲南左·右·前三衛和大理·楚雄·臨安·景東·曲靖·金齒·洱海·蒙化·馬隆·平夷·越州·六涼十二衛 및 鶴慶千戶所를 管轄했다. 이후 馬隆衛를 고쳐 雲南右護衛로 했는데 곧 폐지했으며, 雲南中衛·雲南後衛·廣南衛·大羅衛·灑滄衛·騰冲衛·戡鶴慶所를 증설하여 管轄했고, 安寧·宜良·易門·楊林堡·十八寨·通海前前·通海右右·定遠·馬隆·姚安·姚安中屯·武定·木密關·鎮安·鎮姚·永平前前·永平後後·騰冲·新安·鳳橋 등 千戶所를 增設했다.

403) 印誥: 官印과 冊封의 詔書를 일컫는다.

404)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44 永樂 3년 추7월 癸丑條 참조.

405) 『土官底簿』 卷上 孟良府知府條에 보면, 刀交가 把總으로 기재되어 있고, 刀哀의 아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이르기를, “만(蠻夷)가 잘못을 뉘우치고 내조하였으니, 지난 일은 책망할 것이 못 된다”고 하고, 초폐(鈔幣)⁴⁰⁶ 및 용금(絨錦)⁴⁰⁷과 기백(綺帛)⁴⁰⁸을 하사하도록 명했다. 이후 진공과 사어는 모두 예제에 따랐다. 선덕 6년(1431)에 내관 양림(楊琳)에게 명하여 체패를 가지고 맹간 지부 도광(刀光)에게 내리도록 했다.⁴⁰⁹ 정통 연간(1436~1449)에 맹간 지역 대부분이 목방(木邦)⁴¹⁰에게 병탄되었다. 경태 연간(1450~1456)에 임공한 지부는 경마랄(慶馬辣)이라 부르는데,⁴¹¹ 도씨(刀氏)와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

孟良在姚關東南二千里外, 沃野千里, 最殷富. 地多虎, 農者於樹抄結草樓以護稼.

406) 鈔幣: 고대의 지폐를 일컫는데, 바로 明代의 幣政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明朝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舉司를 設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通行시켰다. 桑穰, 즉 뽕나무 가지껍질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였고, 높이는 1尺, 폭은 6寸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용의 문양과 꽃무늬였다. 윗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 쓰고, 그 안의 상면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썼다. 가운데에는 동전꾸러미를 그려 넣었는데,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금은 모두 여섯으로 1貫, 500문, 400문, 300문, 200문, 100문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鑄造케 했으나, 中書省이 廢廢가 된 뒤에는 戶部에서 鑄造하도록 하였다. 보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鶴 등, 2008: 314~319 참조.

407) 絨錦: 명칭시대 福建省 漳州, 南京, 蘇州에서 생산된 길에 용기가 있는 絲織品을 뜻한다. 비단 표면에 용기를 만드는 작업을 중국어로는 起絨이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일반 비단과는 다른 絨毛와 같은 느낌을 준다. 絨錦은 명칭시대에 조청에서 일반 직으로 추년 북방 민족의 수장에게 내렸으며, 제작 과정이 복잡하여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 않고 段으로 계산했다. 예를 들어 명조정은 西藏의 최고的高僧에게도 매년 겨우 3段만을 지급했을 정도로 가격이 비쌌다고 한다(吳明鉉, 2007 참조).

408) 綺帛: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을 가리킨다.

409) 宣德 6년(1431) 4월에 明朝는 雲南 孟良府 土官知府 刀光이 보낸 頭目 招板陸 등 54명에게 鈔幣 文錦紗羅 絹布 및 金織農衣를 내리고, 아울러 內官 楊琳에게 勅書와 綵幣를 가지고 가 刀光에게 내리도록 했다. 『宣宗實錄』 卷78 宣德 6년 하4월 癸丑條 참조.

410) 木邦: 토사의 명칭으로, 孟邦·孟都라고도 불린다. 元 至元 26년(1289)에 이곳에 路를 設치했는데, 地所는 지금의 緬甸 興威에 있었고, 지금의 緬甸 押那 東北部 지역을 管轄했다. 明 洪武 15년(1382)에 府로 고쳤으며, 永樂 2년(1404)에 軍民宣慰使司로 고쳤으나 萬曆 34년(1606)에 緬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淸初에 다시 중국 영토로 들어왔으나 乾隆 이후에 다시 緬甸에 속하게 되었다.

411) 『英宗實錄』 卷251 景泰 6년 3월 戊午條에 “雲南孟良府土官知府慶馬辣遣人貢金銀器畫方物, 賜以鈔幣”라는 내용이 있다.

雲南知府趙混一嘗入其境，待之禮慢，後無復至者。

맹간은 요관(姚關)⁴¹² 동남쪽 2,000리 밖에 있고, 비옥한 전야(田野)가 1,000리에 달하여 가장 넉넉하고 풍성하다. 그 곳은 호랑이가 많아, 농부들은 나무 끝에 풀을 엮어 다락을 만들어 농작물을 보호했다. 운남 지부 조혼일(趙混一)이 일찍이 이 지역에 들어왔는데 접대하는 예절이 오만하자, 이후로 다시 오는 관원이 없었다.

孟定 取馬安撫司

맹정 정마안무사

孟定，蠻名景麻。至元中，立孟定路軍民總管府，領二甸，隸大理·金齒等處宣慰司。

맹정(孟定)은 만인들이 경마(景麻)라 부른다. 지원 연간(1264~1294)에 맹정도(孟定路) 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를 세워⁴¹³ 두 개의 진(甸)을 관령했는데, 대리(大理)·금치(金齒) 등처선위사(等處宣慰司)에 예속했다.

洪武十五年，土酋刀名扛來朝，貢方物，賜綺帛紗幣，設孟定府，以刀渾立為知府。永樂二年，孟定土官刀景發遣人貢馬，賜紗羅綺。遣使往賜印誥·冠帶·囊衣，復頒信符·金字紅牌。四年，帝以孟定道里險遠，每歲朝貢不便，令自今年三年一貢，如慶賀謝恩不拘例。

홍무 15년(1382)에 토추 도명강(刀名扛)이 내조하여 방물을 바치니 기백(綺帛)과 조폐(鈔幣)를 하사했으며, 맹정부(孟定府)를 설치하고⁴¹⁴ 도혼립(刀渾立)⁴¹⁵을 지부로 삼았다. 영락

412) 姚關: 姚關鎮을 말하며, 雲南省 保山 施甸縣의 鄉鎮 중 하나다.

413) 『明史』 卷46 『地理志』에는 至元 31년(1293)에 孟定路가 설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永昌府에는 至順 4년(1333)에 孟定路軍民總管府가 세워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2년(1404)에 맹정 토관 도경발(刀景發)⁴¹⁶이 사람을 보내 말을 바치자 조폐와 나가(羅綺)⁴¹⁷를 하사했다.⁴¹⁸ [이후 곧] 사신을 보내 인고·관대·슴의를 하사하고, 또 신부(信符)⁴¹⁹·금자홍패(金字紅牌)를 하사했다.⁴²⁰ [영락] 4년(1406)에 황제는 맹정의 노정(路程)이 험난하고 멀어 해마다 조공하기 불편함으로, 지금부터 3년에 1공(貢)하도록 하고 경하(慶賀)와 사은(謝恩)같은 것도 예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⁴²¹

初，孟瑱與孟定皆麓川地，其土目皆故等夷，惡相屬；後改孟瑱隸雲南，多以互侵土地仇殺。宣德六年，土知府罕顏法以爲言，敕黔國公沐晟遣官撫諭，俾各歸侵掠。正統中，麓川叛，孟定知府刀礪孟逃走，木邦土官罕葛從征有功，總督王驥奏命令孟定之土。嘉靖間，木邦罕烈據地奪印，令土舍罕慶守之，名爲取馬；地之所入，悉歸木邦。萬曆十二年，官兵取隴川，平孟定故地，以罕葛之後爲知府。十五年頒孟定府印，崇禎末，孟定叛，降於緬甸。

당초에, 맹련(孟瑱)⁴²²과 맹정은 모두 녹천(麓川)의 지역이고, 그 토목(土目)은 모두 원래

414) 洪武 15년 3월의 일이다.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3월 己未條 참조.

415) 刀渾立: 刀名扛의 아들이다.

416) 刀景發: 刀渾立의 아들이다.

417) 羅綺: 얇은 비단과 무늬가 있는 비단을 함께 칭하는 단어로, 화려한 의복을 의미한다.

418) 永樂 2년(1404) 4월의 일로, 당시 刀景發은 頭目 刀罕을 명에 보냈다. 『太宗實錄』 卷30 永樂 2년 84월 己丑條 참조.

419) 信符: 明朝에서 사절단의 眞偽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한 증명서, 즉 勅合符를 말한다. 明朝는 외국국의 조공사절을 하나의 恩典으로 간주하여 조공의 회수, 선박의 수, 인원 등을 제한하고자 했으며, 이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양측이 갈라진 한 면씩 보관하고 있다가, 사절이 도착하면 서로 맞추어보아야 합치되어야 비로소 정식 사절로 인정했다. 勅合符는 洪武 16년(1383)에 占城을 비롯하여 暹羅·眞臘 등에 발급한 것이 최초의 일인데, 明의 改元, 즉 기본적으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새로 발급하였다.

420)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35 永樂 2년 冬10월 庚午條 참조.

421)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54 永樂 4년 5월 丙午條 참조.

422) 孟瑱: 孟瑱長官司를 일컫는다. 원나라 때에 木連路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바꾸어 木連府를 설치하여 布政司에 예속시켰으나 후에 麓川平緬宣慰司에 兼並되었다. 이후 永樂 4년(1406)에 猛瑱長官司를 설치하여 都司에 예속시켰는데, 후에 바꾸어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孟瑱長官司는 지금의 孟連·瀾滄·西盟

같은 등급의 이족(夷族)으로 서로 예속되기를 싫어했는데, 후에 바꾸어 맹련을 운남에 예속시키자 여러 차례 이로 인해 서로 토지를 침탈하고 원수가 되어 죽었다. 신덕 6년(1431)에 토지부 한안법(罕顔法)⁴²³이 [이 일을] 진언하자, 검국공 목성에게 칙서를 내려 관원을 보내 안무하고 효유하여 각기 침략한 토지를 되돌려 주도록 했다.⁴²⁴ 정몽 연간(1436~1449)에 녹천이 반기를 드니 맹정 지부 도록맹(刀祿孟)⁴²⁵이 달아났다.⁴²⁶ 목방 토관 한갈(罕曷)이 정도에 따라 나가 공을 세우자, 총독(總督)⁴²⁷ 왕기(王驥)⁴²⁸가 맹정이 징수한 토지세를 [그가] 향유하도록 주청하였다.⁴²⁹ 가정 연간(1522~1566)에 목방의 한열(罕烈)이 그 지역을 점거하고 인신(印信)을 탈취하자 토사(土舍) 한경(罕慶)에게 이를 지키도록 하고 경마(耿馬)라고 불렀는데, 토지의 수입은 모두 목방에 돌아갔다. 만력 12년(1584)에 관병이 농천(隴川)⁴³⁰을 공격하여 취하고 맹정의 옛 지역을 평정하고서 한갈의 후예를 지부로 삼았다. [만력]

동지 및 南卡江 서쪽·薩爾溫江 동쪽의 哈瓦 지구를 관할했다.

- 423) 罕顔法: 刀景發의 아들로, 宣德 3년(1428) 4월에 襲職하여 知府가 되었다. 『土官底簿』 卷上 孟定府知府條 참조.
- 424) 당시 罕顔法은 孟定府의 土官知府였고, 孟薩長官司의 長官은 刀塚罕이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82 宣德 6년 8월 丙辰條 참조.
- 425) 刀祿孟: 罕顔法의 아들로, 宣德 8년(1433)에 襲職하였다. 『土官底簿』 卷上 孟定府知府條 참조.
- 426) 『臨滄大事記(一) 商朝~清朝』에 보면, “正統六年(1441), 麓川反叛, 刀祿孟遁走”라 기재되어 있다.
- 427) 總督: 明清시대의 지방장관으로 巡撫와 함께 督撫라고 불렀다. 명 중기 正統 연간(1436~1449)에 지방의 巡察을 위해 중앙에서 지방에 임시로 파견한 武官으로 提督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명 말에 邊防이 중요시되고 지방이 혼란하면서 상실화되었다. 지방행정장관인 布政使 등의 위에 있으면서 지방의 軍務行政을 總轄했다. 巡撫가 주로 民政을 專擅했던 것에 비해 總督은 주로 軍政을 專擅했다.
- 428) 王驥(1377~1460): 字는 尙德이며, 北直隸 保定府 東陵縣 사람이다. 永樂 4년(1406)의 進士로 兵科給事中에 제수되어 山西에 巡按했다. 곧 山西按察使司의 副使로 승임하였으며, 洪熙 원년(1425)에 順天府尹을 거쳐 宣德 초에 兵部右侍郎에 발탁되었다. 이후 오래지 않아 兵部尙書 서리가 되고, 宣德 9년(1434)에 兵部尙書에 올랐다. 正統 元年(1436)에 몽골의 침입이 격화되면서 북변방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襄兵部尙書로서 직임을 개유리 했다.는 형의 일시 부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 몽골이 甘州, 涼州 일대를 침범하고 명의 장수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자 正統 2년(1437) 王驥는 便宜行事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甘州, 涼州 일대의 북변방어를 지휘하였는데,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 공적으로 병부상서에 임명되었으나 연로하여 곧 사직하였고, 이로부터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忠毅이다.
- 429) 『臨滄大事記(一) 商朝~清朝』에 보면, “正統十二年(1447) 十二月, 木邦土官罕曷從征麓川有功, 總督王驥奏令其管食孟定”이라 기재되어 있다.
- 430) 隴川: 지금의 雲南省 德宏傣族景頗族自治州 隴川縣이다. 傣語로는 猛戛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잘 비추는

15년(1587)에 맹정부(孟定府)의 인장(印章)을 내려주었다.⁴³¹ 승정 말에 맹정은 반기를 들고 면전에 투항하였다.

其地, 自姚關南八日程, 西接隴川, 東連孟薩, 南木邦, 北鎮康, 土瘠人稀, 有馬援城在焉, 傾安撫司一, 曰耿馬, 萬曆十二年置, 以們罕爲安撫使, 與孟定隔崖理江, 孟定居南, 耿馬居北, 罕死, 弟們罕金護印, 屢奉朝貢, 時木邦思禮作亂, 侵灣甸·鎮康, 倚罕金爲聲援, 天啓二年, 緬人攻猛乃·孟戛, 罕金欲救之, 緬移兵攻金, 金厚賂之, 乃解, 後與木邦罕正構難不絕云.

이 지역은 요관(姚關)에서 남쪽으로 8일의 여정(旅程)에 있고, 서쪽으로 농천(隴川)에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 맹련(孟連), 남쪽으로 목방(木邦), 북쪽으로 진강(鎮康)⁴³²에 연결되어 있다. 토지가 척박하고 인구는 적으며, 마원성(馬援城)이 이곳에 있다. 안무사(安撫司) 하나를 관령하는데, 경마(耿馬)라 한다. 만력 12년(1584)에 설치하여 문한(們罕)을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 맹정과는 사리강(嗒哩江)⁴³³을 사이에 두고 있다. 맹정은 남쪽에 있고, 경마는 북쪽에 있다. 문한이 죽자, 동생 문한금(們罕金)이 인장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조공을 바쳤다. 당시 목방의 사례(思禮)가 난을 일으키고 만천(灣甸)⁴³⁴·진강(鎮康)을 침략했는데, 문한금이

지방이라는 뜻이다. 元末·明初 시기 麓川의 故地였는데, 『征麓川』 이후 正統 9년(1444)에 麓川平徂宣慰使司를 철폐하고 이곳에 隴川宣撫司를 설치하여, 지금의 隴川縣, 瑞麗市, 潞西市 등지를 관할하도록 했다.

- 431) 萬曆 12년(1584)에 官軍이 隴川을 취하고 孟定을 평정한 후, 罕曷의 후손 찾게 제 知府를 제수한 내용과 萬曆 15년(1587)에 孟定府印을 내려준 내용은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永昌府 참조.
- 432) 鎮康: 鎮康蠻夷直隸州를 일컫는다. 元나라 때에 鎮康路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鎮康府로 고쳐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洪武 17년(1382)에 鎮康直隸州로 강등시켰고, 永樂 3년(1405)에 灣甸蠻夷直隸州에 편입시켰다가 永樂 7년(1409)에 鎮康蠻夷直隸州를 설치하고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 鎮康縣 지역이다.
- 433) 嗒哩江: 薩爾溫江이라고도 하며, 또 怒族이 거주하는 지역의 강이라 해서 怒江이라고도 한다.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중국을 돌아 미얀마와 태국으로 흘러들어 安達曼海로 빠져 나간다.
- 434) 灣甸: 灣甸蠻夷直隸州를 일컫는다. 元나라 때에 鎮康路 지역이었는데, 洪武 연간(1368~1398)에 麓川平徂宣慰司에 兼並되었다가 永樂 원년(1403)에 灣甸長官司를 설치하여 雲南都司에 직속시켰다. 이후 永樂 3년(1405)에 灣甸蠻夷直隸州로 바꾸어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保山市 昌寧縣 지역이다.

성원했기 때문이다. 천계 2년(1622)에 면인(緜人)이 맹내(猛乃)·맹간(孟良)을 공격하자 문한금이 이들을 구원하고자 했다. 면진이 군대를 이동시켜 문한금을 공격하였는데, 문한금이 그들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자 곧 풀었다. 이후에 목방의 한정(罕定)과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曲靖
곡정

曲靖，隋恭·協二州地。唐置南寧州，改恭州爲曲州，分協州置靖州。至元初，置磨彌部萬戶，後改爲曲靖路宣慰司。

곡정(曲靖)은 수나라 때 공주(恭州)·협주(協州) 두 주(州)의 지역이다. 당나라는 남녕주(南寧州)를 설치하고 공주를 곡주(曲州)로 고쳤으며, 협주를 나누어 정주(靖州)를 설치했다. 지원 조에 마미부(磨彌部) 만호(萬戶)를 설치하고, 후에 곡정로(曲靖路) 선위사(宣慰司)로 바꾸었다.⁴³⁵⁾

洪武十四年，征南將軍下雲南，元曲靖宣慰司征行元帥張麟、行省平章劉輝等來降。十五年改曲靖千戶所爲曲靖軍民指揮使司，置曲靖軍民府。十六年，霑益州土官安索叔·安磁等貢馬及羅羅刀甲·氍衫·虎皮。詔賜磁·冠帶·綺羅衣各一襲并文綺·紗錠。羅羅州土酋納居來朝，賜鈔幣。十七年，亦佐縣土酋安伯作亂，西平侯沐英發兵討降之。

홍무 14년(1381)에 정남장군이 운남을 정벌하자⁴³⁶⁾ 원나라 곡정선위사(曲靖宣慰司) 정형원

435) 『元史』卷61 『地理志』曲靖等路宣慰司軍民萬戶府에 보면, 원나라 憲宗 6년(1256)에 磨彌府 萬戶를 세우고, 至元 8년(1271)에 中路로 고쳤으며, 至元 13년(1276)에 曲靖路 總管府로 바꾸고, 至元 25년(1288)에 宣撫司로 승격시켰다고 되어 있다.

436) 征南將軍 穎川侯 傅友德이 군대를 이끌고 曲靖에 이른 것은 洪武 14년(1381) 11월이다. 이에 관한

수(征行元帥) 장린(張麟)·행성평장(行省平章) 유험(劉輝) 등이 투항해 왔다.⁴³⁷⁾ [홍무] 15년(1382)에 곡정 천호소를 곡정 군민지휘사사(軍民指揮使司)로 바꾸었으며⁴³⁸⁾ 곡정 군민부(軍民府)를 설치했다.⁴³⁹⁾ [홍무] 16년(1383)에 점익주(霑益州)⁴⁴⁰⁾의 토관 안색숙(安索叔)⁴⁴¹⁾·안자(安磁) 등이 말과 나라(羅羅)의 도갑(刀甲)·진삼(氍衫)⁴⁴²⁾·호피(虎皮)를 바쳤다. [이에] 조서를 안자(安磁)⁴⁴³⁾에게 내리고, 관대·기라(綺羅衣)⁴⁴⁴⁾ 각 1습(襲)과 문기·초정을 하사했다.⁴⁴⁵⁾ [이후] 나용주(羅雄州)⁴⁴⁶⁾ 토추 남거(納居)가 내조하니, 초괘를 하사했다.⁴⁴⁷⁾ [홍무] 17년(1384)에 역좌현(亦佐縣)⁴⁴⁸⁾의 토추 안백(安伯)이 난을 일으키자 서평후 목영이 군대를 보내 정토하고 그를 항복시켰다.⁴⁴⁹⁾

二十年，越州土酋阿賁與羅雄州營長發東等叛，阿賁者，土官龍海子也。越州，蠻呼

내용은 『太祖實錄』 卷140 洪武 14년 11월 戊辰條 참조.

437) 行元帥 張麟과 行省平章 劉輝를 비롯하여 樞密院 同知 法烈該, 傅尉 高仁, 廉訪司 副使 字海羅牙 등이 투항해 온 것은 洪武 15년(1382) 정월의 일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1 洪武 15년 춘정월 壬午條 및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의 洪武 5년 춘정월 壬午條 참조.

438)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윤2월 己亥條 참조.

439) 洪武 15년(1382) 3월에 府로 하였고, 洪武 27년(1394) 4월에 軍民府로 승격시켰다.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참조.

440) 霑益州: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霑益縣 지역으로, 예로부터 '入滇鎖鑰'·'入滇門戶'로 불렸다. 원나라 初에 磨彌萬戶府를 두었는데, 至元 13년(1276)에 霑益州로 고쳤다.

441) 安索叔: 安索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僞薩, 1988: 86).

442) 氍衫: 털실로 만든 의복을 말함.

443) 본문의 磁는 사어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安磁라는 人名으로 보임(僞薩, 1988: 86).

444) 綺羅衣: 화려하고 아름다운 명주로 만든 衣服을 말함.

445)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6 洪武 16년 9월 乙丑條 참조.

446) 羅雄州: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羅平縣 지역으로, 송나라 때에 羅雄郡이라 하였으나 원나라 至元 13년(1276)에 羅雄州로 고쳤다. 이후 明 萬曆 15년(1587)에 羅平州로 바꾸어 曲靖軍民萬戶府에 예속시켰다.

447)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8 洪武 16년 11월 丙寅條 참조.

448) 亦佐縣: 唐代에 平夷縣이라 불렀는데, 元 至元 2년(1336)에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富源縣 亦佐村에 亦佐縣을 쌓고 亦佐縣이라 했으며, 明代 永樂 원년(1403)에 曲靖府의 管轄下에 두고 衛所制가 시행되면서 亦佐縣을 平夷衛로 고쳐 불렀다.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富源縣 지역이다.

449) 이에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67 洪武 17년 윤10월 辛丑條 참조.

爲苦麻部。元末，龍海居之，所屬俱羅羅斯種。王師征南時，英駐兵其地之湯池山。龍海降，遣遣子入朝，詔以龍海爲知州。尋爲亂，英擒之，徙遼東，至蓋州病死。阿資繼其職，益桀驁，至是叛。帝命英會征南將軍傅友德討。邁過平夷，以其山險惡，宜駐兵屯守，遂遷其山民往居卑午村，留神策衛千戶劉成等將千人置堡其地，後以爲平夷千戶所。阿資等率衆寇善安，燒府治，大肆剽掠。友德率兵擊之，斬其營長。二十二年，友德等進攻，土官普旦來降。阿資退屯善安，倚崖壁爲寨。友德以精兵蹙之，蠻衆皆緣壁墜崖，墜死者不可勝數，生擒一千三百餘人，獲馬畜甚衆。阿資遁還越州，復追擊敗之，斬其黨五十餘人。阿資窮蹙請降。初，阿資之遁也，揚言曰：「國家有萬軍之勇，我地有萬山之險，豈能盡滅我輩。」英乃請置越州·馬龍二衛，扼其險要，復分兵追捕，至是遂降。

[홍무] 20년(1387)에 월주(越州)⁴⁵⁰의 토후 아자(阿資)가 나옹주의 영장(營長) 발속(發束) 등과 더불어 모반하였다. 아자는 토란 용해(龍海)의 아들이다. 월주는 만인(蠻人)들이 고마부(苦麻部)라 부른다. 원나라 말에 용해가 이곳에 거주했는데, [이에] 소속된 모두가 나라사(羅羅斯)⁴⁵¹ 종족이다. 조정의 군대가 남쪽을 정벌할 때에 목영이 이 지역의 탕지산(湯池山)⁴⁵²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용해가 투항하고서 아들을 보내 입조하자, 조서를 내려 용해를 지주(知州)로 삼았다.⁴⁵³ [그러나] 오래지 않아 난을 일으키니, 목영이 이를 붙잡아 요동(遼東)⁴⁵⁴으로

450) 越州: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麒麟區 越州鎮임.

451) 羅羅斯: Luoluoshi의 음역으로, 원나라 때에 지금의 四川 西昌地區와 涼山自治州의 羅羅人 및 그들의居住地 名稱으로 상용되었다. 羅羅思·魯魯麻, 혹은 羅羅韋으로도 음역되는데, '羅羅'는 '族이고, '斯'·'思'·'麻'는 蒙古語로 複數의 語尾이며, '韋'은 地區라는 뜻이다.

452) 湯池山: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宜良縣 湯池鎮에 있는 산을 일컫음.

453) 이에 관한 내용은 天啓「滇志」, 『羅羅志』·土司官氏: 曲靖府에 있음.

454) 遼東: 중국 遼河의 동쪽 지방. 지금의 遼寧省 동남부 일대를 일컫음. 戰國·秦·漢代부터 南北朝時까지 遼東郡을 설치하였다. 또한 明 初에는 軍鎮 이름이 되었는데, 관할 영역은 지금의 요녕성 대부분과 吉林省 일부였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특히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육상 통로이기 때문에 각종 외교 사절과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곳의 영유권을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북방 민족 간의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로 귀양보냈는데, 개주(蓋州)⁴⁵⁵에 이르러서 병으로 죽었다. 아자가 그의 직을 계승했는데 더욱 성질이 사납고 교만했으며, 이때에 이르러 반기를 들었다. 황제는 목영에게 명하여 정남장군 부우덕과 회동하여 정토에 나서도록 했다.⁴⁵⁶ 길은 평이(平夷)⁴⁵⁷를 지나야 하고 그 산세가 험악하여 마땅히 군대를 주둔시켜 지키야 했는데, 이우고 그 산민(山民)을 비오촌(卑午村)으로 옮겨가 거주토록 하고 신책위(神策衛) 천호 유성(劉成) 등이 이끄는 1,000명을 그곳에 남겨 보(堡)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후에 [이곳을] 평이(平夷) 천호소로 했다.⁴⁵⁸ 아자 등이 무리를 이끌고 보인(普安)⁴⁵⁹을 침범하여 부(府)의 아문을 불사르고 거리낌 없이 약탈을 했다. 부우덕이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격퇴하고 그 영장(營長)을 베었다.⁴⁶⁰ [홍무] 22년(1389)에 부우덕 등이 진공(進攻)하니 토란 보단(普旦)이 투항해 왔다. 아자는 물러나 보안에 주둔하여 벼랑을 의지해서 채(寨)를 만들었다. 부우덕이 정예의 군대를 이끌고 밀고 들어가자 만인 무리들은 모두 벼랑 가장자리로 올라갔는데, 떨어져 죽은 자는 헤아릴 수 없었고 생포된 자가 1,300여 명이었으며, 노획한 말과 가축이 매우 많았다.⁴⁶¹ 아자가 월주로 도망치니, 다시 추격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그의 무리 50여 명을 베었다. 아자는 궁지에 몰려 투항을 청했다. 당초에, 아자는 달아나면서 큰소리로 말하기를, "조정은 만군(萬軍)의 용맹스러움이 있다가

455) 蓋州: 지금의 遼寧省 蓋縣 지역이다. 원나라 때에 蓋州라 했는데, 明 洪武 4년(1371)에 州를 폐지하고 蓋州衛라 하였으며, 이듬해에 새로운 城을 쌓았다.

456) 越州의 土酋 阿資가 羅羅州 營長 發束 등과 더불어 모반한 내용과 總兵官 西平侯 沐英에게 명하여 征南將軍 顧國公 傅友德과 회동하여 이들을 征討하도록 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93 洪武 21년 9월 癸巳條에 있음.

457) 平夷: 洪武 14년(1381)에 益壽州 남쪽에 平夷守禦千戶所를 설치했으며, 洪武 23년(1393)에 平夷衛로 승격시켰는데, 후에 폐지했다가 永樂 원년(1403)에 다시 平夷衛를 설치했다.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富源縣 서쪽 지역이다.

458)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94 洪武 21년 冬10월 庚子條 및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의 洪武 21년 9월條 참조. 平夷守禦千戶所를 설치한 것은 洪武 14년(1381)이다.

459) 普安: 普安軍民府를 일컫는데, 元代의 普安路를 洪武 15년(1382)에 普安府로 고쳐 雲南布政司에 예속시키고, 곧 普安軍民府로 고쳤다. 洪武 27년(1394)에 바꾸어 四川布政司에 예속시켰는데, 永樂 13년(1416) 말에 폐지시켰다.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盤縣이었다.

460)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94 洪武 21년 12월 庚午條 및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의 洪武 21년 9월條 참조.

461)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95 洪武 22년 春正月 乙未條 및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의 洪武 22년 春正月條 참조.

만 우리 지역에는 만산(萬山)의 협준함이 있으니, 어찌 능히 우리를 다 섬멸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목영은 곧 월주(越州)⁴⁶²·마룡(馬龍)⁴⁶³ 2위를 설치하여 그 협준한 지역을 제압하도록 청하고, 또 군대를 나누어 추포하니, 이에 이르러 [아자는] 마침내 투항하였다.⁴⁶⁴

英等以陸涼西南要地，請設衛屯守。命洱海衛指揮僉事滕聚於古魯昌築城，置陸涼衛指揮使司。英又言：「曲靖指揮千戶哈刺不花，乃故元守禦陸涼千戶。今陸涼置衛，宜調於本衛鎮守，庶絕後患。」詔從之。帝以平夷尤當要衝，四面皆諸蠻部落，乃遣開國公常昇往辰陽集民間丁壯五千人，統以右軍都督僉事王成，即平夷千戶所改置衛。二十三年置越州衛。二十四年徙越州衛於陸涼州：以英言雲南諸蠻皆降，惟阿資恃險屢叛，宜徙衛軍守禦。已，阿資復叛。命都督僉事阿福為平光將軍，率師進討，屢敗賊衆。會連月淫雨水溢，阿資援絕，與其衆降。福擇曠地列柵，以置其衆。西南有木荂菁，賊常出沒處，後調普安衛官軍置寧越堡鎮之，然阿資終不悛。

목영 등은, 육량(陸涼)은 서남 지역의 요지임으로 [이곳에] 위(衛)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켜 지켜야 한다고 청하였다. [이에] 이해위(洱海衛) 지휘첨사 등취(滕聚)에게 명하여 고로창(古魯昌)에 성을 쌓도록 하고, 육량위(陸涼衛) 지휘사사(指揮使司)를 설치했다.⁴⁶⁵ 목영이 또 아뢰기를, “곡정(曲靖) 지휘천호(指揮千戶) 합랄불화(哈刺不花)는 곧 원래 원나라 때 육량을 수어(守禦)하는 천호였습니다. 지금 육량에 위를 설치했으니, 마땅히 [그를] 본위(本衛)에 임용하여 진수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면] 후환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조서를 내려 이를 허락하였다.⁴⁶⁶ 황제는 평이(平夷)가 매우 중요한 교통요지이고 사면이

462) 越州: 越州衛를 일컫는다. 洪武 23년(1393)에 越州(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麒麟區)에 설치했다.
 463) 馬龍: 馬龍衛를 일컫는다. 明 初에 馬龍州(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馬龍縣)에 세웠는데, 후에 다시 雲南左護衛라 불렀으나 이후 폐지했다.
 464) 洪武 22년(1389) 2월의 일로, 西平侯 沐英은 都督 孫正을 顧國公 傅友德에 딸려 보내 阿資를 추격하도록 하자, 그의 同黨 火頭 莽宗 등 50여 명을斬하고 말과 소, 양 천여 마리를 노획했다. 또한 沐英은 越州와 馬隆 二 衛를 설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95 洪武 22년 2월 己巳條 및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의 洪武 22년 춘경원條 참조.
 465)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00 洪武 23년 2월 癸亥條 참조.
 466)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03 洪武 23년 8월 壬午條 참조.

모두 여러 민족 부락이어서, 이에 개국공(開國公) 상승(常昇)⁴⁶⁷을 진양(辰陽)에 보내 민간인 장정 5,000명을 모집하여 우군도독첨사(右軍都督僉事) 왕성(王成)에게 통령하게 하고서, 평이 천호소를 고쳐 위를 설치했다.⁴⁶⁸ [홍무] 23년(1390)에 월주위(越州衛)를 설치했다.⁴⁶⁹ [홍무] 24년(1391)에 월주위를 육량주(陸涼州)⁴⁷⁰로 옮겼는데, [이는] 목영이 윤남의 여러 민족이 모두 투항했지만 오로지 아자(阿資)만이 협준한 지세를 믿고 여러 차례 모반을 함으로 마땅히 위(衛)의 군대를 옮겨 수비하여 막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아자가 또 모반을 하였다. [이에] 도독첨사(都督僉事) 하복(何福)을 평광장군(平光將軍)에 임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정토하도록 했는데, 여러 차례 적들을 패퇴시켰다. 때마침 여러 달 계속해서 많은 비가 와 하천의 물이 범람하여 아자는 후원(後援)이 끊기자 그의 무리와 함께 투항하였다. 하복은 확 트인 지역을 택해 목책(木柵)을 열 지어 세우고서 그의 무리들을 안치(安置)했다. 서남쪽에는 목용청(木蓉菁)이 있고 적이 항상 출몰하는 곳이어서, 다시 보안위(普安衛)⁴⁷¹의 관군을 징발하여 영월보(寧越堡)를 설치하여 지키도록 했는데, 그러나 아자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⁴⁷²

二十七年，阿資復反，西平侯沐英及福率兵營於越州城北，遣壯士伏於歧路，而以兵挑戰。蠻兵悉衆出，伏起，大敗之，阿資脫身遁。初，曲靖土軍千戶阿保·張琳所守

467) 常昇: 開國公 常遇春의 둘째 아들이다. 형 常茂가 父親의 작위를 이었는데, 後嗣가 없자 常昇이 開國公 작위를 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군대를 훈련시켜 出兵하여 功을 세워 太子太保가 더해졌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해지는데, 建文 4년(1492)에 徐輝祖(徐達의 長子)와 함께 浦子口에서 燕王 朱棣의 進攻을 막다가 戰死했다고도 하고, 藍玉의 獄에 連坐되어 誅殺되었다고도 한다.
 468) 平夷千戶所를 平夷衛指揮使司로 바꾼 내용은 『太祖實錄』 卷201 洪武 23년 8월 4日 申條 참조.
 469)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03 洪武 23년 7월 壬辰條 참조.
 470) 陸涼州: 蠻名으로는 休納 또는 瓦子라고 불린다. 漢代에 이곳에 同勞縣을 두었고, 南詔 때에는 阿彥甸이라 했으며, 大理 段氏 때에는 落溫郡라 했는데, 元代에 陸涼州로 고쳐 阿納縣과 芳華縣을 관할하도록 했다. 洪武 15년(1382)에 明朝에 복속되었는데, 처음에는 옛 縣을 그대로 두었으나 洪武 24년(1391)에 인구가 적어 縣을 州에 병합하여 없애고 曲靖府에 속하게 했다.
 471) 普安衛: 洪武 15년(1382)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盤縣이며, 雲南都司에 예속시켰는데, 洪武 22년(1395)에 軍民指揮使司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清 康熙 26년(1687)에 폐지되었다.
 472) 이에 관한 내용은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의 洪武 24년 冬12월條에 있음.

地，與越州接壤，部衆多相與貿易，春使人結阿保等，視阿資所在及其經行地，星列守堡，絕其糧道，賊益困。二十八年，福潛引兵屯赤窩鋪，遣百戶張忠等搗賊寨，擒阿資，斬之，俘其黨，越州乃平。自是以後，諸土官按期朝貢，西南晏然。

[홍무] 27년(1394)에 아자가 다시 모반을 했다. 서평후 목춘과 허북이 군대를 이끌고 월주성(越州城) 북쪽에 진을 치고, 장사(壯士)를 보내 갈림길에 매복시키고는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걸었다. 만병(蠻兵)이 모두 출동하자 매복군이 진격하여 이들을 대패시키니, 아자는 몸을 빼내어 도망쳤다.⁴⁷³⁾ 당초에, 곡정 토군천호(土軍千戶) 아보(阿保)·장림(張琳)이 지키는 지역은 월주(越州)와 접경해 있고, 부락의 무리 대부분이 서로 무역을 했다. 목춘이 사람을 보내 아보 등과 결탁하여 아자가 있는 곳과 그가 경유해 통행하는 지역을 정찰하고는, 벌처럼 촘촘히 늘어서 보(堡)를 지켜 양식 보급로를 끊으니, 적은 더욱 곤궁하였다. [홍무] 28년(1395)에 허북이 비밀리에 군대를 이끌고 적외포(赤窩鋪)에 주둔하고서, 백호(百戶)⁴⁷⁴⁾ 장충(張忠) 등을 보내 적의 소굴을 공격해 아자를 붙잡아 참수하고 그의 무리들을 사로잡으니, 월주는 이에 평정되었다. 이로부터 이후에 여러 토관은 기일을 살피 조공하였으며, 서남 지역은 편안해졌다.⁴⁷⁵⁾

正統二年，曲靖軍民知府晏毅言四事：一，土官承襲，或子孫，或兄弟，或妻繼夫，或妾繼嫡，皆無豫定次序，致臨襲爭奪，仇殺連年，乞改該部移文所司，豫爲定序造冊，土官有故，如序襲職。一，請恤陣亡子孫。一，請雲南官俸，悉如四川之例。一，均戶口田地，事下所司議行，毅復請設益州松韶巡檢，從之。

473)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35 洪武 27년 11월 乙丑條 참조.

474) 百戶: 세습 軍職으로서, 元代에 처음 만들어진 관직명이다. 원대 上百戶 長官에는 몽골인과 한인 각각 1명을, 下百戶에는 1명을 두었으며 千戶所에 예속시켰다. 元代의 제도를 계승해서 明代 역시 衛所制度에 百戶所를 설치해서 병사 112명을 두었다. 명대 역시 세습직이었지만, 除授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475) 西平侯 沐春과 中軍都督僉事 何福 등이 越州의 阿資를 토벌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36 洪武 28년 춘정월 甲子條에 있음.

정통 2년(1437)에 곡정 군민지부(軍民知府) 안의(晏毅)가 네 가지 사안을 아뢰었다. 첫 번째로, 토관의 계승은 어느 때는 자손이, 어느 때는 형제가, 어느 때는 처(妻)가 남편을 잇고, 어느 때는 첩이 적처(嫡妻)를 잇는데, 모두 미리 정한 순서가 없고 이어야 할 때에 닥쳐서 서로 싸워 빼앗으니, 원한과 살육이 여러 해 계속된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 직서를 내려 공문서를 관할 관서에 보내어 미리 순서를 정하고 책(冊)을 만들어서, 토관이 유고시에 순서에 따라 직을 잇게 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죽은 장병의 자손을 진휼하기를 청하였다. 세 번째로, 운남 관원의 봉록은 모두 사천의 예에 따라 해주기를 청하였다. 네 번째로, 호구와 전지(田地)를 균등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사안을 관할 관서에 내려 의논하여 행하도록 했다. 안의는 또 점익주(霑益州) 송소(松韶)⁴⁷⁶⁾ 순검(巡檢)을 설치하기를 청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⁴⁷⁷⁾

嘉靖中，羅雄知州者浚殺營長，奪其妻，生子繼榮，稍長即持刀逐浚。浚欲置之死，以其母故不忍。及浚請老，以繼榮代襲，繼榮遂逐浚。浚詐之鎮巡官，命迎浚歸。繼榮陽事之，賞加禁錮。萬曆九年調羅雄兵征緬，繼榮將行，恐留浚爲難，遂弑浚。時霑益土知州安世鼎死，妻安素儀署州事，亦提兵赴調。繼榮與之合營，通焉，且倚霑益兵力爲助。師過越州，留土官資氏家，淫樂不進。知州趙應奎白於兵備，將擒之，繼榮走，遂聚衆反，攻破陸涼鴨子塘，隄陂諸寨，築石城於赤龍山，據龍潭爲險，廣六十里，名己所居曰“龍樓鳳閣”，環以群寨，實諸軍士妻女其中。十三年，巡撫劉世曾乃撤諸道進兵，適劉緹破緬解官回，世曾以兵屬緹。緹遣馳赴普鉅營，直搗赤龍寨，斬賊梁帥，繼榮遁去。緹復連破三寨，降其衆一萬七千人，追奔至阿拜江，斬繼榮，賊平。世曾請築城，改設流官，乃以何倭爲知州，者繼仁爲巡檢。未幾，蠻寇必大反，殺繼仁，執倭，參將蔡兆吉等討定之，乃改羅雄州曰羅平，設千戶所曰定雄。

가정 연간(1522~1566)에 나웅(羅雄) 지주 자준(者浚)이 영장(營長)을 죽이고 그의 처를 탈취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자계영(者繼榮)이 조금 강성하자 칼을 쥐고 자준을

476) 松韶: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霑益縣 炎方鄉 남쪽에 있는 松韶村임.

477) 曲靖軍民府 知府 晏毅가 올린 四事의 상세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7 正統 2년 2월 丙戌條에 있음.

쫓아다녔다.⁴⁷⁸⁾ 자준은 그를 죽게 하려고 했지만 그의 어머니 때문에 어찌하지 못했다. 자준이 연로(年老)하여 자계영에게 대신 직을 잇도록 청했는데, 자계영은 마침내 자준을 쫓아 내었다. 자준이 진순관에게 이를 고소하니, [진순관은] 자준을 영 접하여 돌아가도록 명하였다. 자계영은 겉으로는 그를 섬기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구금시켰다. 만력 9년(1581)에 나옹의 군대를 징발하여 면전을 정벌하였다. [이 당시] 자계영이 장차 출정을 하려하면서, 남아있는 자준이 화난(禍難)을 일으킬까 두려워 마침내 자준을 죽여버렸다. 당시 점익(竊益)의 토지주 안세정(安世鼎)이 죽었는데, [그의] 처 안소의(安素儀)가 주(州)의 일을 대신 처리하였으며, 역시 군대를 이끌고 정벌에 나아가 참여했다. 자계영은 그녀와 진영(陣營)을 합하고 사통(私通)했으며, 또한 점익의 병력이 원조하는 것에 의지하였다. 군대가 월주(越州)를 지나는데, 토관 자씨(資氏)의 집에 머물러 음락에 빠져 나아가지 않았다. 지주 월응규(越應奎)가 [이 사실을] 병비(兵備)에게 알려 그를 잡으려 하자, 자계영은 도망쳤으며 마침내 무리를 모아 모반을 하였다. 육랑(陸涼) 암자당(鴨子塘)⁴⁷⁹⁾·두괴(陡塊) 등 여러 체를 공파하고 적룡산(赤龍山)에 석성(石城)을 쌓고 용담(龍潭)을 점거하여 현한 요새를 만들었는데, 넓이가 60리였다.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이름하여 “용루봉각(龍樓鳳閣)”이라 일컬었는데, 여러 체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군사(軍士)와 처자식이 그 안에 있었다. [만력] 13년(1585)에 순무 유세증(劉世曾)⁴⁸⁰⁾이 곧 여러 길로 격문을 보내 군대를 발진시켰다.⁴⁸¹⁾ 마침 유정(劉經)⁴⁸²⁾이 면전을

478) 이에 관한 내용은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曲靖府 羅平州에 보이는데, 繼榮의 母는 營長의 妻로 者液에게 달취당래 繼榮을 낳았지만 繼榮은 者液의 아들이 아니고 營長의 遺體이며, 繼榮은 14세가 되어서 者液을 죽이려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479) 鴨子塘: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麒麟區에 위치함.

480) 劉世曾: 生卒年 未詳. 四川 巴縣 사람으로, 嘉靖 42년(1562)에 進士에 급제하였다. 太僕寺 少卿을 거쳐 右僉都御史로 승진하여 雲南巡撫가 되었다. 萬曆 10년(1582)에, 岳鳳이 緬甸의 莽應里로 하여금 雲南을 침범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그는 劉挺과 鄧子龍을 가용하여 敵을 격파하였다. 후에 戰功을 不賞하게 보고하여 神宗에게 削籍당했다.

481) 巡撫 劉世曾이 징발한 土兵은 寧州의 祿麻語, 嵩峨의 六志貞, 師宗의 龍勝, 水西의 隆有義, 當益의 安紹慶, 越州의 資氏, 尋甸의 木遇春, 路南의 番騰雲과 秦世文, 新化的 普同春, 武定的 侯世功, 亦佐의 沙騰蛟 등의 土兵이다.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曲靖府의 내용 참조.

482) 劉經(1560~1619): 江西省 南昌 사람으로, 본명은 興經이고, 자는 子毅이며, 號는 省吾이다. 嘉靖 연간(1522~1566)의 유명한 장군인 興顯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인 興顯이 어려서 四川을 전진할 때 劉峴이라는 사람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를 부친과 같이 여겨 姓을 劉로 바꾸었다. 萬曆 10년(1582)에 緬甸이 운남 일대를 공격하자 萬曆 11년(1583)에 그는 遊擊將軍으로서 수비를 담당했고 후에 副總兵이 되었

격파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돌아왔는데, 유세증은 군대를 유정에게 배속(配屬)시켰다. 유정이 이에 보자영(普鉉營)으로 달려 나가 곧바로 적룡채(赤龍寨)를 공격하여 적의 수령을 참살하니, 자계영은 도망쳐버렸다. 유정이 다시 세 개의 체를 연달아 공파하여 그의 무리 17,000명을 항복시키고, 도망하는 적을 추격하여 아배강(阿拜江)에 이르러 자계영을 베니, 적은 평정되었다. 유세증이 성을 쌓고 [토관을] 바꾸어 유관을 세우기를 청하니, 이에 하담(侯談)을 지주로 삼고 자계인(者繼仁)을 순검으로 삼았다. 오래지 않아 반구(蠻寇) 필대(必大)가 모반을 일으켜 자계인을 죽이고 하담을 붙잡아두었다. 참장(參將) 채조길(蔡兆吉) 등이 이를 토벌하여 평정하였고, 이에 나옹주를 고쳐 나평(羅平)이라 하였으며,⁴⁸³⁾ 천호소를 설치하여 정용(定雄)⁴⁸⁴⁾이라 했다.

時當益安素儀無子，以烏撒土官安紹慶爲嗣。慶死，孫安遠襲。土婦設科作亂，逐安遠，糾衆焚掠當益諸堡站，陷平夷街。天啓三年，官兵擒設科，誅之。五年，安遠據當益，從水西叛。事詳「烏撒傳」中。

당시 점익(竊益)의 안소의(安素儀)는 자식이 없어서, 오살(烏撒) 토관의 아들 안소경(安紹慶)이 뒤를 이었다.⁴⁸⁵⁾ [이후] 안소경이 죽자, 손자 안원(安遠)이 계승했다. [그런데] 토추(土酋)의 부인(婦人) 설과(設科)가 난을 일으켜 안원을 쫓아내고, 무리들을 규합하여 점익(竊益)의 여러 보참(堡站)을 불사르고 약탈했으며, 평夷(平夷衛)⁴⁸⁶⁾를 함락했다. 천계(天啓) 3년(1623)에

다. 이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 그는 조정의 명을 받아 萬曆 21년(1593)에 四川兵 5,000을 이끌고 참전하였으며, 얼마 후 四川總兵이 되어 楊應龍의 반란을 평했다. 그 후로 左都督에 올라 後金의 공격을 막다가 1619년에 사르하(薩爾滸) 전투에서 戰死했다.

483) 羅雄州를 고쳐 羅平이라 한 것은 萬曆 15년(1587)의 일이다.

484) 定雄: 定雄守禦千戶所를 일컫는데, 萬曆 14년(1586)에 羅雄州城 남쪽에 세워졌다.

485) 「明史」 卷311 「烏撒傳」에 보면, 四川 烏撒軍民府와 雲南 當益州는 그 관할하는 곳이 滇과 蜀으로 다르지만 宗派는 한 줄기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明朝 초에 大軍이 남하하자 女土官 實卜과 남隣の 동생 阿哥가 무리를 이끌고 귀순하였는데, 實卜에게 烏撒土知府를 계승하고 阿哥에게 當益土知州를 除授했으며, 이후 이곳의 代가 끊기면 저곳이 代를 이어서 서로 통하여 一家가 되었다고 한다. 萬曆 원년(1573)에 當益女土官 安素儀는 계승할 사람이 없자 土知府 祿墨의 次子를 후계자로 삼도록 上奏했는데, 그가 곧 安紹慶이라 기재되어 있다.

관병이 설과를 붙잡아 주살하였다. [천계] 5년(1625)에 안변(安邊)⁴⁸⁷이 점역을 점거하고, 수서(水西)를 쫓아 모반하였다. 이 일은 『오살전(烏撒傳)』 안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初, 越州阿資罪誅, 永樂間以其子祿寧爲土縣丞, 與亦佐沙氏分土而居. 其地南北一百二十里, 士馬精強, 征調銀至三千八百兩.

당초에, 월주(越州)의 아자(阿資)는 죄를 지어 주살되고, 영락 연간(1403~1424)에 그의 아들 녹영(祿寧)이 토현승(土縣丞)이 되어 역좌(亦佐)의 사씨(沙氏)와 토지를 나누어서 거주했다.⁴⁸⁸ 그 지역은 남북 120리이고, 군대와 말이 날렵하고 굳세며, 징조은(徵調銀)이 3,800냥에 이른다.

曲靖境內有交水, 去平夷衛二舍, 與黔接壤, 滇師出上六衛必由之道. 天啓初, 水西用兵, 撫臣議: 「曲靖鎖鑰全滇, 交水當黔·滇之衝, 乃扼塞要地, 平夷右所宜移置交水, 去險築城, 俾與平夷衛相望, 互爲聲援, 便。」報可.

곡정(曲靖)의 경내에는 교수(交水)가 있는데, 평이위(平夷衛)와는 2사(舍)⁴⁸⁹ 떨어져 있고, 검(黔)과는 접경이며, 진(滇)의 군대가 육위(六衛)로 출병하는데 반드시 경유하는 길이다. 천계 초에 수서(水西)에 대한 용병(用兵)을 할 때에 무신(撫臣)이 외는하기를, “곡정은 전체 진(滇) 지역의 군사적 요진(要鎭)이고, 교수는 검(黔)의 교통의 요충으로, 곧 험난하면서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평이우소(平夷右所)는 마땅히 교수(交水)로 옮겨 설치해야 하고, 험준한 지역에 성을 쌓아 평이위(平夷衛)와 더불어 서로 마주보게 하여 서로 성원(聲援)하면 편리할 것입니다”고 하니, [황제가]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

486) 平夷衛: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富源縣 亦佐村 지역에 세워진 明代의 衛. 앞의 平夷에 대한 주 참조.
487) 安邊: 安紹慶의 嫡孫이다. 『明史』 卷311 『烏撒傳』 참조.

488) 光緒『平彝縣志』 卷7 秩官志土司에 보면, “資子祿寧, 永樂三年劉·楊二戶引之入貢, 詔授亦佐縣右土縣丞, 以越州附近村庄與之, 移駐亦佐城, 與沙氏并爲左·右土縣丞”이라 기재되어 있음.

489) 舍: 古代에 行軍하는데 1宿하는 거리, 혹은 30리의 거리를 1舍라 했다.

| 참고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註』, 서울: 신서원, 2004
-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1~1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3
- 朴元燾 등 역, 『명사 식화지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08
-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四庫善本叢書初編, 1959~1963년刊
- 顧祖禹 撰, 『讀史方輿紀要』, 北京: 中華書局, 2005
-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臺灣: 商務印書館, 1956
- 談遷, 『國權』,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排印, 1958
- 劉文徵 纂修, 天啓『滇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臨滄檔案信息網, 『臨滄大事記(一) 高朝~清朝』, 2004년 11월 15일 發布
- 倪蛻, 『滇雲曆年傳』,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1992
- 王崧, 道光『雲南志鈔』, 昆明: 雲南社會科學院文獻研究所出版社, 1995
-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 李賢 等撰, 『明一統志』(文淵閣四庫全書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佚名, 『明末滇南紀略』,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6
- 張毓碧, 康熙『雲南府志』(中國地方志集成), 南京: 鳳凰出版社, 2009
- 諸葛元聲 撰·劉聖朝 校點, 『韻史』, 德宏: 德宏民族出版社, 1994
- 周國林 分史 主編, 『二十四史全譯: 明史』,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大明會典』(萬曆 15年刊本), 臺北: 新文豐出版社 影印本
- 『明實錄』, 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校引本, 1965~1966
- 『土官底簿』(影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朴元燾,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서울: 일조각, 2002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2002
- 余貽澤 等, 『明代土司制度』, 臺北: 臺灣學生書局, 1968
- 尤中, 『中國西南邊疆變遷史』,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1987
- 龔蔭, 『明史雲南土司傳箋注』, 昆明: 雲南民族出版社, 1988

龔陰,『中國土司制度』,昆明:雲南民族出版社,1992

江應樑,『傣族史』,成都:四川民族出版社,1984

江應樑,『明代雲南境內的土官與土司』,昆明:雲南人民出版社,1958

林惠祥,『中國民族史』上·下冊,臺北:商務印書館,1998

馬大政 主編,『中國邊疆略史』,鄭州:中州古籍出版社,2000

程大位,『算法統宗』,上海:江東書局印行,1912

丁曉昌·冒志祥,『古代公文研究』,安徽:安徽文藝出版社,2000

陳名傑,『明代西南土司制度研究』,中央民族大學 博士論文,2002

佐藤長,『チベット歴史地理研究』,東京:岩波書店,1978

H. J. Wiens, *Han Chinese Expansion in South China*, New Haven, 1954

J. C. Scott,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 Yale University Press, 2010

Matthew T. Kapstein, *The Tibetans*, Blackwell, 2006

Nicola Di Cosmo and Don J. Wyatt ed., *Political Frontiers, Ethnic Boundaries, and Human Geographies in Chinese History*, London & New York, 2003

S. Harrell, ed., *Cultural Encounters on China's Ethnic Frontiers*, Seattle & London, 1995

김홍길, 『명대의 彝族정권과 토사』,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2005

龔蔭, 『20世紀中國土司制度研究的理論與方法』, 『思想戰線』, 2002-5

龔蔭, 『關於明清雲南土司制度的幾個問題』,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1986-3

龔蔭, 『略論土司制度的作用與流弊』,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1989-2

雷翔, 『明初齊齊土司官制過程小考』, 『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1

劉藝兵, 『論雲南土司制度與古代地方制』, 『思想戰線』, 1994-6

李建軍, 『孫可望·李定國等部農民軍與南明永曆朝廷關係考』,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03-5

李建軍·譚運秀, 『沐氏家族與雲南官民關係考』, 『第十屆明史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2004

李世楸, 『明朝土司制度述略』, 『中國邊疆史地研究』, 1994-1

李映發, 『孫可望與李定國』, 『貴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8-2

李正亭·孔令瓊, 『試論明·清兩代朝廷控制雲南土司手段的二重性』, 『學術探索』, 2003

林超民, 『漢族移民與雲南統一』, 『雲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3

白興發, 『越南彝族的歷史與文化』, 『文山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5-3

普永貴, 『明末雲南的“沙普之亂”』, 『學術探索』, 2001-1

付春·於晚燕, 『“奢安之亂”與“沙普之亂”比較研究』, 『貴州民族研究』, 2008-1

李朝春, 『徐霞客筆下的普名聲之亂』, 『紅河學院學報』, 2009-8

徐琳, 『南詔·大理國“驛信”“摩訶羅幢”名號探源』, 『民族語文』, 1996-5

吳明鏡, 『明代絲綢對藏區的輸入及其影響』, 『中國藏學』, 2007-1

于玲, 『土司制度新論』, 『中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4

許立坤, 『明代土司制度述略-明王朝民族政策研究之一』, 『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 1998-3

華林, 『明清西南土司承襲制度和文書』, 『貴州文史叢刊』, 1994-4

岡野昌子, 『明代土司制度考』, 『待兼山論叢』 1, 1967

岡田宏二, 『明代華南地域における土司の設置について』, 『東洋研究』 170, 2008

栗原 悟, 『明代彝系土司にみられる種族連合の紐帯-彝族(ロロ・ノス系)の民族史的研究の一考察』, 『東南アジア. 歴史と文化』 11, 1982

山田勲之, 『明代の麗江ナシ族・木氏土司-「忠臣」と「自主」の間』, 『中國研究月報』 61, 2007

山田勲之, 『明代の雲南麗江ナシ族・木氏土司とチベット世界との關係-カルマ派との關係を中心に』, 『日本西藏學會會報』 54, 2008

山田勲之, 『明代雲南麗江ナシ族・木氏土司による周邊地域への勢力擴張とその意義-中華世界とチベット世界の狭間で』, 『史學雜誌』 118, 2009

戴逸 主編, 『二十六史大辭典』, 吉林:吉林文史出版社, 1993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臧勵酥 等 編, 『中國古今地名大辭典』, 臺北:商務印書館, 1931

京大東洋史辭典編纂會, 『新編東洋史辭典』, 東京:創元社, 1980

下中邦彦 編, 『アシア歴史事典』, 東京:平凡社, 19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안·학경·무정·심전·
 여강·원강·영창·신화·
 위원·복승·만전·진강·
 대후·난창위·녹천·평면전
 (姚安·鶴慶·武定·尋甸·
 麗江·元江·永昌·新化·
 威遠·北勝·灣甸·鎮康·
 大侯·瀾滄衛·麓川·平緬傳)

명사(明史) 권314 운남토사(雲南土司) 2





동북아시아의 역사

NORTHEAST ASIAN HISTORY

明史 外國傳 譯註

「요안·학경·무정·심전·여강·원강·영창·신화·위원·복승·만진·진강·대후·난창위·녹천·평면전(姚安·鶴慶·武定·尋甸·麗江·元江·永昌·新化·威遠·北勝·灣甸·鎮康·大侯·瀾滄衛·麓川·平緬傳)」 해제

「명사」에는 10개의 권(卷)에 걸쳐 호광(湖廣)·사천(四川)·운남(雲南)·귀주(貴州)·광서(廣西) 등 다섯 개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종족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토사(土司)의 연혁, 그 설치와 계승 그리고 조공(朝貢)과 전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명사」의 편찬자들은 운남의 토사들에 대해서 세 개의 권(傳)으로 나눠서 서술하고 있는데, 본전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전이다. 그렇다면, 「명사」의 편찬자들이 운남 지역을 서술할 때 셋으로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명대에 운남에 설치된 토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해 보자. 첫 번째 유형은 운남 서쪽의 영창(永昌)에서 동쪽의 원강(元江)까지 지역의 북쪽이다. 이 지역은 한인(漢人) 외에 여러 종족들이 섞여서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로 토주(土州)·토부(土府)·토현(土縣)을 설치하고 토사를 두었다. 이 유형에는 순녕(順寧)·여강(麗江)·초웅(楚雄)·요안(姚安)·심전(尋甸)·곡정(曲靖)·무정(武定)·학경(鶴慶)·광남(廣南) 등의 부(府)가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앞서 언급했던 지역의 남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주로 다양한 종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차리(車里)·팔백(八百)·녹천(麓川) 등에는 선위사(宣慰司)를, 맹안(孟安)·간예(干崖)·남전(南甸)·농천(隴川) 등에는 선무사(宣撫司)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맹밀(孟密)·황강(滄江)·와진(瓦甸)·경마(耿馬) 등의 지역에는 안무사(按撫司)를 설치하였고, 팔寨(八寨)·왕룡산(王弄山)·사타진(思陀甸)·맹련(孟連)·다산(茶山)·교화(教化)·계처진(溪處甸) 등에는 장관사(長官司)를 두었다. 세 번째 유형은 남부의 변경지역으로 맹정(孟定)·만진(漫津)·진강(鎮康)·망시(芒市) 등이다. 정리하면, 주·부·현 설치 지역, 선위사·선무사·안무사·장관사 설치 지역 그리고 그 변방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본전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명사」 편찬자들은 이것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윤남을 구분하여 서술한 것이다. 본전은 요안·학경·무정·심전·여강·원강·영창·신화(新化)·위원(威遠)·복승(北勝)·만전·진강·대후(大侯)·난창위(滿滄衛)·녹천 등 지역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요안·학경·무정·심전·여강·원강·영창 등 7개 지역에는 부(府)를 설치하였고, 신화·위원·복승·만전·진강·대후·녹천 7개 지역에는 주(州)를 설치하였으며, 난창위는 복승주에 예속시켰다. 이들 지역의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본전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들은 윤남부(雲南府)나 대리부(大理府)를 주축으로 한 윤남의 중심 지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곳이었다.

윤남 지역에 대한 명의 토사제도는 몽골군이 대리국(大理國)과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한 후 토사를 설립하고 몽골 조정에 우호적인 추장들을 임명한 것을 계승한 것이었다. 이 토사제도를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주변의 다양한 종족들을 통치하는 방식이었던 기미(黠戛)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토사들은 조공(朝貢)이 아닌 부세(賦稅)를 냈고, 토사들은 반드시 명 조정에 가서 직위를 받아야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미제도나 토사제도의 그 정신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통제의 강도' 면에서 보면, 토사제도가 중국 왕조 조정과의 관계가 더 밀접했다고 할 수 있다.

명의 군대가 이 지역에 들어닥친 것은 명이 건국된 지 15년이 지난 뒤였다. 홍무(洪武) 14년(1381)에 정남장군(征南將軍) 부우덕(傅友德)이 윤남의 양왕(梁王)의 통치지역을 정복하고 홍무 15년에 윤남부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본전의 기술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명 조정의 진압에 대해서 요안처럼 해당 지역에서 계속되는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토사를 설치하기도 하였고, 무정이나 심전처럼 토관들이 귀부하여 그들에게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토사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전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토관(土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본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성 토관은 무정부(武定府)의 상승(商勝)으로, 그는 대리국(大理國) 아력(阿歷)의 후손인 농직(弄穰)의 처(妻)라고 알려져 있다. 본전의 내용에서 홍무제가 윤남을 장악한 후 가장 먼저 와서 귀부(歸附)하고 조공(朝貢)하였고, 명 조정은 규정이 따라 회사(回賜)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성 토관들은 무정부의 토관 봉조

(鳳詔)의 어머니인 구씨(瞿氏)와 그의 아내인 색림(索林)이다. 이렇듯 명대에는 토관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동생이 계승하게 하고, 아들과 동생이 없으면 그 처(妻)와 며느리가 종족들이 믿고 따르는 자라면 계승하도록 허락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본전을 통해서 명 조정이 관복을 하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서남 지역의 토사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명조(明朝)의 관제(官制)에서 지부(知府)의 관품은 정사품(正四品)인데, 가정(嘉靖) 39년(1560)에 여강지부(麗江知府)인 목고(木高)에게 삼품(三品)의 관복을 내린 것은 그가 은(銀)을 바친 것에 대한 표창의 의미였다. 이렇게 본래의 관품보다 높은 관복을 하사하는 것은 홍무(洪武) 연간(1368~1398)이나 영락(永樂) 연간(1402~1424)에는 드물게 보이는 사례였으나 명 중기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명 조정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목표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토사들에게 그들의 품급(品級)에 상당하는 조복(朝服)이나 공복(公服)을 주어 외형상 정치적 통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 방식은 명 초에 주로 나타나는데, 홍무제는 관복을 하사하는 것을 통해서 토사들을 외형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것으로, 조공을 한 후 관복을 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하나는 경태(景泰)·정덕(正德) 연간 이후 품관제복(品官制服)을 하사하는 것 외에 비어복(飛魚服)·두건복(頭巾服)·기린복(麒麟服)을 토사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목고의 사례처럼 은을 바친 이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명 조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방식은 명 중기 이후에 많은 사례들이 보인다. 명 조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관복을 하사하는 행위에서 정치적인 성격은 약해지고 경제적인 면이 강화되었다. 특히 가정제(嘉靖帝)와 만력제(萬曆帝)의 통치 시기에 하사하는 의복이 더 이상 조복이 아니었고 비어복·두건복·기린복을 주었다. 그리고 의복을 하사하는 이유도 더 이상 '귀부(歸附)'나 '내공(來貢)'이 아니라 대부분 '유공(有功)', '헌은(獻銀)', '헌대목(獻大木)' 등이었다.

셋째, 다른 지역에 비해 녹천에 대한 서술 분량이 많은 편이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본전은 요안·학경·무정·심전·여강·원강·영창·신화·위원·복승·만전·진강·대후·난창위·녹천 등 15개 지역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분량만 놓고 본다면 녹천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다른 14개 지역에 대한 내용과 비슷하다. 게다가 본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녹천에 대해 항목을 따로 해서 정리한 것 외에 영창(永昌) 지역을 다루는 내용에서도 녹천선

위(魏川宣慰) 사임발(思任發)에 대한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본전에서 녹천과 관련된 서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본전의 곳곳에 흩어져 있고,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녹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 초에 사한발(思漢發)이 사망한 후 그 가족 내에서는 왕위를 놓고 분열하였고, 이 때문에 녹천의 정권은 날로 약해졌다. 이때 경동(景東)의 도맹(陶勳)이나 마사록(摩沙勒)의 토관은 녹천에서 왕위쟁탈이 계속되는 상황을 틈타 녹천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는 명 조정에 귀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조는 운남에 총병관 목영(沐英)을 주둔시켰다. 이때 녹천 측은 군대를 파견하여 자신들로부터 이탈하려는 토관들을 정벌하였고, 이로부터 녹천과 명조 사이의 군사적 마찰이 시작되었으며, 계속해서 경동(景東)의 역(役)과 마사록의 역, 정변(定邊)의 역 등 세 차례의 전쟁이 이어졌다.

또한 경동의 역을 살펴보면, 경동은 원래 태족(傣族)의 거주지였으나 원조(元朝)에서 경동부(景東府)를 설치하였고, 후에 사한발이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녹천이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 홍무 15년(1382)에 경동의 도맹은 녹천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는 명조에 귀부하였다. 이에 녹천에서는 경동을 징벌하기로 결정하고 홍무 18년(1385)에 전쟁을 시작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마사록의 역, 정변의 역이 홍무 21년(1388)에 시작되었다. 마사록 일대는 원조 말년에 녹천에서 장악하였다. 후에는 명조에서 녹천의 세력을 염려하여 녹천 변경 지역에 있는 토관들의 이탈을 부추켜 명조에 귀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녹천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것으로 경동과 마사록의 토관이 명조에 귀부하였다. 이러한 명조의 책략에 녹천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변경에 있는 세력이 점차 와해되어 가는 것이 정권의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녹천에서는 대군을 일으켜서 마사록에 대한 전쟁을 시도하여 동요하는 변경의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명조에서도 군대를 파견하여 대적하면서 마사록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다. 녹천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미 명조에 귀부했던 토관들이 다시 녹천측과 함께 명조의 군대와 교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다음에는 녹천과 명조의 군대가 정변에서 교전하였는데 명의 군대는 화기(火器)를 사용하여 녹천의 코끼리 부대를 궤멸시켰다. 이것이 정변의 역이다.

그 후 건문(建文) 원년(1399)부터 영락 11년(1413)까지 14년 동안 녹천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그들의 영역이 와해된 것이었다. 사윤발(思倫發)이 죽은 뒤 여러 소수민족이 그

지역을 분할하여 점거하였는데, 목성(沐晟)이 그들을 토벌하였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3개 부(木邦府·孟養府·孟定府), 2개 주(大侯州·南甸州), 5개 장관사(澂江長官司·干崖長官司·澂甸長官司·孟連長官司·者樂甸長官司)를 설치하였다. 영락 11년(1413) 사임발(思任發)은 녹천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는 즉위 후 적극적으로 이전 녹천의 판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여, 우선 주변의 옛 영토를 수복하였고, 맹양(孟養)을 공격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능홍(勐宏) 지역으로 진격하였다. 이로써 녹천의 영토는 확대되었고 그 세력이 점차 강해져서 명조와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것이 확대된 것이 세 차례에 걸친 녹천과의 전쟁이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본전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첫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녹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여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지만, 잘못 기재한 사실들도 있다. 예를 들면, 본전의 원문에서는 망서체(莽西體, 1516~1550)가 반란을 일으킨 해가 만력(萬曆) 초년으로 되었는데, 그의 생몰년으로 볼 때 망서체가 죽은 이후이므로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망서체의 뒤를 이어 1551년에서 1581년까지 재위했던 망응룡(莽應龍)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당시 녹천의 왕이었던 망서체(재위 1531~1550), 망응룡(재위 1551~1581), 망응리(재위 1581~1599)의 계승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기술을 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토사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서술하는 시각,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본전의 서술은 ‘중화주의(中華主義)적 입장에서 서술하였기에, 만(蠻), 위(僞) 등의 용어들로 명 조정과 그들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녹천의 선위사(宣慰使)로 표현된 이들은 모두 미얀마에 있었던 왕조의 왕들이었다. 이것 역시 동남아시아에서의 그들의 위상이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중화 중심적인 태도와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개 토사의 지역으로 설명된 녹천은 주변의 작은 정치체들의 조공을 받으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원문 중에서 망응룡으로 잘못 표기했던 망서체는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미얀마의 퉁구(Toungoo) 왕조를 개칭한 타빈슈웨티(Tabinshwehti)이다. 그리고 망응리는 미얀마 퉁구 왕조의 군주인 난다 바인(Nanda Bayin)으로 아유타야 왕조의 나레수엔(Naresuen)과 세력을 겨룰 정도로 큰 나라의 왕이었다. 뿐만 아니라, 명 조정이 토사들과 갈등하고 그들과 이익이 충돌하여 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명조는 폭력적으로 그들을 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전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전에서 언급된 토사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명대의 운남과 그 변경 지역을 살펴보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본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토귀류(改土歸流) 실시에 대한 시간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토귀류는 청대(清代) 옹정(雍正) 연간(1723~1735)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본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통(正統) 8년(1443)에 학경부의 토사를 없애고 유관(流官)을 파견하였다는 내용이나 성화(成化) 13년(1447)에는 심전부에 유관을 임명한 것, 그리고 가정(嘉靖) 32년(1553)에는 원강부에 토관을 두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서 명대 개토귀류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明史 外國傳 譯註

「요안·학경·무정·심전·여강·원강·영창·신화·위원·복승·만전·진강·대후·난창위·녹천·평면전(姚安·鶴慶·武定·尋甸·麗江·元江·永昌·新化·威遠·北勝·灣甸·鎮康·大侯·瀾滄衛·麗川·平緬傳)」 여주

姚安
요안

姚安, 本漢弄棟·靖蛉二縣地, 唐置姚州都督府, 以民多姚姓也. 天寶間, 南詔蒙氏改爲弄棟府, 宋時, 段氏改姚州. 元立統矢千戶所, 天曆間, 陞姚安路.

요안(姚安)¹⁾은 본래 한(漢)나라의 농동(弄棟)²⁾·청령(靖蛉) 두 현(縣)의 지역이다. 당(唐)나라는 요주(姚州)³⁾·도독부(都督府)⁴⁾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백성들이 대부분 요씨(姚氏)

- 1) 姚安: 고대에는姚州라고 칭했다. 현재 雲南省 중부에 위치해 있고, 연평균 기온은 15.5℃이다. 이 지역은 일조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日光城이라는 별명을 가진 라싸에 비길 정도라고 한다. 지세는 여러 산들이 給河水和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다.
- 2) 弄棟: 漢나라에서 처음 이곳에 縣을 설치하였는데, 南朝의 梁나라 이후에는 폐지되었다.
- 3) 姚州: 지금의 雲南省 姚安縣 西北쪽에 옛 城이 있다. 唐나라 때에 이 지역에 姚씨 姓의 백성이 많아 姚州都督府를 설치하였는데, 서남 여러 민족과의 교통 요충지였다. 天寶 연간(741~756)에는 南詔의 蒙氏가 이를 弄棟府로 바꾸었으며, 宋나라 때에 段氏가 姚州로 바꾸었다. 元나라 至元 12년(1275)에 이곳에 統矢千戶所를 설치하고, 天曆 원년(1328)에 姚安路로 승격시켰다. 明代에 이를 姚安府로 했으나 清代에 들어 楚雄府에 예속시켰다.
- 4) 都督府: 隋나라의 總管府를 계승한 唐나라의 관부이다. 唐나라 初에 지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요충지마다 總管府를 두었다. 武德 7년(624)에 總管府를 都督府로 바꾸었다. 도독부에는 대·중·소 도독부의 구분이 있었다. 특히, 대도독부에는 都督 1명, 長史 1명, 司馬 2명, 錄事參軍 2명, 錄事 2명, 典獄 16명, 問事 10명, 日直 24명 등을 두었다.

였기 때문이었다. 천보(天寶)⁶⁾ 연간(741~756)에는 남조(南詔)⁷⁾의 몽씨(蒙氏)⁸⁾가 [그 지역을] 농동부(弄棟府)로 바꾸었다. 송(宋)나라 때에 단씨(段氏)⁹⁾가 요주(姚州)로 바꾸었다. 원(元)나라는 통시(統矢)¹⁰⁾ 천호소(千戶所)¹¹⁾를 설치하고, 천력(天曆)¹²⁾ 연간(1328~1329)에 요안로(姚安路)¹³⁾로 승격시켰다.

- 5) 唐代에 설치한 姚州都督府는 그 城이 현재의 姚安縣에 있다(佛德, 1988: 95).
- 6) 天寶: 唐 玄宗의 後半期 시대를 지칭한다. 현종의 재위기간은 44년이었으며, 安史의 亂(755~763)을 기준으로 다른 年號를 사용하였다. 처음의 연호는 開元이고, 두 번째 바꾼 연호가 天寶였다. 그 기간은 742년 정월~756년 7월까지이다.
- 7) 南詔: 7세기 무렵 雲南 지방에서 티베트·미얀마語 계통의 민족이 세운 나라이다. 당시에 중국의 서남 지역에 분포하는 많은 소수민족의 부락 중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6개의 부락이 있었는데, 이들을 大詔라고 불렀다. 6詔는 蒙巒·越析·施浪·道曠·浪穹·蒙舍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詔는 部 혹은 長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蒙舍詔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南詔라고 불렀다. 649년에 티베트·미얀마계 部族인 烏蠻의 細奴邏가 蒙舍詔를 일으켜 大蒙國을 세웠고, 唐과 독자적으로 修交하였다. 남조는 이 6조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데, 그 밖의 5조를 唐의 협력을 얻어 통일하여 唐에 속하는 소수민족에 의한 지방정권을 건립하였다. 南詔는 大蒙國을 세운 細奴邏부터 2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南詔는 다양한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국가로서 각 부족의 독립성이 강하여 왕권이 제한되었다. 烏蠻이라고 불리는 티베트·미얀마어 계통의 종족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으며 白蠻이라고 불리는 종족을 융합해 나라를 구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烏蠻은 오늘날의 彝族과, 白蠻은 白族이나 타이족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국을 10賦, 6節度, 2都督區로 나누어 통치했으며, 8세기 이후에는 불교가 전래되어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화려하게 발달하였다. 나라를 세운 뒤에 唐과 吐蕃 사이에서 에메한 태도를 보이고 자주 당과 충돌을 일으켰다. 그러나 902년 鄭買闢의 반란으로 멸망하였다.
- 8) 蒙氏는 南詔 부락 우두머리의 성씨이다. 南詔의 君主世系는, 蒙細奴邏(649년~674년), 蒙理聖爽(674년~712년), 蒙蒙閣(712년), 蒙盛邏(712년~728년), 蒙皮羅閣(728년~748년), 蒙閣溫風(748년~779년), 蒙異牟尋(779년~808년), 蒙尋勳(808년~809년), 蒙勳龍晟(809년~816년), 蒙勳利晟(816년~823년), 蒙勳億佉(823년~859년), 蒙世隆(859년~877년), 蒙隆舜(877년~897년), 蒙舜化貞(897년~902년)으로 이어졌다.
- 9) 段氏: 大麗國을 세운 段氏를 가리킨다. 通海節度使였던 段思平이 937년에 大麗國을 세워, 이후 200여 년간 지속되었다. 일설에는 단씨가 春秋시대 초기 鄭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권력투쟁에서 밀린 세력이 운남으로 들어와서 姓을 段으로 바꾼 것이 그 시작이라는 것이다. 몽골제국의 쿠빌라이칸은 대리국을 정복한 후 직접 그 지역을 관리하였는데, 대리국의 국왕이 大麗總管이 되었다.
- 10) 統矢: 府의 이름으로, 大理의 段氏가 설치하였고, 姚府라고도 불렸으며, 여덟 개 府 중 하나였다. 治所는 姚安에 있었고, 관할지역은 지금의 운남 姚安·大姚·永仁 등縣에 해당된다.
- 11) 千戶所: 지방의 군사제도인 衛所制 하에서, 1府에 1개씩 설치된 衛 이하의 所로, 병력은 1천 명 정도이다. 千戶所 아래에는 百戶所가 있다. 千戶所의 長은 千戶라 하고, 軍戶 1,120명을 거느린다.
- 12) 天曆: 元나라 제7대 황제인 天順帝 阿達吉八(Ragibagh Khan)의 年號로, 그 기간은 1328년 10월~1328년 11월이다.

洪武十五年定雲南，改爲府。十六年，姚安土官自久作亂，官兵往討，師次九十九莊，自久遁去。明年復寇宓甸，西平侯沐英奏以土官高保爲姚安府同知，高惠爲姚安州同知。保·惠從英擊自久，平之。二十年命普定侯陳桓·靖寧侯葉昇往雲南總制諸軍，於定邊·姚安等處立營屯種。二十六年，保以夔職，遣其弟貢馬謝恩。

홍무(洪武)¹⁴⁾ 15년(1382)에 운남(雲南)¹⁵⁾을 평정하고는¹⁶⁾ 부(府)로 바꾸었다.¹⁷⁾ [홍무] 16년(1383)에는 요안 토관(土官)¹⁸⁾ 자구(自久)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관군(官軍)이 [그

- 13) 姚安路가 설치된 것은 元나라의 天曆원년(1328)이었다. 路는 宋·元시기 행정구역 명칭이다. 이 지역은 현재의 雲南省 姚安縣이다. 姚安路에서 관할한 지역은 현재 雲南省의 姚安縣, 大姚縣, 永仁縣과 四川省 攀枝花市の 金沙江 남쪽이었다.
- 14) 洪武: 明宗 창립한 太祖 朱元璋의 年號이다. 明 太祖 以來로 1世 1元, 즉 한 명의 황제가 하나의 연호만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관례화되었다. 다만 元대의 예외로 明朝의 英宗만이 正統(1336~1449)과 天順(1457~1464)이라는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15) 雲南: 「尙書」 禹貢의 梁州 塞외의 지역이다. 元代에 雲南等處行中書省을 설치하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운남을 평정하고 雲南等處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여 府 8·州 75·縣 55·蠻備 6곳을 관할하게 하였고, 후에는 府 19·廳 4·州 2·州 4·縣 313·宣慰司 8·宣撫司 4·安撫司 5·長官司 33·黎夷長官司 2곳을 관할하였다.
- 16) 명 초에 운남은 정치·지리적으로 세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나라 황제에게 직속된 昆明을 중심으로 한 梁玉이다. 둘째는 정치적으로 원나라에 속하나 내부적으로는 주권을 누리는 大理를 중심으로 한 白族의 족장 段氏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路·府·州·縣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셋째는 씩씩말대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 지역으로 명대에는 토가 설치된 곳이다(吳晗, 2003: 221~222).
- 17) 이때 雲南布政司를 두고, 中慶路를 雲南府로 바꿨다. 洪武 15년(1382) 이후 운남 지역에 대한 체제가 정비되었다(『明史』 卷46 『地理志』 卷313 『雲南傳』;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流』 洪武 15년 2월조 내용 참조); 土府와 土縣은 吏部에 직속시켰다. 평시에는 세금을 납부하며 도로를 만들고 보수하여, 전시에에는 병사를 뽑아 전쟁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吳晗, 2003: 229).
- 18) 土官: 元代에 서방과 남방의 苗·僮·羣 등의 이민족 추장에게 관직을 수여하여 그 부족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를 토관 또는 土官이라고 했다. 명은 元의 토관제도를 이어받아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明朝는 陝西 등 북변 지역에는 衛所의 관직인 武職을, 서남 지역에는 州·縣 등을 설치하여 文職을 제수하였다. 洪武 7년(1374)에 西南諸蠻夷가 朝貢하자 元代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宣慰司 11·招討司 1·宣撫司 20·安撫司 19·長官司 173곳이었다. 府·州·縣의 正官과 佐貳官은 土官 혹은 중앙에서 파견한 流官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疆土를 지키고, 명조에 貢物과 賦稅와 徭役을 제공하였다. 李世隆의 연구에 의하면, 土官과 土司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土官은 조정이 '土'으로 임명한 세습 가능한 지방관을 가리키며, 元代와 明초에는 토리라는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곳으로 진격하여 토벌하였는데, 군대가 구십구장(九十九莊)에 주둔하자 자구가 도망갔다.¹⁹⁾ 이듬해(1384)에 [자구가] 다시 품전(品甸)²⁰⁾을 침략하였다.²¹⁾ [이에] 평서후(西平侯) 목영(沐英)²²⁾이 추청하여 토관 고보(高保)를 요안부(姚安府) 동지(同知)²³⁾로,²⁴⁾ 고혜(高惠)를 요안주(姚安州) 동지(同知)로 삼았다.²⁵⁾ 고보·고혜는 목영을 따라 자구를 공격하여 평정하였다. [홍무] 20년(1387)에, [명 조정은] 보정후(普定侯) 진환(陳桓)²⁶⁾·정녕후(靖寧侯) 섬승(葉

명후에는 宣慰司·宣撫司·安撫司·招討司·長官司와 같은 土官衙門을 설치하면서 비로소 土司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土司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세습지방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토관아문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土官보다는 土司의 의미가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李世瑜, 1994: 39).

19)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156 洪武 16년 8월 庚子條 참조.

20) 品甸: 지금의 雲南省 祥雲壩子읍.

21)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159 洪武 17년 정월 戊辰條 참조.

22) 沐英(1345~1392): 字는 文美이며, 安徽 鳳陽 사람이다. 어려서 고아가 되어 朱元璋이 養子로 삼으면서 朱姓을 가지게 되었다. 양자로 삼는 일은 그 무렵 군대에서 유행하던 일인데, 병사들을 거느리는 장영이 심복이 되어 줄 건부를 배양하려고 했기 때문에 준수하고 용맹한 청년을 키워서 가까이 두기를 좋아하였다. 전투할 때에 목숨을 바쳐 싸울 뿐 아니라, 중요한 고비에는 여러 장군들을 감시하는 눈과 귀가 되는 심복으로 쓸 수 있었다. 나이 18세가 되어 候前都尉를 제수받아 鎮江을 지켰다. 이후 藍州을 정벌하는데 참여하여 岷安을 경략하고, 閩溪十八寨를 격파했으며, 洪武 원년(1368)에는 다시 沐姓을 사용했다. 大都府府僉事, 同知를 거쳐 洪武 10년(1377)에 征西副將軍에 임명되어 鄧愈를 따라 吐蕃을 토벌하고, 서쪽으로 川·藏을 공략하여 西平侯에 봉해졌다. 이듬해 征西將軍이 되어 西蕃을 토벌하였으며, 洪武 13년(1380)에 朱元璋의 命을 받들어 陝西의 군대를統領하여 북방으로 나가 赤集乃路를 공략하였다. 그리고 黃河를 건너 賈蘭(지금의 寧夏 지역)에 올라 北元軍을 대패시키고, 元나라의 厲公 脫火蒸 등을 붙잡았다. 洪武 14년(1381)에 大將軍 徐達를 따라 北伐에 참여하여 全寧四部를 점령하였다(『明史』卷126 「沐英傳」 참조).

23) 同知: 관직명으로 知府의 副職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正五品이었다. 각 府에 둔 同知의 정원은 없었고, 지방의 鹽·식량·도둑제토·河工·軍籍정리·水利를 담당하였다. 또한 내지와 변경의 백성들을 撫恤하는 일도 맡았다. 知州의 副職인 경우에는 從六品이었고 역시 정원은 없었으며, 州同知라고 불렀다.

24) 姚安府의 土知府는 洪武年間부터 久, 高保, 高賢, 高壽, 高金辰, 高棟, 高光裕, 宗似(女), 高鶴, 高守藩 등이었다(余翰澤, 1968: 96).

25) 이때 雲南의 土首 申保를 永昌府同知, 木德을 麗江府知府, 羅克을 蘭州知府, 俄陶를 景東府知府, 阿吾를 千夫長, 阿日貢을 順州府知府, 高政을 楚雄府同知, 阿魯를 定遠縣丞, 高保를 姚安府同知, 高仲을 鶴慶府同知, 阿溫을 大理府 鄧州州知州, 楊奴를 劍川州知州, 左丕을 蒙化州判官, 施生을 蒙化州正千夫長, 楊奴를 雲南縣丞, 阿散을 太和縣正千夫長, 李朱를 副千夫長, 董鵬을 鶴慶府知府로 삼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159 洪武 17년 정월 壬子條 참조.

26) 陳桓(?~1393): 安徽省 涇州 사람으로 朱元璋과 함께 기병하여 壽州·和州를 공략하고, 강을 건너 集慶에

昇)에게 운남에 가서 여러 군대를 통솔하도록 명하였고, 정변(定邊)²⁸⁾·요안(姚安) 등지에 군영을 설치하고 주둔하여 개간하게 하였다.²⁹⁾ [홍무] 26년에, 고보가 관직을 세습하고서 그의 동생을 파견하여 말을 바치고 사은(謝恩)하였다.³⁰⁾

宣德九年, 姚安土知府高賢遣使貢馬. 弘治中, 土官高棟與普安叛賊戰, 死於板橋驛. 嘉靖三十年, 土官高鶴當元江之變布政司徐樾遇害, 奮身赴救, 死之. 萬曆中, 同知高金以征緬功, 賜四品服.

선덕(宣德)³¹⁾ 9년(1434)에 요안 토지부(土知府)³²⁾인 고현(高賢)이 사신을 보내 말을 바쳐

가장 먼저 진입하였다. 이후 淮東과 浙西를 점수하고 종원을 평정하였으며, 그 공로로 都督僉事에 제수되었다. 洪武 4년(1371)에 四川을 정벌하였다. 洪武 14년(1381)에는 운남을 정벌에 가담하였는데, 胡海·郭英과 함께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永寧을 통치서 烏撒로 들어가서, 그 지역의 여러 민족들과 전투하여 그들을 패배시켰다. 이후 계속 진격하여 마침내 大理를 장악하였다. 洪武 17년(1384) 普定侯에 책봉되었고, 洪武 20년(1387)에 靖寧侯 葉昇과 함께 東川을 정복하여 상당히 많은 포로를 획득하였다. 이에 운남의 여러 군대를 總制하였으며, 다시 九溪洞蠻을 평정하고 군영과 둔전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藍玉의 獄에 연루되어 사망하였다.

27) 葉昇(?~1392): 安徽 合肥 사람이다. 처음에는 廬州守將 左君鄧의 部將이었었는데, 후에 朱元璋에게 귀순하였다. 右翼元帥의 신분으로 汀州·明州를 함락하였고, 그 공로로 府軍衛指揮使로 승진하였다. 洪武 3년(1370)에 大都府府事가 되었고, 이듬해(1371)에 滬和와 함께 四川으로 진격하였다. 그 후 指揮使를 맡았고, 西安을 鎮守하고는 반란을 평정하였다. 大都府府事로 승진하여 王郢과 함께 西蕃을 평정하고 延安伯 顏帖木兒를 토벌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靖寧侯에 책봉되어 遼東에 진수하였는데, 고려측이 뇌물을 주는 것을 직방하여 洪武帝로부터 표창을 여러 차례 받았다. 洪武 20년(1387)에 陳桓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운남을 鎮守하였다. 후에 沐英과 함께 반란을 평정하였고, 胡海와 함께 湖廣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다시 胡海와 함께 韓州의 반란을 토벌하였다. 그 후 甘肅과 河南에서 군대를 훈련시켰으나 洪武 25년(1392)에 胡惟庸의 獄에 연루되어 사망하였다.

28) 定邊: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南漳彝族自治縣인.

29)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187 洪武 21년 11월 壬午條 참조.

30) 『太祖實錄』卷223 洪武 25년 12월 丙午條에는 高保의 동생 이름이 高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1) 宣德: 명 왕조 5대 황제인 宣宗 朱瞻基의 年號인.

32) 府·州·縣의 각 급 관원을 土官으로 임용할 경우, 앞에 '土'를 붙였는데, 이는 流官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府에는 土知府(正四品), 土同知(正五品), 土通判(正六品), 土推官(正七品), 土知事(正八品)을 두었고, 州에는 土知州(從五品), 土州同(從六品), 土州判(從七品), 土主目(從九品)을, 縣에는 土知

다.³³⁾ 홍치(弘治)³⁴⁾ 연간(1488~1505)에, 토관 고풍(高棟)이 보안(普安)³⁵⁾의 반란세력과 교전하였는데, 판교역(板橋驛)³⁶⁾에서 사망하였다. 가정(嘉靖)³⁷⁾ 30년(1551)에, 토관 고곡(高箇)은 원강(元江)³⁸⁾의 변(變)³⁹⁾으로 포정사(布政司)⁴⁰⁾ 서월(徐樞)⁴¹⁾이 살해당하려는 때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그를] 구하려다가 사망하였다.⁴²⁾ 만력(萬曆)⁴³⁾ 연간(1573~

縣(正七品), 土縣承(正八品), 上主簿(正九品), 土典史(無品級), 土巡檢(從九品)을 설치하였다.

- 33) 이와 관련된 내용은 『直宗實錄』 卷111 宣德 9년 6월 壬戌條 참조.
- 34) 弘治: 明朝의 제10대 황제 孝宗 朱祐樞의 年號이다.
- 35) 普安: 普安軍民府를 일컫는데, 원나라의 普安路를 洪武 15년(1382)에 普安府로 고쳐 雲南布政司에 예속시키고, 곧 普安軍民府로 변경하였다. 洪武 27년(1394)에 바꾸어 四川布政司에 예속시켰는데, 永樂 13년(1416) 말에 폐지시켰다.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盤縣이었다.
- 36) 板橋驛은 雲南 景東府에서 북쪽으로 10여 리 떨어져 있다.
- 37) 嘉靖: 명 왕조 12대 황제인 世宗 朱厚熜의 年號이다.
- 38) 元江: 길이 677km로 운남성과 광시성을 관통하는 강이다. 상류인 禮社河는 巍山의 彝族와 回族自治縣에서 시작된다. 三江口에서 동쪽 지류인 緜江河와 만난 후부터 비로소 元江이라고 불린다. 동남지류는 메콩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紅河라고 한다. 그 강물은 하노이에서 이르러 지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본문에서의 원강은 지류로 雲南省 中南部에 있으며, 元江 中上游에 위치한 지금의 元江哈尼族彝族自治州을 일컫는데 강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至元 2년(1265)에 元江府가 세워졌는데, 至元 25년(1288)에 元江路로 바꾸었다가 洪武 15년(1382)에 다시 元江府로 변경하였다. 청나라의 乾隆 35년(1770)에 元江直隸州로 되었다가 民國 2년(1913)에 元江縣으로 강등되었다.
- 39) 元江의 變에 대해서 정리하면, 嘉靖 25년(1546)에 元江知府 那憲이 叔父 那驛에게 살해된 후 那驛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명 조정에서는 兵馬를 징발하여 5路로 나누어서 진압하려고 했고, 반란군은 거짓으로 항복하였다. 嘉靖 31년(1552)에 徐樞가 雲南左布政使가 되어 軍帥를 감독하면서 南葉(지금의 元江縣)의 한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那氏가 거짓으로 항복하였다. 那驛은 코끼리와 兵馬를 매복시켰다가 내보냈고, 이때 徐樞는 사망하였다.
- 40) 본문 중의 布政司는 布政使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布政使는 명대 지방의 民政을 담당하는 관직이다. 명 태조는 洪武 14년(1381)에 지방 관료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행하였는데, 전국 13개 省에 承宣布政使司·都指揮使司·提刑按察使司를 설치하여 각각 民政·軍事·司法의 일을 분담케 하였다. 承宣布政使司는 從二品인 左, 右布政使 각 1명과 그 밑에 從三品인 左·右參政을 두어 省의 民政과 財政의 일을 담당토록 했다. 그러나 명 중기 이후 포정사의 위에 總督·巡撫·巡按 등의 관직이 설치되면서 지방 최고행정장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이들의 屬僚로 전락하였다.
- 41) 徐樞(?~1551): 字는 子直, 號는 波石으로 江西 貴溪 사람이다. 進士로 禮部侍郎·雲南布政使를 역임하였다. 嘉靖 7년~10년, 18년 세 차례에 걸쳐 王良의 문하에서 受業을 하였다. 王良이 그 부인에게 말하길, “다섯 아들은 당신이 낳았고, 徐樞는 내가 낳았다”고 할 정도로 그를 아꼈다. 雲南布政使로 있을 때 토사의 거짓 항복에 속아서 元江城에서 사망하였다.
- 42) 이와 관련된 내용은 『直宗實錄』 卷393 嘉靖 32년 정월 丁酉條 참조.

1615)에, 동지(同知) 고금(高金)이 먼전(緬甸)⁴⁴⁾을 정벌한 공로가 있어서 사품(四品) 관복⁴⁵⁾을 내려주었다.⁴⁶⁾

所屬大姚縣, 有鐵索箐者, 本保種, 依山險, 以剽掠爲業, 旁郡皆受其害. 弘治間, 稍有歸命者, 分隸於姚安·姚州. 嘉靖中, 乃專屬姚安. 其渠羅思者, 有幻術, 造偽印稱亂, 萬曆元年, 巡撫鄒應龍與總兵官沐昌祚討平之, 諸郡乃安.

[그] 관할 지역인 대요현(大姚縣)⁴⁷⁾에는 철색징(鐵索箐)이 있는데, 본래 나라(保僕)의 종족이다.⁴⁸⁾ [그들은] 산세가 험한 것에 의지하여 [재물을] 약탈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주변

- 의 군(郡) 모두가 그 해를 입었다. 홍치 연간(1487~1505)에는 [이들 가운데] 점차 귀순하여 복종하는 이들이 있어서 요안·요주에 나누어 예속시켰다. [그러다가] 가정 연간(1522~
- 43) 萬曆: 명 왕조 제14대 황제인 神宗 朱熹의 年號이다.
- 44) 緬甸: 현재의 미얀마를 가리킨다. 미얀마는 1044년에 통일 국가를 형성한 이후, 1278년에 원나라가 緬中行省을 설치함으로써 200여 년에 걸친 파간(Pagan) 왕조의 통치가 종식되었다. 몽골이 후퇴한 후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퉁구(Toungoo) 왕조(1531~1752)에 의해 통일되었다.
- 45) 전통시대에 관리들이 입었던 公服을 品色服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隋代에 시작되었다. 고대 관원들은 九品으로 구분하였는데 品級이 있는 관원을 品官이라고 하였다. 품급에 따라 품복의 색깔·모양·제 절을 달리 하여 그 尊卑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唐書』에는 “三品이상은 紫色을 입고 四品·五品은 緋色, 六品·七品은 綠色, 八品·九品은 青色으로 입는다. 夫人들은 남편의 관복 색을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明代에는 관복에 넣는 꽃무늬로 품급을 구별하였고, 품급에 따라 冠帶도 달리했다.
- 46) 이때 永昌府의 사례에 근거하여 하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156 萬曆 17년 정월 戊午條 참조. 이렇게 官服을 하사하는 것은 명 조정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土司가 사신을 파견하여 관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명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하사하는 경우도 있다(林春英, 2008: 128).
- 47) 大姚縣: 현재 운남성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永仁·元謀縣과 가깝고, 남쪽으로는 姚安·牟定縣과 이웃하며, 서쪽으로는 群雲·賓川縣과 이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永勝·華坪縣과 金沙江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宋代에 大姚縣을 설치하였고, 元代에는 大姚縣을 설치하였다. 부근에 大姚河가 있고, 水濞이 羅南縣 북쪽 18리산에서 시작되어 金沙江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 지방은 이 하천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 48) 僕는 지금 이곳에 있는 彝族의 옛 명칭이다. 이 외에 廬僕·保僕·僕落으로도 불렀는데, 廬僕이라는 명칭은 唐代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고, 保僕(혹은 羅羅)이라는 명칭은 元代와 明代에 사용되었다(熊隆, 1988: 98).

1566)에는 바로 오로지 요안에 속하게 했다. 그 수령 나사(羅思)는 환술(幻術)을 가지고 있었고, 가짜로 관인(官印)을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다. 만력 원년(1573)에, 순무(巡撫)⁴⁹⁾ 추용룡(鄒應龍)⁵⁰⁾과 총병관(總兵官)⁵¹⁾ 목창조(沐昌祚)⁵²⁾가 이 반란을 토벌하여 평정하였고, 여러 군은 바로 안정되었다.⁵³⁾

49) 巡撫: 明清시대의 지방장관으로 總督과 함께 '督撫'라고 불렀다. 명 초기에는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한 임시직이었으나 宣德 연간(1426~1434)부터 常設化되어 省 또는 그 일부를 관할하였으며, 명 말에는 20여 개나 되었다. 원래는 文官으로 주로 民政을 專權하였으나 軍事職까지 兼職하고, 都御史를 겸하기도 하여 省의 布政使, 按察使, 都指揮使를 지휘하는 지방장관으로서 實權을 가지게 되었다.

50) 鄒應龍: 생졸년 미상. 字는 雲鵬, 號는 蘭谷으로, 蘭州 阜康 사람이다. 嘉靖 연간(1521~1566)에 進士가 되어 行人에 제수되고, 御史로 발탁되었다. 嚴嵩이 권력을 장악하여 진척하였을 때, 鄒應龍은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하여 嚴嵩父子와 그 무리들을 탄핵하였다. 隆慶 연간(1567~1572) 초에 鄒應龍은 副都御史로 江西·江南의 鹽屯을 관리하였고, 工部右侍郎으로 승진하였다. 雲南에 진출하고 있던 黔國公 沐朝弼이 일반적으로 친척하자 조정의 대신들이 막았는 대신을 운남에 파견할 것을 의논하였고, 이에 鄒應龍이 兵部侍郎兼僉都御史가 되어 운남을 巡撫하였다. 그는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였는데, 沐朝弼의 죄상을 조사하여 京師로 압송하여 治罪하였다. 萬曆 연간(1573~1620) 초에 鄒應龍은 雲南 鐵索管과 緬榔 등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그 후에 廣南에서의 군사활동에 참여하였으나 部將이 패퇴당했고, 이로 인해 巡按御史 郭廷梧·給事中 衷應章 등에게 탄핵을 받아, 결국 削奪官職되어 집에서 사망하였다. 死後 萬曆 16년(1588)에 陝西巡撫 王賡의 상주로 관직을 회복하였다.

51) 總兵官: 명정시대에 武官의 관직명으로 鎮守總兵의 약칭이다. 명 왕조는 北京과 지방에 모두 衛所를 설치했는데, 초기에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총병관을 임명하여 衛所의 군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따라서 총개사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총병관은 전쟁 등 유사시에 公·侯·伯 등의 勳臣이나 都督 등의 관리가운데 充任을 하고, 일이 끝나면 본래의 직부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正統 연간(1436~1449)에 이르러 변방 지역에서 북방 민족과의 잦은 충돌로 점차 변경에 일이 많아지자 현지에서 계속 머물렀던 鎮守將을 함으로 사실상 鎭의 최고 무관직으로 고정되었다. 이로써 임시직에서 상설 무관직으로 변했다. 황제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때문에 그 권한은 매우 컸으며, 品級과 定員은 없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설치된 곳이 날로 늘어나 점차 流官으로 충임되었고, 총독과 순무의 지휘를 받았다. 청대에 이르러면 군사권이 모두 각 省의 提督에게 있었는데, 이를 제독의 정식 명칭은 提督軍務總兵官이었다.

52) 沐昌祚: 生졸년 미상. 黔國公 沐英의 후손이다.

53) 이 내용은 萬曆 3년(1575) 雲南御史 郭廷梧가 보고하는 내용에서 언급되고 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35 萬曆 3년 2월 戊子條).

鶴慶

학경

鶴慶, 唐時名鶴川, 南詔置謀統郡. 元初, 置鶴州. 至元中, 陞鶴慶府, 尋改爲路.

학경(鶴慶)⁵⁴⁾은 당나라 때에는 학천(鶴川)이라고 불렸고, 남조는 [그곳에] 모통군(謀統郡)⁵⁵⁾을 설치하였다. 원나라 초에는 학주(鶴州)를 설치하였다. 지원(至元)⁵⁶⁾ 연간(1264~1294)에는 학경부(鶴慶府)로 승격시켰고,⁵⁷⁾ 곧 노(路)로 바꾸었다.

洪武中, 大軍平雲南, 分兵拔三營, 萬戶砦, 獲偽多政寶山帖木兒等六十七人. 置鶴慶府, 以土官高隆署府事. 十七年以董馬爲知府, 高仲爲同知, 賜子節爲安寧知州, 楊叔爲劍川知州. 賜率其屬來朝, 貢馬及方物, 詔賜冠帶并織金文綺·布帛·鈔錠. 十八年以賜爲雲南前衛世襲指揮僉事, 賜, 安寧州人, 世爲酋長. 大軍入滇, 率衆來降, 復從軍討賊有功, 故與子節並有世襲知府·知州之命. 及賜來朝, 以父子俱受顯榮, 無以仰報, 子幼沖, 不達政治, 乞還父子所授官, 而自爲安寧知州. 帝曰:「爾能

54) 鶴慶: 이 지명은 元代에 鶴慶路를 설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지역은 농업을 위주로 하였는데, 원·명대에 屯墾制를 시행하여 경지를 정리한 후, 내지의 농업기술을 끌어들이자 농업 생산력을 높였다.

55) 謀統郡: 9세기경에 南詔에서는 謀統都, 大理國에서는 謀統府를 설치하였다. 이는 대리국 8개 부 중의 하나였고, 치소는 鶴慶에 두었다. 그 관할 지역은 지금의 운남성 鶴慶·蘭公坪·劍川·碧江·福貢 등 지역이었다. 元의 憲宗 3년(1253)에 鶴州로 명칭을 바꾸었고, 곧 다시 謀統千戶所로 바꾸었으며, 至元 11년(1274)에 다시 鶴州로 바꾸었다.

56) 至元: 元나라 때 世祖와 惠宗(順帝) 두 황제가 사용한 年號이다. 본문 중에서 언급한 至元 연간은, 世祖 때에 3차에 걸쳐 雲南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던 것과 관련시켜 보면 쿠빌라이(Kublilai)칸의 연호임이 분명하다(유인선, 2002: 144~150 참조).

57) 여기에 鶴慶府는 鶴慶軍民府를 일컫는다. 元나라 至元 23년(1286)에 鶴慶路를 설치했는데, 明 洪武 15년(1382)에 이를 鶴慶府로 바꾸었다. 그 治所를 지금의 雲南省 鶴慶縣에 두었다.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북부 및 麗江地區 永勝縣 지역이다. 清 乾隆 35년(1770)에 鶴慶州로 강등시켰다. 이 지역에 대한 唐代와 元代의 연혁은 『元史』 卷61 「地理志」 雲南條 참조(興隆, 1988: 98~99).

綏靖邊鄙，授蜀官以酬勳勞。今辭尊居卑，奈何？」命顯國公傅友德及諸大臣議之。皆以賜既有功，不可聽其辭，而節之官則可免。乃發明威將軍雲南前衛世襲指揮兼叅事，諭曰：「雲南前衛衛通安寧，特命爾是職，爾其綏靜遠人，以安邊鄙，其毋再辭。」

홍무 연간(1368~1398)에 대군이 운남을 평정하였는데, 군대를 나눠서 삼영(三營)⁵⁸⁾·만호채(萬戶砦)를 점령하였고, 가차 참정(參政)⁵⁹⁾·보산첨목아(寶山帖木兒) 등 67명을 사로잡았다.⁶⁰⁾ [그리고는] 학경부를 설치하여 토관 고훙(高隆)에게 부(府)의 업무를 대리하게 하였다.⁶¹⁾ [홍무] 17년(1384)에 동사(董賜)⁶²⁾를 지부(知府),⁶³⁾ 고중(高仲)⁶⁴⁾을 동지(同知), 동사의 아들 동절(董節)을 안녕(安寧)⁶⁵⁾·지주(知州)⁶⁶⁾로, 양노(楊奴)를 검천(劍川)⁶⁷⁾ 지주로 삼았다.⁶⁸⁾ 동사가 그 무리를 이끌고 내조(來朝)하여 말과 방물(方物)⁶⁹⁾을 마치고, [이에 명

- 58) 三營: 지금의 운남성 普洱市 景東彝族自治縣 지역이다. 南詔 때에 이곳을 정복하고, 원나라 때에 三營萬戶를 설치하여 이곳을 지켰다. 『讀史方輿紀要』 卷117 「雲南」 5 참조.
- 59) 參政: 명대에 각 성의 布政使 아래에 좌우 참정을 두고 각 직을 나누어 다스렸다.
- 60) 이 정벌은 征南左副將軍 永昌侯 藍玉이 주도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3월 庚戌朔條 참조.)
- 61)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3월 辛亥條 참조. 「土官底簿」(四庫全書·史部·職官類)에서는 정식으로 知府가 된 것은 高隆으로부터 3대 후인 高興 때였다고 한다. (賈陰, 1988: 99).
- 62) 董賜: 생졸년 미상. 원래 安寧州의 土知州였는데, 洪武 17년(1384)에 傅友德이 운남을 평정한 후 龍慶府의 일을 맡게 하였다. (賈陰, 1988: 100).
- 63) 知府: 府의 장관으로 관품은 正四品이다. 知府는 한 府의 정무를 주관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옛 관급에 따라 太守 혹은 郡守라고도 한다. 직무는 한 府의 풍속과 교화를 發揚하고,訟事を 공평히 하며, 官名과 요역을 균등히 하여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3년마다 소속 관리의 賢否를 살펴 그 성적의 고하를 매겨 省에 보내고 吏部에 보고하였다.
- 64) 高仲은 高隆의 아들이다. (賈陰, 1988: 100).
- 65) 安寧: 安寧州를 일컫으며,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文山壯族苗族自治州 富寧縣 西南 지역이었다. 廣南西路에 속했다. 지금의 富寧縣을 관할했으나 명나라 초에 廢해졌다.
- 66) 知州: 관직명으로 宋나라 때 節정의 관원들을 각 州의 책임자로 충원하면서 「權知某軍州事」라 칭했는데, 간략하게 知州라고 하였다. 權知는 임시로 주관한다는 의미이고, 軍은 해당 지역의 군대, 州는 民政을 가리킨다. 明清시대에는 知州가 정식 관직명이 되었고, 각 州의 행정장관을 일컫었다.
- 67) 劍川: 현재 雲南 劍川縣의 남쪽 지역이다. 唐나라에서는 羅魯城을 두었고, 劍川이라고 불렀다. 후에 南詔에 병합되어 劍川節度가 설치되었다. 송대에는 段氏가 그 지역을 義魯城으로 하였고, 元 초에는 義叔千戶를 두었으며, 나중에 劍川縣으로 변경하였다. 명대에 州로 승격하였다.

조정에서는] 조서(詔書)⁷⁰⁾를 내려 관대(冠帶)⁷¹⁾와 아울러 직금문기(織金文綺)⁷²⁾·포백(布帛)·초(鈔)⁷³⁾·경(錠)⁷⁴⁾을 내려주었다.⁷⁵⁾ [홍무] 18년(1385)에, 동사를 운남전위(雲南前衛)로 삼고 지휘첨사(指揮僉事)⁷⁶⁾를 세습하게 하였다. 동사는 안남주 사람으로, [그 집안] 대대로 추장이 되었다. 대군이 진(滇)⁷⁷⁾으로 들어가자 무리를 이끌고 와서 투항하였고, 또한 중군하여 적을 토벌하는데 공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그 아들 동절과 함께 지부·지주를 세습하도록 하는 명이 내려졌다. [그런데] 동사가 내조하였을 때, 그 부자(父子) 모두 찬란한 영화(榮華)를 받았지만 [명 조정에 어떠한] 보답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들이 어리고 정치를 이해하지

- 68)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9 洪武 17년 정월 壬子條 참조.
- 69) 方物: 각 지역의 土產物을 가리킨다.
- 70) 詔: 황제가 관리와 친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歷代에는 君臣 모두가 '조서'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秦이 천하를 통일한 후, 진시황이 자신을 이른바 "삼황의 덕을 겸비하고, 높은 五帝보다 드높다(德兼三皇, 功高五帝)"라는 견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칭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詔'라 부르게 되었다. 唐宋 시기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元代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명대에는 조서를 이용하여 중대한 명령을 발표하거나 신하들을 훈계한다. 명대에 황제가 발표하는 문서에는 詔·諭·敕·券·制·勅·聖旨·冊文·諭·書·令·符·檄·批·答·敕書 등이 있었다. 詔는 중대한 政令을 친하의 臣民에게 포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였다. (丁曉昌·呂志祥, 2000: 429 참조.)
- 71) 冠帶: 帽子와 腰帶를 일컫는다.
- 72) 織金文綺: 금실로 무늬를 넣은 비단을 가리킨다.
- 73) 鈔: 명대의 법정 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明朝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舉司를 설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통행시켰다. 桑維翰, 許璘나무 가지껍질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였고, 높이는 1尺, 폭은 6寸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용의 문양과 꽃무늬가 있다. 황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라 쓰여 있고, 그 안의 상반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쓰였다. 가운데에는 동전 무늬를 그려 넣었는데,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급은 모두 여섯으로 1貫, 500문, 400문, 300문, 200문, 100문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전달하여 이를 발행하도록 했으나, 中書省이 철폐가 된 뒤에는 戶部에서 발행했다. 보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煥 등, 2008: 314~319 참조.
- 74) 錠: 화폐를 헤아리는 단위로, 鈔 5貫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참고로 명대에는 鈔 1貫은 錢 1,000文, 銀 1兩에 준하고, 4貫을 황금 1兩에 준하도록 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明史」 卷81 「食貨 5 錢鈔條」 참조.)
- 75) 이때 董賜는 千夫長, 百夫長 25명을 이끌고 來朝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68 洪武 17년 11월 壬申條.)
- 76) 指揮僉事: 從3品の 관직으로 京衛指揮使司가 관할하였다.
- 77) 滇: 운남성의 약칭이다. 顏師古는 "그 지역에 滇池가 있는 까닭에, 이를 따라서 이름붙인 것이다. 滇의 음은 顛이다(地有滇池, 因爲名也. 音顛)"이라 했다. 滇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동북아역사자료총서 21 「史記」 「西南夷列傳」 譯註 주5) 참조.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부자는 [명 조정으로부터] 받은 관직을 돌려주고 스스로 안녕 지주를 맡겠다고 청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르기를, “그대는 능히 변경을 편안하게 하였으니 그대에게 관직을 수여하여 그대의 공훈(功勳)에 보답하려는 것이다. 지금 존귀한 지위를 사양하고 비천한 위치에 머물러 하는데, [이는] 어찌서인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영국공(頤國公) 부우덕(傅友德)⁷⁸⁾과 여러 대신들에게 이를 논의하도록 했다. [대신들은] 모두 동사가 공격이 있는 만큼 [그가 관직을] 사양하는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되지만, [그의 아들] 동철의 관직은 면직에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동사를 운남전위의 명위장군으로 바꾸어 임명하여 지휘 첨사를 세습하게 하게 하였는데, [황제가] 유지(諭旨)를 내려 이르기를, “운남전위는 안녕에 매우 가까이 있어 특별히 그대를 이 관직에 임명하노라. 그대로 하여금 먼 곳의 사람들을 안무하고 모으게 해서 변경을 편안케 하려는 것이다, 다시는 사양하지 말라”고 하였다.⁷⁹⁾

二十年，劍川土官楊奴叛。大理衛指揮鄺祥討之，斬八十餘人，楊奴遁。未幾，還劍川，復聚蠻爲亂，祥復以兵擊斬之。二十四年置鶴慶府。三十年改鶴慶府爲軍民府。永樂十五年，順州知州王義言：「爲被聖化三十餘年，聲教所屆，言語漸通，子弟亦有俊秀，請建學教育。」從之。

- 78) 傅友德(?~1394) : 宿州(지금의 安徽省 宿縣) 사람인데, 후에 碭山(지금의 安徽省 碭山縣)으로 이주했다. 원나라 말년 擧兵한 諸將을 따르다가 至正 21년(1361)에 朱元璋이 江州를 공격할 때, 무리를 이끌고 투항했다. 이후 鄱陽湖의 전투에서 奮戰하고, 廬州와 武昌을 점령하는데 공을 세워 雄武衛指揮使에 제수되었다. 이로부터 安徽, 湖北, 湖南, 江蘇 각지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徐州에서 元軍을 격파하고 江准行者參知政事에 임명되었다. 至正 27년(1367)에는 徐達를 따라 北征에 참여하고, 洪武 元年(1368)에 山東 각지를 취하고, 또 河南, 河北, 山西에서 멀리 陝西 및 甘肅에까지 진출하여 전투에 참여하였다. 洪武 3년(1370)에는 漢中을 공략하고, 이듬해에는 四川을 평정하는데 최고의 殊勳을 세웠으며, 洪武 5년(1372)에 副將軍 馮勝과 함께 西涼을 정벌하고 이어서 亦集乃路(지금의 內蒙古額濟納旗)를 공략하였다. 洪武 14년(1381)에 征南將軍에 임명되어 藍玉, 沐英과 함께 30만 대군을 이끌고 雲南 방면으로 원정을 나갔다. 이후에도 매년 南과 北으로 출동하였거니와 明의 天下統一 과정에서 크나큰 武功을 세워 嗣國公에 봉해지고 太子太師가 되었다. 그러나 洪武 27년(1394)에 황제의 기분을 상하게 해 죽임을 당하였다. 諡號는 武靖이다.
- 79) 董勝에게 雲南前衛를 제수하고, 그가 이 직을 사양하는 내용은 『太祖實錄』 卷170 洪武 18년 정월 壬辰條 참조.

[홍무] 20년(1387)에 김천(劍川) 토관 양노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리위(大理衛)⁸⁰⁾ 지휘(指揮)⁸¹⁾ 정상(鄭祥)이 이를 토벌하여 80여 명을 참수하였는데, 양노는 도망갔다. 오래지 않아 [양노는] 김천으로 돌아와 다시 만인(蠻人)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정상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여 그를 참하였다.⁸²⁾ [홍무] 24년(1391)에 학경위를 설치하였다. [홍무] 30년(1397)에 학경부를 군민부(軍民府)로 변경하였다.⁸³⁾ 영락(永樂) 15년(1419)에 순주(順州)⁸⁴⁾ 지주 왕의(王義)가 아뢰기를, “명조의 교화를 받은 지 30여 년이 되어 명성과 교화가 [이곳에] 이르렀기에 언어가 점차 소멸되었고, 자제(子弟)들 중에도 우수한 자들이 있으나 학교를 세워⁸⁵⁾ 교육을 하기를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⁸⁶⁾

- 80) 大理는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이며, 원나라 至元 7년(1270)에 路를 설치했고, 明 洪武 15년(1382)에 府로 바꾸었는데, 지금의 雲南省 大理·祥雲·賓川·洱源·雲龍 등 여러 縣을 관할했다. 大理衛는 大理府의 治所 남쪽에 있는데, 洪武 17년(1387)에 설치하였다(『讀史方輿紀要』 卷117 『雲南』 5 참조).
- 81) 指揮: 官名으로 唐代에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衛所를 책임지는 守備隊長을 지칭한다. 明代에는 江 衛, 京 衛, 王府護衛 및 소수민족 지역에 모두 설치하였다. 指揮는 正三品의 각 衛 장관으로 衛의 업무를 관리하였다. 청대 順治 원년(1644)에 명제의 제도를 이어받아 지휘사를 설치했다가, 順治 2년(1645)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甘肅과 雲南 등 주에서는 土官 가운데 지휘사를 임명하여 土兵의 일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방의 군정장관인 都指揮使 밑에 都指揮同知 2명(從二品)과 都指揮僉事 4명(正三品)이 보좌하는데, 이들과 함께 衛務를 담당했다.
- 82)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86 洪武 20년 10월 壬子條 참조.
- 83) 이 조치는 西平侯 沐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54 洪武 30년 11월 乙亥條 참조).
- 84) 順州: 蠻나라에서는 이 지역을 牟婁이라고 불렀다. 원나라 때에 順州를 설치하였고, 명에서는 그것을 계승하였다. 명에서는 이 지역을 龍慶에 예속하였으나 곧 永北 土司가 그 지역을 관리하였다. 지금의 雲南 永北縣에서 서쪽으로 120리 떨어진 곳이다.
- 85) 명조가 각 소수민족 백성들을 통치하는 원칙은 두 가지였다. 변경에서는 방임정책을 펴 현지의 토사가 명 조정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그 威福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대대로 세습하게 하여 간섭을 하지 않았다. 반면 내지에서는 동화정책을 폈다. 流官을 보내 다스린다는지 도로와 역참을 개설한다는지 토사의 자제를 선발하여 國子監에서 공부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稅糧을 완납하게 하고 출정에 종군하게 하면서 점차적으로는 통치를 강화시켜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조정이 직접 流官을 파견하여 州縣을 통치하였다(吳晗, 2003: 231~232).
- 86) 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85 永樂 15년 2월 壬戌條 참조; 洪武年間부터 正統年間까지 운남 지역에 학교를 설립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楚雄·曲靖·蒙化·姚安·景東·元江 등 6개 府, 晉寧·昆陽 등 9개 州, 太和 등 7개 縣이었다. 그 중에서 洪武年間에 설립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弘熙 연간과 宣德 연간에는 설립된 예가 없다. 景泰 연간부터 嘉靖 연간까지의 상황을 보면, 嘉靖 연간에 학교 설립이 가장 많았고, 景泰 연간과 天順연간에는 설립되지 않았다. 隆慶 연간부터 명 말까지는 武定·順寧 2개

正統二年，副使徐訓奏鶴慶土知府高倫與弟純屢違恩惡，屠戮士庶，與母楊氏并叔宣互相賊害。敕黔國公沐昂諭使輸款，如恃強不服，即調軍擒捕。五年復敕昂等曰：「比聞土知府高倫妻劉氏同倫弟高昌等，糾集羅羅·麼些人衆，肆行兇暴，事發，不從逮訊。敕至，即委官至彼勸實，量調官軍擒捕首惡，并逮千戶王蕙及高宣等至京質問。」八年，鶴慶民楊仕潔妻阿夜珠告倫謀殺其子，復命法司移文勸諭。已而大理衛千戶奏報，倫擅率軍馬欲謀害親母，又稱其母告倫不孝及私殺民財，多造兵器，殺戮軍民，支解衆命等罪。遂敕黔國公沐晟等勸覆，及奏至，言倫所犯皆實，罪應死。倫復屢訴，因與叔宣爭鬪，又與千戶王蕙爭娶妾，以致挾仇誣陷。所勸殺死，皆病死及強盜拒捕之人。倫母楊亦訴倫無不孝，實由宣等陷害。再勸晟及御史嚴恭確訪。既而奏當倫等皆伏誅。高氏族人無可繼者，帝命於流官中擇人，以綏遠蠻，乃擢瀘州知府林道節爲知府。鶴慶之改流官自此始。

정통(正統)⁸⁷⁾ 2년(1437)에 부사(副使) 서훈(徐訓)이 상주하기를, 학경 토지부(土知府) 고륜(高倫)이 동생 고순(高純)과 여러 차례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관리와 백성을 도둑하였으며, 모친 양씨 및 숙부 고선(高宣)과 더불어 서로 해를 입혔다고 하였다.⁸⁸⁾ [이에 황제가] 검국공(黔國公) 목양(沐昂)⁸⁹⁾에게 칙사(勅書)⁹⁰⁾를 내려 그들을 효유하여 귀순하도록 하고, 만약 세력이 강함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군대를 파견하여 체포하게 하였다. [정통] 5년

府에 학교가 설립되었고, 建水 등 6개 州, 富民 등 6개 縣에 학교를 세웠다(陳慶江, 2002: 243~244). 87) 正統: 明 황조 6대 황제인 英宗 朱祁鎮의 年號이다. 英宗은 중국 황제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례 즉위했는데, 그 첫 번째 시기의 연호가 正統(1435~1449)이며, 두 번째 시기의 연호는 天順(1457~1464)이다. 88)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28 正統 2년 3월 乙未條 참조. 89) 沐昂(1379~1445): 沐昂의 셋째 아들로 字는 景高이다. 永樂 연간(1402~1424)에 그의 형인 黔國公 沐晟이 군대를 이끌고 운남에 진수하였는데, 영락제가 沐昂을 발탁하여 都指揮同知로 삼아서 군대를 훈련하도록 지시했다. 탁월한 전공을 세워 얼마 후에 右都督으로 승진하였다. 正統 4년(1439)에 서남 지역 소수민족 우두머리인 思任이 반란을 일으키자 沐昂은 沐晟을 따라 출정하였다. 그녀는 중에 沐晟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자 沐昂이 그를 대신하여 운남을 진수하였다. 正統 10년(1445)에 沐昂은 운남에서 사망하였는데, 定遠伯으로 책봉되었고, 시호는 武襄이었다. 90) 敕書: 황제가 朝臣들에게 내리는 詔書의 일종이다. 칙사의 시작은 南北朝 시대에 황제가 관리들에게 詔書를 내린 것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敕'은 漢代에서 唐代에 이르기까지는 詔사나 詔가 아랫사람이나 幕僚에게 주는 告誡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1440)에 다시 목양 등에게 칙사를 내려 이르기를, “근래에 듣기로 토지부 고륜의 처 우씨자 고륜의 동생인 고창(高昌) 등과 함께 나라(羅羅)⁹¹⁾·마사(麼些)⁹²⁾ 사람들을 규합하여 함부로 흉폭한 일을 저지른다고 한다. [이렇게] 상황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체포하여 심문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칙사가 도달하면 바로 위관(委官)⁹³⁾을 그곳에 보내서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상황을] 헤아려서 관군을 보내 악당의 우두머리를 체포하게 하며, 아울러 천호(千戶)⁹⁴⁾ 왕혜(王蕙)와 고선 등을 체포하여 경사(京師)⁹⁵⁾에 압송하여 꾸짖어 풀으라”고 하였다.⁹⁶⁾ [정통] 8년(1443)에, 학경 사람 양사결(楊仕潔)의 처 아야주(阿夜珠)가 고륜이 [그녀의] 아들을 살해하려 한다고 고발하여서, 다시 사범 관련 부서에 문서를 보내 조사하여 알아보게 하였다. 얼마 후에 대리위 천호가 보고하기를, 고륜이 제멋대로 군마(軍馬)를 이끌고 친모(親母)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또한 그 모친이 고륜을 불효하고, 민간의 재산을 사사로이 거둬들이어 대부분 무기를 만들어서 군민(軍民)을 살해하고, 사지(四肢)를 찢어 표시(표시)

91) 羅羅: 羅羅는 바로 烏蠻이다. 이들은 현재 彝族의 先民이다. 彝族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대에 와서 생긴 명칭이다. 元代에는 烏蠻의 여러 부족들이 대부분 각자의 部名을 가지고 있었는데, 羅羅는 그들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南詔에서는 烏蠻 7개 부족 중에 鹿蠻이라고 부르던 이들이 있었는데, 羅羅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몽골인들은 이 명칭 끝에 복수형 의미하는 철자(-s)를 붙였는데, 漢譯을 하는 과정에서 羅羅斯로 표기되었고, 지금의 四川省 凉山 自治州와 서남 지역에 거주하는 羅羅 사람들만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元代에는 이 지역에 宣慰司를 설치하였고, 羅羅斯宣慰司를 설치하였다. 烏蒙·烏撒 지역도 羅羅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92) 麼些: 納西族의 다른 이름이다. 중국 남방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고대 羌族의 한 갈래이다. 모계 중심의 부족으로 一妻多夫制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唐代의 여러 기록에는 麼些, 元代에는 대부분 末些, 摩摩, 麼些라고 기록되어 있다. 納西族이라는 이름은 1954년부터 사용되었다. 元代와 明代에 운남의 麗江 지역에 沃土土司 세력이 일어났 때, 이를 納西族도 활발하게 활동하여 현재 四川省 지역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현재 중국 雲南省 麗江市 古城区·玉龍 納西族 自治縣·維西·香格里拉·寧蒗縣과 四川省 鹽源縣·木里縣, 西藏 自治區 芒康縣 鹽井鎮 등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는 티베트·미얀마語族에 속하며, 인접한 彝語에 가깝다. 농업이 생업이지만, 산지에서는 양 등의 목축도 중요시하고 있다. 종교는 주로 사마니즘으로서 주술사가 의식을 집행한다. 독특한 상징문자와 많은 경전이 있다.

93) 委官: 관리가 일정한 다른 사무를 처리하거나 신실 관청의 사무를 상관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이를 칭하는 용어이다(박원호, 2008: 214).

94) 千戶: 明代 각 지역에 주둔하는 衛所制下 世襲制인 千戶所의 長으로서 軍戶 1,120명을 통솔했다.

95) 京師: 수도를 의미하며, 이때의 수도는 北京이었다. 明朝는 처음에는 南京을 수도로 정하였으나 永樂 元年(1403)에 북경을 順天府라 하고, 永樂 19년(1421)에 이곳으로 遷都하였으며, 이후로 중국의 수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96)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64 正統 5년 2월 庚辰條 참조.

하는 등의 죄로 고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마침내 검국공 목성(沐晟)⁹⁷⁾ 등에게 칙서를 내려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목성이 올린] 상주가 이르렀는데, 고륜의 범죄는 모두 사실이고 [그런] 죄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그런데] 고륜이 또 여러 차례 호소하기를, 숙부 고선과는 세습하는 것을 다루었고, 또 친호 왕혜와는 첩(妾)을 취하는 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을 품고 모함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사람들은 모두 병사(病死)하거나 강도의 체포에 저항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륜의 모친 양씨도 고륜이 불효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고선 등이 모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다시 목성과 어사(御史)⁹⁸⁾ 엄공(嚴恭)에게 칙서를 내려 확실하게 조사하게 하였다.⁹⁹⁾ 얼마 후에 상주하기를, 고륜 등은 모두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하였다. 고씨의 족인(族人) 중에 계승할 사람이 없자,¹⁰⁰⁾ 황제는 유관(流官)¹⁰¹⁾ 중 사람을 선발하여 변방 먼 곳의 만인(蠻人)들을 안무하도록 하였다. 이에 노주(瀘州)¹⁰²⁾ 지부 임주절(林遵節)을 발탁하여 지부로 삼았다. 학경에서 [토관에서] 유관으로 바뀐 것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동북아역사재단

- 97) 沐晟(?~1439) : 南京 鳳陽府 定遠縣 사람이다. 昭靖王 沐英의 아들로, 洪武 연간(1368~1398)에 後軍都督 僉事에 임명되었다. 부친인 목영이 죽자, 목성이 西平侯 작위를 세습하고 雲南에 진수하였다. 永樂 4년(1406)에 征夷副將軍의 印을 패용하고 雲南·四川의 군사를 통솔하여 운남을 도벌하였다. 이 공적으로 승진하여 黔國公에 봉해졌고, 雲南에 진수하였다. 永樂 연간 말에 高州의 叛寇를 항복시킨 공으로 大傅의 직함이 더해졌다. 正統 3년(1438)에 麓川의 思任發이 반란을 일으키자 토벌에 나섰으나, 이듬해 돌아오던 중에 병에 걸려 楚雄峨驛에서 죽었다. 定遠王에 追封되었고, 諡號는 忠獻이다.
- 98) 御史: 周代에는 立法을 公布하는 官을 일컬었고, 秦漢 시대에는 御史大夫의 屬官으로 上奏事務와 百官을 監察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그 官銜을 御史府라 했다. 漢 後 代에 御史府를 御史臺로 개칭하였고, 이때 부처 御史는 監察官으로서 전문직이 되었다. 明代에 이르러 御史臺는 都察院으로 바뀌고, 그 장관을 都御史(正二品)라 칭했는데, 그 밑에 左·右副都御史(正三品), 左·右僉都御史(正四品)가 있고, 十三道監察御史(正七品)의 경우는 浙江·江西·河南·山東에 각 10명, 福建·廣東·廣西·四川·貴州에 각 7명, 陝西·湖廣·山西에 각 8명, 雲南에 10명이 두어졌다(조영록, 1988: 8 참조).
- 99) 『英宗實錄』에는 楊仕傑이 楊仕杰로 표기되어 있다(이하 관련 내용은 『英宗實錄』 卷80 正統 6년 6월 乙亥條 참조).
- 100) 土司의 세습에 대한 규정은 『明史』 卷72 『職官志』6 참조.
- 101) 流官: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관직으로 명대에는 8등이 있었는데, 左右都督·都督同知·都督僉事·都指揮使·都指揮同知·都指揮僉事·正留守·副留守였다(『明史』 卷72 『職官志』1 참조).
- 102) 瀘州: 현재 중국 四川省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長江과 沱江이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白酒를 삼각주의 핵심 지역이다. 長江의 중요한 항구로, 현재 39개 민족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武定
무정

武定, 南詔三十七部之一. 宋淳熙間, 大理段氏以阿歷爲羅武部長. 三傳至矣格, 當元世祖時, 爲北部土官總管. 至元七年改武定路, 置南甸縣.

무정(武定)¹⁰³⁾은 남조의 37부(部)¹⁰⁴⁾ 중 하나다.¹⁰⁵⁾ 송나라의 순희(淳熙)¹⁰⁶⁾ 연간(1174~1189)에 대리(大理)¹⁰⁷⁾ 단씨(段氏)가 아력(阿歷)을 나무부장(羅武部長)으로 삼았다. 삼대(三代)를 계승하여 의격(矣格)에 이르렀고, [이때는] 원나라 세조(世祖)¹⁰⁸⁾ 시기에 해당하는데

- 103) 武定: 현재 雲南省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鶴岡縣, 남쪽으로는 富民縣, 서쪽으로는 元謀縣에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金沙江을 사이에 두고 四川省의 會理縣과 마주보고 있다. 天寶 연간(741~756) 이후에 南詔에 속하게 되었다.
- 104) 南詔의 三十七部 중에는 自鹿部(楚雄)·羅部(羅次)·羅整部(武定)·普竹部(元謀)·捨弩部(牟定)·易賈部(廣通)·摩勒部(雙柏) 등 彝族이 주체가 되어 세운 소수민족 정권들이 있다.
- 105) 南詔에서는 이 지역에 羅整部를 설치하였다(郭隆, 1988: 106).
- 106) 淳熙: 南宋 孝宗이 사용한 세 번째 年號이다. 孝宗이 즉위해서 바로 사용한 연호는 隆興(1163~1164)이었고, 그 후에는 乾道(1165~1173)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淳熙(1174~1189)로 바꾸었다. 효종의 치세는 남송 황제 중에서 가장 성세였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의 치세를 乾道의 '乾', 淳熙의 '熙'를 따서 '乾淳之治'라고 칭한다.
- 107) 여기에서 大理는 大理國을 의미한다. 大理國은 중국 송나라 때 雲南 지역에 존속한 왕국으로, 938년에 段思平이 南詔(649~902)를 계승하여 세웠으며, 300여 년간 존속하다가 1253년 몽골제국 쿠빌라이(忽必烈, Kubilai)칸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段思平은 백蠻이라고 불리는 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大理國은 南詔의 정치체계와 행정조직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그 영역은 북쪽으로는 四川省 서부,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 서쪽으로는 인도와 미얀마, 동쪽으로는 貴州省과 廣西省의 일부까지 미쳤다. 대리국에서는 佛敎가 융성하였다.
- 108) 世祖: 몽골 제국의 제5대 칸이자 元朝의 始祖인 쿠빌라이칸의 廟號이다.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불우이의 셋째 아들이기도 하다. 1251년 형 몽케가 제4대 칸의 자리에 오르자, 그는 漠南의 漢地의 사무를 총괄하는 大總督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漢族 慕容忠·備士, 예를 들면 劉秉忠, 許衡, 姚衡 등을 대거 요직에 기용하였다. 1253년에는 고비사막 남쪽의 金蓮川을 근거지로 삼고 오늘날 雲南 지역에 있던 大理國을 멸망시켰으며, 티베트와 베트남까지 공격하였다. 1256년에 南宋이 蒙古의 使者를 억류시켜, 이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몽케가 南宋에 대한 선전포고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1258년 가을 大軍을 이끌고 四川 북부를 공격하던 몽케가 1259년에 병영에서 병사하고 말았다. 이에 쿠빌라이는

북부 토관의 총관이 되었다. 지원 7년(1270)에 무정로(武定路)로 변경하였고, 남진현(南甸縣)¹⁰⁹⁾을 설치하였다.

洪武十四年，雲南下，武定女土官商勝首先歸附。十五年改爲武定軍民府，以勝署府事。十六年，勝遣人來朝，貢馬，詔賜勝詔命·朝服及錦幣·鈔錠。十七年以和曲土官豆派爲知州。二十一年發內帑，命於武定·德昌·會川諸處，市馬三千匹。宣德元年，元謀縣故土知縣吾忠子政來朝。

홍무 14년(1381)에, 윤남이 점령되자 무정의 여토관(女土官) 상승(商勝)¹¹⁰⁾이 가장 먼저 귀부하였다.¹¹¹⁾ [홍무] 15년(1382)에, 무정군민부(武定軍民府)로 바꾸고서 상승에게 부(府)의 일을 대리하게 하였다.¹¹²⁾ [홍무] 16년(1383)에, 상승이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말을 바쳤다.¹¹³⁾ [이에 황제가] 상승에게 조서를 내려 고명(誥命)¹¹⁴⁾·조복(朝服)¹¹⁵⁾·금폐(錦幣)·초

1260년에 國都 카라코룸을 지키고 있던 막내 동생 아릭 부케보다 먼저 중국의 開平府(上都)에서 대칸(大汗)의 자리에 올랐다. 그 뒤로 양자가 싸우기를 4년, 마침내 아릭 부케를 끝까지 쿠빌라이는 도움을 大都(오늘날의 北京)로 옮기고, 1271년에 국호를 大元이라 칭하였다. 이후 1276년에 臨安(지금의 杭州)을 함락시켜 南宋을 멸망시키고, 1279년까지 南宋 잔여 세력을 진압함으로써 이민족 정권으로서의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至元 31년(1294) 쿠빌라이는 재위 35년, 향년 80세로 생애를 마감했다.

- 109) 南甸縣: 지금의 雲南省 武定縣 동쪽 지역이다. 이 지역 거주민들은 이곳을 漢甸이나 漢陽이라고 불렀다. 至元 26년(1289)에 縣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明 嘉靖 말년에 土酋 鳳繼繼가 반란을 일으키자 현을 없였는데, 隆慶 3년(1569)에 반란을 평정하고 府를 세웠으며, 治所를 鶴山の 기슭에 두었다.
- 110) 商勝은 大理國 阿歷의 후손인 弄稷의 妻이다. 『讀史方輿記要』 卷116 「雲南」 4 참조.
- 111) 洪武 14년 명의 군대가 雲南에 들어갔을 때 烏撒芒部烏蒙 등은 명 조정의 詔諭를 무시하였다. 그러나 商勝은 元帥에서 받았던 金牌印信을 보내고 또한 식량 1천 석을 준비하여 金馬山으로 가서 명의 군대에 게 주었다(沈乾芳, 2009: 87).
- 112) 商勝에게 府의 일을 맡긴 내용은 『太祖實錄』 卷141 洪武 15년 정월 庚戌條 참조; 武定府의 土知府는 商勝 이후로 海植(商勝의 子), 商智, 薩本(女), 鳳英, 鳳朝明, 鳳詔, 翟氏(鳳詔의 모친), 索林(鳳詔의 妻) 등이었다(余貽澤, 1968: 96). 商勝은 병들어 府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子인 海植에게 세습할 수 있기를 요청하였고, 명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였다(관련 내용은 『太祖實錄』 卷168 洪武 26년 정월 甲子條 참조).
- 113)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68 洪武 17년 11월 癸酉條 참조.

정(鈔錠)을 내려 주었다.¹¹⁶⁾ [홍무] 17년(1384)에 화곡(和曲)¹¹⁷⁾ 토관 두파(豆派)를 지주로 삼았다. [홍무] 21년(1388)에, 내랑금을 내어서 무정·덕창(德昌)¹¹⁸⁾·회천(會川)¹¹⁹⁾ 등지에서 말 3천 필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선덕(宣德) 원년(1426)에 원모현(元謀縣)¹²⁰⁾의 옛 토지현 오충(吾忠)의 아들인 오정(吾政)이 내조하였다.¹²¹⁾

正德二年四月，武定雨雹，溪水漲，決堤環田，隕霜霧殺麥。七月廢武定所屬之南甸縣改隸和曲州，石舊縣改隸勸州。三年，土知府鳳英以從征功，進秩右參政，仍知府事，請賜金帶，部議不可。帝以英有軍功，給之。明年，英貢馬謝恩，賜如例。

- 114) 誥命: 誥勅 혹은 誥라고도 한다. 황제가 관원을 임명하거나 追贈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를 통칭한다. 여기서서는 왕으로 임명한다는 사령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明代에 公·侯·伯을 追封할 경우 모두 1등급을 번갈아 승진시키는데, 三品 이상으로 정치의 업적이 대단히 뛰어나거나 死諫·死節·廉亡 조에게는 모두 階官하였다. 現任으로서 처음으로 散階를 除授받거나, 京官으로 一考(3년간의 평가)가 끝난 자 및 外官으로 一考가 끝난 자 중에서 으뜸인 자는 모두 본인에게 誥敕을 지급하였다. 7품 이상은 모두 그 선조를 推恩할 수 있었다. 五品 이상은 誥命은, 六品 이하는 敕命을 제수하였다. 살아있는 자에게 줄 때는 封이라 하고, 죽은 자에게 줄 때는 贈이라 한다.
- 115) 朝服: 고대 조정에서 朝會 때 입는 禮服으로, 웅장한 의례를 거행할 때도 입었다.
- 116) 明代 土司들의 조공과 명 조정의 回賜에는 규정이 있었는데, 조공은 3년에 한 번씩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回賜는 官品에 따라 달랐는데, 三品·四品에게는 鈔一百錠, 彩段三表里를, 五品에게는 鈔八十錠, 彩段三表里, 六品과 七品에게는 鈔六十錠, 彩段二表里, 八品과 九品에게는 鈔五十錠, 彩段一表里, 雜職衙門의 頭目에게는 말 4필과 방물을 바치던 鈔四錠, 彩段三表里를 주었다. 『明會典』 卷133 「禮部71, 給賜4」 참조(馮海峽, 2011: 30에서 재인용).
- 117) 和曲: 지금의 雲南省 大理市에 속한 지역이다.
- 118) 德昌: 지금의 四川省 涼山の 彝族自治州에 속한 지역이다.
- 119) 會川: 唐代에는 四川省 會理 서쪽에 會川縣을 두었는데, 天寶 연간(742~756) 말에 南詔가 장악하고 都督府를 설치하였다. 大理國에서도 府를 두었고, 元代에는 路를, 明代에는 衛를 설치하였으나 淸에서는 폐지하였다.
- 120) 元謀縣: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서북부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金沙江과 가까우며, 楚雄彝族自治州에 속하는 지역이다. '元謀'는 타이에게 언어와 관련된 것으로, '元'은 '비약', '묘'의 의미이고, '謀'는 말을 의미하여, '元謀'는 준마라는 뜻이다.
- 121) 『宣宗實錄』 卷15 宣德 원년 3월 庚子條 참조하면, 이때 烏思藏의 番僧 着什, 哈密衛의 頭目 哈刺苦出, 河州衛의 頭目 兀魯思도 함께 내조하였다: 元謀縣의 土知縣은 吾忠, 吾政, 吾宗, 吾起, 吾必塗 등이었다(余貽澤, 1968: 96~97).

정덕(正德)¹²² 2년(1507) 4월에, 무정에 우박이 내리고 시냇물이 넘쳐 제방을 무너뜨리고 경작지를 파괴하였으며, 서리와 이슬이 내려 보리가 죽었다. [정덕 2년] 7월에는 무정 소속의 남천현을 폐하고 바꾸어 화곡주에 예속시켰으며,¹²³ 석구현(石舊縣)¹²⁴을 녹민주(祿勳州)¹²⁵에 바꾸어 예속시켰다.¹²⁶ [정덕] 3년(1508)에, 토주부(土知府) 봉영(鳳英)¹²⁷이 정벌에 참여하여 공로가 있어서 관직을 우참정(右參政)으로 승진시켜 계속해서 지부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금대(金帶)¹²⁸를 내려 줄 것을 청하였지만 예부는 허락할 수 없다고 의논해 결정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봉영이 공군이 있음으로 그에게 [금대를] 내려 주었다.¹²⁹ 이듬해(1509)에 봉영이 말을 바쳐 사은(謝恩)하였고, [이에 명 조정에서는] 규정에 따라 하사하였다.¹³⁰

嘉靖七年，土舍鳳朝作亂，殺同知以下官吏，劫州印，擧兵與尋甸賊安銓合犯雲南府，撫臣以聞。時安銓未平，朝文復起，滇中大擾。詔以右都御史伍文定爲兵部尚書，

122) 正德：명 왕조 11대 황제인 武宗 朱厚照의 年號이다.

123)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는 正德 원년(1506)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124) 石舊縣：元代에 설치하였고, 지금의 雲南省 祿勳縣 동쪽에 治所가 있었다. 『元史』 『地理志』에는 石舊縣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掌場·法塊·抹捺·曲蔽 4개의 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 중에 掌場甸의 변화된 이름이 石舊였다. 至元 26년(1289)에 縣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125) 祿勳州：지금의 雲南省 祿勳·彝族自治州 祿勳 지역이다. 元나라 至元 26년(1289)에 설치하였으나 乾隆 35년(1770)에 祿勳縣으로 변경하였다.

126) 『武宗實錄』에는 正德 원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武宗實錄』 卷15 正德 원년 7월 庚子條 참조).

127) 鳳英의 원래 이름은 阿美이었는데, 弘治 3년(1490)에 입조하였을 때, 황제가 鳳이라는 姓을 하사하였다(『隄錄』 1988: 109).

128) 金帶：명대에는 품계나 지위에 따라 허리띠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朝會 시 복장은 公服을 착용하였으며, 腰帶로 一品은 紫玉帶, 二品은 紫犀帶, 三品·四品은 紫金帶, 五品은 紫角帶, 六品·七品은 緋角帶, 八品·九品은 緋角帶를 착용했다(『明集禮』 卷39 『冠服』 참조).

129) 이와 관련된 내용은 『武宗實錄』 卷16 正德 원년 8월 壬子條; 『武宗實錄』 卷26 正德 2년 5월 甲辰條 참조. 『武宗實錄』에서는 金帶를 내려 준 일을 正德 2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이때 명 조정에서는 鳳英을 雲南布政司右參政으로 승진시키고 계속해서 知府의 일을 맡긴 것은 福佑米魯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130) 鳳英은 右參政 직함을 제수받고는 把事 등을 보내 말을 바쳐 謝恩하였고, 이에 명 조정에서는 규정에 따라 하사품을 내려주었다(『武宗實錄』 卷46 正德 4년 정월 甲寅條 참조).

提督雲·貴·川·湖軍務，調四鎮土漢官軍討賊。五月，黔國公沐紹勳疏言：「臣奉命會同巡撫等調發官軍，分道剿撫。諸賊抗逆，執留所遣官軍二人，所調集各土舍，又重自疑畏。臣謹以便宜榜示，先給冠帶，待後奏請承襲，衆始悉奮。於二月進兵，擊斬強賊十餘人，賊奔回武定。乞敕部授臣方略，俾獲便宜行事，并省各土舍定罪，凡有功者，俱許承襲，作其敵愾之氣。」帝納之，賜敕獎勵。賊既敗歸，其黨稍散。初，朝文給其衆，謂武定知府鳳詔母子已戮，朝廷且盡剿武定蠻衆。至是，鳳詔同其母率衆自會城往，蠻民相顧錯愕，咸投鳳詔降。朝文計無所出，絕善渡而走，官兵追及，復敗之。朝文率家奴數人，取道霑益州，奔至東川之湯郎箐，爲追兵所及，磔死。銓衆猶盛，遁據尋甸故巢，列寨數十。官兵分哨夾攻之，諸寨先後破，乃併力攻拔其必古老巢。銓奔東川，入芒部，爲土舍祿慶所執，賊平。是役也，生擒渠賊千餘人，斬首二千九百餘級，俘獲男婦二千二百餘，撫散蠻黨二萬有奇，奪器械牛馬無算。捷聞，銓·朝文皆蒙賞，籍其產，家屬戍邊。

가정(嘉靖) 7년(1528)에 토사(土舍)¹³¹ 봉조문(鳳朝文)이 반란을 일으켰다. 동지 이하의 관리를 살해하였고 주(州)의 관인(官印)을 강탈하였으며, 군대를 일으켜 심전(尋甸)¹³²의 도적 안진(安銓)¹³³과 회합하여 운남부(雲南府)¹³⁴를 침범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순무가 보고하였다. 당시에 안진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는데 봉조문이 다시 병사를 일으켜서 운남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이에 황제는] 조서를 내려 우도어사(右都御史)¹³⁵ 오문정(伍文定)¹³⁶을

131) 土舍：土司의 屬官이다. 그의 權力은 土司의 속관인 一般 大頭人과 같으나 그 地位는 大頭人보다 높다. 土舍는 土司의 親屬으로 土司의 職을 이을 자가 없을 경우에 그 秩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132) 尋甸：尋甸府를 일컫는데, 원나라 때에 仁德直隸府로 삼았다. 洪武 15년(1382)에는 布政司에게 예속시켰다. 이듬해(1383)에 仁德軍民府로 고쳤다가 다시 尋甸軍民府로 변경하였으며, 成化 12년(1476)에 다시 尋甸府로 고쳤다.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북부 지역에 위치하였고, 爲美縣과 歸厚縣을 관할했다.

133) 安銓：尋甸의 彝族 大土司이다.

134) 雲南府：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南部 및 玉溪市 易門縣 지역이다.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 의하면, 雲南府는 원나라 때에는 中慶路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雲南府로 바꾸었고, 4개의 州와 9개의 縣을 管領하였다(『太祖實錄』 卷142 洪武 15년 2월 乙卯條 참조).

135) 都御史：御史의 일종으로 감찰기구인 都察院의 책임자가 바로 도어사이다. 도어사는 관원들의 감찰을 담당하였다. 洪武 14년(1372)에 御史臺를 고쳐서 도찰원이라 하고 이듬해에 左右都御史, 左右副都御史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삼아 운남·귀주(貴州)¹³⁷⁾·사천(四川)¹³⁸⁾·호광(湖廣)¹³⁹⁾의 군사업무를 감독하고 통솔하게 하였으며, 4개 진(鎭)¹⁴⁰⁾의 토병(土兵)과 한병(漢兵)을 징발하여 적들을

들을 설치하였다.

- 136) 伍文定(1470~1530): 字는 時泰, 號는 松月이며, 湖廣 松滋縣 사람이다. 弘治 11년(1498)에 進士로 官界에 진출하였는데, 관직이 兵部尙書까지 이르렀다. 처음에는 常州推官에 제수되었는데, 판결을 잘 하였으며, 魏國公 徐佃이 백성과 토지를 다투었을 때 그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할 정도로 강직하였다. 劉瑾이 徐佃의 뇌물을 받아 大獄을 일으켰는데, 伍文定도 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아 평민이 되었다. 결국 劉瑾이 체포되면서 실각하자 伍文定이 다시 기용되었다. 이후 江西 姚濂 王浩八 등의 반란을 평정하여 河南府知府로 승진하였고, 張勇·李文簡의 반란도 진압하여 이 공로로 吉安府知府가 되었다. 이후로도 永豐과 大茅山의 반란도 평정하였고, 巡撫 王守仁을 보좌하여 桶岡·橫水를 평정하였다. 寧王 朱宸濠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吉安府의 관원들이 서로 도망하였지만 伍文定이 본분기로 한 사람을 죽여 군중들을 안정시킨 후, 입성하는 王守仁을 영접하여 적에게 대항하였다. 반란을 평정한 후에 그 공로로 江西按察使로 승진하였다. 中官 張忠·許崇가 南昌에 이르러 그의 공로를 가로채려 하였지만, 王守仁이 이미 사로잡은 朱宸濠를 浙江으로 보냈다. 張忠이 伍文定을 체포하였으나 그는 탈월한 공로로 廣東右布政使가 되었다. 이때 이미 嘉靖帝가 즉위하였는데, 伍文定이 張忠·許崇을 탄핵하였으며, 이후 논공행상으로 右副都御史로 승진하였다. 嘉靖 3년(1524)에 海賊 董叢을 토벌하고는 사직을 청하였으나 嘉靖 6년(1527)에 兵部右侍郎이 되었고, 같은 해 右都御史가 되어 都察院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듬해 兵部尙書가 되어 雲南·四川·貴州·湖廣의 군대를督率하여 雲南 土酋 安鈞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그러나 嘉靖 9년(1530)에 사망하였으며, 天啓 연간(1620~1627) 초에 忠襄이라는 시호를 받았다(『明史』 卷200『伍文定傳』 참조).
- 137) 貴州: 「馬貢」의 荊·梁 二州의 徼外 지역이다. 元代에는 湖廣·四川·雲南 三行中書省의 지역으로, 洪武 15년(1382)에 貴州都指揮使司를 두고서 貴州宣慰司를 治所로 삼았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等處承宣布政使司를 두었고, 府 8·州 1·縣 1·宣慰司 1·長官司 39곳을 관할하였다.
- 138) 四川: 「尚書」 「馬貢」의 荊·梁 二州의 지역이다. 元代에는 四川等處行中書省과 羅羅蒙慶等處宣慰司를 두었는데, 雲南行中書省에 속하였다. 洪武 4년(1371)에 明夏 정권의 명부를 평정하고, 다음 달에 四川等處行中書省을 설치하였다. 招討司 1·宣慰司 2·安撫司 5·長官司 22곳 및 諸衛所를 관할하였다.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고, 府 13·直隸州 6·宣撫司 1·安撫司 1·屬州 15·縣 111·長官司 16곳을 관할하였다.
- 139) 湖廣: 「尚書」 「馬貢」의 荊·揚·梁 四州의 지역이다. 元代에 湖廣等處行中書省을 두었다. 太祖 甲辰年(1364)에 陳理를 평정하고 湖廣等處行中書省을 두었다.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고, 府 15·直隸州 2·屬州 17·縣 108·宣慰司 2·宣撫司 4·安撫司 5·長官司 21·蠻夷長官司 5곳을 관할하였다.
- 140) 鎭: 군사 방어의 거점을 말한다. 北魏 시기에 각 지역에 설치했으며,唐에서는 500명이 있는 곳을 上鎭, 300명이 있는 곳을 中鎭, 그 이하를 下鎭이라 했다. 이러한 의미 외에도 節度使가 있던 지역, 상업에 대한 課稅는 하되, 縣으로 편입되지 않은 市街 等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 을 토벌하게 하였다.¹⁴¹⁾ [가정 7년(1528)] 5월에 鏡谷공 목소훈(沐紹勛)¹⁴²⁾이 상소하기를, “신이 명을 받들어 순무 등과 회동해서 관군을 징발하여 길을 나누어 토벌하고 안무하였습니다. 여러 적들은 저항하면서 파견한 관군 2명을 사로잡아 억류하였는데, [이에] 징발되어 모인 각 토사(土酋)들은 또한 엄중하게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신이 살가 마땅한 방안을 제시하여, 우선 관대(冠帶)를 주고 나중에 세습을 추천할 것을 가리다도록 하니, 무리들이 비로소 감동하여 분발하였습니다. 2월에 병사를 진격시켜 강적(強賊) 10여 명을 공격하여 참수하니, [마침내] 적들은 무정으로 도망하여 돌아갔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 칙서를 내려 신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아울러 각 토사(土酋)들의 이전 죄를 용서해 주시며, 공로가 있는 이는 모두 세습을 허락하시어 적에게 저항하는 사기를 높여주시길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¹⁴³⁾ [이에] 황제가 그것을 가납하고 칙서를 내려 표창하고 격려하였다. 적들이 이미 패하여 돌아간 후 그 무리들은 점차 흩어졌다. 당초에 봉조문이 그 무리를 기간하기를, 무정의 지부인 봉조(鳳詔)의 모자가 이미 살해되었고, 조정에서는 또한 무정의 만민들을 모두 섬멸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봉조가 그의 모친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직접 성(省)의 도성으로 가서, 만민(蠻民)들이 놀라 서로 돌아보고 모두 봉조에게 투항하였다. 봉조문은 [실행할 만민] 계획이 없어 보도(普渡)를 가로질러 도망쳤는데, 관병이 추격하여 다시 그를 포매시켰다. 봉조문은 가노(家奴) 몇 명을 이끌고 짐익주(霽益州)¹⁴⁴⁾를 경유하여 동천(東川)¹⁴⁵⁾의 탕랑정(湯郎亭)에 도망쳐 이르렀는데, 추격병에게
- 141) 伍文定의 군대가 雲南에 도착하였을 때 병란을 정리하는 국면이었다(陳慶江, 2002: 61); 출병에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86 嘉靖 7년 3월 癸巳條 참조.
- 142) 沐紹勛(?~1536): 沐昆의 아들로 安徽 定遠 사람이다. 부친이 죽자 黔國公의 작위를 이어 받아 正德 16년(1521)부터 嘉靖 15년(1536)까지 黔府를 지킨서 鳳岡文의 적당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死後 太師에 追贈되었고 諡號는 敬簡이다.
- 143) 實錄에서는 병사를 진격시킨 날짜를 2월 10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88 嘉靖 7년 5월 甲申條 참조.
- 144) 霽益州: 지금의 雲南省 동부, 南盤江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曲靖市에 속했던 縣이다. 원대에 霽益州가 설치되었고 1913년에 霽益縣으로 바꿨다. 珠江의 발원지다. 明代에 霽益州는 土官과 流官을 함께 두었는데 관할하는 지역이 같지는 않았다. 土司의 衙門은 元代의 옛 터에 있었는데 지금의 宣威市 榕梓鎮의 동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流官의 관서는 榕梓鎮에 있었다(陳慶江, 2002: 77). 霽益州의 土知州는 洪武年間부터 蘇阿哥, 阿周, 安素奴, 斗南, 安民, 安九鼎, 安素儂(女), 安素儂, 安遠, 設科(女), 安遠, 安其祿 등이었다(余貽澤, 1968: 90).
- 145) 東川: 현재 雲南省 昆明市가 관할하는 다섯 區所 중 하나이다. 秦代에는 靡莫部族에게 속한 지역이었고,

따라잡혀 책형(鐵刑)¹⁴⁶⁾에 처해져 죽었다. 안진의 무리들은 여전히 강성하였는데, 달아나 심전의 옛 소굴을 점거하고 산채 수십 곳을 세웠다. 관병들이 길을 나눠서 협공하여 모든 울타리가 차례로 파괴되었고, 곧바로 필고(必古)의 옛 소굴을 휩쓸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안진은 도망하여 동천에 이르러 망부(芒部)¹⁴⁷⁾에 들어갔는데, 토사(土舍) 녹경(綠慶)에게 사로잡혔으며, [이것으로] 적들을 평정되었다. 이 전쟁으로, 적의 수령 1천 여 명을 사로잡았고 2,900여 명을 참수하였으며 남녀 1,200명을 포로로 획득하였고, 안무하여 해산시킨 만인 무리가 2만여 명이었으며, 빼앗은 병장기와 우마(牛馬)는 셀 수 없었다. 승전을 보고하기를, 안진·봉조문은 모두 효시하였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하였으며, 가족들은 변방에 수자리로 보냈다고 하였다.¹⁴⁸⁾

十六年命土知府瞿氏掌印。初，府印自洪武以來俱掌於土官，正德間有司議以畀流官同知，土知府職專巡捕·微糧而已。及鳳詔死，瞿氏以母喪去官，所轄四十七馬頭阿台等，數請以印屬瞿氏。吏部覆言，係舊例，宜如其請，從之。

[가정] 16년(1537)에 토지부 구씨(瞿氏)에게 인장을 관장하게 하였다.¹⁴⁹⁾ 당초에 부인(府

漢代에는 建元 6년(전135)에 婁狼縣을 설치하였다. 唐代 중반에는 東川郡을 설치하여 현재의 巧家·會澤·東川·綠勸과 四川省의 會東縣·寧南縣 등을 관리하였고, 사천성에 속했으나 清代 雍正 4년(1726)에 改土歸流를 추진한 후 雲南으로 편제되었다.

146) 鐵刑: 죄인을 기둥에 묶고 창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147) 芒部: 路·野의 이름으로 '芒'은 '茫'으로도 표기한다. 元의 至元(1264~1294)에 路를 설치하였고 治所는 지금의 鐵雄의 북쪽에 두었으며, 관할 지역은 鐵雄·彝良威信縣이었다. 明初에 府로 바꾸었고, 嘉靖 연간(1521~1566) 초에 鐵雄府로 변경하였다.

148)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89 嘉靖 7년 6월 丁卯條 참조: 鳳朝文的 반란에 麗江의 木氏 토리가 공을 세웠다. 이후 武定의 鳳氏 토사는 그 딸을 木公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것은 木氏 토리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명 말에는 사회가 불안해지자 서남부의 유력한 토리들은 주변 지역과 백성들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확대해갔다. 이때에도 武定의 鳳氏는 麗江의 木氏와의 혼인을 하여 그들에게 의지하고 생존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였다(沈乾芳, 2009: 86~87).

149) 『大明會典』 卷121 「兵部」4 土夷襲替를 보면, 土官이 아들이 없으면 그 동생이 계승하게 하고, 土官에게 아들과 동생이 없으면 그 아내와 며느리가 이민족들이 믿고 따르면 자라면 계승하도록 허락한다는 규정이 있다. 본문 중에 등장하는 瞿氏와 索林이 여성으로 토관직을 계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印)은 홍무 연간(1368~1398) 이래로 모두 토관들이 관장하는데, 정덕 연간(1505~1521)에 담당 관원이 유관 등지에게 [그 관장 권한을] 주고, 토지부의 직책은 오로지 순포(巡捕)·징량(徵糧)만을 맡도록 하자고 논의하였다. 봉조의 죽음에 이르러 구씨는 모친의 자귀(子歸)로서 아들의 관직을 세습하고서, 사십칠마두아태(四十七馬頭阿台) 등을 관할하였으며, 여러 차례 인장을 구씨에게 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어부(吏部)에서 답변을 하기를, 이것은 옛 규정이어서 마땅히 그들의 요청처럼 해야 한다고 하니, [황제는] 이를 허락하였다.¹⁵⁰⁾

四十二年，瞿氏老，攀鳳詔妻索林自代。比索林喪，遂失事姑禮。瞿氏大恚，乃收異姓兒繼祖入鳳氏宗，挾其甥婿貴州水西土舍安國亨·四川建昌土官鳳氏兵力，欲廢索林，以繼祖嗣。不克，乃具疏自稱爲索林囚禁，令繼祖詣闕告之。繼祖歸，詐稱受朝命襲職，瞿目兵逼奪府印。索林抱印奔會城，撫按官諭解之。索林歸武定，視事如故，而復聽繼祖留瞿氏所。於是婦姑嫌隙益甚。索林謀誅繼祖，事洩，繼祖遂大發兵圍府，行勅和曲·緣勸等州縣，殺傷調至土官王心一等兵。索林復抱印走雲南，巡撫曹卞下令收印，逮其左右鄭璇繫獄，命瞿氏暫理府事；贊繼祖，責其自新。

[가정] 42년(1563)에, 구씨가 늙어서 봉조의 아내인 색림(索林)을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런데] 색림이 세습하기에 이르러서, 마침내 시어머니를 섬기는 예절을 잃었다. [이에] 구씨가 크게 화를 냈고, 바로 다른 성(姓)의 아들 계조(繼祖)¹⁵¹⁾를 받아들여 봉씨 종족에 들어오게 하였으며, 조카 사위인 귀주(貴州) 수서(水西)¹⁵²⁾ 토사(土舍) 안국형(安國亨)¹⁵³⁾·사천(四川) 건창(建昌) 토관 봉씨의 병력을 끼고서 색림을 폐하고 봉계조(鳳繼祖)에

있었다(沈乾芳, 2009: 86~87).

150)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169 嘉靖 16년 정월 庚子條 참조. 實錄에서는 四十七馬頭阿台를 四十七馬頭阿台로 표기하였다.

151) 鳳繼祖: 원래 이름은 阿倫으로 鳳朝文의 양자이다.

152) 水西: 貴州 彝族自治州 管轄한 지역임.

153) 安國亨(?~1597): 貴州 水西(지금의 大方 일대) 사람이며, 彝族의 토리로서 奢香夫人의 후예이다. 嘉靖 41년(1562)에 그의 작은 할아버지인 安萬鎰의 직위를 계승하여 貴州宣慰使가 되었다. 그는 安萬鎰의 장자 安信을 보좌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 안씨 세력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약 10년 동안 치열한 骨肉相爭을 전개하였다. 후에 신임 貴州巡撫 阮文忠과 御史 鄭國土가 대군을 동원하여 토벌하니, 安國亨이

게 계승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시도는] 달성될 수 없게 되자, 바로 상소문을 갖추어 스스로 섹림에게 구급되었다고 하였으며, 봉계조에게 이를 명 조정에 가서 알리게 하였다. 봉계조가 돌아와서, 관직을 세습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받았다고 사칭하고는 병졸 가운데 소두목으로 하여금 부인(府印)을 강제로 빼앗아 오게 하였다. [그러자] 섹림은 그 인장을 가지고 성(省)의 도성으로 도망하였는데, 순안관(撫按官)¹⁵⁴이 [그녀에게] 내놓으라고 혼내하였다. 섹림은 무장으로 돌아갔고, 직무를 처리하는 것은 이전과 같았는데, 다시 봉계조가 구씨의 거소에 머문다는 것을 듣고서 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섹림은 봉계조를 살해할 것을 모의하였으나 그 일이 누설되었고, 봉계조는 마침내 크게 군대를 일으켜서 부의 관청을 포위하였으며, 화곡·녹권(祿勳) 등의 주현을 약탈하였고, 징발되어 온 토관 왕심일(王心一) 등의 군사를 살상하였다. 섹림이 다시 인장을 가지고 운남으로 달아나자, 순무조변(曹忭)¹⁵⁵에게 인장을 거두도록 지시를 내렸고 [그들의] 측근 정평(鄭聲)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으며, 구씨에게 감시 부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봉계조를 관대하게 대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였다.¹⁵⁶

四十四年添設府通判一員，四十五年築武定新城成，巡撫呂光洵遣鄭瑜回府復業，鄭
 瑜者，前爲索林謀殺繼祖者也，繼祖執而殺之，糾衆攻新城，臨安通判胡文顯督百戶

투항하였다. 그러나 安國(安)은 정적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革職되었는데, 萬曆 9년(1581)에 復官되었다. 이로부터 그는 농업생산 발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간을 장려했으며, 민공한 자들에게 耕牛와 農具를 지급해주는 등의 善政을 펼쳤다. 그는 詩를 잘 짓고, 書畫 특히 楷書에 뛰어났다고 한다.

- 154) 撫按官: 명대 巡撫와 巡按을 합쳐서 불렀던 용어이다. 巡按을 처음 파견한 것은 唐 天寶 5년(746)의 일이며, 明 永樂 원년(1403)에 1省을 1道로 하여 각 道에 감찰아사를 파견하여 관리를 감찰했다. 清初에도 두었다가 順治 17년(1660)에 폐지했다. 반면 巡撫는 원래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지위가 아니었다. 尚書, 侍郎이나 都御史들 각 지역에 파견하여 군인들과 일반 백성들을 위무했으며, 임무가 끝나면 본래 지위로 돌아왔던 일종의 임시직이었다. 그런데 宣宗代에 이르러 각 省에 巡撫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상설제도로 정착하였다. 巡撫는 三司, 즉 承宣布政使司, 提刑按察使司, 都指揮司를 관할했으며, 지방 軍權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1457년에 英宗이 다시 황제위에 오른 뒤, 임시 폐지했지만 이듬해에 다시 설치했다. 巡撫가 省 단위에 배치되었던 것은 15세기 이후였다.
- 155) 曹忭: 생졸년 미상. 字는 子誠, 號는 紀山으로 湖廣 江陵 사람이다. 嘉靖 2년(1541)에 進士가 되었다. 翰林院 庶吉士와 雲南 巡撫를 역임하였다.
- 156)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권519 嘉靖 42년 3월 辛卯條 참조.

李鰲·土舍王德隆往援，至雞溪子隘，遇伏，鰲及德隆俱死，僉事張澤督尋向兵二千餘馳救，亦敗，澤及千戶劉裕被執，鎮巡官促諸道兵並進，逼繼祖東山寨，圍之。繼祖懼，攜澤及索林走昭姑，已，復殺澤。官軍追之急，由直勒渡過江，趨四川，依東川婦家阿科等，巡按劉思問以狀聞，敕雲南·四川會兵討賊。

[가정] 44년(1565)에 부통판(府通判)¹⁵⁷ 1명을 더 설치하였다. [가정] 45년(1566)에 무정의 새로운 성을 건축하여 완성하였고, 순무 여광순(呂光洵)¹⁵⁸이 정경을 부로 돌려보내 했던 일을 회복시켜 주었다. 정경은 전에 섹림을 위하여 봉계조를 살해하려던 자였다. [이에] 봉계조가 그를 사로잡아서 죽이고, 무리를 모아 새로운 성을 공격하였다. 임안(臨安) 통판(通判) 호문현(胡文顯)이 백호(百戶)¹⁵⁹ 이오(李鰲)·토사(土舍) 왕덕룡(王德隆)을 이끌고 구원하러

- 157) 通判: 府의 副職으로, 知府 밑에서 糧運·水利·屯田·牧馬·江海防務 등의 일을 분掌한 正6品の 관직이다.
- 158) 呂光洵(1508~1580): 字는 信剛, 號는 沃洲으로, 浙江 紹興 사람이다. 嘉靖 11년(1531)의 進士로 翰林院 庶吉士에 제수되었고 이어 福建省 崇安縣令이 되었다. 嘉靖 19년(1539)에 河南監察御史가 되어 遼防에 대한 일을 보고하였고, 陝西·甘肅을 巡按하였으며, 후에 蘇州·常州 등의 府도 巡按하였다. 특히 이 지역의 지세가 낮아서 수해가 심하였는데, 그는 현지 조사 후에 제방축조와 수로 준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倭寇의 침입으로 동남 해안이 소란스러워지자 그는 수군을 이끌고 이들을 소탕하였다. 嘉靖 29년(1549)에 알탄칸이 古北口를 침범하여 京師까지 이르렀을 때는, 하루에 열달아 13개 상소를 올려 화전이 아닌 전쟁의 철폐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후 光祿寺 少卿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부친상을 마친 후 太仆寺·大理寺少卿, 南京光祿寺卿, 應天府尹이 되었다. 당시에 江南에 대한 用兵이 있었는데 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南京兵部侍郎을 살해하는 상항까지 악화되었다. 이에 그는 副都御史에 임명되어 군량의 일을 잘 처리하여 군사들의 반란을 종식시켰다. 이로 인해 南京工部侍郎이 되었고, 이 직에 있으면서 漕溝橋 수리를 감독하였는데 준공되기도 전에 正二品の 녹봉을 더 받았다. 嘉靖 42년(1562)에 雲南의 李向陽·王應朝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는 右都御史에 제수되어 운남을 巡撫하였고,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兵部尚書가 되었다. 武定府 土官 鳳巖前가 무리 수만 명을 모아 반란을 일으켜 성을 점거하였는데, 그는 사천·귀주의 여러 道의 군대를 징발하여 兵備副使 張天豫와 협력해서 반란을 평정하고 改土歸流를 진행하였다. 이후 그는 雲南 黔國公 沐氏의 원한을 사서 南京 工部尚書로 좌천되었는데, 歸鄉하여 휴식할 것을 청하였고, 귀향한 후 저술에 전념하여 『元史正要』, 『詩易箋』, 『三巡奏議』, 『皆山堂稿』, 『可園詩鈔』 등을 남겼다.
- 159) 百戶: 세습 軍職으로서, 元代에 처음 만들어진 관직이다. 元代에 上百戶 長官에는 물품이나 한인 각각 1명을, 下百戶에는 1명을 두었으며 千戶所에 예속했다. 원래의 제도를 계승해서 명대 역시 衛所制度에 백호소를 설치해서 병사 112명을 두었다. 명대에도 역시 세속적이었지만, 除授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갔는데, 계계자에(雞溪子隘)에 이르러 매복을 만나서 이오와 왕덕룡 모두 사망하였다. 첨사(僉事) 장택(張澤)이 심진의 병사 2천여 명을 이끌고 급히 원조하였으나 역시 패배하였고, 장택과 천호(千戶) 유유(劉裕)는 사로잡혔다. [이에] 진순관(鎭巡官)¹⁶⁰이 서둘러서 여러 도(道)¹⁶¹의 병사와 함께 진격하여 봉계조의 동산채(東山寨)에 이르러 그곳을 포위하였다. 봉계조가 두려워하여 장택과 색림을 데리고 조고(媯姑)로 도망쳤다. 그 후에 또 장택을 죽였다. 관군이 그를 급박하게 추격하자, 직록도(直勒渡)를 통해서 강을 건너 사천으로 내달렸고, 동진 처가의 아과(阿科) 등에게 의지하였다. 순안(巡按)¹⁶² 유사문(劉思問)¹⁶³이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황제는] 칙서를 내려 운남·사천의 군대를 모아 적들을 토벌하게 하였다.¹⁶⁴

初，繼祖之走東川也，土官鳳氏與之通。已而見漢·蜀官軍與土舍祿紹先等兵皆會，乃背繼祖，發卒七千人來援，繼祖益窮。賊帥着色赴紹先營降，斬繼祖以獻。姚縣土官高繼先復擒其餘黨，姚安府同知高欽及第鈞，謀主趙士傑等皆伏誅。守臣議設流官，猶不欲絕鳳氏，搜索林支屬鳳曆子思亮經歷，給莊百餘。鳳曆以不得知府怨望，陰結四川七州及水西宣慰安國亨謀作亂。流官知府劉宗寅遺諭之，不聽，遂聚衆稱思亮知府，夜襲府城。城中嚴備不能入，退屯魯墟。宗寅夜出兵，攻其營，賊潰，追至馬刺山，擒鳳曆，伏誅。

당초에, 봉계조가 도망친 동천은 토관 봉씨가 이들과 결탁했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전·촉(蜀)¹⁶⁵의 관군과 토사(土舍) 녹소선(祿紹先) 등의 군대가 모두 만나서 싸움을 보고서 곧바로 봉계조를 배신하여 병사 7천여 명을 내어 원조하니, 봉계조는 더욱 어려워졌다.

160) 鎭巡官: 각 주의 巡撫, 布政使, 都事 등을 鎭巡官이라 일컫는다.

161) 道: 행정구역의 하나로 漢代부터 소수민족들의 거주 지역을 구획하는데 사용되었다. 명대에 와서는 省 아래의 군사지역을 지칭했다. 布政司와 府 사이에 설치된 일종의 행정구획이다.

162) 巡按: 巡按御史의 약칭이다.

163) 劉思問(1519~1583): 字는 汝知, 號는 紫山이며, 雲南 河陽縣 사람이다. 嘉靖 35년(1556)에 進士로 蘇州府 推官에 제수되었고, 이후 御史로 승진하였고, 南京右都御史로 승임했다. 萬曆 11년(1583) 8월에 南京戶部尙書가 되었으나 9월에 사임하였으며, 그해에 사망하였다.

164)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563 嘉靖 45년 10월 庚辰條 참조.

165) 蜀: 四川省의 별칭이다.

적의 장수 자색(着色)이 녹소선의 영(營)에 와서 투항하였는데, 봉계조를 참수하여 바쳤다. 요현(姚縣) 토관 고계선(高繼先)이 또 그 나머지 무리를 사로잡았고, 요안부 동지 고훈(高欽)과 그 동생 고균(高鈞), 추모자 조사진(趙士傑) 등은 모두 처벌받아 죽임을 당하였다.¹⁶⁶ 수신(守臣)¹⁶⁷들이 [토관을] 바꾸어 유관을 설치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오히려 봉씨를 단절하려고 하지 않았고, 색림의 친숙인 봉력(鳳曆)의 아들 봉사요(鳳思堯)에게 경력(經歷)¹⁶⁸을 수여하였으며, 장전(莊田)¹⁶⁹ 백여 무(畝)¹⁷⁰를 주었다. [그런데] 봉력은 지부(직함)를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서, 은밀히 사천 7주와 수서 신위(宣慰)¹⁷¹ 안국형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유관 지부 유종인(劉宗寅)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효유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마침내 무리를 모아 봉사효를 지부라고 칭하고는 밤에 부의 성을 습격하였다. 성 안은 엄히 방비하여 들어갈 수 없자, 후퇴하여 노허(魯墟)에 주둔하였다. 유종인이 밤에 출병하여 그들의 군영을 부수자 적들이 무너졌으며, 마랍산(馬刺山)까지 추격하여 봉력을 사로잡았는데, [봉력은] 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였다.

萬曆三十五年，繼祖任阿克久徒金沙江外，賊黨鄒舉等誘阿克作亂，陰結江外會川諸

166)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564 嘉靖 45년 閏10월 丙申條 참조. 實錄에서는 趙士傑의 이름이 趙時傑로 나와 있다.

167) 守臣: 각 지역을 지키고 다스리는 臣, 즉 각 주의 巡撫, 布政使, 都事 등 鎭巡官을 일컫는다.

168) 經歷: 金代에는 都元帥府·樞密院에 經歷을 두었고, 元代에는 樞密院·大都督府·御史臺 등에 설치하였으나, 명·청시대에는 都察院·通政使司·布政使司·按察使司 등에 설치하였는데, 품급은 正六品이었고, 문서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169) 莊田: 조정에서 신하나 親王에게 하사하는 田園으로, 勳貴莊田과 王府莊田 두 종류가 있다. 洪武帝는 勳臣·公侯·丞相 이하에게 장전을 하사하였는데, 많은 경우 100頃이었다. 親王의 장전은 1,000頃이었고, 공후 및 무신에게는 公田을 사여하였으며, 백관에게 公田을 하사하여 그 田租의 수입으로 봉록에 충당하게 하였다.

170) 畝: 명대는 『明史』 卷77 「食貨志」 1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1畝는 240步이고, 1步는 5尺으로 계산하면, 1畝는 약 614㎡로, 현재 중국에서 쓰이는 무[時畝]의 0.91~0.92畝에 해당한다.

171) 宣慰: 宣慰使를 일컫는다. 唐 憲宗 때 藩青十二州宣慰使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었으나, 늘 두었던 관직은 아니었다. 元代에는 宣慰使司를 설치하였는데, 「宣慰司都元帥府」나 「宣慰司兼管軍萬戶府」라고 불렀고 군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다. 명·청시대에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토민들에게 세습하는 관직으로 수여하였다.

蠻, 直陷武定, 大肆劫掠, 連破元謀·羅次諸城, 索府印。會流官知府攝印會城, 不能得。賊以無印難號召, 劫推官, 請冠帶·印信。蠻撫以兵未集, 懼, 差人以府印授之。賊進入武定, 立阿克爲知府, 鎮撫調集土兵, 分五路進剿, 克復武定·元謀·羅次·祿豐·嵩明等州縣, 擒阿克及其黨至京師, 磔於市。武定平, 遂悉置流官。

만력 35년(1607)에 봉계조의 조카 아극(阿克)¹⁷²⁾이 오랫동안 금사강(金沙江)¹⁷³⁾ 밖으로 옮겨 [거주하였는데], 적의 무리 정거(鄭舉) 등이 아극을 피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은밀히 강 밖 최천(會川)의 여러 만인들과 결탁하여 직접 무정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거리낌 없이 약탈하였다.¹⁷⁴⁾ 원모(元謀)·나차(羅次)¹⁷⁵⁾ 등 여러 성을 연이어 공격하여 함락하고서, 부인(府印)을 찾았는데, 마침 유관 지부가 관인을 가지고 성의 도성으로 가서 획득할 수 없었다. 적들은 관인이 없으면 호소(號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관(推官)¹⁷⁶⁾을 위협하여 관대·인신(印信)을 요구하였다. 진무(鎮撫)¹⁷⁷⁾는 군대가 아직 모아지지 않아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부인을 그에게 주었다. 적들이 후퇴하여 무정으로 들어가서는 아극을 세워 지부로 삼았다. 진무는 병사들을 징발하여 모아 다섯 길로 나누어 진격하여 소탕하고서, 무정·원모·나

- 172)阿克의 이름은 鳳騰背이고 苗族의 후예이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443 萬曆 36년 2월 乙丑條 참조.)
- 173)金沙江: 長江의 상류로, 青海의 唐古拉山脈의 格拉丹冬雪山의 북쪽 산기슭에서 시작되는데 西藏과 四川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이다. 江達縣과 사천의 石渠縣의 交界地에서 昌都 지역의 변경으로 흘러들어가서 江達·貢覺·芒康縣 등을 경유하여 운남으로 들어간다. 그 후에는 운남의 麗江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長江의 상류를 이룬다.
- 174) 『神宗實錄』에는 萬曆 37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455 萬曆 37년 2월 甲戌條 참조.)
- 175)羅次: 지금의 雲南省 楚雄市 祿豐縣 지역이다. 元代에 安寧州에 속했는데, 弘治 13년(1500)에 雲南府에 직속시켰다.
- 176)推官: 관직명으로 唐朝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는데 節度使·觀察使·防禦使 등에 推官을 1명 두었는데 지위는 判官 다음이었고, 書記·錄訟의 일을 담당하였다. 五代는 唐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宋代에는 三司 아래의 각 部에 推官 1명을 두었다. 元에서는 각 路의 總管府와 각 府에 설치하였는데 刑獄을 담당하였다. 明朝에서는 각 府에서 보조관원으로 설치하였으며, 順天府의 應天府의 推官은 從六品이었고, 다른 府의 推官은 正七品이었으며, 刑名 등을 맡았다.
- 177)鎮撫: 衛所에 설치되는 世官이다. 衛에 설치되면 衛鎮撫, 所에 설치되면 所鎮撫라고 하였다.

차·녹풍(祿豐)¹⁷⁸⁾·송명(嵩明)¹⁷⁹⁾ 등 주현을 공격하여 회복하였고, 아극과 그 무리를 사로잡아 경사로 보내 거리에서 책형에 처했다. 무정이 평정된 후 마침내 모두 유관을 설치하였다.

尋甸 심전

尋甸, 古滇國地, 獲刺蠻居之, 號仲剗澄源部, 後爲烏蠻喬斯丁所奪, 號斯丁部。蒙氏爲尋甸, 至段氏, 改仁德部。元初, 置仁德萬戶, 後改府。

심전은 옛 진국(滇國)의 땅으로 복랍만(獲刺蠻)이 그곳에 거주하였고 중차원부(仲剗澄源部)로 불렸는데, 후에 오만(烏蠻)¹⁸⁰⁾의 후에 사정(斯丁)에게 빼앗겼고, [그곳을] 사정부라고 불렀다. [남조의] 몽씨(蒙氏)는 심전이라고 하였는데, [대리국의] 단씨에 이르러서 인덕부(仁德部)로 바꾸었다. 원나라 초기에 인덕 만호(萬戶)¹⁸¹⁾를 두었고, 후에 부(府)로 바꾸었다.

- 178) 祿豐: 현재의 雲南省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昆明市에서 서쪽으로 58km 떨어진 곳이다. 元代에 祿豐縣을 설치하였다.
- 179) 嵩明: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的 동북부 지역에 위치했으며, 昆明市에서 관할하는 縣이다. 嵩明이라는 또 다른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에 각 부족들이 이곳에서 會盟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前漢 元封 2년(전109)에는 收靡縣을 설치하였고, 蜀에서는 225년에 諸葛亮이 南征을 할 때, 收靡縣을 收靡縣으로 바꾸었다. 西晉에서는 升麻라고 불렀고, 南北朝시대에는 升麻縣이라고 하였다. 元의 至元 12년(1275)에 長州로 변경하였는데, 明 洪武 15년(1382)에 嵩州로 설치하였고, 1914년에 嵩明縣으로 변경하였다.
- 180) 烏蠻: 중국 史書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 서남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을 칭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지금의 雲南省 東川 및 巧家縣 지역에 거주한 토착민인 爨族과 爨族에서 갈라진 乾羅羅族·魯機族·孟族·披沙族·披族·招服族 등을 일컫는다.
- 181) 萬戶: 송나라 초에 설치된 관직으로, 世襲軍職이다. 都統에 예속되어 千戶(猛安)·百戶(謀克)를 統領하였다. 元代에도 이를 이어받아 萬夫의 長으로 萬戶를 설치하여 樞密院에 예속시켰으며, 각 路에 駐劄하는 萬戶는 行省에 分屬시켰다. 萬戶府는 千戶所를 統領했는데, 7천 명 이상의 군사를 통솔하는 萬戶를 上萬戶府라 칭하고, 5천 명 이상을 통솔하는 萬戶를 中萬戶府, 3천 명 이상을 통솔하는 萬戶를 下萬戶府라 칭하였다. 路의 萬戶府는 각기 達魯花赤 1명, 萬戶(正三品) 1명을 두었다.

洪武十五年，定雲南，仁德土官阿孔等貢馬及方物，改為尋甸軍民府。十六年，土官安陽來朝，貢馬及虎皮·鹿衫等物，詔賜衣服·錦綺·鈔錠。十七年以尋甸土官沙琛為知府。二十三年置木密關守禦千戶所於尋甸之甸頭易龍驛，又置屯田所於甸頭里果馬里，聯絡耕種，以為邊備。是後，土官皆按期入貢。

홍무 15년(1382)에, 운남을 평정하자 인덕의 토관 아공(阿孔) 등이 말과 방물을 바쳤고, 16년(1383)에, 토관 안양(安陽)이 내조하여 말과 호피(虎皮)·전삼(鹿衫)¹⁸⁴ 등 물품을 바쳤는데, [이에 황제는] 조서를 내려 의복(衣服)·금기(錦綺)¹⁸⁵·초정을 하사하였다. [홍무] 17년(1384)에 심전토관 사침(沙琛)을 지부로 삼았다.¹⁸⁶ [홍무] 23년(1390)에, 심전의 전투(甸頭) 역용역(易龍驛)에 목밀관(木密關)¹⁸⁷ 수어천호소(守禦千戶所)¹⁸⁸를 설치하였고, 또한 전투의 이과마리(里果馬里)에 둔전소(屯田所)를 설치하여 경작하는 일을 연결해서 [이곳에서 나는 작물로] 변방을 수비하도록 하였다.¹⁸⁹ 이후 토관은 모두 기한에 따라 임조하여 진공하였다.

182) 阿孔이 말과 방물을 바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5 洪武 16년 7월 辛未條에 있다.

183) 尋甸軍民府로 바꿨다는 내용은 『太祖實錄』 卷157 洪武 16년 10월 丁丑條에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참조.

184) 鹿衫: 펠트로 만든 의복을 가리킴.

185) 錦綺:錦은 여러 빛깔을 섞어 짠 무늬가 있는 비단이며,綺는 絹織을 짜면서 무늬를 같이 수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錦綺는 여러 빛깔로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을 일컫는다.

186) 沙琛을 知府로 삼은 내용은 『太祖實錄』 卷165 洪武 17년 9월 己酉條에 있다; 尋甸의 土知府는 홍무 연간부터 安陽, 沙琛, 沙姑, 沙勳, 沙仲, 沙安定, 安晟 등이었다(余貽澤, 1968: 90).

187) 木密關: 雲南 尋甸縣에서 동쪽으로 60리 거리에 있다. 『滇南紀遊』를 참고하면, 關索峪는 위로는 武候와 關索의 사당이 있고 그 사당 앞에는 銅馬가 있는데, 唐代의 유물이라고 한다. 洪武 23년에 木密關을 설치해서 雲南都司에 예속시켰다. 관련된 내용은 『讀史方輿紀要』 卷114 “雲南” 참조.

188) 守禦千戶所: 簡稱하여 守禦所라고 한다. 명의 軍制의 하나로 洪武 23년(1390)에 전국에 衛所制度가 설립되어, 각 省의 都指揮使司의 관할 하에 몇 개의 衛가 설치되고 그 밑에 일정의 千戶所와 百戶所가 설치되었는데, 이들 친호소 가운데 어느 한 곳에 單驛으로 주둔하여 직접 都指揮使司가 관할하는 千戶所를 守禦千戶所라 부른다.

189) 守禦千戶所와 屯田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01 洪武 23년 4월 申酉條 참조.

成化十二年，兵部奏，土官舍人安宜聚眾殺掠，命鎮守官相機捕擒。十四年，土知府安晟死，兄弟爭襲，遂致置流官。

성화(成化)¹⁹⁰ 12년(1476)에 병부(兵部)¹⁹¹에서 토관의 사인(舍人) 안성(安宜)이 무리를 모아 살육과 약탈을 한다도 상주하였고, [이에 조정에서는] 진수관(鎮守官)에게 기회를 봐서 안무하고 체포하도록 하였다.¹⁹² [성화] 14년(1478)에 토지부 안성(安晟)이 사망하자 형제들이 세습을 다투니, 마침내 유관으로 바꾸어 설치하였다.

嘉靖六年，安銓作亂，乃土舍之失職者也，侵掠嵩明·木密·楊林等處。巡撫傅習撤守巡官討之，大敗，賊遂陷尋甸·嵩明，殺指揮王昇·唐功等，知府馬性倉棄城走。時武定鳳朝文叛，銓與之合，久之伏誅，事詳前傳。

가정 6년(1527)에 안권(安銓)이 반란¹⁹³을 일으켰는데, [그는] 바로 토사(土舍) 중에서 관직을 잃은 자로, 승명·목밀(木密)·양림(楊林)¹⁹⁴ 등지를 침략하였다. 순부 부사(傅習)이 수순관(守巡官)에게 격문(檄文)¹⁹⁵을 보내 그를 토벌하게 하였으나 대패를 당했고, 적들은

190) 成化: 명 왕조 9대 황제인 憲宗 朱見深의 年號이다.

191) 兵部: 隋唐시대에 설치되었고, 武官의 임용, 兵籍, 軍械, 軍食 등을 담당하였다. 清末까지 존속하였으나, 그 職權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 宋·遼·金·元에서는 兵政을 관할하지 않았다. 明代의 兵部尚書는 '本兵'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한은 가장 컸다. 清代의 兵部에서는 武官의 임용이나 驛站의 관리는 담당하였지만 兵權은 갖지 못하였다. 光緒 32년(1906)에 새로운 정치체제가 시행되면서 兵部라는 명칭은 없어졌다.

192) 이와 관련된 내용은 『憲宗實錄』 卷149 成化 12년 正月 癸丑條 참조.

193) 武定安銓之亂, 또는 安風之亂이라고도 부르는데, 嘉靖 7년(1528)에 尋甸의 彝族大土司인 安銓과 그의 妻家인 武定の 彝族大土司 鳳朝文이 知府 馬性倉의 부당한 歲糧徵收에 항거해서 일으킨 반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86 嘉靖 7년 3월 癸巳條 참조.

194) 楊林: 城의 東門 안에 羊 모양의 돌이 있어서 羊林이라고도 불렀다. 唐나라에서 羊林部라고 칭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元나라에서는 楊林千戶를 설치하였고 후에 縣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雲南 嵩明縣에서 남쪽으로 35리 떨어진 지역이다.

195) 檄文: 고대 문장의 한 형식으로 병사들의 소집, 성토, 국가의 공상 등을 알렸던 글이다.

마침내 심건·송명을 합락하고 지휘 왕승(王昇)·당공(唐功) 등을 살해하였는데, [이에] 지부 마성로(馬性魯)¹⁹⁶⁾는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¹⁹⁷⁾ 당시 무정의 봉조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안전이 그와 회합하였지만 후에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였는데, 상세한 상황은 앞의 전(傳)에 있다.¹⁹⁸⁾

麗江 여강

麗江, 南詔蒙氏置麗水節度, 宋時麼些蠻蒙醜據之, 元初, 置茶罕章宣慰司, 至元中, 改置麗江路軍民總管府, 後改宣撫司.

여강(麗江)¹⁹⁹⁾은 남조 몽씨가 여수절도(麗水節度)를 설치하였다. 송나라 때에는 마사만(麼些蠻)의 몽초(蒙醜)가 그곳을 점거하였다. 원나라 초에는 다한장(茶罕章)²⁰⁰⁾ 선위사(宣慰司)²⁰¹⁾를 설치하였다. 지린 연간(1264~1294)에는 여강로(麗江路) 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

- 196) 馬性魯: 생몰년 미상. 字는 進之이다. 江蘇 應天府 溧陽縣 사람이다. 正德 연간 초에 兵科給事中이 되었으나, 후에 平陽縣丞으로 강등되었다. 正德 13년(1518) 12월에 順昌知縣이 되었다. 正德 14년(1519)에 馬性魯는 養蒙社學을 건립하고 雙峰書院과 養正社學을 중건하였다. 正德 15년(1520)에 寺廟를 정리하라는 상급아문의 지시에 따라 101개소의 寺廟를 철폐하였고, 그 토지와 재산을 회수하였다. 嘉靖 연간에 尋甸知府가 되었다.
- 197) 安鈞이 반란을 일으킨 것과 馬性魯가 성을 버리고 도망한 내용은 『世宗實錄』卷84 嘉靖 7년 월 壬辰條에 기재되어 있다.
- 19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明史』卷313 「雲南土司」 참조.
- 199) 麗江: 麗水라기도 칭했다. 洪武 15년(1382)에 麗江路를 바꾸어 麗江府를 설치했고, 이후 麗江軍民府로 고쳤다.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서부에 위치해 있었다.
- 200) 茶罕章: 元代 雲南의 한 지역명이면서 동시에 민족 명칭으로, 察罕章이나 察罕章으로도 표기한다. 이 지역은 현재 雲南省 서북부 麗江의 納西族自治區 일대이다. 1253년에 몽골의 군대가 大理를 점령하였는데, 이듬해에 茶罕章을 세워 民官을 관리하게 하였고, 至元 8년(1271)에 이 지역에 宣慰司를 설치하였다. 至元 13년(1276)에 麗江路로 변경하였고, 軍民總管府를 설치하였으며, 至元 21년(1284)에 이를 폐지하고 宣撫司를 설치하였다.
- 201) 宣慰司: 宣慰使의 약칭이다. 宣慰使: 약칭하여 宣慰라라고도 한다. 省과 州 사이에 있는 군사적인 감찰기구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는 軍民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중앙의 행정기관으로 최고 책임자는

로 바꾸어 설치하였고, 후에 선무사(宣撫司)²⁰²⁾로 바꾸었다.

洪武十五年置麗江府, 十六年, 蠻長木德來朝貢馬, 以木德爲知府, 羅克爲蘭州知州, 十八年, 巨津土酋阿奴聽叛, 劫石門關, 千戶滿泉戰死, 吉安侯陸仲亨率指揮李榮·鄒祥討之, 賊戰敗, 遁入山谷, 捕獲誅之, 時木德從征, 又從西平侯沐英征景東·定邊, 皆有功, 予世襲, 二十四年, 木德死, 子初當襲, 初守巨津州石門關, 與西番接壤, 旣襲職, 英請以初弟虧爲千夫長, 代守石門, 從之, 二十六年十月, 西平侯沐春奏, 麗江土民每歲輸白金七百六十兩, 皆麼些洞所產, 民以馬易金, 不請真偽, 請令以馬代輸, 從之, 三十年改爲麗江軍民府, 從春請也, 永樂十六年, 檢校麗文郡言, 本府及寶山·巨津·通安·蘭州四州歸化日久, 請建學校, 從之.

홍무 15년(1382)에 여강부(麗江府)²⁰³⁾를 설치하였다. [홍무] 16년(1383)에, 만인의 우두머리인 목덕(木德)이 내조하여 말을 바치니,²⁰⁴⁾ [조정은] 목덕을 지부로 삼고, 나극(羅克)을

- 宣慰使로, 軍政의 최고 책임자였다. 宣慰司는 元代에 전국적으로 설치되었고, 명정시대에는 소수민족 지역에 설립되어, 그 이전에 비해 숫자가 줄어들었다. 쿠빌라이칸은 각 행정서성에 60개의 선위사를 설치하였고, 각 선위사는 대략 180개의 길을 관할하였다. 지역의 宣慰司에는 宣慰使 3명(從二品), 宣慰司同知 1명(從三品), 副使 1명(從四品), 經歷과 都事 등의 관원을 두었다.
- 202) 宣撫司: 宣撫 명칭이다. 순나라의 章宗 泰和 6년(1206)에 陝西路宣撫司를 설치하였고, 泰和 8년(1208)에 陝西宣撫司를 安撫司로 바꾸었다. 이후 山東東西·大名·河北東西·河東南北·遼東·陝西·鹹平·隆安·上京·肇州·北京 등에도 모두 선무사를 설치하였다. 원나라에서는 변경의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宣撫司를 설치하여 지방행정 기구로 삼았다. 그 관청에는 達魯花赤·宣撫使·同知·副使 등의 관원을 두었다. 明清시대에서 이를 계승하였는데, 모두 토스들이 세습하는 관직이었다. 명에서는 그 조직 안에 宣撫使(從四品), 同知(正五品), 副使(從五品), 金事(正六品)를 두었다.
- 203) 麗江府: 洪武 15년(1382)에 麗江路를 麗江府로 고쳤다가 洪武 31년(1398)에 軍民府로 바꾸었으며, 通安州·寶山州·巨津州·蘭州를 관할하였다. 清代에 麗江軍民府로 하였다. 雍正 원년(1723)에 옹정제가 改土歸流를 단행하기 전까지 木氏 土司가 세습하며 이 지역을 통치했다.
- 204)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卷158 洪武 16년 11월 癸巳條 참조: 阿得(阿德이라고도 함)이라는 자가 洪武 16년(1383)에 입조하여 말을 바친 후 木氏 성을 하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御批, 1992: 573~574). 이에 대해서는 木氏가 편찬한 『皇明通志』에 “大軍旣臨, 渠魁以獲, 爾麗江土官阿德率衆來歸, 爲夷智識, 足見播誠, 今命爾木姓, 從總總兵官傳, 擬授職建功”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들의 계보는 木得(1304~1389), 木初(1345~1425), 木士(1364~1433), 木森(1401~1442), 木旅(1429~1485), 木素

난주(蘭州)²⁰⁵ 지주로 삼았다.²⁰⁶ [홍무] 18년(1385)에, 거진(巨津)²⁰⁷의 토추(土酋) 아노총(阿奴聰)이 반란을 일으켜서 석문관(石門關)²⁰⁸을 점박하였는데, [이 때문에] 천호 포천(浦泉)이 전사하였다. 길안후(吉安侯) 육중형(陸仲亨)²⁰⁹이 지휘 이영(李榮)·정상(鄭祥)을 이끌고 그들을 토벌하였는데, 격들이 싸움에 패하여 산골짜기로 달아났지만 이들을 붙잡아 죽였다.²¹⁰ 당시에 목덕은 정벌에 종군하였고, 서평후(西平侯) 목영이 경동(景東)²¹¹·정변(定邊)을 정벌하는 데도 종군하였는데 모두 공이 있어서 세습하도록 했다. [홍무] 24년(1391)에 목덕이 사망하자 아들 목초(木初)가 마땅히 세습하였다. 목초가 지키는 거진주 석문관은 서번(西番)²¹²과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 관직을 세습한 후에, 목영이 목초의 동생 목후(木虧)를

(1455~1502), 木定(1476~1526), 木公(1494~1553), 木高(1515~1568), 木東(1534~1579), 木旺(1551~1596), 木壽(1569~1597), 木增(1587~1646), 木懿(1608~1692), 木端(1627~1671), 木堯(1647~1708), 木興(1667~1720), 木鍾(1723년, 개토귀부)로 이어진다.

205) 蘭州 唐代에는 이 지역에 金城郡을 설치하였고, 唐代에는 蘭州라고 칭하였다. 宋朝에서는 蘭州金城郡이라고 하였고, 元朝에서는 다시 蘭州라고 하였다. 明代에는 縣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州로 승격되었다. 지금의 雲南省의 蘭坪縣 지역이다.

206) 木德을 麗江府의 知府로, 羅克을 蘭州의 知州 삼았다는 내용은 『太祖實錄』 卷159 洪武 17년 정일 壬子條 참조.

207) 巨津: 元나라 초에 귀부하여, 巨津州를 설치하였다. 지금의 雲南 麗江縣에서 서북쪽으로 300리 떨어진 곳이다.

208) 石門關은 西域과의 경계를 구획짓는 곳이기도 하다(『讀史方輿記要』 卷117 「雲南」5 참조).

209) 陸仲亨(1336~1390): 濠州(지금의 安徽省 鳳陽) 사람으로 明朝의 개국 과정에서 활약했던 將領 중 한 사람이다. 어려서 兵亂 중에 부모를 모두 잃고 朱元璋 군대에 들어갔다. 그 후 長江을 건너 太平을 공략하고 集慶(지금의 江蘇省 南京)을 장악하는데 참여하여 左翼統軍元帥에 제수되었고, 鐵友諒 세력을 공격한 공로로 歸降指揮使로 승진하였다. 洪武 원년(1368)에는 군대를 이끌고 廣東을 공략하여 江西行營平章이 되었고, 이후 同知都督府事로 직함이 바뀌었다. 洪武 3년(1370)에 吉安侯로 책봉되었는데, 朱元璋이 그를 「腹心股肱」이라 칭할 정도로 신임하였다. 洪武 12년(1379)에는 馬德興·海和를 따라 臨清에서 군대를 훈련시킨 후에 成都로 이동하였으며, 巨津에서 일어난 소수민족들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또한 傅友德를 따라 烏撒의 여러 민족들을 토벌하였다. 그러나 洪武 23년(1390)에 胡惟庸의 獄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210) 阿奴聰의 반란과 陸仲亨이 토벌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79 洪武 19년 11월 戊申條 참조.

211) 景東: 景東府를 일컫는데, 元나라 至順 2년(1331)에 설치하여 威楚路에 예속시켰다. 明 洪武 15년(1382)에 景東州로 강등시켰지만 洪武 17년(1384)에 다시 府로 승격시켜 雲南布政司에 예속시켰다. 그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景東彝族自治縣이다.

212) 西番: 明代부터 中華民國 시기까지 甘肅·四川·雲南 지역의 소수민족들이나 캄(Kham) 지역의 티베트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천부장(千夫長)으로 삼아 석문(石門)을 대신 지키게 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그것을] 허락하였다.²¹³ [홍무] 26년(1393) 10월에 서평후 목춘(沐春)²¹⁴이 상주하기를, 여강의 토민들은 매년 백금(白金)²¹⁵ 760냥(兩)을 보내고 [이 백금은] 모두 마사동(麼些洞)에서 산출되는 것인데, 토민들이 말로 금을 바꾸지만 그 진위를 알지 못하니 말로 대신 낼 수 있게 해 주기를 요청하자,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²¹⁶ [홍무] 30년(1397)에 여강군민부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은] 목춘이 주청한 것을 따른 것이다. 영락 16년(1383)에 검교(檢校) 방문욱(龐文郁)이 아뢰기를, 본 부(府) 및 보산(寶山)²¹⁷·거진·통안(通安)²¹⁸·난주(蘭州) 네 개의 주는 귀순한지 오래되었으니 학교를 세울 것을 주청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²¹⁹

宣德五年，麗江府奏浪滄江蠻聚保等聚眾劫掠，黔國公沐晟委官撫諭，不服，部議再行招撫。已，蘭州土官羅牙等奏，者保拒命，請發兵討之。帝命黔國公及雲南三司相議行，勿緣細故激變蠻民。正統五年，賜知府木森誥命，加授大中大夫資治少尹，以征麓川功也。成化十一年，知府木欽奏，鶴慶千夫長趙賢屢糾羣賊越境殺掠，乞調旁衛官軍擒剿，命移知守臣計畫。嘉靖三十九年，知府木高進助殿工銀二千八百兩，

213)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07 洪武 24년 2월 癸酉條 참조. 당초에 西平侯 沐英이 土官 知府 木德이 이미 죽었으니 그 아들 木初에게 세습하게 하여 巨津州 石門關과 西番과의 접경지역을 지키게 하고, 그 동생 木虧를 千夫長으로 삼을 것을 주청하였고, 황제가 이를 허락한 것이었다.

214) 沐春: 생졸년 미상. 字는 景春이며, 西平侯 沐英의 長子이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을 따라 西南 지역의 征伐戰에 참여하였으며, 이후에 雲南 등지의 반란을 평정하기도 했다. 이 전공으로 後軍都督府 僉事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여러 신하들은 試職(實習職位)을 내리기를 청하였으나 洪武帝는 實職을 제수했다. 후에 沐英이 죽자 부친의 爵位를 계승하고 雲南에 鎮守했으며, 摩羅十一寨 및 平越의 烏撒·阿資 등의 叛亂을 진압했다. 그러나 그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죽었으며, 諡號는 惠惠이다(자세한 내용은 『明史』 卷126 「沐春傳」 참조).

215) 白金은 銀을 가리킨다.

216) 실록에는 麼些洞을 摩紫洞으로 표기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30 洪武 26년 11월 己亥條 참조.

217) 寶山: 元나라 至元 14년(1277)에 寶山縣을 설치했고, 至元 16년(1279)에 寶山州로 바꾸었다.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玉龍納西族自治縣 지역이다.

218) 通安: 지금의 雲南省 麗江縣 지역이다.

219) 龐文郁이 학교 설립을 요청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97 永樂 16년 2월 戊戌條 참조.

詔加文職三品服色，給諡命。四十年又進木植銀二千八百兩，詔進一級，授亞中大夫，給諡命。

선덕 5년(1430)에 여강부에서 낭창강(浪滄江)²²⁰ 산체의 만인 자보(者保) 등이 무리를 모아 검략하였다고 상주하였다. [이에] 검국공 목성이 관원을 위임하여 안무하고 효유하였으나 복종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해당 부에서는 의논하여 다시 초무(招撫)를 행하였다. 그 후에 난주 토관 나이(羅牙) 등이, 자보는 명령을 거부하였으니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기를 청한다고 상주하였다. 황제는 검국공과 운남 삼사(三司)²²¹에게 기회를 살피 실행하고, 작은 일로 만민에게 변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지시하였다.²²² 정통 5년(1440)에 지부 목삼(木森)에게 고명(誥命)을 내려주고 대중대부(大中大夫)²²³·자치소윤(資治少尹)²²⁴을 더하여 제수하였는데, [이것은] 녹천(麓川)²²⁵을 정벌한 공 때문이었다.²²⁶ 성화 11년(1475)에 지부 목금(木欽)²²⁷이 보고하기를, 학경의 친부장 조현(趙賢)이 여러 차례 도적 무리를 규합하여 경계를 넘어

220) 浪滄江: 雲南의 蒙化縣에서 西南쪽으로 120리 떨어져 있는데, 明初에는 瀾滄江巡司를 두었다.

221) 三司: 명조의 3司는 행정을 담당하는 承宣布政使司, 감찰을 담당하는 提刑按察使司, 군사를 담당하는 都指揮使司를 가리킨다. 각 지방에도 세 분야로 구분하여 지방관을 설치하였는데 본문 중의 운남 삼사는 지방에 설치된 것을 가리킨다.

222)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73 宣德 5년 12월 壬辰條 참조. 이때 황제는 巡按御史에게도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223) 大中大夫: 秦朝에서 처음 설치되었던 관직명으로 太中大夫라고 하였으며 論議를 담당하였다. 명나라와 서나라에서는 文散官 중 여덟 번째 관급이었다. 宋 元宗 연간(1078~1085)에 左右議大夫로 바꾸었으며, 후에 文官의 열한 번째 관급으로 정하였다. 송나라에서는 大中大夫라고 명칭을 정하였고, 從四品이었는데, 元朝에서는 從三品으로 승격시켰으며, 명나라에서도 大中大夫라고 명명하였다.

224) 資治少尹: 明朝 文勳官名으로 從三品職이다.

225) 麓川: 지금의 雲南省 瑞麗縣 및 畹町鎮 등의 지역으로 緬甸에 접해있다. 원나라 때 이 지역에 宣慰使司를 설치하였다. 明 太祖가 雲南을 평정한 후, 洪武 17년(1384)에 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하고 이 지역 수령을 宣慰使로 삼았다. 正統 2년(1437) 10월에 麓川 宣慰使 思任發이 반란을 일으켜, 이듬해에 孟義, 騰衝을 공격하고 羅江을 점령하여 스스로 滇王이라 칭하였다. 이에 명조는 수년에 걸쳐 이를 진압했는데, 이를 '麓川의 役'이라 한다. 이후 正統 9년(1444)에 麓川軍民宣慰使司를 宣撫司로 바꾸고 治所를 臨把에 두었는데, 이 때문에 隴川宣撫司라고도 일컫는다.

226)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71 正統 5년 9월 丙辰條에도 있음.

227) 木欽은 木森의 아들로, 成化 연간(1464~1487)에 부친의 직을 세습하였다(興陰, 1988: 125).

살육과 약탈을 하니 주변 위의 관군들을 징발하여 [이들을] 사로잡고 소탕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에] 문서를 보내 수신들에게 알려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²²⁸ 가경 39년(1560)에, 지부 목고(木高)가 진각공사를 지원하는 은 2,800냥을 바치니, [이에 황제는] 조서를 내려 문직삼품복색(文職三品服色)을 더해 주고 고명을 내려주었다.²²⁹ 가경 40년(1561)에, 또 목옥은(木植銀) 2,800냥을 바치자 [황제는] 조서를 내려 1급(級)을 승진시키고, 아중대부(亞中大夫)²³⁰를 제수하였으며, 고명을 주었다.²³¹

萬曆三十一年，巡按御史宋興祖奏：「稅使內監楊榮欲奪麗江土官退地，聽採，竊以麗江自太祖命木氏世官，守石門以絕西域，守鐵橋以斷吐蕃，滇南藉爲屏藩，今使退地聽採，必失遠蠻之心，卽令聽諭，已使國家歲歲有吐蕃之防；倘或不聽，豈獨有傷國體。」疏上，事得寢。

만력 31년(1603)에 순안어사(巡按御史)²³² 송흥조(宋興祖)²³³가 보고하기를, “세사내강

228) 이와 관련된 내용은 『憲宗實錄』 卷136 成化 10년 12월 乙巳條 참조.

229) 知府의 관품은 正四品인데, 木高에게 三品의 관복을 내린 것은 그가 銀을 바친 것에 대한 표창의 의미였다. 이렇게 본래의 관품보다 높은 관복을 하사하는 것은 洪武 연간(1368~1398)·永樂 연간(1402~1424)에는 드물게 보이는 사례이나 명 중기로 가면서 증가하였다. 명 조정은 官服을 하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西南의 토사들을 관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토사들에게 그들의 品級에 상응하는 朝服이나 公服을 내려 외형상 정치적 동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 방식은 명 초에 주로 나타나는데, 홍무제는 관복을 하사하는 것을 통해서 토사들을 외형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것으로 조공을 한 후 관복을 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하나는 景泰正德 이후 品官朝服을 하사하는 것 외에 飛龍服頭巾服麒麟服을 내려주었다. 이를 통해서 명 조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방식은 명 중기 이후에 많은 사례들이 보인다. 명 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관복을 하사하는 행위에서 정치적인 성격은 약해지고 경제적인 면이 강화되었다. 특히 嘉靖帝와 萬曆帝의 통치시기에는 하사하는 의복이 더 이상 朝服이 아니었고 飛龍服頭巾服麒麟服을 주었다. 그리고 의복을 하사하는 이유도 더 이상 ‘歸附’나 ‘來貢’이 아니라 대부분 ‘有功’, ‘獻銀’, ‘獻大木’ 등이었다(納春英, 2008:128~129).

230) 亞中大夫: 散官의 명칭으로, 元代 延祐 연간(1314~1320)에 少中大夫로 명칭을 바꾸었다. 元朝 明朝에서는 모두 從三品으로 제수되었는데, 명대에 폐지되었다.

231)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482 嘉靖 39년 4월 丁丑條 참조. 이때 木高에게 文職三品服色을 내려 주었고, 散官 1級을 높여주었다.

(稅使內監)²³⁴ 양영(楊榮)²³⁵이 여강 토관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는 [광물] 채굴을 허락하려고 했습니다. 삼가 아뢰옵건대 여강은 태조(太祖)²³⁶가 목석에게 관직을 세습하게

- 232) 巡按御史: 본래 唐代에 御史廳을 설치하여 감찰의 임무를 맡도록 했는데, 明代에 어사대 대신 都察院을 설치하였다. 이때 都察院의 말직으로 13道에 監察御使를 두고 지방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그 말직이 巡按御史이다. 都察院 소속으로 天子를 대신하여 지방을 순찰하고, 각 지방 정치의得失, 군민의 利病 등을直言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고, 官品은 正七品으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지방 정국에 관여하는 바가 많았다. 北直隸에 2명, 南直隸에 3명, 宣府·大同에 1명, 遼東·甘肅 및 13省에 각 1명을 두도록 했다. 『明史』卷73 「職官志」2 참조.
- 233) 宋興龍: 生年未詳. 字는 維繼이며, 四川 漢州 中江縣 사람이다. 萬曆 11년(1583)의 進士로, 崇禎縣令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萬曆 12년(1584)에 쌀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萬曆 20년(1592)에 다시 德淸知縣을 거쳐 陝西道御使로 나왔다. 萬曆 22년(1594)에 巡按遼東을 역임하고, 萬曆 26년(1595)에 福建道監察御史를 거쳐 巡按貴州가 되었으며, 萬曆 29년(1601)에 巡按雲南이 되었다. 이처럼 여러 관직을 거친 후 大理寺 少卿에 이르렀다.
- 234) 稅使內監: 鑛監稅使로 임명된 환관을 의미한다. 萬曆帝는 萬曆 24년(1596)에 鑛監稅使로 여러 환관을 임명하고 각지에 파견하여 대대적으로 商稅와 商稅를 거두게 하였다.
- 235) 楊榮: 萬曆 연간(1573~1620)의 태감으로 윤남의 광세를 감독하였는데, 원지의 백성들과 하급 관리들이 들고 일어나 이를 반대하였다. 이에 楊榮은 무력으로 진압하여 수천 명을 죽였다. 이에 民變이 일어나 참어자가 1만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결국 楊榮을 죽이고 불구덩이에 던지 버렸다(박원호 외, 2008: 351).
- 236) 太祖: 명 왕조를 창업한 洪武帝 朱元璋을 가리킨다. 그는 아버지 朱世珍(朱五四라고도 불림)과 巫術師 陳氏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막내아들로서 1328년에 태어났다. 그의 처음 이름은 興宗(重八라고 불림)이었으나 郭子興의 사위가 되면서 元璋으로 개명하였다. 민중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7세 무렵 전염병으로 부모와 큰형을 잃고, 부근에 있는 皇覺寺에 들어가 중이 되어 3년여에 걸친 유랑생활을 하였다. 이후 그는 至正 12년(1352)에 고향인 濠州(지금의 안휘성 鳳陽縣)에 근거지를 둔 郭子興의 紅巾軍에 가입하여 집자 그의 세력을 키워나갔고, 郭子興이 죽은 뒤 실질적으로 郭子興 군단을 이끌면서 강소·안휘·절강 등지를 경략하여 세력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명망이 있는 유학자와 지주들을 대거 흡수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일대 세력을 형성했다는 하만, 白蓮教의 색채도 점차 탈각시켜 나갔다. 이윽고, 그는 至正 23년(1363)에 강서 지역에서 漢王을 자칭하며 세력을 떨치던 陳友諒을 鄱陽湖 위에서 타도하여 최종 지방을 손에 넣었으며, 이어서 2년의 사투 끝에 1367년에 강소 지역에 세력을 펼치며 吳王을 칭하고 있던 張士誠을 그의 근거지인 平江(현재의 蘇州)에서 멸하고, 이어 그는元の 군대에 패배 의탁해 와 蘇州에 머물고 있던 小明王을 영접해 오는 도중에 양자강 상에서 익사시킨으로 대세를 결정된 다음, 1368년 정월에 應天府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고 국호를 '大明', 年號를 '洪武'라 정하였다. 그는 31년의 재위 동안 명 왕조의 기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행했으며, 1398년 윤 5월에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字는 國瑞이고, 諡號는 高皇帝이며, 廟號는 太祖이다.

하면서부터, 석문을 지키고서 서역(西域)²³⁷과 단절하고 철교(鐵橋)를 수비하여 토번(吐蕃)²³⁸과 단절하였으며,²³⁹ 전남(滇南)²⁴⁰이 이에 힘입어 울타리로 삼았습다.²⁴¹ [그러나]

- 237) 西域: 이 단어는 『漢書』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현재의 新疆 위구르족 자치구인 타림분지에 산재해 있던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을 지칭하였다. 그 뒤 중국인의 서방에 관한 지식이 커짐에 따라 서역이 뜻하는 지역 범위로 확대되어, 西투르크스탄·서아시아·소아시아는 물론이고, 때로는 인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동·서투르크스탄을 합친 중앙아시아, 특히 동투르크스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서역의 범위는 연구자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鄒逸麟, 1999: 227). 이 경우 협의로는 지금의 감숙, 둔황의 서쪽과 파미르 고원 동쪽의 신강 자치구를 의미하며, 여기에 중앙아시아의 중서부를 포괄하는 지역, 인도와 유럽의 동부는 물론 아프리카의 북부까지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서역으로 해석한다. 또 다른 연구자는 동쪽으로는 동투르크스탄, 서쪽으로는 서투르크스탄, 남쪽으로는 곤륜산맥을 경계로 하는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Issik Kul·Balkash nor·Ala Kul 등이 흐르는 하류 지역을 서역으로 보기도 한다(김수연, 2003: 11~13 참조).
- 238) 吐蕃: 현재 중국 西藏藏族自治州區, 정식 명칭은 '포티엔 위대한 꾀'(bod chen po; 大蕃)이며, 토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 정설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佐藤長은 토번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 전달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몽골계 언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비계 민족을 통해 토번이라는 말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佐藤長, 1978: 163~165). 실제로 몽골어에서는 티베트를 투벳(Töböd)이라고 하는데,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추적해 볼 여지가 있다. 토번의 구성원 蕃人에 대한 기원을 논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첫째로 자칭 꾀(bo)라고 부르는 티베트 민족 공동체의 구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둘째는 토번 왕실의 구성원이 어떤 기원을 갖는가 하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는, 중국 학자들은 중심으로 西역의 일부였던 羌(Qiang)을 기원으로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티베트 학자들은 현재 사천성에 거주하고 있는 羌族과 토번을 구성했던 羌을 동일시 할 수 없으며, 또한 史書에 등장하는 고대의 羌 집단이 토번의 주요 구성원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T. Karstein은 역사적으로 토번 시대를 비롯해 티베트인의 꾀의 형성 과정에서 주된 민족 이동이 동부에서 서부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현재 내몽골 서부에서 감숙, 청해로 이어지는 몽골 고원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토번 시대 이전부터 오랜 동안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T. Karstein, 2006: 29). 다음 두 번째의 경우, 토번 왕실의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 기원설, 鮮卑 기원설 등이 있으나 전자는 종교적인 원인에서, 또 후자는 중원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중국 史書에 등장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티베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르롱 계곡을 중심으로 푸젠(pu rgyal) 즉, 푸 왕조의 나치켄포(nya khri btsan po)를 중심지로 하는 정치 집단이 토번 왕실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 239) 이와 관련된 내용은 『讀史方輿紀要』卷117 「雲南」5 참조.
- 240) 滇南: 雲南省의 別稱이다. 雲南은 본래 滇이라 簡稱했는데, 國土의 南部에 위치했기 때문에 滇南이라고 불렀다.

지금 땅을 되돌려 줄 것을 받아들여게 하는 것은 반드시 변방 만인들의 마음을 잃을 것입니다. 설령 유지(諭旨)를 받아들여게 하더라도 먼저 국가는 매년 토변에 대한 방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듣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의 체면에 손상만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상소가 올라오니, 상황은 잠잠해졌다.²⁴²⁾

三十八年，知府木增以征蠻軍興，助餉銀二萬餘兩，乞比北勝土舍高光裕例，加級，部覆賜三品服色，巡按御史劾其違越，請奪新恩，從之。四十七年，增復輸銀一萬助遼餉，泰昌元年，錄增功，賞白金表裏，其子懿及舍目各賞銀幣有差。天啓二年，增以病告，加授左參政致仕，五年，特給增誥命，以旌其忠。雲南諸土官，知詩書好禮守義，以麗江木氏爲首云。

[만력] 38년(1610)에, 지부 목증(木增)이 만인들의 군대를 토벌하는 일 때문에 조항은(助餉銀) 2만여 냥을 냈으며, 북승(北勝)²⁴³⁾ 토관의 속관인 고흥유(高光裕)의 사례와 비교하여 관급을 더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고는 삼품복색(三品服色)을 내려 주었는데, 순안어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넘친 것을 조사하여 새로 내려 준 은사(恩賜)를 빼앗으라고 청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²⁴⁴⁾ [만력] 47년(1619)에 목증이 다시 은 1만 냥을 요동(遼東)²⁴⁵⁾의 군광을 지원하는 것으로 냈다.²⁴⁶⁾ 태창(泰昌)²⁴⁷⁾ 원년(1620)에, 목증

- 241) 麗江의 木氏 土司는 명청시대에 운남 서북부에서 가장 강한 토사에 속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宋興祖의 보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명 조정에서도 중시하였다. 그 지역은 운남 서부에서 四川과 吐蕃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로 한꺼번에 운남 서북 지역과 吐蕃의 藏族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명 조정은 木氏 土司를 후하게 대우하였다(沈乾芳, 2009: 86).
- 242) 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388 萬曆 31년 9월 戊午條 참조.
- 243) 北勝: 원나라 때에는 北勝府였고 麗江路에屬하였다. 洪武 15년(1382)에 布政司로 예속시키고 州로 강등시켜 鶴慶府에 예속시켰다. 이후 洪武 29(1396)년에 瀾滄衛로 예속시켰다가 正統 7년(1442)에 布政司에 直屬시켰다(『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참조).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永勝縣 北部와 永平縣 그리고 四川省 攀枝花市 小部 일대의 지역이다.
- 244) 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502 萬曆 40년 윤11월 己丑條 참조.
- 245) 遼東: 중국 遼河의 동쪽 지방으로 지금의 遼寧省 동남부 일대를 일컫는다. 戰國·秦·漢代부터 南北朝時期까지 遼東郡을 설치하였다. 또한 明初에는 軍鎮 이름이 되었는데, 관할 영역은 현재의 遼寧省 대부분

의 공로에 근거하여 백금 표(表裏)를 상으로 주었고, 그 아들 목의(木懿)와 토사(土舍) 두목에게 각각 은폐(銀幣)를 차등하여 상으로 주었다.²⁴⁸⁾ 천계(天啓) 2년(1622)에 목증이 병이 있다고 보고하니, 좌참정(左參政)을 더하여 제수하고는 치사(致仕)²⁴⁹⁾하게 하였다.²⁵⁰⁾ [천계 5년(1625)에 목증에게 특별히 고명을 주어 그의 충성을 표창하였다.²⁵¹⁾ 운남의 여러 토관들은 시서(詩書)를 알고 예를 좋아하며 의리를 지켰는데, 여강의 목씨가 으뜸이었다고 한다.

元江 원강

元江，古西南夷極邊境，曰惠籠甸，又名因達部。南詔蒙氏以屬銀生節度，徙白蠻蘇·張·周·段等十姓成之。又聞成遠等處，置成遠跋，後和泥侵據其地。宋時，儂智高之黨窟居於此，和泥又開羅槃甸居之，後爲麼些·徒蠻·阿梵諸部所據。元時內附。至元中，置元江萬戶府。後於成遠更置元江路，領羅槃·馬籠等十二部，屬臨安·廣西·元江等處宣慰司。

원강(元江)은 고대 서남 오랑캐 중 매우 먼 변경에 있었고, 혜룡전(惠籠甸)이라고 불렸으며, 또한 인원부(因達部)라고도 불렸다. 남조의 몽씨는 [이곳을] 은생절도(銀生節度)²⁵²⁾에 예속

- 과 吉林省 일부였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특히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육상 통로이기 때문에 각종 외교 사절과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246) 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579 萬曆 47년 2월 壬午條 참조.
- 247) 泰昌: 明 王朝 15대 황제인 光宗의 年號임.
- 248) 이와 관련된 내용은 『光宗實錄』 卷8 泰昌 원년 癸酉條 참조.
- 249) 致仕: 관리가 일정한 연령, 대개는 70세에 달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상당한 예우가 행해졌다. 宣德 10년(1435)에 조서를 내려 문무관들이 나이 70세가 되지 않더라도 질병으로 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致仕를 인정해주었다. 休致라고도 칭하였다(박원호 외, 2008: 27 참조).
- 250) 이와 관련된 내용은 『嘉宗實錄』 卷25 天啓 2년 8월 己卯條 참조. 이때 木增은 병이 있어 잠시 산에 들어가겠다고 요청하였다.
- 251) 이와 관련된 내용은 『嘉宗實錄』 卷63 天啓 5년 9월 甲子條 참조. 명 조정에서는 木增이 軍糧을 헌납한 것을 표창한 것이었다.
- 252) 銀生節度: 옛 城의 명칭으로, 지금의 雲南省 景東에 그 유적이 남아 있다. 南詔에서 건국하였고, 銀生節

시켰고, 백만(白蠻)²⁵³의 소(蘇)·장(張)·주(周)·단(段) 등 10성(姓)을 이주시켜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또한 위원(威遠)²⁵⁴ 등지를 개간하여 위원섬(威遠巖)을 설치하였다. 후에 화니(和泥)²⁵⁵가 그 땅을 침범하여 점거하였다. 송나라 때는 농지고(農智高)²⁵⁶의 무리가 여기에 숨어 거주하였고, 화니는 또한 나반전(羅槃甸)을 개척하여 [이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는데, 후에 마사·도만(徒蠻)·아복(阿夔)²⁵⁷ 등 여러 부에게 점거되었다. 원나라 때에 [조정에] 귀부하였다. 지원 연간(1264~1294)에는 원강만호부(元江萬戶府)를 설치하였다.²⁵⁸ 후에 위

도를 두었다.

- 253) 白蠻: 현재 白族의 先民으로, 漢代와 晉代의 僰人이 변화한 것이다. 僰人은 羌族의 別稱으로 氏羌에서 분화된 이들이었다. 처음에는 四川省 서부와 雲南 境내에 분포하였다. 이들은 서남 지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다. 史書의 기록에 의하면 春秋시대와 戰國시대 초기부터 왕 조는 이들과 대치했으며, 西漢 초기에 이르러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爨道를 설치했는데, 그 중심지는 宜賓縣이었다. 漢代부터 이 지역은 물산이 매우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많은 漢族들이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 254) 威遠: 현재 四川省의 內江市 威遠縣 지역이다. 이 지역에 행정기구가 설치된 것은 泰나라 때로, 군대를 주둔시켜 서남쪽의 소수민족들을 방어하도록 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威遠은 원래 渠州 지역에 속했으나 隋나라의 開皇 3년(583)에 威遠戍를 설치하였고, 開皇 11년(591)에 威遠縣으로 바꾸었는데, 威遠이라는 이름은 遠人을 威撫한다는 뜻이다. 唐나라 武德 연간(618~626)에 渠州를 설치하고 威遠縣을 이에 예속시켰다. 貞觀 원년(627)에 威遠縣 안에 夔口至如 2개의 縣을 두었고, 貞觀 8년(634)에 夔口至如 두 현을 다시 威遠에 예속시켰는데, 縣城은 夔城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송나라 乾德 5년(967)에 和義縣을 威遠에 편입하여 渠州에 예속시켰다. 明 洪武 4년(1371)에 榮德縣에 편입시켰다가 洪武 9년(1376)에 다시 원래대로 환원했다.
- 255) 和泥: 지금은 哈尼어 표기하는데, 哈尼族을 말한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雲南省 西南部 都江 하류인 紅河 서쪽 哀牢山脈 新平·靈源·墨江·元江·紅河·元陽·綠春·金平·江城 등 縣에 분포한다.
- 256) 農智高(1025~1055): 北宋 때 安德州(지금 廣西省 壯族 자치구 靖西縣 安德鎮) 사람으로, 성년이 된 후 그 부친과 함께 廣州에서 활동하였다. 慶曆 원년(1041)에 僊甌州(지금의 廣西省 壯族 자치구 靖西縣 지역)에서 大曆國을 세워 安南의 리(李, Ly) 왕조와 맞섰다. 동시에 그는 宋朝에 歸降을 청하여 여러 部를 총괄할 수 있는 직함을 원하였다. 자신의 고향인 安德州에 南天國을 세우고 仁惠皇帝라고 칭하였고, 景瑞라는 연호도 사용하였다. 여러 차례 안남을 공격하였고, 宋朝에 귀부할 것을 청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에 皇佑 4년(1052) 4월에 그는 군대를 이끌고 宋朝에 반기를 들었고, 邕州를 장악해서 나라 이름을 大南國으로 바꾸고 연호도 啓曆으로 바꾸었다. 여러 차례 송의 군대를 패배시켰는데, 1053년에 그는 송의 군대에 패배하여 大理로 도망하였는데, 그 이후의 일은 알 수가 없다.
- 257) 阿夔: 白族의 先民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浪夔·僰人·阿夔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그들이 거주했던 곳은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雜族自治州 지역으로, 원나라 때에 조정에 귀부하여, 阿夔部 萬戶府를 설치했다(『明史』 卷313 土司傳 「雲南」 참조)

원에 원강로(元江路)를 변경하여 설치하여 나반·마룡(馬龍) 등 12부를 관령하도록 하였고, 임안·광서(廣西)²⁵⁹·원강등처선무사에 예속시켰다.

洪武十五年改元江府。十七年，土官那直來朝貢象，以那直為元江知府，賜襲衣冠帶。十八年置因遠羅必向長官司隸之，以土酋白文玉為副長官。二十年遣經歷楊大用往元江等府練兵，時百夷屢為邊患，帝欲發兵平之故也。二十六年置元江府儒學。二十七年，知府那榮及白文玉等來朝貢。

홍무 15년(1382)에 원강부(元江府)로 바꾸었다.²⁶⁰ [홍무] 17년(1384)에, 토관 나직(那直)이 내조²⁶¹하여 코끼리를 바치니, 나직을 원강의 지부로 삼고 습의(襲衣)²⁶²와 관대를 내려주었다.²⁶³ [홍무] 18년(1385)에, 인원라필진(因遠羅必向)장관사(長官司)²⁶⁴를 설치하여 그곳에 예속시켰고, 토주 백문옥(白文玉)을 부장관(副長官)으로 삼았다.²⁶⁵ [홍무] 20년(1387)에,

258) 元江萬戶府는 憲宗 4년(1254)에 설치되었고, 馬龍步千戶所·他步二千戶所를 관할하였다. 이 지역은 현재의 新平·墨江縣 지역이다. 설치할 당시에는 그 지역을 직접 통치하지는 못하였고 羈縻政策을 바탕으로 제어하다가 실제로 지배하게 된 것은 至元 연간(1264~1294)이었다(賈餘, 1988: 128).

259) 廣西「南書」 「馬武」의 荊州와 荆·揚 2州의 塞外 지역으로, 元代에 廣西兩江道宣慰使司를 두고 靜江路를 治所로 삼았다. 湖廣行中書省에 속하였으나, 順帝 至正 연간(1341~1367) 말에 宣慰使司를 廣西等處行中書省으로 고쳤다. 明朝에 들어와 초기에는 元朝의 체도를 답습하여 廣西等處行中書省으로 그대로 칭했으나,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다. 府 11·州 48·縣 50·長官司 4곳을 관할하였다.

260) 이와 관련된 내용은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참조.

261) 雲南 彝族의 那氏土司는 洪武帝로부터 那氏 姓을 하사받았고, 洪武 16년(1383)부터 元江府의 知府 직함을 제수받았다. 그 世系에 대해서는 賈餘는 那直, 那榮, 那那, 那中, 那瑞, 那顯, 那楚, 那增, 那瀾, 那欽, 那憲, 那監, 那從仁, 那恕, 那天福, 那嵩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賈餘, 1992: 725~727). 그러나 余貽澤은 那直, 那榮, 那忠, 那端, 那憲, 那從仁, 那恕, 那天福, 那嵩 등으로 언급하였다(余貽澤, 1968: 94).

262) 襲衣: 황제가 신하에게 내리는 服裝을 일컫는다. 고대에 예의를 행할 때, 襦 위에 입는 상의이다.

263) 洪武 17년 2월에, 那直을 元江府 知府로 삼았고, 襲衣와 冠帶를 내려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9 洪武 17년 2월 庚寅條 참조). 코끼리를 바쳤다는 내용은 『太祖實錄』 卷158 洪武 17년 정월 丙子條에 있다.

264) 長官司: 土官衙門의 하나로, 長官(正六品)과 副長官(從七品)을 설치하였다.

경력 양대용(楊大用)을 원강 등 부에 보내어 군대를 훈련시키게 하였는데, 당시에 백이(百夷)²⁶⁶⁾가 여러 차례 변경에 우환이 되었던 것으로 황제가 군대를 일으켜 이를 평정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²⁶⁷⁾ [홍무] 26년(1388)에 원강부에 학교를 설치²⁶⁸⁾하였다. [홍무] 27년(1389)에 지부 나영(那榮)²⁶⁹⁾과 백문옥 등이 내조하여 조공하였다.²⁷⁰⁾

永樂三年，榮復入朝貢。帝厚加賜予，遂改爲元江軍民府，給之印信。榮請躬率兵及饋運，往攻八百，帝嘉勞之。元江府又奏，石屏州洛夾橋，每歲江水衝壞，止令本府修理，民不堪，乞命石屏州協治，從之。九年，那榮率頭目人等來朝，貢馬及金銀器，賜予如例。十二年，故土知府那直子那邦入貢方物。

영락 3년(1405)에 나영이 다시 내조하여 조공하였다. 황제는 후하게 [규정보다] 더하여 [하사품들] 내려 주었고, 마침내 원강군민부(元江軍民府)²⁷¹⁾로 변경하였으며, 인신을 주었다.²⁷²⁾ 나영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물품을 운반하여 팔백(八百)²⁷³⁾으로 가서 공격하겠다고

265) 白文玉을 副長官으로 삼은 내용은 『太祖實錄』 卷172 洪武 18년 3월 戊戌條 참조.

266) 百夷: 雲南省 부근에 살던 傣族을 일컫는다. 傣族은 漢代에 ‘滇越’, ‘掸’이라 칭했고, 唐代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環境이나 服飾의 특징과 관련하여 ‘茫蠻’·‘茫天達’ 및 ‘黑齒蠻’·‘金齒蠻’ 등으로 불렸다. 이후 宋代에는 ‘白衣’, 元代에는 ‘金齒百夷’, 簡稱해서 ‘百夷’라 칭했으며, 明代에도 그대로 ‘百夷’라 칭했다. 이들은 洪武 15년(1382)에 明에 歸附함에 따라 明 太祖는 百夷土司區를 설치하고 百夷土司制度를 제정했으며, 이후 成祖는 百夷土司의 印信·底簿·勘合 등 제도를 제정하여 百夷에 대한 통치를 강화시켰다.

267)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82 洪武 20년 5월 庚子條 참조.

268)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는 府學을 의미한다. 明朝에서는 국가 제정으로 운영하는 府·州·縣學을 두었다.

269) 那榮은 那直의 아들이다.

270) 이때 雲南 麓川平緬宣慰使 思倫發과 元江府 土官知府 那榮, 因遠羅必甸長官司 長官 白文玉 등 50여 곳의 土官들이 함께 조공하여 말과 코끼리와 방물을 바쳤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31 洪武 27년 정월 辛丑朔條 참조).

271) 元江軍民府의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元江哈尼族彝族自治州 元江縣의 縣城이다.

272) 이때 那榮은 내조하여 말과 방물을 바쳤고, 명 조정은 鈔幣를 내려주었다. 또한 那榮에게 印信과 함께 金幣 1개, 文綺衣 3襲, 鎗18 匹, 銀 150兩, 紗 600錠을 내려 주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44 永樂 3년 4월 戊申條, 辛亥條 참조).

273) 八百: 八百國을 일컫는다. 元代에 八百等處宣慰使司가 설치되었는데, 明朝는 洪武 24년(1391)에 명칭을 변경하여 八百大甸軍民宣慰使司(지금의 緬甸 掸邦 東部와 泰國 湄邁 地區에 위치함)를 설치하였다.

청하니, 황제가 가상히 여겨 그를 위로하였다.²⁷⁴⁾ 원강부에서 다시 보고하기를, 석병주(石屏州)²⁷⁵⁾의 낙협교(洛夾橋)는 매년 강물이 부딪쳐서 무너졌는데, 오직 본 부(府)에서만 수리하게 하여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석병주에 수리를 힘써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영락] 9년(1411)에 나영이 두목들을 이끌고 내조하여서 말과 금은 그릇을 바치니, 규정에 따라 [하사품들] 내려주었다.²⁷⁶⁾ [영락] 12년(1414)에 옛 토지부 나직의 아들 나방(那邦)이 입조하여 방물을 바쳤다.²⁷⁷⁾

宣德五年，黔國公沐晟奏，元江土知府那忠，被賊刀正·刀龍等焚其廡宇及經歷印信。今獲刀龍·刀洽赴京，乞如永樂故事，發遣東安置，以警邊夷，從之。命禮部鑄印給之。正統元年，因遠羅必甸長官司遣人來朝貢馬，正德二年以那瑞襲土知府。

선덕 5년(1430)에 검국공 목성이 상주하기를, 원강토지부(元江土知府) 나충(那忠)이 도적 도정(刀正)·도룡(刀龍) 등에게 관사와 경력의 인신을 불태우는 일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도룡·도합(刀洽)을 사로잡아 경사로 보내니, 영락 연간(1402~1424)의 옛 규정에 따라 요동(遼東)으로 보내 충군(充軍)²⁷⁸⁾하여 변방의 오랑캐들을 경비하도록 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또한] 예부(禮部)²⁷⁹⁾에 지시하여 인신을 다시 주조하여 주도록

永樂 2년(1404)에 八百大甸의 방물 나누어 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하였으나, 후에 폐하였다. 현재의 태국 치앙마이(Chiang Mai)주 사라피(Saraphi)군 농퐁(Nong Phung)시이다.

274)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44 永樂 3년 7월 乙卯條 참조.

275) 石屏州: 元나라 때에 石屏州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石屏州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西北쪽에는 寶秀關巡司가 있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石屏縣 지역이다.

276) 이때 명 조정은 이들에게 銀紗文綺衫羅를 차도록 하여 하사하였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118 永樂 9년 8월 甲辰條 참조).

277) 曲靖軍民府 龍華寺 승려 志禪도 함께 내조하였다. 명 조정에서는 皇太子가 예에 따라 연회를 베풀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151 永樂 12년 5월 辛巳條 참조).

278) 充軍이란 죄를 범한 자를 衛所로 보내어 軍士로서 사역시키는 것을 말한다.

279) 禮部: 北魏 때 처음 마련된 관청으로서, 隋代 이후 중앙정부 6부의 하나가 되었으며 尙書 1명을 두었다. 그 밑으로 祠部, 膳府, 主客의 네 개의 관청이 있었으며, 처음에는 侍衛이 관장하다가 大業 3년(607)에 시랑을 상서의 보좌역으로 바꾸었다. 五禮와 과거를 주관했다. 隋代부터 宋代까지는 尙書省에 속해 있었으며, 元代에는 中書省의 관할에 두었고, 명정시대에 이르러 독립된 기관이 되어 황제로부터 직접

하였다.²⁸⁰⁾ 정통 원년(1436)에 인원라궐전장관사가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말을 바쳤다. 정덕 2년(1507)에 나난(那端)에게 토지부를 세습하게 하였다.²⁸¹⁾

嘉靖二十五年，土舍那繼殺其姪土知府那憲，奪其印，并收因遠驛印記。巡撫應大猷以聞，命鎮巡官發兵剿之。二十九年，那繼懼，密約交蠻武文淵謀亂，撫按官胡奎、林應箕，總兵官沐朝弼以聞，請以副使李維、參政胡堯時督兵剿之，制可。那繼益縱兵攻掠村寨。沐朝弼與巡撫石簡調武定、北勝、亦佐等土、漢兵，分五哨。調兵既集，朝弼與簡駐臨安，分部進兵，破木龍寨，降甘莊，賊勢漸蹙。那繼遣經歷張維及生儒數人詣南茂監督王養浩所乞降。時左布政徐樾以督餉至南茂，樾迂聞，聞維言，謂繼誠計窮，乃約翼日令繼面縛出城來降。左右謂翼日不可信，樾不聽，如期親率百人往城下受降。繼縱象馬夷兵突出衝之，樾及左右皆死。巡按趙炳然以聞，并參朝弼、簡及養浩等失事罪。帝降敕切責，罷簡職，養浩等各住俸，剋期捕賊贓罪。朝弼與簡乃督集五哨兵，環元江而壁。命南茂哨督兵渡江攻城，還路通哨，甘莊哨各精卒二千佐之。那繼知二哨精卒悉歸南茂，潛遣兵象乘虛衝路通哨。官兵不意賊至，倉猝燒營走。監督都維繼奔入甘莊哨，甘莊亦大潰，督哨李維亦遁，惟餘南茂逼城而軍。武定女土官羅氏、寧州土舍祿紹先、廣南僱兵頭日陸友仁咸恨那繼戕主奪嫡，誓死不退。督哨王養浩因激獎之，翼日鼓譟攻城，賊大敗，閉門不出。官兵圍之，繼乞降，官兵懲徐樾之敗，不應。城中折屋而爨，斗米銀三四錢，時瘴毒起，大兵乃復撤，期秋未征之，朝弼以事聞。帝定二哨失事諸罪，行撫臣厚賞羅氏、祿紹先、陸友仁等，敕朝弼會同新撫臣鮑象賢鳩兵討賊。

명을 받게 되었다. 明 洪武 13년(1380)에 증시성을 폐지하고 都로 승격하였으며, 尚書 1명과 左右 侍郎 각 1명 및 四司郎中, 員外郎, 主事 등의 관원을 두었다. 청대 역시 명대의 제도를 답습하여 天聰 5년(1631)에 처음 예부를 설치하고 비일러(Beile)가 총괄했으며, 그 밑에 承政, 參政, 啓心郎 등의 관리를 두었다. 崇德 3년(1638)에 承政이 총책임자로 되었다가, 順治 원년(1644)에 다시 승정을 尚書로, 參政을 侍郎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順治 5년(1648)에 尚書에 만주인과 한인 각각 1명을 두도록 정했으며, 다시 順治 15년(1658)에는 侍郎도 滿洲人和 漢人을 각각 1명씩 두도록 하였다.

280)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72 宣德 5년 11월 壬子條 참조.

281) 이와 관련된 내용은 『武宗實錄』 卷29 正德 2년 8월 丁酉條 참조.

가정 25년(1546)에, 토관의 속관 나감(那鑑)이 그 조카인 토지부 나현(那憲)을 죽이고 그의 인신을 탈취하였으며, 아울러 인원역(因遠驛)의 인기(印記)도 취하였다. [이에] 순부 응대유(應大猷)²⁸²⁾가, 진순관(鎭巡官)에게 병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²⁸³⁾ [가정] 29년(1550)에, 나감이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교지(交趾)²⁸⁴⁾의 만인 무문연(文武淵)²⁸⁵⁾과 밀약을 맺어 반란을 일으키려고 도모하였다. 순안관(撫按官) 호규(胡奎)·임응기(林應箕), 총병관(總兵官) 목조필(沐朝弼)²⁸⁶⁾이 [조정에] 보고하면서, 부사(副使) 이유(李維)·참정(參政) 호요시(胡堯時)에게 병사를 이끌고 그들을 토벌하도록 청하니, [황제가 이를] 허가

282) 應大猷(1487~1581): 浙江 仙居 사람으로, 字는 邦升이고, 號는 容庵이다. 正德 9년(1514)에 進士가 되어 南京 刑部主事로 임명되었다. 宸濠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兵部職方司로 승진하였고, 樞勳郎中이 되었다. 嘉靖 6년(1527)에 廣東參政이 되었고, 후에 雲南右布政司가 되었다. 嘉靖 23년(1544)에 廣東右布政司가 되었고, 雲南과 廣東의 巡撫를 맡았다. 이들 지역은 明珠·象牙·犀角 등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으나 應大猷는 그것들을 넘보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후에 副都御史가 되어서 四川·山東 등지를 巡撫하였고, 京師로 돌아와서 吏部右侍郎에 임명되었다. 嘉靖 31년(1552)에 刑部尙書가 되었다. 嚴嵩이 권권을 장악한 후 하옥된 戶部郎中 孫綸을 변호하였고, 이 때문에 嘉靖 40년(1561)에 퇴직하였다.

283)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307 嘉靖 25년 정월 己卯條 참조.

284) 交趾: 15세기 초에 베트남 지역에 설치된 承宣布政使司의 명칭이다. 永樂帝는 胡季犛 毒벌을 명분으로 베트남에 出兵하여 永樂 5년(1407)에 이곳을 병합하는 동시에 交趾承宣布政使司를 두어 통치하였다. 그러나 黎利를 首長으로 하는 독립군이 일어나면서 明軍과 전쟁에 돌입하였다. 결국 明軍이 패배하면서 宣德 2년(1427)에 交趾布政使司를 폐지하고 베트남 독립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곳은 옛날 南交의 땅으로서 歷代에는 越裳氏의 땅이었고, 秦始皇 初에 百粵을 병합하여 桂林, 南海, 象郡을 두었으며, 그 후 南海尉가 하였다. 前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南越를 멸망시키고 9郡 중 하나로 삼치했는데, 후에 交州로 개칭하였다. 元帝(제위 전48~전33) 때에 交趾刺史가 七郡을 다스렸는데 交趾·日南·九真이 지금의 안남 땅에 해당된다. 交趾는 지금의 광둥한 지역, 九真은 통킹만 남쪽 해안지대로 淸化·乂安·河靜等 等 지역, 日南은 九眞의 남쪽인 廣平·廣治·承天省 등 지역을 가리킨다.

285) 武文淵: 생몰년 미상. 베트남어로는 Vũ Văn Uyên이라고 표기한다. 베트남의 南北朝(Nam Bắc triều) 시기에 남쪽의 레(Le) 왕조의將領이다. 그는 일찍이 북쪽의 맥(Mac) 조정을 정벌하는데 참여하였다. 당시 베트남은 북쪽에는 막당중(Mac Dang Dung)이 천달한 후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레(Le) 왕조를 복원한 세력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537년 武文淵은 명 조정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명 조정은 그를 安南總兵使薩爾侯로 책봉하고 冠帶를 하사하였다.

286) 沐朝弼: 定遠 사람으로, 姓 沐朝輔를 대신하여 雲南을 鎮守하였는데, 姓 沐朝輔의 아들 沐應·沐霖이 연이어 사망하자 沐朝弼이 沐園公의 작위를 계승하여 계속해서 雲南을 진수하였다. 隆慶 6년(1572)에 죄를 지어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나, 張居正이 그 조상이 3대에 걸쳐 큰 공을 세운 점을 들어 관대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하여, 신분이 강등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였다.²⁸⁷⁾ 나감이 더욱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촌寨(村寨)를 공격하고 약탈하였다. 목조필은 순무 석간(石簡)과 함께 무정·복승·역좌(亦佐) 등의 토병·한병을 징발하여 다섯 초(哨)²⁸⁸⁾로 나누었다. 군대를 징발하여 집합한 후에 목조필과 석간은 일인에 주둔하였고, 부대를 나누어서 병사를 진격시켰다. 목룡寨(木龍寨)를 공략하고 감장(甘莊)을 항복시키자 적의 세력은 점차 위축되었다. 나감이 경력 장유(張維)와 생유(生儒) 여러 사람을 남이(南美) 감독 왕양호(王養浩)가 있는 곳에 보내 항복하겠다고 청하였다. 그때 좌포정사(左布政司) 서월(徐德)이 남이에 이르러서 군량을 독촉하고 있었는데, 서월은 고지식하고 어리숙해서 장유의 말을 듣고서 나감이 확실히 계획이 다했다고 말하고는 바로 다음날을 약정해서 나감에게 면박(面縛)²⁸⁹⁾하고 성을 나와서 투항하도록 했다. 좌우에서 모두 오랑캐의 속임수이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서월은 듣지 않고 예정대로 직접 백 명을 이끌고 성 아래로 가서 항복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나감은 코끼리와 말, 병사들을 풀어서 갑자기 나와 돌격하였고, 서월과 측근들 모두 사망하였다. 순안 조병연(趙炳然)²⁹⁰⁾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였고, 아울러 목조필·석간·왕양호를 전쟁에서 실패한 죄로 탄핵하였다. [이에] 황제가 칙서를 내려 징책하고, 석간의 관직을 박탈하고 왕양호 등에게는 각각 녹봉 지급을 정지시켰으며, 기한 내에 죄를 체포하여 속죄하도록 하였다.²⁹¹⁾ 목조필과 석간은 이에 다섯 초병을 모아 독려하여 원강을 둘러 군부(軍壘)를 만들었다. [그리고서] 남이초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성을 공격하게 하였고, 노통초(路通哨)·감장초(甘莊哨)에서 각각 정에 병사 2천 명을 선발하여 이를 돕도록 하였다. 나감은 두 개 초의 정에 병사들이 모두 남이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몰래 병사와

코끼리를 보내 빈 틈을 타서 노통초를 공격하였다. 관병들은 생각지도 못한 적들이 이르자, 갑자기 군영을 불태우고 도망갔다. 감독(監督) 학유악(赫維嶽)은 감장초로 도망쳐 들어갔는데 감장초도 크게 케멸당했으며, 초(哨)를 통솔하던 이유(李維)도 도망쳐 오직 남아 있는 남이 성에 이르러서 군대를 주둔시켰다. 무정의 여토관 구씨·영주(寧州)²⁹²⁾ 토사(土酋) 녹소선(祿紹先)·광남(廣南)²⁹³⁾ 농병(農兵)²⁹⁴⁾의 두목 옥우인(陸友仁)이 모두 나감이 주인을 죽이고 적자의 지위를 빼앗은 것을 미워하여, 죽어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초를 감독하던 왕양호가 이로 인해 그들을 격려하였으며, 다음날 북을 치고 고향을 지르며 성을 공격하자 적들은 크게 패하고서 성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관병들이 그곳을 포위하자 나감이 항복을 청하였다. 관병들이 서월의 패배를 경계로 삼아 응하지 않았다. 성 안에서는 짐을 부수어 밥을 지었는데, [당시] 한 두(斗)의 미가(米價)가 은 3~4전(錢)이었다. 당시에 감독(瘴毒)²⁹⁵⁾이 발생해서 대군이 이에 다시 철수하였고, 늦가을까지 기한을 정해 이들을 정벌하기로 하고서 목조필이 이 일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황제는 두 초에서 전쟁에 실패한 여러 신하들의 죄를 정하였고, 무신(撫臣)에게 명하여 구씨·녹소선·옥우인 등에게 후한 상을 내리게 하였으며, 목조필에게는 칙서를 내려 새로운 무신 포상헌(鮑象賢)²⁹⁶⁾과 회동하여 군대를 모아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²⁹⁷⁾

287)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367 嘉靖 29년 11월 己亥條 참조.

288) 哨: 군사 편제 단위이다. 明 永樂 연간(1402~1424)에 보병과 기병을 中軍, 左右枝, 左右哨로 나누었으며, 이것을 五軍이라 했다. 嘉靖 연간(1522~1566)에 이르러 이 명칭을 모두 없애지만 이후 “哨”는 비교적 소규모의 편제 단위로 개편되어 3,120명을 1枝라 했으며, 그것을 中哨, 左哨, 右哨로 각각 나눴다. 청대 중엽 이후 초는 80명~100명으로 명대에 비해 훨씬 편성 단위가 축소되었다.

289) 面縛: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묶고 앞을 보게 하는 것으로 투항한다는 의미의 행동이다.

290) 趙炳然: 생졸연대 미상. 字는 子晦로 劍州(지금의 廣元市 劍閣縣 지역) 사람이다. 嘉靖 14년(1535)에 進士가 되어 新喻知縣에 제수되었다. 給事中李文과 함께 宣大山西의 兵餉문제에 대해 탄핵하였으며, 督撫 樊繼祖史道 등 117명이 청명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후 大理寺丞, 少卿으로 발탁되었고, 湖廣을 巡撫하였으며, 이후 左副都御史로 승임하였다.

291) 『世宗實錄』에는 木龍寨가 未龍寨로 표기되어 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374 嘉靖 30년 6월 乙亥條 참조).

292) 寧州: 지금의 雲南省 玉溪市 華寧縣 寧州鎮인.

293) 廣南: 宋代에는 特磨道로 불렸고, 元代의 廣南西路宣慰司를 두었다. 洪武 15년(1382)에 귀부한 후 廣南府로 고쳤으며, 富州(지금의 富寧縣) 1곳을 통할하였다. 현재의 雲南省 龍勝各族自治에서 서북 60리에 위치한 廣南村 지역이다.

294) 廣南 지역의 土司는 원나라 초에 시작되었는데, 儒氏家族이 대대로 세습하였다. 이들은 元·明에 모두 중국에 臣服하였다. 淸 중기까지 廣南의 최고 통치자로서 정치·군사·민刑·錢糧 등에 대한 권한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儒氏土司가 징발하여 관리하던 군사들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295) 瘴毒: 악성 학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두통, 오한과 허리와 등이 뻐뻐하면서 무거운 증상이 나타난다.

296) 鮑象賢(1496~1568): 字는 復之, 號는 思庵으로 安徽 獻縣 사람이다. 嘉靖 8년(1529)에 進士가 되어 御史에 제수되었다. 湖廣僉事, 雲南副使를 역임하였고, 右副都御史에 이르렀으며, 嘉靖 30년(1551)에 운남을 巡撫하였다. 嘉靖 32년(1553)에는 兵部右侍郎이 되어 兩廣의 軍務를 관리하였다. 이어 곧 南京 兵部右侍郎이 되었다가 파직되어 귀향하였다. 嘉靖 43년(1564)에 戶部右侍郎兼右都御史가 되었고, 嘉靖 44년(1565)에 兵部右侍郎이 되었다. 隆慶 2년(1568)에 7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死後 工部尚書에 追贈되었다.

297)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375 嘉靖 30년 7월 壬寅條 참조.

三十二年，象賢至鎮，調集土·漢兵七萬人，廣集糧運，剋期分哨進剿元江，爲必取計。那羅懼，伏藥死。象賢撤百戶江輔入城，撫諭其衆，擒其賊首，及收土官那憲之阿捉，殺布政徐德之光龍·光色等，皆斬首以獻。鑑子忽輪所占那濟·封鑿等村寨，并出所掠鎮沅府印，納象十二隻，輸屢歲進賦。象賢命官民推那氏當立者，衆聚前土官那端從孫從仁。象賢疏言其狀，請廢恣，貸其死，命從仁暫統其衆，加江輔以千戶職，從之。萬曆十三年以元江土舍那恕招降車里功，許襲祖職，賞銀幣。

[가정] 32년(1553)에, 포상현이 진에 이르러 토병·한병 7만 명을 징발해 모으고, 널리 군량을 모아 운반하여, 기한 내에 초를 나누어 원강으로 진격하여 조무하였는데, 반드시 [공격하여] 취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에] 나감이 두려워하여 약을 먹고 죽었다. 포상현은 백호 왕보(江輔)에게 격문을 보내 입성하여 그 무리들을 안무하고 효율하게 하였고, 그 격의 우두머리를 사로잡았는데 토관 나현(那憲)을 살해한 아착(阿捉), 포정사 서원을 죽인 광룡(光龍)·광색(光色) 등이었으며, 모두 참수하여 바쳤다. 나감의 아들 나서(那恕)가 꺾기했던 나기(那旂)·봉란(封鑿) 등의 촌채를 내놓았고, 약탈한 진원부(鎮沅府)²⁹⁸의 인신도 내놓았으며, 코끼리 23척(隻)을 바쳤고 여러 해 동안 납부하지 않은 부세(賦稅)²⁹⁹를 내었다. 포상현은 관민들에게 나씨로서 마땅히 세울만한 자를 추천토록 하였는데, 사람들이 이진 토관 나단(那端)의 종손(從孫) 나중인(那從仁)을 천거하였다. 포상현은 상소하여 그 상환을 절명하였으나, 나지를 폐하여 그의 죽을 죄를 면해주고, 나중인에게 잠시 그 무리를 통솔케 하고 왕보에게 친화직을 더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³⁰⁰ 만력 13년(1585)에, 원강 토사(土舍) 나서가 차리(車里)³⁰¹를 투항하게 한 공로가 있어서 [그에게] 조상의 직무를 세습할 것을 허락하였고, 은폐(銀幣)를 상으로 내었다.³⁰²

298) 鎮沅府: 지금의 雲南省 思茅地區 鎮沅彝哈尼族拉祜族自治縣 지역임.

299) 賦稅: 田賦와 기타 稅收에 대한 총칭이다.

300)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393 嘉靖 32년 정월 丁酉條 참조.

301) 車里: 元代에 운남에 설치된 車里軍民宣慰使司印데, 洪武 15년(1382)에 軍民府로 되었다. 洪武 19년(1386)에 軍民宣慰使司로 고쳤으나, 永樂 연간(1403~1424)에 폐지되었다가 宣德 6년(1431)에 다시 설치되었다. 현재의 雲南省 景洪市이다.

302) 萬曆年間에 운남 지역의 토사들은 명조의 통치에 저항하기도 하고, 토사들끼리 관직 계승, 인구, 토지

領長官司一，曰因遠羅必甸。

장관사(長官司) 하나를 통령하고, 인원라필전이라고 한다.³⁰³

永昌 영창

永昌，古哀牢國。漢武帝時，置不韋縣。東漢置瀾滄郡，尋改永昌郡。唐屬姚州，後爲南詔蒙氏所據，歷段氏·高氏皆爲永昌府。元初，於永昌立三千戶所，隸大理萬戶府。至元間置永昌州，尋爲府，隸大理路，置金齒等處宣撫司治。

영창(永昌)³⁰⁴은 고대의 예뢰국(哀牢國)³⁰⁵이다. 한나라 무제(武帝, 전156~전87; 재위 전141~전87)³⁰⁶ 때에 [이곳에] 불위현(不韋縣)³⁰⁷을 설치하였다. 동한(東漢)³⁰⁸ 시기에는 난

등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었다.

303) 因遠羅必甸長官司는 元朝에 설치한 것을 明朝에서 계승한 것이다. 명조는 토리를 이용하여 다른 토사들이 일으킨 분열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雲南에 대한 통치를 이어갈 수 있었다(鄒映, 2009: 43~44).

304) 永昌: 8세기 무렵 南詔가 설치한 府인데,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保山이며, 清代에는 지금의 永平·保山·施甸·龍陵·永德·鎮康 등 여러 縣을 관할했다.

305) 哀牢國: 지금의 운남성 서쪽에 있었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哀牢는 산 이름이다. 지금의 保山市를 중심으로 하는 怒江 지역에서 일어난 哀牢 夷가 이 지역 소수민족들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고 한다. 漢나라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장악하자 哀牢國의 왕은 귀부하였고, 後漢 시기에 이곳에 永昌郡을 설립하였다. 민족의 명칭 및 국명의 의미와 기원, 종족계통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後漢書』의 『西南夷傳』 등을 보면, 龍의 아들 九隆을 그 시조로 하는 전설이 있고, 용의 文身을 하고 옷에 꼬리를 다는 풍속이 있었다. 이들 왕족의 친족 명칭에 티베트·미얀마語族에 특유한 父子連名制가 없는 것으로 보아 타이족계의 문화요소가 짙음을 알 수 있으나, 티베트·미얀마어족의 영향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47년 후한과 싸워서 패하여 51년에 服屬하고, 69년 후한이 이 지역에 哀牢·博南의 두 縣을 두고, 益州郡의 6縣과 합하여 永昌郡이라 하였다(김선자, 2001: 401).

306) 武帝: 前漢의 제7대 황제 劉徹의 諱號이다. 景帝의 열한 번째 아들로 7세 때에 황태자로 봉해져 16살에 등극했다. 해의 원정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匈奴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흉노 공약에 박자를

창군(瀾滄郡)을 설치하였고, 오래지 않아 영창군(永昌郡)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당나라 때에는 요주(洮州)에 속했는데, 후에 남조 몽씨에게 점거되었고 단씨(段氏)·고씨(高氏)를 거치면서 모두 영창부(永昌府)라 하였다. 원나라 초기에는 영창에 세 개의 천호소를 세워 대리만호부(大理萬戶府)에 예속시켰다. 지원 연간(1264~1294)에는 영창주(永昌州)를 설치하였고, 얼마 후에 부(府)로 [승격]하여 대리로(大理路)에 예속시켰으며, 금치(金齒)³⁰⁹등서진무사의 치소를 두었다.

洪武十五年定雲南，立金齒衛。以元雲南右丞觀音保爲金齒指揮使，賜姓名李觀。十六年，永昌州土官申保來朝，詔賜錦二匹·織金文綺二匹·衣一襲及銀花銀帶·鞞履。十七年以申保爲永昌府同知。四月，金齒土官段逸遣把事及其子弟來貢，賜絳角紗有差。置施向長官司，以土酋阿干爲副長官，賜冠帶。

홍무 15년(1382)에 운남을 평정하고서 금치위(金齒衛)를 세웠다. 원나라의 운남우승(雲南右丞) 관음보(觀音保)를 금치위휘사(金齒指揮使)로 삼았고, 이관(李觀)이라는 성명(姓名)을 내려주었다.³¹⁰ [홍무] 16년(1383)에, 영창주 토관 신보(申保)가 내조하니 조시를 내려 금

치하기 위해서 무제는西域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자 張騫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서역에 대한 정보를 얻은 무제는西域과 통하는 실크로드 확보에 열정적이었다. 또한 衛南과 霍去病 등으로 하여금 흉노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흉노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무제는 여러 차례 서역 국가들을 세력권에 포함시키려 했는데, 특히 기원전 104년에는 李廣利에게 6만 명의 군사를 주어 大宛을 정복하게 했다. 그의 통치시기에 서역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영토가 크게 확대되었다. 동쪽으로 關越과 東越를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南越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기원전 108년에는 4년간의 전쟁 끝에 王儉城을 함락시키고 朝鮮을 멸망시켰다.

- 307) 不韋縣: 기원전 109년에 설치되었다. 漢武帝가 이 지역을 정복하여 영역으로 확보한 후 益州郡을 설치하였는데, 不韋縣은 益州郡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하였다. 68년에 戛牟國이 귀부하자 이 지역을 益州郡에서 분리하여, 다른 7개의 현과 함께 永昌郡으로 재편하였다.
- 308) 漢代는 王莽이 세운 新을 기준으로 前漢(전202~9)과 後漢(25~220)으로 시대를 구분하는데, 後漢을 東漢이라고 한다.
- 309) 金齒는 元代에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元의 世祖 至元 4년(1267)·10년(1273)에 운남을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金齒는 그 중 하나이다. 至元 28년(1291)에 다시 大理金齒等處宣慰司都元帥府를 설치하였다. 명대에는 永昌城(지금의 운남성 保山縣城)이다.

(錦) 2필·직급문기 2필·옷 1습(襲) 및 삽화은대(鍍花銀帶)·화말(緡襪)을 하사하였다.³¹¹ [홍무] 17년(1384)에 신보를 영창부동지로 삼았다.³¹² [홍무 17년] 4월에, 금치 토관 단혜(段惠)가 파사(把事)³¹³와 그 자제를 보내 내조하여 조공하니, [이에] 기백(綺白)³¹⁴과 전초(錢鈔)³¹⁵를 차등하여 내려주었다. 시전장관사(施甸長官司)를 설치하고서 토주 아간(阿干)을 부장관(副長官)으로 삼고 관대를 내려주었다.³¹⁶

十八年置金齒衛指揮使司。二十年，遣使諭金齒衛指揮儲傑·嚴武·李觀曰：「金齒遠在邊徼，土民不遵禮法，爾指揮李觀處事寬厚，名播蠻中，爲諸蠻所愛。然其下多恃功放恣，有乖軍律，故特命傑·武輔之，觀之寬，可以綏遠；傑·武之嚴，可以取下。救至，其整練諸軍，以觀外變。」

[홍무] 18년(1385)에 금치위휘사사(金齒衛指揮使司)를 설치하였다.³¹⁷ [홍무] 20년(1387)에, 사신을 보내 금치의 지휘 거결(儲傑)·염무(嚴武)·이관(李觀)에게 효유하여 이르기를, “금치는 변경에 멀리 있어 토민들이 예법(禮法)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대 지휘 이관은 일 처리를 너그럽게 하여 만민들 중에 이름이 전해져 여러 만민들이 사랑으로 받들었다. 그러나 그의 부하 대부분은 공(功)을 믿고서 방자하고 군율을 어기니, 이 때문에 거결·염무에게 특별히 그를 보좌하도록 명한다. 이관의 너그러움으로 먼 곳[의 사람들]을 안무할 수

- 310)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152 洪武 16년 2월 庚子條; 『明紀事本末』卷12 「太祖平滇」 洪武 16년 2월條 참조.
- 311)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157 洪武 16년 10월 戊午條 참조.
- 312)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159 洪武 17년 정월 壬子條 참조.
- 313) 把事는 通事·通把·土火頭 등과 함께 토사의 관직 중 文職에 속했다(成瑨錄, 2002: 91).
- 314) 綺白: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을 가리킨다.
- 315) 錢鈔: 明初 주요 화폐로 통용되던 銅錢과 寶鈔를 지칭한다. 寶鈔의 단위인 1貫은 명 초에 동전 1貫(동전 1천 개를 묶는 단위)과 같은 가치로 比定되었고, 銀 1兩과도 같은 가치로 比定되었다(佐久間重男, 1992: 168). 다만 이후 租稅의 銀納化와 銀經濟가 확산되면서 寶鈔는 사라지고 은과 동전이 남게 되자, 銀錢比價의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 316)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162 洪武 17년 5월 己酉條 참조. 余貽澤는 施甸長官司의 副長官을 阿干으로 언급하고 있다(余貽澤, 1968: 102).
- 317)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171 洪武 18년 2월 己未條 참조.

있을 것이고, 저걸·업무의 엄격함은 부하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칙서가 도착하면 여러 군대를 정돈하고 혼연하고서 바깥의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라”고 하였다.³¹⁸⁾

二十三年罷永昌府，改金齒衛爲軍民指揮使司。時西平侯沐英言，永昌居民鮮少，宜以府衛合爲軍民使司，從之。置鳳谿長官司，以永昌府通判阿鳳爲長官。二十四年置永平衛。永樂元年，賜金齒土官百戶汪用鈔一百錠·綵幣四表裏，以西平侯沐晟遣用招安罕的法，故賞之。洪熙元年，金齒軍民指揮司及騰衝守禦千戶所等土官貢馬，賜鈔幣。

[홍무] 23년(1390)에, 영창부를 없애고 금치위를 군민지휘사사(軍民指揮使司)로 바꾸었다. 당시 서평후 목영이 아뢰기를, 영창의 거주민은 상당히 적으니 마땅히 부와 위를 군민사사로 합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봉계장관사(鳳谿長官司)를 설치하고 영창부 통판 아봉(阿鳳)을 장관으로 삼았다.³¹⁹⁾ [홍무] 24년(1391)에 영평위를 설치하였다. 영락 원년(1403)에, 금치의 토관 백용(汪用)에게 초(鈔) 100경(錠)³²⁰⁾·채폐(綵幣)³²¹⁾ 4표리(表裏)³²²⁾를 하사했으며,³²³⁾ 서평후 목성이 왕용을 보내 한적법(罕的法)³²⁴⁾을 초무했기 때문에 그에게 상을 주었다. 홍희(洪熙)³²⁵⁾ 원년(1425)에, 금치군민지휘사사와 등충(騰衝)³²⁶⁾

318)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82 洪武 20년 5월 己亥條 참조.
 319) 阿鳳을 鳳谿長官司의 長官으로 삼은 내용은 『太祖實錄』 卷206 洪武 23년 11월 庚申條 참조; 阿鳳이후에는 馬牙가 永樂 10년에 내조하였고, 그 이후에는 莽氏가 長官이 되었다(余齡澤, 1968: 102).
 320) 錠: 寶鈔 1貫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보통 寶鈔 1貫은 銅錢 1,000錢을 가리킨다.
 321) 綵幣: 幣는 무늬가 있는 비단이고, 幣는 緝織의 帛을 말하는 것으로, 무늬가 있는 緝織物을 일컫는다.
 322) 表裏: 옷을 만드는데 쓰이는 비단이나 천의 겉과 안감을 일컫음.
 323)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19 永樂 원년 4월 甲寅條 참조.
 324) 罕的法은 木邦府의 土知府로 명 초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였다. 永樂 2년(1404)에 木邦府를 木邦軍民宣慰使司로 변경하였고, 土知府인 罕的法을 宣慰使로 삼았다. 木邦軍民宣慰使의 계보는 罕的法, 罕察法, 罕門法, 罕蓋法, 罕落法, 罕烈, 罕拔, 罕進忠, 罕欽로 이어진다. 이들 중에 다섯 명의 이름에는 '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여섯 번째 인물부터는 '法' 자가 보이지 않는다. '法'은 곧 漢王 혹은 土司라는 의미로 罕烈부터 그 글자가 없는 것은 아마도 명조의 改土歸流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명 조정의 土司의 세력을 약화시켜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蔡蒙, 2011: 9~10).
 325) 洪熙: 명 황조 4대 황제인 仁宗 朱高熾의 年號이다.

수어천호소 등 토관들이 말을 바치니, 초폐(鈔幣)³²⁷⁾를 내려주었다.

宣德五年設金齒軍民指揮使司騰衝州，置土知州一員。時騰衝守禦所土官副千戶張銘言，其地遠在極邊，麓川宣慰使任發不時侵擾，乞設州治。帝從之，即以銘爲騰衝知州。八年置騰衝州庫扛關·庫刀關·庫勒關·古涌二關。先是，騰衝州奏，本州路通麓川·緬甸諸處，人民逃徙者多，有悞差發貢獻，舊四百夫長隸騰衝千戶所，其庫扛關等五處，皆軍民兼守。今四百夫已隸本州，止州民守之。乞於五處置巡檢司，以土軍尹黑·張保·李輔·郭節等爲巡檢。正統二年以非額革之。

선덕 5년(1430)에, 금치군민지휘사사등충주(金齒軍民指揮使司騰衝州)를 설치하고 토저주 1명을 두었다.³²⁸⁾ 당시에 등충주어소(守禦所)³²⁹⁾ 토관 부천소 장명(張銘)이 아뢰길, 그 지역은 상당히 먼 변경에 있어 녹천선위(麓川宣慰) 사임발(思任發)³³⁰⁾이 불시에 침범하여 어지럽히니, 주의 지소를 설치해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를 허락하고, 바로 장명을 등충주주로 삼았다.³³¹⁾ [선덕] 8년(1433)에, 등충주에 고강관(庫扛關)·고도관(庫刀關)·고록관(庫勒關)·고용(古涌) 2관³³²⁾을 설치하였다. 이보다 앞서 등충주에서 상주하기를, 본 주의 도로는 녹천·면건(緬甸) 여러 곳과 통하여, 백성들이 도망쳐 이주한 자가 많고 차발(差發)³³³⁾로 진공

326) 騰衝: 현재 雲南省 西部 중국과 미얀마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保山市 관할이다.
 327) 鈔幣: 明代의 법정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이다.
 328)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는 州를 설치한 것이 嘉靖 3년 10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宣宗實錄』에는 金齒軍民指揮使司騰衝州를 설치한 것을 宣德 5년 6월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329) 守禦所: 守禦千戶所의 略稱임.
 330) 思任發(?~1445): 원래 이름은 思任이었는데, 후에 자칭 '法'(漢王)이라 한 것이 와전되어 思任發이라 했다고 한다. 明代 麓川宣慰使 思任發의 아들로, 아버지의職을 이었으며, 明朝와 잘 지내면서 이후 각 부락을 겸병하여 점차 세력이 강성해졌다. 正統 2년(1437)에 주변 일대를 점거하고 무리들을 이끌고 明朝에 반기를 들었다. 이듬해에 南甸·騰冲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명의 黔國公 沐晟이 이끄는 군대를 공격하여 패배시켰다. 그러나 正統 6년(1441)에 兵部尙書 王璉·定西伯 蔣貴 등이 대군을 이끌고 진압하자 점차 세력이 약해졌으며, 正統 8년(1443)에 緬甸으로 敗走하였고, 明軍이 다시 征討에 나섰다. 결국 正統 10년(1445) 12월에 緬甸宣慰使 卜剌浪과 馬哈省에게 사로잡혔으며, 絕食하고 죽었다.
 331)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67 宣德 5년 6월 戊子條 참조.
 332) 현재 騰衝縣 서북쪽에 있는 古永이다(興傑, 1988: 135).

하는 일에 지장이 있다. 원래 사백부장(四百夫長)은 등형 천호소에 예속되었는데 고강관 등 다섯 곳은 모두 군민이 겸하여 지키고 있다. 현재 사백부는 이미 본 주에 예속되어서 오직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다섯 곳에 순검사(巡檢司)³³⁴를 설치하여 토군(土軍) 유희(尹熙)·장보(張保)·이보(李輔)·곽절(郭節) 등을 순검(巡檢)으로 삼게 해달라고 청하였다.³³⁵ 정통 2년(1437)에 정원이 정해지지 않아서 없었다.

嘉靖元年復設永昌軍民府。領州一·縣二。其長官司二。曰施甸，曰鳳谿。

가정 원년(1522)에 다시 영창군민부를 설치하였다.³³⁶ 주 하나·현 둘을 관할하였다.³³⁷ 그 장관사(長官司)는 둘이었는데,³³⁸ 시진(施甸)과 봉계(鳳谿)라고 불렀다.



동북아역사재단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333) 差發은 본래 差發馬制度를 가리킨다. 差發이란 원래 내지의 백성들에게 賦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민인에게 말을 바치게 하였고, 그 대가로 茶를 하사품으로 주는 것이었다. 이는 차발마제도가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부세제도였으나 실제 상으로는 여전히 以茶易馬의 무역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발마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초기에는 변방의 관리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朝廷의 名義를 내세워 서민의 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명 조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차발마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洪武 26년(1393년)에 勅으로 제작한 '金牌信符'를 티베트 각 부족의 수령과 승려들에게 발급해 주었다. 티베트 각 부족들이 변방에 파견된 관원들에게 말을 상납하거나 차를 하사받을 때, 자신의 급료를 관원의 것과 반드시 대조하도록 하였다(程利英, 2005: 17). 그러나 본문에서는 賦稅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334) 巡檢司: 元, 明, 清代에 縣級 衙門의 밑에 治安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下級官署이다.
- 335)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9월 己丑條 참조.
- 336) 이것은 雲南撫按官의 건의를 戶部에서 논의하여 상주한 것이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19 嘉靖 원년 10월 壬午條 참조).
- 337) 관할한 州는 騰越州로, 嘉靖 3년(1524) 10월에 설치하였고, 두 개의 縣은 保山縣과 永平縣이다(龔除, 1988: 136).
- 338)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는 按撫司는 沒, 長官司는 셋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네 안무사는 鐵道按撫司·楊塘按撫司·潞江按撫司·瓦甸按撫司이고, 세 長官司는 施甸長官司·鳳谿長官司·茶山長官司이다. 본문 중에는 茶山長官司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新化 신화

新化，本馬龍·他郎二甸，阿樊諸部蠻據之。元憲宗時內附，立爲二千戶所，隸寧州萬戶府。至元間，以馬龍等甸管民官併於他郎甸，置司，隸元江路。

신화(新化)³³⁹는 본래 마룡(馬龍)³⁴⁰·타랑(他郎)³⁴¹ 두 전(甸)으로, 아복(阿樊)의 여러 부족의 만인들이 그곳을 점거하였다. 원 나라의 원종(憲宗, 1208~1259; 재위 1251~1259)³⁴² 때에 귀부하였는데, 2개의 천호소를 세워서 영주만호부에 예속시켰다. 지원 연간(1264~1294)에는 마룡 등의 전이 관할하는 백성과 관원을 타랑전에 합병하여 사를 설치하고 원강로에 예속시켰다.

洪武初，改名馬龍他郎甸長官司，直隸雲南布政司。後陞爲新化州。十七年以普賜爲馬龍他郎甸副長官。宣德八年，故長官普賜弟土舍普寧等來朝，貢馬，賜鈔幣。八月，跨國公沐晟奏，摩沙勒寨萬夫長刀撻及第刀春劔蠻兵侵占馬龍他郎甸長官司衙門，殺

- 339) 新化: 본래는 馬龍他郎甸長官司였다. 洪武 17년(1384)에 설치되었는데, 弘治 8년(1495)에 新化州로 바꾸었다(『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참조). 지금의 雲南省 玉溪市 新平彝族傣族自治州 縣 지역이다.
- 340) 馬龍: 馬龍衛를 일컫는다. 明 初에 馬龍州(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馬龍縣)에 세웠는데, 후에 다시 雲南左 護衛라 불렀으나 이후 폐지됐다.
- 341) 他郎: 지금의 雲南省 新平縣 西北쪽에 위치해 있었다. 明代에 馬龍과 합쳐져서 하나의 州가 되었다.
- 342) 元憲宗: 칭기스칸의 손자이며 퉁궤(拖雷, Tolui)의 장자로, 1251년 定宗 구유구(貴由, Güyük)칸을 뒤이어 몽골제국의 제4대 칸에 오른 몽케(蒙哥, Möngke)칸의 廟號이다. 원종은 칸위에 오르기 전 몽골군의 유럽 원정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칸위에 올라서 카라코룸(和林, Karakorum)을 중심으로 큰 번영을 누웠으며, 몽골제국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켰다. 1255년에 동생 훌라구(Hulagu)로 하여금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게 하였으며, 1258년에 알바스 왕조를 멸하고 일한국(Ilkhanate)을 건설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밑 동생인 쿠빌라이(忽必烈, Kubilai)와 함께 남송 정벌에 착수하였고, 1259년에는 고려를 항복시켰다. 그러나 남송 정벌을 감행하는 중에,四川까지 진군하였으나 병을 얻어 1259년에 세상을 떠났다.

掠人民，請遣都督同知沐昂討之。帝命遣人撫諭，但得刀甓，毋擾平民。正統二年，嚴等奏甓不服招撫，請調附近官土兵，令都督昂剿捕。帝以蠻衆仇殺乃其本性，可仍撫諭之，事遂不竟。

홍무 연간(1368~1398) 초에, 마룡타랑전장관사로 명칭을 바꾸고 운남포정사에 직접 예속시켰다. 후에 신회주(新化州)로 승격시켰다.³⁴³⁾ 홍무 17년(1384)에 보사(普賜)를 마룡타랑전 부장관으로 삼았다.³⁴⁴⁾ 선덕 8년(1433)에, 옛 정관 보사의 동생인 토사(土舍) 보녕(普寧) 등이 내조하여 말을 바쳤고, [이에] 초계를 주었다.³⁴⁵⁾ [선덕 8년] 8월에 검국공 목성이 상주하기를, 마사특채(摩沙勒寨)³⁴⁶⁾ 만부장(萬夫長) 도웅(刀甓)과 그 동생 도련(刀眷)이 만인 병사를 규합하여 마룡타랑전장관사의 아문(衙門)을 침범하여 점령하고 백성들을 살해하고 약탈하였으니, 도독동지(都督同知)³⁴⁷⁾ 목양(沐昂)을 보내 그들을 토벌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황제가 사람을 보내 안무하고 효유하도록 하고, 다만 도웅만을 체포하고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다.³⁴⁸⁾ 정통 2년(1437)에 목성 등이 상주하기를, 도웅이 초무에 복종하지 않으니 인근 관군과 토병을 징발하여 도독(都督)³⁴⁹⁾ 목양에게 [이들] 소탕하고 체포토록 하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황제가 만인 무리들은 원망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이들을 안무하고 효유하도록 하니, 이 사정은 이에 결른 지어지지 않았다.³⁵⁰⁾

343)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서는 ‘新化州는 본래 馬龍他郎甸長官司였는데, 洪武 17년 4월에 설치하여 右政司에 예속시키고, 弘治 8년에 新化州로 변경하였으며, 萬曆 19년에 내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44) 『太祖實錄』 卷161 洪武 17년 4월 甲戌條에 雲南의 여러 酋長들이 내조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普賜를 馬龍他郎甸副長官으로 삼고 그에게 誥勅과 冠帶를 하사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345) 실록에는 이 일을 宣德 9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109 宣德 9년 3월 己丑條 참조.

346) 摩沙勒寨는 지금의 雲南省 新平縣 莫沙이다.

347) 都督同知: 明代 전국의 군대를 통괄하는 五軍都督府의 관직으로 從一品職이며, 그 위로 正一品인 左·右 都督이 있고, 그 밑으로 正二品인 都督僉事가 있다.

348) 『宣宗實錄』에서는 이 일을 宣德 8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104 宣德 8년 8월 壬午條 참조.

349) 都督: 明代 전국의 군대를 통괄하는 五軍都督府의 長을 말한다. 左·右 都督이 있으며, 品階는 正一品이고, 그 밑에 從一品인 都督同知와 正二品인 都督僉事가 보좌하고 있다.

其地有馬龍諸山，居摩沙勒江右。兩岸東隘如峽，地勢極險，故改州以鎮之。

그 지역에는 마룡 등 여러 산³⁵¹⁾이 있는데, 마사특강(摩沙勒江)³⁵²⁾의 오른쪽에 있다. 양쪽 강안은 협준하여 골짜기 같았고, 지세는 상당히 협준해서 이 때문에 주(州)로 바뀌서 그곳을 진수하였다.

威遠 위원

威遠，唐南詔銀生府地，舊爲濮落雜蠻所居。大理時，爲百夷所據。元至元中，置威遠州。

위원(威遠)은 당나라 남조의 은생부(銀生府)³⁵³⁾ 지역으로, 옛날에는 복락(濮落)³⁵⁴⁾의 여러 만인들이 [그곳에] 거주하였다. 대리국(大理國) 시대에는 백이가 점거하였다. 원나라의 지원 연간(1264~1294)에 위원주(威遠州)를 설치하였다.

洪武十五年平雲南後，改威遠蠻柵府爲威遠州。三十五年，以上官刀算黨爲威遠知州。

350)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31 正統 2년 6월 甲申條 참조.

351) 馬龍山은 雲南省 昆明市 남부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이다.

352) 摩沙勒江: 禮社江이라고도 불린다. 운남성 충무에 위치하고 있는데, 紅河의 수계에 속한다. 巍山彝族回族自治縣의 북쪽에서 발원하여, 大理白族自治州·楚雄族自治州·玉溪市를 거쳐 흐른다.

353) 銀生府는 唐代 南詔에서는 銀生節度 아래의 기구였고, 이 지역은 페르시아와 교역을 하는데 중심 지역이었다.

354) 『明史』 卷313 「雲南傳」에서는 濮과 落을 별개의 종족으로 기술하고 있다. 濮은 南나라 湯王 당시 江漢 유역 일대에 분포해 있던 중국 고대 민족으로, 武王이 紂王을 정벌할 때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春秋戰國시대에는 楚나라 西南(지금의 滇·黔·川에서 江漢 流域 서쪽에 이르는 지역) 지역 여러 곳에 分散되어 部落을 이루었는데, 總稱하여 ‘百濮’이라 불렀다.

홍무 15년(1382)에 운남을 평정한 후, 위원만봉부(威遠蠻棚府)를 위원주로 바꾸었다.³⁵⁵⁾
 [홍무] 35년에 토관 도산당(刀算黨)을 위원지주로 삼았다.³⁵⁶⁾

永樂二年，算黨爲車里所擄，奪其地，命西平侯論之，乃還算黨并侵地。三年，算黨進象馬方物謝，頒降敕諭金字紅牌，賜之金帶·織金文袴·裴衣及銀鈔·錦幣。二十二年，土官刀慶罕等來朝，貢馬及方物，賜慶罕鈔八十錠，紵絲·羅紗，及頭目以下，皆有加。

영락 2년(1404)에, 도산당이 차리(車里)에게 사로잡히고 그 땅을 빼앗겼는데, 서평후에게 명하여 그를 효유해서 바로 도산당과 침략한 땅을 돌려주도록 하였다.³⁵⁷⁾ [영락] 3년(1405)에, 도산당이 코끼리·말·방물을 바쳐 사온하니, [이에] 칙유(敕諭)·금지홍패(金字紅牌)³⁵⁸⁾를 내려주고, 그에게 금대·적금문기·습의·은초(銀鈔)·금폐(錦幣)³⁵⁹⁾를 하사하였다. [영락] 22년(1424)에, 토관 도경현(刀慶罕) 등이 내조하여 말과 방물을 바치니, 도경현에게 초 80정·저사(紵絲)³⁶⁰⁾·나사(羅紗)를 하사하고, 두목 이하에게도 모두 [규정보다] 더 [하사품을] 내려 주었다.³⁶¹⁾

355)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권143 洪武 15년 윤2월 丙戌條 참조.

356) 『太宗實錄』 권12下 洪武 35년 9월 戊戌條에는 威遠州 土官 刀算黨과 車里軍民宣慰使司 宣慰使 刀溫答, 老掃 土官 刀綿歹, 八百 土官 刀板面, 孟定府 土官 刀名扛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 내조하였고, 象牙·犀角·孔雀尾·西洋布 등을 바쳤으며, 이에 명 조정에서는 錦綺·紗羅를 차등을 두어 내려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刀算黨을 威遠知州로 삼았다는 내용은 『太宗實錄』 권15 洪武 35년 12월 丙辰條에 기재되어 있다.

357)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권30 永樂 2년 4월 丙戌條 참조.

358) 紅牌: 明代에 일상적으로 사용한 일종의 布告牌인데, 폐에 홍색을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공포된 법령을 썼다(박원호 외, 2008: 52).

359) 金幣: 金貨, 즉 금으로 만든 돈을 말한다.

360) 紵絲: 織子라고도 불리는 絹을 말한다. 보통 가늘고 강한 經絲와 길긴 緯絲를 엮어 만들었으며,清代 海關에서는 Satin이라고 번역해서 불렀다.

361)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권269 永樂 22년 3월 戊戌條 참조.

宣德三年，刀慶罕遣頭目招剛·刀著中等來貢，賜予如例，就令齋教及織金紵絲·紗羅賜之，仍給信符·勒合底簿。八年，威遠州奏其地與車里接壤，累被各土官劫掠，播孟實當要衝，乞置巡檢司，以把事劉禧爲巡檢，從之。

선덕 3년(1428)에, 도경현이 두목 초강(招剛)³⁶²⁾·도저중(刀著中)을 보내 내조하여 조공하니 규정에 따라 사여하였는데, 바로 칙서와 적금저사(織金紵絲)³⁶³⁾·사라(紗羅)³⁶⁴⁾를 가지고 가서 그에게 내려주게 하였고, 예전처럼 신부(信符)³⁶⁵⁾·감합저부(勒合底簿)³⁶⁶⁾를 주었다.³⁶⁷⁾ [선덕] 8년(1433)에 위원주에서 상주하기를, 그 지역은 차리와 경계를 접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각 토관들이 약탈을 당했고 과맹(播孟)은 실로 교통의 요충지이니,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하여 과사(把事) 유희(劉禧)를 순검으로 임명할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³⁶⁸⁾

正統二年，土知州刀蓋罕遣人貢馬及銀器，賜綵幣等物，并以新信符給之。正統六年

362) 招剛: 본문 중에는 人名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옛날 서남쪽 蠻人의 별칭이다(『明史』 권315 「雲南土司」 3 참조) (傣族의 언어에서 '中'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大·中·小를 '招魯'·'招剛'·'招乃'로 표기했다)고 한다(舞陰, 1988: 143 참조).

363) 織金紵絲: 금실로 무늬를 넣은 모시로 만든 옷을 가리킨다.

364) 紗羅: 가얏고 얽은 명주와 삼으로 만든 織物로, 이는 여러 무늬를 넣어 짠 옅고 가벼운 비단을 일컫는다. 가얏고 가는 실로 직조한 紗는 조직이 간단하여 짜기 쉬우나, 羅는 그 조직이 아주 복잡하여 짜기 어렵다. 羅는 가얏고 부드러우며 통하는 구멍이 있어서 여름철의 輻輳·裨衣·帽子 등 주로 여름옷에 사용하며, 실을 누인 여부에 따라 熟羅와 生羅로 구분한다.

365) 信符: 明朝에서 사절단의 眞僞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한 증명서, 즉 勘合符를 말한다.

366) 勒合: 勘合符 혹은 勘合文冊이라고도 한다. 明朝에서 사절단의 眞僞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한 증명서이다. 明朝는 외국의 조공사절을 하나의 恩典으로 간주하여 조공의 회수, 선박의 수, 인원 등을 제한하고자 했으며, 이 내용을 쓴 문서를 양측이 갈라진 한 면씩 보관하고 있다가, 사절이 도착하면 서로 맞추어보아야 합치되어야 비로소 정식 사절로 인정했다. 勘合符는 洪武 16년(1383)에 占城을 비롯하여 暹羅·眞臘 등에 발급한 것이 최초의 일인데, 明의 改元, 즉 기본적으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새로 발급하였다.

367)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권43 宣德 3년 5월 丙寅條 및 戊寅條 참조.

368)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권106 宣德 8년 9월 庚子條 참조.

給威遠土知州刀蓋罕金牌，命合兵剿麓川叛寇，以捷聞。敕曰：「叛寇思任發侵爾境上，脅爾從逆。爾母招羅猛能兼大義，效忠朝廷，悉出金貨，分費頭目。爾母子躬探甲冑，賈勇殺賊，斬其頭目派罕，追逐餘賊過江，溺死數千，斬首數百，得其戰艦戰象，仍留兵守賊所據江口地。忠義卓然，深足嘉尚。今特陞爾正五品，授奉政大夫。修正庶尹，封爾母為太宜人，俱錫誥命·銀帶及綵幣表裏，酬爾母子勳勞。陶孟·刀孟經等亦賜賚有差。爾宜益勉忠義，以副朕懷。」

정종 2년(1437)에, 토지주 도개한(刀蓋罕)이 사람을 보내 말과 은기(銀器)를 바치자, 체페 등의 물품을 하사했으며, 아울러 새로운 신부(信符)를 그에게 주었다.³⁶⁹⁾ 정종 6년(1441)에, 위원의 토지주 도개한에게 금패(金牌)를 주었고, 군사를 합쳐 녹천에서 반란을 일으킨 도적들을 소탕하도록 하였는데,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상주하였다. 칙사에서 이르기를, “반란을 일으킨 도적 사임발(思任發)이 그대의 영역을 침략하여 그대를 협박하여 반란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대의 모친 초낭맹(招囊猛)은 충분히 대의(大義)를 따르고 조정에 충성하기를 힘쓰며 재산을 모두 내어서 두목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대 모자는 직접 갑주(甲冑)를 입고 용감히 적들을 죽이고 그 두목 파한(派罕)을 참수하였으며, 나머지 적들을 내몰아 강을 건너게 하여 익사한 자가 수천이고 참수한 자가 수백이며 전함(戰艦)과 전상(戰象)을 획득하였고, 예전처럼 병사를 남겨 적들이 잠기었던 강 하구의 땅을 지키게 하였다. [이렇듯] 충의(忠義)가 탁월하니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할만 하노라. 지금 특별히 그대를 정오품(正五品)으로 승진시키고 봉정대부(奉政大夫)³⁷⁰⁾·수정서윤(修正庶尹)³⁷¹⁾을 제수하며, 그대의 모친을 태의인(太宜人)³⁷²⁾으로 봉하고 모두에게 고명·은대·체패 표리를 내려 주어 그대 모자의 공로에

369)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30 正統 2년 5월 甲辰條 참조.

370) 奉政大夫: 文散官의 명칭으로 송나라 때에 설치되었는데, 正六品職이었다. 원나라 때에는 正五品으로 승격되었다. 명에서는 正五品職으로, 처음에 奉議大夫로 제수한 다음 奉政大夫로 승진시켰는데, 명에서는 이러한 단계 없이 바로 正五品 奉政大夫로 제수하였다.

371) 修正庶尹: 명나라 때 文勳官의 명칭으로, 正五品職이다. 勳官은 官稱의 일종으로 공로가 있는 이에 예정한 官稱을 주는 것인데, 品級은 있으나 職掌은 없다. 明代에는 上柱國은 없으나, 左右柱國이 있었고, 때로 文勳官으로 左右柱國, 柱國, 正治上卿, 正治卿, 資治卿, 資治少尹, 贊治尹, 贊治少尹, 修正庶尹, 協正庶尹 11단계를 두었다. 그러나 명에서는 이를 폐지하였다.

372) 太宜人: 明清시대에 五品官의 母親이나 祖母에게 내리는 封號이다.

보답하고자 한다. 도맹(陶孟)·도자경(刀孟經) 등에게도 차등하여 상을 내리노라. [그러니] 그대는 마땅히 더욱 충의를 다하여 짐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하였다.³⁷³⁾

時西南諸部多相仇殺，所給金牌·信符，燒毀不存。景泰六年，刀蓋罕·隨乃吾等來朝貢，因命其管屬本州人民，復給與金牌·信符·織金文綺，賜敕諭遣之。成化元年，威遠州土舍刀朔罕遺頭目刀昔思貢象馬并金銀器，賜予如例。

당시 서남 여러 부에서는 대부분 서로 원수가 되어 죽였기 때문에, 주었던 금패·신부³⁷⁴⁾가 모두 불타고 훼손되어 없어졌다. 경태(景泰)³⁷⁵⁾ 6년(1455)에, 도개한(刀蓋罕)·수내오(隨乃吾) 등이 내조하여 조공함으로 인해 본 주의 백성을 관할하게 하고, 또 금패·신부·직금문기를 주었으며, 칙유를 내려 그들을 보냈다.³⁷⁶⁾ 성화 원년(1465)에 위원주 토사(土舍)인 도삭한(刀朔罕)이 두목 도석사(刀昔思)를 보내 코끼리와 말, 금은기를 바치니, [명 조정에서는] 규정에 따라 하사하였다.³⁷⁷⁾

373)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81 正統 6년 7월 己亥條 참조.

374) 金牌信符: 이것은 西番과 的 茶典문역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하여 명 조정에서 銀으로 만든 일종의 갑함으로, 서민의 각 추장에게 발급해 주었다. 금패의 위액은 陽文, 아래쪽은 陰文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하의 두 信符를 합쳐 대조하여 그 진위를 가렸다. 『(萬曆)明會典』 卷108 「禮部」 朝貢西戎條에 의하면, 당시 금패신부는 陽文信符와 陰文信符 외에 1호부터 100호까지 자료가 붙은 批文勘合과 勘合底簿가 있었는데, 음문신부 및 갑함은 土官에게, 갑합저부는 포정사에게, 양문신부 및 갑함은 內府에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한다. 3년마다 한 번씩 관원을 파견하여 서로 맞추었다. 그 信牌에는 篆書로 뒷면에는 ‘皇帝聖旨’, 왼쪽에는 ‘合當茶稅’, 오른쪽에는 ‘不信者斬’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두 41개인데, 洮州의 火把藏·思養日 등의 종족은 패가 4개로 말 3,050필을 바쳤고, 河州의 必里衛의 西番 29족은 패가 21개로, 말 7,705필을 바쳤다. 또한 西寧의 曲先·阿丹·罕麥·宏定 등 4위의 巴哇·申中·申藏 등 종족은 패가 16개로, 말 3,050필을 바쳤다(박원호, 2008: 290~292).

375) 景泰: 명 왕조 7대 황제인 景宗 朱祁鈺의 年號이다.

376)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254 景泰 6년 6월 壬辰條 참조.

377) 이때 명 조정에서는 衣服과 綵織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憲宗實錄』 卷14 成化 원년 2월 甲辰條 참조.

其俗勇健，男女走險如飛。境內有河，汲水練炭上卽成鹽。無秤斗，以箕計多寡量之。

그 [지역의] 풍속은 용감하고 건설한데, 남녀가 험한 땅을 달리는 것이 [마치] 나는 듯 했다. 경내에는 하천이 있는데, 하천 물을 길어 석탄 위에 올려 가열하면 바로 소금이 되었다. 칭두(秤斗)가 없어서 대나무 상자로 많고 적음을 헤아렸다.

北勝 복승

北勝，唐貞元中，南詔異牟尋始開其地，名北方賧，徙瀾河白蠻及羅落·麼些諸蠻，以實其地，號成僞賧，又改名善巨郡。宋時，大理段氏改爲成紀鎮。元初，內附。至元中，置施州，尋改北勝州。後爲府，隸麗江路軍民宣撫司。

복승(北勝)은 당나라 정원(貞元)³⁷⁸⁾ 연간(785~805)에, 남조의 이모심(異牟尋)³⁷⁹⁾이 그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는데³⁸⁰⁾ 북방섬(北方賧)이라고 불렀고, 미하(瀾河)의 백만(白蠻) 및 나락(羅落)·마사 등 여러 만인들이 이주시켜 그 지역을 채우고 성계섬(成僞賧)이라고 불렀는데, 다시 선거군(善巨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송나라 때에 대리국의 단씨가 성기진(成紀鎮)으로 바꿨다. 원나라 초기에 [조정에] 귀부하였다. 지원 연간(1264~1294)에는 시주(施州)를 설치하였고, 얼마 후에 복승주(北勝州)로 바꿨다. 후에 부(府)로 하였는데 여강로(麗

378) 貞元: 당나라 德宗의 年號이다.

379) 異牟尋(?~808): 大曆 14년(779)에 그의 祖父인 南詔王 閣邏異가 죽었는데 그의 부친 鳳迦異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조부를 이어 南詔의 제6대 國王으로 즉위했다. 南詔는 일찍이 토번에 귀부했던 것이지만 貞元 10년(794)에 그의 동생 淡羅棟과 淸平官 尹仇寬 등을 唐에 보내 地圖와 吐蕃에게서 받은 金印을 바치고 귀부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唐으로부터 高溪郡王에 책봉되었다. 이후 唐에 협력하여 토번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는데, 元和 3년(808)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尋閣勳이 繼位하였다.

380) 唐 貞元 10년(794) 이전에 南詔에서는 十賧을 重鎮으로 삼아서 節度를 설치하였다. 貞元 10년에 異牟尋이 吐蕃을 공격하여 鐵橋 동쪽의 성채 16개를 장악하였고, 北勝 경계지역의 大婁城과 小婁城도 鐵橋節度에서 관할하였다(興隆, 1988: 144 참조).

江路) 군민선무사(軍民宣撫司)에 예속시켰다.

洪武十五年，改爲州，隸鶴慶府，後屬瀾滄衛。永樂五年，土官百夫長楊克即牙舊來貢馬，賜鈔幣。宣德四年，土判官高琳子瑛來貢方物，請襲父職。十年，土知府高瑛來朝貢，賜鈔幣。正統七年，以北勝州直隸雲南布政司，設流官吏目一員，以州蠻苦於瀾滄衛官軍侵漁也。

홍무 15년(1382)에 주(州)로 바뀌어 학경부에 예속시켰고, 후에는 난창위(瀾滄衛)³⁸¹⁾에 예속시켰다.³⁸²⁾ 영락 5년(1407)에, 토관 백부장(百夫長) 양극즉아구(楊克即牙舊)가 내조하여 말을 바치니, [이에] 초패를 내려 주었다. 선덕 4년(1429)에, 토관관(土判官)³⁸³⁾ 고림(高琳)의 아들 고영(高瑛)이 내조하여 방물을 바치고, 부친의 직을 세습하기를 청하였다.³⁸⁴⁾ [선덕] 10년(1435)에, 토지부 고영이 내조하여 진공하니, 초패를 내려주었다. 정통 7년(1442)에, 복승주를 운남 포정사에 직접 예속시키고 유관(吏目)³⁸⁵⁾ 한 사람을 설치하였는데,³⁸⁶⁾ 주(州)의 만민들은 난창위 관군의 침탈에 고통스러워 했기 때문이었다.

萬曆四十八年，北勝州土同知高世懋死，異母弟世昌襲。其族姪蘭妄稱世昌奸生，訟之官，不聽，世昌懼，走麗江避之，尋臻至瀾滄，宿客舍，蘭圍而縱火，殺其家七

381) 瀾滄衛: 瀾滄은 漢代에는 遂久縣의 땅이었다. 南詔에서는 鐵橋節度使가 관할하는 지역이었고, 大理國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善巨郡의 땅이었다. 洪武 29년(1396)에 雲南 邊疆民族地區에 대한 통치를 강화할 목적에서 설치했다. 城址는 지금의 雲南省 麗江地區 永勝縣에 있다.

382)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참조.

383) 判官: 재판 등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從七品職이다.

384)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54 宣德 4년 5월 壬子條 참조.

385) 吏目: 관직명으로, 원나라에서는 提舉司, 明의 太常寺·鹽課提舉司·市舶提舉司·京衛指揮使司, 明·淸의 太醫院·五城兵馬司에는 모두 吏目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하였다. 지방관서에도 吏目이 배치되었는데, 元에서는 中·下 규모의 州에는 관원을 보좌하는 吏目이 있었고, 明에서는 知州 아래 吏目을 두어 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 淸에서는 知州 아래 吏目이 刑獄과 문서를 담당하였다.

386)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96 正統 7년 9월 乙丑條 참조.

十餘人，發其祖父墓，自稱欽授把總，大掠。麗江知府木增請討之，謂法紀弁髦，尾大不掉，不治將有隱憂。上官嘉其義，調增率其部進剿，獲蘭象之。

만력 48년(1620)에, 복승주 토동지 고세무(高世懋)가 사망하자 배다른 동생 고세창(高世昌)이 [그 직을] 세습하였다.³⁸⁷⁾ [그런데] 그의 족질(族姪) 고란(高蘭)이 거짓으로 고세창이 간통으로 태어났다고 하며 이를 관청에 소송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세창은 필박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여강으로 피신하였다. 얼마 후에 난장으로 돌아와서 객사에 머물렀는데, 고란이 [객사를] 포위하고는 불을 질러 그 가족 70여 명을 죽이고 그의 조부 묘를 파헤쳤으며, 스스로 흡수파총(欽授把總)³⁸⁸⁾이라고 칭하고서 크게 약탈하였다. 여강의 지부 목증(木增)이 그를 토벌할 것을 청하였는데, 법기(法紀)가 경시되고 포리가 커져 혼들 수 없는 상황이라³⁸⁹⁾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숨어 있는 근심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상관이 그의 대의를 가상하게 여겨 목증에게 부(部)의 무리를 이끌고 가서 소탕하게 하였으며, 고란을 사로잡아 [참수하여] 호시하였다.

灣甸 만진

灣甸，蠻名細曠。元中統初，內附，屬鎮康路。洪武十七年置灣甸縣。永樂元年三月設灣甸長官司，以西平侯沐晟奏地近麓川，地廣人稠故也。尋仍改爲灣甸州，以土官

- 387) 『神宗實錄』卷43 萬曆 36년 2월 乙丑條에는 高世懋가 土府同知를 세습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에게 四品服色을 내려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 388) 把總: 百總이라고도 하는데, 京師를 지키는 三大營의 統兵官과 各地의 總兵 휘하에 있는 軍官이다. 明初에는 대부분 功臣이나 外戚을 이에 充任하였으나 후에 그 직위가 날로 가벼워져 正七品官으로, 正六品인 千總 다음의 직책이었다. 把總은 京城巡捕五營 등 중원 내지뿐 아니라 四川, 雲南, 甘肅, 貴州의 土司官 중에도 土把總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는데, 본문에서의 把總은 바로 土把總을 말한다.
- 389) 尾大不掉은 조직의 下部가 강하고 上部가 약하여 마음대로 지휘할 수 없다는 의미, 혹은 조직이나 기구가 방대하고 산만하여 지휘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刀景發爲知州，給印章·金牌并置流官吏目一員。四年，帝以灣甸道里險遠，每歲朝貢，令自今年一年一貢，著爲令。如慶賀·謝恩之類，不拘此例。六年，刀景發遣人來朝，貢馬及方物，賜鈔幣。七年，刀景發子景懸等來朝，貢馬，賜予如例。

만진(灣甸)³⁹⁰⁾은 만명(蠻名)으로는 세설(細談)이라고 한다.³⁹¹⁾ 윈나라 중흥(中統)³⁹²⁾ 연간(1260~1264) 초에 중국에 귀부하여 진강로(鎮康路)에 속하게 하였다. 홍무 17년(1384)에 만진현(灣甸縣)을 설치했다. 영락 원년(1403) 3월에 만진장관사(灣甸長官司)를 설치하였는데, [그 기구를 설치한 것은] 서평후 목성이 상주하기를, [이 지역은] 녹천(麓川)과 가깝고 땅이 넓고 사람이 조밀하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예전처럼 만진주(灣甸州)로 바꾸고,³⁹³⁾ 토관 도경발(刀景發)³⁹⁴⁾을 지주로 임명하였으며, 인장·금패를 주고 아울러 유관 이목 1명을 설치하였다.³⁹⁵⁾ [영락] 4년(1406)에, 황제가 만진의 도리가 험하고 멀다고 여겨서 매년 조공하던 것을 그때부터 3년에 한 번 조공하도록 지시하였고, 규정을 제도로 만들었다. 경하(慶賀)·사은(謝恩)의 류와 같은 것은 이 규정에 구속되지 않았다.³⁹⁶⁾ [영락] 6년(1408)에, 도경발이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말과 방물을 바치니, [명 조정에서는] 조폐를 내려주었다.³⁹⁷⁾ [영락] 7년(1409)에, 도경발의 아들 도경현(刀景懸) 등이 내조하여 말을 바치니, 규정에 따라 [하사품을] 내려주었다.

- 390) 灣甸: 灣甸蠻夷直隸州를 일컫는다. 前漢에서는 哀牢國의 땅이었고, 後漢에서는 永昌郡에 속했다. 원나라 때에 鎮康路 지역이었는데, 洪武 연간(1368~1398)에 麓川平緬宣慰司에 兼置하였다가 永樂 원년(1403)에 灣甸長官司를 설치하여 雲南都司에 직속시켰다. 이후 永樂 3년(1405)에 灣甸蠻夷直隸州로 바꾸어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保山市 昌寧縣 지역이다.
- 391) 이 지역은 姚關의 동남쪽 70리에 위치하였다.
- 392) 中統: 원나라 世祖 쿠빌라이가 사용했던 年號로, 1260년에서 1264년까지 사용했고, 이를 뒤이여 至元이라는 연호로 바꾸어 사용했다.
- 393) 이는 永樂 3년 4월의 일이다. 『明史』卷46 「地理志」 雲南條 참조.
- 394) 刀景發: 刀澤立의 아들이다.
- 395)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卷41 永樂 3年 4月 甲申條 참조.
- 396) 이때 雲南과 車里의 여러 宣慰使司와 孟定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였다(『太宗實錄』卷54 永樂 4年 5월 丙午條 참조).
- 397)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卷78 永樂 6年 4월 丁亥條 참조.

宣德八年以上士官刀景項弟景辦法繼兄職。州有流官吏目一員。州鄰木邦·順寧，日以侵削。成化五年，灣甸土官舍人景拙法遣使刀胡猛等來朝，貢象馬并金銀器，賜宴并衣服綵幣有差。

선덕 8년(1433)에, 토관 도경항(刀景項)의 동생 도경판법(刀景辦法)이 형의 직을 계승하였다.³⁹⁸⁾ 주에는 유관 이복 한 사람이 있었다. 주의 인근 지역인 목방(木邦)³⁹⁹⁾·순녕(順寧)⁴⁰⁰⁾이 점차 날로 침탈하였다. 성화 5년(1469)에, 만전주 토관의 사인(舍人) 경졸법(景拙法)이 사신 도호맹(刀胡猛) 등을 보내 내조하여 코끼리·말·금은기를 바치니, [명 조정에서는 이를 에게] 연회를 베풀고 의복과 채계를 차등을 두어 내려 주었다.⁴⁰¹⁾

萬曆十一年，土官景宗眞率弟宗材導木邦叛賊罕度入寇姚關，宗眞死於陣，擒宗材斬之。宗眞子幼，質死，降爲州判官。後從討猛廷瑞有功，復舊職。

만력 11년(1583)에, 토관 경종진(景宗眞)이 동생 경종재(景宗材)를 이끌고 목방(木邦)의 반적(叛賊) 한건(罕度)을 인도하여 요관(姚關)⁴⁰²⁾을 약탈하였는데, 경종진은 군진에서 사망하고, 경종재를 사로잡아 침수하였다. 경진(景眞)의 아들은 어서서 죽음을 면하였는데, 강등하여 주의 판관으로 하였다. 후에 맹정서(猛廷瑞)⁴⁰³⁾를 토벌하는데 종군하여 공을 세워 원래

398)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9월 壬子條 참조. 隴陰은 『土官底簿』 내용을 근거로 景辦法은 刀景項의 동생이 아닌 아들이라고 하였다(隴陰, 1988: 148~149).

399) 木邦: 토사의 명칭으로, 『孟邦』, 『孟都』라고도 불린다. 元 至元 26년(1289)에 이곳에 길을 설치했는데, 治所는 지금의 緬甸 興威에 있었고, 지금의 緬甸 椰那 東北部 지역을 관할했다. 明 洪武 15년(1382)에 府로 고쳤으며, 永樂 2년(1404)에 軍民宣慰使司로 고쳤으나 萬曆 34년(1606)에 緬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淸初에 다시 중국 영토로 들어왔으나 乾隆帝 이후에 다시 緬甸에 속하게 되었다.

400) 順寧: 지금의 雲南省 臨滄地區 북부 지역에 위치했으며, 治所는 臨滄地區 鳳慶縣이었다.

401) 이와 관련된 내용은 『憲宗實錄』 卷62 成化 5년 정월 癸未條 참조.

402) 姚關: 姚關鎮을 말하며, 雲南省 保山 施甸縣의 鄉鎮 중 하나이다.

403) 猛廷瑞: 생몰년 미상. 天啓 『滇志』와 『天下郡國利病書』에 의하면, 猛廷瑞는 奉學의 女夫, 즉 사위로 기재되어 있다.

의 직을 회복하였다.

灣甸地多瘴，有黑泉，漲時，飛鳥過之輒墮。

만전의 지역은 풍토병이 많았다. [그 곳에는] 검은 샘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넘칠 때 나는 새가 그 곳을 지나다가 번번이 추락하였다.

鎮康 진강

鎮康，蠻名石賧，本黑焚所居。元中統初，內附。至元十三年立鎮康路軍民總管府，領三甸。

진강(鎮康)⁴⁰⁴⁾은 만명(蠻名)으로는 석섬(石賧)으로, 본래 흑부(黑焚)이 거주하던 곳이다. 원나라 중흥 연간(1260~1264) 초에 귀부하였다. 지원 13년(1276)에 진강로군민총관부(鎮康路軍民總管府)를 세웠는데, 3개의甸(甸)을 통령하였다.

洪武十五年改爲鎮康府，十七年改爲州。永樂二年遣官頒信符及金字紅牌於鎮康州，七年以灣甸同知曩光爲知州。初，鎮康地隸灣甸，曩光請增設署所，故有是命。九年以中官徐亮使西南蠻，曩光阻道，詔責之，至是，遣人來朝謝罪。十四年，鎮康州長官司遣人貢馬，賜鈔幣。二十一年，知府刀孟廣來朝，貢馬。宣德三年賜鎮康州土目

404) 鎮康: 鎮康蠻夷直隸州를 일컫는다. 元나라 때에 鎮康路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鎮康府로 고쳐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洪武 17년(1382)에 鎮康直隸州로 강등시켰고, 永樂 3년(1405)에 灣甸蠻夷直隸州에 편입시켰다가 永樂 7년(1409)에 鎮康蠻夷直隸州를 설치하고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 鎮康縣 지역이다.

刀門濶等鈔幣有差。成化五年，知州刀門夏達使貢馬及金銀器，賜予如例，及妻。

홍무 15년(1382)에 진강부(鎮康府)로 바꿨고, [홍무] 17년(1384)에 주(州)로 변경하였다.⁴⁰⁵⁾ [영락] 2년(1404)에 관원을 보내 신부·금자홍패(金字紅牌)를 진강주에 내려주었다. [영락] 7년(1409)에 만진 동지 낭광(囊光)을 자주로 삼았다.⁴⁰⁶⁾ 당초에 진강 지역은 만진에 예속되었는데, 낭광이 관소를 증설해 줄 것을 청하여서 그 때문에 이러한 임명이 있었다. [영락] 9년(1411)에, 중관(中官)⁴⁰⁷⁾ 서량(徐亮)을 서남의 만민들에게 사신으로 보냈는데, 낭광이 길을 막음으로 조서를 내려 그를 책망하니, 이때에 이르러서 [낭광이]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사죄하였다.⁴⁰⁸⁾ [영락] 14년(1416)에, 진강주장관사가 사람을 보내 말을 바치니, 초패를 내려주었다. [영락] 21년(1423)에 지부 도맹광(刀孟廣)이 내조하여 말을 바쳤다.⁴⁰⁹⁾ 선덕 3년(1428)에, 진강주 토목(土目)⁴¹⁰⁾ 도문연(刀門濶) 등에게 초패를 차등하여 내려주었다.⁴¹¹⁾

동북아시아사재민

- 405)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 따르면, 나중에 鎮康州를 폐지하고 灣甸州에 예속시켰다. 永樂 7년(1409) 7월에 다시 회복시켰고, 布政司에 예속시켰다고 한다.
- 406) 囊光 이후에는 刀孟廣, 刀門濶, 刀閣思, 刀閣思, 刀閣思 등이 土知州가 되었다(余貽澤, 1968: 106).
- 407) 中官: 中官은 內職의 官, 京官 등의 뜻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宦官을 일컫으며, 閹人·寺人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周代부터 清末까지 宦官이 있었다. 『明史』 卷74 「職官志」 3 宦官條에 의하면, 명대에는 宦官十二監이 있었고, 이들의 기관에서는 政事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히, 司禮監은 그 중심에 있었고, 각 기관에는 太監(正四品)·小監(從四品)·監丞(正五品)·典簿(正六品), 從六品인 長隨·奉御 등의 職官이 있었다. 명대 宦官이 각 방면에 가용하기 시작한 것은 永樂帝 때부터이며, 이들은 해외의 使臣이나 外征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永樂 18년(1420)에 비밀경찰기관으로 신설된 東廠에 諜聞을 부여하여 諜情聞을 위임하였다. 이후 錦衣衛까지 지휘를 하면서 官民의 행동을 감시하였으며, 宣宗시대 이후에는 정치 분야에 발언권을 증대시켜 국가의 정치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明代의 宦官에 대해서는 데라다 다카노부, 2006: 99~100 참조.
- 408)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114 永樂 9년 3월 癸酉條 참조.
- 409) 이때 刀孟廣 외에 木邦 宣慰使 罕賓法의 동생 罕繼法, 孟定府 土官知府 刀石打, 灣甸州 金齒軍民指揮司도 각각 사람을 보내 코끼리와 말 등을 바쳤다. 이때 명의 皇太子가 규정에 따라 鈔幣를 내려줄 것을 禮部에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264 永樂 21년 10월 戊辰條 참조.
- 410) 土目: 土司制度 下에서 土司에 隸屬된 一種의 官銜이다. 封土와 軍隊 등을 소유하여 文武를 兼理하는 비교적 높은 지위이며 世襲職이었는데, 그들의 권력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 411)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41 宣德 3년 4월 壬戌條; 『宣宗實錄』 卷42 宣德 3년 윤4월 癸未條 참조.

성화 5년(1469)에 지주 도문알(刀門覽)이 사신을 보내 말과 금은기를 바쳤고, [이에 명 조정에서는] 규정에 따라 사여하였는데 그의 처(妻)에게까지 미쳤다.⁴¹²⁾

鎮康後亦爲木邦·順寧所侵削。隆慶間，知州岡坎者，罕度妻以女，因附度歸緬。坎敗死，其弟閔思歸義。思死，子閔枳襲，木邦思禮誘之歸緬，不從。天啓二年，木邦兵據湄江，枳奔姚關，守備達官撫之，乃退。

진강은 후에 역시 목방·순녕에게 침탈당하였다. 용경(隆慶)⁴¹³⁾ 연간(1567~1572)에 지주 민감(岡坎)은, 한건이 그의 딸을 [민감에게] 시집보내자 이로 인해 한건에게 의부하고 면진(緬甸)⁴¹⁴⁾에 귀부하였다. 민감이 [전쟁에] 패배하여 죽자 그 동생 민은(閔恩)이 귀부하였다. 민은이 죽자 아들 민지(閔枳)가 계승하였고, 목방의 사례(思禮)가 그를 꺾어서 면진에 귀부하도록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천계 2년(1622)에, 목방의 병사가 사리강(湄江)⁴¹⁵⁾을 점거하자, 민지가 요관으로 도망갔는데, 수비(守備)⁴¹⁶⁾가 관원을 보내 안무하니 바로 퇴각하였다.

대후
대후

大侯，蠻名孟祐，百夷所居。元中統初，內附，屬麓川路。

- 412) 이와 관련된 내용은 『憲宗實錄』 卷70 成化 5년 8월 戊辰條 참조. 이때 土官들에게 衣服과 綵緞을 내려 주었다.
- 413) 隆慶: 명 왕조 13대 황제인 穆宗 朱載堯 연호이다.
- 414) 緬甸: 현재 미얀마를 가리킨다. 미얀마는 1044년에 통일 국가를 형성한 이후, 1278년에 元 왕조가 緬中行省을 설치함으로써 200여 년에 걸친 파간(Pagan) 왕조의 통치가 종식되었다. 몽골이 후퇴한 후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퉁구(Toungoo) 왕조(1531~1752)에 의해 통일되었다.
- 415) 湄江: 薩爾溫江이라고도 하며, 또 怒族이 거주하는 지역의 강이라 해서 怒江이라고도 한다.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중국을 돌아 미얀마와 태국으로 흘러들어 安達曼海로 빠지나간다.
- 416) 守備: 明代에 변방에 嚴守한 軍관으로 그 지위는 遊擊장군 아래였으나 품급은 없었다. 또한 정해진 정원도 없어서 사안에 따라 증설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대후(大侯)⁴¹⁷⁾는 만명으로는 맹우(孟祐)로, 백이 거주하는 곳이다. 원나라 중통 연간(1260~1264) 초에 귀부하였고, 녹천로(麓川路)에 속하였다.⁴¹⁸⁾

洪武二十四年置大侯長官司。永樂二年頒給信符·金字紅牌。三年，大侯長官司長官刀奉偶遣子刀奉重貢馬及銀器，賜鈔幣。六年，長官刀奉偶遣弟不納狂來貢，賜予如例。

홍무 24년(1391)에 대후장관사(大侯長官司)를 설치하였다. 영락 2년(1404)에 신부·금자 홍패를 주었다. [영락] 3년(1405)에, 대후장관사 장관 도봉우(刀奉偶)가 아들 도봉동(刀奉董)을 보내 말과 은기를 바치니, [이에] 초패를 내려주었다.⁴¹⁹⁾ [영락] 6년(1408)에, 장관 도봉우가 동생 불납광(不納狂)을 보내 내조하여 진공하니, [명 조정에서는] 규정에 따라 사여하였다.⁴²⁰⁾

동북아시아사재민

宣德四年陞大侯長官司爲大侯州，以上官刀奉漢爲知州。時刀奉漢奏：「大侯蠻民復業者多，歲納差發銀二百五十兩。灣甸·鎮康二長官民少，歲納差發銀各百兩，永樂中俱陞爲州，乞援二州例。」帝諭吏部曰：「大侯民多復業，亦其長官善撫綏也，宜增秩之。」故有是命。八年，大侯州入貢，遣內官雲仙往撫之，并賜錦綺有差。

선덕 4년(1429)에, 대후장관사를 대후주(大侯州)로 승격시키고,⁴²¹⁾ 토관 도봉한(刀奉漢)을

417) 大侯: 洪武 24년(1391)에 麓川平徠 지역을 나누어 長官司를 설치하고, 百夷人 刀奉偶를 土官으로 삼았다.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 雲縣으로, 雲南指揮司에 예속시켰다. 宣德 4년(1429)에 州로 승격시키고 刀奉漢을 土知州로 삼았다. 萬曆 연간(1573~1620)에 土官의 內訌을 평정하였으며, 萬曆 25년(1597)에 雲州로 고치고 流官을 설치했다.

418) 大侯가 귀부한 후, 順寧府에 속했다는 견해도 있다(龔陰, 1988: 152).

419)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42 永樂 3년 6월 己未條 참조.

420) 『太宗實錄』에는 동생 不納狂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永樂 9년 6월에 동생 混三을 보내 말과 방물을 바쳤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106 永樂 9년 6월 甲寅條 참조.

421)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와 『宣宗實錄』 卷43 宣德 3년 5월 戊午條에는 大侯州로 승격한 때를 宣德

지주로 삼았다. 당시에 도봉한이 상주하기를, “대후 만민들은 원래의 일을 회복한 이가 많아서 매년 차발은(差發銀) 250냥을 납부하였습니다. 만전·진강 두 장관사에는 백성이 적어 매년 차발은 각기 100냥을 납부하고 영락 연간(1402~1424)에 모두 주로 승격하였으니, 두 주의 사례를 적용해 주시길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부(吏部)에 유지를 내려 이르기를, “대후는 백성들이 일상의 일을 회복한 자가 많고 또한 그 장관도 안무를 잘 하니, 마땅히 관등을 높여 이를 표창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도봉한에 대한] 임명이 있었다. [선덕] 8년(1433)에 대후주에서 임조하여 진공하니, 내관(內官) 운선(雲仙)을 보내 이들을 안무하고 아울러 금기(錦綺)를 차등하여 내려주었다.

正統三年，土官刀奉漢子刀奉送來貢，命敕并織金文綺絨錦諸物，賜刀奉漢及其妻。初，奉漢令把事傅永瑤來朝，貢馬，奏欲與木邦宣慰平門法共起土兵十萬，協同征剿麓川，乞賜金牌·信符，以安民心。特賜之，復降敕嘉獎。七年，敕刀奉漢子刀奉送襲大侯知州，賜冠帶·印章·綵段表裏，以奉送能率土兵助討麓川也。十一年，大侯知州奉外法等貢銀器·象馬，賜綵幣·衣服有差。十二年敕賜大侯州奉敬法·刀奉送等并其妻綵幣，命來使齎與之。

정통 3년(1438)에, 토관 도봉한의 아들 도봉송(刀奉送)이 내조하여 진공하니, 칙서와 직금 문기·용금(絨錦)⁴²²⁾ 등의 여러 물품을 가지고 가 도봉한과 그 처에게까지 내려주도록 하였다. 당초에 도봉한은 파사(把事) 부영요(傅永瑤)에게 내조하여 말을 바치면서 상주하기를, 목방 선위사 헌문법(罕門法)과 함께 공동으로 토병 10만을 일으켜 협동하여 녹천을 정벌하고 소탕하고자 하니, [명 조정에서는] 금패·신부를 사여하여 [그것으로] 민심을 안정시킬 수

3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422) 絨錦: 명청시대 福建省 漳州, 南京, 蘇州에서 생산된 곁에 용기가 있는 絲織品을 뜻한다. 비단 표면에 용기를 만드는 작업을 중국어로는 起絨이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일반 비단과는 다른 絨毛와 같은 느낌을 준다. 絨錦은 명청시대에 조정에서 일반적으로 주변 북방 민족의 수장에게 내렸으며, 제각 과정이 복잡하여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민'로 계산하지 않고 '段'으로 계산했다. 예를 들어 명 조정은 西藏의 최고고 高僧에게도 매년 겨우 3段만을 지급했을 정도로 가격이 비쌌다고 한다(吳明鏡, 2007 참조).

있기를 청하였다. [이에] 특별히 이를 [그에게] 허사하고 또 칙서를 내려 칭찬하고 격려하였다.423) [정통] 7년(1442)에, 도봉한의 아들 도봉송에게 칙서를 내려 대후지주를 세습하게 하고, 관대·인강·채단(綵段) 표리를 내려 주었는데, [이는] 도봉송이 토병을 이끌고 녹천을 토벌하는 데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통] 11년(1446)에, 대후지주 봉외법(奉外法) 등이 은기·코끼리·말을 바치니 채패·의복을 차등하여 허사했다.424) [정통] 12년(1447)에, 칙서를 내려 대후주 봉경법(奉敬法)·도봉송 등과 그들의 처에게도 채패를 허사했는데, 내조했던 사신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들에게 주도록 하였다.425)

萬曆中，土目奉學塚於順寧知府猛廷瑞，後巡撫陳用賓誣奏廷瑞與學反狀，廷瑞斬奉學首以獻，學兄敕守大侯如故。子奉先與其族舍猛麻·奉恭爭殺抗命，次年討平之，改爲雲州，設流官。

만력 연간(1573~1619)에, 토목 봉학(奉學)이 순녕지부 맹정서(猛廷瑞)의 사위가 되었는 데, 후에 순무 진용빈(陳用賓)426)이 맹정서가 봉학과 함께 반역한 상황을 무고하여 상주하니, [이에] 맹정서가 봉학을 참수하여 바쳤고, 봉학의 형 봉사(奉款)가 이진과 마찬가지로 대후를 진수하였다.427) 아들 봉선(奉先)이 족사(族舍) 맹마(猛麻)·봉공(奉恭)과 함께 다투어 살육하

423)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46 正統 3년 9월 庚戌條 참조.

424) 奉外法 외에도 木邦宜憲司 宜憲 罕憲法, 鎮康州 知州 刀門光, 洮州 舍人 景隆法 등도 각각 사람을 보내 銀器·코끼리·말 등을 바쳤고, 명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衣服 등을 차등을 두어 내려주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147 正統 11년 11월 乙酉條 참조.

425)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149 正統 12년 정월 癸丑條 참조.

426) 陳用賓(1550~1617): 字는 道亨이고, 號는 毓台이며, 福建 晉江 사람이다. 隆慶 원년(1567)에 舉人이 되고, 隆慶 5년(1571)에 進士가 되어 長洲 舍에 授수되었는데, 근면하게 정무에 임했고 백성을 위해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이후 御史가 되어 河東을 巡按했고 淮陽을 순안하면서 學政을 提督하기도 했으며, 오로지 사심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張居正을 따르지 않아서 四川 參議로 좌천되어 浙江 副使, 參政의 직을 진전했다. 그러다 按察使로 승임하고, 湖廣 布政使를 지냈다. 마침 西南 邊陲에 일이 많았는데, 萬曆 21년(1593)에 그는 都御史가 되어 雲南 巡撫에 임명되었다. 그는 雄略을 가지고 있었고, 用兵을 잘하여 緬賊의 침략을 잘 막았으며, 滇西 騰冲 등 많은 地方을 성공적으로 平定했다. 그러나 그는 鑑稅監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는데, 이와 관련해 모함을 받아 下獄되어 9년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병을 얻어 결국 죽었다. 그의 謚號는 襄毅이다.

며 항명하였는데, 이듬해 그들을 토벌하여 평정하고서 운주(雲州)로 바꾸고 유관을 설치하였다.428)

瀾滄衛 난창위

瀾滄，元爲北勝州地。洪武中，屬鶴慶府。二十八年置瀾滄衛。二十九年於州南築城，置今衛司。領北勝·浪渠·永寧三州。永樂四年以永寧州陞爲府。正統七年以北勝州直隸布政司，今衛只領州一。

난창(瀾滄)은 원나라 때 복승주의 지역이 되었다.429) 홍무 연간(1368~1398)에 학경부에 예속시켰다. [홍무] 28년(1395)에 난창위를 설치하였다. [홍무] 29년(1396)에 주의 남쪽에 성을 쌓았고 지금의 위사(衛司)를 설치하였다. 복승·낭거(浪渠)·영녕(永寧)430) 세 주를 통괄하였다. 영락 4년(1406)에 영녕주를 부로 승격시켰다.431) 정통 7년(1442)에, 복승주를 포정사에 직접 예속시켜 이제 위는 단지 하나의 주만 통령하였다.

弘治十一年，福建布政李韶以前任雲南參議，知土俗事宜，上疏言四事。一謂瀾滄衛與北勝州同一城，地域廣遠，與四川建昌西番野番相通。通年西番土舍章乾等倚恃山

427) 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313 萬曆 25년 8월 甲申條; 『神宗實錄』 卷346 萬曆 28년 4월 丙子條 참조.

428) 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423 萬曆 34년 7월 戊辰朔條 참조.

429) 원나라의 至元 15년(1278)에 立施州를 설치하였고, 至元 17년(1280)에 北勝州로 바꿨으며, 至元 20년(1283)에 府로 승격시켰다.

430) 永寧: 永寧府를 일컫는다. 원나라 때는 永寧州를 설치하여 麗江路에 예속했다. 洪武 15년(1382)에 北勝府로 바꾸어 예속시켰다가 洪武 17년(1384)에 鶴慶府에 예속시켰으며, 洪武 29년(1396)에 瀾滄軍民衛에 속하게 했다. 이후 永樂 4년(1406)에 永寧府로 승격시켜 布政司에 속하게 했다.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寧蒗彝族自治縣 지역이다.

431)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54 永樂 4년 4월 癸未條 참조.

險，招服野番千餘家爲莊戶，遂致各番生勑，動輒殺人，州官無兵不能禁止。衛官大廢軍政，恬不加意。又姚安府·大羅衛·賓川州地方有賊穴六七，軍民受害。請添設兵備副使於瀾滄衛城，以姚安·大羅·賓川·鶴麗·大理·洱海·景東諸府州衛所，皆令屬之。於野番則用撫流民法，於賊巢則用立保甲法，朝夕經理，則內外寇患皆可弭矣。因從其議，設兵備副使一員於瀾滄城。

홍치 11년(1498)에, 복건(福建)⁴³² 포정사 이소(李詔)는 전임 운남참의였기 때문에⁴³³ 토속(土俗)의 일을 잘 알아서 네 가지 일을 상소하였다. [그 중] 한 가지에서 일컫기를, 난창위와 복승주는 같이 하나의 성(城)에 있는데, 지역이 넓고 멀어서 사천(四川) 건창(建昌) 서번(西番)의 야번(野番)과 서로 통하고 있다. 근래에 서번 토사(土酋) 장예(章輓) 등이 산새가 험한 것을 믿고 야번 천여 가(家)를 복속시켜 장호(莊戶)로 삼고서 마침내 각 번을 반항하도록 하고 빈번히 사람을 죽였는데, 주의 관원들은 군사가 없어서 금지시킬 수 없다. 위(衛)의 관원들은 대대적으로 군사업무를 방기하며 태평하게 [일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요안부(姚安府)·대라위(大羅衛)⁴³⁴·빈천주(賓川州)⁴³⁵ 지역은 적의 소굴이 6~7개로 군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따라서] 난창위의 성에 병비부사(兵備副使)⁴³⁶를 증설하여 요안·

432) 福建: 『尚書』『禹貢』의揚州에 상당하는 지역이다. 元代에 福建道宣慰使司를 두어 江浙行中書省에 예속시켰다. 至正 16년(1356)에 宣慰司를 行中書省으로 고쳤다. 朱元璋의 吳元年(1364)에 陳友定을 평정하면서 관할하기 시작했는데, 洪武 2년(1369)에 福建等處行中書省을 두었다. 洪武 7년(1374)에 福州都衛를 설치하고, 이듬해에 福建都指揮使司로 고쳤다.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치고, 府 8, 直隸州 1, 屬縣 57곳을 관할하였다.

433) 『孝宗實錄』卷154 弘治 12년 9월 乙丑條에는 李詔가 전임 雲南 參政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34) 大羅衛: 濱川州의 治所 동쪽의 鐘英山 아래에 있다. 弘治 연간(1488~1505)에 州와 함께 설치되었다(『讀史方輿記要』卷117 『雲南』5 참조).

435) 賓川州: 唐나라 때는 匡州의 땅이었고, 南詔 때에는 太和楚場 지역이었으며, 대리국에서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원나라 때는 太和·雲南 두縣과 趙州가 위치한 지역이었다. 명나라 때 賓川州를 설치하여 雲南大理府에 예속시켰고, 청에서는 그것을 계승하였다.

436) 兵備副使: 兵備副使는 分守參將에 대응하는 文官職 將領을 말하는데, 兵備道의 官을 일컫으며 대개 按察司副使가 겸직을 하였다. 參將은 總兵官의 命을 받는데 비해 병비부사는 督撫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였다. 弘治 연간(1488~1505)에 九江兵備가 설치되면서 이 직책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嘉靖 연간(1522~1566)에 倭寇의 출몰이 많아짐으로 동남연해안 각 쑤에도 병비부사가 설치되었다.

대라·빈천·학려·대리·이해(洱海)⁴³⁷·경동(景東) 등 여러 부·주(府·州)의 위소(衛所)⁴³⁸를 모두 이에 속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야번에게는 유민을 안무한 방법을 사용하고, 적의 소굴에는 보갑법(保甲法)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관리하면 내외의 구환(寇患)이 모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의 건의를 따라 난창성에 병비부사 한 명을 두었다.

437) 洱海: 옛 문헌에는 葉榆澤·昆彌川·西洱河·西二河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운남성 대리의 서북쪽에 위치한 호수이다. 해발 1,972m에 위치해 있고 남북으로 긴 형태를 하고 있는데, 남북으로 길이가 약 42.6km, 동서로 약 8km의 폭을 가지고 있다. 洱海는 모양이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본문의 洱海는 洱海衛를 일컫으며, 明朝가 洪武 19년(1386)에 雲南縣(지금의 大理白族自治州 祥雲縣)에 설치한 衛이다.

438) 衛所: 軍戶에서 징발된 軍丁은 각 지방의 衛所에 분산 소속되어 군역에 종사하였는데, 명대 위소제에 대해서는 『明史』의 기록에 근거하여 劉芾가 확립한 것이라는 견해를 많은 학자들이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위소제도는 유기에 의해 처음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元代 軍事制를 모방하여 주원장이 원 말 農民叛亂에 참가하였을 때, 이미 확립된 제도였다. 위소제도의 특징은 평시에는 군대를 각 지방에 분산시켜 주둔케 하고 전시에만 장수로 하여금 출병케 하였다. 이때 장수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개인적으로는 평시에 사병을 거느리지 못하고, 전시에만 이들을 이끌고 싸움에 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상시의 군사들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솔하는 將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적이나 출병권에 의해 황제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즉, 군호를 기입한 군적은 병부가 관리하고 군사의 통솔권만 五軍都督府가 장악하였는데, 이때 출병의 명령은 황제나 변장의 수중에 있어 장수는 전시에만 조정에서 파견되어 군사를 통솔하여 싸움에 임할 뿐이었다. 이처럼 명대의 군사권은 철저하게 견제를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황제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명대 위소제도에 관해서는 『明史』卷90 『兵志』 2에 보면 一衛는 대체로 5,600명, 一千戶所는 1,120명, 一白戶所는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百戶所에는 2개의 總旗가 있다. 一總旗는 5小旗를 거느리고, 小旗는 1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 위소제도가 성립되었을 때는 원래 군사제도와 마찬가지로 十·千·萬 單位로 구성되었다. 즉 一衛는 10千戶所, 一千戶所는 10百戶所로 되었고, 百戶所에는 2總旗, 一總旗는 5小旗를 거느리고, 一小旗는 10명의 군사를 통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당초의 一衛의 軍官과 軍士를 계산해 보면, 모두 11,311명(군사 10,000, 소기 1,000, 총기 100, 백호 10, 도지휘 1)이 된다. 그런데 위소제도가 실시된 후 얼마 뒤에는 一衛의 군관과 군사수가 실제로는 5,656명(군사 5,000, 소기 500, 총기 100, 백호 50, 천호 5, 도지휘 1)이 되는데, 명대는 계속하여 이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명대 위소제도가 원비되었을 때는 군사의 숫자가 이전보다 약 2분의 1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위소는 각 都府에 소속되었는데 洪武 26년(1393)에는 전국적으로 도사 17개, 행도사 3개, 유수사 1개이며, 內外衛 329개, 守禦千戶衛 65개였다. 永樂 연간(1403~1424) 이후에는 위소가 증설되어 도사가 21개, 유수사 2개, 내외위 493개, 守禦屯田群牧千戶衛가 359개로 되었다(윤정분, 1984: 315~317).

麓川·平緬

죽천·평면

麓川·平緬, 元時皆屬緬甸, 緬甸, 古朱波地也, 宋寧宗時, 緬甸·波斯等國進白象, 緬甸之名自此始, 緬在雲南之西南, 最窮遠, 與八百國·占城接壤, 有城郭室屋, 人皆樓居, 地產象馬, 元時最強盛, 元嘗遣使招之, 始入貢.

죽천(麓川)·평면(平緬)⁴³⁹⁾은 원나라 때는 모두 먼전에 속하였다. 먼전은 고대에 주파(朱波)⁴⁴⁰⁾의 지역이었다. 송나라 영종(寧宗, 1168~1224; 재위 1194~1224)⁴⁴¹⁾ 때에, 먼전·파사(波斯)⁴⁴²⁾ 등의 나라가 흰 코끼리를 바쳤는데, 먼전이라는 이름은 이것에서 비롯되었다. 먼전은 운남의 서남쪽에 있는데 가장 궁벽하고 먼 곳이다. 팔백국(八百國)·점성(占城)⁴⁴³⁾과 경계

439) 平緬: 고대에는 百夷의 땅으로 元에서는 麓川·平緬 2개의 路를 설치하였다. 明初에는 이 지역에 麓川平緬宣慰司를 설치하였고, 후에 隴川宣撫司로 변경하였다. 지금은 雲南의 騰衝縣에 속한다.

440) 秦나라에서 이 지역을 朱波라고 칭하였고, 漢에서는 押陂, 唐에서는 歸羅, 宋에서는 瀾甘이라고 불렀다.

441) 寧宗: 南宋의 네 번째 황제이다. 그의 본명은 趙擴으로, 南宋 光宗의 둘째 아들이다. 1194년 光宗이 병약하고 무능하여 제상 趙汝愚, 韓侂胄 등과 高宗의 황후 吳氏에 의하여 퇴위 당하자 제4대 황제로 즉위하였다. 寧宗이 즉위해서 한타주는 황후 韓씨의 대숙부로서 권력을 잡고 조어우 등을 배제한 독재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당시 반대 세력의 한 사람이었던 朱子學을 대성시킨 朱熹 역시 추방되어 그의 理學이 금지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을 慶元의 黨禁이라고 한다. 1205년 영종은 한타주를 平章軍國事로 임명하였다. 황후 韓씨가 사망하자 한타주는 권력유지를 위해 송나라에 대한 대규모 북벌을 계획하였으나 준비가 불충분하여 戰況이 불리해졌고 새로 황후가 된 楊州측의 楊太后, 史彌遠 등이 북벌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타주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 1224년에 寧宗은 위독해졌지만 9명의 아들이 모두 요절하여 후계자가 없어 趙昀을 태자로 삼고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諡號는 法天備道純德茂功仁文哲聖睿恭孝皇帝이다.

442) 波斯: 페르시아(Persia)를 일컫는다.

443) 占城: 참파(Champa)를 일컫는데, 오늘날 베트남의 중부 일대에 위치한 참파족이 세운 국가이다. 초기에 중국 사료에는 林邑이라 불렸지만, 이후 참파라는 이름을 따서 占婆 또는 占城으로 바뀌었다. 참파족의 언어는 말레이-폴리네시아어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도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아 南天竺의 문자를 사용했고, 인도로부터 비라문교와 불교 등 이른바 인도 종교를 받아들였다. 한편 중국으로부터는 鎡鐵術과 무기제조기술 및 생산기술 등을 전수받았다. 참파족이 주로 활동하던 베트남 중부 일대는 광활하고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생산력이 비교적 높아 일정한 인구 부양이 가능했고, 상야와 무소의 뿔, 칠황 및 무비를 비롯한 각종 보석류 등 여러 진귀한 물산이 풍부했으며, 천혜의 항구들이 산재해

를 접하고 있다. 성곽과 집들이 있고, 사람들은 모두 누(樓)에 거주하며, 그 지역에서는 코끼리와 말이 나온다. 원나라 때에 가장 강성하였다. 원나라는 일찍이 사신을 보내 그들을 초무하였는데, [그때부터] 입조하여 진공하기 시작하였다.

洪武六年遣使田儼·程斗南·張瑄·錢允恭齎符往諭, 至安南, 留二年, 以道阻不通, 有詔召之, 惟儼還, 餘皆道卒, 十五年, 大兵下雲南, 進以大理, 下金齒, 平緬與金齒壤地相接, 土蠻思倫發聞之懼, 遂降, 因置平緬宣慰使司, 以倫發爲宣慰使, 十七年八月, 倫發遣刀孟獻方物, 并上元所授宣慰使司印, 詔改平緬宣慰使爲平緬軍民宣慰使司, 並賜倫發朝服·冠帶及織金文綺·鈔錠, 尋改平緬軍民宣慰使司爲麓川平緬軍民宣慰使司, 麓川與平緬連境, 元時分置兩路以統其所部, 至是以倫發遣使貢, 命兼統麓川之地.

홍무 6년(1373)에, 사신 전언(田儼)·정두남(程斗南)·장의(張瑄)·전유공(錢允恭)을 보내 조서를 가지고 가서 효유하게 하였다. 안남(安南)⁴⁴⁴⁾에 도달하여 2년을 체류하였는데, 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항해술을 배경으로,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일대 사이의 항로가 지나가는 곳이라는 지리적인 이점 등을 이용해서 각국과의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宋代에는 이른바 占城稻가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참파는 천연의 자연 장애물인 海峽 남 너머, 즉 현 베트남의 광남(Quang nam)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후 남쪽의 푸난(扶南)과도 경쟁했지만 주로 북쪽으로 팽창하였다. 따라서 그 최성지는 안남이었다. 하지만 10세기 이래,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레 호안(Le Hoan, 黎桓)이 지휘하는 안남 군대의 원정으로 참파의 수도 인드라푸라(Indrapura)가 파괴되어, 그보다 훨씬 남쪽의 비자야(Vijaya, 현재의 빈 딘(Binh Dinh))로 천도하였다. 이는 참파와 안남 사이에 벌어진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는데, 이후 약 5세기에 걸쳐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참파는 안남의 세력이 남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공략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17세기 말에 안남의 응우옌(阮) 세력에 의해 멸망되었다(유인진, 2002: 61; 최병욱, 2006: 49~56; 馬歡/馮承鈞 校注, 1962: 1~6; 費信/馮承鈞 校注, 1962: 1~3).

444) 安南: 현재의 베트남 북부에서 중부에서 이르는 지역에 베트남인에 의해 세워진 국가를 가리키는데, 안남이란 용어는 唐代에 설치된 安南都護府에서 유래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기원전 3세기 말 漢 武帝가 南越을 정복하면서 시작되었다. 10세기 전반에 독립하면서 안남은 朝貢제도를 통해 중국의 침략을 방지하는 한편,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였다. 明 태조 朱元璋은 明朝 건립 후 안남에 사신을

막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서를 보내 그들을 돌아오게 하였는데, 오직 전염만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중에서 사망하였다.⁴⁴⁵⁾ [홍무] 15년(1382)에, 대군이 윤남을 정복하고 대리까지 진격하여 취하였으며, 금치를 함락시켰다. 평면과 금치는 땅이 서로 맞붙어 있어 토만(土蠻) 사윤발(思倫發)⁴⁴⁶⁾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마침내 투항하였다. 이로 인하여 평면선위사사(平緬宣慰使司)를 설치하고 사윤발을 선위사(宣慰使)로 삼았다.⁴⁴⁷⁾ [홍무] 17년(1384) 8월에, 사윤발이 도령맹(刀令孟)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아울러 원나라에게서 받은 선위사사(宣慰使司)의 인장을 바쳤다.⁴⁴⁸⁾ [이에] 조서를 내려 평면군민선위사(平緬軍民宣慰使司)로 변경하였다. 녹천과 평면은 땅이 연결되어 있어서 원나라 때는 두 개의 노(路)로 나누어서 관할 지역을 관리하게 하였지만, 이때에 이르러 사윤발이 사신을 보내 진공함으로써 녹천의 땅을 겸하여 통할하도록 하였다.⁴⁴⁹⁾

동북아시아사재민

보내 자신의 즉위 사실을 알렸고, 이에 안남이 조공사절을 파견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15세기 초에는 안남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레(黎) 왕조(1428~1788)가 출현하였다. 이 시대에 안남은 儒教 국가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다만 1527년에 莫登庸의 왕조 찬탈 사건 이후부터 18세기 말 레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2세기 반 동안 안남의 국내 정세는 분열과 혼란의 연속이었다(유인선, 2002: 182~246 참조).

- 445)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86 洪武 6년 11월 乙酉條 참조.
 446) 思倫發(?~1399): 明代 麓川(孟卯)의 토주이다. 1382년에 祖女인 思可發이 開創한 麓川을 이어받았으며, 1384년에 明朝로부터 麓川平緬宣慰使에 책봉되었다. 그런데 1385년에 景東宣慰使로 변경하자, 思倫發은 이에 不服하여 명에 반기를 들었다. 1388년에 沐英이 火銃과 神機箭을 갖춘 明軍을 이끌고 麓川을 정벌하자, 麓川軍은 大敗하였다. 이듬해에 思倫發이 謝罪하였고, 1394년에 明朝는 그에게 公服을 내렸다. 1397년에 刀幹孟이 난을 일으키자 그는 高黎貢山으로 유망하였는데, 1398년에 沐春이 刀幹孟을 벌하여 다시 麓川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399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思行發이 뒤를 이었다.
 447)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윤2월 乙巳條 참조. 畢奧南의 연구를 보면, 명 조정이 思倫發을 宣慰使로 삼은 것은 麓川 지역이 명조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畢奧南, 2005: 106~107).
 448) 이와 관련된 내용은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17년 8월 壬申條; 『太祖實錄』 卷164 洪武 17년 8월 壬申條 참조.
 449)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64 洪武 17년 8월 丙子條, 甲午條 참조.

十八年, 倫發反, 率衆寇景東. 都督馮誠率兵擊之, 值天大霧, 猝遇寇, 失利, 千戶王昇戰死.

[홍무] 18년(1385)에, 사윤발이 반역하여 무리를 이끌고 경동을 약탈하였다. 도독(都督) 풍성(馮誠)⁴⁵⁰⁾이 병사를 이끌고 그들을 공격하였는데, 마침 그때에 하늘에서 짙은 안개가 내려 갑자기 적들을 맞닥뜨려 전투에 패하였고, 천호 왕승(王昇)이 전사하였다.⁴⁵¹⁾

二十年敕諭西平侯沐英等曰: 「近御史李原名歸自平緬, 知蠻情詭譎, 必爲邊患. 符到, 可卽於金齒·楚雄·品甸及瀾滄江中道, 葺壘深池, 以固營柵, 多置火銃爲守備. 寇來, 勿輕與戰, 又以往歲人至百夷, 多貪其財貨, 不顧事理, 貽笑諸蠻. 繼今不許一人往平緬, 卽文移亦慎答之, 毋忽.」 明年, 倫發誘羣蠻入寇馬龍他郎向之摩沙勒寨. 英遣都督甯正擊破之, 斬首千五百餘級. 倫發悉舉其衆, 號三十萬, 象百餘, 寇定邊, 欲報摩沙勒之役, 新附諸蠻皆爲盡力. 英遣師三萬亟趨至, 賊列象陣搏戰. 英列弩注射, 突陣大呼, 象多傷, 其蠻亦多中矢斃, 蠻氣稍縮. 次日, 英率將士, 益置火槍·神機箭, 更番射. 象奔, 賊大敗. 擄其寨, 斬首三萬餘級, 降卒萬餘人. 象死者半, 生獲三十有七. 倫發遁, 以捷聞. 帝遣使諭英移師逼景東屯田, 固壘以待大軍集, 勿輕受其降.

[홍무] 20년(1387)에 서평후 목영 등에게 칙유를 내려 이르기를, “근래에 어사 이원명(李原名)⁴⁵²⁾이 평면에서 돌아왔는데, 만민들의 성정(性情)이 교활하고 간사하다는 것을 알았고,

- 450) 馮誠: 生卒年 未詳. 定邊 사람으로, 馮國用이 아들이다. 馮國用이 紹興에서 病으로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아직 어려 부친의 직을 세습하지 못하고 그의 叔父 馮勝이 親軍指揮職을 이었다. 이후 傅友德를 따라 雲南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워 右軍左都督에 올랐다.
 451)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76 洪武 18년 10월 癸丑條;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18년 12월條 참조.
 452) 李原名: 生卒年 未詳. 字는 資善으로, 安州 사람이다. 洪武 15년(1382)에 儒士를 거쳐 御史가 되었다. 洪武 20년(1387)에 緬甸을 평정하고 돌아와서는 思倫發의 간교함을 언급하면서 땅어를 엄격하게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禮部尙書로 발탁되었고, 邊方의 일에 대해 많이 자문하였다.

반드시 변경의 우환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 부절(符節)⁴⁵³이 도착하면 즉시 금치·초용(楚雄)⁴⁵⁴·품진(品畝)·난창강 중도에 높은 성채와 성하(城河)를 건설하여 영책(營柵)을 견고하게 하고, 대부분 화총(火銃)을 설치하여 수비하도록 하라. 도적들이 오면 가버이 그들과 교전하지 말라. 또한 지난 해 어떤 사람이 백이에 이르러 대부분 그 재화(財貨)를 욕심내면서 일의 도리에는 신경쓰지 않음으로써 만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지금부터 한 사람도 평민에 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고, 혹시 문서를 보내더라도 신중하게 답을 하고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⁴⁵⁵ 이듬해(1388)에 사운발이 여러 만민을 유도하여 마룡(馬龍)·타랑진(他郎甸)의 마사특채(摩沙勒寨)를 약탈하였다. [이에] 목영이 도독 영정(南正)을 보내 이들을 격파하고, 1,500여 수급을 베었다.⁴⁵⁶ 사운발이 그의 무리 전체를 출동시켰는데, 30만 명, 코끼리 백여 마리라고 하며 정변(定邊)을 약탈하였으며, 마사특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를 보복하려고 하여 새로 귀부한 여러 만민들이 모두 전력을 다하였다. 목영이 군대 3만 명을 선발하여 신속하게 도달하였는데 적은 코끼리 진을 벌여놓고 전투하였다. 목영이 궁노(弓弩)를 열 지어 배치하여 활을 쏘고 진영에 돌진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니, 코끼리들이 대부분 다쳤고 그들 만민들 역시 화살을 맞아 죽은 이가 많아서 만민들의 기세가 점차 위축되었다. 다음날 목영이 장사(將士)를 거느리고 더 많은 화창(火槍)·신기전(神機箭)을 설치하여 번갈아가며 쏘아대니, 코끼리는 달아났고 적들은 대패하였다. 그들의 성채를 공격하여 3만여 수급(首級)을 베었고, 항복한 병사가 1만여 명이었다. 코끼리는 절반이 죽었고, 생포한 것이 37마

453) 符節: 천자로부터 하사받은 符信을 말하는데, 사신임을 확인시켜주는 물종의 증명서이다. 등장 초기에는 주로 대나무에 글을 쓰고 증인을 찍어, 두 쪽으로 나눈 다음 각각 보관했다가 후일 그것을 서로 맞춰 증거로 삼았던 물건이다. 부절의 용도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정의 명령이나 군사를 발동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兵符 혹은 한나라 文帝 2년(전178)에 구리로 호방이 형상으로 만든 銅虎符가 그 예이다. 둘째, 사신들이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先秦시기에 이미 존재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지니고 있다가 유사시 사신을 파견했을 때, 두 쪽을 서로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였다. 명칭시대에는 符牌라고 불렀다.

454) 楚雄: 楚雄府를 일컫는다. 洪武 15년(1382)에 威楚 開南路를 바꾸어 楚雄府라 했으며, 楚雄·定遠·廣通·大姚 등 4縣과 鎮南·南安·姚 등 州를 관할했다. 지금의 楚雄彝族自治州의 남부 일대이다.

455)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82 洪武 20년 5월 庚申條;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20년 5월 庚申條 참조.

456)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88 洪武 21년 정월 辛巳條;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21년 正月條 참조.

리였다. 사운발은 도망하였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조정]에 보고하였다.⁴⁵⁷ 황제는 사신을 보내 목영에게 군대를 경동 둔전(屯田)⁴⁵⁸으로 이동시키고, 군영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서 대군이 집합하기를 기다리며, 가버이 그들의 투항을 받지 말라고 유시(諭示)하였다.⁴⁵⁹

二十二年，倫發遣把事招綱等來言：「往者逆謀，皆由把事刀廝郎·刀廝養所爲。乞貸死，願輸貢賦。」雲南守臣以聞，乃遣通政司經歷楊大用齎敕往諭論倫發修臣禮，悉償前日兵費，庶免問罪之師。倫發聽命，遂以象·馬·白金·方物入貢謝罪，大用并令獻叛首刀廝郎等一百三十七人，平緬達平。自是，三年每來朝貢。二十七年，倫發來朝，貢馬·象·方物。已，遣京衛千戶郭均英往賜恩倫發公服·幞頭·金帶·象笏。

[홍무] 22년(1389)에 사운발이 파사(把事) 초강(招綱) 등을 보내와서 아뢰기를, “지난 날 역모는 모두 파사 도시랑(刀廝郎)·도시양(刀廝養)이 했던 것입니다. 죽을 죄를 용서해주시고 조공을 하여 부세를 낼 수 있게 해주시길 청합니다”라고 하였다.⁴⁶⁰ 운남 수신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통정사(通政司)⁴⁶¹ 경력 양대용(楊大用)을 보내, 칙시를 가지고 가서

457) 이와 관련된 내용은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21년 3월條 참조; 이때 명 조정과 녹천이 摩沙勒과 定遠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마사특 일대는 元朝 말년에 녹천에서 장악하였다. 그런데 운남 지역을 평정한 후 명조에서는 녹천의 세력을 엄려하여 점진적으로 녹천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명 조정에서는 녹천 변경 지역에 있는 토관들의 이탈을 부추겨 명조에 귀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명조의 진술에 景東과 摩沙勒의 토관이 명조에 귀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관망하던 녹천 측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는데, 변경에 있는 세력이 점차 와해되어 가는 것이 정권의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녹천에서는 대군을 일으켜서 마사특에 대한 전쟁을 시도하여 필요한 변경의 상황은 전쟁시키려고 하였다. 명조에서도 군대를 파견하여 대적하면서 洪武 21년(1388)에 마사특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다. 녹천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미 명조에 귀부했던 토관들이 다시 녹천 측과 함께 명조의 군대와 교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다음에는 녹천과 명조의 군대가 정변에서 교전하였는데 명의 군대는 화기를 사용하여 녹천의 코끼리 부대를 궤멸시켰다. 이것이 정변의 전투이다.

458) 屯田: 변경이나 군사적 요충지에 軍糧에 충당하거나 官廳의 경비를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토지. 군인이나 모집된 농민들에게 이를 경작하도록 하였다.

459)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89 洪武 21년 3월 甲辰條 참조.

460) 이때 思倫發은 象·馬·白金を 보내 조공하였다(『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22년 11월條 참조).

사육발이 신하의 예를 준수하도록 훈육하고, 이전의 군사비용은 모두 보상하도록 했으며, 문죄(問罪)의 군대(462)를 보내는 것을 모두 면해 주었다. 사육발이 명령을 듣고서 마침내 코끼리·말·백금·방물을 가지고 내조하여 진공하며 사죄하였고, 양대용은 아울러 반란의 수괴 도시랑 등 137명을 바치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마침내 평면이 평정되었다. 이때부터 3년마다 내조하여 진공하였다.⁴⁶³ [홍무] 27년(1394)에 사육발이 내조하여 말·코끼리·방물을 바쳤다. 그 후에 경위(京衛) 천호 좌공영(郭均英)을 보내어 사육발에게 공복(公服)⁴⁶⁴·복두(幘頭)⁴⁶⁵·금대·상술(象笏)⁴⁶⁶을 하사했다.⁴⁶⁷

461) 通政司: 명대 内外의 문서를 전달하고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나 황제가 발표하는 칙령 등을 총괄하는 중앙 부서로, 본래의 명칭은 通政使司이다. 洪武 3년(1370)에 신설되었다가 곧 폐지되었다. 하지만 洪武 10년(1377)에 다시 설치되었다. 황제와 각 부시와의 문서출납을 담당하였다. 장관인 通政使는 正三品이고, 차관인 左·右通政은 正四品 관직이다. 청대에는 명대의 제도를 수용하여 通政司를 존속시켰는데, 지방의 衙門에서 상주하는 공식적인 문서인 題本을 받아서 열람한 후, 內閣에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462) 범죄자를 도벌하는 군대를 일컫는다.

463)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198 洪武 22년 11월 乙亥條 참조.

464) 公服: 고대에 관리들이 관공서에서 공무를 수행할 때 입는 복장으로 官服이라고도 칭한다. 祭服이나 朝服에 비해서 그 형식은 상당히 간단한 편이고 빈잡한 장식물들을 생략하였다.

465) 幘頭: 깎이 지고 위가 평평한 官帽이다. 紗帽과 같이 두 단으로 되어 있으며, 뒤쪽의 좌우에 뿔이 달려 있다. 복두는 중국에서 생겨난 관모로서 折巾·巾·帽·軟蓋 등의 별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겹에서 비롯되었다. 後周 武帝 때 머리를 감싼 데서 복두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때는 각을 軟信으로 만들어 드려웠으며 수나라 때 만들어 시작하였다. 당나라 때는 緇(무늬 없는 고급 비단) 대신 羅(삼갈)고, 옳은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冠形化되어 백관과 士庶人의 常服에 쓰게 되었다. 형태는 四脚으로 양각은 머리 뒤로 매고 양각은 턱 아래로 매어 벗겨지지 않게 하였다. 일이 없을 때는 머리 위로 올려서 매었다. 뒤에 사각이던 것이 양각으로 되었으며, 軟脚이던 것이 점차 硬脚으로 되었다.五代 이후부터 각은 점차 平直으로 변하였고 송나라 때는 군인이 모두 展脚幘頭를 쓰게 되었다. 이때의 복두는 幘頭가 낮고 깎이 길었는데 특히 제왕의 것은 몹시 길었다.

466) 象笏: 象牙로 만든笏이다. 고대에笏은 일반적으로 玉·象牙·竹片으로 만들었는데, 1품에서 5품까지의 관원들은 상아로 만든笏을 지녔다.

467) 이때 元江府 土官知府 那榮, 因邊難必胡長官司 長官 白文玉 등 50여 곳의 土官들이 내조하여 코끼리, 말, 방물을 바쳤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31 洪武 27년 정월 辛丑朔條 참조). 思倫發은 洪武 23년(1390)에도 사절을 보내 表文과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04 洪武 23년 9월 丁未條 참조).

二十八年, 緬國王使來言, 百夷屢以兵侵奪其境, 明年, 緬使復來訴, 帝遣行人李思聰等使緬國及百夷, 思聰發聞詔, 俯伏謝罪, 願罷兵, 適其部長刀幹孟叛, 思聰以朝廷威德諭其部衆, 叛者稍退, 思聰發欲使侍者服其下, 強留之, 以象·馬·金寶爲賂, 思聰諭却之, 歸述其山川·人物·風俗·道路之詳, 爲『百夷傳紀』以進, 帝褒之.

[홍무] 28년(1395)에 먼진 국왕이 사신을 보내 아뢰기를, 백이가 여러 차례 병사를 이끌고 그 영역을 침략하였다고 하였다.⁴⁶⁸ 이듬해(1396)에 먼진의 사신이 다시 와서 호소하였다. [이]에 황제가 행인(行人)⁴⁶⁹ 이사총(李思聰)⁴⁷⁰ 등을 먼진과 백이에 사신으로 보냈다.⁴⁷¹ 사육발이 조서가 도착하였다는 것을 듣고, 부복하며 사죄하면서 정전(停戰)을 원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의 부장(部長) 도간맹(刀幹孟)⁴⁷²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사총이 조정의 위덕(威德)으로 그 부족의 무리를 효유하니, 반란자들은 점차 물러났다. 사육발이 사신을 의지하여 그의 부하를 복종시키려고 하여 강령하게 그를 만류하고 코끼리·말·금보(金寶)를 뇌물로

468)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42 洪武 28년 癸未條 참조.

469) 行人: 조공 관련 외교 업무를 담당하던 관직명으로, 行人司行人的 약칭이다. 周代에는 秋官에 속해 大行人과 小行人 2급이 있었고, 멀리서 天子를 알현하고자 온 賓客의 접대를 맡았다. 漢代에는 大鴻臚의 屬官으로 行人司에 있었던 府內 郎官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했다. 『明史』 『職官志』에 따르면, 明代 行人司에 장관인 司正(正七品)과 부관인 左右司副(從七品)을 보좌하는 行人 37명(正八品)을 두어 捧節과 出使 등의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洪武 13년(1380)에 처음으로 行人司가 설치될 때 行人은 正九品이었으나, 洪武 27년(1394)에 品秩을 승격시키고 李濂科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였다. 建文帝는 行人司를 없애고 鴻臚寺에 예속시켰으나 永樂帝가 다시 복귀시켰다.

470) 李思聰: 生享年 未詳, 字는 仲謀이고, 和平板塘 사람이다. 洪武 26년(1393)에 鄉試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진사로 급제하여 行人司行人에 제수되었다. 洪武 29년(1396)에 緬甸 사신으로 파견되어 책임을 다하였는데, 緬甸의 풍속과 그곳에서 견문한 것을 모두 기록하여 『百夷傳』을 저술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洪武 31년(1398)에 3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471) 李思聰과 함께 파견된 사람은 錢古訓이고, 이들이 가져간 詔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道里遠險, 山川阻修, 風俗殊異, 此乃天造地設也. 爾能動使者陟險, 遠越鄰邦, 衝寇突霧, 晨進昏退, 戴風霜而至中夏, 可謂難矣. 古人云, 誠信君子將有事於遠, 雖千里之外神交而自通, 今萬里之外, 爾能動使遠修其好, 美絕古今, 然排難解紛之事, 朕之旨意, 恨不卽一言而止, 使彼此各罷兵守業黎民於變也. 兩國之民, 居處各分, 雖在關市之議, 是其利也, 其或忿爭不已, 天將昭臨, 爾善編淫, 運速可待. 敕至, 爾其審之!”, 관련된 내용은 『珠城固啓錄』 卷9 南百夷條 참조.

472)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에는 刁乾孟으로 되어 있다.

주었는데, 이사총은 이를 효유하고 거절하였다.⁴⁷³⁾ [그가] 돌아와서 [그곳의] 산천(山川)·인물(人物)·풍속(風俗)·도로(道路)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백이전기(百夷傳紀)』를 지어 바쳤는데, [이에] 황제가 그를 표창하였다.⁴⁷⁴⁾

初, 平緬俗不好佛。有僧至自雲南, 善爲因果報應之說, 倫發信之。又有金齒戍卒逃入其境, 能爲火銃·火炮之具, 倫發喜其技能, 俾繫金帶, 與僧位諸部長上。刀幹孟等不服, 遂與其屬叛, 攻騰衝。倫發率其家走雲南, 西平侯沐春遣送至京師。帝憫之, 命春爲征南將軍, 何福·徐凱爲副將軍, 率雲南·四川諸衛兵往討刀幹孟。并遣倫發歸, 駐瀘江上, 招諭其部衆, 賜倫發黃金百兩·白金五百十兩·鈔五百錠。又敕春曰: 「思倫發窮而歸我, 當以兵送還。若至雲南, 先遣人往諭幹孟毋怙終不臣, 必歸而主。倘不從, 則聲罪討之。」

당초에, 평민들의 풍속은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다.⁴⁷⁵⁾ [그런데] 어느 승려가 운남에서 이르러서 인과보응(因果報應)의 설을 잘 하여 사운발이 그를 믿었다. 또한 어떤 금치의 수졸(戍卒)이 그의 영역으로 도망을 와서 화총·화포(火炮) 등 기계를 잘 만들었는데, 사운발이 그의 기능을

473) 李思聰과 錢古訓은 “中國不以象馬金玉爲寶, 所寶者忠臣烈士強兵勇將與孝子順孫耳, 直道使者運朝, 不復侵擾鄰域, 則可明爾畏敬君上之心焉.”라 하며 거절하였다(『殊域聞咨錄』, 卷9 南百夷條 참조).

474) 『百夷傳紀』는 緬甸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李斯과 錢古訓이 편찬한 서적이다. 실록에는 이 서적이 흥부제에 관한 인상을 주어서 그들에게 朝服을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44 洪武 29년 정월 庚寅條 참조). 실록과 『殊域聞咨錄』에서는 모두 『百夷傳紀』를 『百夷傳』으로 표기하고 있다.

475) 미얀마의 불교는 소승불교로, 미얀마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403년에 인도 승려 부다가오(Buddhaghosa)가 미얀마의 타탄(Thaton)에 팔리(Pali)語 경전을 전해주면서 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불교가 융성하게 된 시기는 11세기 초 바간 왕조의 아노라타(Anawrahta) 왕 때이다. 당시 미얀마인들은 대략 19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낫(mat)이라고 부르는 각각 고유의 숭배 대상을 보유했다. 그런데 같은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낫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는 아노라타의 입장에서 보면, 각 부족의 견고한 독립성을 깨뜨릴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등장한 것이 소승불교였다. 아노라타 왕은 미얀마 사회의 낫과 소승불교를 결합하면서 통합을 이끌었다. 또한 바간 왕조의 안정에 중요한 요소인 본족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소승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최병욱, 2006: 참조)

좋아하여 그에게 금대를 하게 하였고 승려의 지위를 부여하여 여러 부장의 위에 있게 하였다. [그러자] 도간맹(刀幹孟) 등이 불복하여 마침내 그 부하들과 반란을 일으키고 등충(騰衝)을 공격하였다. [이에] 사운발이 그 가족을 이끌고 운남으로 도망갔는데, 서평후 목춘이 그를 경사에 보냈다.⁴⁷⁶⁾ 황제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목춘을 정남장군(征南將軍)에, 하복(何福)⁴⁷⁷⁾·서개(徐凱)를 부장군에 임명하여 운남·사천 여러 위의 병사를 이끌고 가 도간맹을 토벌하도록 하였다.⁴⁷⁸⁾ 아울러 사운발을 돌려보내니, 노강(潞江)⁴⁷⁹⁾ 강변에 거하여 그의 무리를 조무하고

476)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55 洪武 30년 5월 戊辰條 참조.

477) 何福(?~1410): 濠州(지금의 安徽省 鳳陽縣) 사람이다. 洪武 초에 여러 공을 세워 金吾後衛指揮同知가 되었다. 이후 傅友德을 따라 雲南 征討에 나가 공을 세워 前軍都督府都督僉事로 승임되었으며, 藍玉과 함께 北元을 공격하여 捕魚兒海에서 大勝을 거두었다. 洪武 24년(1391)에 平羌將軍에 임명되어 越州의 叛蠻 阿資를 토벌하였으며, 洪武 30년(1397)에는 征虜左將軍에 임명되어 西平侯 沐春을 보좌하여 麓川의 叛蠻 刀幹孟을 토벌하였고, 이듬해 都督 羅能과 함께 高良公山을 넘어 南甸으로 들어가 그 酋長 刀名孟을 붙잡았다. 建文 원년(1399)에 刀幹孟이 再次 叛亂을 일으키자, 何福은 征虜將軍에 임명되어 敵寨를 공격하고 刀幹孟을 사로잡았는데, 이때 敵軍 7만여 명이 투항하였다. 이에 대한 論劄에서 都督同知가 되었고, 隴 左都督에 올랐다. 燕王이 即位해서도 將領에 임용되어 征虜將軍印을 패용하고 總兵官이 되어 寧夏에 鎮守하여 山西·陝西·河南 등의 부대를 관령했다. 이때 그는 德意을 宣布하여 塞外의 여러 민족이 투항해 왔다. 永樂 7년(1409)에 本雅失里가 瓦剌에게 敗하여 騰胸河로 逃走해 왔으며, 이때 何福은 單반의 전투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遼北의 王子·國公·司徒 이하 10여 명이 亦集乃에 이르러 명에 귀부해 왔는데, 何福은 이를 보고하고 친히 亦集乃를 巡撫하여 이 공로로 寧遠侯에 봉해졌다. 그런데 永樂 8년(1410)에 永樂帝의 漠北에 대한 친정을 참어린 그는 그의 재능을 인정한 황제에게 많은 총애를 받음으로 지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左都御史 廉洪에게 彈劾을 당해 결국 목을 매어 죽었다(관련 내용은 『明史』, 卷144 『何福傳』 참조).

478)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55 洪武 30년 11월 癸酉條;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滇』; 洪武 30년 9月條; 『殊域聞咨錄』, 卷9 南百夷條 참조.

479) 潞江: 怒江이라고도 칭하며, 중국 서남 지구에 있는 큰 하천의 하나이다. 상류는 那曲河로 青藏高原의 三江源 지구인 唐古拉山脈의 巴斯克我山에서 발원하여 青藏高原 내부로 들어가 서쪽에서 동남으로 비스듬히 티베트 자치구 동부의 平淺谷地를 지나 운남성으로 들어가 남쪽으로 흘러 미얀마를 거쳐 인도양 안다만해로 들어간다. 강의 발원지로부터 전장 3,240km로 중국 부분 2,013km 중 운남성에서의 구간은 650km이다. 潞江의 상류는 고원지대로 산세가 비교적 평탄하며 수량이 많고 수심이 비교적 넓어 유속이 빠르지 않다. 중류는 비탈이 심하여 유수가 급한 고산계곡 지역이며 하류는 산세가 낮고 빗물의 보충으로 농업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潞江의 지류는 좁으며 전형적인 積狀水系로 河床의 낙차가 커서 수력자원이 풍부하다. 현재 중국은 14개의 댐을 건설하였으며 미얀마도 4개를 건설하고 있다. 潞江은 강의 수심이 깊고 어두워 중국 최초의 지리서인 禹貢에서는 이를 黑水河로 칭하고 있다. 현지지의 怒族은 阿怒日美라고 부르는데, 阿怒는 怒族이 스스로를 칭하는 말이며, 日美는 한어로 번역하면 江이

효유하였다. 사윤발에게 황금(黃金) 100냥·백금 150냥·초 500정을 내려주었다. 또한 목춘에게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사윤발이 곤궁하여 짐에게 의지해 왔지만 마땅히 군대를 보내 그를 돌리보내야 한다. 만약 윤남에 도착하였으면 먼저 사람을 보내 도간맹이 의지할 곳이 있어 끝내 신하의 도리를 어기지 않도록 효유하고, 반드시 [사윤발이] 돌아가서 주인이 되게 하라. 만약 따르지 않으면 [그의] 죄를 선포하고 그를 토벌하라”고 하였다.⁴⁸⁰⁾

時幹孟既逐倫發，亦懼朝廷加兵，乃遣人詣西平侯請入貢，春以聞。三十一年春：「幹孟欲假朝廷威以拒忽都，其言入貢，未可信。」帝遣人諭春曰：「遠蠻詭詐誠有之，姑從所請，審度其宜，毋失事機。」春以兵送倫發於金齒，使人諭刀幹孟，幹孟不從。遣左軍都督何福·翟能等，將兵五千討之。踰高良公山，直搗南甸，大破之，殺刀名孟，斬獲甚衆。回兵擊景罕寨，寨憑高據險，堅守不下，官軍糧械俱盡，賊勢益張。福使告急於春，春率五百騎往救，乘夜至潞江，詰旦渡，率騎馳躡，揚塵蔽天，賊不意大軍至，驚懼，遂破之。乘勝擊崆峒寨，賊夜潰。幹孟遣人乞降，事聞，朝廷以其狡詐，命春侯變討之。春尋病卒，幹孟竟不降。又命都督何福往討，未幾，擒幹孟歸，倫發始還平緬，踰年卒。

당시에 도간맹은 사윤발을 내쫓은 후, 역시 조정이 출병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바로 사람을 보내 서평후에게 이르러서 입조하여 진공하기를 청하였는데, 목춘이 이를 보고하였다.⁴⁸¹⁾ [후주] 31년(1398)에 상주하기를, “도간맹은 조정의 위엄을 빌려 홀도(忽都)를 제어하고자 한 것이며, 그가 입조하여 진공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사람을 보내 목춘에게 유시하여 이르기를, “저 먼 곳에 있는 만인들은 확실히 교활하고 간사하니, 잠시 그들이 청한 것을 따라 그 일을 살펴보되 행동을 하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목춘이 군사를 이끌고 사윤발을 금치에 보내고, 사람을 보내 도간맹을 효유하였으나 도간맹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좌군도독(左軍都督) 하복(何福)·구능(翟能)⁴⁸²⁾ 등을 보내

라는 의미로, 阿怒日美는 怒族이 거주하는 지역 내의 강이라는 의미이다.

480)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55 洪武 30년 12월 乙巳條 참조.

481)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56 洪武 31년 정월 庚子條 참조.

병사 5천 명을 거느리고 그를 토벌하게 하였다. 고광공산(高良公山)⁴⁸³⁾을 넘어 곧바로 남甸(南甸)을 공격하여 그곳을 대파하였는데, 도명맹(刀名孟)을 죽였으며 배고 사로잡은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군대를 돌려 경한채(景罕寨)를 공격하였다. 그 성채는 높고 험한 곳에 있고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으며, 관군의 식량과 기계가 모두 다하였는데 적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다. 하복이 목춘에게 사람을 보내 긴급함을 알리자 목춘은 500기병을 이끌고 가서 지원하였는데, 밤을 틈타 노강에 이르고 새벽에 건넜다. 기병을 이끌고 달려서 [이로 인한] 먼지가 하늘을 덮을 정도였다. 적들은 생각지도 못한 대군이 이르자 놀라 두려워하였고, 마침내 그들을 격파하였다. 승기를 타 공동寨(崆峒寨)를 공격하였는데, 적들은 밤에 깨벌되었으나, 도간맹이 사람을 보내 항복을 청하였고, 이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였는데, 조정에서는 그가 교활하기 때문에 목춘에게 [상황이] 변화하기를 기다려 토벌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목춘이 얼마 후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도간맹은 결국 항복하지 않았다. 또한 도독 하복에게 가서 토벌하게 하였고 오래지 않아 도간맹을 사로잡아 돌아왔으며, 사윤발이 비로소 평면으로 돌아갔고, 1년이 지나 사망하였다.⁴⁸⁴⁾

永樂元年，思倫發子散朋來朝，貢馬，賜絨錦·織金文綺·紗羅并儀從鈔有差。二年，遣內官張勤等頒賜麓川，麓川·平緬·木邦·孟養俱遣人來貢，各賜之鈔幣。時麓川平緬宣慰使思行發所遣頭目刀門賴訴孟養·木邦數侵其地，禮部請以孟養·木邦朝貢使付法司，正其罪。帝謂蠻衆攻奪常事，赦一二人罪之，不足以革其俗，且曲直未明，

482) 翟能(?~1400): 安徽 合肥 사람이다. 그의 부친은 洪武 연간(1368~1398)에 관직이 都督府參事였는데, 사망하자 翟能이 그 직을 계승하였고, 나중에는 四川都指揮使가 되었다. 藍玉을 따라 大渡河를 건너 西番의 여러 부락을 함락시키는 전공을 세웠다. 燕王 朱棣가 정난의 변을 일으켰을 때, 李景隆을 따라 북상하여 朱棣를 공격하였다.

483) 高良公山은 高黎共山이다.

484)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257 洪武 31년 5월 丁未朔條: 『明史紀事本末』 卷12 『太祖平緬』 洪武 31년 5월條 참조. 思倫發이 죽은 뒤 여러 소수민족이 그 지역을 분할하여 쪼개하였는데, 沐晟이 그들을 토벌하였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3개의 府(木邦府·孟養府·孟定府), 2개 州(大板州·南甸州), 5개의 長官司(潞江長官司·干崖長官司·灣甸長官司·孟連長官司·者樂甸長官司)를 설치하였다. 이때 麓川 지역이 와해된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土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麓川을 이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 조정이 이들 이탈자들을 지원하면서 麓川의 세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違罪其使，失遠人心，命西平侯諭之，遣員外郎左緝使八百國，并使賜麓川平緡宣慰冠帶·囊衣。

영락 원년(1403)에 사윤발의 아들 사산봉(思散朋)이 내조하여 말을 바쳤다. [이에] 옥금·적금문기·사라를 하사했고 따라서 이들에게도 초(鈔)를 차등하여 내려주었다.⁴⁸⁵⁾ [영락] 2년(1404)에 내관 장근(張勤) 등을 보내 녹천에 사여하였다.⁴⁸⁶⁾ 녹천·평면·목방·맹양(孟養)⁴⁸⁷⁾에서 모두 사람을 보내 와 진공하니, [이에] 그들에게 초폐를 하사했다. 당시에 녹천평면선위사 사행발(思行發)이 보낸 두목 도문뢰(刀門賴)가 맹양·목방이 여러 차례 그 땅을 침략하였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예부에서 맹양·목방의 조공사절을 법사(法司)⁴⁸⁸⁾에게 넘기고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황제는 만인 무리들이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니, 한 두 사람을 잡아 벌을 주는 것으로는 그 습속을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고 또한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 사신을 별하게 되면 변방 사람들의 인심을 잃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서평후에게 그들을 효유하게 하였고, 원외랑(員外郎)⁴⁸⁹⁾ 좌궐(左緝)을 팔백국에 사신을 보내는데, 아울러 녹천평면선위사에 사신을 보내 관대·습의를 내려주었다.⁴⁹⁰⁾

485)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23 永樂 원년 9월 辛丑條 참조.

486)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29 永樂 2년 3월 甲辰條 참조.

487) 孟養: 원나라 至元 연간(1264~1294)에, 맹양에 雲遠路 軍民總管府를 설치했는데, 洪武 15년(1382)에 雲遠府로 고쳤다. 成祖가 즉위해서 雲遠府를 고쳐 孟養府라 하고, 土官 刀木目을 知府로 임용했다. 永樂 2년(1404)에 軍民宣慰使司로 승격시켜 도목단을 宣慰使로 삼고 諸印을 하사했다. 이후 緡甸에게 점거되었지만 永樂 14년(1416)에, 다시 孟養宣慰司를 설립하고, 도목단의 아들 刀得孟을 선위사로 임명하였다. 이후 도목명은 명에 사신을 보내 말과 방물을 바쳤다. 明代 孟養軍民宣慰使司는 지금의 緡甸 八莫·開泰 以北, 伊洛瓦底江 以西, 那伽山脈 以東 지역을 관할했다.

488) 法司: 明代의 中央司法機關인 刑部·大理寺·都察院을 말하는데, 이들을 흔히 三法司라 칭한다.

489) 員外郎: 明代 각 部에는 하부 조직으로 清吏司가 있는데, 그 소속으로 郎中, 員外郎, 主事를 두어서 세세한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員外郎은 郎中의 보좌역으로 正五品의 관직이며, 員外 혹은 外郎, 副郎이라고도 불렀다.

490)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30 永樂 2년 4월 癸未條 참조.

五年，麓川平緡所隸孟外頭目刀發孟來朝，貢象及金器，散朋亦貢馬，各賜鈔幣。六年，思行發貢馬·方物謝，賜金牌·信符。黔國公沐晟言：「麓川·平緡所隸孟外·陶孟，土官刀發孟之地，爲頭目刀薛孟侵據，請命思行發諭刀薛孟歸侵地。」從之。七年，行發來貢，遣中官雲仙等齎敕，賜金織文綺·紗羅。至麓川，行發失郊迎禮，仙責之。行發惶懼，九年遣刀門奈來貢謝罪。帝貸之，仍命宴勞其使，并遣賜行發文綺·金織紵絲紗羅。

[영락] 5년(1407)에, 녹천·평면에 예속된 맹외(孟外)⁴⁹¹⁾의 두목 도발맹(刀發孟)이 내조하여 코끼리와 금기(金器)를 바쳤고 사산봉도 말을 바쳤는데, [명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각기 초폐를 내려주었다.⁴⁹²⁾ [영락] 6년(1408)에, 사행발(思行發)이 말과 방물을 바치고 사은하니, 금패·신부를 내려주었다.⁴⁹³⁾ 검공공 목성이 아뢰기를, “녹천·평면에 예속된 맹외·도맹(陶孟)은 토관 도발맹(刀發孟)의 땅인데 두목 도설맹(刀薛孟)에게 침략당해 점거되었으니, 사행발에게 명하여 도설맹을 효유해서 침략한 땅을 돌려주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영락] 7년(1409)에, 사행발이 내조하여 진공하니, 중관 윤선 등에게 칙서를 가지고 가게 하여 금직문기·사라를 내려주었다. [윤선 등이] 녹천에 이르렀는데 사행발이 교영례(郊迎禮)⁴⁹⁴⁾를 어겼기에, 윤선이 그를 질책했다. [이에] 사행발이 당황하고 두려워하였으며, [영락] 9년(1411)에 도문내(刀門奈)를 보내 와 진공하고 사죄하였다. 황제가 그를 용서하고, 예전처럼 연회를 베풀어 그의 사신을 위로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사행발에게 문금(文錦)·금직저사(金織紵絲)⁴⁹⁵⁾·사라를 보내 주었다.⁴⁹⁶⁾

491) 孟外: 라오스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지역의 한 지명인 브랑 응오이(Muang Ngoi)를 한역한 것이다.

492)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65 永樂 5년 3월 甲申條 참조.

493) 이때 麓川平緡宣慰使 思行發과 緡甸宣慰司 那羅塔 등이 頭目 浴磨를 보내 말과 방물을 바쳐서 명 조정에서 金牌信符를 내려 준 것에 감사하였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79 永樂 6년 5월 辛亥條 참조).

494) 郊迎禮: 고의나 성문 밖까지 나가서 맞이하는 의례이다.

495) 金織紵絲: 금박을 하여 짜서 만든 단자라고도 불리는 緡을 말한다. 紵絲는 보통 가늘고 강한 經絲와 절긴 緯絲를 엮어 만들었으며, 清代 海關에서는 Satin이라고 번역해서 불렀다.

496)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117 永樂 9년 7월 辛巳條 참조.

十一年，行發請以其弟思任發代職，從之。任發遣頭目刀弄發貢象六·馬百匹及金銀器皿等物謝恩。二十年，任發遣使奉表來貢，并謝使南甸罪，遣中官雲仙齋賜并敕戒之。

[영락] 11년(1413)에, 사행발이 그 동생 사임발(思任發)에게 직위를 대신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⁴⁹⁷⁾ 사임발은 두목 도룡발(刀弄發)을 보내 코끼리 6마리·말 100필과 금은기명(金銀器皿) 등의 물품을 바치며 사은하였다.⁴⁹⁸⁾ [영락] 20년(1422)에, 사임발은 사신을 보내 표문(表文)⁴⁹⁹⁾을 받들고 내조하여 조공하였으며, 아울러 남건주(南甸州)⁵⁰⁰⁾를 침략한 것을 사죄하니, [이에] 중관 윤선에가 사여[물품]과 칙서를 가지고 가서 그를 훈계하도록 했다.⁵⁰¹⁾

洪熙元年遣內官段忠·徐亮以即位詔諭麓川。

홍희 원년(1425)에, 내관 단충(段忠)·서량(徐亮)을 보내 즉위의 조서로서 녹천을 효유했다.⁵⁰²⁾

497)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136 永樂 11년 정월 丙午條 참조.

498)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146 永樂 11년 12월 壬戌條 참조.

499) 表文: 謝恩, 祝賀, 請願 등의 목적으로 황제에게 바치는 문서를 말한다. 洪武 14년(1381)에 進寶表箋禮儀를 정하였는데, 황제의 생일인 天壽聖節과 正旦·冬至에 在外 각 아문은 미리 상주문(표문)을 바치고 賀禮하였다. 天壽聖節인 경우에 在外 5품 이상의 衙門은 단지 表文 1통을 바치고, 正旦·冬至에는 中官과 皇太子에게 箋文 各 1통을 더 바쳤다. 조선·베트남 등도 명조에 입조할 때 표문을 바쳤다. 명초에 表文 등으로 인해 朝鮮과 明朝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는 朴元植, 2002: 6~30 참조.

500) 南甸州: 雲南의 騰冲縣 남쪽으로, 본래는 南宋甸이라고 칭하였다. 元에서 財路衛軍總管府를 설치하였고, 명에서는 南甸府로 변경한 후 다시 南甸州로 바꾸었다.

501) 中官 雲仙을 보내서 훈계할 때 絨錦, 文綺를 내려 주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154上 永樂 20년 11월 己亥條 참조).

502) 이와 관련된 내용은 『仁宗實錄』 卷11 洪熙 원년 2월 條丙辰 참조.

宣德元年遣使諭西南夷，賜麓川錦綺有差，以其勤修職貢也。時麓川·木邦爭界，各訴於朝，就命使者諭解之，俾安分毋侵越。黔國公沐晟奏，麓川所屬思陀向火頭曲比爲亂，請發兵討，帝命姑撫之。置麓川平緬宣慰司轄大店地驛丞一員，以土人刀捧怯爲之，從宣慰刀暗發奏也。

선덕 원년(1426)에, 사신을 보내 서남의 오랑캐들을 효유하고, 녹천에 금기를 차등하여 내려주었는데, [이는] 그들이 조공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녹천·목방은 경계를 다투면서 각각 조정에 호소하였는데, 이에 사신을 보내 효유하여 해결하도록 했고, 각자 분수를 지키고 침범하지 말도록 했다.⁵⁰³⁾ 검국공 목성이 상주하기를, 녹천에 예속된 사타견(思陀甸)⁵⁰⁴⁾ 화두곡비(火頭曲比)가 반란을 일으키자 군대를 일으켜 토벌할 것을 청하였는데, 황제는 잠시 그들을 안무하도록 하였다.⁵⁰⁵⁾ 녹천평민선위사가 관할하는 대점지(大店地)에 역승(驛丞)⁵⁰⁶⁾ 한 명을 설치하고 도원 도봉검(刀捧怯)을 역승으로 삼았는데, [이는] 선위사 도암발(刀暗發)의 주청에 따른 것이다.⁵⁰⁷⁾

三年，雲南三司奏，麓川宣慰使思任發奪南甸州地，請發兵罪。帝命晟同三司·巡撫詳計以聞，敕任發保境安民，不得侵鄰疆，陷惡逆，以滋罪咎。晟以任發侵奪南甸·騰衝之罪不可宥，請發官軍五萬及諸土兵討之。帝以交趾·四川方用兵，民勞未息，宜再行招諭，不得已，其調雲南土官軍及木邦宣慰諸蠻兵剿之。八年遣內官雲仙

503) 이때 木邦·緬甸·麓川·車里·八百·大甸·老撾 등의 宣慰司, 孟良·孟定·灣甸·鎮康의 土官을 효유하였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13 宣德 원년 정월 己酉條 참조).

504) 思陀甸: 元代에는 和泥路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和泥府로 바꾸어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洪武 17년(1484)에 이를 바꾸어 思陀甸長官司를 설치하고 臨安府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紅河哈尼族彝族自治州 緬甸 西南部 樂育縣 지역에 위치했다. 思陀甸長官司의 土副長官은 홍무연간부터 邁比, 邁斬, 邁習, 宗習, 宗白, 披額, 白祥, 李泰軍, 李柔忠 등이었다(余貽澤, 1968: 92).

505) 廣西 崇善縣의 土官 趙溫도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15 宣德 원년 3월 壬子條 참조).

506) 驛丞: 州縣 소속으로 郵傳과 迎送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507)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31 宣德 2년 9월 丁酉條 참조.

齋敕至麓川，賜恩任發幣物，諭其勿與木邦爭地抗殺。

[선덕] 3년(1428)에 운남 삼사(三司)가 상주하기를, 녹천선위사 사임발이 남전주의 땅을 빼앗았으니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묻기를 청하였다. [이에] 황제는 목성에게 삼사(三司)·순무와 함께 상세한 계획을 세워 상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황제는] 사임발에게 칙서를 내려 경계를 지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이웃 강역을 침범하는 것은 악한 반역에 빠지는 것이니 죄와 잘못을 더하지 말도록 하였다. 목성은 사임발이 남전·등층을 침략한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서, 관군 5만 명과 여러 토병을 징발하여 그를 토벌하도록 청하였다. 황제는, 교지·사천에서 방금 용병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괴로가 아직 풀리지 않는다고 여기고서 마땅히 다시 초무하고 효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운남 토병과 관군, 그리고 목방 선위사의 여러 만인 병사들을 징발하여 그들을 소탕하였다.⁵⁰⁸ [선덕] 8년(1433)에, 내관 윤선에게 칙서를 가지고 녹천에 가서 사임발에게 폐물(幣物)을 하사했으며, 목방과 땅을 다투고 대적하여 살육하지 말도록 훈유하였다.⁵⁰⁹

正統元年，免麓川平緬軍民宣慰司所欠差發銀二千五百兩，以任發奏其地爲木邦所侵，百姓稀少，無從辦納，部款不可，帝特蠲之。

정통 원년(1436)에, 녹천평민군민선위사에서 납부하지 못한 차발은 2,500냥을 면제해 주었다. [이는] 사임발이 그 땅이 목방에게 침략을 당하여 백성들이 아주 적어서 [차발은을] 변통하여 납부할 방법이 없다고 상주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는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했으나 황제는 특별히 그것을 면제해 주었다.⁵¹⁰

508)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41 宣德 3년 4월 甲戌條 참조.

509)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9월 辛巳條 참조.

510)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15 正統 원년 3월 丙子條 참조.

初，洪武間，克平雲南，惟百夷部長思倫發未服，後爲頭目刀珍孟所逐，赴京陳訴，命爲宣慰，回居麓川，分其地，設孟養·木邦·孟定三府，隸雲南；設潞江·干崖·大侯·灣甸四長官司，隸金齒。永樂元年陞孟養·木邦爲宣慰司。孟養宣慰刀木旦與鄰境仇殺而死，緬甸乘機并其地，未幾，緬甸宣慰新加斯又爲木邦宣慰所殺。時倫發已死，子行發襲，亦死。次子任發襲爲麓川宣慰，殺猶愈於父兄，差發金銀，不以時納，朝廷稍優容之。會緬甸之危，任發侵有其地，遂欲盡復其故地，稱兵擾邊，侵孟定府及灣甸等州，殺掠人民，而南向知州刀賈罕亦奏麓川奪其所轄羅卜思莊等二百七十八村。於是罷奏：「思任發連年累侵孟定·南甸·干崖·騰衝·潞江·金齒等處，自立頭目刀珍罕·土官罕亨等相助爲暴，叛形已著。近又侵及金齒，勢甚猖獗。已遣諸衛馬步官軍至金齒守禦，乞調大兵進討。」朝命選將，廷臣舉右都督方政·都督俞事張榮往雲南，協同鎮守右都督昂率兵討之。任發方修貢冀緩師，而展邊信其降，無渡江意。任發乃遣衆萬餘奪潞江，沿江造船三百艘，欲取雲龍，又殺死向順·江東等處軍鋒殆盡。帝以賊勢日甚，賁晟等玩寇養息，政亦至軍，欲出戰，晟不可。政造舟欲濟師，晟又不許。政不勝憤，乃獨率麾下與賊將緬緬戰，破賊舊大寨。賊奔景罕，指揮唐清復擊破之。又進之高黎共山下，共斬三千餘級，乘勝深入，逼任發上江。上江，賊重地也，政遠攻疲甚，求援於晟，晟怒其違節制渡江，不遣。久之，以少兵往，至夾象石，又不進。政迫至空泥，知晟不救，賊出象陣衝擊，政死焉。晟聞敗，乃請益軍，帝遣使者賁莊，仍調湖廣官軍三萬一千五百人·貴州一萬人·四川八千五百人，命吳亮·馬翔統之，至雲南，聽晟節制，仍敕晟豫籌糧餉。而晟懼罪，暴卒。

당초 홍무 연간(1368~1398)에 운남을 평정하였을 때, 오직 백이 부장 사윤발(思倫發)만 복종하지 않았는데, 후에 두목 도간맹에게 쫓겨나 경사에 와서 호소를 늘어났다. [이에 황제가] 그를 선위로 삼아서 녹천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 땅을 나누어서 맹양·목방·맹정(孟定)⁵¹¹ 세 부(府)를 설치하여 운남에 예속시켰으며, 노강·간예(干崖)⁵¹²·대후·만

511) 孟定: 孟定巖夷府를 일컫는데, 원나라 至元 31년(1294)에 孟定路가 설치되었다가 洪武 15년(1382)에 府로 고쳤다(『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참조).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에 속해 있는 耿馬傣族佤族自治縣 지역이다.

진(滿甸) 네 장관사를 설치하여 금치에 예속시켰다. 영락 원년(1403)에 맹양·목방을 선위사로 승격시켰다.⁵¹³ 맹양 선위 도목단(刀木段)은 인근 지역과 원한으로 [서로] 죽이다가 살해되자, 면전이 그 기회를 틈타 그 지역을 병탄하였다.⁵¹⁴ 오래지 않아 면전 선위 신가사(新加斯)가 또 목방 선위에게 살해되었다.⁵¹⁵ 당시에 사육발은 이미 죽고 그 아들 사행발이 계승하였으나 역시 사망하였다. 둘째 아들 사임발이 계승하여 녹천선위가 되었는데 그 부형(父兄)보다 더욱 교활하였고, 차발금을 기한에 맞게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조정에서는 점점 그를 관대하게 대하였다. 마침 면전이 위기가 발생하자 사임발은 그 땅을 침략하여 점유했고, 마침내 그 옛 땅을 모두 회복하고자 군대가 변경을 소란스럽게 한다고 칭하고, 맹정부와 만진 등 주(州)를 침략하여 백성들을 살해하고 약탈하였다. 그런데 남진 주도공한(刀眞幹)도 녹천이 그가 관할하는 나복사장(羅卜思莊)⁵¹⁶ 등 278촌(村)을 침략하였다고 상주하였다.⁵¹⁷ 이에 목성이 상주하기를, “사임발은 여러 해를 계속해서 맹정·남진·간에·동충·노강·금치 등지를 침범하였고, 스스로 두목 도진한(刀珍罕)·토관 조형(阜亨) 등을 세워 서로 도와 폭거하도록 하였으니, 반역의 형세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근래에 또 금치까지 침범하고 그 기세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이미 여러 위의 마병(馬兵)과 보병(步兵) 관군을 금치에 보내 지키게 하였으니 대군을 징발하여 보내 토벌하기를 청하옵나니”라고 하였다.⁵¹⁸ 조정에 서 장영을 선발하도록 명하자, 조정 대신들이 우도독(右都督) 방정(方政)⁵¹⁹·도독첨사(都督

僉事)⁵²⁰ 장영(張榮)을 천거하여 운남에 가게 했는데, 진수우도독(鎮守右都督) 목양과 협동하여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토벌하였다. 사임발이 바로 조공을 하면서 군대의 출병을 늦추려고 하였는데, 목성은 곧 그가 항복할 것이라고 믿고 강을 건너 의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임발은 바로 무리 1만여 명을 보내 노강을 빼앗았고, 강을 따라 배 3척씩 만들고 율룡(雲龍)⁵²¹을 취하려고 하였으며, 진순(旬順)·강동(江東)⁵²² 등지의 나머지 군대 거의 모두를 죽였다. 황제는 적의 세력이 날로 거세진 것은 목성 등이 소극적으로 적에 대항하여 우환을 키웠다고 여기고서 질책하였다.⁵²³ 방정도 역시 군영에 이르러 출전하려고 하였는데 목성이 허락하지 않았다. 방정이 배를 만들어 군대를 운송하려고 하였으나 목성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방정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독자적으로 부하를 거느리고 적장 면간(緬簡)과 전투를 하여 적의 옛 큰 성채를 격파하였다. 적들이 경한(景源)으로 도망치자 지휘(指揮) 당청(唐淸)이 다시 그들을 격파하였다. 또한 그들을 고려공산(高黎共山)⁵²⁴ 아래까지 추격하여 모두 3천여 금을 빼앗다.⁵²⁵ [이렇게] 승기를 잡고 깊이 들어가 사임발을 상강(上江)까지 압박하였다. 상강은 적의 중요한 지역이다. 방정은 멀리까지 진공해서 매우 피곤하였기에 목성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목성은 그가 지시를 어기고 강을 건너 것에 분노하여 [지원 병사를] 보내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 소수의 병사를 거느리고 협상석(夾象石)⁵²⁶에 이르렀으나

였고, 右都督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이후 麓川土司 惠任發의 반란을 토벌하다가 전사하였다. 威達伯에 追贈되었고, 諡號는 忠毅이다(관련된 내용은 『大明一統志』 卷18 『鄯州』 및 『雲南通志』 卷19 『名宦』 참조).

520) 都督僉事: 明代 전국 의 군대를 통괄하는 五軍都督府에 속해있는 관직으로, 正一品인 左·右都督, 從一品인 都督同知 다음에 위치한 正二品의 관직이다.

521) 雲龍: 雲龍州를 일컫는다. 유나라 때는 雲龍軍事府였는데, 洪武 17년(1384)에 雲龍州로 강등시켜大理府에 예속시켰다. 이후 正統 2년(1436~1449)에 蒙化府에 예속시켰다가 후에 다시大理府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雲龍縣 지역이다.

522) 江東: 段氏가 江東縣을 설치하였는데, 元初에 폐지하였다. 지금의 雲南 安寧縣 동남쪽 지역이다.

523)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43 正統 3년 6월 乙亥條; 『英宗實錄』 卷45 正統 3년 8월 乙丑條 참조.

524) 高黎共山: 高黎貢山이라고도 표기한다. 주요 봉우리는 雲南省 騰沖縣 동북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일명 磨盤山 혹은 昆侖山이라고도 한다. 蒙氏는 이 산을 西岳으로 봉하였다. 동쪽으로는 怒江, 서쪽으로는 龍川江에 닿아 있다.

525)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51 正統 4년 2월 癸亥條 참조.

526) 夾象石: 雲南 騰衝縣 동쪽 龍川江의 東岸에 위치한 곳이다.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바로 高黎貢山 기슭인데, 明代에 麓川의 주요 도로를 점령하였다.

512) 干崖: 雲南의 騰衝縣 서남쪽에 있는 大盈江 상류의 남쪽 연안 지역으로, 옛 지명으로는 干欄峽과 葉調峽 이 있다. 白蠻이 그곳에 거주하였는데, 元 中統 2년(1260~1264) 초에 귀부하였고, 그곳에 鎮西路軍民總管府를 설치하였다. 明朝에서는 鎮西府를 설치하였고, 이후 長官司로 변경하고 宣撫司로 승격시켰다. 清代에도 이를 계승하였다.

513)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와 『太宗實錄』 卷29 永樂 2년 6월 癸酉條에서는 선위사로 승격된 시기를 永樂 2년(1404)으로 기록하고 있다.

514) 刀木段을 宣慰使로 삼았다는 내용은 『太宗實錄』 卷29 永樂 2년 6월 癸酉條 참조. 그가 살해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66 永樂 5년 4월 丙戌條 참조; 刀木段 이후의 宣慰使는 刀得盟, 刀玉牙, 刀孟牙, 思任, 思機發, 思卜發, 思洪發, 思陞, 思倫, 思眞, 思眞, 思眞, 思箇 등이 있다(余胎澤, 1968: 104).

515)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31 宣德 2년 9월 丁酉條 참조.

516) 羅卜思莊: 지금의 雲南省 德宏傣族景頗族自治州 梁河縣 지역이다.

517)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35 正統 2년 10월 辛未條 참조.

518)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43 正統 3년 6월 乙亥條 참조.

519) 方政: 生卒年 未詳. 南京 麓川 全椒縣 사람으로, 용기와 지략이 뛰어났다. ‘靖難의 役’ 때에 功을 세워 都指揮에 승진하였다. 宣德·正統 2년(1425~1435, 1435~1464)에 總兵官에 임명되어 邊方に 鎮守하

또 [더 이상] 진격하지 않았다. 방정이 공니(空泥)까지 추격하자 목성이 구원하지 않는 것을 알았는데, 적들이 코끼리 진을 내보내 공격하자 군대는 케멸되고 방정도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목성이 폐백 소식을 듣고 바로 군대를 증파할 것을 요청하였다. 황제는 사신을 보내 상황을 질책하였고, 이에 호광(湖廣) 관군 31,500명·귀주 10,000명·사천 8,500명을 징발하여 오량(吳亮)⁵²⁷·마상(馬翔)에게 그들을 통솔하도록 하여 운남에 가서 목성의 지휘를 따르게 하였으며, 예전처럼 목성에게 칙서를 내려 미리 군량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런데 목성은 죄를 두려워하였고, 갑자기 사망하였다.⁵²⁸

時任發兵愈橫，犯景東，割孟定，殺大侯知刀奉漢等千餘人，破孟賴諸寨，孟璉長官司諸處皆降之。任發仍遣人以象馬金銀來修貢，復徵番書於雲南總兵官，謂：「結因潞江安撫司練舊法相邀報仇，其後練舊法乃誣己爲入寇，致大軍壓境，惶恐無地，今欲遣使謝罪，乞爲導奏。」帝降敕許赦其罪。時刑部侍郎何文淵疏請罷麓川師，命下廷臣議。於是行在兵部尚書王驥及英國公張輔等，皆以爲「麓川負恩怙惡，在所必誅，須更選將統兵，以昭天討。如思任發早自悔禍，轉詣軍門，生全之恩，取自上裁。」帝然之，已而侍講劉球復以息兵請如文淵議。帝覆以麓川之征，已有成命，報聞。

당시에 사인발의 병사들은 더욱 횡포하여져서 경동을 침범하고 맹정을 약탈하였으며, 내후 지구도 봉한 등 1천여 명을 살해하고, 맹퇴(孟賴)⁵²⁹ 등 여러 성채를 공파하였는데, [이에] 맹련장관사(孟璉長官司)⁵³⁰ 여러 곳도 모두 그에게 항복하였다.⁵³¹ 사인발은 예전처럼 사람

527) 吳亮(?~1446): 來安 사람이다. 永樂 연간(1402~1424) 초에 旗手衛指揮僉事가 되었고, 蕭毅의 副將으로 湖廣과 貴州를 진수하였다. 普定 阿蓮의 반란을 평정하여 都督同知로 승진하였고, 이후 苗民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右都督이 되었다. 方政이 麓川에서 사망하자 英宗은 吳亮을 京師로 불러 副總兵에 임명하였고, 병사 5만 명을 이끌고 麓川 思任發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이후 都督僉事로 좌천되었으나 여전히 征南副將軍印을 가지고 湖廣과 貴州를 진수하였다.

528)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51 正統 4년 2월 辛未條 참조.

529) 孟賴: 雲南 鎮康縣 孟定土府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530) 孟璉長官司: 元나라 때 木連路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바꾸어 木連府를 설치하여 布政司에 예속시켰으나 후에 麓川 畢羅宜刺에 兼並하였다. 이후 永樂 4년(1406)에 猛璉長官司를 설치하여 都司에 예속시켰는데, 후에 바꾸어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孟璉長官司는 지금의 孟連·瀾滄·西盟 동지 및 南卡江

을 보내 코끼리·말·금을 가지고 와서 진공하였으며, 또 운남총병관에게 번서(番書)를 보내어 아뢰기를, “노강안무사(潞江安撫司)⁵³² 선구법(緜舊法)이 원수를 갚는 것으로 인해 시작하였는데, 그 후에 선구법이 바로 자기(사인발)가 침입하였다고 무고하고서, 대군을 불러들여 경계 지역에 가까이 오게 하였으니 황궁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자 하니, [저를 위하여] 상주해 줄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칙서를 내려 그 죄를 사면해 줄 것을 허락하였다.⁵³³ 당시에 형부(刑部)⁵³⁴ 시랑(侍郎)⁵³⁵ 하문연(何文淵)⁵³⁶이 상소하여 녹천의 군대를 해산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조정 대신들에게 논의하게 하였다.⁵³⁷ 이에 행재소에 있는 병부상서(兵部尙書) 왕기(王驥)⁵³⁸와 영국공(英國公) 장보

서족·薩爾溫江 동쪽의 哈瓦 지구를 관할했다.

531)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53 正統 4년 3월 己巳條 참조.

532) 潞江安撫司: 雲南 保山 潞江의 토리는 義氏로, 그 지역의 원주민인 傣族이었다. 元 憲宗 4년(1354)에 柔遠路에 예속시켰는데, 명대에 輿鹽法이 內附하여 外國公을 따라 운남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洪武 15년(1382)에 潞江長官司로 봉하였고, 永樂 9년(1411)에 安撫司로 승격하였으며, 이후 계속 세습할 수 있게 하였다.

533)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72 正統 5년 10월 癸未條 참조.

534) 刑部: 六部의 하나로 죄인에 대한 처벌과 刑罰에 관한 政務을 관장하였다. 명청시대에 都察院, 大理寺와 함께 중대한 안건에 대한 최후 심리를 맡았는데, 이를 “三法司制”라 부른다.

535) 侍郎: 六部의 차관인 左·右侍郎으로 正三品에 해당한다.

536) 何文淵(1385~1457): 永樂 16년(1418)에 進士가 되었고, 監察御史에 제수되어 山東과 四川을 순시하였다. 烏蒙(현재 운남 昭通)의 仕加가 모반을 일으켰다고 知府 祿昭를 誣告하자, 何文淵은 祿昭를 위해 변호하였다. 景泰 원년(1425)에 都督 吳亮을 考察하였고, 工部侍郎 楊和, 參議 金文斌, 副使 張銘 등 300여 명의 관원을 탄핵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鐵面御史”라고 불렀다. 그는 溫州 知府 6년을 역임하면서 폐단을 일소하였고, 무리를 모아 개간한 토지가 2천여 뽈에 달하였다. 正統 3년(1438)에 麓川 宣慰使思任發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그들을 토벌할 것을 논의했는데, 何文淵은 按撫하고 曉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正統 5년(1440)에 山東, 河南, 陝西, 江西 등지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구휼을 담당하였다. 正統 6년(1441)에 부당하게 체포하여 투옥한 일이 문제가 되자 병을 이유로 귀향하였다. 景泰 원년(1450)에 다시 기용되어 吏部左侍郎이 되었고 이듬해에 吏部尙書로 승차하였다. 景泰 3년(1452)에 太子太保의 직함에 더해졌다. 景泰 4년(1453) 귀주에서 苗民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의 의견이 다른 대신들과 달라서 탄핵을 받아 감옥에 갇혔다가 얼마 후에 석방되어 귀향하였다. 英宗이 복위하자 그에게 내려졌던 加官을 삭탈하였고 체포 명령이 내려졌는데, 何文淵은 73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537) 英宗의 즉위 초에는 國防의 주요 대상이 오이라트였기 때문에 서남 지역의 麓川土司에 대해서는 招撫策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王振이 전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조정의 元老대신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威信을 세워 권력을 강화하게 위해서 서남 지역의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麓川 토리

(張輔)⁵³⁹ 등이 모두 “늑천은 은혜를 배반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하니 반드시 토벌해야 하며, 마땅히 더욱 강령을 선발하고 군대를 훈련시켜 하늘의 정계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사임받이 일찍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포박하여 군문에 이르면,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는 황상의 결정에 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황제가 [그 견해에] 동의하였다.⁵⁴⁰ 오래 지 않아 시강(侍講)⁵⁴¹ 유구(劉球)⁵⁴²가 다시 하문연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군대를 쉬게 하자고 청하였다.⁵⁴³ [그러나] 부처에서 늑천의 정벌을 의논하여 이미 명령이 확정된 것이라고,

思任發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규모 군대 파견을 추진하였다. 그는 英宗에게 甘肅 總兵인 蕡賈를 征蠻將軍으로 삼아 지휘권을 맡겼다. 이러한 王振의 계획은 조정 대신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에 녹천과의 전쟁 여부를 놓고 명 조정엔 王和誥와 主戰派로 나뉘었다. 王和誥는 刑部右侍郎 何文淵과 翰林院侍講 劉球가 중심이 되었고, 王振의 의견에 동의하는 主戰派는 英國公 張輔와 兵部尙書 王驥 등이 있었다(劉棟學, 1997: 87~88).

- 538) 王驥: 生卒年 未詳. 字는 尚德이며, 東莞 사람이다. 永樂 4년(1406)의 進士로 兵科給事中에 제수되어 山西에 巡按使였다. 곧 山西按察司 副使로 승임하였으며, 洪熙 원년(1425)에 順天府尹을 거쳐 宣德 초에 兵部右侍郎에 발탁되었다. 오래 지 않아 兵部尙書 시리가 된 후, 宣德 9년(1434)에 兵部尙書에 올랐다.
- 539) 張輔(1375~1449): 字는 文韶로, 河南 開封府 祥符縣 사람이다. 河間王 張玉의 長子로, 부친을 따라 燕王의 기병에 참가하여 공을 세워 指揮同知에 제수되었다. 부친이 죽자 관직을 세습하였다. 燕王이 남경을 함락한 후, 信安伯에 봉해졌고, 봉록은 1000石으로 대대로 특권을 부여받았으며, 여동생이 영락제의妃가 되었다. 이후 안남 정벌 때 죽은 周能을 대신하여 군사를 이끌고 안남을 평정하였고, 그 공로로 英國公에 봉해졌으며, 歲祿은 3000石이 되었다. 洪熙帝가 즉위하자 中軍都督府를 담당하였고, 宣德 원년(1426)에 漢王 高煦가 謀反하자 황제의 친경에 호종하였다. 正統 14년(1449)에 오이라트 의 也先(Esen)이 공격했을 때 황제의 蒐征에 따라갔다가 土木堡에서 죽었다. 定樂王에 追封되었고, 시호는 忠烈이다.
- 540) 正統 3년(1438) 6월부터 正統5년(1440) 12월까지 운남의 邊將과 지방관들이 麓川의 침략에 대해 보고한 것. 兵部와 운남의 邊將들이 대책을 논의한 것. 한 후 英宗이 麓川 문제에 대해서 勅令을 내린 기록은 모두 45회나 등장한다(陸軫, 201 : 2).
- 541) 侍講: 唐의 開元 13년(725) 集賢院講學士와 侍講學士를 두어 文史를 토론했고 經籍을 정리하게 하였으며, 황제의 顧問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宋代에는 翰林院講學士와 侍講學士를 두어서 經史를 읽고, 의문나는 점을 해석하게 하였으며, 顧問을 준비하게 하였다. 宋의 神宗 이후에는 太子에게도 侍講을 두었다. 명정 시대에는 翰林院에 따로 侍講·侍講을 두었는데, 이를 합해 講讀이라고도 불렀다.
- 542) 劉球(1392~1443): 字는 求業이었으나 廷振으로 바꿨다. 江西省 安福 사람이다. 永樂 19년(1421)에 進士가 되어서 禮部主事에 제수되었고 『直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후에 翰林院侍講이 되었고, 正統 6년(1441)에 麓川에서의 군사 활동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런데 이 상소가 王振의 의도했던 것과 달랐던 것이 문제가 되어 正統 8년(1443)에 투옥되어 사망하였다.
- 543) 劉球는 황제가 四裔를 제어할 때, 반드시 그 세력이 작은 것은 관대하게 하고, 세력이 큰 것을 막아야

보고하여 아뢰었다.⁵⁴⁴

六年以定西伯賈貴爲平蠻將軍，都督李安·劉聚副之，以兵部尙書王驥總督雲南軍務，大會諸道兵十五萬討之。時任發遣賊將令道等十二人，率衆三萬餘，象八十隻，抵大侯州，欲奪景東·威遠。而驥將抵盞盞，任發遣人乞降，驥受之，密令諸將分道入。右參將舟保從東路攻細甸·灣甸水寨，入鎮康，趨孟定。驥與貴由中路至上江，會騰衝。左參將宮聚自下江據夾象石。至期，合攻之，拒斬于巖，統駝飛石，交下如雨。次日，乘風焚其柵，火竟夜不息，官軍力戰，拔上江寨，斬刀放夏父子，擒刀孟項，前後斬賊五萬餘，以捷聞。

정통 6년(1441)에, 정서백(定西伯) 장구(賈貴)⁵⁴⁵를 평민장군(平蠻將軍)으로 삼고 도독(都督) 이안(李安)⁵⁴⁶·유취(劉聚)⁵⁴⁷를 부장군으로 삼았으며, 병부상서 왕기에게 운남군무를

천하가 원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오이라트가 여전히 위협적인 세력이나 그들을 막는데 주력해야 할다면서 麓川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明史』卷162 『劉球傳』 참조.

- 544)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卷75 正統 6년 7월 辛亥條: 『殊域周咨錄』卷9 南百夷條 참조.
- 545) 賈貴(1415~1484): 字는 文高이고 安徽 蕪縣 蕭家塢 사람이다. 언니라. 末에 부친이 朱元璋을 따라 起兵하여 공이 많았다. 부친 사후 장구가 歸正의 나이로 부친을 대신하여 朱棣를 따라 征戰하여 都指揮 食事 자리에 올라 彭城衛의 軍事를 맡아보았다. 宣德 2년(1427)에 右參將이 되어 總兵 陳懷를 따라 四川 松潘 叛亂 토벌에 나섰다가 공을 쌓아 都指揮同知로 승진하여 密雲을 鎮守하였다. 正統 초에 平虜將軍이 되어 甘肅, 賀蘭山 등지의 반란을 평정하여 定西伯에 봉해졌다. 正統 6년(1441)에는 平蠻將軍이 되어 雲南 麓川의 반란을 평정하였고, 이듬해 경사로 돌아와 定西侯에 봉해졌다. 正統 8년(1443) 여름에 다시 平蠻將軍이 되어 兵部尙書 王驥와 함께 機發營을 정벌하였다. 사후에 涇國公이 追贈되고, 諡號는 武勇이었다.
- 546) 李安: 生卒年 未詳. 南直隸 陽鳳府 懷遠縣 사람이다 그의 부친 李達이 “정난의 역” 때에 공을 세워 本府都督同知가 되고 安平伯의 작위를 얻었는데, 永樂 7년(1409)에 右參將으로 몽골 정벌에 참여하였다 전쟁 중에 죽자 李安이 그 작위를 세습하였다. 이후 그는 正統 7년(1442)에 左副總兵으로 麓川을 토벌할 때 명령을 이기고 적을 공격하다 사상자가 다량으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탄핵을 받아 사형으로 논죄되었으나 용서받고 爲事官으로 강등되었다.
- 547) 劉聚(?~1474): 京師 大名府 清豐縣(현재 河南省 清豐縣) 사람이다. 太監 劉永의 從子로 후에 金吾指揮同知가 되었다. 奪門의 變 때에 공을 세워 都指揮軍사가 되었고, 다시 都督同知로 승진하였다. 후에

총독하게 하여, 여러 도(道)의 병사 15만 명을 대거 모아서 토벌하게 하였다. 당시 사임발은 직장 도령도(刀令道) 등 12명을 보내 무리 3만여 명과 코끼리 80마리를 이끌고 대후주에 이르게 하여 경동·위원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왕기가 급처에 이르자 사임발이 사람을 보내 항복을 청하였는데, 왕기는 이를 받아들이고 비밀리에 여러 장령들에게 길을 나누어서 진입하도록 하였다. 우참장(右參將)⁵⁴⁸ 염보(冉保)는 동로로 세천·만진 수채(水寨)를 공격하고, 진강에 들어가 맹정에까지 내달았다.⁵⁴⁹ 왕기는 장규와 함께 중로로 상강에 이르고 등충에서 회합했다. 좌참장(左參將) 궁취(宮聚)는 하강(下江)에서부터 협상석(夾象石)을 점거하였다. [그리고 약속한] 기일에 [군대를] 합쳐서 그들을 공격하였다. 적들이 방어를 엄밀히 하였는데, 홍군(紅軍)으로 돌을 날리는 것이 마치 비처럼 쏟아졌다. 다음날 바람을 타고 그 울타리를 불태웠는데, 불은 끝내 밤까지도 꺼지지 않았다. 관군이 힘을 다해 싸워 상강의 성채를 함락하고 도방알(刀放嬰) 부자를 배었으며, 도맹항(刀孟項)을 사로잡고⁵⁵⁰ 전후로 5만여의 수급을 베고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七年，驍率兵渡下江，通高黎貢山道，至騰衝，留都督李安領兵提備。驍由南向至羅卜思莊，前軍抵杉木籠。時任發率衆二萬餘據高山，立硬寨，連環七營，首尾相應。驍遣官聚·劉聚分左右翼緣嶺上，驍將中軍橫擊之，賊遁。軍進馬鞍山，搗賊寨。寨兩面抵江壁立，周迴三十里皆立柵關，軍不可進，而賊從間道潛師出馬鞍山後。驍戒中軍毋動，命指揮方瑛率精騎六千突入賊寨，斬首數百級，復誘敗其象隊。而從東路者，合木邦人馬，招降孟通諸寨。元江同知杜凱等亦率車里及大侯蠻兵五萬，招降

曹欽을 토벌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右都督으로 승진하였다. 成化 6년(1470)에 右副總兵으로 朱木을 따라 延綏에 갔고, 도적들을 추격하였다. 매복에 걸려 습격을 당했지만 다시 都督 范瑄과 함께 도적들을 추격하여 그 무리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냈다. 그 공으로 左都督이 되었고 寧晉伯에 책봉되었다. 成化 8년(1472)에 趙輔를 대신해서 將軍이 되어, 陝西의 여러 謙兵들을 통솔하였다. 여러 차례 도적들을 패퇴시켜 功臣이 되었다.

- 548) 參將: 명대에 변경 지역을 수비하는 관직으로 정원은 없고, 지휘는 總兵과 副總兵 다음으로 각각 路를 지켰다. 명칭시대 漕運 官員 중에도 參將이 있었는데, 식량 운반을 담당하였다.
- 549)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84 正統 6년 10월 丙子條 참조.
- 550) 『英宗實錄』 卷86 正統 6년 윤11월 辛巳條에서는 刀孟項을 刀門項으로 표기하였다.

孟璉長官并攻破烏木弄·夏邦等寨，斬首二千三百餘級。齊集麓川，守西域渡，就通木邦信息。百道環攻，復縱火焚其營，賊死不可勝算。任發父子三人并擊其妻孥數人，從間道渡江。奔孟養，搜獲原給虎符·金牌·信符·宣慰司印及所掠騰衝千戶等印三十二。麓川平，捷聞，命選師。

[정통] 7년(1442)에, 왕기가 병사를 거느리고 하강을 건너 고려공산의 길을 경유하였다. 등충에 이르러 도독 이안(李安)을 [이곳에] 머물게 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방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기는 남진을 경유하여 남북사장(羅卜思莊)에 이르렀는데, 선봉부대는 삼목릉(杉木籠⁵⁵¹)에 도달하였다. 당시에 사임발은 무리 2만여 명을 거느리고 높은 산을 점거하고는, 견고한 성채를 세우고 7개 영을 연결하여 앞뒤가 서로 맞닿게 하였다. [이에] 왕기는 궁취·유취를 보내 좌우익으로 나누어 산봉우리로 올라가게 하였고, 자신은 중군을 이끌고 가로질러 공격하니, 적들은 도망쳤다. 군대가 마안산(馬鞍山⁵⁵²)으로 진격하여 적의 성채를 공격하였다. 성채 양면은 강을 따라 벽을 세웠으며, 둘레 30리(里⁵⁵³)에 모두 울타리를 세우고 해자(壕子)를 만들어서 군대가 진격할 수 없었는데, 적들은 셋길을 따라 몰려 군대를 마안산 뒤로 보냈다. 왕기가 중군에게 움직이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서, 지휘 방영(方瑛)에게 정예기병 6천 명을 이끌고 적의 성채로 돌격해 들어가 수백의 수급을 베었으며, 다시 [적들의] 코끼리 부대를 유인하여 패배시켰다. 그리고 동로를 따라 [진격한 군대인] 목방의 인마(人馬)와 회합하여, 맹통(孟通⁵⁵⁴)의 여러 성채를 초무하여 항복시켰다. 원강(元江) 동지(同知) 두개(杜凱) 등도 차리(車里)와 대후의 만인병사 5만 명을 이끌고 맹련장관사(孟璉長官司)를 초무하고 항복시켰고, 아울러 오목릉(烏木弄)·알방(夏邦) 등의 성채를 공파하고서, 2,300여 수급을 베

- 551) 杉木籠山: 沙木籠山이라고도 한다. 雲南省 騰衝縣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얀마로 통하는 길이다. 明代에 王驥가 思任發을 이곳에서 격파하였고, 쌓을 설치하여 이곳 이민족들을 안무하여 龍川三關을 통제하였다.
- 552) 馬鞍山: 雲南省의 恩安에서 西南쪽으로 30리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길이 좁고 험하였다.
- 553) 里: 明代에 길이를 표시하는 尺度는 戴衣尺·量地尺·營造尺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明代 量地尺의 1리는 360步이고, 『算法統宗』 卷3에 의하면 '五尺爲一步'로 되어 있음으로 1리는 1,800리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리는 576m이다.
- 554) 孟通: 勐董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雲南省 滄源이다.

었다. 녹천에 모두 모여 서야도(西峴渡)를 지키고, 곧바로 목방에 소식을 알렸다. 각 도는 둘러싸 공격하였고 또 불을 놓아 그 군영을 불태웠는데, 사망한 적들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사임발 부자 3명은 그들의 처자식 몇 명을 데리고 셋길을 따라 강을 건너 맹양으로 도망갔다. 원래 내려 준 호부(虎符)⁵⁵⁵·금패·신부·선위사인(宣慰司印) 및 약탈당한 등중 천호 등의 인장 32개를 수색하여 획득하였다. [이로써] 녹천이 평정되었다. 전투에서 승리한 상황을 보고하니, [황제가] 최군하라고 명하였다.⁵⁵⁶

時任發敗走孟蒙，復爲木邦宣慰所擊，追過金沙江，走孟廣。緬甸宣慰卜剌當亦起兵攻之。帝命木邦·緬甸能效命擒任發獻者，卽以麓川地與之。未幾，任發爲緬人擒，緬人挾之求地。其子思機發窮困，乞來朝謝罪。先遣其弟招賽入貢，帝命遣雲南安置。機發竄大兵歸，圖恢復，據麓川出兵侵擾。於是復命王驥·蔣貴等統大軍再征麓川。驥率師至金齒，機發遣頭目刀籠肘偕其子詣軍門求降。驥遣人至緬甸索任發，緬伴諾不違。驥至騰衝，與蔣貴·沐昂分五營進，緬人亦聚衆待。驥欲乘大師攻之，見其衆盛，未易拔，又恐多一麓川敵，乃宣言犒師，而命貴潛焚其舟數百艘，進師薄之。緬甸堅執前語，必予地乃出任發，復詭以機發致仇爲解。驥乃趨者藍，搗機發巢，破之。機發脫走，俘其妻子部衆，立隴川宣慰司而歸。時思機發竊據孟養，負固不服，自如也。

당시에 사임발은 패하여 맹몽(孟蒙)으로 도망갔는데, 다시 목방선위의 공격을 받아 금사강(金沙江)을 넘어서까지 추격해오자 맹광(孟廣)⁵⁵⁷으로 달아났다. 면전의 선위(宣慰) 복랄당(卜剌當)도 군대를 일으켜 그를 공격하였다. 황제가 목방·면전에 명하기를 사력을 다해 사임발을 사로잡아 바치는 자가 있으면 바로 녹천의 땅을 주겠다고 하였다.⁵⁵⁸ 얼마 후에 사임발

555) 虎符: 고대에 황제가 用兵을 하여 장군을 파견할 할 때 사용하는 兵符로 青銅이나 黃金으로 호랑이가 었드려 있는 모양으로 만든 令牌이다.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장군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황제가 보관하였다. 이 두 개의 虎符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비로소 군대를 이동하고 장군을 파견할 수 있었다.

556)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88 正統 7년 정월 己丑條 참조.

557) 孟廣: 지금의 緬甸 押那蒙來特 동북부의 累倫 일대임.

이 면전인에게 사로잡혔고, 면전인은 그를 가지고서 땅을 요구하였다. 그의 아들 사기발(思機發)⁵⁵⁹은 곤궁하여 내조하여 사죄하겠다고 청하였는데, 먼저 동생 사초새(思招賽)를 보내 입조하여 진공하니, 황제가 [그를] 돌려보내 윤난에 안치하도록 하였다. 사기발이 대군이 돌아가는 것을 열담하고는 회복을 도모하여 녹천을 점거하고 군대를 출동시켜 침략하고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다시 왕기·장귀 등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제자 녹천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왕기가 군대를 이끌고 금치에 이르자, 사기발이 두목 도룡주(刀籠肘)를 그의 아들과 함께 보내 군문에 이르러 항복을 청하였다. 왕기는 사람을 면전에 보내 사임발을 찾도록 하였는데, 면전에서는 거짓으로 대답하고서 보내지 않았다. 왕기가 등중에 이르러 장귀·목양과 함께 다섯 군영으로 나눠 진격하니, 면전 사람들도 무리를 모아 기다렸다. 왕기는 대군이 [면전을] 공격하는 틈새에 그들 무리가 많음을 보고는 공격하여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또 일개 녹천의 적보다 많음을 염려하여 바로 군대를 위로한다고 선언하고서, 장귀에게 물레 [그들의] 배 수백 척을 불태우게 하고 그들 가까이 진군하도록 하였다. 면전에서는 이전의 조서를 고집하면서 반드시 땅을 주어야 바로 사임발을 내놓겠다고 하였고, 또한 사기발이 원한을 초래했다고 속인수도 변명을 하였다. 왕기가 바로 자람(叢)으로 쫓아가 사기발의 소굴을 공격하여 합락시켰다. [이때] 사기발은 빠져나가 도망쳤고, 그의 처자와 무리들을 포로로 잡았으며, 농천선위사(隴川宣慰司)를 설치한 후 귀환하였다. 당시에 사기발은 몰래 맹양을 점거하고 협준함에 의지하여 복종하지 않았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였다.⁵⁶⁰

十一年，緬甸始以任發及其妻孥三十二人獻於雲南。任發於道中不食，垂死。千戶王政新之，函首京師。其子機發屢乞降，遣頭目刀孟永等修朝貢，獻金銀。言蒙朝廷調

558)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90 正統 7년 3월 戊寅條 참조.

559) 思機發(?~1454): 明朝의 麓川土司로, 思任發의 아들이다. 正統 11년(1446) '麓川之役' 중에 思任發이 병이 들어 명의 군대에 참살되자, 思機發은 명조에 항복을 청하였다. 正統 12년(1447) 黔國公 沐斌이 다시 변방의 일을 담당하면서 麓川에 대한 정벌을 행하였다. 이때 思機發의 숙부 思陸發은 화의를 청하였고, 思機發은 緬甸으로 도망하였다. 景泰 5년(1454)에 思機發은 면전 측에 의해서 명조에 넘겨졌으며, 북경에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560)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94 正統 7년 7월 壬午條; 『英宗實錄』 卷109 正統 8년 10월 丙戌條; 『英宗實錄』 卷139 正統 11년 3월 甲午條 참조.

兵征討，無地逃死，乞貸餘生，詞甚哀。帝命受其貢，因敕總兵官沐斌及參贊軍務侍郎楊寧等，以朝廷既貸思機發以不死，經畫善後長策以聞，并賜敕諭思機發。十二年，總兵官黔國公沐斌奏：「臣遣千戶庸庸齋救招諭思機發，以所遣弟招賽未歸，疑懼不敢出。近緬甸以機發掠其牛馬·金銀，欲進兵攻取。臣等議遣人分諭木邦·緬甸諸宣慰司，命集蠻兵，剋期過江，分道討機發。臣等率官軍萬人駐騰衝，以助其勢。賊四面受敵，必成擒矣。」從之。已，命授機發弟招賽為頭目，給冠帶·月糧·房屋，隸錦衣衛，其從人俱令於馴象所供役。先是，招賽安置雲南，其黨有欲稱亂者，乃命招賽來京，且冀以招徠機發也。帝既命雲南出兵剿機發，及沐斌等至騰衝，督諸軍追捕，機發終不出，潛匿孟養，遣其徒來貢，許以思貸，復不至。斌以春瘴作，江漲不可渡，糧亦乏，引兵還。

정통 11년(1446)에, 면진은 비로소 사임발 및 그의 처와 자녀 32명을 운남에 이르러 바쳤다.⁵⁶¹ 사임발은 도중에 먹지 않아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천호 왕정(王政)이 그를 배어 머리를 상자에 넣어서 경사로 보냈다. 그의 아들 사기발은 여러 차례 항복을 청하고, 두목 도맹영(刀孟永) 등을 보내 조공을 하고, 금은을 바쳤다.⁵⁶² [그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군대를 내어 토벌을 당하게 되어, 도망하여 죽을 곳도 없으니 여생을 용서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그 언사가 매우 애처로웠다. 황제가 그들의 조공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총병관 목민(沐斌)⁵⁶³과 참찬군무사(參贊軍務侍郎) 양녕(楊寧)⁵⁶⁴ 등에게 칙서를 내려 조정은 이미 사기

561) 이 일이 『英宗實錄』卷136 正統 10년 12월 丙辰條에는 正統 10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562)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卷127 正統 10년 3월 庚辰條 참조.

563) 沐斌(1397~1450): 安徽省 定遠 사람으로, 명 黔寧昭靖王 沐英의 손자이다. 자는 文暉이고, 원래 이름은 名傑이었다. 正統 5년(1440)에 黔國公을 세습하였다. 그 부친인 沐晟은 雲南을 40여 년 鎮守하였는데, 沐斌은 일찍이 부친을 따라 麓川에서 반란을 일으킨 思任發을 토벌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564) 楊寧(1400~1458): 자는 彥謐이고, 安徽省 獻縣 사람이다. 宣德 5년(1430)에 進士가 되어 刑部主事に 임명되었다. 正統 연간(1457~1464) 초에 尚書 魏源을 따라 宣府와 大同을 순시하였다. 正統 4년(1439)에 都督 吳亮과 함께 麓川을 정벌하였다. 다시 王驥를 따라 騰衝에까지 가서 적들을 격파하였다. 太僕少卿 李賁과 함께 전투를 이끌었고, 그 공로로 귀환 후에 刑部右侍郎이 되었다. 正統 9년(1444)에 依繼를 대신하여 參贊雲南軍務를 맡았다. 그때 麓川은 평정되었고, 楊寧은 騰衝이 요충지임으로 都督 沐邦과 함께 이곳에 성을 쌓고 衛를 설치하여 방비에 임했다. 2년 후 福建과 浙江에서 도적이 들끓어 조정에서

발이 너그럽게 용서하여 죽이지 않게 했고, 머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 보고하게 하였고, 아울러 사기발에게 칙서를 내려 효유했기 때문이다.⁵⁶⁵ [정통] 12년(1447)에 총병관 검국공 목민이 상주하길, “신이 천호 명용(明勇)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가서 사기발을 초무하고 효유하도록 하였는데, 파견한 [그의] 동생 사초새(思招賽)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의심하여 감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면진은 사기발이 그들의 소·말·금은을 약탈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 공격하여 취하려고 합니다. 신 등은 목방·면건의 여러 선위사(宣慰司)에 사람을 나누어 보내 효유하고, 만일 병사를 모으고 기한을 정해 강을 건너서 길을 나누어 사기발을 토벌할 것을 상의하였습니다. 신 등이 관군 1만 명을 거느리고 등중에 주둔하면 그들의 기세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적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 반드시 사로잡힐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 그 후에 사기발의 동생 사초새를 두목으로 제수하도록 하고, 관대·월량(月糧)·방옥(房屋)을 주었으며, 금의위(錦衣衛)⁵⁶⁶에 예속시키고 그의 시종들 모두 코끼리를 길들이는 일에 복역하게 하였다.⁵⁶⁷ 이전에 사초새를 운남에 안치시켰지만 그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서, 곧바로 사초새를 경사로 오게 하였는데, 또 이로써 사기발을 초무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황제가 이미 운남에 명하여 출병해서 사기발을 소탕 하라고 했고, 목민 등이 등중에 이르러 여러 군사를 재촉하여 추격해 체포하도록 하였으나, 사기발은 결국 나오지 않았고 몰래 땅양에 숨어들었으며, 그의 무리를 보내 내조하여 조공하

는 楊寧에게 江西를 평정하도록 명하였고, 楊寧은 이 지역에 출몰하는 도적들을 폐지시켰다. 景泰 초년에 禮部尚書가 되었으나 英宗이 복위한 후 관직을 그만두었고, 이듬해 사망하였다.

565)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卷127 正統 10년 3월 戊辰條 참조.

566) 錦衣衛: 명대의 軍事特務機構인 錦衣衛親軍都指揮使司의 약칭이다. 명 태조는 洪武 원년(1368)에 御用 披衛司를 설치하였으나 곧 이를 儀衛司로 고쳤으며, 이듬해에 다시 이를 大內親軍都衛府로 고치고 洪武 15년(1382)에 錦衣衛를 설치하였다. 금의위의长官에는 勳功이 있거나 혈연관계가 있는 都督을 임명하여, 남북의 두 鎮撫司와 14개의 所를 통할토록 하였다. 이 기관의 임무는 황제가 거동할 때 儀仗, 官廷 守護, 京城 안팎 巡察, 罪人의 逮捕 및 訊問 등을 담당하였으며, 따로 詔獄을 두어 刑部의 법률 절차를 따지 않고도 투옥할 수 있었다. 兵權·刑權을 모두 가진 황제 독재권력의 手目으로서, 永樂帝 이후로는 宦官이 장관을 맡고 있는 東廠·西廠 등과 더불어 공포정치를 행하였다. 錦衣衛의 관원으로는 正三品の 指揮使가 있고, 그 밑에 從三品の 同知 2명과 正四品の 僉事 2명이 있으며, 그 밑으로 正五品の 鎮撫 2명과 역시 正五品の 千戶 14명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千戶는 錦衣衛에 소속된 千戶를 말한다.

567)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卷153 正統 12년 4월 己亥條; 『英宗實錄』卷154 正統 12년 5월 乙卯條 참조.

었다. [그를] 은혜와 관용으로 받아들였으나 다시 이르지 않았다. 목빈은, 봄에 장역(瘴疫)이 발생하고 강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었으며 식량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돌아오게 하였다.

帝以弒師出無功，復命兵部尚書靖遠伯王驥總督軍務，都督同知宮聚佩平蠻將軍印，率南京·雲南·湖廣·四川·貴州官軍·土軍十三萬人往討之。至是，驥凡三征麓川矣。帝密諭驥曰：「萬一思機發遠遁，則先擒刀變蠻，平其巢穴，或進入緬地，緬人黨蔽，亦相機擒之。庶蠻衆知懼，大軍不爲徒出。」又敕諭斌，軍事悉與驥會議而行。又敕諭木邦·緬甸·南向·千崖·隴川等宣慰司罕蓋發等，各整兵備船，積糧以俟調度。

황제는 목빈의 군대가 출정하였으나 공이 없자 다시 병부상서 정원백(靖遠伯) 왕기(王驥)에게 군무를 총독하게 하고, 도독동지(都督同知) 궁취(宮聚)에게 평만장군의 인장을 패용하게 하여 남경(南京)⁵⁶⁸·운남·호광·사천·귀주의 관군·토군 13만 명을 이끌고 가 토벌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왕기는 무릇 세 번째 녹친을 토벌하였다.⁵⁶⁹ 황제가 왕기에게 비밀리에 유지를 내리기를, “만일 사기발이 멀리 도망가면 먼저 도변만(刀變蠻)을 사로잡고 그의 소굴을 평정하라. 후시 먼진 지역으로 도망해 들어가면 먼진 사람들이 비호할 것이니 역시 기회를 봐서 그를 사로잡아라. 만인들이 두려움을 알아서 대군이 험적이 출정하지 않기를 바라노라”고 하였다. 또 목빈에게 칙서를 내려 군대의 일은 모두 왕기와 만나 논의하여 행하라고 하였다. 또한 칙서를 내려 목방·면전·남진·간에·농천(隴川)⁵⁷⁰ 등 선위사 한개방(罕蓋

568) 南京: 명 초에 수도로 정한 곳이다. 應天이란 명칭은 元 至正 16년(1356)에 朱元璋이 集慶路를 應天府로 개칭하면서 붙였으며, 明초에 이곳에 定都했다. 그러나 永樂 19년(1421)에 北京으로 遷都하면서 북경이 새로운 京師로 칭해졌고, 응천부는 이후 正統 6년(1441)에 南京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淸 順治 2년(1645)에는 江寧府로 개칭되었다.

569) 王驥가 세 차례 麓川을 정벌하였는데, 첫 번째는 正統 6년(1441) 정월에서 12월, 두 번째는 正統 8년(1443) 봄부터 12월까지, 세 번째는 正統 13년 봄부터 正統 14년(1449) 정월까지이다(俟餘, 1988: 173).

570) 隴川: 현재 雲南省 德宏傣族景頗族 지역에 있는 縣이다. 傣族들은 이 지역을 태양이 눈부시게 비치는 곳이라고 불렀다. 東漢시대에는 永昌郡 哀牢縣에 속했고, 唐과 南詔 때에는 永昌節度에 속했으며, 宋代에는 大理金齒에 속했다. 南宋 紹興 30년(1160)에 麓川의 思氏가 흥기하여, 劄卯에서 여러 부락을

發) 등을 효유하여 각각 군대를 정돈하고 배를 갖추고 식량을 비축하여 징발을 기다리라고 하였다.⁵⁷¹)

十四年，驥率諸將自騰衝會師，由千崖造船，至南牙山舍舟陸行，抵沙壩，復造船至金沙江，機發於西岸埋柵拒守。大軍順流下至管屯，通木邦·緬甸兩宣慰兵十餘萬亦列於沿江兩岸，緬甸備舟二百餘爲浮梁濟師，併力攻破其柵寨，得積穀四十萬餘石。軍飽，銳氣增倍。賊傾衆至鬼塚山，築大寨於兩峰上，築二寨爲兩翼，又築七小寨，綿五百餘里。官軍分道並進，皆攻拔之，斬獲無算，而思機發·思卜發復奔遁。

[정목] 14년(1449)에, 왕기가 여러 장수들을 이끌고 등충에서 군대를 회합하여, 배를 건조해 간애를 경유하였으며, 남아산(南牙山)⁵⁷²에 도착해서는 배를 버리고 육로로 행군하여 사패(沙壩)에 도달했고, 다시 배를 만들어 금샤강에 이르렀다. 사기발은 서쪽 강안에서 울타리를 매설(埋設)하고서 방어하였다. 대군이 물살을 따라 관둔(管屯)⁵⁷³까지 내려갔는데, 마침 목방·면전 두 선위의 병사 10여 만 명이 강을 따라 양안에 들어서 있었고, 면전에서는 배 200여 척을 준비하여 부교(浮橋)⁵⁷⁴를 만들어 군대를 건너게 하였으며, 힘을 합쳐 적의 울타리를 파괴하고서, 비축한 곡물 40여 만 석(石)⁵⁷⁵을 얻었다. [이로 인해] 군대는 배를 빌었고 사기는 배로 증가하였다. 적이 무리했다. 적이 무리하니 隴川(隴川)에 이르러 두 봉우리 위에 큰

통일하고서 隴川까지 병합한 후 정권을 세웠다. 元 至元 13년(1276)에 麓川路和 平緬路를 설치하였고, 至順 원년(1330)에는 麓川軍民總管府를 설치하여 원래 麓川을 관리하였다. 至正 15년(1355)에 平緬宣慰使司를 설치하였는데, 明 正統 9년(1444)에 麓川平緬宣慰使司를 철폐하고 隴川宣撫司를 설치하여 隴川과 瑞麗 등 지역을 관리하였다.

571)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164 正統 13년 3월 丙戌朔條 참조.

572) 南牙山은 현재 盈江縣 서부 변경 지역에 있다.

573) 管屯: 管家屯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貴州省 威寧彝族回族苗族自治州 金斗鄉 高田村과 雲南省 宣威市 楊柳鄉 可渡村의 교계 지역에 있다.

574) 浮橋: 배를 가지고 만든 다리를 말하는데, 물살이 급한 곳에서는 다리를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를 띄워 건너가게 하였다(『三才圖會』 「宮室」 卷2 浮橋 참조). 명대에 부교를 처음 만든 것은, 태조가 淮水를 건널 당시 배 45척을 연결하여 부교를 설치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 卷82 洪武 6년 5월 癸卯條 참조.

575) 石: 주로 곡식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명대의 石 1石은 70.8kg이다.

성체를 건축하였는데, 두 성체로 양익(兩翼)을 만들었고 또한 7개의 작은 성체를 만들었는데 백여 리에 걸쳐 이어졌다. 관군들은 길을 나누어 함께 진군하여 모두 그들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는데, 베고 붙잡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았으나 사기발·사복발(思卜發)은 또 달아났다.⁵⁷⁶⁾

時王師臨孟養至孟那。孟養在金沙江西，去麓川千餘里，諸部皆震懼曰：「自古，漢人無渡金沙江者，今王師至此，真天威也。」驥還兵，其部衆復擁任發少子思祿據孟養地爲亂。驥等處師老，度賊不可滅，乃與思祿約，許土目得部勒諸蠻，居孟養如故，立石金沙江爲界，誓曰「石爛江枯，爾乃得渡」。思祿亦懼，聽命，乃班師。捷聞，帝爲告廟云。

당시에 관군은 맹양을 지나 맹나(孟那)에 이르렀다. 맹양은 금사강 서쪽에 있고 녹천에서 천여 리 거리였는데, 여러 부에서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예로부터 한인(漢人)으로 금사강을 건넌 자가 없었는데, 지금 관군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하늘의 위엄입니다”라고 하였다.⁵⁷⁷⁾ 왕기가 회군하자, 그 부중(部衆)에서는 다시 사임발의 어린 아들 사복(思祿)을 옹립하여 맹양 땅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왕기 등이 군대의 피로를 염려하고 적들을 전부 전멸시킬 수 없음을 헤아려 바로 사복과 약정하였으며, 토목이 여러 만인을 통솔할 수 있고, 이천처럼 맹양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으며, 금사강에 돌을 세워 경계를 만들지 못하게하여 말하길, “돌이 부서지고 강이 말라야 그대들은 바로 건널 수 있다”고 하였다. 사복이 역시 두려워하여 명령을 따르자, 바로 군대를 귀환시켰다.⁵⁷⁸⁾ 전투에서 승리한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황제는 [이를] 묘(廟)에 고하였다고 한다.

576)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175 正統 14년 2월 乙巳條 참조.

577) 이 내용은 『殊域周咨錄』 卷9 南百夷條 참조.

578) 이때 명 조정에서 思祿이 孟養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본분에서 밝힌 것처럼 군대의 피로가 누적되었고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緬甸이 세력을 확장해가는 것을 막고, 동시에 孟密·木邦의 토리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 조정이 의도한대로, 思氏는 여러 차례 緬甸 측의 공격을 막아냈고, 萬曆 17년(1579)에 思選에게 孟養宣慰司 使를 제수하였다(鄒映, 2009: 14).

景泰元年，雲南總兵官沐瑋奏：「緬甸宣慰已擒獲思機發，又將思卜發放歸孟養，恐緬人復挾爲奇貨，不若緩之，聽其自獻使。」從之。五年，緬人索舊地，左參將胡誌等諭以銀夏等處地方與之，乃送思機發及其妻孥六人至金沙江村，誌等繼送京師。南寧伯毛福壽以聞，乃誅思機發於京師。七年，任發子思卜發奏：「臣父犯犯法，時臣幼無知。今不敢如父兄所爲，甚長朝廷法，謹備差發銀五百兩·象三·馬六及方物等，遣使人入貢，惟天帝主哀憐。」因賜敕成諭，并賚思卜發與妻錦幣及其使鈔幣有差。

경태(景泰) 원년(1450)에 윤남 총병관 목린(沐瑋)⁵⁷⁹⁾이 상주하기를, “면전 선위가 사기발을 사로잡은 후에, 또 사복발을 맹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면전 사람들이 다시 그를 가지고서 기화(奇貨)⁵⁸⁰⁾로 삼는 것이 염려되니, 이를 늦추는 것만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헌상하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⁵⁸¹⁾ [경태] 5년(1454)에, 면전 사람들이 옛 땅을 요구하자 좌참장(左參將) 호지(胡誌) 등이 은알(銀夏) 등지의 지역을 그들에게 주고서 효유하니, 이에 사기발 및 그의 처와 자녀 6명을 보내 금사강촌에 이르렀는데, 호지 등이 [그들을] 합거(監車)⁵⁸²⁾에 가둬 경사로 압송하였다. 남녕백(南寧伯) 모복수(毛福壽)가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곧 사기발을 경사에서 주살(誅殺)하였다.⁵⁸³⁾ [경태] 7년(1456)에 사임발의 아들 사복발이 상주하기를, “신의 아버지와 형은 법을 어겼지만, 당시에 실은 어려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감히 부형(父兄)처럼 하지 않을 것이고, 조정의 법을 몸시 두려워하여 삼가 차발은 500냥·코끼리 3마리·말 6마리와 방물을 준비하여 사신을 보내 입조하여 진공하오니, 오로지 천황제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칙서를 내려 훈계하고 효유하였으며, 아울러 사복발과 그의 처에게 금폐(錦幣)를

579) 沐瑋：生卒年未詳。沐瑋의 정중으로 字는 廷章, 號는 繼軒이다. 指揮의 職을 세습하였고, 景泰·天順 연간(1450~1464)에 右軍都督을 맡았다.

580) 奇貨：좋은 기화 또는 진기한 물건이라는 의미로, 진기한 물건을 사두었다 때를 기다리면 큰 이익을 얻는다는 말로, 지금은 대단치 않지만 나중에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본래 이 말은 『史記』의 「呂不韋傳」에서 呂不韋가 秦의 質子였던 子楚를 후원하면서 “奇貨可居”라고 한 데서 나온 것이다.

581)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207 景泰 2년 8월 癸巳條 참조.

582) 監車：죄인을 호송할 때 사용하던 수레로 囚車라고도 한다.

583)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239 景泰 5년 3월 庚辰條：『殊域周咨錄』 卷9 南百夷條 참조.

상으로 내려주고, 사신에게도 초패를 차등하여 내려주었다.⁵⁸⁴⁾

成化元年, 總兵官沐瓚等以思任發之孫思命發至京師, 乃逆賊遺孽, 不可留, 請發沿海登州衛安置, 月給米二石, 從之. 麓川亡.

성화 원년(1466)에, 총병관 목찬(沐瓚)⁵⁸⁵⁾ 등은 사임발의 손자 사명발(思命發)이 경사에 이르자 바로 역직의 후손이므로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하며 연해인 등주위(登州衛)⁵⁸⁶⁾에 안치(安置)하고 매달 쌀 2석을 주도록 청하였는데,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⁵⁸⁷⁾ 녹천은 멸망하였다.

先是, 麓川之初平也, 分其地立隴川宣撫使司, 因以恭項爲宣撫使. 恭項者, 故麓川部長, 首先歸順效力有功, 因命於麓川故地開設宣撫. 已, 頭目曩渙等復來歸, 願捕賊自效. 帝命還守本土, 有功, 卽加敘, 諸凡來歸者視此例. 遂以刀歪孟爲本司同知, 刀落曩爲副使, 隴帶爲僉事, 俱賜冠帶, 從宣撫恭項請也. 恭項子恭立來貢, 給賜如例, 并授恭立爲長史. 未幾, 隴川宣撫失印, 請再給. 帝責恭項以不能宣揚國威, 反失印, 罪應不宥, 姑從寬頒給. 時板蹇據著藍寨, 侵擾隴川, 百夫長刀門線·刀木立進兵圍之, 斬板蹇等二十三人. 命賜有功者皆爲冠帶把事, 并賞織金文袴.

이보다 앞서 녹천이 막 평정되었을 때, 그 땅을 나누어 농천선무사(隴川宣撫使司)를 설치⁵⁸⁸⁾하고서 공항(恭項)을 선무사(宣撫使)로 삼았다.⁵⁸⁹⁾ 공항은 옛 녹천의 부장으로, 제일

584)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265 景泰 7년 4월 乙卯條 참조.

585) 沐瓚(1439~1481): 沐英의 증孫子로 沐英의 셋째 아들인 沐昺의 손자이다. 景泰 3년(1452)에 그는 부친 沐昺의 관위인 錦衣衛 副千戶를 계승하였다. 天順 2년(1459)에 右軍都督同知로 승진하였고, 鎮南將軍의 印을 지녔다. 成化 4년(1468)에는 다시 副總兵이 되어 운남의 金齒, 騰衝을 진수하였다.

586) 登州: 山東省 登州府를 말하며, 산둥 반도 북부 해안에 위치한다. 현재 煙臺市 안의 蓬萊市(縣級)에 해당한다.

587) 이와 관련된 내용은 『憲宗實錄』 卷30 成化 2년 5월 丙申條 참조.

588) 원래 隴川平撫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하였으나 正統 6년(1441)에 폐지하였다. 그리고는 正統 9년(1444)에 隴川宣撫使司로 변경하였다(余貽澤, 1968: 105).

먼저 귀순하는데 힘을 발휘해 공이 있음으로 인해 녹천의 옛 지역에 선무(宣撫)[아문]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 후에 두목 낭환(曩渙) 등이 또 귀부하여 적을 사로잡는데 힘쓰겠다고 청했다.⁵⁹⁰⁾ [이에] 황제는 돌아가서 본토를 지키도록 명하였으며, 공이 있으면 바로 관절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다. 모든 귀순한 사람은 이 예에 따라 살렸다. 마침내 도왜맹(刀歪孟)을 본 사(농천선무사사)의 동지로 삼고, 도락낭(刀落曩)을 부사(副使)로 삼았으며, 농추(隴帶)를 첨사로 삼고, 모두 관대를 주었는데, [이것은] 선무(宣撫)인 공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⁵⁹¹⁾ 공항의 아들 공립(恭立)이 내조하여 진공하니, [명 조정에서는] 규정에 따라 하사품을 주었고 아울러 공립을 장사(長史)⁵⁹²⁾로 삼았다.⁵⁹³⁾ 오래지 않아 농천 선무가 인신(印信)을 잃어버려서 다시 줄 것을 청하였다. 황제는 공항이 국위를 선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신을 잃어버렸으니 죄는 마땅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질책하였으나, 잠시 후 관용을 배풀어 [인신]을 주었다.⁵⁹⁴⁾ 당시 판건(板蹇)이 자람채(者藍寨)를 지키고 농천을 침범하여 어지럽혔는데, 백부장(百夫長) 도문선(刀門線)·도목립(刀木立)이 군대를 진격시켜 그들을 포위하였고, 판건 등 23명을 베었다. 공이 있는 자에게 모두 관대를 주어 파사(把事)를 맡도록 했으며, 아울러 직급문기를 상으로 내었다.⁵⁹⁵⁾

正統十一年, 木邦宣慰亭蓋發來麓川故地, 有司以已設隴川宣撫司, 建官分管, 以孟止地予之. 報可. 十二年敕諭恭項, 言: 『比者, 總兵泰爾與百夫長刀木立相仇殺, 人民懷怨, 欲謀害爾父子, 今邊角於雲南, 俾不失所, 且遣官護爾家屬完聚, 其體闊

589) 隴川宣撫使司를 설치한 것은 正統 9년(1444)의 일이다(郭隆, 1992: 634~644); 正統 연간 이전에 宣慰使는 思氏였으나, 이후에는 恭項, 刀歪孟(혹은 多外閣), 多亨法, 多忠, 多士學, 多安禧, 多思順 등이 宣慰使가 되었다(余貽澤, 1968: 105).

590)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121 正統 9년 9월 己亥條 참조.

591)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127 正統 10년 3월 庚辰條 참조.

592) 長史: 일찍이 漢代에 설치된 관직으로, 丞相과 將軍의 幕府에서 幕僚의 일을 담당했으며, 進地의 郡에도 설치되어 郡太守를 보좌하였다. 명정시대에는 親王과 公主 등의 府에 두어져 府中の 政令을 관장했는데, 品階는 正五品職이었다(『明史』 『職官志』 4 王府長史司條 및 黃本驥, 1974: 100 참조).

593)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130 正統 10년 6월 壬戌條 참조.

594)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131 正統 10년 7월 庚寅條 참조.

595)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 卷139 正統 11년 3월 甲午條 참조.

恤，無懷疑懼。」旣而總兵官言：「隴川致亂，皆由恭項暴殺無辜，刻虐蠻人。同知刀孟孟爲蠻衆信服，乞安置項於別衛，以刀孟孟代。」帝以恭項來歸，屈法宥之，命於曲靖安置，并遣敕往諭。

정통 11년(1446)에, 목방 선위 한개발(罕蓋發)이 와서 녹천의 옛 땅을 요구하였다. 담당 관원은 이미 농천선무사를 설치하여 관원을 두어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맹지(孟止)를 그에게 주라고 하니, [황제가] 비답으로 허락하였다.⁵⁹⁶⁾ [정통] 12년(1447)에 공항에게 칙유하여 이르기를, “근래에 총병(總兵)이 상주하기를, 그대와 백부장 도목립이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이려고 하여 백성들이 원한을 품고 그대 부자를 해치려 한다고 한다. 지금 그대를 운남으로 옮겨 앓을 것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한 관원을 보내 그대 가족들을 호송하여 다 모이게 할 것인데, 이는 그대를 공홀히 여기는 것이니 의심하고 두려움을 품지 말라”고 하였다.⁵⁹⁷⁾ 오래지 않아 총병관이 아뢰기를, “농천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은 모두 공항이 무고(無辜)한 이들을 함부로 죽이고 만민들을 가혹하게 한 까닭입니다. 동지 도왜맹(刀孟孟)은 만민 무리가 믿고 따르니, 공항을 다른 위(衛)에 안치하고 도왜맹으로 하여금 [그의 직을] 대신하도록 하길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공항이 귀부해 왔기 때문에 범을 너그럽이 하여 용서하였고, 곡경(曲靖)⁵⁹⁸⁾에 [그를] 안치하도록 하고 아울러 칙서를 보내 효유하게 하였다.⁵⁹⁹⁾

景泰七年，隴川宣撫多外閩違人貢象·馬及金銀器皿·方物，賜綵幣·襲衣如例。仍

596) 實錄에는罕蓋發의 이름이罕蓋法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英宗實錄』卷144 正統 11년 8월 己酉條 참조).
 597) 이와 관련된 내용은『英宗實錄』卷150 正統 12년 2월 甲申條 참조.
 598) 曲靖: 曲靖軍民府를 일컫는다. 洪武 14년(1381)에 曲靖路總管府를 고쳐 曲靖府라 했으며, 洪武 27년(1394)에 曲靖府를 승격하여 曲靖軍民府라 했다. 雲南省 東北部에 위치해 있는데, 東으로는 貴州省, 廣西壯族自治區와 인접해 있고, 南으로는 文山州, 紅河州와 접해 있으며, 西로는 昆明市, 東川市와 連接해 있고, 北으로는 昭通地區와 貴州 畢節地區에 기대어 있다. 曲靖은 ‘浪黔鎮’, ‘雲南咽喉’로 칭해지는 지역이다.
 599) 이와 관련된 내용은『英宗實錄』卷155 正統 12년 6월 戊子條 참조.

命齋敕賜之，以多外閩初修朝貢故也。成化十九年，以隴川宣撫司多至孟子亨法代職。

경태 7년(1456)에, 농천의 선무 다외민(多外閩)이 사람을 보내 코끼리·말 및 금은기명·방물을 바치니, [명 조정에서는] 규정에 따라 체패·습의를 내려주었다.⁶⁰⁰⁾ 예전처럼 칙서를 가지고 가서 그에게 내리도록 했는데, [이는] 다외민이 처음으로 조공을 하였기 때문이다. 성화 19년(1483)에, 농천선무사 다왜맹(多孟孟)의 아들 다형법(多亨法)에게 직을 대신하게 하였다.⁶⁰¹⁾

初，隴川與木邦相鄰，爭地仇殺，搆兵不息。嘉靖中，土舍多鯨刃兄自襲，下鎮巡官按問，伏辜，還職兄子多參。詔賞其罪，并戒木邦罕孟毋得復黨鯨爭職。

당초에, 농천은 목방과 서로 인접하여 땅을 다투고 원수가 되어 죽이려고 했으며, 보복하여 죽여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가정 연간(1521~1566)에, 토사(土舍) 다경(多鯨)이 형을 죽이고 스스로 세습하였는데,⁶⁰²⁾ 친손에게 [이 일을] 내려 보내 조사하고 심문하도록 하여 죄를 자복하고, 직을 형의 아들 다참(多參)에게 되돌려주었다. 조서를 내려 그의 죄를 사면하였고, 아울러 목방의 현맹에게 다경이 직무를 다투는 것을 비호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⁶⁰³⁾

600) 이때 多外閩이 보낸 사람은 頭目 多力法이었다(이와 관련된 내용은『英宗實錄』卷268 景泰 7년 7월 己丑條 참조).
 601) 이와 관련된 내용은『憲宗實錄』卷236 成化 19년 3월 壬戌條 참조: 隴川宣撫使의 계보는, 多孟孟, 多亨法, 多塗, 多參詔, 多士寧, 多忠, 多思順, 多安民, 多安靜, 多紹寧, 多勝祖, 多治國 등으로 이어진다(假除, 1992, 634~635 참조).
 602) 隴川宣撫使에게는 妻 姜氏와 妾 劉氏가 있었는데, 姜氏가 낳은 아들인 多鯨가 隴川宣撫使의 직을 세습하였다. 그리고 姜氏의 딸은 木邦의 罕烈에게 시집갔다. 혼인 劉氏가 낳은 아들이 바로 多鯨이다(자세한 내용은『殊域周咨錄』卷9 南百夷條 참조).
 603) 多鯨과 多參에 대한 내용은『世宗實錄』卷93 嘉靖 7년 10월 戊辰條 참조. 그런데『殊域周咨錄』卷9 南百夷條에는 罕孟의 이름이 罕烈으로 표기되어 있다.

萬曆初，緬甸瑞體叛，來招隴川宣撫多士寧，士寧不從。其記室岳鳳者，江西撫州人，黠而多智，高於隴川，士寧信任之，妻以妹。鳳曲媚士寧，陰奪其權，與三宣六慰各土舍卒拔等歃血盟，誘士寧往擺古，歸附緬甸，陰使其子翼烏鴉士寧并殺其妻女，奪印投緬，受編緬命，代士寧爲宣撫。及瑞體死，子應襄嗣，鳳父子臣服之。誘敗官軍，獻士寧母胡氏及親族六百餘人於應襄，盡殺之，多氏之宗幾盡。

만력 연간(1573~1620) 초에, 면전의 망서체(莽瑞體)⁶⁰⁴가 반란을 일으키고,⁶⁰⁵ 농진 선무

- 604) 莽瑞體(1516~1550): Tabinshwehti를 음역한 것이다. 타빈슈웨티는 '금으로 된 단단한 우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는 미얀마 톤구 왕조의 창시자(재위 1531~1550)로 페구(Pegu)·마르타반(Martaban)·타라인·프롬(Prome)을 공략하여, 페구를 수도로 정하고 중부 미얀마를 통합하였으며 왕조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1287년의 원나라 원정으로 쇠미해진 과단 왕조를 찬탈한 산(Shan)족이 아와(Awa) 왕조를 세운 이래, 미얀마는 약 2세기 동안 산족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 시기 미얀마족은 톤구 이남으로 퍼진하여 미얀마족 재흥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실현한 사람이 타빈슈웨티이다. 그는 즉위해서 담파제다(Dammazedi, 재위 1472~1492) 이후 분열에 휩싸인 페구를 공격하여 허부 미얀마의 비옥한 농지를 점령하고, 포르투갈과의 교역으로 번영하고 있던 페구의 주요 항구를 점령하여 자금원을 확보하였다. 포르투갈과의 교역항을 점령한 후로, 유럽의 우수한 총포류를 수입하고 포르투갈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여(그 수는 한때 700명에 이르렀다)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16세기 전반 페구·마르타반·타라인·프롬을 공략하여 페구를 수도로 정하고서 중부 미얀마를 통합하였다. 1546년에는 아라칸(Arakan)으로, 1549년에는 태국으로 진격하여 왕조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궁정 생활의 부패가 원인이 되어 몬(Mon)족의 반란이 일어나 암살당했다. 원문에는 망서체가 반란을 일으킨 해가 만력 초년으로 되었는데, 그의 생졸년으로 볼 때 망서체가 죽은 이후이므로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망서체의 뒤를 이어 1551년에서 1581년까지 재위했던 莽應龍의 활동을 활자키는 것으로 보인다.
- 605) 원문에는 망서체가 반란을 일으킨 해가 만력 초년으로 되었는데, 그의 생졸년으로 볼 때 망서체가 죽은 이후이므로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明史』卷315『雲南土司』3를 보면, 萬曆 11년(1583)에 莽應龍가 동생 莽應龍을 보내 우拔牙의 아들 罕遜忠이 지키고 있는 木邦을 침범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역시 莽瑞體·莽應龍·莽應裏의 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나온 서술이다. 莽瑞體와 莽應龍은 형제관계로 나중에 즉위한 莽應龍이 형이다. 莽應龍과 莽應裏의 관계는 父子 관계로, 莽應裏가 莽應龍의 장남이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망서체의 뒤를 이어 1551년에서 1581년까지 재위했던 莽應龍의 통치 시기의 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莽應龍은 미얀마 톤구 왕조의 다섯 번째 국왕으로, 재위기간은 1551~1581년까지 30년간이었다.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친 군주이며, 강력한 일원적 통합 정책을 펼쳤다. 두 차례에 걸쳐서(1564년, 1569년) 아유타야(Ayutthaya)의 수도를 점령했다. 아울러 치앙마이의 란, 라오스의 란 창 왕국도 미얀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16세기였다. 그는 그 이전

다사녕(多士寧)을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나 다사녕이 따르지 않았다. 그의 기실(記室)⁶⁰⁶인 악봉(岳鳳)⁶⁰⁷이란 자는 강서(江西)⁶⁰⁸ 무주(撫州)⁶⁰⁹ 사람으로 간교하고 지략이 많았으며, 농전에서 상업을 하였는데, 다사녕이 그를 신임하여 그의 누이동생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악봉은 자신의 뜻을 굽히면서 다사녕의 비위를 맞췄는데, 비밀리에 그의 권한을 빼앗았고, 삼선육위(三宣六慰)⁶¹⁰ 각 토사(土舍) 한발(罕拔) 등과 삼혈(歃血)로 맹약을 맺고 다사녕을 파고(擺古)⁶¹¹까지 유인하여 면전의 추장에게 귀부하였다. 몰래 그의 아들 남오(翼烏)를 보내 다사녕을 짐(鷄)⁶¹²으로 독살하고 아울러 그 처와 딸도 죽였으며, 인신을 빼앗아 면전에 의탁 하고 면전의 거짓 명을 받아 다사녕을 대신하여 선무로 삼았다. 망서체가 사망하자, 그 아들

- 왕인 타빈슈웨티의 이복 형이며, 타빈슈웨티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왕의 형'이라는 뜻인 '바인나웅(Bayinnaung)'으로 불리게 되었다. 1581년 66세의 나이로 97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다. 이 왕의 집권기에 톤구 왕조는 페구로 수도를 천도하였다.
- 606) 記室은 비서의 의미임.
- 607) 岳鳳: 본래는 江西人인데, 行商을 하다가 隴川에 이르러 隴川宣撫 多士寧과 왕래하며 매우 친해졌다. 그런데 萬曆 원년(1573)에 그는 多士寧과 그의 妻子를 유인하여 죽이고, 金牌印符를 탈취하여 緬甸宣撫司에 바치고 거짓 명령을 받아 多士寧을 대신하여 宣撫가 되었다. 후에 緬甸의 군대와 힘을 합쳐 여러 차례 雲南 西南部의 여러 司를 침범했다. 萬曆 10년(1582) 겨울에 그는 緬甸의 군대와 地方 여러 土司를 끌어드리고, 象戍 수십만을 나누어 이끌고 雷弄·奎達·干崖·南甸·木邦 등지를 공격하여 살육과 약탈을 하였고, 계속해서 騰越·永昌·大理·蒙化·景東·鎮沅·元江 등지로 밀고 들어갔다. 萬曆 11년(1583) 정월에는, 施甸을 약탈하고 順寧·奎達를 격파하여 함락하였으며, 그의 아들 翼烏에게 6만의 무리를 이끌고 孟淋寨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 당시 峯의 指揮 吳福勳, 千戶 福維垣이 이를 저지하다가 모두 戰死했다. 이후로도 이들 叛軍을 저지하기 위해 明朝는 대군을 진중시켜 여러 차례 그의 세력과 전투를 벌였으며, 萬曆 12년(1584)에 이르러 사망으로 포위당한 그는 城을 나와 投降했다.
- 608) 江西: 長江 중류 이남에 위치한 중국 22개 성 가운데 하나. 보통 嶺南이라 부른다. 唐 廣德 2년(764)에 江西南道를 설치했다가 宋代에 江南西路를 설치하였다. 元代에 江西等處行中書省을 두었고, 太祖 壬寅年(1362)에 원대의 제도에 따랐으나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으며, 府 13·州 1·縣 77곳을 관할하였다.
- 609) 撫州: 강서성 鄱陽湖 남쪽에 있는 도시로, 水陸 교통의 요지이다.
- 610) 三宣六慰: 명대에 운남에 설치된 3개의 宣撫司와 6개의 宣慰使를 가리킨다. 三宣은 南甸宣撫司·干崖宣撫司·隴川宣撫司를 가리킨다. 六慰는 車里軍民宣慰使司·緬甸軍民宣慰使司·木邦軍民宣慰使司·八百大甸軍民宣慰使司·孟養軍民宣慰使司·老撾軍民宣慰使司를 가리킨다. 三宣六慰의 범위는 현재의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지를 포괄하였다.
- 611) 擺古: 현재 미얀마 남부의 페구(Pegu) 지역이다.
- 612) 짐새라는 毒鳥의 것을 담근 毒酒을 가리킨다. 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莊公 32년에 "使鍼季配之(注) 配, 烏名, 其羽有毒, 以盡酒配之則死"라는 내용이 있다.

망응리(莽應裏)⁶¹³⁾가 계승하였고, 악봉 부자는 그에게 복종하였다. 관군을 패배시키려고 다 사냥의 모친 호씨(胡氏)와 친족 600여 명을 망응리에게 바치고 모두 죽였는데, [이것으로] 다씨의 종족은 거의 없어졌다.⁶¹⁴⁾

初，鳳之附於緬也，爲瑞體招諸部，拒中國，傷官軍，逆勢虜成，緬深恃之。久之，以緬不足恃。而鄧川土知州何鈺，鳳友婿也，初使人招鳳，鳳執使獻緬。及是，鈺復開示百方，與之盟誓。時官軍亦大集，諸將劉緹、鄧子龍各率勁師至，環壁四面，風懼，乃令妻子及部曲來降。緹責命獻金牌、符印及蠻菓、猛密地，乃以送鳳妻子還隴川爲名，分兵趨沙木籠山，先據其險，而自領大兵馳入隴川，鳳度無可脫，遂詣軍門降。緹從率兵進緬，緬將先遁，留少兵隴川，緹攻之，鳳子叢馬亦降，緹乃攜鳳父子往攻蠻菓，蠻菓賊知風降，馳報鳳裏，發兵圍隴川，緹乘機掩殺，賊窘，乞降，縛緬人及象馬來獻。遂招撫孟養賊，賊將象象走，追獲之，復移師圍孟豎，生擒其魁，隴川平。獻俘於朝，帝爲告謝郊廟，時萬曆十二年九月也。除年復討隴川宣撫司及孟定府印，陞孟密安撫爲宣撫司，添設安撫司二，曰蠻菓，曰耿馬；長官司二，曰孟豎，曰孟養；千戶所二，一居姚關，一居孟孟岩，皆名之曰鎮安；并鑄印記，建大將行署於蠻菓。從雲南巡撫劉世曾之議也。於是，多士寧之子順襲隴川宣撫使。

당초에 악봉이 면전에 귀부한 것은 망시체를 위해 여러 부를 초무하여 중국(中國)을 막고

- 613) 莽應裏(1535~1599): 미얀마 몽구 왕조의 군주인 Nanda Bayin을 가리키는데, 莽應龍(Bayinnaung)의 장남이다. 그의 재위기간은 1581년에서 1599년까지로,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명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미얀마의 동쪽에 있던 아우티아 왕조와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였다. 그는 즉위한 후 岳龍 등 명조의 통치에 반대하던 운남의 소리들과 연합하여 출병하였다. 그러다가 1583년에 명의 劉繼과 鄧子龍 등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였다. 명조의 지배 하에서 아바(Ava)에 있던 莽應裏의 숙부 猛勾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3년 만에 진압되었다. 1584년 아우티아 왕조의 나레수엔(Naresuen)을 제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병했지만 번번이 패했고, 미얀마의 영토를 빼앗기도 하였다. 그의 통치기간에는 부친인 莽應龍(Bayinnaung) 시대에 주변 작은 나라들을 병합하여 이룩한 제국이 해체되었다. 1599년에 그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에게 잡힌 후 살해되었다.
- 614) 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卷123 萬曆 10년 4월 戊申條; 『神宗實錄』卷144 萬曆 11년 12월 己丑條; 『神宗實錄』卷149 萬曆 12년 5월 丁亥條; 『神宗實錄』卷153 萬曆 12년 9월 乙亥條 참조.

관군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었는데, 반역의 기세가 점차 이루어지자 면전은 그에게 상당히 의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면전에서는 [그를] 의지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겼다. 등천(鄧川)⁶¹⁵⁾의 토주주 하옥(何錕)은 악봉의 동서로, 일찍이 사람을 보내 악봉을 초무하였는데 악봉이 그 사자를 잡아서는 면전에 바쳤다. 이때에 이르러, 하옥은 다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와 맹서하였다. 그때에 관군도 대거 모였는데 유정(劉經)⁶¹⁶⁾· 등자룡(鄧子龍)⁶¹⁷⁾ 등 여러 장수들이 각기 강한 군대를 이끌고 도착하여 사방에서 포위하였다. 이에 악봉은 두려워하여 처자와 부곡(部曲)⁶¹⁸⁾에게 투항하도록 하였다. 유정은 꾸짖으며 금배·부인(符

615) 鄧川: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洱源縣 지역이다. 唐 貞元 10년(794)에 南詔가 吐蕃을 공략하고 浪穹·施浪·鄧賧 3詔를 병합하여 浪州로라 칭했는데, 유나라 憲宗 7년(1257)에 이곳에 鄧川千戶所를 설치했다. 이후 至元 11년(1274)에 鄧川千戶所를 鄧州州로 바꾸었고, 民國 원년(1912)에 鄧州州를 鄧川縣으로 바꾸었다.

616) 劉經(?~1619): 江西省 南昌 사람으로, 본명은 熊經이고, 자는 子毅, 號는 省吾이다. 嘉靖 연간(1522~1566)의 유명한 장군인 熊顯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인 熊顯이 어려서 四川을 전진할 때 緬甸이라는 인물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를 부친과 같이 여겨 성을 劉로 바꾸었다. 萬曆 10년(1582)에 緬甸이 운남 일대를 공격하자, 萬曆 11년(1583)에 遊擊將軍인 그는 수비를 담당하였고 후에 副總兵이 되었다. 萬曆 20년(1592)에 일본이 조신을 침략하자 이때 명은 조신에 군대를 파병하였는데, 劉經은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였다. 그러나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강등되었다.

617) 鄧子龍(1527~1598): 明代 抗倭名將으로, 자는 武橋이고, 號는 大千, 別號는 虎冠道人이며, 江西 豐城 杜市鎮 鄧家村人이다. 嘉靖 37년(1558)에 武舉가 되어 福建·廣東 沿海에 부임하여 抗倭활동을 했으며, 小校에서 승진하여 把總이 되었다. 일찍이 江西·廣東 등지의 農民起義 진압에도 참여했고, 萬曆 2년(1574)에 銅旗石守備로 옮겼으며, 곧 都指揮使로서 서리가 되어 浙東 都司를 맡았다. 후에 參將으로 승진하여, 군대를 이끌고 麻陽(지금의 湖南 麻陽 西南)의 苗民 金道侶起義와 五開衛(지금의 貴州 黎平)의 兵變을 평정했다. 萬曆 11년(1583)에 雲南 永昌衛 參將에 부임하여 군대를 이끌고 攀花寨에서 격전을 치렀고, 緬甸軍을 이끌고 들어온 木邦部의 守度를 참하였으며, 副總兵으로 승진하였다. 한때 騰冲兵을 학대하여 兵亂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직되기도 했으나 萬曆 18년(1590)에 遊擊 楊威와 함께 十寨起義를 평정하여 다시 副總兵에 복귀되었다. 萬曆 26년(1598)에 일본이 조신을 침략하자 그는 조신을 원조하라는 명을 받아 朝鮮의 統制使 李舜臣과 서봉에서 釜山 南海에서 日軍과 激戰을 치렀는데, 虜衆에서 海戰 중不幸하게 전사했다. 朝鮮은 그를 기려 廟를 세워 世代로 祭祀를 지냈다.

618) 部曲: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군대의 편제와 사회계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漢代에는 군대 편제의 명칭이었다. 大將軍을 아래 다섯 개의 부가 있었고, 그 부 아래에 曲이 있었다. 따라서 部와 曲을 연결해서 지휘관이 통솔하는 군대를 지칭하였다. 그 후 部曲의 지휘가 허락하기 시작하였는데,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家兵이나 私兵을 지칭하였고, 隋唐 시기에는 노비와 良人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회계층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뜻 외에 部下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印)⁶¹⁹과 만막(蠻莫)⁶²⁰·맹밀(猛密)⁶²¹의 땅을 바치도록 하였다. 이에 악봉의 처자를 농천으로 돌려보낸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나눠서 사목룡산(沙木籠山)⁶²²을 내달았는데, 우선 협하고 중요한 곳을 점거하고서 직접 대군을 이끌고 빠른 속도로 농천으로 들어갔다. 악봉은 도망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군문에 이르러 항복하였다. 유정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먼전으로 진격하자, 먼전의 장수들이 먼저 도망갔고 소수의 병사만 농천에 남았는데, 유정이 그들을 공격하니, 악봉의 아들 낭오도 투항하였다. 유정은 바로 악봉 부자를 끌고 가서 만막을 공격하였는데, 만막의 적들이 악봉이 항복한 것을 알고서 신속하게 망응리에게 보고하여 군대를 내어 농천을 도모하게 하였다. 유정이 기회를 틈타 돌격하니 적들은 궁지에 몰려 항복을 청했으며, 먼전 사람과 코끼리와 말을 포박하여 바쳤다. 마침내 맹양의 적을 초무하였는데, 직장은 코끼리를 타고 도주하려고 해서 추격하여 사로잡았다. 다시 군대를 옮겨 맹연(孟連)을 포위하고 그 우두머리를 생포하였는데, [이로써] 농천이 평정되었다. 포로들을 조정에 바쳤고, 황제는 교묘(郊謫)⁶²³에서 감사를 고하였는데, 그때가 만력 12년(1584) 9월이었다.⁶²⁴ 1년을 지나 다시 농천선무사와 맹정부(孟定府)의 인신을 주조하였고, 맹밀 안무를 전무사로 승격시켰다. 안무사 들을 더 설치하였는데, 만막과耿馬(耿馬)⁶²⁵라 하고, 장관사 들은 맹연, 맹양이라 하며, 천호소 들은 하나는 요관(姚關)에 두었고, 다른 하나는 맹림새(孟淋峯)에 두었는데 모두 이름을 진안(鎮安)⁶²⁶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인기(印記)를 주조하고, 대장(大將)의 행정관서를 만막에 건설하였는데, [이것은] 운남 순무 유세증(劉世曾)⁶²⁷의 건의에 따른 것이

- 619) 符印: 符節·印信 등 중 맹문서를 總稱하며, 符信이라고도 하는데, 木片이나 竹片에 글을 쓰고 畫印을 찍은 후에 두 쪽으로 나누어 각기 보관하였다가 후일에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았다.
- 620) 蠻莫: 옛 토사의 명칭으로 蠻藤·蠻泰·蠻蘇라고 표기한다. 明 萬曆 13년(1585)에 分孟密 北部 지역을 나눠서 安撫司를 설치하였다. 관할 지역은 대부분 지금의 미얀마 바모(Bhamo) 附近이었다. 萬曆 32년(1604)에 미얀마로 편입되었다.
- 621) 猛密: 明初에는 木邦寨廳司의 部落이었고, 成化 연간(1464~1487)에는 猛密安撫司를 두었다. 嘉靖 연간(1521~1566)에는 미얀마에 귀부하였다가 후에 다시 명으로 돌아왔다. 萬曆 연간(1573~1620)에 宜撫司를 설치하여 土官 思氏가 宜撫使를 계승하였다. 지금의 緬甸 邦那 서북쪽에 위치한 蒙麥特 지역임.
- 622) 현재의 龍川縣 杉木籠山을 가리킨다.
- 623) 郊謫: 郊祀를 지내는 祠堂을 말한다. 여기서 郊祀는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다.
- 624) 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153 萬曆 12년 9월 乙亥條 참조.
- 625) 耿馬: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 耿馬傣族佤族自治縣이다. '耿馬'의 '耿'은 係語로 '地方' 혹은 '地域'이라는 뜻이고, '馬'는 漢語로 '말'이 있는 '地方'이라는 의미인데, 明代에 耿馬安撫司를 설치했다.
- 626) 鎮安: 元代的 鎮安路로 洪武 2년(1369)에 府로 되었다. 현재의 廣西 德保縣이다.

다.⁶²⁸ 이에 다사녕의 아들 다사순(多思順)이 농천 선무사를 계승하였다.

二十九年，莽震莫分道入犯，一入邊放·芒市，一入臘撒蠻巒，一入杉木籠，並出龍川。多思順不敵，奔猛卯。緬初以猛卯同知多僥爲嚮導，寇東路。至是大軍遣木邦罕欽擒多僥殺之。未幾，思順死，蠻莫思正喪喪隴龍川，據其妻罕氏。三十五年，思順子安民以守將索賂，叛入緬，已而緬聽撫，遣安民歸。安民久據蠻巒，桀驁甚，署永騰參將周會達二指揮撫之，敗績。王師互討，其族人挾其弟多安靖誅之以獻。時安靖尚幼，勢孤，詔俟其長給之印。安民弟安邦治亦附緬，後寄居蠻巒。其地有馬安·摩黎·羅木等山，極險峻，麓川之所恃爲巢穴者也。

[만력] 29년(1601)에 망응리가 길을 나눠서 침입하였는데, 하나의 길은 차방(遮放)⁶²⁹·망시(芒市)⁶³⁰로 들어갔고, 다른 한 길은 남살만상(臘撒蠻巒)로 들어갔으며, 또 다른 길은 삼목룡(杉木籠)으로 들어갔는데, 함께 농천으로 출군(出軍)하였다. 다사순은 대적할 수가 없어서 맹묘(猛卯)⁶³¹로 도망갔다. 먼전에서는 일찍이 맹묘 동지 다연(多僥)을 향도(嚮導)로

627) 劉世曾: 生卒年 未詳. 四川省 巴縣 사람으로, 嘉靖 42년(1562)에 進士에 급제하였다. 太僕寺 少卿을 거쳐 右倉都御史로 승진하여 雲南 巡撫가 되었다. 萬曆 10년(1582)에, 岳鳳이 緬甸의 莽應莫로 하여금 雲南을 침범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그는 劉挺과 鄧子龍을 기용하여 敵을 격파하였다. 후에 戰功을 不實하게 보고함으로써 인해 神宗에게 前罪되었다.

628) 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157 萬曆 13년 정월 己卯條 참조.

629) 遮放: 현재 雲南 麗江市 南部와 麗麗·龍川縣의 경정 지역이다. 龍川江 支流인 三十六道河의 남쪽으로 옛날에는 龍陵縣에 속했고, 龍川宜撫司의 땅이었다. 傣族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明代에 副宣撫司를 두었고, 清朝에서도 이를 계승하였다.

630) 芒市: 옛날에 怒祿라 불렀고 또는 大枯談·小枯談이라 불렀으며 永昌 서남쪽 400리에 있다. 元나라 中統 연간(1260~1264)에 內附하여, 茫施路軍民總管府를 세웠다. 明代에 들어와 芒施府를 두었고, 후에 芒市長官司로 변경하였다. 현재 雲南 麗江市 市政府 소재지이다. 『明史』 卷315 '雲南土司' 3 참조.

631) 猛卯: 현재 雲南의 南畝河와 瑞麗江이 합류하는 지역인 南畝河 삼각주 지역이다. 傣族과 景頗族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明 洪武 17년(1384)에 麓川平緬軍民宣慰司를 설치하여, 元代的 平福路和 麓川路 지역을 관리하게 하였다. 思倫發이 麓川平緬宣慰使를 계승한 후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팽창하여 명 조정에서는 이들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였고, 兵部尙書 王瓚에게 세 차례에 걸쳐 麓川을 정벌하게 하였다. 正統 11년(1446)에, 명 조정은 麓川平緬宣慰司를 없애고 龍川宜撫司를 두었다. 萬曆 초년에 猛卯는 龍川에서 분리하여 따로 토리를 세웠는데, 이때부터 이 지역은 猛卯土司가 관할하였다.

삼아서 동료를 침범했다. 이때에 이르러 대군이 목방 한훤(罕欽)을 보내 다엄을 사로잡아 죽였다. 오래지 않아 다사순이 죽자 만막의 사정(思正)은 장례를 틈타 농천을 습격하여 그의 처 한씨(罕氏)를 취하였다. [만력] 35년(1607)에 다사순의 아들 다안민(多安民)은, 수장(守將)이 뇌물을 요구함으로써 인해 반기를 들고 면천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에 면천이 안무를 받아들이고, 다안민을 돌려보냈다. 다안민이 오랫동안 만만(蠻灣)을 점거하였는데, [그는 성품이] 상당히 포악하고 오만하여서 영등(永騰) 참장을 대리하는 주회(周會)가 지휘 두 명을 파견하여 그를 습격하였으나 [다안민이] 패하였다. 관군이 신속하게 토벌하자, 그의 죽음이 그의 동생 다안정(多安靖)을 잡고 [다안민을] 주살하여 버렸다. 당시에 다안정은 상당히 어려서 세력이 거의 없었는데, 조사를 내려 그가 장성하기를 기다려서 인신을 주겠다고 했다. 다안민의 동생 다안방치(多安邦治)도 면천에 귀부하였는데 후에 만막에 기거하였다. 그 땅에는 마안(馬安)·마려(摩黎)·나목(羅木) 등의 산이 있는데, 상당히 험준하여 녹천이 의지하는 소굴이 되었다.⁶³²⁾



동북아의 역사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32) 이와 관련된 내용은 『神宗實錄』 卷482 萬曆 39년 4월 壬申條 참조: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麓川과의 전쟁은 명 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세 차례 전쟁을 수행하면서 투입된 인원을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는 병사 15만 명을 파병하였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5만 명을, 세 번째 전쟁에서는 13만 명의 병사를 보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이 70~80%에 달하였다(高金珪, 2009 참조).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註』, 서울: 신서원, 2004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1~1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3
 박원호 등 역, 『명사식화지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08
 顧祖禹 撰, 『讀史方輿紀要』, 北京: 中華書局, 2005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臺灣: 商務印書館, 1956
 江澤源, 嘉慶 『臨安府志』(中國地方志集成), 南京: 鳳凰出版社, 2009
 羅日撰, 『咸賓錄』, 北京: 中華書局, 2000
 劉文徵 纂修, 天啓 『瀛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臨滄榆案信息網, 『臨滄大事記(一) 高朝~清朝』, 2004년 11월 15일 發布
 申時行 等 修, 『明會典』(萬曆朝重修本), 北京: 中華書局, 1989
 嚴從簡, 『殊域周咨錄』, 北京: 中華書局, 1993
 王崧, 道光 『雲南志鈔』, 昆明: 雲南社會科學院文獻研究所出版社, 1995
 李國祥 主編, 『明實錄類纂』, 武漢: 武漢出版社, 1993
 李賢 等撰, 『明一統志』(文淵閣四庫全書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周國林 分史 主編, 『二十四史全譯: 明史』,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陳誠·李進, 周運寬 校注, 『西域行程記·西域番國志』, 北京: 中華書局, 1991
 黃本驥, 『歷代職官表』, 臺北: 樂天出版社, 1974
 『明實錄』, 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校引本, 1965~1966
 『土官底簿』(影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김선자, 『중국변형신화의 세계』, 서울: 범우사, 2001
 김성원, 『미얀마 왕조사』,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데라다 다카노부·서인범, 송정수 역, 『대명제국』, 서울: 혜안, 2006
 윗하 지·박원호 역, 『주원장전』, 서울: 지식산업사, 2003
 유인선,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2002
 최병욱, 『동남아시아사』, 서울: 대학 교과서 주식회사, 2006

江應樑,『明代雲南境內的土官與土司』,昆明:雲南人民出版社,1958

江應樑,『傣族史』,成都:四川民族出版社,1984

龔餘,『明史雲南土司傳箋注』,昆明:雲南民族出版社,1988

龔餘,『中國土司制度』,昆明:雲南民族出版社,1992

藍武,『元明時期廣西土司制度研究』暨南大學博士論文,2005

林惠祥,『中國民族史』上·下冊,臺北:商務印書館,1998

馬大政 主編,『中國邊疆經略史』,鄭州:中州古籍出版社,2000

馬西沙·韓秉方,『中國民間宗教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2

孟森,『明代史』,臺北:中華叢書委員會,1957

費孝通,『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北京:中央民族學院出版社,1989

楊紹猷·莫俊卿,『明代民族史』,新華書店,1996

余貽澤,『明代土司制度』,臺北:臺灣學生書局,1968

倪蛻,『滇雲曆年傳』,昆明:雲南大學出版社,1992

尤中,『中國西南邊疆變遷史』,昆明:雲南教育出版社,1987

佚名,『明末滇南紀略』,杭州:浙江古籍出版社,1986

張德信,『明朝典章制度』,長春:吉林文史出版社,1999

程大位,『算法統宗』,上海:江東書局印行,1912

陳名杰,『明代西南土司制度研究』,中央民族大學 博士論文,2002

陳慶江,『明代雲南政區治所研究』,北京:民族出版社,2002

鄒逸麟,『中國歷史地理概述』,廈門:福建人民出版社,1999

秦亦赤兀揚·滿昌 主編,『蒙古族通史』(第肆冊),瀋陽:遼寧民族出版社,2004

佐藤長,『チベット 歴史地理研究』,東京:岩波書店,1978

Matthew T. Kapstein, *The Tibetans*, Blackwell, 2006

H. J. Wiens, *Han Chinese Expansion in South China*, New Haven, 1954

S. Harrell, ed., *Cultural Encounters on China's Ethnic Frontiers*, Seattle & London, 1995

Nicola Di Cosmo and Don J. Wyatt ed., *Political Frontiers, Ethnic Boundaries, and Human Geographies in Chinese History*, London & New York, 2003

J. C. Scott,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 Yale University Press, 2010

김수연, 『『明史』 『西域傳』 분석을 통해 본 明代의 西域』,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김홍길, 『명대의 彝族정권과 토사』, 『중국과 한국』, 석해문집, 2005

박사명, 『중국의 영향과 동남아의 대응: 상호적 접근시각』, 『동남아시아연구』 21-2, 2011

賈霄鋒, 『近百年來中國土司制度的史料整理研究』, 『貴州文史叢刊』, 2004-1

賈霄鋒, 『二十多年來土司制度研究綜述』,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4

賈霄鋒·王力, 『近百年來中國土司制度的史料整理及研究綜述』, 『青海民族研究』, 2003-3

岡野昌子, 『明代土司制度考』, 『待蒙山論叢』 1, 1967

高金和, 『明朝三征麓川和麓川的興衰』, 『都市家教』, 2009-1

龔餘, 『20世紀中國土司制度研究的理論與方法』, 『思想戰線』, 2002-5

龔餘, 『關於明清雲南土司制度的幾個問題』,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1986-3

龔餘, 『略論土司制度的作用與流弊』,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1989-2

納春英, 『明中央與西南土司關係: 以賜服制爲中心的考察』, 『廣西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0, 2008

雷翔, 『明初整齊土司官制過程小考』, 『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1

成瑛銘, 『明清時期湖廣土司自署職官初探』,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23-4, 2002

李輝, 『貴州彝族土司沿革考』, 『貴州文史叢刊』, 1996-4

李麗雙·張陳呈, 『讀『明史』 『雲南土司傳』 札記』, 『思想戰線』 34, 2008

李世愉, 『明朝土司制度述略』, 『中國邊疆史地研究』, 1994-1

李正亭, 『“析麓川地”與明代西南邊疆變遷關係析評』, 『思想戰線』 34, 2008

李正亭·孔令球, 『試論明清兩代朝廷控制雲南土司手段的二重性』, 『學術探索』, 2003

楊炳堃, 『土司制度在雲南的最后消亡』, 『貴州民族研究』, 1994-2

楊花, 『明代渝東南地區土司制度研究』, 重慶師範大學碩士論文, 2011

冉敬林, 『明代西陽土司制度特點』, 『貴州文史叢刊』, 1995-4

吳永章, 『中國土司制度淵源與發展述略』, 四川民族出版社, 1988

于玲, 『土司制度新論』, 『中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4

韋東超, 『明代廣西土司制度散論』, 『中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5-2

衛心, 『土司制度』, 『青海民族研究』, 1993-3

劉樑學, 『試論明英宗時期的三征麓川之役』, 『廣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3-4, 1997

劉藝兵, 『論雲南土司制度與古代地方制度』, 『思想戰線』, 1994-6

劉燕, 『明朝土司制度述論』, 蘭州大學碩士論文, 2008

陸朝, 『泛朝政化與史料運用偏差對邊疆史地研究的影響』, 『中國邊疆史地研究』 20-1, 2010

程利英, 『明代關西七衛與西番諸衛』, 『西藏研究』, 2005-3

蔡豪, 『夾縫中的抉擇: 十六世紀後期明編之間的滇西土司』, 南京大學碩士學位請求論文, 2011

鄒映, 『明代雲貴地區改流復土現象研究』,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請求論文, 2009

沈乾芳, 『明清時期彝族土司(那)氏聯姻關係研究』, 『曲靖師範學院學報』 28, 2009

馮海曉, 『明代西南·西北邊疆地區土司制度比較研究』, 雲南大學碩士學位請求論文, 2011

畢奧南, 『洪武年間明朝與麓川王國關係考察』, 『中國邊疆史地研究』 15-2, 2005

許立坤, 『明代土司制度述略-明王朝民族政策研究之一』, 『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 1998-3

許立坤, 『淺述明代羈縻衛所制-明王朝民族政策研究之二』, 『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 1998-4

胡蘭芝, 『從元明清印信論貴州土司制度』, 『貴州文史叢刊』, 1994-5

華林, 『明清清西南土司承襲制度和文書』, 『貴州文史叢刊』, 1994-4

岡田宏二, 『明代華南地域における土司の設置について』, 『東洋研究』 170, 2008

栗原 悟, 『明代彝族系土司にみられる種族連合の紐帯-彝族(ロロ・ノス系)の民族史的研究の一考察』, 『東南アジア. 歴史と文化』 11, 1982

山田勲之, 『明代の麗江ナシ族・木氏土司-「忠臣」と「自主」の間』, 『中國研究月報』 61, 2007

山田勲之, 『明代の雲南麗江ナシ族・木氏土司とチベット世界との關係-カルマ派との關係を中心に』, 『日本西蔵學會々報』 54, 2008

山田勲之, 『明代雲南麗江ナシ族・木氏土司による周邊地域への勢力擴張とその意義: 中華世界とチベット世界の狭間で』, 『史學雜誌』 118, 2009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臧勵蘇 等編, 『中國古今地名大辭典』, 臺北: 商務印書館,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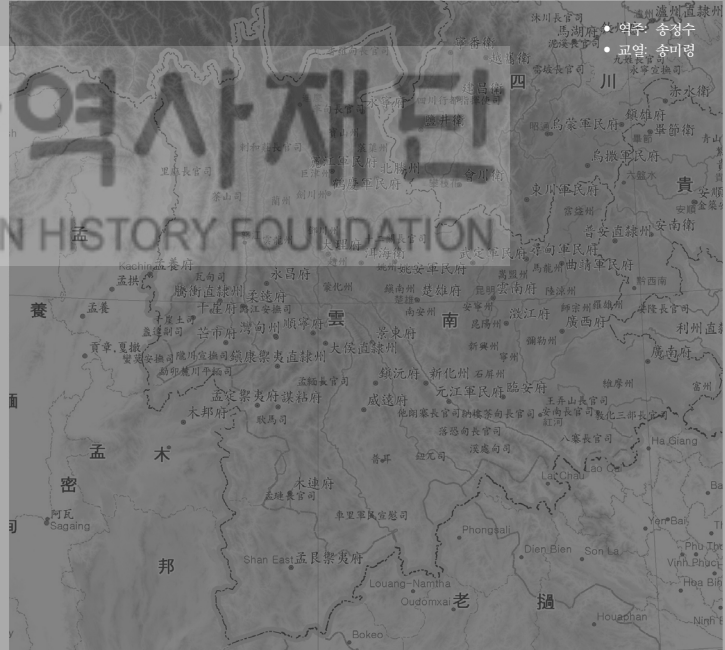
戴逸 主編, 『二十六史大辭典』, 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93

京大東洋史辭典編纂會, 『新編東洋史辭典』, 東京: 創元社, 1980

下中邦彦 編, 『アジア歴史事典』, 東京: 平凡社, 1962

면전 이선위사·간에 선무·노강·
 남진 이선무사·망시·자락진·차산·맹연
 즉맹진·리마·뉴을·동당·와진·촉야·
 산금·목방 맹일인무사부·맹양·차리·
 노과·팔백 이선위사진
 (緬甸 二宣慰司·干崖 宣撫·潞江·
 南甸 二宣撫司·芒市·者樂甸·茶山·孟鍾
 即猛臉·里麻·鈕兀·東倫·瓦甸·促瓦·
 散金·木邦 孟密安撫司附·孟養·車里·
 老撾·八百 二宣慰司傳)

명사(明史) 권315 운남토사(雲南土司) 3





동북아의 역사

NORTHEAST ASIAN HISTORY

明史 外國傳 譯註

「면전 이선위사·간애 선부·노강·남전 이선부사·망시·자락전·차산·맹런 즉맹길·리마·뉴을·동당·와전·촉와·산금·목방 맹밀안부사부·맹양·차리·노과·팔백 이선위사전(緬甸 二宜慰司·干崖 宜撫·潞江·南甸 二宜撫司·芒市·者樂甸·茶山·孟璉 卽猛驗·里麻·鈕兀·東倘·瓦甸·促瓦·散金·木邦 孟密安撫司附·孟養·車里·老撾·八百 二宜慰司傳)」 해제

명 태조는 홍무(洪武) 14년(1381)에 정남장군(征南將軍) 영천후(穎川侯) 부우덕(傅友德)으로 하여금 원(元)의 양왕(梁王)이 다스리고 있던 전(滇) 지역을 정벌토록 하고, 이듬해(1382) 이곳에 운남부(雲南府)를 설치했다. 이로부터 여러 군(郡)이 차례로 귀복해 왔으며 명조는 차례로 이들 지역에 부(府), 주(州), 사(司), 위(衛) 등 여러 행정구획을 정하였다. 그러나 전성(滇省)의 대부분 지역에는 소수민족이 잡거(雜居)하고 있기 때문에, 명조는 이들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원대(元代)의 토사제도(土司制度)를 이어받아 예전대로 토직(土職)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자치토록 하였고, 혹 유관을 두어 다스리는 곳이라 해도 반드시 토사에게 이(유관)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명대 전성(滇省) 지역의 토사제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명사』의 「운남토사전」은 운남 지역 토사에 관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거니와 편의상 부(府)와 주(州) 등 전체 49개의 행정구획과 연계하여 그 관할하는 곳을 묶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운남 지역은 중국 전 지역에서 소수민족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거니와 그 수효가 대단히 많아 운남토사전 1·2·3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본 『명사』 권315 「토사전」은 이들 가운데 세 번째 전이다. 운남토사전1에는 전지(滇池)와 이해(洱海)를 중심으로 한 운남성 중심 지역으로 중원 내지의 영향을 비교적 일찍부터 받아 한화의 정도가 빨랐던 운남부, 대리부(大理府) 등 15개 부(府)에 속한 토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운남토사전 2에는 운남성 중심 지역과 밀접한 관련 속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요안(姚安)·학경(鶴慶)을 비롯한 15개 부(府)와 주(州)에 속한 토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운남토사전 3은 면전(緬甸)·간애(干崖)·노강(潞江)·남전(南甸)·망시(芒市)·자락전(者樂甸)·차산(茶山)·맹

련(孟珣)·리마(里麻)·뉴을(鉅兀)·동당(東倘)·와전(瓦甸)·축와(促瓦)·산금(散金)·목방(木邦)·맹양(孟養)·차리(車里)·노과(老隔)·팔백(八百) 등 19개 행정구역에 속한 토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대체로 운남성 서쪽과 남쪽 변경 지역에 위치한 토사들이다. 특히, 이들 중 면전과 목방, 맹양은 지금의 미얀마 경역이고, 팔백은 지금의 태국의 경역이며, 노과는 지금의 라오스의 경역으로 중국 경역 밖에 설치된 토사들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기후 조건도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명조 권력이 잘 미치지 않은 곳여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이 늦은 곳이다.

다음으로 본전에 기술된 내용의 특징적인 점을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중국 내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해서 본전에 수록된 토사는 다른 지역의 토사에 비해 그 설치 시기가 비교적 늦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운남토사전 1과 2에 수록된 토사의 설치는 대체로 운남 지역을 평정한 직후인 홍무 15년(1382) 무렵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본전에 수록된 지역은 늦게 명조에 귀부하거나 차리를 제외한 면전, 목방, 맹양, 노과, 팔백 등 선위사사(宣慰使司)는 모두 영락(永樂) 연간(1403~1424)에 이르러서 그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본전에 수록된 지역에는 토관과 유관(流官)을 공동으로 임명했던 여타의 운남 지역과는 달리 모두 무관직(武官職)의 토관만을 임명했다는 점이다. 즉, 면전, 목방, 맹양, 차리, 노과, 팔백 등에는 선위사(宣慰使)를 임명하고, 간애와 남전 등에는 선무사(宣撫使)를, 노강, 망시, 맹련 등에는 안무사(安撫使)를, 차산과 마리 등에는 장관(長官)을 임명하여 통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들 지역이 변방에 위치하여 중앙의 세력이 그다지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자연 소수민족의 독자성이 강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로, 각 소수민족의 역사적 연원과 복속(服屬), 세습이나 지위의 승강(昇降), 진공(進貢) 등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특히 본전에는 군사적 정벌에 관한 내용이 유독 많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면전과 목방, 목방과 맹릴, 면전과 맹양, 농천과 목방 등 소수민족 성호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침략과 정벌도 많았지만 소수민족의 독자성이 강한 이 지역 특성과 관련하여 명조에 불만을 품은 토관이 인접한 여러 민족들을 규합해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 명조에 대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홍무 연간(1368~1398)에 녹천평면(麓川平緬) 선위사인 사유발(思倫發)이 여러 소수민족을 이끌고 반기를 들었던 것이지만 이후 정통(正統) 연간(1436~1449)에도 그의 아들 사임발(思任發)이 다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켜 면전, 남전, 노강, 맹련 등지를 점령했던 것으로, 이에 대한 명조의

토벌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명 초에 명조에 귀부하여 사임발을 붙잡는데 공을 세웠던 면전이 가정(嘉靖) 연간(1507~1566)에 이르러 망서체(莽瑞體, Tabinshehti)가 퉁구(Toungou) 왕조를 개창한 이후 주변 여러 소수민족을 점령 규합하여 내지로 세력을 확대시켰거니와, 이에 대해 명조 역시도 그 세력 하에 있던 토사들을 규합해 이들을 폐퇴시켰다. 그런가 하면 명 중기에 안남(安南)이 인접해 있는 노과를 침략하고 더욱 서쪽으로 진격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 노과 서북쪽에 있던 팔백, 차리, 맹간 등이 안남의 공격을 막고자 정도했던 내용이 각 전에 기술되어 있다.

이밖에도 본전의 기술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도 보이는데, 영락 4년(1406)에 차리의 선위사 도섭담(刀濕答)이 그의 아들 도전(刀典)을 명의 국자감(國子監)에 입학시킨 내용이 보인다. 이는 다른 토사에 비해 차리의 학문적 관심이 높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지만 영락제가 이후 조정에 인질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의복과 폐백(幣帛)을 주어 도전을 돌려보내고 있는데, 이는 명 왕조와 토사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외국진 가운데 특히 「유구(琉球)진」을 보면, 홍무 연간(1368~1398)에서 만력(萬曆) 연간(1573~1619)까지 12차례에 걸쳐 수많은 왕족 및 귀족의 자제를 명의 국자감에 유학시킨 사례가 보이는데, 이 역시도 학문적 관심보다는 명과의 관계에서 인질의 성격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팔백진」에 보면, 「당초에 사역관(四譯館)의 통사(通事)는 오로지 외국만을 통역했으나 면전과 팔백은 외국과 같이 통사를 두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는 중국이 여러 토사 가운데서 특히 이들 두 선위사(宣慰司)를 중시 여겼음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일까라는 관심을 새삼 불러일으킨다. 이 외에 「전(滇) 지역의 재화(災禍)는 모두 개세(開採)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개세사(開採使)로 임명된 환관들의 횡포와 실상 역시 토사들의 반란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차발은(差發銀)을 면제해 주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가 하면 차발은을 많이 부과함으로써 변란이 일어난 경우도 보이는데, 토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전은 운남 서남 변경 지역에 위치한 토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운남 내지의 소수민족과는 또 다른 차별적인 내용을 제공해 줌으로써 운남 지역의 소수민족의 실상과 아울러 이들에 대해 명조가 어떻게 지배를 관철했는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본전 내용 역시 주로 중화주의(中華主義)적 입장에서

소수민족의 자율성을 배제한 채 명조와의 관계만을 일방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다. 또한 「명실록(明實錄)」을 비롯해 각 지역의 지방지에 수록된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쓰였지만, 생략된 부분이 많거나 심지어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인명이나 지명, 연대 등 잘못된 부분도 매우 많다. 예컨대 면전의 선위사 망서체를 망응룡(莽應龍, Bayinnaung)과 혼동해서 기재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망응룡의 장남인 망응리(莽應裏, Nanda Bayin)를 망서체의 아들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전의 내용을 자료로 이용할 경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실록이나 지방지 및 여타 관련 자료와 견주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明史 外國傳 譯註

「면전 이선위사·간에 선부·노강·남진 이선부사·망시·자락전·차산·맹편 즉맹궤·리마·뉴을·동당·와전·촉와·산금·목방 맹밀안부사부·맹양·차리·노과·팔백 이선위사전(緬甸 二宜慰司·干崖 宜撫·潞江·南甸 二宜撫司·芒市·者樂甸·茶山·孟璉 卽猛臉·里麻·鈕兀·東倘·瓦甸·促瓦·散金·木邦 孟密安撫司附·孟養·車里·老撾·八百 二宜慰司傳)」역주

緬甸 二宜慰司

면전 이선위사

緬甸, 古朱波地. 宋寧宗時, 緬甸·波斯等國進白象, 緬甸通中國自此始. 地在雲南西南, 最窮遠. 有城郭廬舍, 多樓居. 元至元中, 屢討之, 乃入貢.

면전(緬甸)¹⁾은 옛날의 주파(朱波)²⁾ 지역이다. 송(宋)나라 영종(寧宗, 1168~1224; 재위 1194~1224)³⁾ 때에 면전(緬甸)·파사(波斯)⁴⁾ 등의 나라가 백상(白象)⁵⁾을 [중국에] 진헌(進

- 1) 緬甸: 현재 미얀마를 가리킨다. 미얀마는 1044년에 통일 국가를 형성한 이후, 1278년에 원 왕조가 緬中行省을 설치함으로써 200여 년에 걸친 파간(Pagan) 왕조의 통치가 종식되었다. 몽골이 후퇴한 후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퉁구(Toungoo) 왕국(1531~1752)에 의해 통일되었다.
- 2) 泰 나라에서 이 지역을 朱波라고 칭하였고, 이후 漢에서는 狽國, 唐에서는 驪國, 宋에서는 瀼非이라고 불렀다.
- 3) 寧宗: 南宋의 4대 황제인 趙擴이며, 光宗의 次子이다. 父親 光宗이 卽位한 지 2년 만에 정신장애를 얻어 統治上의 위기에 처하자 紹熙 5년(1194)에 宗室 및 樞密院事 趙汝愚와 外戚 韓侂胄 등이 그를 새로운 황제로 擁立했다.
- 4) 波斯: 페르시아(Persia)를 일컫는다.
- 5) 白象: 불교에서 흰 코끼리는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상아가 6개인 코끼리가 열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석가모니를 잉태하였으므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진다. 특히 코끼리를 많이 생산하는 태국에서는 진귀한 동물로 여겨 노동도 시키지 않고 공양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흰 코끼리는 코끼리의 종류가 아니며 백색증과 같은 질병에 걸린 경우로 흰 코끼리를 공양하는 일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國王)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하여 [면전에 황제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했다. 이에 면전은 비로소 그 나라 신하인 판남속랄(板南速剌)을 보내 [명에] 이르러 방물을 진헌하니, [홍무제는] 이들을 위로하고 상을 내렸다.¹⁵⁾ [홍무] 27년(1394)에 명중선위사사(緬中宣慰使司)¹⁶⁾를 설치하고, 그 지역의 추장 복날랑(卜剌浪)을 신위사(宣慰使)¹⁷⁾로 삼았다.¹⁸⁾ [홍무] 28년(1395)에 복날랑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백이(百夷)¹⁹⁾의 사운발(思倫發)²⁰⁾이 [그들의] 영토

였는데, 당시 여러 신하들은 試職(實習職位)을 내리기를 청하였으나 洪武帝는 實職을 제수했다. 후에 沐英이 죽자 그의 爵位를 계승하고 雲南에 鎮守했으며, 維摩十一峯 및 平越의 崩蠻·阿資 등의 叛亂을 진압했다. 그러나 그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죽었으며, 諡號는 惠襄이다. 『明史』卷126 『沐春傳』 참조.

- 15) 이에 관련된 내용은 『太祖實錄』卷226 洪武 26년 3월 戊申條에 있는데, 당시 八百箇에서 온 사신은 洪都였다.
- 16) 宣慰使司: 약칭하여 宣慰司라고도 한다. 省과 州 사이에 있는 군사적인 감찰기관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는 軍民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중앙의 행정기관으로 최고 책임자는 宣慰使로, 軍政의 최고 책임자였다. 宣慰司는 元代에 전국적으로 설치되었고, 명칭시대에는 소수민족 지역에 설립되어, 그 이전에 비해 숫자가 줄어들었다. 쿠빌라이칸은 각 행정사상에 60개의 宣慰司를 설치하였고, 각 신위사는 대략 180개의 路를 관할하였다. 지역의 宣慰司에는 宣慰使 3명(從二品), 宣慰司同知 1명(從三品), 副使 1명(正四品), 經歷과 都事 등의 관원을 두었다. 본문의 緬中宣慰司라는 명칭은 宣德 2년(1427) 이후로는 보이지 않으며, 緬甸宣慰司로 불리기 시작했다.
- 17) 宣慰使: 唐 憲宗이 潘節度使 李師道를 평정한 뒤 潘青 12州에 宣慰使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었으나, 늘 두었던 관직은 아니었다. 元朝가 宣慰使司를 설치하였는데, 宣慰使都元帥府 혹은 宣慰使兼管軍萬戶府라 칭하였고, 軍民의 事務를 관장하며 道를 나누어 郡縣을 관할하였다. 郡縣의 요청을 대신 行省에 전달하고, 行省의 政令을 郡縣에 전달함으로써 行省과 郡縣 사이의 承傳機關이 되었다. 沿邊 地區에 軍旅大事가 발생하면 都元帥府 혹은 元帥府를 겸하거나 管軍萬戶府를 겸하였다. 明代에 소수민족 지구에서는 土官을 기용하였으나, 元代에는 대개 流官으로 임명하였다. 宣慰使司에 宣慰使는 모두 3명이었는데, 官秩은 從二品이었다. 한편 明代에는 宣慰使가 1명으로서 官秩은 從三品이었다. 이상에 대해서는 黃開華, 1968: 34~35 참조.
- 18) 百夷: 雲南省 부근에 살던 傣族을 일컫는다. 傣族은 漢代에 '滇越', '押'이라 칭했고, 唐代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環境이나 服飾의 특징과 관련하여 '茫蠻'·'茫天連' 및 '黑齒蠻'·'金齒蠻' 등으로 불렸다. 이후 宋代에는 '白夷', 元代에는 '金齒百夷', 簡稱해서 '百夷'라 칭했으며, 明代에도 그대로 '百夷'라 칭했다. 이들은 洪武 15년(1382)에 명에 歸附함에 따라 明 太祖는 百夷土司區를 설치하고 百夷土司制度를 제정

를 침범하여 약탈했다고 호소하였다.²¹⁾ [홍무] 29년(1396)에 다시 와서 호소하였다.²²⁾ 홍무제는 행인(行人)²³⁾ 이사충(李思聰)²⁴⁾·전고훈(錢古訓)²⁵⁾을 보내 면전 및 백이에게 각기 전쟁을 멈추고 강토를 지키도록 호유하니,²⁶⁾ 사운발이 명령을 받아들였다.²⁷⁾ 마침 백이의 부락

- 했으며, 이후 成祖는 百夷土司의 印信·底簿·勸合 등 제도를 재정하여 百夷에 대한 통치를 강화시켰다.
- 20) 思倫發(?~1399): 明代 麓川(孟卯) 토씨이다. 1382년에 羅父인 思可發이 開闢한 麓川을 이어받았으며, 1384년에 明朝로부터 麓川平緬宣慰使를 책봉받았다. 그런데 1385에 景東宣慰使로 고치자, 思倫發은 이에 不服하여 명에 반기를 들었다. 1388년에 沐英이 火銃과 神機箭을 갖춘 明軍을 이끌고 麓川을 정벌하자, 麓川軍은 大敗하였다. 이듬해에 思倫發은 謝罪하였으며, 1394년에 明朝는 그에게 公服을 내렸다. 1397년에 刀幹孟이 난을 일으키자 그는 高黎貢山으로 유방하였는데, 1398년에 沐春이 刀幹孟을 멸하였기 때문에 당시 麓川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399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思行發이 뒤를 이었다.
 - 21) 洪武 28년(1395)에, 卜剌浪이 桑乞剌書를 명에 사신으로 보내 방물을 바치고, 百夷 思倫發이 여러 차례 그들의 영토를 침탈하였다고 호소하였다. 『太祖實錄』卷242 洪武 28년 윤9월 己未條 참조.
 - 22) 洪武 29년(1396) 2월의 일로, 百夷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들 영토를 침범했다고 호소했다. 『太祖實錄』卷244 洪武 29년 2월 己丑條 참조.
 - 23) 行人: 元代에는 秋官에 속해 大行人과 小行人 2官이 있었고, 멀리서 天子를 알현코자 온 賓客의 접대를 맡았다. 漢代에는 大鴻臚의 屬官으로 行人令이 있었지만 府內 都官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했다. 明代에 行人司에 行人이 두어졌는데, 正八品官으로 行人司의 장관인 司正과 부관인 左右司副를 보좌하며, 捧節과 出使 등의 임무를 맡았다. 洪武 연간(1368~1398) 처음 두어질 때는 360명이나 되었으나, 永樂 연간(1403~1424) 이후에는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점차 閒職으로 취급되어 進士출신은 이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明史』卷74 『職官志』3 行人司條 참조.
 - 24) 李思聰(?~1398): 字는 仲謀이고, 和州沈德 사람이다. 洪武 26년(1393)에 鄉試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진사로 급제하여 行人司行人에 제수되었다. 洪武 29년(1396)에 緬甸 사신으로 파견되어 책임을 다하였는데, 緬甸의 풍속과 그곳에서 견문한 것을 모두 기록하여 『百夷傳』을 저술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洪武 31년(1398)에 3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 25) 錢古訓: 生卒年 未詳. 浙江 餘姚 사람으로, 洪武 27년(1394)에 進士에 급제하였다. 이후 湖廣布政司 參政이 되었는데, 百夷의 酋長 思倫發이 緬甸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자 洪武 29년(1396) 2월에 유지를 받들고 行人 李思聰과 더불어 그곳에 이르러 思倫發로 하여금 병사를 철수시키도록 하였다. 이후 그는 그곳 緬甸의 山川, 人物, 風俗 등을 서술하여 『百夷傳』을 저술해 조정에 보고하였다.
 - 26) 이들이 가져간 詔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道里遠險, 山川阻修, 風俗殊異, 此乃天造地設也. 爾能動使者 陟險, 遠越鄰邦, 衝堅突務, 長途進往, 觀風霜而至中夏, 可謂難矣. 古人云, 誠信君子將有事於遠, 雖千里之外 神交而自通, 今萬里之外, 爾能動使使修其好, 美絕古今. 然排難解紛之事, 朕之旨意. 恨不即一言而通, 使彼此 各罷兵守業黎民於變也. 兩國之民, 居處各分, 雖存關市之議, 是其利也. 其或忿爭不已, 天將昭臨, 福善禍淫, 遲速可待. 敕至, 爾其審之』. 관련된 내용은 『殊域周咨錄』卷9 南百夷條 참조.
 - 27) 洪武 29년(1396) 2월의 일이다. 『太祖實錄』卷244 洪武 29년 2월 庚寅條 참조.

수령인 도간맹(刀幹孟)²⁸⁾이 난을 일으켜 사윤발을 내쫓아냈는데,²⁹⁾ 이 때문에 일이(백이)의 면전에 대한 침탈이) 그쳤다.

永樂元年，緬酋那羅塔達使入貢。因言緬雖遐裔，願臣屬中國，而道經木邦·孟養，多阻遇。乞命以職，賜冠服·印章，庶免欺陵。詔設緬甸宣慰使司，以那羅塔達為宣慰使，遣內臣張勤往賜冠帶·印章。於是緬有二宣慰使，皆入貢不絕。五年，那羅塔達使貢方物，謝罪。先是，孟養宣慰使刀木旦與夏里相攻，那羅塔達乘襲之，殺刀木旦及其長子，遂據其地。事聞，詔行人張洪等齎敕諭責，那羅塔達懼，歸其境土，而遣人詣闕謝罪。帝諭禮部曰：「蠻旣服辜，其釋不問。」仍給以信符，令三年一朝貢。

영락(永樂)³⁰⁾ 원년(1403)에 면전의 추장 나라담(那羅塔)이 사신을 보내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다.³¹⁾ 이를 기회로 면전은 비록 먼 곳에 있지만 중국에 신속(臣屬)되기를 원하나 길이 목방(木邦)³²⁾과 맹양(孟養)³³⁾을 경유함으로 막힘이 많다고 아뢰었다. [아울러] 관직에 임명

28) 『明史紀事本末』 권12 「太祖平滇」에는 刀幹孟으로 되어 있다.

29) 洪武 30년(1397) 9월의 일이다. 『太祖實錄』 권255 洪武 30년 9월 戊辰條 참조. 刀幹孟이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 李思聰이 사신으로 와 朝廷의 威德으로 이들 무리를 효유하자 반란자들은 점차 물러났다. 이때 思聰은 이사총의 힘에 기대어 그의 부하들을 복종시키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사총에게 크키리·말·금은보좌를 뇌물로 바쳤지만 이사총은 거절하였다. 刀幹孟의 반란과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明史』 권314 「麓川·平緬傳」 참조.

30) 永樂: 명 왕조 3대 황제인 成祖 朱棣의 年號임.

31) 永樂 원년(1403) 10월의 일로, 緬甸의 추장 那羅塔가 그의 부하 郎尋賽를 명에 보내 방물을 바쳤다. 『太宗實錄』 권23 永樂 원년 동10월 丙辰條 참조.

32) 木邦: 토사의 명칭으로, 「孟邦」·「孟都」라고도 불린다. 元 至元 26년(1289)에 이곳에 路를 설치했는데, 治所는 지금의 緬甸 勐威에 있었고, 지금의 緬甸 押那 東北部 지역을 관할했다. 明 洪武 15년(1382)에 府로 고쳤으며, 永樂 2년(1404)에 軍民宣慰使司로 고쳤으나 萬曆 34년(1606)에 緬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淸初에 다시 중국 영토로 들어왔으나 乾隆 이후에 다시 緬甸에 속하게 되었다.

33) 孟養: 蠻人의 이름으로 澠水이다. 원나라 至元 연간(1264~1294)에, 맹양에 雲達路軍民總管府를 설치했는데, 洪武 15년(1382)에 雲達府로 고쳤다. 成祖가 즉위해서 雲達府를 고쳐 孟養府라 하고, 土官 刀木旦을 知府로 임용했다. 永樂 2년(1404)에 軍民宣慰使司로 승격시켜 도목단을 宣慰使로 삼고 誥印을 하사했다. 이후 緬甸에게 점거되었지만 永樂 14년(1416)에, 다시 孟養宣慰司를 설립하고, 도목단의 아들 刀得孟을 宣慰使로 임명하였다. 이후 도득맹은 명에 사신을 보내 말과 방물을 바쳤다. 明代 孟養軍民宣慰

하고 관복(冠服)과 인장(印章)을 내려주어, 업진여검과 능육을 면케 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면전선위사사(緬甸宣慰使司)를 설치하고 나라담(那羅塔)을 선위사(宣慰使)에 임명하였으며, 내신(內臣)³⁴⁾ 장근(張勤)을 보내어 관대(冠帶)³⁵⁾와 인장을 하사했다.³⁶⁾ 이에 면전에는 두 명의 선위사가 있었는데, 모두 다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는 것이 끊어질 않았다. [영락] 5년(1407)에 나라담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사죄(謝罪)하였다. 이에 앞서 맹양(孟養)의 선위사(宣慰使) 도목단(刀木旦)과 알리(夏里)³⁷⁾가 서로 싸웠는데 나라담이 이 틈을 타 습격하여 도목단과 그의 장자(長子)³⁸⁾를 죽이고 마침내 그 지역을 점거했다.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영락제는] 행인 장홍(張洪)³⁹⁾ 등에게 조서를 내려 칙서를 가지고 [나라담을] 꾸짖어 깨닫도록 했다.⁴⁰⁾ [이에] 나라담은 두려워하여 그의 영지(領地)를 돌려 주고 사람을 보내 대궐에 이르러 사죄하였다.⁴¹⁾ 영락제는 예부(禮部)에 유시(諭示)하여 이르기를, “만인(蠻人)이 이미 죄를 인정하였으니 용서하여 죄를 묻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고] 예전처럼 [그에게] 신부(信符)⁴²⁾를 주고, 3년에 한 차례 입조하여 진공하도록 하였다.⁴³⁾

使司는 지금의 緬甸 八莫·開泰 以北, 伊洛瓦底江 以西, 那那山脈 以東 지역을 관할했다.

34) 內臣: 文字의으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國內의 臣僚는 의미, 둘째는 宮廷의 近臣이라는 의미, 셋째는 官官을 의미한다. 그런데 명 초부터 대의 사신으로 汗國을 임명한 사례가 많으므로 여기서 張勤은 세 번째 의미의 完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35) 冠帶: 帽子와 腰帶를 일컫는데, 관대를 하사했다는 것은 관직에 임명한 것을 의미함.

36) 『明史』 권46 「地理志」 7에 의하면, 緬甸軍民宣慰使司는 본래 緬甸宣慰司였는데 洪武 27년(1394) 6월에 설치했다가 곧 폐지했으며, 永樂 元年(1403) 10월에 다시 설치하여 명칭을 바꾸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권23 永樂 원년 동10월 丙辰條에도 있음.

37) 夏里: 孟養軍民宣慰使司의 서남쪽에 위치한 孟養의 別部이다. 지금의 미얀마 實賈(Sagaing)성 서남부에 위치한 上親教額 譯대임.

38) 刀木旦의 장자는 思覺發이다. 『明史』 권315 「孟養傳」 참조

39) 張洪(1361?~1444?): 字는 宗海이고 號는 止庵으로, 본래의 성은 핑이지만 沙溪 張炯의 수양아들로 입적되어 성을 張로 바꾸었다. 元에 강남의 常熟으로 이사하였고, 11세에 諸生이 되었으며, 16세에 상업을 익혔다. 21세에 이웃사람의 죄에 연루되어 병졸로 雲南으로 보내졌는데, 마침 麓川 내부에서 반란이 발생하자 장홍은 雲南都司에게 음모를 누설함으로써 평정되게 하였다. 경전에 밝아 靖江王府의 教授로 추천되었으며, 영락제가 집권한 초기에 進士 신분으로 日本, 吐蕃, 朝鮮 등에 出使하였다. 이후 文淵閣에 추천되어 『永樂大典』을 편찬할 때 總編敕官을 맡았다. 남경 저작으로는 「南夷語」, 「日本科遺志」, 「使規」 등이 있다.

40)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권57 永樂 4년 윤7월 己巳條에 보임.

41) 이에 관한 내용은 『實史』 권11에 있다. 永樂 5년(1407) 4월에 那羅塔는 陶孟 洛發 등을 명에 보내 방물을 바치며 사죄하였다. 『太宗實錄』 권66 永樂 5년 하4월 丙戌條 참조.

初,卜刺浪分其地,使長子那羅塔管大甸,次子馬者速管小甸,卜刺浪死,那羅塔盡收其弟土地人民,已而其弟復入小甸,遣人來朝,且訴其情,敕諭那羅塔兄弟和好如初,毋干天討。六年,那羅塔復遣人入貢,謝罪,并謝賜金牌·信符,勞賜遣之。七年復遣中官雲仙等齎敕賜緬酋金織文綺。十二年,緬人來言爲木邦侵掠,帝以那羅塔素強橫,遣人諭之,使修好隣封,各守疆界。

당초에 복날랑(卜刺浪)은 그의 영토를 나누어 장자 나라탐에게 대견(大甸)을 다스리도록 하고, 둘째 아들 마자속(馬者速)에게 소전(小甸)을 다스리도록 했다. 복날랑이 죽자 나라탐이 그의 동생의 토지와 백성을 모두 다 거두어들였다.⁴⁴⁾ 오래지 않아 그의 동생이 다시 소전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 내조했으며, [아울러] 또 그간의 사정을 호소했다. [이에 영락제는] 나라탐 형제에게 칙서를 내려 이전처럼 잘 지내도록 효유하고, 천조(天朝)⁴⁵⁾의 토벌을 범하지 말도록 하였다.⁴⁶⁾ [영락] 6년(1408)에 나라탐이 다시 사람을 보내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고서 사죄하고 아울러 금패(金牌)·신부(信符)⁴⁷⁾를 내려준 것에 감사하니, [영락제는] 보내 온 사

- 42) 信符: 明朝에서 사절단의 眞僞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한 증명서, 즉 勘合符를 말한다. 明朝는 외국의 조공 사절을 하나의 恩典으로 간주하여 조공의 회수, 선박의 수, 인민 등을 제한하고자 했으며, 이 내용을 쓴 문서를 양측이 갈라진 한 면씩 보관하고 있다. 가절이 도착하면 서로 맞추어보아 합치되어야 비로소 정식 사절로 인정했다. 勘合符는 洪武 16년(1383)에 占城을 비롯하여 暹羅·眞臘 등에 발급한 것이 최초인데, 明의 收元, 즉 기본적으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새로 발급하였다.
- 43) 永樂 5년(1407)에 일어난 이상의 내용은 『太宗實錄』卷66 永樂 5년 4월 丙戌條에도 있음.
- 44) 永樂 원년(1403)에 緬甸宣慰司를 설치하여 卜刺浪의 長子인 那羅塔를 宣慰使로 삼아 大甸을 관할하도록 하고, 卜刺浪은 둘째 아들 馬者速과 함께 예전처럼 緬中宣慰司에 있으면서 小甸을 관할하도록 했다. 그러다 永樂 5년(1407)에 卜刺浪이 죽자 那羅塔가 그의 동생의 토지와 백성을 겸병하였다(俱盡, 1988: 184).
- 45) 天朝: 天子의 朝廷을 제후의 나라에서 높여 부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明朝를 일컫음.
- 46)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卷71 永樂 5년 9월 庚申條에 있음.
- 47) 金牌信符: 金剛信符라고도 한다. 이것은 西番과의 茶馬 무역에서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하여 명 조정에서 緬으로 만든 일종의 勘合으로, 西番의 각 추장에게 발급해 주었다. 금패의 위쪽은 隔文, 아래쪽은 陰文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하의 두 信符를 합쳐 대조하여 그 진위를 가렸다. 『(萬曆)明會典』卷108 「禮部」朝貢西戎條에 의하면, 당시 금패신부는 隔文信符와 陰文信符 외에 1號부터 100號까지 字號가 붙은 批文勘合과 勘合底簿가 있었는데, 음문신부 및 갑합은 土官에게, 갑합저부는 布政司에, 양문신부 및 갑합은 內府에 보관하도록 했다고 한다. 3년마다 한 번씩 관원을 파견하여 서로 맞추었다.

신에게 위로와 상을 내려주었다.⁴⁸⁾ [영락] 7년(1409)에 [영락제는] 다시 중관(中官)⁴⁹⁾ 윤선(雲仙) 등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가서 면진의 추장에게 금직문기(金織文綺)⁵⁰⁾를 하사하게 했다.⁵¹⁾ [영락] 12년(1414)에 면진의 사람과 와 아뢰기를, 목방(木邦)에게 칙임을 받아 약탈 당했다고 했다.⁵²⁾ 영락제는 나라탐이 본디 강포하고 전횡한다고 여겨서 사람을 보내 그를 효유했으며, 인접한 봉국(封國)과 우호관계를 맺고 각기 강역을 지키도록 했다.⁵³⁾

洪熙元年遣內官段忠·徐亮以即位詔諭緬甸。宣德元年遣使往諭雲南土官, 賜緬甸錦綺。二年以莽得刺爲宣慰使。初, 緬甸宣慰使新加斯與木邦仇殺而死, 子弟潰散。緬共推莽得刺權叢, 許之。自是來貢者只署緬甸, 而甸中之禍不復見。八年, 莽得刺遣人來貢, 復遣雲仙齎敕賜之, 并諭其勿侵木邦地。

홍희(洪熙)⁵⁴⁾ 원년(1425)에 내관(內官)⁵⁵⁾ 단충(段忠)·서량(徐亮)을 보내 즉위의 조서(詔

그 信牌에는 篆書로 몇몇에는 ‘皇帝聖旨’, 왼쪽에는 ‘舍番茶發’, 오른쪽에는 ‘不信者斬’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두 41개인데, 澧州의 火把寨·思義井 등의 종족은 패가 4개로, 河州의 必里衛의 西番 29족은 패가 21개로, 말 7,703필을 바쳤다. 또한 西寧의 曲先·阿丹·罕東·安定 등 4衛의 巴世·申中·申藏 등 종족은 패가 16개로, 말 3,050필을 바쳤다(박원호, 2008: 290~292).

- 48) 永樂 6년(1408) 5월의 일로, 那羅塔는 澄發를 明에 사신으로 보내 말과 방물을 바치며 사죄하고, 사온하였다. 『太宗實錄』卷79 永樂 6년 5월 辛亥條 참조.
- 49) 中官: 中官은 內職의 官, 京官 등의 뜻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宦官을 일컬으며, 閹人·寺人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周代부터 清末까지 완연이 있었다. 『明史』卷74 「職官志」 3官條에 의하면, 명대에는 宦官 十二監이 있었고, 이들의 기관에서는 政事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히, 司禮監은 그 중심에 있었고, 각 기관에는 太監(正四品)·小監(從四品)·監丞(正五品)·典簿(正六品)와 從六品인 長隨·奉御 등의 職官이 있었다.
- 50) 金織文綺: 일반적으로 織文綺라고 일컬으며, 金絲로 무늬를 짜 넣은 두꺼운 비단을 말한다.
- 51) 永樂 7년(1409) 6월의 일이다. 『太宗實錄』卷93 永樂 7년 6월 丙辰條 참조. 中官 雲仙은 이보다 앞서 永樂 6년(1408) 7월에도 칙서를 가지고 緬甸에 다녀왔다. 『太宗實錄』卷81 永樂 6년 7월 辛未條 참조.
- 52) 永樂 11년(1413)에 木邦의 宣慰使 罕發發이 군대를 이끌고 緬甸을 토벌했으며, 이에 목방이 緬甸의 20여 개 城寨를 공파했다(『明史』卷315 「木邦傳」 참조). 그에 대한 내용은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木邦軍民宣慰使司條에도 있는데, 여기에는 “攻破緬甸城寨二百餘所”라고 기재되어 있다.
- 53) 永樂 12년(1414) 2월의 일로, 那羅塔는 那牙를 明에 사신으로 보내 木邦에게 칙락을 당했다고 아뢰었다. 『太宗實錄』卷148 永樂 12년 2월 壬子條 참조.

書)를 내려 면전을 효유했다.⁵⁶⁾ 선덕(宣德)⁵⁷⁾ 원년(1426)에 사신을 보내 운남 토관(土官)⁵⁸⁾을 시켜 면전에 금기(錦綺)⁵⁹⁾를 하사하도록 했다.⁶⁰⁾ [선덕] 2년(1427)에 망득랄(莽得剌)을 선위사로 삼았다. 당초에 면전의 선위사 신가사(新加斯)가 목방(木邦)과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고 죽어, 아들과 형제들이 도망쳐 흩어졌다. 면전이 공동으로 망득랄을 추가하여 임시로 [선위사의 자리를] 잇도록 하니, [선덕제는] 이를 허락했다.⁶¹⁾ 이로부터 내조하여 공물을 바치는 자는 다만 면전을 데리로 관할할 뿐이었고, 전중(甸中)⁶²⁾이라는 명칭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선덕] 8년(1433)에 망득랄이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공물을 바치니 [선덕제는] 다시 운선(雲仙)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그에게 상을 내리고, 아울러 목방의 영토를 침범하지 말도록 효유하였다.⁶³⁾

54) 洪熙: 명 왕조 4대 황제인 仁宗 朱高熾의 年號이다.

55) 內官의 의미에는 君主의 左右에 侍는 親近한 臣僚, 宮中의 女官, 宦官인 太監, 外朝官에 대한 內朝官, 地方官에 對칭하여 朝廷에 任職한 官員이라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宦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56) 『仁宗實錄』 卷10 洪熙 원년 2월 丙辰條에 보면, 內官 段段과 徐亮에게 即位詔를 가지고 가 雲南 緬甸 麓州 木 宣慰司 및 孟定府 澗甸州 鎮康州 底兀刺 등을 효유하도록 하고 土官에게 文幣을 차등하여 하사했다는 내용이 있다.

57) 宣德: 명 왕조 5대 황제인 宣宗 朱瞻基의 年號이다.

58) 土官: 원대에 서방과 남방의 苗·僮·元·番 등의 이민족 추장에게 관직을 수여하여 그 부족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를 土司 또는 토관이라고 했다. 명은 원의 토관제도를 이어받아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명조는 陝西 등 북변 지역에는 衛所의 관직인 武職을, 서남 지역에는 주·현 등을 설치하여 文職을 제수하였다. 洪武 7년(1374)에 西南諸蠻가 朝貢하자 元代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宣慰司 11·招討司 1·宣撫司 10·安撫司 19·長官司 173곳이었다. 府·州·縣의 正官과 佐武官은 土官 혹은 중앙에서 파견한 流官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疆土를 지키고, 명조에 貢物과 賦稅와 徭役을 제공하였다.

59) 錦綺: 여러 빛깔로 무늬를 넣은 천 비단을 일컫는다.

60) 『宣宗實錄』 卷13 宣德 원년 춘정월 己酉條에 보면, “遣使往撫, 別失八里王丕思, 及西南夷木邦緬甸麓州車里八百大甸老撾宣慰司, 孟良孟定澗甸鎮康四府土官, 賜之紗羅錦綺有差”라고 기재되어 있다.

61) 緬甸의 宣慰使 那羅塔이 죽자 新加斯가 그 職을 세습했는데, 新加斯가 木邦의 宣慰使에게 殺害되고 宣德 2년(1427)에 莽得剌이 세습했다. 이로부터 緬中宣慰司의 지역은 완전히 緬甸宣慰司의 소유로 되어버려 緬中宣慰司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31 宣德 2년 9월 丁酉條에 있음.

62) 甸中: 緬中을 말한다.

63) 木邦, 麓川平緬, 緬甸 등 세 宣慰司의 土官들이 명에 공물을 바치고, 명에 內官 雲仙에게 勅書를 가지고 그들을 조무한 기사는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동10월 癸丑條에 보임.

正統六年給緬甸信符·金牌, 時麓川思任發叛, 將討之, 命緬甸調兵待, 七年, 任發兵敗, 過金沙江, 走孟廣, 緬入攻之, 帝諭能擒獻賊首者, 予以麓川地, 八年, 總督尚書王驥奏, 緬甸酋馬哈省·以速刺等已擒獲思任發, 不解至, 唯以麓川地爲言, 朝命遂有并征緬甸之命, 是時, 大師已集騰衝, 緬使致書, 期以今冬送思任發至貢章交付, 驥與起期, 遣指揮李儀等率精騎通南牙山路, 抵貢章, 受獻, 而緬人送思任發者竟不至, 九年, 驥駐師江上, 緬人亦嚴兵爲備, 遣人往來江中, 覘官軍虛實, 驥以麓川未平, 驢難不可復作, 乃令總兵官蔣貴等潛焚其舟數百, 緬人潰, 驥亦班師, 於是總兵官沐昂奏: 『緬恃險黨賊, 應加兵, 但滇中方連年征討, 財力困弊, 旱澇相仍, 糧餉不給, 未可輕舉, 臣已遣人諭緬禍福, 俾獻賊首, 緬宜聽從,』 十二年, 木邦宣慰罕蓋法, 緬甸故宣慰子馬哈省·以速刺, 遣使偕千戶王政等獻思任發首及諸俘賊至京, 并貢方物, 帝命馬哈省·以速刺並爲宣慰使, 賜敕獎勞, 給冠帶·印信, 未幾, 以速刺奏求孟養·夏里地, 且請大軍至滅思任發之子思機發兄弟, 而已出兵爲助, 帝諭以機發不可戰擒, 宜卽滅賊以求分地, 弗爲他人得也.

정통(正統)⁶⁴⁾ 6년(1441)에 면전에 신부·금패를 주었다. 당시 녹천(麓川)⁶⁵⁾의 사임발(思任發)⁶⁶⁾이 반란을 일으켰는데,⁶⁷⁾ [조정은] 장차 이를 토벌하고자 면전에 군대를 징발하여 대거

64) 正統: 명 왕조 6번째 황제인 英宗 朱祁璘의 年號이다. 영종은 중국 황제 가운데 유일하게 1435년~1449년과 1457년~1464년에 걸쳐 두 번 재위했는데, 그 첫 번째 시기의 年號가 정통이며, 두 번째 시기의 年號는 天順이다.

65) 麓川: 지금의 雲南 麗麗縣 및 勐卯鎮 등의 지역으로 緬甸에 접해 있다. 원나라 때 이 지역에 宣慰使司를 설치했는데, 명 太祖가 雲南을 평정한 후 洪武 17년(1384)에 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하고 이 지역 수령을 宣慰使로 삼았다. 正統 2년(1437) 10월에 麓川의 宣慰使 思任發이 반란을 일으켜 다음해에 孟養, 騰衝을 공략하고 澗江을 점령하여 스스로 滇王이라 칭하였다. 이에 명조는 수년에 걸쳐 이를 진압했는데, 이를 『麓川의 役』이라 한다. 이후 正統 9년(1444)에 麓川軍民宣慰使司를 宣撫司로 바꾸고 治所를 麗巴에 두었는데, 이 때문에 麗川宣撫司라고도 일컫는다.

66) 思任發(?~1446): 원래 이름은 思任이었는데, 후에 자칭 法(滇王)이라 하여 와전되어 思任發이라 했다고 한다. 明代 麓川 宣慰使 思倫發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의 職을 이었으며, 明朝와 잘 지내면서 이후 각 부락을 겸병하여 점차 세력이 강성해졌다. 正統 2년(1437)에 주변 일대를 점거하고 무리들을 이끌고 명조에 반기를 들었다. 이듬해에 南甸·騰衝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明의 黔國公 沐晟이 이끄는 군대를 공격하여 패배시켰다. 그러나 正統 6년(1441)에 兵部尚書 王驥·定西伯 蔣貴 등이 대군을 이끌고 진압하

하라고 명하였다.⁶⁸⁾ [정통] 7년(1442)에 사임발의 군대가 패하여 금사강(金沙江)⁶⁹⁾을 건너 맹광(孟廣)⁷⁰⁾으로 달아나자 면진인이 이들을 공격했다.⁷¹⁾ 정통제는 유지(諭旨)를 내리 적의 수령을 잡아 바칠 수 있는 자에게 녹천의 땅을 주겠다고 했다.⁷²⁾ [정통] 8년(1443)에 총독상서(總督尙書)⁷³⁾ 왕기(王驥)⁷⁴⁾가 추정하기를, 면진의 추장 마합성(馬哈省·이속랄(以速剌) 등이 이미 사임발을 사로잡았는데 압송하여 보내지 않고 오로지 녹천의 땅[을 주기]만을 언급하니, 조정의 명령에 마땅히 면진을 함께 정벌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때 대군(大軍)이 이미 등충(騰衝)⁷⁵⁾에 집결했는데, 면진이 사신을 파견하여 서신을 보내와 금년

자 점차 세력이 약해졌으며, 正統 8년(1443)에 緬甸으로 敗走하였고, 明軍이 다시 征討에 나갔다. 결국 正統 10년(1445) 12월에 緬甸의 宣慰使 卜剌浪과 馬哈省에게 사로잡혔으며, 逆食하고 죽었다.

- 76) 思任發의 반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明史』 卷314 『麓川·平緬傳』 참조.
- 78) 正統 6년(1441) 2월의 일로, 당시 명조가 信符·金牌을 준 것은 비단 緬甸뿐 아니라 木邦, 車里, 八百, 大甸, 威遠, 大宛, 施甸 各 長官들에게도 주어 이들의 힘을 모아 麓川의 思任發 반란을 토벌하려고 했던 것이다. 『英宗實錄』 卷76 正統 6년 2월 戊寅條 참조.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76 正統 6년 2월 庚辰條에도 보임.
- 69) 金沙江: 金沙가 산출되어 金沙江이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緬甸 伊洛瓦底江이다.
- 70) 孟廣: 孟密宣撫司의 동북쪽에 있는 孟密的 別部이며, 陞川의 境界에 가깝다. 萬曆 18년(1590)에 緬甸에 합락되었는데, 지금의 緬甸 椰那 蒙來特 동북부에 위치한 累田 일대이다.
- 71) 당시 思任發은 패하여 孟密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다시 木邦 宣慰使의 공격을 받았는데, 金沙江을 넘어서 까지 추격해오자 孟密으로 달아났으며, 이때 또 緬甸의 宣慰使 卜剌當이 군대를 일으켜 그를 공격하였다. 『明史』 卷314 『麓川·平緬傳』 참조.
- 7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90 正統 7년 3월 3일 戊寅條에 있거나 정통제는 『木邦緬甸願自效, 其敕總兵官沐昂, 仍加激勵俾圖成功, 果能生擒賊首拿獻, 其麓川土地人民悉予之』라 하였다.
- 73) 당시 王驥의 직함은 실록에 雲南總督軍務兵部尙書로 되어 있다. 『英宗實錄』 卷107 正統 8년 8월 丁酉條 참조.
- 74) 王驥(1377~1460): 字는 尚德이며, 北直隸 保定府 東鹿縣 사람이다. 永樂 4년(1406)의 進士로 兵科給事中에 제수되어 山西에 巡按했다. 곧 山西按察使司의 副使로 승임하였으며, 洪熙 원년(1425)에 順天府尹을 거쳐 宣德 초에 兵部右侍郎에 발탁되었다. 이후 오래지 않아 兵部尙書 서리가 되고, 宣德 9년(1434)에 兵部尙書에 올랐다. 正統 元年(1436)에 몽골의 침입이 격화되면서 북변 방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涇州兵部尙書로서 직임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일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몽골이 甘州, 涼州 일대를 침범하고 명의 장수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자 正統 2년(1437)에 王驥는 便宜行하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甘州, 涼州 일대의 북변 방어를 지휘하였는데,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 공로로 병부상서에 임명되었으나 연로하여 곧 사직하였고, 이로부터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讜議는 忠殺이다.
- 75) 騰衝: 騰衝은 前漢시기에 滇越이라 칭했고, 大理國 中期에 騰衝府를 설치했다. 지금의 雲南省 保山市

거울까지 사임발을 압송해 공장(貢章)⁷⁶⁾에 이르러 [관부]에 교부하겠다고 했다. 왕기가 약정 기한을 [그들에게] 정해주고, 지휘(指揮)⁷⁷⁾ 이의(李儀)⁷⁸⁾ 등을 보내 정예의 기병을 이끌고 남야산(南牙山)⁷⁹⁾ 길을 통해 공장에 이르러서 바치는 포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사임발을 호송하는 면진인(緬甸人)은 끝내 이르지 않았다.⁸⁰⁾ [정통] 9년(1444)에 왕기가 강가에 군대를 주둔시키자 면진인 역시도 병사를 엄히 청동하여 방비하였고, 사람을 보내 강의 중류를 왕래 하면서 관군의 허실을 엿보았다. 왕기는 녹천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면전에서 환관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곧 총병관(總兵官)⁸¹⁾ 장귀(蔣貴)⁸²⁾ 등에게 그들의 배

西南部に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緬甸과 접해 있으며, 고대로 西南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다. 때문에 역대 각 시기마다 많은 군대를 주둔시켜 지켰으며,明代에는 “極邊第一城”이라 불리는 石頭城을 建造했다.

- 76) 貢章: 지금의 緬甸 伊洛瓦底江 상류에 있는 杰沙이다.
- 77) 指揮: 衛所를 책임지는 守備隊長을 지칭한다. 지방의 군정장관인 都指揮使 밑에 都指揮同知 2명(從二品)과 都指揮僉事 4명(正三品)이 보좌하는데, 이들과 함께 衛事를 담당했다.
- 78) 李儀: 溪縣 사람으로, 永樂 연간(1403~1424)에 蕭舉에 의해 戶部主事에 제수되었다. 宣德 연간(1426~1435)에 宣宗이 朱高煦의 叛亂을 평정한 후 李儀는 趙王의 護衛를 맡아도록 청하였다. 이후 그는 九江府 知府에 임명되어 惠政을 펼쳤으며, 英宗이 즉위해서는 右僉都御史가 되어 九江府 지역의 巡撫가 되었다. 단골에 甘肅을 지키고 있는 장군 蔣貴·史昭와 함께 梁兒只帖魯를 격파하였다. 이후에 石尹의 誣陷으로 탄핵을 받아 下獄되어 獄死하였다.
- 79) 南牙山: 지금의 雲南省 盈江縣 서부 변경에 있는 銅壁關 지역이다.
- 80) 總督尙書 王驥가 올린 上奏의 상세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07 正統 8년 8월 丁酉條에 있거나 正統帝는 王驥에게 勅書를 내려 무려 40번 협력하여 일을 성사시키도록 했다.
- 81) 總兵官: 千總 등 유사시에 公·侯·伯 등의 勳臣이나 都督 등의 관린 가운데 充任하고, 일이 끝나면 본래의 직무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변경에 일이 많아지자 현지에 계속 머물면서 鎮守를 함으로 사실상 鎮의 최고 무관직으로 고정되었다. 황제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권한은 매우 컸으며, 品級과 定員은 없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설치된 곳이 날로 늘어나 점차 流官으로 충임되었고, 총독과 순무의 지휘를 받았다.
- 82) 蔣貴(1415~1484): 字는 文富이며, 安徽 甌縣 蔣家塢 사람이다. 江都(지금의 江蘇省 揚州)에 살다가 元초에 그의 부친 蔣從龍은 朱元璋의 起兵에 참여하여 공을 세워 鄧州南軍이 되었다. 蔣貴는 어려서 부친의 일을 대신하였는데, 燕王 朱棣의 征服戰에 참여하여 공을 쌓아 都指揮僉事가 되어 彭城衛의 軍務를 담당하였다. 宣德 2년(1427)에는 右參將에 임명되어, 總兵 陳懷가 이끄는 四川 松潘 叛亂의 정도에 참여하여 공을 세워 都指揮同知로 승임하여 密雲을 鎮守하였다. 宣德 7년(1432)에 다시 參將에 임명 되어, 陳懷가 松潘을 진수하는데 도왔다. 宣德 9년(1434)에 여러 품이 叛亂을 일으키자, 군대를 이끌고 이를 정벌하여 都督同知로 승임하였고, 이후 총병관이 되어 平糶將軍印을 佩用하고 松潘을 진수하였다. 正統 初에, 右都督에 임명되고, 곧 平糶將軍印을 패용하고 甘肅과 賀蘭山 등지의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그 공으로 定西伯에 봉해졌다. 正統 4년(1439)에 甘肅에 진수하였고, 正統 6년(1441)에 總兵官에 임명되

수백 척을 몰래 불 지르도록 명령하고서, 면전인이 깨면하면 왕기 역시도 군대를 돌리고자 했다.⁸³⁾ 이에 총병관 목양(沐昂)⁸⁴⁾이 상주하기를, “면전이 협준함을 믿고 적들과 한때거리가 되어 있으니 응당 군대를 더 보내야 하는데, 다만 진(鎭)⁸⁵⁾ 안에서 바야흐로 해마다 정토를 하여 재력(財力)이 곤궁해 피폐해지고 가뭄과 수재(水災)가 거듭 일어나 군량을 공급할 수 없으니,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臣)이 이미 사람을 보내 이해득실로 면전인을 효유하여 적의 우두머리를 바치도록 했으니, 면전은 마땅히 따를 것입니다.”⁸⁶⁾라고 했다. [정통] 12년(1447)에 목방(木邦)의 선위(先) 한개법(罕蓋法), 면전의 이전 선위(先)의 아들 마합성(馬哈省)·이속랄(以速剌)이 사신을 보내 천호(千戶)⁸⁷⁾ 왕정(王政) 등과 함께 사임발의 수급과 여러 포로들을 바치려 경사(京師)⁸⁸⁾에 이르렀으며,⁸⁹⁾ 아울러 방물을 바쳤다. 정통제는 마합성·이속랄을 모두 선위사에 임명하고서 칙서를 내려 노고를 표창하고 관대(冠帶)·인신

(印信)을 주었다.⁹⁰⁾ 오래지 않아, 이속랄이 상주를 하여 맹양(孟養)·알리(夏里)의 토지를 요구했으며, 또 대군(大軍)으로 사임발의 아들인 사기발(思機發)⁹¹⁾ 형제를 조속히 멸해야 한다고 청하고서 스스로 출병하여 돕겠다고 했다. [이에] 정통제는 [그에게] 유지를 내리, 사기발을 가히 싸우지 않고서 붙잡아야 할 것이고, 마땅히 곧 적을 멸하게 되면 토지를 분봉해 얻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이를] 얻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⁹²⁾

景泰二年賜緬甸陰文金牌·信符。時以速剌久獲思機發不獻，又放思卜發歸孟養。朝廷知其要挾，故緩之。五年，緬人來索地，參將胡志以銀夏等地與之，乃送機發及其妻孥。帝以思卜發既遠遁，不必窮追，仍加賞綬幣，降敕褒獎。

경태(景泰)⁹³⁾ 2년(1451)에 면전에 문자를 음각(陰刻)한 금패·신부를 하사했다.⁹⁴⁾ 당시 이속랄은 사기발을 붙잡은 지 오래되었지만 바치지 않고, 또 사복발(思卜發)을 풀어주어 맹양(孟養)으로 돌려보냈다. 조정은 그가 중간에서 농간하면서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다.⁹⁵⁾ [경태] 5년(1454)에 면전인이 와서 내려주겠다고 한 땅을 찾자 참장(參將)⁹⁶⁾ 호지(胡志)가 은알(銀夏) 등의 땅을 그들에게 주니, 곧 사기발 및 그의 처와 자식을 보내왔다.⁹⁷⁾

- 어 雲南 麓川叛亂을 정벌하였고, 이로 인해 定西侯에 봉해졌다. 正統 8년에는 兵部尙書 王驥와 함께 思機發을 征討하고, 그들의 寨를 攻破하였으나 적을 추격하다 포위를 당해 스스로 몸을 베어 죽었다. 死後 汪國公에 追贈되고, 諡號는 武勇이다. 『明史』 卷155 『蕞傳』 참조.
- 8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13 正統 9년 2월 丙午條 참조.
- 84) 沐昂(?~1445): 字는 景高이고, 明朝 開國功臣 大將 沐英의 아들이다. 沐春·沐晟의 동생이다. 그는 처음 府軍左衛 指揮僉事가 되었다. 成祖가 沐晟에게 南征을 명했을 때, 沐昂은 都指揮同知로 승진시켜 雲南都司를 통령하도록 했으며, 이후 右都督에 올랐다. 正統 4년(1439)에 沐晟이 병으로 세상을 떠남으로, 沐昂은 帥印을 계승하여 兵部尙書 王驥 등을 도와 思任發의 叛亂을 정토하였다. 正統 10년(1445)에 그는 雲南에서 죽었는데, 定邊伯에 임명되었고, 諡號는 武襄이다.
- 85) 滇: 지금의 雲南省 東部에 위치한 瀾池 附近 일대를 일컫는데, 雲南省의 別稱으로도 사용된다. 顏師古는 “그 지역에 瀾池가 있는 까닭에, 이를 좇아 이름한 것이다. 滇의 음은 顧이디(地有瀾池, 因爲名也. 讀音顧)”이라 했다. 滇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동북아역사자료센터 21 『史記』 「西南夷列傳」 譯註 주5) 참조.
- 86) 雲南總兵官右都督 沐昂의 上奏 내용은 『英宗實錄』 卷116 正統 9년 5월 庚午條에 있으며, 正統帝는 이를 가납하였다.
- 87) 千戶: 明代 각 지역에 주둔하는 衛所制下 世襲職의 하나인 千戶所의 長으로서 軍戶 1,120명을 거느린다.
- 88) 京師: 수도를 의미하며, 이때의 수도는 北京이었다. 明朝는 처음에는 南京을 수도로 정하였으나 永樂 元年(1403)에 北京을 順天府라 하고 永樂 19년(1421)에 이곳으로 遷都하였으며, 이후로 중국의 수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 89)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44 正統 11년 8월 癸卯條에 있거나와 본문의 正統 12년에는 正統 11년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京師에 이르기 전 緬甸이 思任發 및 그의 처와 자녀 32명을 雲南에 이르러 바쳤다는 내용이 『英宗實錄』 卷136 正統 10년 12월 丙辰條에 기재되어 있다. 『英宗實錄』 卷144 正統 11년 8월 癸卯條에 있는데, 木邦의 宣慰 罕蓋法과 緬甸의 옛 宣慰의 아들 馬哈省·以速剌은 陶孟 刀路猛 등을 千戶 王政과 함께 명에 보내 思任發의 수급과 여러 포로의 수급을 바쳤다.

- 90)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44 正統 11년 8월 癸卯條에 있고, 『明史』 卷314 『麓川傳』 에도 正統 11년의 일로 기재되어 있거나와, 본문의 正統 12년이라는 연도는 正統 11년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 91) 思機發(?~1454): 思任發의 아들로, 明代 麓川土司인. 正統 11년(1446)에 '麓川의 役'에서 思任發이 重病에 들어 明軍에 斬殺되자, 思機發은 明朝에 항복을 청했다. 正統 12년(1447)에 黔國公 沐斌이 다시 進奉를 일으켜 세 차례 麓川을 征討했는데, 이때 思機發의 叔父 思隆發이 화평을 청하자 그는 緬甸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景泰 5년(1454)에 思機發은 緬甸에 의해 明朝에 보내져, 北京에 押送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 92) 正統 11년(1447) 9월의 일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45 正統 11년 9월 庚辰條 참조.
- 93) 景泰: 명 왕조 7대 황제인 景宗 朱祁鈺의 年號인.
- 94) 景泰 2년(1451) 8월의 일이다. 『英宗實錄』 卷207 景泰 2년 8월 己巳條 참조.
- 95)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07 景泰 2년 8월 癸巳條에 있는 雲南總兵官都督 沐瑋이 올린 上奏文에 보일.
- 96) 參將: 明代에 변경 지역을 수비하는 관직으로 정원은 없고, 지위는 總兵과 副總兵 다음으로 각각 路를 지었다. 명칭시대 漕運 官員 중에는 參將이 있었는데, 식량 운반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97) 景泰 5년(1454) 3월에 緬甸인이 옛 땅을 찾자 左參將 胡志 등이 銀夏 등지의 지역을 그들에게 주고서

경태제는 사복밭이 이미 멀리 도망했기 때문에 끝까지 쫓을 필요는 없다고 하고,⁹⁸⁾ 이에 더 많은 금폐(鎡幣)를 하사하고, 칙서를 내려 표창하였다.⁹⁹⁾

成化七年，鎮守太監錢能言，緬甸宣慰稱貢章·孟養舊為所轄，欲復得之。帝命往勸，貢章係木邦·隴川分治，孟養係思洪發所掌，非緬境，乃令雲南守臣傳防諸部，而緬甸以所求地乃前朝所許，貢章乃朝貢必由之途，乞與之。又乞以金齒軍餘李讓為冠帶把事，以備任使。兵部尚書余子俊等以思洪發不聞有過，豈可奪其地，李讓中國人，而與為把事，亦非體，宜勿許。帝命兵部諭其使，孟養·貢章是前朝貢所由，當防邊臣往諭思洪發，以通道往來，不得阻遏，餘勿多掣。

성화(成化)¹⁰⁰⁾ 7년(1471)에 진수태감(鎮守太監)¹⁰¹⁾ 전능(錢能)¹⁰²⁾이 아뢰기를, 먼전의 선위[사]가 공장(貢章)·맹양(孟養)은 옛날에 [자신이] 관할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다시

효유하니, 思洪發 및 그의 처와 자녀 6명을 보내 金沙江村에 이르렀는데, 호지 등이 이들을 隴衛에 가둬 京師로 압송하였다. 南寧伯 毛福壽가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곧 사기밭은 京師에서 誅殺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39 景泰 5년 3월 庚辰條 및 『殊域周咨錄』 卷9 南百夷條 참조.

98)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42 景泰 5년 6월 辛卯條 참조.

99) 景泰帝는 緬甸軍民宣慰使司의 宣慰使 葡刺浪, 馬哈省, 以速刺이 思機發을 京師로 압송해 온 일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錦繡紵絲襪을 이들에게 내렸다. 『英宗實錄』 卷245 景泰 5년 9월 庚戌條 참조.

100) 成化: 명 왕조 9대 황제인 憲宗 朱見深的 年號인.

101) 鎮守太監: 鎮守는 한 지방을 總轄하는 자라는 뜻으로 明代 武官職의 하나였는데, 洪熙 元年(1425)에 환관인 王安이 감속성의 鎮守가 됨으로 최초로 환관이 鎮守에 임명되었고, 이후 正統 元年(1436~1449)에는 각 省의 여러 鎮에 환관이 두루 임명되었다. 鎮守太監 혹은 鎮守宦官이라는 명칭은 이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嘉靖 8년(1529)에 革罷되었다. 『明史』 卷73 『職官』3 宦官條 참조.

102) 錢能: 成化 元年(1465~1487)에 가장 탐욕스럽고 아첨에 능했던 太監 梁芳의 일당으로 이 당시 운남에 진수하였는데 횡포가 심했다. 전능은 指揮 郭景 元에 王帶·寶羅·羅衣·羅段·大馬·弓箭·鞍轡 등의 물품을 사적으로 안남국왕에게 보냈다. 또 指揮 盧安을 干豫·孟密 등 宣撫司使에 보내 재물을 요구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후에 貴州巡撫 陳宣이 전능을 탄핵하면서 동시에 여러 지역에 파견되어 진수하고 있는 태감들을 철수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성화제는 불허하였다. 이후 巡按御史 甄希賢이 守藏千戶 1명을 때려 죽였다는 죄목으로 전능을 탄핵하였으나 성화제는 역시 처벌하지 않고 그를 운남에서 불러들이 南京에 안치시켰다. 전능은 뇌물과 연줄을 이용하여 南京守備가 되었으나, 당시 王恕가 南京 參贊尚書였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하지는 못하였다. 『憲宗實錄』 卷168 成化 13년 7월 乙亥條 참조.

알려려 한다고 했다. [이에] 성화제가 가서 조사하도록 명했는데, 공장은 목방(木邦)·농천(隴川)¹⁰³⁾이 나누어 다스리고 맹양은 사홍발(思洪發)¹⁰⁴⁾이 맡아 다스리는 곳으로 먼전의 땅이 아니라고 하니, 이에 곧 운남의 수신(守臣)¹⁰⁵⁾에게 명하여 여러 부락(部落)에 [이를] 신칙(申飭)하도록 하였다.¹⁰⁶⁾ 그런데 먼전은 [그들이] 요구하는 땅은 곧 전조(前朝)에서 [주웠다] 허락한 것이고, 공장은 곧 조공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임으로 이를 주기를 청하였다. 또 금치(金齒)¹⁰⁷⁾의 정식 군적(軍籍)을 취득하지 못한 이양(李讓)을 파사(把事)¹⁰⁸⁾의 관직에 임명하여 사신의 임무를 갖출 수 있도록 청하였다. [이에] 병부상서 여자준(余子俊)¹⁰⁹⁾ 등이,

103) 隴川: 지금의 雲南省 德宏傣族景頗族 지역에 있는 縣이다. 傣族들은 이 지역을 태양이 눈부시게 비치는 곳이라고 불렀다. 東漢시대에는 永昌郡 哀牢縣에 속했고, 唐과 南詔에서는 永昌節度에 속했으며, 宋代에는 大理金齒에 속했다. 南宋 紹興 30년(1160)에 麓川의 思氏가 흥기하여 劄卯에서 여러 부락을 통일한 후 隴川까지 병합한 후 政권을 세웠다. 元 至元 13년(1276)에 麓川路와 平羅路를 설치하였다. 至順 원년(1330)에 麓川軍民總管府를 설치하여 원래 麓川을 관리하였다. 至正 15년(1355)에 平福宣慰使司를 설치하였다. 명 正統 9년(1444)에 麓川平福宣慰使司를 철폐하고 麓川宣撫司를 설치하여 隴川과 瑞麗 등 지역을 관리하였다.

104) 思洪發(1505~1543): Thohanwa의 音譯이다. 孟養의 押(Shan)족으로, 思倫發의 아들이다. 1527년에 그의 부친 思倫發이 阿瓦(Ava)를 공격하여 점거하고 阿瓦의 王인 莽紀歲를 죽이고서 그의 아들인 思洪發을 國王으로 세웠다. 思洪發은 緬甸의 역사상 暴君으로 유명하며, 특히 그는 1540년에 360명의 僧侶를 阿瓦로 유인하여 죽이고 각 지역 寺院에 있는 經典을 수색하여 모두 불태웠다. 결국 그는 1543년에 緬族 大臣인 明吉耶囊에게 살해되었다.

105) 守臣: 각 지역을 지키고 다스리는 臣下, 즉 各 省의 巡撫, 布政使, 都事 등 鎮守官을 일컫음.

106)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94 成化 7년 8월 癸亥條에 있는데, 원칙이 貢章과 孟養을 관장했다고 한 緬甸의 宣慰使는 卜刺浪으로 기록되어 있다.

107) 金齒는 元代에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元의 世祖 至元 4년(1267)과 10년(1273)에 雲南을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金齒는 그 중 하나이다. 至元 28년(1291)에 다시 大理金齒等處宣慰司都元帥府를 설치하였는데, 明代의 永昌城(지금의 운남성 保山縣城)이다.

108) 把事는 通事·通把·土火頭 등과 함께 土司의 官職으로, 文職에 속했다(成錄錄, 2002: 91).

109) 余子俊(1429~1489): 字는 士英이며, 지금의 四川省 瀘州市 青神縣 사람이다. 景泰(1450~1456)에 進士가 되어 戶部主事로 10년 재직기간 동안 청렴하고 유능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이후 右副都御史에 발탁되어 延綏를 巡撫하였고, 친히 邊牆城隍 건설을 감독하였는데, 동쪽 清水營(지금의 陝西 府谷縣 麻洞)에서 서쪽 花馬池(寧夏 鹽池縣)까지 1,770리에 이르렀다. 成化 12년(1476)에 陝西 巡撫로 개임하여 西安城 西北쪽의 餘公渠를 개착하고 涇陰에서 산을 뚫으니 田 1,000여顷에 물을 갈아다 내었다. 成化 20년(1484)에 戶部尚書 겸 右副都御史가 되어 大同과 宣府의 軍務를 總督하였다. 그는 延綏 邊牆의 사례를 선부와 대동에서도 시행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災荒이 있달아 발생하여公私가 피폐하여 言官이 그를 탄핵하였다. 憲宗 말에 兵部尚書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明史』 卷178 『余子俊傳』).

사홍발이 과오가 있다는 보고가 없는데 어찌 그 땅을 빼앗을 수 있고, 이양은 중국 사람인데 그를 파사로 삼는 것 또한 옳지 않으니 마땅히 용허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성화제는 병부에 명하여 그 사신을 효유하도록 했는데, 맹양·공장은 그대들이 조공할 때 거처야 하는 곳임으로 마땅히 변방을 지키는 신하로 하여금 가서 사홍발을 효유하여 길을 개통하여 왕래하는 데 막힘이 없도록 할 것이니, 그 나머지는 많이 바라지 말라고 하였다.¹¹⁰⁾

弘治元年，緬甸來貢，且言安南侵其邊境。二年遣編修劉戡諭安南罷兵。然緬地隣孟養，而孟養以緬先執思任發，故怨緬。

홍치(弘治)¹¹¹⁾ 원년(1488)에 면전이 내조하여 공물을 바치면서¹¹²⁾ 또 안남(安南)이 그들의 변경을 침범했다고 아뢰었다. [홍치] 2년(1489)에 [조정은] 편수(編修)¹¹³⁾ 유건(劉戡)¹¹⁴⁾을 안남에 보내 군대를 철수하도록 효유했다. 그러나 면전의 땅은 맹양에 인접해 있고, 맹양은 면전이 이전에 사임발을 잡아갔기 때문에 면전에게 원한이 있었다.¹¹⁵⁾

참조).

- 110)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憲宗實錄』 卷195 成化 15년 동10월 乙酉條에 보인다.
- 111) 弘治: 명 왕조 10대 황제인 孝宗 朱祐樞의 연호이다.
- 112) 緬甸이 弘治 원년(1488)에 내조하여 공물을 바친 것은 실록의 기사에 9월과 12월로 나타나지만 『孝宗實錄』 卷18 弘治 원년 9월 乙酉條 및 卷21 弘治 원년 12월 庚子條) 안남이 그들을 침범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 113) 編修: 翰林院 編修를 일컬으며, 官名은 正七品이다. 殿試의 1등은 修撰을, 2·3등은 編修를 제수하였고, 2·3甲等은 시열을 치러 庶吉士로 선발하였는데, 이들 모두를 翰林官이라 하였다.
- 114) 劉戡(1435~1489?): 字는 景元이고, 號는 晉軒이며, 江西 安福縣 사람이다. 成化 11년(1475)에 進士에 급제하여 翰林院 編修에 제수되었으며, 成化 23년(1487)에 侍講으로 陞任하였다. 孝宗이 즉위해서 그는 황제의 명을 받아 交趾(지금의 베트남)에 出使했는데, 交趾에 도착한 첫 날에 詔書를 頒布하고 다음날 宴會를 벌이고 곧 돌아왔으며, 일체의 선물을 사절하였다. 이 때문에 交趾의 大臣이 入朝하여 謝恩하면서 劉戡를 '廷臣清白'이라 칭하였으며, 思明道에 '却金亭'一座를 세웠다고 한다. 그는 交趾에서 돌아온 후 諱論도 승임했지만 2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문학적 소양도 많았는데, 저서로 『晉軒集』이 있다.
- 115) 正統 연간(1436~1449)에 孟養은 思氏가 이미 점거하여 제2의 麓川이 되었는데, 正統 11년(1446)에 緬甸이 麓川의 思任發의 首級을 베어 京師에 보내고, 景泰 5년(1454)에 또 思機發을 붙잡아 바침으로 인해 孟養과 緬甸은 세세 원수가 되어 여러 차례 서로 공격하고 殺戮을 했다(龔蔭, 1988: 187).

嘉靖初，孟養酋思陸子思倫糾木邦及孟密，擊破緬，殺宣慰莽紀歲并其妻子，分據其地。緬訴於朝，不報。六年始命永昌知府嚴時泰·衛指揮王訓往勸。思倫復縱兵鼓噪，焚驛舍，殺齋金牌千戶曹義，時泰倉皇遁，乃別立土舍聿卜信守之而去。值安鳳之亂，不暇究其事。

가정(嘉靖)¹¹⁶⁾ 초에 맹양의 주장 사륜(思陸)¹¹⁷⁾의 아들 사륜(思倫)¹¹⁸⁾이 목방(木邦) 및 맹밀(孟密)¹¹⁹⁾을 규합하여 면전을 격파하고서, 선위[사] 망기세(莽紀歲)¹²⁰⁾와 아울러 그의 처자식을 죽이고 그 지역을 나누어 점거하였다.¹²¹⁾ 면전이 조정에 호소하였으나 [가정제는] 회답을 하지 않았다. [가정] 6년(1527)에 비로소 영창(永昌)¹²²⁾의 지부(知府)¹²³⁾ 엄시태(嚴時泰)¹²⁴⁾·위지휘(衛指揮)¹²⁵⁾ 왕훈(王訓)에게 명하여 [그곳에] 가서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 116) 嘉靖: 명 왕조 제12대 황제인 世宗 朱厚熜의 연호이다.
- 117) 思陸: 思陸發일. 여러 서적에 思六發로도 기재되어 있고, 思肅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 118) 思倫: 思縣(思陸)의 아들로, 嘉靖 初에 思縣이 죽자 宣慰使를 世襲했다.
- 119) 孟密: 成化 20년(1484) 6월에 木邦의 서부 지역을 나누어 安撫司를 설치했으며, 萬曆 12년(1585)에 宣撫사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萬曆 18년(1591)에 緬甸의 땅으로 편입되었고, 清初에 다시 중국의 영토가 되었으나 곧 다시 緬甸에 예속되었다. 지금의 緬甸 椰那 서북쪽에 위치한 蒙米特 지역임.
- 120) 莽紀歲(제위 1502~1527): 阿瓦(Ava)의 國王인 瑞璽喬信(Shwenankyawshin)을 일컫는다. 1527년에 木邦·孟密과 연합한 孟養의 주장 思倫의 침공을 받아 죽었다. 이후에 東緬(Taungoo) 왕조를 세운 莽瑞體(Mabinshwehti)는 그의 아들이다.
- 121)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93 嘉靖 7년 10월 戊辰條 및 『瀕雲歷年傳』 卷8에 있다. 이에 의하면, 緬甸이 思機發을 붙잡아 명 조정에 바치면서부터 孟養과 緬甸은 마침내 원수가 되어 成化·弘治·正德 연간에 걸쳐 서로 다투었는데, 嘉靖 시기에 이르러 孟養은 점점 麓한데 반해 緬甸은 약해졌다. 마침내 思倫은 그 부강함을 바탕으로 木邦, 猛密과 연합하여 兵象을 앞세워 緬甸을 공격하여 격파했으며, 緬甸의 宣慰 莽紀歲와 그의 妻子를 사로잡고 海일할 수없이 살육과 약탈을 감행했으며, 마침내 그 지역을 분할하여 점거해버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 122) 永昌: 8세기 무렵 南詔가 설치한 府인데, 治所는 지금의 雲南 保山이며, 清代에는 지금의 永平·保山·施甸·龍陵·永德·鳳康 등 여러 縣을 관할했다.
- 123) 知府: 府의 장관으로 관품은 正四品이며, 1명이 두어졌다. 知府는 한 府의 정무를 주관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옛 官名에 따라 太守 혹은 郡守라고도 한다. 직무는 한 府의 풍속과 교화를 發揚하고, 訟事를 공평히 하며, 세금과 요역을 균등히 하여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3년마다 소속 관리의 賢否를 살피고 그 성격의 고하를 매겨 省에 보내고 吏部에 보고하였다.
- 124) 嚴時泰: 字는 應階이며, 餘姚人이다. 正德 6년(1511)의 進士로, 贛江府 同知를 지냈으며, 嘉靖 연간(152

사촌이 밤에 군대를 풀어 북을 치고 떠들어대면서 역사(驛舍)에 불을 지르며 금패를 가지고 간 천호(千戶) 조의(曹義)를 살해하자 엄시태가 황급히 달아나니, 이에 따로 토사(土舍)¹²⁶⁾인 망복신(莽卜信)을 세워 이를 지키도록 하고 가버렸다.¹²⁷⁾ [그런데] 마침 안풍(安風)의 난(亂)¹²⁸⁾이 일어나 이 사건을 추궁할 겨를이 없었다.

莽紀歲有子瑞體，少奔匿洞吾母家，其翁養爲己子。既長，有其地。洞吾之南有古喇，濱海，與佛郎機隣。古喇酋兄弟爭立，瑞體和解之，因德瑞體，爭割地爲獻，受其約束，號瑞體爲唵喇。瑞體乃聚衆絕古喇糧道，殺其兄弟，盡奪其地，諸蠻皆畏服之。時滅緬者木邦·孟養，而與緬相抗者孟密也。孟密土舍兄弟爭立，訴於瑞體。瑞體乃納其弟爲婿，改名思忠，遣歸孟密，奪其兄印，因假進攻孟養及邁西諸蠻，以復前仇，又使其黨卓吉侵孟養境。後卓吉爲思忠婿猛頭目別混所殺，瑞體怒，自將攻別混父子，擒之。遂招誘隴川·千崖·南向諸土官，欲入寇。既視知有備，又慮他蠻襲其後，乃遁歸。於是鎮巡官沐朝弼等上其事。兵部覆，荒服之外，治以不治。唵喇已畏威遠遁，傳諭諸蠻，不許交通結納。詔可。時嘉靖三十九年也。

망기체(莽紀歲)에게는 망시체(莽瑞體)¹²⁹⁾라는 아들이 있는데, 어려서 동오(洞吾)¹³⁰⁾에 이

2~1566)에 永昌 知府를 지내면서 諸蠻을 편력하였다.

- 125) 衛指揮: 명대에 각 衛, 京衛, 王府護衛 및 소수민족 지구에 모두 指揮를 두었는데, 衛指揮는 正三品의 각 衛 장관으로서 同知나 僉事와 함께 衛事를 담당했다. 청대에 들어와 順治 원년(1644)에 명대의 제도를 본받아 지휘사를 설치했지만, 順治 2년(1645)에 폐지했다.
- 126) 土舍: 토사의 屬官이다. 그의 權力은 토사의 속관인 一般 大頭人과 같으나 그 地位는 大頭人보다 높다. 土舍는 토사의 親屬으로 토사의 職을 이을 자가 없을 경우에 그 職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 127) 이때의 정황은 『瀟雲歷年傳』 卷8에 두 기록되어 있음.
- 128) 安風之亂: 『武定安範之亂』이라고도 부르는데, 嘉靖 7년(1528)에 尋甸의 彝族大土司인 安範과 그의 妻家人 武定の 彝族大土司 鳳朝文이 知府 馬性魯의 부당한 歲糧徵收에 항거해서 일으킨 반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86 嘉靖 7년 3월 癸巳條 참조.
- 129) 莽瑞體(1516~1550): '금으로 된 단단한 우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Tabinswhehti를 譯한 것이다. 그는 태어나면서 몸이 광체가 나 빛이 실내에 가득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 그는 미얀마 東巔(Taungoo) 왕조의 창시자(재위 1531~1550)로 페구(Pegu)·마르타반(Martaban)·타라인·프롬(Prome)을 공략하여, 페구를 수도로 정하고 중부 미얀마를 통합하였으며 왕조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는 외가로 도주하여 숨자 그곳의 추장이 자기 아들로 삼아 양육했다. [그는] 장성해서 그 지역을 점유했다.¹³¹⁾ 동오의 남쪽에는 고라(古喇)¹³²⁾라는 곳이 있는데, 바닷가에 있으며 불랑기(佛郎機)¹³³⁾와 인접해 있다. 고라의 추장 형제는 계위를 쟁탈했는데, 망시체가 이들을 화해시키자 [이들은] 망시체에게 감복해서 땅을 쪼개어 다투어 현상하여 그의 관속(管束)을 받았으며, 망시체를 달라(唵喇)¹³⁴⁾라고 불렀다. [그런데] 망시체가 곧 무리를 이끌고 고라의 양식을 운반하는 도로를 끊고서 그들 형제를 죽이고 그 지역을 모두 탈취하니, 여러 만인(蠻人)들

1287년의 원나라 원정으로 쇠퇴해진 과간 왕조를 찬탈한 산(Shan)족이 阿瓦(Ava) 왕조를 세운 이래, 미얀마는 약 2세기 동안 산족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 사이 미얀마족은 東巔 이남으로 퍼진하여 미얀마족 재흥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실현한 사람이 타민쉬웨티이다. 그는 즉위해서 담파제디(Dammazedi, 재위 1472~1492) 이후 분열에 휩싸인 페구를 공격하여 하루 미얀마의 비옥한 농지를 점령하고, 포르투갈과의 교역으로 번영하고 있던 페구의 주요 항구들을 점령하여 자금원을 확보하였다. 포르투갈과의 교역항을 점령한 후로, 유럽의 우수한 총포류를 수입하고 포르투갈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여(그 수는 한때 700명에 이르렀다)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16세기 전반 페구·마르타반·타라인·프롬을 공략한 후 페구를 수도로 정하고서 중부 미얀마를 통일하였다. 1546년에는 아라칸(Arakan)으로, 1549년에는 태국으로 건국하여 왕조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궁정생활의 부패가 원인이 되어 몬(Mon)족의 반란이 일어나 암살당했다. 그런데 원문의 莽瑞體와 관련된 내용은 嘉靖 말에서 萬曆 초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미 莽瑞體가 죽은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원문의 내용은 莽瑞體의 뒤를 이어 1551~1581년까지 재위한 莽應裏의 활동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130) 洞吾: 명 왕조가 東巔 왕조(Taungoo Dynasty)에 대해 부른 呼稱임.

131) 『叢史』 卷13에 보면, 莽瑞體가 그 나라를 얻은 것은 嘉靖 33년(1564)으로 기재되어 있거니와 莽瑞體는 養母와 私通하고 養父를 죽이고서 그 지역을 점유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132) 古喇: 擺古라고도 불렀다. 지금은 勃固(Pegu)라 하며, 미얀마 緬仰光 동북 지역이다.

133) 佛郎機: 明代에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상업세력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서는 그 가운데 포르투갈을 가리킨다. 한편 佛郎機는 무력을 앞세워 물의를 일으키는 야만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원래 佛郎機라는 명칭은 이슬람교도들이 유럽인 혹은 서방 기독교도를 지칭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들을 佛郎機라 하게 된 것은 중국인들이 동남아에서 진출한 뒤 이슬람교도 앞서 이곳에 있던 이슬람교도들이 이 명칭을 중국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다.(Matteo Ricci, 1953: 128) 그런가 하면 崔韶子는, 佛郎機라는 어원은 프랑크(Franks)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崔韶子, 2002: 27~28) 佛郎機는 포르투갈에서 전래해 들어온 火砲를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佛郎機는 유럽에 있는 포르투갈을 가리키기보다는 正德 6년(1511)에 포르투갈이 滿刺加(Malacca)를 점령하여 이후 麻六甲이라 불렀던 것인데(『明史』 卷325 『滿刺加傳』 참조), 이를 불랑기라 한 것으로 보인다.

134) 唵喇: 朱孟質의 『西南夷風土記』 序文 및 『叢史』 卷13에 보면 『唵喇者, 華言公道主人也』라 기재되어 있다.

이 모두 두려워하여 그에게 복종했다.¹³⁵⁾ 당시 면전을 멀하려는 것은 목방·맹양이고, 면전과 함께 서로 항거한 것은 맹밀이었다. 맹밀의 토사(土舍) 형제가 계위를 생달하면서 망서체에게 호소했다. 망서체는 곧 그 동생을 거두어 사위로 삼고서 이름을 사충(思忠)으로 고쳤으며,¹³⁶⁾ 맹밀로 돌려보내 그의 형¹³⁷⁾의 인장을 탈취해서 길을 빌려 맹양과 이서(迤西)¹³⁸⁾에 있는 여러 만족(蠻族)을 공격하여 이전의 원한을 갚으라고 하고, 또 그의 같은 무리인 탁길(卓吉)로 하여금 맹양의 경역을 침범하도록 했다. 후에 탁질이 사진(思眞)의 사위인 맹나(猛乃)¹³⁹⁾ 부락의 우두머리 별혼(別混)에게 살해당하자, 망서체가 노하여 친히 군대를 이끌고 장차 별혼 부자를 공격하여 사로잡으려 했다.¹⁴⁰⁾ 마침내 농천(隴川)·간애(干崖)¹⁴¹⁾·남전(南甸)¹⁴²⁾ 등 여러 토관을 불러 모아 침입해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미 방비를 하고 있음을 엿보아 알아차리고, 또 다른 만족(蠻族)이 그의 후방을 습격할 것을 염려하여 곧 도망쳐 되돌아갔다. 이에 진순관(鎮巡官)¹⁴³⁾ 목조필(沐朝弼)¹⁴⁴⁾ 등이 이 사정을 상주했다. 병부(兵部)에서 심의하

- 135)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韻史』 卷13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古喇宜憐司는 南海의 해안가에 있는 南瀾羅의 영토이고 洞洞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는 馬革이라는 大部落이 있는데, 사람들은 德勝이라고 부른다고 하며, 그 추장의 이름은 排來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136) 天啓『韻史』 卷30 「瑞巖志·土司官氏」; 猛密宜撫司條에 보면, 嘉靖 초에 思奔과 思混이 서로 世襲을 다투었는데, 緬甸이 思奔을 죽이고 思混을 세웠다고 기재되어 있다. 實錄에는 思混의 둘째 아들 思珠를 사위로 삼았다고 기재되어 있다(『世宗實錄』 卷482 嘉靖 39년 3월 甲午條).
- 137) 實錄에 보면 그의 형의 이름이 思宋으로 기재되어 있다(『世宗實錄』 卷482 嘉靖 39년 3월 甲午條).
- 138) 迤西: 明清시대 雲南 西部地區를 지칭한 말인데, 대체로 현재의 大理·麗江·永昌 등지를 포괄한 지역이다. 魏鑑: 「迤西는 孟養의 俗稱이다」라고 하고 있다(魏鑑, 1988: 187).
- 139) 猛乃: 猛乃村을 말하며, 지금의 雲南 寧河縣 東南쪽에 위치함.
- 140) 이상의 상황은 『韻史』 卷13에 嘉靖 37년(1558)의 일로 기재되어 있거나 “猛密思歪孫思漢男思奔思縉兄弟爭立, 奔奔奔, 瑞體與思氏世仇也. 乘亂報讐, 陽爲解紛, 而除謀并之. 乃刺死思奔(一云思眞), 以思漢次子思珠(一云卓)管猛密. 遂假途於珠以掠孟養, 即留夾目卓吉守之. 未幾, 卓吉爲奔婚別混所殺. 瑞體破猛密, 遂殺別混. 將內寇”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道光『雲南志鈔』, 「土司」에는 嘉靖 29년(1550)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魏鑑, 1988: 234).
- 141) 干崖: 지금의 雲南 盈江縣 東北의 干崖鎮에 治所를 두었으며, 지금의 雲南 太平江 유역을 관할했던 토司이다. 永樂 원년(1403)에 長官司를 설치하였는데, 正統 9년(1444)에 宣撫司로 승격시켰다. 南甸·隴川 兩宣撫司와 더불어 ‘三宣’이라 칭한다.
- 142) 南甸: 지금의 雲南 騰衝 남쪽 지역에 治所를 두었으며, 지금의 雲南 騰衝 이남 지역과 龍川江 서북 지역을 관할했던 토司이다. 元나라 至元 26년(1289)에 路를 두었고, 明 洪武 연간(1368~1398)에 府로 고쳤으나 곧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永樂 연간(1403~1424)에 州가 설치되었고, 正統 연간(1436~1449)에 이를 바꾸어 宣撫司를 설치했다. 干崖·隴川 兩宣撫司와 더불어 ‘三宣’이라 칭한다.

여 아뢰기를, 화외(化外)의 만이(蠻夷)는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도] 달라(唵喇)는 이미 [조정]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멀리 달아났으니, 여러 만민들에게 황제의 유지를 전하여 [그와] 교통해 결탁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했다. [이에] 가정제는 [조]를 내려 가납하였다.¹⁴⁵⁾ 때는 가정 39년(1560)이다.

木邦土舍罕拔求襲不得, 怒投於緬, 潞江宣撫線貴聞之, 亦入緬. 瑞體自以起孤微, 有兵衆, 威加諸部, 中國復禁絕之, 遂謀內侵, 乃命線貴起召隴川土官多士寧. 士寧言中國廣大, 誠勿妄動, 瑞體稍稍寢. 未幾, 士寧爲其下岳鳳所殺, 干崖宣撫刀怕舉亦死. 罕拔乃請瑞體入干崖, 干崖舉, 則隴川可坐定也. 瑞體子應裏架點多智, 言於瑞體曰: 「隴川·干崖雖無主, 遠難猝取, 孟養思箇近在肝腋, 又吾世仇, 萬一乘虛順流下, 禍不測.」 瑞體深然之, 因借木邦兵一萬取干崖, 而自率兵侵孟養. 既至, 屢爲思箇所敗, 思箇亦退保孟倫, 相持久之. 而隴川書記岳鳳欺其主幼, 私齎賂投緬, 結爲父子. 蠻莫土目思哲亦迎附瑞體, 調練兵萬餘, 出入於迤西界上, 以牽制思箇. 復征木邦罕拔兵, 會岳鳳於隴川, 襲孟密.

목방(木邦)의 토사(土舍) 한발(罕拔)이 계승을 청했으나 이루지 못하자 분노하여 면전에 투항했는데,¹⁴⁶⁾ 노강(潞江)¹⁴⁷⁾의 선부사(宣撫使) 선귀(線貴)가 이를 듣고서 [그] 역시 면

- 143) 鎮巡官: 각省的 巡撫, 布政使, 都事 등을 鎮巡官이라 일컫는다.
- 144) 沐朝弼: 定遠人으로, 兄 沐輔朝의 아들 沐聰·沐霖이 계속해서 이어 세상을 떠나 沐朝弼이 형의 작위 沐國公을 이어 雲南을 鎮守했다. 그런데 隆慶 6년(1572)에 죄를 지어 체포되어 京師에 이르러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때 張居正이 그의 始祖로부터 3대가 모두 큰 공이 있음으로 용서해 주기를 청하자 南京에 보내어 백성으로 강등하였다.
- 145) 이상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482 嘉靖 39년 3월 甲午條에 기재되어 있다.
- 146)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韻書歷年傳』 卷8에 있는데, 隆慶 2년(1563)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罕拔이 明朝에 사신을 보내 襲職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명의 관리가 뇌물을 요구하고 지연시키면서 나무랐다. 이를 전해들은 罕拔이 노하여 그의 동생 罕牟와 군대를 모아 길을 끊고 漢人的 통행을 금지시키려했다. 후에 罕拔은 소금이 부족하여 莽瑞體에게 구했는데 소금을 보내주자 이에 그는 金寶象馬를 가지고 莽瑞體를 알현하여 사은했고, 莽瑞體 역시 罕拔을 환대하며 마침내 父子의 연을 맺었다.
- 147) 潞江: 潞江安撫使司를 일컫음. 永昌과 騰越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潞江에 연결해 있어 강 이름을 따 潞江이라 했다. 至元 연간(1264~1294)에 系邊路에 예측했으나, 永樂 원년(1403)에 조정에

전에 귀순하였다.¹⁴⁸⁾ 망서체는 스스로 홀로 미천한 신분에서 일어나 군대를 가지게 되자 여러 부락에 위세를 부렸는데, 중국이 다시 [그들과의 왕래를] 금지하여 두절시키자 마침내 내지로 침범하기를 도모하고서, 곧 선귀에게 농천(隴川) 토관(土官) 다사녕(多士寧)을 속히 불러오라고 명하였다. 다사녕이 중국은 광대(廣大)하다고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니, 망서체는 조금 주춤하였다.¹⁴⁹⁾ 오래지 않아 다사녕이 그의 부하 악봉(岳風)¹⁵⁰⁾에게 피살되고, 간애(干崖) 신무(申武)의 사(宣撫使) 도과거(刀怕舉)도 죽었다. 한말이 곧 망서체에게 간애(干崖)로 침범해 들어가도록 청했는데, 간애를 탈취하면 농천을 쉽게 평정시킬 수 있었다. 망서체의 아들 망응리(莽應裏)¹⁵¹⁾는 흉포하고 간교하며 피가 많았는데 망서체

귀부하여 이곳에 澗江長官司를 설치했으며, 곧 安撫司로 승격시켰다. 그 지역은 지금의 雲南 保山縣 서남쪽에 위치한 澗江壩이다.

148) 이에 관한 내용은 『滇雲歷年傳』 卷8에 있는데, 線貫의 직책은 宣撫使가 아니라 安撫使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明史』 『地理志』나 道光『雲南志鈔』 『土司志』에도 安撫使로 기재되어 있다(偶蘇, 1988: 190).

149) 이에 관한 내용은 『滇雲歷年傳』 卷8에 있는데, 당시 多士寧은 중국의 넓이를 비유하여, 雲南은 중국의 백분의 일이고 緬甸이 관할하는 지역은 천분의 일에 지나지 않으니, 경계망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50) 岳風, 본래는 江西 撫州 사람으로 간교하고 지략이 많았다. 行商을 하다가 隴川에 이르러 隴川宣撫使 多士寧과 왕래하며 매우 친해졌으며, 다사녕은 그를 신임하여 누이동생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면서 다사녕의 비위를 맞추면서 비밀리에 그의 권한을 점차 빼앗았다. 급기야 罕拔 등 三直六嶽 가 土舍 등과 敵血로 명약을 맺고 萬曆 원년(1573)에 그는 多士寧과 그의 妻子를 유인하여 죽이고, 金牌印符를 탈취하여 緬甸宣撫司에 바치고 거짓 명령을 받아 多士寧을 대신하여 宣撫가 되었다. 후에 緬甸의 군대와 힘을 합쳐 여러 차례 雲南 西南部의 여러 司를 침범했다. 萬曆 10년(1582) 겨울에 그는 緬甸의 군대와 地方 여러 土司를 끌어들이고, 象鼻 수심 만을 나누어 이끌고 雷亨·蓬達·干崖·南甸·木邦 등지를 공격하여 살육과 약탈을 하였고, 계속해서 騰越·永昌·大理·蒙化·景東·麗元·元江 등지로 밀고 들어갔다. 萬曆 11년(1583) 정월에는, 緬甸을 약탈하고 順寧·蓬達를 격파하여 약탈 하였으며, 그의 아들 麗鳥에게 6만의 무리를 이끌고 孟琳寨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 당시 明의 指揮 吳繼勳·千戶 鄒維垣이 이를 저지하다가 모두 戰死했다. 이후로도 이들 叛軍을 저지하기 위해 明朝는 대군을 진공시켜 여러 차례 그의 세력과 전투를 벌였으며, 萬曆 12년(1584)에 이르러 사방으로 포위당한 그는 城을 나와 投降했다.

151) 莽應裏(1535~1599): 미얀마 퉁구(Toungoo) 왕조의 군주인 Nanda Bayin을 가리키는데, 莽應龍(Bayinnaung)의 장남이다. 그의 재위기간은 1581~1599년까지로,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明을 공격하였으며, 미얀마의 동쪽에 있던 아유타야(Ayutthaya) 왕조와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였다. 그는 즉위한 후 岳風 등 明朝의 통치에 반대하던 雲南의 土司들과 연합하여 출병하였으나 1583년에 明의 劉繼과 鄧子龍 등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였다. 명조의 지배 하에서 아바(Ava)에 있던 莽應裏의 숙부 猛勾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3년 만에 진압되었다. 1584년에는 아유타야 왕조의 나레수엔(Naresuen)을

에게 아뢰기를, “농천·간애는 비록 주인이 없으나 길이 멀어 갑자기 취하기 어렵습니다. 맹양의 사개(思簡)가 가까이 팔꿈치 아래에 있고 또 우리와는 세대로 원수였으니, 만일 빈틈을 틈타 쫓아 내려오다면 재화(災禍)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망서체는 이를 매우 타당하다고 여기고서, 목방의 군대 1만을 빌려 간애를 공격하여 취하고 친히 군대를 이끌고 맹양을 침범했다. [맹양에] 이르러서 여러 차례 사개(思簡)에게 패퇴 당했고 사개도 물러나 맹륜(孟倫)¹⁵²⁾을 지켰는데, 서로 오랫동안 대치하였다.¹⁵³⁾ 그런데 농천의 서기(書記) 악봉(岳風)이 그의 군주가 이리라고 업신여겼으며, 사사로서 많은 재물을 가져다 면전에 바치고서 부자(父子)의 관계를 맺었다. 만막(蠻莫)¹⁵⁴⁾의 토목(土目)¹⁵⁵⁾ 사철(思哲)도 망서체를 맞이해 의부하였으며, 면전의 군대 만여 명을 동원하여 이서(迤西)의 경계로 출동시켜 사개를 견제하였다. 또 목방 한말의 군대를 징발해서 농천에서 악봉과 회합하여 맹밀을 습격하였다.¹⁵⁶⁾

萬曆元年, 緬兵至隴川, 入之. 岳鳳遂殺戡士寧妻子族屬, 受緬僞命, 據隴川爲宣撫. 乃與罕拔·思哲盟, 必下孟孟, 奉瑞體以拒中國. 僞爲錦囊象函貝葉經文, 稱西南金接白象主莽哇刺弄王書報天帝, 書中爰辭無狀. 罕拔又爲緬招干崖土舍刀怕文, 許

제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병했지만 번번이 패했고, 미얀마의 영토를 빼앗기도 하였다. 또한 1590~1592년까지 그는 몇 차례 윤남으로 출병했다. 그러지만 이때에도 번번이 鄧子龍에게 저지당해 승리하지 못했다. 그의 통치기간에는 부친인 莽應龍(Bayinnaung) 시대와 주변 작은 나라들을 병합하여 이룩한 제국이 해체되었으며, 급기야 1599년에 그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들에게 잡혀 살해되었다. 본문에서는 莽應裏를 莽瑞體의 아들로 기재했는데, 莽應龍은 莽應龍의 장남이거나 莽瑞體에게는 조카이다. 또한 본문의 莽瑞體는 莽應龍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152) 孟倫: 孟養軍民宣慰使司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緬甸의 군대가 침략했을 때 서로 대치했던 지역이다.
 153) 莽瑞體가 干崖와 孟養을 침범한 이상의 내용은 『滇史』 卷13에 보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莽瑞體는 莽應龍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154) 蠻莫: 蠻莫安撫司를 일컫는데, 蠻莫·蠻寨·蠻寨라고도 표기한다. 明 萬曆 13년(1585)에 孟密 北部 지역을 나눠서 安撫司를 설치하였는데, 萬曆 32년(1604)에 미얀마로 편입되었다. 騰衝의 서쪽 蠻哈山 아래에 위치하며, 남으로는 孟密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孟養에 이른다. 지금의 미얀마 카친주(Kachin State) 동남쪽으로 흐르는 太平江 北岸에 위치한 바모(Bhamo) 지역이다.
 155) 土目: 土司制度 下에서 土司에 隸屬한 一種의 官銜이다. 封土와 軍隊 등을 운용하여 文武를 兼理하는 비교적 높은 지위이며 世襲하는데, 그들의 권력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156)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滇雲歷年傳』 卷8에 기재되어 있음.

代其兄職，怕文拒之，與戰。適應襄率衆二十萬分戍隴·千間，以其兵驟臨之，怕文濟奔永昌。遂取千崖印，付罕拔妹，以女官攝宣撫。召蓋逢副使刀管管·雷弄經歷奉元相佐之，同守千崖，以防中國。於是木邦·蠻莫·隴川·千崖諸蠻，悉附緬，獨孟養未下。

만력(萬曆)¹⁵⁷ 원년(1573)에 먼전의 군대가 농천에 이르러 침입하였다. 악몽은 마침내 다사녕(多士寧)의 처와 자식 친숙을 모두 다 죽이고, 먼전이 내린 거짓 명령을 받고서 농천을 잡기하여 선무사(宣撫使)가 되었다. [그리고] 곧 한발·사철(思哲)과 결맹(結盟)하여 기필코 맹일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망서체를 받들고서 중국에 항거했다.¹⁵⁸ 제멋대로 금낭(錦囊),¹⁵⁹ 상함(象函), 패엽(貝葉)과 먼전문자를 만들고서 서남금루백상주(西南金樓白象主) 망달라룡왕(莽達喇弄王)이라 칭하고 서신을 천황제(天皇帝)에게 보냈는데, 서신 중의 교만한 인사는 형용할 수 없었다.¹⁶⁰ 한발(罕拔)이 또 먼전을 위해서 간에(干崖) 토사(土舍) 도파문(刀怕文)을 불러 항복시키자, [도파문에게] 그의 형의 직책을 대신하도록 허락했다. [그런데] 도파문은 이를 거절하고 [그와] 싸웠다.¹⁶¹ 마침 망응리(莽應裏)가 무리 20만을 이끌고 농천과 간에 사이를 나누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 군대를 이끌고 돌연 공격하자 도파문은 패하여 영창(永昌)으로 달아났다. 마침내 간에의 인장을 탈취하여 한발의 누이¹⁶²에게 주어 여관(女官)으로써 선무사(宣撫使)를 대신하였고, 잔달(蓋逢)¹⁶³의 부사(副使)¹⁶⁴ 도사관(刀思

管)·너룡(雷弄)¹⁶⁵의 경력(經歷)¹⁶⁶ 요원상(郤元相)을 불러들여 그녀를 도와 같이 간에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방어했다.¹⁶⁷ 이에 목방·만박·농천·간에 등 여러 만족이 모두 먼전에 의부하였으며, 맹양만이 홀로 투항하지 않았다.

金騰副使許天琦遣指揮侯度持檄諭孟養，思簡受檄，益拒緬。緬大發兵攻之，思簡告急。會天琦卒，署事羅汝芳攝思簡使，令先歸待援，遂調兵至騰越。簡聞援兵至，喜，令土目馬稼喇送等領兵萬餘，絕緬糧道，且舉大兵伏夏撒緬兵深入。簡率蠻卒衝其前，而約援兵自隴川尾擊之。緬兵既敗，糧又絕，屠象馬以食，瑞體窘甚。會有陳於巡撫王凝，言生事不使者，凝馳使止援軍。汝芳聞撤退，思簡待援不至。岳鳳偵知之，集隴川兵二千兼程進，導瑞體由間道過去。思簡追擊之，緬兵大敗，當是時幾獲瑞體。

금등(金騰)¹⁶⁸의 부사(副使) 허천기(許天琦)가 지휘(指揮) 후도(侯度)를 보내 격문(檄文)을 가지고 가 맹양을 안무하고 효유하도록 했다. 사개(思簡)는 격문을 받고서 더욱 거세게 먼전에 항거하였다.¹⁶⁹ 먼전이 대규모로 군대를 보내어 이를 공격하자, 사개가 급히 고하였다.¹⁷⁰ 마침 허천기가 죽고 대신 일운을 맡은 나여방(羅汝芳)¹⁷¹이 사개가 보낸 사신에게 음식

157) 萬曆：명 왕조 14대 황제인 神宗 朱淸鈞의 연호임.

158) 시기적으로 볼 때, 본문의 莽瑞體는 莽應龍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159) 錦囊：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임.

160) 이에 관한 내용은 『瀛寰歷年傳』 卷8에 있거나와 萬曆 3년(1575)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

161)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瀛史』 卷13에 기재되어 있다. 당시 木邦의 罕拔은 緬甸의 세력을 밀고 干崖 선무사 刀怕舉의 동생 刀怕文을 불러 말하길, ‘나의 형수는 나의 여동생인데, 내가 너에게 그녀를 시집보내고 형의 宣撫職을 세습하게 하려는 것은 干崖를 들어 緬甸에 臣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刀怕文은 두 명의 아들을 태리고 同知인 薛衛·守備인 李騰霄에게 달아났으며, 罕拔이 중국을 배신하고 緬甸을 섬기려 한다고 아뢰고서 이들과 싸우겠다고 했다.

162) 木邦의 宣慰使 罕拔의 누이는 干崖 宣撫使 刀怕舉의 처임.

163) 蓋逢：干崖 宣撫司의 서쪽에 있으며, 干崖의 別部인데, 지금의 雲南省 盈江縣 平原原에 위치함.

164) 宣慰司에 소속된 正四品職 副使를 일컫음.

165) 雷弄：干崖 宣撫司의 서쪽에 있으며, 干崖의 別部인데, 지금의 雲南省 德宏傣族景頗族自治州 瑞麗市에 위치함.

166) 經歷：明清시대 都察院·通政使司·布政使司·按察使司·宣慰使司 등의 관청에서 文書を 出納하는 일을 맡은 관직으로, 관품은 正六品이다. 여기서의 經歷은 宣慰使司에 소속된 관원임.

167) 『讀史方輿紀要』 卷119 「雲南」7에 보면, “司有蠻羅阿, 舊爲同知劉氏所居, 其雷弄洞則經歷寧氏所居. 後卽其地爲回龍營. 又如事管氏居猛語阿, 三姓皆華人, 以功授. 萬曆三年, 雷弄洞土目郤元相爲木邦叛軍拔所劫, 附於緬”라 기재되어 있다.

168) 金騰：지금의 雲南省 保山市 騰衝縣에 위치함.

169) 이에 관한 내용은 『瀛史』 卷13에 있거나와 萬曆 2년(1574)의 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許天琦는 金騰의 兵備副使였고, 侯度는 永昌衛 指揮였다.

170) 이에 관한 내용은 『瀛史』 卷13에 있거나와 萬曆 4년(1576)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

171) 羅汝芳(1515~1588)：江西 南城人으로, 字는 惟德이고, 號는 近溪이다. 嘉靖 32년(1553)에 進士에 급제하여 太湖縣 知縣이 되어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이후 刑部主事に 발탁되었다. 이후로 寧國府 知府로 승임하였고, 雲南 屯田副使의 직을 맡았으며 參政으로 轉任하였는데, 張居正의 미움을 사 退官하였다.

을 보내 위로하고, 먼저 돌아가 원조를 기다리라고 하고서 마침내 군대를 징발하여 등월(騰越)¹⁷²)에 이르렀다. 사개는 원병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뻐했으며, 토목(土目) 마루라송(馬祿喇送) 등에게 먼저 명의 군대를 이끌고 면진의 군량(軍糧)을 운반하는 길을 단절하도록 하고, 또 대부대를 알살(爰撒)¹⁷³)에 배복(埋伏)시키고서 면진의 군대를 유인하여 깊이 들어오도록 했다. 사개는 만족 토병을 이끌고 그들의 전군(前軍)을 공격하고, 원병은 농천의 후미에서 그들을 공격하도록 약속했다. 면진의 군대는 패퇴를 당하고 양식 또한 끊어져 코끼리와 말을 잡아먹었으며, 망서체는 매우 곤경에 처했다. 그때 마침 순무(巡撫)¹⁷⁴) 왕용(王凝)¹⁷⁵)에게 진설하였는데, 사단을 일으켜 불편을 끼쳤다고 아뢰자 왕용이 급히 사자를 보내 원군[이 오는 것]을 제지시켰다. 나여방은 격문을 들고서 [군대를] 물렸으며, 사개는 원병을 기다렸으나 이르지 않았다. 악봉은 이러한 정황을 정찰하여 알아차리고서 농천의 병사 2천 명을 모아 낮밤으로 행군하여, 망서체를 셋길로 인도하여 달아나게 했다. 사개가 이들을 추격했고 면진의 군대는 대패를 당했는데, 이때에 망서체를 거의 붙잡을 수 있었다.¹⁷⁶)

그 후로 그는 講學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명 말 학술·사상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泰州學派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일컫는데, 顏鈞의 門人으로 사상적으로 王良의 계보를 잇고 있다. 그는 王畿의 孫弟子로서 '致良知'를 주장하고 있으나 言行은 道士와 거의 같다. 그는 '佛學'을 말하기도 했고 佛典에 대한 연구도 일찍부터 했는데, 그의 博學은 이후 그의 제자 焦竑에 계승되어 大成했다.

- 172) 騰越: 지금의 雲南省 騰衝縣 騰越鎮임.
 173) 爰撒: 孟養軍民宣慰使司의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지금의 緬甸 샨샨에 위치해 있는데, 孟養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174) 巡撫: 明清시대의 지방장관으로 總督과 함께 '督撫'라고 불렀다. 명 초기에는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한 임직이었으나 宣德 연간(1426~1434)부터 常設化되어 省 또는 그 일부를 관할하였으며, 명 말에는 20여 개나 되었다. 원래는 文官으로 주로 民政을 專權하였으나 이후로 軍事職까지 兼職하고, 都御史를 兼하기도 하여 省의 布政使, 按察使, 都指揮使를 지휘하는 지방장관으로서 實權을 가지게 되었다.
 175) 王凝: 生卒年 未詳. 字는 道南이며, 湖廣省 宣城 사람이다. 嘉靖 35년(1556)의 進士로 禮部主事에 제수되었다. 裕王府의 講讀에 임명되었다. 萬曆 初에 巡撫가 되어 雲南에 나갔는데, 萬曆 4년(1576)에 緬甸이 대거 孟養을 공격하여 明緬戰爭이 발발하였다. 당시 爰撒에서 緬甸의 군대가 패퇴를 당해 어려움에 처했기나와 이들을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으나 그는 羅汝芳이 군대를 보내 思箇를 원조하자는 제안을 비준하지 않았다. 당시 羅汝芳은 檄文을 접하고서 원통해하며 '投債於地, 大罵而罷'했다고 한다. 또한 李贊가 姚安府에 제임했을 때에도 皇太后 王凝과 다투었거니와 李贊는 그를 "下流, 不必道矣"라 했다고 한다.
 176) 이상의 내용은 萬曆 초 雲南 변경에서 일어난 '爰撒의 役'으로 불리는 사건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讀史』 卷13에 있거니와 萬曆 4년(1576)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萬曆 4년(1576)에는

六年，廷議遣使至孟養，俾思箇選所俘緬兵象，并費以金帛，好言慰諭之，瑞體不謝。七年，永昌千戶辛鳳奉使買象於孟密，思忠執鳳送緬，緬還回。是年，緬復攻孟養，報夏撒之怨，思箇以無援敗，將走騰越，中途爲其下所執，送瑞體，殺之，盡并孟養地。八年，巡撫饒仁侃遣人招緬，緬不從。

[만력] 6년(1578)에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사신을 맹양에 보내어 사개에게 붙잡은 면진의 병사와 코끼리를 되돌려 보내도록 함과 아울러 금백(金帛)을 하사하고 좋은 말로 이들을 위로하고 효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망서체는 사레하지 않았다.¹⁷⁷⁾ [만력] 7년(1579)에 영창(永昌)의 천호(千戶) 신봉(辛鳳)이 명을 받들고서 코끼리를 사러 맹밀에 출사(出使)했는데, 사충(思忠)이 신봉을 붙잡아 면전에 보냈으나 면진이 되돌려 보냈다. 이 해에 면진이 다시 맹양을 공격하여 알살(爰撒)에서의 원한을 갚았다. 사개는 원병이 없어 패하고 등월(騰越)로 달아나려 했으나 도중에 그의 부하에게 붙잡혀 망서체에게 보내어져 살해되었으며, 맹양의 지역은 모두 병탄되었다.¹⁷⁸⁾ [만력] 8년(1580)에 순무 요인간(饒仁侃)¹⁷⁹⁾이 사람을 보내 면진을 초무(招撫)했으나 면진은 응하지 않았다.¹⁸⁰⁾

十年，岳鳳導緬兵襲破千崖，奪孚氏印，俘之，俄，瑞體死，子應襄嗣。岳鳳喊應襄

- 이미 莽瑞體는 세상을 떠났고 莽應龍이 제위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본문에 기재된 莽瑞體는 莽應龍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77)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讀史』 卷13에 기재되어 있는데, 萬曆 6년(1578) 戊寅에 莽瑞體(莽應龍)을 잘못 기재함)에게 사신을 보내 붙잡아온 緬甸의 병사와 코끼리를 송환시켰다.
 178)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讀史』 卷13에 기재되어 있는데, 爰撒에서 탈출해 돌아온 莽瑞體(莽應龍)을 잘못 기재함)는 날마다 원한을 갚겠다고 생각하였다. 兵士를 조련한 지 3년이 지나 마침내 孟養을 공격하자 지원을 받지 못한 思箇는 騰越로 달아났는데, 中途에서 緬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刺賸과 翼亨 등에게 붙잡혀 濮古로 보내져, 곧 살해되었다. 莽瑞體(莽應龍)을 잘못 기재함)는 孟養의 지역을 모두 점거하고서 刺賸과 翼亨을 散奪(領兵官)으로 삼아 孟養을 지키도록 했다.
 179) 饒仁侃: 生卒年 未詳. 字는 近剛이고, 號는 城山이며, 崇陽 白霓 사람이다. 嘉靖 壬戌年(1562)의 進士로, 官은 巡按御史를 거쳐 雲南 巡撫에 이르렀다.
 180) 당시 巡撫 饒仁侃이 파견한 사람은 言詞가 좋은 李阿烏였다(龔蔭, 1988: 194).

殺軍拔，盡俘其衆。又說應裏起兵象數十萬，分道內侵。十一年焚掠施甸，寇順寧。風子叢烏頓衆六萬，突至孟淋寨，指揮吳繼勳、千戶祁維坦戰死。又破益達，副使刀思定求救不得，城破，妻子族屬皆盡。且窺騰衝·永昌·大理·蒙化·景東·鎮沅諸郡。巡撫劉世曾請以南京坐營中軍劉緹爲騰越遊擊，移武靖參將鄧子龍爲永昌參將，各提兵五千赴剿，并調諸土軍應援。緹亦合兵犯姚關，緹與子龍大破之於攀枝花地，乘勝追擊，自十年十月至十一年四月，斬首萬餘。復率兵出隴川·孟密，直抵阿瓦，緹將猛勾詣緹降。勾，瑞體弟也。緹將之守隴川·孟養·蠻莫者，皆遁去，岳鳳及其子皆伏誅。官軍定隴川，遂歸。應裏乃以其子思斗守阿瓦，復攻孟養·蠻莫，聲言復仇。副使李材備兵騰衝，遣兵援之，戰於遮浪，大破其象陣，生擒五千餘人。

[만력] 10년(1582)에 악봉이 먼지의 군대를 인도하여 간애를 습격하여 격파했으며, 한씨(罕氏)의 인장(印章)을 탈취하고 그를 사로잡았다. 갑자기 망서체가 죽고, [그의] 아들 망응리가 뒤를 이었다. 악봉은 망응리를 고사하여 한발(罕拔)을 죽이고, 그의 부하를 모두 사로잡았다.¹⁸²⁾ 또 망응리를 설복하여 군대와 코끼리 수십만을 동원하여 길을 나누어 내지로 침입해 들어가도록 했다.¹⁸³⁾ [만력] 11년(1583)에 시전(施甸)¹⁸⁴⁾을 불지르고 약탈했으며,

- 181) 본문에莽應體가 죽은 것은 萬曆 10년(158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讀史』 卷13의 관련 내용에 의하면 萬曆 9년(1581) 9월 13일에 죽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본문의莽應體는 한에서도 지적했듯이莽應龍을 잘못 기재한 것이며, 실제로莽應龍이 죽은 것은 1581년이다.
- 182) 隴川の岳鳳이 萬曆 10년(1582)에 緹甸의 병사를 이끌고 干崖를 습격하여 격파한 후, 莽應裏에게 木邦의罕拔을 죽이고 그 지역을 병합하도록 하였다. 莽應裏가罕拔을 죽였지만 한발의 아들 罕進忠이 계속해서 영토를 영유하고 있었다. 이에 망응리는 목방의 영토를 병탄하고자 정벌에 인했는데, 이때罕拔의 첩의 자식인 罕鳳이 망응리에게 부항하여 欺馬의 숲나罕度와 함께 罕進忠을 붙잡으려고 했다(龔蔭, 1988: 195). 이 사건은 본서 『木邦傳』에도 있는데, 여기에는 萬曆 11년(1583)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
- 183) 이때莽應裏는 세 개의 길로 군대를 나누어 침입해 들어갔다. 그 가운데 한 길은 三亨으로 나아갔는데 岳鳳이先鋒이 되어 騰衝와 永昌을 침탈하였고, 두 번째 길은 景東으로 나아가 元江과 省城을 침탈하였으며, 세 번째 길은 順寧과 耿馬로 나아갔는데 罕度이先鋒이 되어 順寧을 먼저 공격한 후에 蒙化와 大理를 탈취하였다(龔蔭, 1988: 195).
- 184) 施甸: ‘藩子’, ‘平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元代에는 石甸이라 불렀는데, 明代에 施甸으로 바꾸어 불렀다. 唐나라 南詔시대에는 永昌 節度에 예속했고, 송나라 大理政權 때는 永昌府에 속했다. 이후

순녕(順寧)¹⁸⁵⁾을 노략질했다.¹⁸⁶⁾ 악봉의 아들 낭오(曩烏)가 무리 6만 명을 이끌고 돌연 맹림寨(孟淋寨)¹⁸⁷⁾에 이르렀는데, [이때] 지휘 오계훈(吳繼勳)·천후 기유원(祁維垣)¹⁸⁸⁾이 전사했다.¹⁸⁹⁾ 또 잔달(遮達)을 공격했는데, 부사(副使) 도사정(刀思定)이 구원을 청했으나 [원조를] 받지 못하여 성(城)은 격파되고 처와 자녀 등 친속이 모두 살해되었다.¹⁹⁰⁾ 또한 등충(騰衝)·영창(永昌)·대리(大理)¹⁹¹⁾·몽화(蒙化)¹⁹²⁾·경동(景東)¹⁹³⁾·진원(鎮沅)¹⁹⁴⁾ 등 여러 군(郡)을 영토였다. 순무 유세증(劉世曾)¹⁹⁵⁾이 청하기를, 남경(南京)¹⁹⁶⁾의 좌영(坐營) 중군(中軍)인 유경(劉繼)¹⁹⁷⁾을 등월(騰越) 유격(遊擊)¹⁹⁸⁾으로 삼고 무정(武靖)의 참장(參將) 등자룡(鄧子

- 元나라 至元 11년(1274)에 石甸長官司를 세워 26개의 寨를 관할하면서 永昌府 鎮康路에 예속했는데, 明 洪武 17년(1384)에 다시 施甸長官司로 명칭을 고쳐 永昌府에 예속시켰다. 지금의 雲南省 保山市 施甸縣이다.
- 185) 順寧: 順寧府를 일컫는다. 元나라 泰定 4년(1327)에 府를 설치했고, 府治는 지금의 雲南省 鳳慶縣에 두었으며, 지금의 雲南省 鳳慶縣, 昌寧縣, 雲縣 등지를 관할했다. 明나라 洪武 15년(1382)에 州로 강등되었으나 洪武 17년(1384)에 다시 府로 승격되었다.
- 186) 『讀史』에 의하면, 緹甸은 施甸의 莽國忠이 일찍이 遊牧을 원조한 것에 원한을 품고서 萬曆 11년(1583) 정월 1일에 施甸을 불사르고 屠戮했으며, 이어 15일에는 順寧府를 공격했다(龔蔭, 1988: 195).
- 187) 孟淋寨: 지금의 雲南省 龍陵 東北에 위치해 있음.
- 188) 실록에는 楊維垣으로 기재되어 있다.
- 189) 緹甸의 군대는 施甸을 불사르고 順寧府를 공격한 후, 萬曆 11년(1583) 2월 14일에 孟淋寨를 격파했다(龔蔭, 1988: 195). 『雲雲歷年傳』 卷8에 보면, “二月, 破猛淋寨, 殺指揮·千戶吳繼勳·初維垣等六人”으로 기재되어 있다.
- 190) 萬曆 11년(1583) 겨울에 莽應裏가 遮達을 격파했다. 이때 副使 刀思定이 구원을 청했으나 원조를 받지 못해 식량이 다하여 城이 攻破되고 妻子 族屬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다. 이에 干崖의 刀伯灰·雷弄의 爹元柏·南甸의 刀落憲·遮達의 刀思廷이 모두 緹甸에게 함락당했다(龔蔭, 1988: 196).
- 191)大理: 지금의 雲南 大理이며, 元나라 至元 7년(1270)에 路를 설치했고, 明 洪武 15년(1382)에 府로 바꾸었는데, 지금의 雲南 大理·祥雲·賓川·洱源·雲龍 등 여러 縣을 관할했다.
- 192) 蒙化: 지금의 雲南省 巍山彝族回族自治縣임.
- 193) 景東: 지금의 雲南省 景東彝族自治縣임.
- 194) 鎮沅: 지금의 雲南省 鎮沅州임.
- 195) 劉世曾: 生卒年 未詳. 四川省 巴縣 사람으로, 嘉靖 42년(1562)에 進士에 급제하였다. 太僕寺 少卿을 거쳐 右僉都御史로 승진하여 雲南 巡撫가 되었다. 萬曆 10년(1582)에, 岳鳳이 緹甸의 莽應裏로 하여금 雲南을 침탈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그는 劉挺과 鄧子龍을 기용하여 敵을 격파하였다. 후에 戰功을 不實하게 보고함으로 인해 神宗에게 削籍되었다.
- 196) 南京: 明初 太祖 朱元璋이 수도로 정한 곳으로, 처음에는 應天府로 불리다가 北京으로 京師를 옮긴 뒤에 南京으로 불렸다. 建康이나 金陵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龍)199)을 영창 참장으로 이동시켜서 각기 병사 5천을 이끌고 토벌하려 나가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여러 토군(土軍)을 징발하여 응원하도록 하였다. 면전에서 군대를 합하여 요관(姚關)200)을 침범하였는데, 유정과 등자룡이 만지화(攀枝花)201) 지역에서 이들을 크게 격파하였으며, 승기(勝機)를 타고서 추격하여 [만력] 10년(1582) 10월부터 [만력] 11년(1583) 4월에 이르기 까지 만여 명을 참수하였다.202) [그리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동천·맹밀로 나아가서 곧바로 아와(阿瓦)203)에 도달하니, 면전의 장수 맹작(猛犛)204)이 유정에게 이르러서 항복했다.205)

- 197) 劉繼(?~1619): 江西 南昌 사람으로, 본명은 熊繼이고, 字는 子毅, 號는 省吾이다. 嘉靖 연간(1522~1566)의 유명한 장군인 熊顯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인 熊顯이 어려서 四川을 전전할 때 魏峨이라는 인물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를 부친과 같이 여겨 성을 魏로 바꾸었다. 萬曆 10년(1582)에 緬甸이 운남 일대를 공격하자 萬曆 11년(1583)에 遊擊將軍인 그는 수비를 담당하였고 후에 副總兵이 되었다. 萬曆 20년(1592)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 명은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였는데, 劉繼은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였다. 그러나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강등되었다.
- 198) 遊擊: 遊擊將軍을 일컫는데, 三大營(京營을 구성하는 五軍營, 神機營, 神樞營)에 소속된 각 작은(원칙적으로 2~3천 명으로 조직)의 統御官을 유격장군이라 하며, 각 지방의 總兵官 아래에도 유격장군을 두었다.
- 199) 鄧子龍(1527~1598): 明代 抗倭名將으로, 字는 武備이고, 號는 大千, 別號는 虎冠道人이며, 江西 豐城 杜市鎮 鄧家村 사람이다. 嘉靖 37년(1558)에 武舉가 되어 福建·廣東 沿海에 부임하여 抗倭활동을 했으며, 小校에서 승진하여 把總이 되었다. 일찍이 江西·廣東 등지의 農民起義 진압에도 참여했고, 萬曆 2년(1574)에 銅鼓石 守備로 옮겼으며, 곧 都指揮僉事 서리가 되어 浙江都司를 맡았다. 후에 參將으로 승진해서 군대를 이끌고 麻陽(지금의 湖南 麻陽 西南)의 苗民 金道臣起義와 五開衛(지금의 貴州 黎平)의 兵變을 평정했다. 萬曆 11년(1583)에 雲南 永昌衛 參將에 부임하여 군대를 이끌고 攀枝花에서 격전을 치렀고, 緬甸軍을 이끌고 들어온 木邦部의 罕虔을 참하였으며, 副總兵으로 승진하였다. 한때 藤衝兵을 확대하여 兵亂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직되기도 했으나 萬曆 18년(1590)에 遊擊 楊勳과 함께 十寨起義를 평정하여 다시 副總兵에 복귀되었다. 萬曆 26년(1598)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자 그는 조선을 원조하라는 명을 받아 조선의 統制使 李舜臣과 선봉에서 서서 釜山 南海에서 일본과 격전을 치렀는데, 驚梁에서 海戰 중에 불우하게 전사했다. 조선은 그를 기려 廟를 세워 世代로 祭祀를 지냈다.
- 200) 姚關: 姚關驛을 말하며, 雲南省 保山 施甸縣의 姚關 중 하나이다.
- 201) 攀枝花: 지금의 雲南省 施甸縣 남쪽 지역임.
- 202) 『漢史』에 의하면, 萬曆 11년(1583) 11월 2일에 灣甸州의 景宗眞이 무리를 이끌고 姚關을 침범해 들어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鄧子龍은 급히 分守道 姜忻定과 의논하고서 猛密에서 姚關으로 달려가 陣을 치고 기다렸고, 먼 거리를 이동해 온 이들 무리는 攀枝花에서 등자룡의 군대에게 대파당했다. 등자룡의 군대는 달아나는 이들을 추격하여 猛密羅에서 대파했는데, 붙어 빠져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景宗眞은 불화살에 맞아 죽고 그의 동생 景宗才도 붙잡혔다. 分守道 姜忻定은 다시 罕虔 부자를 붙잡고서 灣甸과 耿馬의 지역을 격파했다(熊繼, 1988: 196).

맹작은 망서체의 동생이다. 농천·맹양·만막을 지키는 면전의 장령이라는 자들이 모두 달아나버리고, 악봉과 그의 아들 모두 피살되었다. 관군(官軍)이 농천을 평정하고서 마침내 돌아갔다. 망승리는 곧 그의 아들 망사후(莽思叟)에게 아와를 지키게 하고, 다시 맹양·만막을 공격하면서 원수를 갚는다고 큰소리쳤다. [이에] 부사(副使) 이제(李材)206)가 등충(騰衝)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서 군대를 보내 이를 원조했는데, 차랑(遮浪)207)에서 전투를 벌여 적의 코끼리 진영을 크게 격파하고 5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先是, 蠻莫酋思化投緬, 材遣人招之, 思化降. 十九年, 應裏復率緬兵圍蠻莫, 思化告急. 會天暑, 軍行不前, 裨將萬國春夜馳至, 多設火炬爲疑兵, 緬人懼而退, 追敗其衆. 二十二年, 巡撫陳用賓設八關於騰衝, 留兵戍守, 募人至暹羅約夾攻緬. 緬初以猛卯酋多俺爲嚮導, 寇東路. 至是遣木邦罕欽擒多俺殺之, 遂築堡於猛卯, 大興屯田. 是年, 緬紳思仁寇蠻莫, 敗之, 斬其渠丙測.

이보다 앞서, 만막 추장 사와(思化)가 면전에 투항했다. [그런데] 이제(李材)가 사람을 보내

- 203) 阿瓦: Ava의 음역인데, 緬甸 中部에 위치한 阿瓦城을 일컫는다. 伊洛瓦底江 左岸에 있으며, 지금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曼德勒(Mandalay) 부근이다. 1364년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년간 여러 차례 阿瓦 王朝(Ava Dynasty)와 貢榜 王朝(Konbaung Dynasty) 등의首都였다. 유럽인이 15세기 말에 이곳에 이르렀을 때, 당시는 阿瓦 王朝의 전성시기였던 것으로 '阿瓦'는 緬甸의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都城이 다른 곳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그대로 이 호칭으로 불렸다.
- 204) 猛: 莽瑞體의 族弟이며, 莽應裏의 叔父로, 『漢史』 卷14에는 莽約으로 기재되어 있음.
- 205) 『漢史』 卷14에 의하면, 劉繼이 군대를 이끌고 隴川에 이르니 岳眞이 감히 대적할 수 없어 무리를 이끌고 투항을 청했고, 猛密的의 思忠, 蠻莫의 思順도 阿瓦의 莽約과 함께 岳眞을 따라 투항했다(熊繼, 1988: 196).
- 206) 李材: 生卒年 未詳. 字는 孟誠, 豊城 사람이다. 嘉靖 41년(1562)의 進士로 刑部主事에 제수되었다. 隆慶 연간(1567~1572) 廣東僉事가 되어 여러 차례 倭寇를 격퇴했다. 萬曆 初에 雲南按察使를 역임했는데 參將의 官稱을 허물어 書院을 만들었기 때문에 兵變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찍이 孟養·蠻莫 兩土司를 수습하여 緬甸을 제압했던 공으로 右僉都御史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사람의 공을 가로챈 것이라 하여 雲南 巡按御史가 그를 탄핵함으로써 제포되어 문책을 당했다. 10년이 지나 麻海衛를 지켰으며, 예전대로 巡撫로 기용되었다.
- 207) 遮浪: 지금의 雲南省 臨西市 遮浪鎮이다.

그를 초무(招撫)하니, 사화가 투항해왔다. [만력] 19년(1591)에 막응리가 다시 면전의 군대를 이끌고 만막을 포위하니 사화가 급히 고하였다. 마침 날씨가 무더워 군대가 전진할 수 없었는데, 비장(裨將) 만국춘(萬國春)이 밤에 이르러 급히 많은 햇불을 세워 병사들이 많은 것처럼 꾸며 면전인이 두려워서 퇴각하자, 추격하여 이를 무리를 패퇴시켰다. [만력] 22년(1594)에 순무 진용빈(陳用賓)²⁰⁸이 등중에 8개의 관(關)²⁰⁹을 설치하고 병사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고서, 모집한 사람들을 섬라(暹羅)²¹⁰에 이르게 해 면전을 협공하기로 약속했다. 면전은 당초에

208) 陳用賓(1550~1617): 字는 道孚이고, 號는 毓台이며, 福建 晉江 사람이다. 隆慶 원년(1567)에 舉人이 되고, 隆慶 5년(1571)에 進士가 되어 長洲縣에 敍用되었는데, 근면하게 정무에 임했고 백성을 위해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이후 御史가 되어 河東을 巡按했고 淮陽을 순안하면서 學政을 提督하기도 했으며, 오로지 사심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張居正을 따르지 않음으로 四川參議로 좌천되어 浙江副使, 參政을 轉任했다. 그러다 按察使로 승임하고, 湖廣布政使를 지냈다. 마침 西南邊陲에 일이 많았는데, 萬曆 21년(1593)에 그는 都御史가 되어 雲南 巡撫에 임명되었다. 그는 雄略을 가지고 있었고, 用兵을 잘하여 緬甸의 침략을 잘 막았으며, 滇西 騰衝 등 많은 地方을 성공적으로 平定했다. 그러나 그는 鑑鏡庵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막았는데 이와 관련해 묘함을 받아 下獄되고, 9년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병을 얻어 결국 죽었다. 그의 諡號는 襄毅이다.

209) 이 당시 설치한 八關은 神護關(지금의 雲南 騰衝縣 西北 孟卡山上에 위치했음)·萬初關(지금의 雲南 盈江縣 西北 布哈山上에 위치했음)·巨石關(지금의 雲南 盈江縣 西北 息馬山上에 위치했음)·銅壁關(지금의 雲南 盈江縣 西北 布哈山上에 위치했음)·鐵壁關(지금의 雲南 龍川縣 西北에 위치했음)과 虎鹿關·漢龍關·天馬關(이 三關은 緬甸에 위치했음).

210) 暹羅: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부에 타이족에 의해 건립된 나라로서 현재 태국의 古稱이며, 영문으로는 Siam이라고 한다. 므앙 타이[자유의 나라라는 뜻]라고 자칭한다. 暹羅는 Siam(暹)과 Lopburi 또는 Lavo(羅斛)의 앞 글자가 합쳐진 단어이다. 이 지방의 원주민은 네그리토족과 몬족이었다. 雲南에서南下하여 온 타이족은 13세기로 접어들면서 몽골의 침략을 피해 1238년 크메르, 즉 캄보디아 서북부 변경지대인 수코타이(Sukhothai)를 빼앗아 素可泰, 즉 수코타이 왕국을 건설했는데, 중국인들은 이를 暹國이라고 칭하였다. 이로부터 Siam의 본격적인 역사시대가 시작된다. 람캄행(Ramkhamhaeng, 재위 1279?~1298) 국왕 시기에 최고의 전성시대를 이루었지만, 그의 사후 점차 쇠퇴하였다. 이후 라마타티보디(Ramathibodhi, 재위 1351~1369) 왕이 세운 阿瑜陀耶(Ayutthaya) 왕국이 수코타이를 대신하여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와 통교를 하면서 14세기 말까지 동남아시아 최대의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이 아유타야(Ayutthaya) 왕국이 바로 羅斛國이다. 한편 15세기에는 이슬람 세력이 이곳에 들어와 말라카 왕국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말레이 반도 남부를 일게 되었고, 16세기에는 바마의 침공을 받아 아유타야가 멸망되기도 하였다. 이후 나레스uan(Naresuan) 왕에 의해 재건되었지만, 그가 죽은 뒤 왕위 계승분쟁이 연이어 일어났고, 결국 1767년에 바마의 신부신(Hsinbunshin)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이후 탁신(Taksin)에 의해 툰부리 왕조가 세워지고, 뒤이여 방콕왕조가 계승하였다. 최병욱, 2006: 118~132, 248~258 참조.

맹묘(猛卯)²¹¹의 추장 다엄(多俺)을 향도로 삼아 동쪽 길로 침구했었다. 이때에 목방의 한흠(罕欽)이 다엄을 사로잡아 죽이고, 마침내 맹묘에 보(堡)를 쌓고 둔전(屯田)을 크게 일으켰다.²¹² 이해에 면전의 장수 사인(思仁)이 만막을 침구하자 이를 패퇴시켰으며, 그의 우두머리 인 병측(丙測)을 참살했다.

二十三年，應裏屬孟璉·孟艮二土司求朝貢，鎮巡以聞。朝議令原差官黎景桂齎銀幣賜之，至境，不受。詔以景桂首事貪功納侮，下於理。三十一年，阿瓦羅罕·木邦罕拔子罕袞俱入貢，緬勢頓衰，暹羅得復遠歲攻緬，殺緬長子莽機撾，古喇殘破，自此不敢內犯，然近緬諸部附之如初。

[만력] 23년(1595)에 망응리에게 예속된 맹련(孟璉)²¹³·맹간(孟艮)²¹⁴ 두 토사(土司)가 조공을 청하니, 진순관(鎮巡官)이 [이를 조정에] 보고했다. [이에] 조정은 논의하여 원래의 차관(差官)²¹⁵인 여경계(黎景桂)에게 은(銀)과 비단을 가지고 가 그들에게 하사하도록 했는데, 변경에 이르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²¹⁶ [만력제는] 조서를 내려, 여경계가 일처리를

211) 猛卯: 지금의 雲南 西部에 흐르는 南畝河와 瑞麗江이 合流하는 곳의 南畝河 三角地이며, 猛卯 三角地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傣族과 景頗族이 주로 거주한다. 明 洪武 17년(1384)에 麓川平緬軍民宣慰司를 설치하여, 元代의 平緬路와 麓川路 지역을 관리하도록 했다. 思倫琿이 麓川平緬 宣慰使를 계승한 후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팽창하자, 明 조정에서는 이들의 침략을 봉고 고심하였는데 兵部尚書 王驥에게 세 차례에 걸쳐 麓川을 정벌하게 하였다. 正統 19년(1444)에 明 조정은 麓川平緬宣慰司를 없애고 龍川 宣慰司를 두었다. 萬曆 초년에 猛卯는 龍川에서 분리하여 따로 토기를 세웠는데, 이때부터 이 지역은 猛卯土司가 관할하였다.

212) 猛卯에 쌓은堡는 平麓城이다(崔盛, 1988: 197).

213) 孟璉: 孟璉長官司를 일컫는다. 元나라 때에 木連府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바꾸어 木連府를 설치하여 布政司에 예속시켰으나 후에 麓川平緬宣慰司에 兼並하였다. 이후 永樂 4년(1406)에 孟璉長官司를 설치하여 都司에 예속시켰는데, 후에 바꾸어 布政司에 예속시켰다. 孟璉長官司는 지금의 孟連·瀾滄·西盟 등지 및 南卡江 서쪽·薩爾溫江 동쪽의 哈瓦 江구를 관할했다.

214) 孟艮: 孟艮禦夷府를 일컫는데, 永樂 3년(1405)에 설치되어 雲南都司에 예속시켰다가 후에 布政司에 예속시켰다(『明史』卷46 『地理志』雲南條). 지금의 雲南省 서남쪽에 위치한 西雙版納傣族自治州 소속의 緬海縣 지역이다.

215) 差官: 특별한 임무를 맡겨 임시로 지방에 파견한 관원을 말함.

216) 『讀史』卷14의 관련 내용에 의하면, 萬曆 21년(1593)에 莽應裏의 長子 莽機撾가 暹羅에게 살해되었고,

시작하면서 공(功)을 탐하여 모욕을 주었으므로 사법관에 교부하여 처죄토록 하였다. [만력 31년(1603)에 아와(阿瓦)의 옹한(雍罕)·목방(木邦)의 한발(罕拔)의 아들 한개(罕袞)가 함께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니, 먼전의 세력은 급작스럽게 쇠약해졌다. 섭라(瀛羅)의 득능(得楞)²¹⁷⁾이 또 해마다 먼전을 공격하여 먼전 수령의 아들인 망기과(莽機括)를 죽이니, 고라(高喇)가 공파되어 무너졌다.²¹⁸⁾ 이로부터 감히 내지에 침범을 하지 못했지만 먼전 가까이 있는 여러 부락은 원대로 먼전에 의부(依附)하였다.

崇禎末，蠻莫思綿爲緬守曩木河。及黔國公沐天波等隨永明王走蠻莫，思綿使告緬，緬遣人迎之，傳語述萬曆時事，并出神宗璽書，索今象合之，以爲僞。天波出己印與先所頒文徽相比無差，始信。蓋自天啓後，緬絕貢職，無可考驗云。

승정(崇禎)²¹⁹⁾ 말에 만막의 사면(思緜)이 먼전을 대신하여 낭목하(曩木河)를 지켰다. 검국공(黔國公) 목천파(沐天波)²²⁰⁾ 등이 영명왕(永明王, 1625~1662; 재위 1647~1662)²²¹⁾을 따

- 瀛羅가 또 德楞과 결탁하여 내외로 挾攻함으로 莽應裹는 自救하면서 중국으로 통하는 국경을 폐쇄했는데, 이 때문에 黎景桂와 張應亨이 孟定에 이르러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수개월 후에 이들은 緬甸에 하사할 물품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한다.
- 217) 得楞: Talaing의 음역이다. 『讀史方輿紀要』卷119에 보면, 得楞은 大古喇의 西南쪽에 있고 古喇의 別部이며, 또한 古喇得楞이라고도 하고 瀛羅 가까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환원 得楞은 緬甸의 孟族을 가리키며, 得楞族이 일찍이 勃固 지역에 옮겨왔으므로 地名과 族名이 합해졌다고 한다.
- 218) 『讀史方輿紀要』卷119에 보면, 萬曆 38년(1610)에 瀛羅와 得楞이 함께 緬甸을 공격하여 莽應裹의 아들 莽機括을 죽이니라 緬古, 즉 古喇는 이 때문에 무너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 219) 崇禎: 명 왕조 마지막 황제인 思宗 朱由檢의 연호이다.
- 220) 沐天波(?~1661): 黔寧王 昭瞻 沐英의 11世孫이다. 崇禎 3년(1630)에 부친 沐啓元이 죽자 黔國公의 작위를 이어받고 征南將軍을 겸임하였다. 당시는 天下가 크게 어지러웠는데, 雲南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어 兵禍가 미치지 않아 백성들의 生活는 비교적 安樂했다.
- 221) 永明王: 桂王 또는 永曆帝라고도 한다. 明末 혼란기에 流賊 張獻忠이 湖南의 衡州(지금의 衡陽)를 공격하였을 때, 아버지인 계왕 朱常瀾과 함께 廣西로 탈출했다. 그 뒤 平遠을 뒤이어 계왕이 되었는데, 1647년 福州的 唐王이 죽자, 廣西巡撫인 羅式相 등에 올림되어 廣東省 肇慶에서 즉위하여, 永曆이라 建元하였다. 그러나 清軍의 공격을 받고 廣서의 梧州로 도망했다가 그 뒤 平樂·桂林을 거쳐 다시 湖南의 武岡으로 피하였다. 그녀는 동안 구식사 등의 분투로 부흥운동이 한때 호전되었으나, 구식사가 괴살되자 다시 南寧으로 도피하여 孫可望에게 의지하였다. 그 후 계림·成都를 피복하고 이어 李定國에

라 만막으로 도망쳐 이르자, 사면이 사자를 보내 먼전에 알렸다. 먼전이 사람을 보내 이들을 맞이하였는데, 전하는 말이 만력 연간(1573~1619)의 사정을 서술하고 아울러 신종(神宗, 1563~1620; 재위 1572~1620)²²²⁾의 새서(蠶書)²²³⁾를 꺼내자, 지금의 전서(篆書)²²⁴⁾를 찾아서 대조해 보고는 가짜라고 여겼다. [그런데] 목천파(沐天波)가 가지고 나온 자기의 인장과 앞서 반포된 문고(文譜)와 격서(檄書)를 서로 비교하여 차이가 없자, 비로소 믿게 되었다. 대체로 천계(天啓)²²⁵⁾ 연간(1621~1627) 이후로, 먼전은 조공을 단절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증거를 살필 수 없다고 한다.²²⁶⁾

- 게 올림되어 雲南으로 갔으나 손가락이 철나래에 항복함으로써 다시 미안마로 피신하였다. 그런데 미안마 왕에게 불간현 정에 넘겨졌으며, 이듬해 혼란에서 죽었다.
- 222) 神宗: 명 왕조 14대 황제인 萬曆帝 朱熹의 廟號인. 明 穆宗의 셋째 아들로 隆慶 2년(1563) 6세 때에 황태자가 되었고 10세 때에 아버지 穆宗이 승하하여 계위하였다. 융경제는 죽음에 임박하여 황태자의 선생인 대학사 張居正에게 어린 황제를 보필하도록 유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神宗 萬曆帝의 즉위와 함께 장거정은 내각 수부의 지위에 올라 독단적으로 전횡한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혁신정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장거정이 죽은 뒤, 황태자 熹宗은 돌리산 철치적 대립이 일어났으며, 萬曆 三大征이 일어나 국가재정이 극도로 궁핍해졌기나와 流寇운동도 일상화하는 등 명제국의 정치와 사회는 다시 문란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동북방면에서는 興京에서 누르하치가 거병하여 중원으로 엄습해 왔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던 시기에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三案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당파 싸움의 불씨를 일으켰기나와 이로 인해 정치와 사회는 극도로 피폐하게 되었으며, 이처럼 국운이 급속히 기울어지 가는 萬曆 48년(1620) 7월에 58세의 나이로 병에 들어 죽었다. 諡號는 顯皇帝이며,陵은 定陵이다.
- 223) 蠶書: 秦漢시대에 기원하는데, 황제의 璽印을 찍은 문서의 총칭이다. 여기서는 御璽가 찍힌 외교문서를 가리킨다.
- 224) 篆書: 중국의 5가지 字體(篆, 隸, 楷, 行, 草書) 가운데 가장 먼저 출현한 서체로, 大家와 小家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大家이란 秦代 이전의 갑골문, 金文, 籀文과 춘추전국시대 六國에 통행된 古文을 말하고, 小家이란 진시황이 “書同文字” 이후 秦代에 통용된 전서체를 말한다.
- 225) 天啓: 명 왕조 16대 황제인 熹宗 朱由校의 연호임.
- 226) 萬曆 31년(1603)에 緬甸의 使臣이 入貢한 이후로 入貢한 기록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千崖 宜換

간에 신구

千崖, 舊名千賴峽, 楚人居之。東北接南甸, 西接隴川, 有平川衆岡。境內甚熱, 四時皆蠶, 以其絲織五色土錦充貢。元中統初, 內附。至元中, 置鎮西路軍民總管府, 領三甸。

간에(千崖)는 옛날에 간뢰섬(千賴峽)으로 불렸고, 복인(楚人)²²⁷⁾이 이곳에 거주했다.²²⁸⁾ 동북쪽은 남전(南甸)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농천(隴川)과 접해 있으며, 평지와 많은 산등성이가 있다. 경내는 매우 덥고, 사계절 모두 양잠을 하는데 그 실로 짠 오색(五色) 토금(土錦)으로 조공(물품)에 충당한다. 원(元)나라 중통(中統)²²⁹⁾ 초에 [중국에] 귀부하였다. 지원(至元) 연간(1264~1294)에 진서로(鐵西路)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를 설치하여 세 개의 전(甸)을 관령하도록 했다.²³⁰⁾

洪武十五年改鎮西府。永樂元年設千崖長官司。二年頒給信符·金字紅牌并賜冠服。三年, 千崖長官曩歡達頭目奉表貢馬及犀·象·金銀器, 謝恩, 賜鈔幣。五年設古剌驛, 隸千崖。曩歡復遣子刀思曩朝貢, 賜賚如例。自是, 三年一朝貢不絕。宣德六年

227) 楚人: 지금의 四川省 남쪽과 雲南省 동부 지역 일대에 살았던 소수민족으로서, 서남 지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지만, 司馬遷은 楚人을 언급하지 않았다. 史書의 기록에 의하면 춘추 시기와 전국시대 초기부터 周 왕조는 그들과 대치했으며, 西漢 초기에 이르러 이 지역을 樊道를 설치했으며, 그 중심지는 宜賓縣이었다. 漢代부터 이 지역은 물산이 매우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많은 漢族들이 거주했다.

228) 『讀史方輿記要』 卷119 「雲南」에 보면, “其地舊名千賴峽, 亦曰渠瀾峽, 白夷居之”라 기재되어 있다.

229) 中統: 원나라 世祖 쿠빌라이가 사용했던 年號로, 1260년에서 1254년까지 사용했고 이를 뒤이은 至元이라는 연호로 바꾸어 사용했다.

230) 『元史』 卷61 「地理志」4에 보면, “鎮西路, 在柔遠路西, 東隔隴川, 其地曰千賴峽, 曰渠瀾峽, 白夷蠻居之, 中統初內附, 至元十三年立爲路, 隸宣撫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讀史方輿記要』 卷119 「雲南」7에는 “至元十三年, 置鎮西路軍民總管府領三甸”이라 기재되어 있다.

改隸雲南都司, 時長官刀弄孟奏, 其地近雲南都司, 而歲納差發銀於金齒衛, 路途, 乞改隸, 而輸銀於布政司, 從之。正統三年命仍隸金齒軍民指揮使司。六年陞千崖副長官刀怕便爲長官司, 賜綵幣, 以歸附後屢立功, 從總兵官沐昂請也。九年陞千崖爲宣撫司, 以刀怕便爲宣撫副使, 劉英爲同知, 從總督王驥請也。

홍무 15년(1382)에 진서부(鐵西府)로 고쳤다.²³¹⁾ 영락 원년(1403)에 간에장관사(千崖長官司)를 설치했다.²³²⁾ [영락] 2년(1404)에 신부(信符)·金字홍패(金字紅牌)²³³⁾를 내려준과 아울러 관복(冠服)을 하사했다.²³⁴⁾ [영락] 3년(1405)에 간에의 장관(長官) 낭환(曩歡)²³⁵⁾이 [부락의] 두목을 보내 표(表)²³⁶⁾를 올리고 말과 무소·코끼리·금은기(金銀器)를 바치며 은혜에 감사드리니, [영락제가] 초폐(鈔幣)²³⁷⁾를 하사했다.²³⁸⁾ [영락] 5년(1407)에 고갈역(古剌驛)

231) 洪武 15년(1382) 3월에 元代의 官制를 고쳐 雲南布政司 所屬의 52府를 설치했는데, 이때 鐵西路를 鐵西府로 고쳤다.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3월 己未條 참조.

232) 永樂 원년(1403) 정월에 千崖를 비롯하여 奢樂洞, 大侯, 灣甸, 澗江 등 5長官司를 설치했다. 『太宗實錄』 卷16 永樂 원년 춘정월 乙未條 참조.

233) 紅牌: 明代에 일상직업 일종의 布告牌인데, 때에 홍색을 사용하였고 그 위에 공포된 법령을 썼다(박원호, 2008: 52).

234) 明朝는 永樂 2년(1404)에 千崖를 비롯해서 雲南, 木邦, 八百大甸, 麓川平緬, 鎮康, 車里, 老撾 등 宣慰使司와 大務, 里馬, 茶山 등 長官司, 그리고 澗江安撫司 吳良, 孟定, 灣甸, 鎮康 등 府, 州의 土官에게 信符·金字紅牌를 내려줬다. 『太宗實錄』 卷35 永樂 2년 庚午條 참조.

235) 曩歡: 그의 본래 이름은 郝忠國으로, 江南 應天 사람이다. 그는 洪武 연간(1368~1398)에 緬甸을 정벌하는 데 참여하여 功을 세웠다. 이 공으로 明朝는 永樂 원년(1403)에 千崖長官司를 설치하면서 그를 長官에 임명했는데, 이때 그는 曩歡으로 改名하고서 頭目을 보내 表를 받들고 코끼리와 말을 바쳤다(『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永昌府 千崖 참조).

236) 表: 황제에게 바치는 문서, 즉 表文을 일컫는다. 洪武 14년(1381)에 進寶表禮儀를 정하였는데, 황제의 생일인 天壽聖節과 正旦·冬至에 在外 각 아문은 미리 상주문(表문)을 바치고 賀禮하였다. 天壽聖節인 경우에 在外 5품 이상의 衙門은 단지 表文 1通을 바치고, 正旦·冬至에는 中宮과 皇太子에게 箋文 各 1通을 더 바쳤다. 조선·메트남 등 외국의 사신이 명조에 임조할 때도 표문을 바쳤다.

237) 鈔幣: 고대의 지폐를 일컫는데, 바로 明代의 법정 통화 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明朝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舉司를 설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통용시켰다. 桑穰, 즉 뿔나무 가지껍질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이고, 높이는 1尺, 폭은 6寸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용의 문양과 꽃무늬였다. 형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라 쓰고, 그 안의 상변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썼다. 가운데에는 동전꾸러미를 그려 넣었는데,

을 설립하여 간에 예속시켰다.²³⁹⁾ 낭환이 다시 아들 도사낭(刀思囊)을 보내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니, [조정은] 예제에 따라 하사품을 내렸다.²⁴⁰⁾ 이로부터 3년에 한 차례 조공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 신덕(宣德) 6년(1431)에 운남도사(雲南都司)²⁴¹⁾에 바꾸어 예속시켰다.²⁴²⁾ 당시 장관인 도몽맹(刀弄孟)이 상주하기를, 그의 영지는 운남도사에 가깝지만 해마다 금치위(金齒衛)²⁴³⁾에 차발은(差發銀)²⁴⁴⁾을 바치는데 길이 먼니, 바꾸어서 [운남도사에] 예속시켜주고 포정사(布政司)²⁴⁵⁾에 은(銀)을 내게 해달라고 청하였다.²⁴⁶⁾ [신덕제는] 이를 허락하

-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금은 모두 여섯으로 1관, 500문, 400문, 300문, 200문, 100문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전담케 했으니, 中書省이 철폐가 된 뒤에는 戶部에서 발행하도록 하였다. 보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燾 著, 2008: 314~319 참조.
- 238) 永樂 3년(1405) 4월의 일로, 당시 木邦과 緬甸軍民宣慰司와 孟定府, 澗州, 干崖 等 長官司에서 각기 부락의 頭目을 보내 表를 올리고, 貢馬, 犀象, 金銀器皿을 바쳤다. 『太宗實錄』 卷41 永樂 3년 84월 癸酉條 참조.
- 239) 永樂 5년(1407) 7월의 일이다. 『太宗實錄』 卷69 永樂 5년 7월 甲子條 참조. 『土官底簿』 卷上 干崖長官司古刺驛丞條에 보면, 騰衝의 토착인으로 李從人이라는 사람이 緬甸을 정벌할 때 招討司의 通事에 선임되었는데, 이후 永樂 5년(1407)에 長官 刀思囊을 따라 京師에 이르러 古刺驛 驛丞에 보임되었고 기재되어 있다.
- 240) 永樂 5년(1407) 6월의 일이다. 『太宗實錄』 卷68 永樂 5년 6월 辛亥條 참조.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永昌府 干崖를 보면, 永樂 5년에 翼獻은 그의 아들 思囊을 명에 보내 朝貢을 하였거니와 이때 그는 姓을 刀氏로 바꾸고 刀翼獻이라 칭했다고 한다.
- 241) 雲南都司: 明代 地方의 軍事を 管轄하는 機構인 雲南都指揮使司를 일컫음. 洪武 15년(1382)에 雲南行省의 軍政을 管轄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그 소속 衛所를 이르고 右軍都督府에 예속되었다. 洪武 26년(1393)에 定制된 후, 雲南左·右·前三衛和大理·楚雄·臨安·景東·曲靖·金齒·洱海·蒙化·馬隆·平夷·越州·六涼十二衛 緬甸千戶所를 管轄했다. 이후 馬隆衛를 고쳐 雲南右護衛로 했는데, 곧 폐지했으며, 雲南中衛·雲南後衛·廣南衛·大羅衛·瀾滄衛·騰衝衛, 裁鶴慶所를 중실하여 管轄했고, 安寧·宜良·易門·楊林堡·十八寨·通海前前·通海右右·定遠·馬隆·姚安·姚安中屯·武定·木密關·鎮安·鎮姚·永平前前·永平後後·騰衝·新安·鳳梧 等 千戶所를 增置했다.
- 242)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干崖宣撫司條 및 『宣宗實錄』 卷67 宣德 5년 6월 壬午條에는 宣德 5년으로 기재되어 있음.
- 243) 金齒衛: 洪武 18년(1385)에 永昌府(지금의 雲南省 保山市)에 金齒衛指揮使司를 설치했는데, 洪武 23년(1390) 말에 金齒軍民指揮使司로 고쳤다가 嘉靖 원년(1522)에 永昌軍民府로 바꾸어 설치했다.
- 244) 明代 조정이 雲南 변경 지역 토리에게 朝貢과 더불어 해마다 정수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일컫으며, 差發金이라고도 불린다.
- 245) 布政司: 明代各省의 행정을 담당하는 官署로 承宣布政使司의 약칭이다. 명대에 元의 行中書省을 고쳐 布政司를 설치하였다. 당시 전국을 13布政司로 나누어, 각 司에 左·右布政使 각 1명을 두어 정치와

였다.²⁴⁷⁾ 정통(正統) 3년(1438)에 [간애를] 예전대로 금치(金齒)군민지휘사(軍民指揮使司)에 예속하도록 명하였다.²⁴⁸⁾ [정통] 6년(1441)에 간애의 부장관(副長官) 도파편(刀怕便)²⁴⁹⁾을 승진시켜 장관사(長官司)²⁵⁰⁾로 삼고 체계(紮幣)²⁵¹⁾를 하사했는데, [이는 도파편이] 귀순한 후 여러 차례 공을 세움으로써 총병관(總兵官) 목양(沐昂)이 청했던 것에 따른 것이다.²⁵²⁾ [정통] 9년(1444)에 간애를 선무사(宣撫司)²⁵³⁾로 승격시키고 도파편을 선무부사(宣撫副使)에 임용하고 유영(劉英)을 동지(同知)²⁵⁴⁾로 삼았는데, [이는] 총독(總督)²⁵⁵⁾ 왕기(王驥)의

- 제정을 관장토록 하였다. 여기서의 布政司는 雲南布政司를 일컫는다.
- 246) 당시 干崖에서 명에 바치는 差發銀의 액수는 銀 100兩이었음(萬曆『雲南通志』 卷16 羈縻差發條 참조).
- 247)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67 宣德 5년 6월 壬午條에 있다. 따라서 본문의 宣德 6년은 宣德 5년을 잘못 표기한 것 같다. 또한 실록에는 당시 干崖 長官의 이름이 刀孟孟으로 기재되어 있다.
- 248) 正統 3년(1438) 5월에 雲南 總兵官 黔西公 沐晟 등의 奏請에 의해 南甸, 騰冲 2州와 瓦甸, 干崖 2長官司 그리고 瀾江安撫司를 예전처럼 金齒軍民指揮使司에 예속시켰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42 正統 3년 5월 壬寅條 참조.
- 249) 刀怕便: 刀翼獻, 즉 翼獻의 아들로, 正統 9년(1444)에 麓川을 정벌한 功勞로 干崖宣撫副使로 임명되었다. 그의 직은 이후 刀怕率 刀怕轟, 刀怕開, 刀怕落, 刀怕元, 刀怕舉 등으로 전제했다(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永昌府 干崖 참조).
- 250) 長官司: 元代에 처음 설치된 지방관이다. 다만 그 성격은 상이한 바가 있다. 즉 內蒙古, 河北, 河南, 陝西, 甘肅 등지에 설치된 長官司는 오로지 匠戶만을 통할한 데 비해 西南의 소수민족 지구에 설치된 蠻夷長官司는 蠻夷를 管轄토록 하였다. 후자에는 다루가치(達魯花赤), 長官, 副長官 등을 두었는데, 대부분 土人으로 임명하였다.明代에 이르러 전자는 폐지하고 후자만을 존속시켜 대개 土官이 세습하는 비교적 低級의 정식 지방 소수민족 정권으로 기능하였는데, 湖廣, 四川, 雲南, 廣西, 貴州 등에 설치하였다. 黃開華, 1968: 34~35 참조. 그런데 본문에서 長官司는 관직명인 長官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 251) 紮幣: ‘紮’는 무늬가 있는 비단이고, ‘幣’는 緞織의 품을 말하는 것으로, 무늬가 있는 緞織物을 일컫는다.
- 252)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79 正統 6년 5월 戊午條에 있는데, 刀怕便은 이전에 思王發에 귀부되었다가 탈출하여 귀순해 왔다.
- 253) 宣撫司: 唐代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즉 元和 연간(806~820)에 戶部侍郎 楊於陵을 瀾·靑州宣撫使로 임명한 적이 있다.宋代에는 대부분 將이나나 重臣으로 宣撫使를 임명하였는데, 예를 들어 范仲淹, 富弼, 文彥博, 岳飛 등이 기용된 바 있다. 金朝 章宗 泰和 6년(1206)에 陝西路 宣撫使를 두어 陝西右監軍, 右都監兵馬公事를 節制하도록 하였는데, 宣撫使 및 副使를 두었다. 泰和 8년(1208)에 陝西宣撫司를 按撫司로 바꾸었는데, 山東 東西, 大名, 河北 南北, 遼東, 陝西, 咸平, 隆安, 上京, 肇州, 北京 等 모두 10곳에 설치하였다. 元朝는 邊疆의 소수민족 지구에 宣撫司를 두어 지방행정기구로 삼고 다루가치(達魯花赤), 宣撫使, 同知, 副使 등의 관직을 두었다.明代에 들어와 비로소 정식으로 宣撫司의 長으로 宣撫使를 임명하였는데, 土官이 세습하는 武職으로 성질이 고정되었다. 黃開華, 1968: 34~35 참조.

청에 따른 것이다.²⁵⁶⁾

弘治三年，千崖土舍刀怕愍歡其侄刀怕落幼，劫印奪職，蠻衆不服，遂起兵相攻。四年，按察司副使林俊同參將沐祥移文往諭，始釋兵歸印。事聞，帝以鎮巡官不以時奏報，責之。嘉靖三十九年，緬酋莽瑞體叛，招千崖諸土官入寇。萬曆初，宣撫刀怕攀死，妻罕氏，木邦宣慰罕拔妹也。拔旣叛附緬，召怕攀弟怕文襲職以臣緬，且許以妹。怕文不受，與戰。緬兵十萬驟臨，怕文潰奔永昌。罕拔遂取千崖印付罕氏。十年，隴川岳鳳破千崖，奪罕氏印。十一年，遊擊劉綎破隴川，鳳降，追印竟不得。而千崖部衆自相承代，亦莫得而考云。

홍치 3년(1490)에 간에 토사(土舍) 도파유(刀怕愍)가 그의 조카인 도파락(刀怕落)이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관인(官印)을 빼앗아 직위를 탈취했다. [그러나] 여러 만인들이 불복(不服)하였고, 마침내 군대를 일으켜 서로 공격하였다.²⁵⁷⁾ [홍치] 4년(1491)에 안찰사(按察司)²⁵⁸⁾의

254) 同知: 관직명으로 知府의 副職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正五品이었다. 각 府에 둘 同知의 정원은 없었고, 지방의 鹽·식량·도둑 체포·河工·軍籍·경리·水利를 담당하였고, 또한 내지와 변경의 백성들을 按撫하는 일도 맡았다. 知州의 副職인 경우에는 從六品이었고 역시 정원은 없었으며, 州同知라고 불렀다. 본문에서의 同知는 宣撫司의 同知로 正五品의 土官이었다.

255) 總督: 明清시대의 지방장관으로 巡撫와 함께 ‘督撫’라고 불렀다. 명 중기 正統 연간(1436~1449)에 지방의 巡察를 위해 중앙에서 지방에 임시로 파견한 武官으로 ‘提督’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명 말에 邊防이 중요시되고 지방이 혼란하면서 상설화되었다. 지방행정장관인 布政使 등의 위에 있으면서 지방의 軍務行政을 總轄했다. 巡撫가 文官으로 주로 民政을 專擅했던 것에 비해 總督은 주로 軍政을 專擅했다.

256)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卷117 正統 9년 6월 癸未條에 있는데, 正統帝는 正統 9년(1444) 6월에 刀落硬 등이 여러 차례 征討하여 夷民을 按撫했음으로 南甸, 千崖를 宣撫司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雲南總督軍務 靖遠伯 王驥의 주청에 따라 南甸州 및 千崖長官司를 宣撫司로 하고 南甸 刀落硬을 南甸 宣撫使로, 通判 劉思勉을 同知로, 千崖의 長官 刀怕便을 千崖 宣撫使로, 副長官 劉英을 同知로 삼았다. 『讀史方輿紀要』卷119 『雲南』7에는 “正統八年, 升宣撫司土司宣撫刁氏, 副劉氏, 土經羅夥氏”라 기재되어 있거나와 正統 8년의 일이라 하고 있다.

257)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卷42 弘治 3년 9월 庚申條에 있음.

258) 按察司: 官署名이다. 明初에 提刑按察司를 설치하여 한 省의 법률문제를 관장하도록 했다. 洪武 14년(1381)에 각 道에 按察司를 설치했으며, 建文 연간(1399~1402)에 13道 按察司를 설치하여, 按察使

부사(副使) 임준(林俊)²⁵⁹⁾이 참장(參將) 목상(沐祥)²⁶⁰⁾과 함께 공문서를 보내고 가서 효유하자, 비로소 군대를 물리고 관인을 되돌려주었다. 사정이 [조정에] 보고되자, 홍치에는 진순관(鎮巡官)이 그때 상주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들을 꾸짖었다.²⁶¹⁾ 가정 39년(1560)에 면전의 추장 망시체가 반기를 들고서 간에의 여러 토관을 불러 모아 침범해왔다.²⁶²⁾ 만력 초에 선무(事) [宣撫使] 도파거(刀怕攀)가 죽었는데, [그의] 처 한씨(罕氏)는 목방(木邦)의 선위(事) 한발(罕拔)의 누이이다. 한발이 반기를 들고 면전에 의부한 후, 도파거의 동생 도파문(刀怕文)에게 직을 세습하고 면전에 청신(稱臣)하도록 했으며, 또한 [그의] 누이를 [배필로 그에게 주겠다고] 허락했다. [그러나] 도파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교전(交戰)했다. 면전의 군대 10만 명이 돌연 이르자 도파문은 케멸을 당하고 영창(永昌)으로 달아났다.²⁶³⁾ 한발은 마침내 간에의 인장을 탈취하여 한씨에게 주었다. [만력] 10년(1582)에 농천(隴川)의 악봉(岳鳳)이 간에를 공파하고 한씨의 인장을 탈취하였다. [만력] 11년(1583)에 유겸 유경(劉綎)이 농천을 공파하자 악봉이 항복하였는데, 인장을 추적하여 찾았으나 결국 얻지 못하였다.²⁶⁴⁾ 그러나 간에 부족의 무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대(代)를 이었는데, 역시 자료가 없어서

1) 명과 副使, 僉事, 經歷 등의 관리를 두었다. 清代에는 順治 연간(1644~1661)에 이르러 直隸省을 제외 한 지역에 按察司를 설치했으며, 清 宣統 2년(1910)에 提法使司로 개칭했다.

259) 林俊(1452~1527): 字는 待用 혹은 大用이라고도 하고, 號는 見素·雲莊이며, 福建 莆田 사람이다. 成化 14년(1478)의 進士로 刑部主事·員外郎에 제수되었는데, 妖僧 繼曉를 참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 下獄되고 姚州 判官으로 좌천되었다. 이후 弘治 원년(1488)에 雲南副使로 발탁되었고, 弘治 5년(1492)에는 南京右僉都御史가 되었다. 正德 연간(1436~1449)에 들어와 右副都御史에 올라 江西·四川 巡撫가 되었으며, 世宗이 즉위해서 工部尙書·刑部尙書를 역임했는데, 嘉靖 2년(1523)에 사직을 하였고, 嘉靖 6년(1527)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大禮의 議에서 楊廷和와 뜻을 같이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追及이 미처 官職이 削奪되었으나 隆慶 初에 復官되었다. 少師에 追贈되고, 謚號는 貞肅이며, 그의 저서로, 『見素文集』·『西征集』이 있다.

260) 沐祥: 生卒年 未詳. 黔國公 沐英의 후예로 都指揮僉事, 參將을 역임하였으며, 侯山과 騰衝 일대에 주둔하면서 여러 차례 土司의 叛亂을 평정했다.

26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孝宗實錄』卷42 弘治 3년 9월 庚申條에 기재되어 있는데, 總兵官 沐稼과 巡撫인 都察史 王諤가 오덧동안 上奏하지 않았었다.

262)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卷482 嘉靖 39년 3월 甲午條에 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지만 嘉靖 39년(1560)에는 이미 莽瑞體는 세상을 떠났고 그를 이어 莽應龍이 緬甸의 추장으로 재임하고 있었거나와, 본문에 기재된 莽瑞體는 莽應龍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263) 이에 관한 내용은 앞의 『緬甸傳』에도 있음.

264) 遊擊 劉綎이 隴川을 공파하고, 岳鳳이 항복한 내용은 『神宗實錄』卷148 萬曆 12년 4월 丁巳條 참조.

밝혀내기 어렵다고 한다.

潞江 노강

潞江, 地在永昌·騰越之間, 南負高崙山, 北臨潞江, 爲官道咽喉, 地多瘴癘, 號名怒江甸。至元間, 隸柔遠路。

노강(潞江), 그 지역은 영창(永昌)과 등월(騰越) 사이에 있는데, 남으로는 고륜산(高崙山)²⁶⁵⁾을 등지고 있고 북으로는 노강(潞江)²⁶⁶⁾에 임해 있어, 관도(官道)의 인후(咽喉)이다. 이 지역은 풍토병이 많으며, 만민들은 노강전(怒江甸)이라 부른다. 지원(至元) 연간(1264~1294)에 유원로(柔遠路)²⁶⁷⁾에 예속했다.

永樂元年內附, 設潞江長官司。其地舊屬麓川平緬, 西平侯秦其地廣人稠, 宜設長官

- 265) 高崙山: 西南의 少數民族들은 高黎貢山 혹은 高黎共山이라 부르고 있고, 永昌府 騰越州에서 東쪽으로 120리에 위치해 있으며, 一名 昆崙崗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昆崙山을 말한다.
- 266) 潞江: 怒江이라고도 칭하며, 중국 서남 자구에 있는 큰 하천 가운데 하나다. 상류는 那曲河로 靑藏高原의 三江源 지역인 唐古拉山脈의 巴斯克我山에서 발원하여 靑藏高原 내부로 들어가 서북에서 동남으로 비스듬히 티베트 자치구 동부의 平淺谷地를 지나 운남성으로 들어가 남쪽으로 흘러 미얀마를 거쳐 인도양 안다만해로 들어간다. 강의 발원지로부터 총장은 3,240km인데, 중국 내지의 전장 2,013km 중 운남성 지역에 흐르는 구간은 650km이다. 潞江의 상류는 고원지대로 산세가 비교적 평탄하며 수량이 많고 수면이 비교적 넓어 유속이 빠르지 않다. 중류는 비탈이 심하여 유수가 급한 고산계곡 지역이며, 하류는 산세가 넓고 빗물이 보충이 되어 농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潞江의 저류는 짧으며 전형적인 羽狀水系로 河床의 낙차가 커서 수력자원이 풍부하다. 현재 중국은 이 강줄기에 14개의 댐을 건설하였으며, 미얀마도 4개를 건설하고 있다. 潞江은 수심이 깊고 어두워 중국 최초의 지리서인 『禹貢』에서는 이를 黑水河로 칭하고 있다. 현재의 怒族은 阿怒日美라고 부르는데, 阿怒는 怒族이 스스로를 칭하는 말이며, 日美는 한어로 번역하며 江이라는 의미로, 阿怒日美는 怒族이 거주하는 지역 내의 강이라는 의미이다.
- 267) 『元史』 卷1 『地理志』4에 보면, 柔遠路는 大理의 서쪽, 永昌의 남쪽에 위치했고, 그 지역을 潞江, 普畔險, 申驗獎峯, 高摩坪 등으로 불렀는데, 至元 13년(1276)에 柔遠路軍民總管府를 세우고 怒江甸을 다스렸다.

司治之。二年頒給信符·金字紅牌。九年, 潞江長官司曩壁遣子羅羅法貢馬·方物, 賜鈔幣, 尋陞爲安撫司。曩壁來朝, 貢象·馬·金銀器, 謝恩。

영락 원년(1403)에 조정에 귀부하니, [조정은 이곳에] 노강장관사(潞江長官司)를 설치하였다. 이 지역은 옛날에 녹천(麓川)과 평민(平緬)²⁶⁸⁾에 예속되었는데, 서평후(西平侯)가 이 지역은 넓고 인구가 조밀하여 마땅히 장관사(長官司)를 설치하여 다스려야 한다고 상주했다.²⁶⁹⁾ [영락] 2년(1404)에 신부·금지홍패(金字紅牌)를 내려주었다.²⁷⁰⁾ [영락] 9년(1411)에 노강장관사의 낭벽(曩壁)²⁷¹⁾이 아들 유라법(羅羅法)을 보내 말과 방물을 바치니 [영락제가] 초소를 하사했으며,²⁷²⁾ 오래지 않아 안무사(安撫司)²⁷³⁾로 승격시켰다. [이에] 낭벽이 내조하여 코끼리·말·금은기를 바치고서 은혜에 감사드렸다.²⁷⁴⁾

- 268) 平緬: 고대에는 百夷의 땅으로 元나라 때에 麓川·平緬 2개의 路를 설치하였다. 이후 明 洪武 15년(1382)에 이 지역에 麓川平緬宣慰司를 설치하였는데, 후에 麓川宣慰司로 변경하였다. 지금의 雲南省 騰衝縣에 속한 지역이다.
- 269) 永樂 원년(1403) 정월에 潞江을 비롯 普樂峯, 大侯, 潯甸, 干崖 등 다섯 長官司를 설치했거니와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6 永樂 원년 3월 乙未條에 있음.
- 270) 永樂 2년(1404)에 潞江을 비롯해서 雲南, 木邦, 八百大甸, 麓川平緬, 緬甸, 車里, 老撾 등 宣慰使司와 大修, 里馬, 茶山, 干崖 등 長官司, 그리고 孟良, 孟定, 潯甸, 鎮康 등 府州의 土官에 信符·金字紅牌를 내려줬다. 『太宗實錄』 卷35 永樂 2년 5월10日, 庚午條 참조.
- 271) 曩壁: 『王』이라는 의미의 『法』자를 붙여 曩壁法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그는 洪武 15년(1382)에 明의 大軍이 金齒를 함락하자 明에 歸附하여 潞江府의 屬官이 되었으며, 永樂 원년에 長官司가 설치되고서 이듬해에 長官의 信符와 牌를 받았다(『道光』 『雲南志』, 『土司志』 永昌府 潞江土官 참조).
- 272) 永樂 9년(1411) 3월의 일이다. 『太宗實錄』 卷114 永樂 9년 3월 甲戌條 참조.
- 273) 安撫司: 隋代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즉, 隋 文帝 開皇 9년(589)에 氾洗을 파견하여 嶺外를 安撫토록 했고, 또 仁壽 4년(604)에 楊素를 河北道 安撫大使로 삼은 적이 있다. 唐代에는 語州에 木州이 流자 巡察·流察·存撫 등의 관리를 파견하였고, 후에는 節度使로 이를 겸하도록 하였다. 宋代에는 諸路에 安撫司 혹은 經略安撫司를 설치했고 安撫使는 朝臣으로 임명하여 一路의 군사와 민정에 관한 일을 관장토록 했다. 元代에는 四川과 湖廣 등 멀리 떨어진 변방의 소수민족이 사는 지구에 두었는데, 宣慰使와 宣撫使의 지위를 발도록 하였다. 각 그에 다루가치 1명(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음), 安撫使 1명을 두었고, 그 밑으로 同知, 副使, 僉事, 經歷, 知事 등의 관직을 두었으며, 그 외에 또 照磨, 鹽課 등도 추가로 두었다. 明清시대에도 이들 이어받아 安撫使司를 두어 安撫使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元代에는 安撫使에 流官과 土官 모두 임명했는데, 明代에 이르러서는 土官으로만 임명하였다. 元代의 安撫使는 다루가치와 함께 官秩이 正三品이었으나,明代에는 從五品이었다. 黃開華, 1968: 34~39 참조.

宣德元年，曩壁遣人貢馬，請改隸雲南布政司，從之。遣中官雲仙齋敕及綽幣賜曩壁。三年，黔國公沐晟奏，潞江千夫長刀不浪班叛歸麓川，劫潞江，遂曩壁入金齒，據潞江驛，逐驛丞周禮，立寨固守，斷絕道路，請發兵討。帝敕晟與三司計議。五年，晟奏，刀不浪班罪重，還所據地，歸舊部，輸役如故，乞宥之。報可。是年置雲南廣邑州。時雲仙還言：「金齒廣邑寨，本永昌副千戶阿千所居。千嘗奉命招生蒲五千戶向化。今千孫阿都魯同蒲翁茶塞等詣京貢方物，乞於廣邑置州，使阿都魯掌州事，以熟蒲翁所招生蒲屬之。」帝從之，遂以阿都魯為廣邑州知州，茶塞為同知，鑄印給之。八年改金齒永昌千戶所為潞江州，隸雲南布政司，以千夫長刀珍罕為知州，刀不浪班為同知，置吏目及清水關巡檢各一員。

선덕 원년(1426)에 낭벽이 사람을 보내 말을 바치고서²⁷⁵⁾ 운남포정사(雲南布政司)에 바꾸어 예속시켜주기를 청하니, [선덕제가] 이를 허락하였다.²⁷⁶⁾ 중관 운선을 보내 칙서 및 기궤(綽幣)²⁷⁷⁾를 가지고 가 낭벽에게 하사하였다.²⁷⁸⁾ [선덕] 3년(1428)에 검국공(黔國公) 목성(沐晟)²⁷⁹⁾이 상주하기를, 노강(潞江)의 천부장(千夫長) 도불랑반(刀不浪班)이 반기를 들어 녹천

- 274) 『太宗實錄』 卷122 永樂 9년 12월 甲午條에 보면, 曩壁을 潞江安撫로 기재하고 있고, 曩壁이 來朝하여 코끼리·말·金銀器를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 275) 曩壁은 宣德 원년(1426) 6월에 그의 아들 刀門法을 명에 보내 말과 銀器를 바쳤다. 『宣宗實錄』 卷18 宣德 원년 6월 辛巳條 참조.
- 276)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18 宣德 원년 6월 壬午條에 있다. 당초에 潞江은 澗州라 더불어 長官司로 하여 金齒에 예속시켰는데, 永樂 연간(1403~1424)에 澗州을 州로 승격시켜 長官 司景發을 知州삼아 雲南布政司에 예속시키고 潞江 역시 安撫司로 승격시켰으나 예전처럼 金齒에 예속시켰다. 그러다 이때에 이르러 安撫使 曩壁이 아들을 보내 入貢하여 布政司에 예속시켜주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 277) 綽幣: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비단을 일컫는다.
- 278) 宣德 2년(1427) 9월의 일이다. 『宣宗實錄』 卷31 宣德 2년 9월 戊申條 참조.
- 279) 沐晟(?~1439): 南京 鳳陽府 定遠縣 사람이다. 昭靖王 沐英의 각위로, 洪武 연간(1368~1398)에 後軍都督僉事에 임명되었다. 부친 목영이 죽자, 목성이 西平侯 작위를 세습하고 雲南에 진수하였다. 永樂 4년(1406)에 征夷副將軍의印을 패용하고 雲南·四川의 군사를 통괄하여 운남을 토벌하였다. 이 공적으로 승진하여 黔國公에 봉해졌고, 雲南에 진수하였다. 永樂 말에 富州의 叛寇를 항복시킨 공로로 大傅가 더해졌다. 正統 3년(1438)에 麓川의 思任發이 반란을 일으키자 토벌에 나섰으나, 이듬해 돌아오는 중에 병에 들어 楚雄嶼驛에서 죽었다. 定遠王에 追封되었고, 諡號는 忠敬이다.

(麓川)에 귀부하고 노강(潞江)을 탈취하였으며, 낭벽을 좇아내 금치(金齒)로 들어가게 하고 노강역(潞江驛)을 점거하여 역승(驛丞)²⁸⁰⁾ 주례(周禮)를 좇아내고서 채(寨)를 세워 굳게 지키고 도로를 단절하였으니, 군대를 보내 토벌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선덕제가 목성(沐晟)과 삼사(三司)²⁸¹⁾에 칙서를 내려 계책을 의논하도록 했다.²⁸²⁾ [선덕] 5년(1430)에 목성이 상주하기를, 도불랑반이 형벌을 두려워하여 점거한 지역을 되돌려 바치고 옛 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노역을 다하겠다고 하니, 그를 용서해주기를 청하였다.²⁸³⁾ [이에 선덕제는]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 이 해에 운남 광음주(廣邑州)²⁸⁴⁾를 설치했다. 당시 운선이 돌아와 아뢰기를, “금치(金齒)의 광음채(廣邑寨)는 본래 영창(永昌)의 부천호(副千戶) 아간(阿干)이 점유한 곳입니다. 아간은 일찍이 명을 받들고서 생포(生蒲)²⁸⁵⁾ 5천 호(戶)를 초무하여 귀부시켰습니다. 지금 아간의 손자 아도로(阿都魯)가 포(蒲)²⁸⁶⁾의 추장 망새(莽塞) 등과 함께 경사에 이르러 방물을 바치고 광음(廣邑)에 주(州)를 설치해 주기를 청하옵는데, 아도로로 하여금 주(州)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여 숙포(熟蒲)와 아울러 초무한 생포(生蒲)를 그에게 예속시키십시오”라고 하니, 선덕제가 이를 허락하고 마침내 아도로를 광음주의 지주(知州)로 삼고 망새를 동지(同知)로 삼고서 인장을 주조하여 그들에게 주었다.²⁸⁷⁾ [선덕] 8년(1433)에 금치의 영창(永昌) 천호소(千戶所)²⁸⁸⁾를 노강주(潞江州)로 고쳐 운남포정사에 예속시키고 천부장

- 280) 驛丞: 州·縣에 소속되어 郵傳과 迎送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 281) 三司: 明朝의 3司는 행정을 담당하는 承宣布政使司, 감찰을 담당하는 提刑按察使司, 군사를 담당하는 都指揮使司를 가리킨다.
- 282) 雲南 總兵官 太傅 黔國公 沐晟의 上言과 宣德帝의 沐晟과 三司에 내린 명령은 『宣宗實錄』 卷45 宣德 3년 7월 癸丑條에 보인다.
- 283) 黔國公 沐晟의 上奏 내용은 「宣宗實錄」 卷62 宣德 5년 정월 丙寅條 참조.
- 284) 廣邑州: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廣邑州條에 보면, 본래 金齒軍民司의 廣邑寨인데, 宣德 5년(1430)에 州로 승격되었고, 宣德 8년(1433) 11월에 布政司에 예속되었으며, 正統 원년(1436) 3월에 順府府의 右甸으로 옮겼다고 기재되어 있음.
- 285) 중국 내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을, 그들의 문명 수준이나 귀화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생과 熟으로 구분하는데, 生蒲는 귀화하지 않아 문명의 수준이 저급한 潘人을 말하고, 熟蒲는 귀화하여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熟成된 문화를 가진 潘人을 일컫는다.
- 286) 潘: 潘人을 일컫으며, 潘蠻이라고도 한다. 漢 渡人の 후예로 唐나라 때에는 樓子蠻이라 칭했고, 지금의 雲南省 思茅, 西雙版納, 臨滄, 保山, 德宏 등지에 聚居하는 布朗族의 先人이다.
- 287) 이상의 내용은 「宣宗實錄」 卷66 宣德 5년 5월 乙丑條에 있는데, 본문에 있는 廣邑州는 실록에 廣益州로 기재되어 있고, 莽塞는 莽峯으로 기재되어 있다.
- 288) 千戶所: 지방의 군사제도인 衛所制 하에서, 1府에 1개 씩 설치된 衛 이하의 所로, 병력은 1,120명을

도진현(刀珍罕)을 지주로, 도불랑반(刀不浪班)을 동지로 삼았으며,²⁸⁹⁾ 이목(吏目)²⁹⁰⁾과 청수관(淸水關)²⁹¹⁾ 순검(巡檢)²⁹²⁾ 각 1명씩을 두었다.²⁹³⁾

正統三年從黔國公沐晟奏，改潞江安撫司仍隸金齒，悉還舊制。五年，安撫使練舊法以麓川思任發叛來告，諭整兵以俟。未幾，麓川賊遣部衆奪據潞江，殺傷官軍，潞江遂削屏。

정통 3년(1438)에 검국공 목성의 주청에 따라 노강안무사(潞江安撫司)를 예전처럼 금지에 예속시키도록 바꾸고, 모두 옛 제도로 되돌렸다.²⁹⁴⁾ [정통 5년(1440)에 안무사(安撫使) 선구범(練舊法)²⁹⁵⁾이 와서 녹천의 사임발(思任發)이 반기를 들었다고 고하니, 군대를 정비하여 방지하도록 유지를 내렸다.²⁹⁶⁾ 오래지 않아 녹천의 적(賊)이 부족의 무리를 보내 노강을 탈취해 점거하고 관군을 살상하니, 노강은 마침내 쇠약해졌다.

거느리며, 千戶所 아래에는 百戶所가 있다.

289) 이에 관련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9월 丙寅條 참조.

290) 吏目: 관부의 문서를 관장하는 직이다. 이미 원나라 때에 提學司 및 中·下級 千戶의 州에 관원을 보좌하는 吏目을 두었고, 明代에도 太常寺·鹽課提學司·市舶提學司·京衛指揮使司·太醫院·五城兵馬司 및 지방의 知州 아래에 吏目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하였다. 淸朝에서도 太醫院·五城兵馬司 및 知州 아래에 吏目을 두어 刑獄과 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 본문에서의 吏目은 知州를 보좌해서 문서를 담당하는 관원으로 보인다.

291) 淸水關: 淸水河의 要塞地로 원나라 때에 건설되었다. 雲南 保山縣의 서북쪽 40리에 위치하는데, 지금의 保山 臥佛寺가 있는 곳이다.

292) 巡檢: 元, 明, 淸 時代에 縣城 衙門의 밑에 治安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巡檢司의 관원을 일컫는다.

293) 이에 관련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9월 辛未條에 있는데, “置雲南潞江州吏目一員, 設本州淸水關巡檢司置土官巡檢一員”이라 기재되어 있다.

294)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42 正統 3년 5월 壬寅條 참조.

295) 練舊法: 龔賢의 손자로 본래 이름은 龔舊法이었는데, 纜으로 改姓하였다.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永昌府 龍陵廳潞江安撫司土官에 보면, “龔驥法卒, 其子先平, 傳龔舊法. 遺弟龔賈入貢, 改姓練, 始名練舊法”이라 기재되어 있고, 이후 安撫司의 職은 練舊法을 이어 그의 아들 卜法으로, 이어서 安撫으로 전해졌다.

296) 이에 관련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72 正統 5년 동10월 癸未條 참조.

正德十六年，安撫司土官安捧奪其從弟掩莊田三十八所，掩訟於官，不報。捧遂集蠻兵圍掩寨，縱火屠掠，掩母子妻妾及蠻民男婦死者八十餘人，據有其地。官軍誘執之，捧死於獄。帝命戮屍棄市，其子詔及黨與皆斬。天啓間，有練世祿者，繼襲安撫。

정덕(正德)²⁹⁷⁾ 16년(1521)에 안무사(安撫司)의 토관(土官) 안봉(安捧)²⁹⁸⁾이 그의 종제(從弟)인 안엄(安掩)²⁹⁹⁾의 장전(莊田) 38곳을 탈취했는데, 안엄이 관부(官府)에 호소하였으나 회답하지 않았다. 안봉이 마침내 만인(蠻人)의 군대를 모아 안엄의 채(寨)를 포위하고서 불을 질러 죽이고 약탈하여 안엄의 모친과 자식, 처와 첩 및 만인(蠻人) 백성 남녀 죽은 자가 80여 명이나 되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점거하였다. 관군(官軍)이 안봉을 유인하여 붙잡았으며, 안봉은 옥(獄)에서 죽었다. 정덕제는 그의 시신을 육사(戮屍)³⁰⁰⁾하여 효시(梟示)하고 그의 자식 안조(安詔)와 동당(同黨)의 무리 모두를 참수하도록 명하였다.³⁰¹⁾ 천계 연간(1621~1627)에 선세록(線世祿)³⁰²⁾이라는 자가 안무사의 직위를 세습하여 이었다.

南甸 二宣撫司

남진 친선무사

南甸宣撫司，舊名南宋，在騰越南半箇山下，其山巔北多霜雪，南則炎瘴如蒸。元置

297) 正德: 명나라 11대 황제인 朱厚照의 연호임.

298) 실록에는 練捧으로 기재되어 있음.

299) 실록에 의하면 練掩으로 표기되어 있음.

300) 戮屍: 이미 죽은 사람의 목을 베는 형벌임.

301) 이에 관한 내용은 『武宗實錄』 卷126 正德 10년 6월 己卯條에 보이거나 “雲南潞江安撫司土官安撫練捧奪其從弟掩莊寨三十八所，掩罷訟於官，未盡。復捧遂集蠻兵至掩寨，縱火屠掠，掩母子妻妾及夷民男婦死者八十餘人，因屯據自保。雲南鎮巡官遣兵誘執之，具上其狀捧尋死於獄。命仍戮屍梟首，其子詔及黨與皆斬”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본문의 正德 16년(1521)은 正德 10년(1515)을 잘못 표기한 것 같고, 安撫司 土官의 이름도 安捧으로 기재했으나 練捧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302) 線世祿: 練舊法의 후손이다.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永昌府 龍陵廳潞江安撫司土官에 의하면, 安捧, 즉 練捧이 죽은 뒤 嘉靖 4년(1525)에 그의 동생 線潮가 安撫使의 職을 세습하고, 이어서 線田, 線賈, 線世恩으로 전해졌으며, 世恩을 이어 그의 동생 線世祿으로 전해졌다.

南甸路軍民總管府，領三甸。

남전(南甸)선무사(宣撫司)³⁰³는 옛날에 남송(南宋)³⁰⁴이라 불렀고, 동월(騰越) 남쪽의 반개산(半箇山)³⁰⁵ 아래에 있는데, 그 산 정상의 북쪽에는 많은 상설(霜雪)이 있고, 남쪽에는 증기와 같은 독한 장기(瘴氣)³⁰⁶가 있다. 원나라는 남전로(南甸路)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를 설치하여³⁰⁷ 세 개의 전(甸)을 관령하도록 했다.

洪武十五年改南甸府。永樂十一年改爲州，隸布政司。宣德三年，南甸爲麓川侵奪，有司請討。不許，降敕諭麓川，俾還侵地。五年，南甸州奏：「先被麓川宣慰司奪其境上，賴朝廷威力復之，若不置官司以正疆界，恐侵奪未厭，乞置四巡檢司鎮之。」帝命吏部除官。八年又奏：「與麓川接壤，舊二百夫長在騰衝千戶所時，賴邦哈等處軍民兼守。後麓川侵據，不守者十餘年。今蒙敕諭還，竊恐再侵，百姓逃移，乞於賴邦哈·九浪·莽孟洞三處各置巡檢，以上軍楊義等三人爲之。」命下三司勘覆，授之。

홍무 15년(1382)에 남전부(南甸府)로 바꾸었다.³⁰⁸ 영락 11년(1413)에 주(州)로 바꾸어 포정사(布政司)에 예속시켰다.³⁰⁹ 선덕 3년(1428)에 남전이 녹천에게 침략을 받아 빼앗기니,

303) 南甸宣撫司는 干崖, 隴川宣撫司와 더불어 '三宣'으로 칭해지며,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梁河縣 東北에 위치했다.

304) 南宋: 이 지역에 南宋河가 있음으로 그 지역을 南宋이라 칭했는데, 南宋河는 傣族의 명칭으로, 南底河 즉, 大盈江을 일컫는다. 한편 南宋을 傣族의 명칭으로는 勐底라고도 한다. 南甸 土官의 가족들은 원나라 이전에는 지금의 南甸河 서부의 曼東稍 서북쪽에 있는 蠻林에서 世居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지역은 예전그대로 老官城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龔蔭, 1988: 205).

305) 半箇山: 지금의 雲南省 保山市 昌寧縣 柯街鎮 柯街村 西北部에 위치해 있음.

306) 瘴氣: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毒氣를 말한다.

307) 至元 26년(1289)에 설치하였다.

308) 洪武 15년(1382) 3월에 元代의 官制를 고쳐 雲南布政司 所屬의 52府를 설치했는데, 이때 南甸路를 南甸府로 고쳤다.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3월 己未條 참조.

309) 실록에 보면, 永樂 12년(1414) 정월에 南甸州를 布政司에 예속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음. 『太宗實錄』 卷147 永樂 12년 정월 己亥條 참조.

담당 관원이 [이를] 토벌하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선덕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칙서를 내려 녹천을 혼계하고 효유하여 빼앗은 땅을 되돌려 주라고 하였다.³¹⁰ [선덕] 5년(1430)에 남전주(南甸州)에서 상주하기를, "이전에 녹천선위사(麓川宣慰司)에게 탈취당한 그 경토(境土)는 조정의 위력(威力)에 힘입어 회복했지만, 만일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강계(疆界)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침탈이 끝이 없을 것이니, 네 개의 순검사(巡檢司)³¹¹를 설치하여 진수(鎮守)하도록 청하나이다"라고 하자, 선덕제가 이부(吏部)에 명하여 관원을 임명하도록 했다.³¹² [선덕] 8년(1433)에 또 주청하기를, "[남전은] 녹천과 접경해 있어서, 예전에 열 두 백부장(百夫長)이 등충(騰衝)의 천호소(千戶所)에 있을 때에 뇌방합(賴邦哈) 등지의 군대와 백성이 공동으로 방위했습니다. [그런데] 녹천이 침입하여 점거한 후로, 지치지 않는 지가 10여 년이 나 되었습니다. 지금 황상의 칙유에 힘입어 돌려받았으나 저의 소견으로 다시 침략을 받으면 백성들이 도망쳐 떠날 것이니, 뇌방합·구량(九浪)·망맹동(莽孟洞) 세 곳에 각기 순검(巡檢)을 설치하고 토군(土軍)인 양의(楊義) 등 세 사람을³¹³ [순검]에 임명해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선덕제가] 삼사(三司)에 [이 사안을] 내려 조사하고 심의하도록 명하였으며, 이들을 [관직에] 제수하였다.³¹⁴

正統二年，土知州刀貢奏：「麓川思任發奪其所轄羅卜思莊二百七十八村，乞遣使齎金牌·信符諭之退還。」帝敕沐晟處置奏聞。麓川之役自是起。九年陞州爲宣撫司，以知州刀落硬爲宣撫使，通判劉思勉爲同知。六年頒給金牌·信符·勘合，加敕諭之。十年免所欠差發銀兩，命安業後，仍前科辦。

310) 宣德 3년(1428) 4월의 일로, 당시 雲南3사가 上奏하여 麓川 宣慰使 思任發의 죄를 묻기를 청하였다. 『宣宗實錄』 卷41 宣德 3년 하4월 甲戌條 참조.

311) 巡檢司: 元, 明, 清代에 縣級 衙門의 밑에 治安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下級官署이다. 본문의 내용에서 4곳의 巡檢司는 실록기사에 의하면, 木梯, 雷榜哈, 丘疊磨, 孟倫을 일컫는다.

312) 南甸州에서 올린 上奏의 내용은 『宣宗實錄』 卷67 宣德 5년 6월 甲子條 참조.

313) 실록에 보면, 土軍 楊義를 비롯해 趙得, 趙榮 등 세 사람의 이름이 보인다.

314) 南甸州에서 올린 上奏의 내용과 이에 대해 宣德帝가 下命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9월 己丑條 참조.

정통 2년(1437)에 토주주(土知州) 도공현(刀貢罕)³¹⁵이 상주하기를, “녹천의 사임발이 신이 관찰하는 나부사장(羅卜思莊)³¹⁶ 278개 촌(村)을 탈취해 갔사오니, 청하옵건대 사신을 보내 금패·신부를 가지고 가 그를 효유하여 되돌려 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정통제는 목성(沐晟)에게 칙서를 내려 처리하고 주장(奏章)을 올려 [조정에] 보고하도록 했다.³¹⁷ 녹천의 역(役)³¹⁸은 이로부터 일어났다. [정통] 9년(1444)에 주(州)를 승격시켜 선무사(宣撫司)로 하고 지주(知州)인 도락경(刀落硬)³¹⁹을 선무사(宣撫使)로 임용했으며, 통관(通判)³²⁰ 유사

- 315) 刀貢罕: 刀貢蠻의 아들로 洪熙 원년(1425) 4월에 부친을 이어 南甸 土知州의 직을 세습했다. 기록에 의하면 명 초기에 刀貢孟이 百夫長으로 雲南 정벌군에 종군하였는데, 이후 千夫長이 되어 南甸에 주둔하게 되었다. 刀貢孟이 죽고 그의 동생 刀貢蠻이 千夫長을 세습했는데, 永樂 5년(1407)에 刀貢蠻이 方物과 馬匹를 進貢하여 이후 南甸 知州로 승진하였으며, 그가 죽자 刀貢罕이 세습하였다(熊蒸, 1988: 206).
- 316) 羅卜思莊: 지금의 雲南省 梁河縣 南部의 芒東 지역이다. 『讀史方輿紀要』卷119 『雲南』7에 보면, 羅卜思莊은 南甸宣撫司의 남쪽 70리에 위치해 있고, “正統七年, 王驥討麓川賊, 自騰衝出南甸, 進至羅卜思莊, 又萬曆三年, 木邦酋罕拔毒羅兵, 又合龍川叛目岳鳳兵襲陷于崖, 千崖守備李騰霄遣守羅卜思莊口”라 기재되어 있다.
- 317) 正統 2년(1437) 10월의 일로,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35 正統 2년 동10월 辛未條 참조.
- 318) 麓川之役: 英宗 正統 연간(1436~1449)에 雲南省 麓川宣慰司의 思任發과 그의 아들, 思機發이 일으킨 반란에 대한 토벌전을 일컫는다. 일찍이 洪武 15년(1382)에 明朝가 雲남을 평정했을 때, 平福路의 주장 思機發이 명에 투항하여 平福 宣慰使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후 思機發은 세력이 강해지고 지배 범위가 확대되자 명에 반기를 들고 雲남 內地로 침범하여 緬甸과 八百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洪武 28년(1395)에 麓川에 내전이 일어나자 이를 틈타 明軍이 진군하여 思機發을 죽이고 녹천을 회복하였으며, 그의 세력이 있던 지역에 孟定, 威遠, 潯甸, 木邦, 孟養 등의 토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永樂 20년(1422) 무렵부터 麓川의 세력이 다시 성하여 사윤발의 次子인 思任發이 주변의 여러 토사를 빈번히 침략하고, 正統 연간(1436~1449)에 이르러서 더욱 세력을 얻어 雲남 내지로까지 침입해 왔다. 이에 명 조정은 正統 4년(1439)에 雲南의 黔國公 沐晟과 左都督 方政, 右都督 沐昂 등에게 이를 토벌하도록 했으나 실패하고, 정통 6년(1441)에 王驥를 總督軍務, 蔣貴를 總兵官으로 임명하여 정벌하였다. 이때 思任發은 孟養에서 緬甸으로 도망했지만 그의 아들 思機發이 다시 녹천을 침범하여 세력을 회복함으로써 正統 8년(1443)에 다시 정벌에 임하였다. 緬甸에 붙잡혀 있는 思任發을 얻지 못하고 또 思機發을 붙잡지 못했지만 녹천의 故地에 麓川宣撫司를 설치하여 귀순해 온 恭項을 宣撫使로 삼았다. 이후 사임발은 곧 죽었지만 사기발이 孟養으로 달아나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正統 13년(1448)에 王驥를 總督軍務, 官聚를 總兵官으로 삼아 세 번째 정토를 단행했다. 이로써 명의 녹천에 대한 征討는 끝이 났지만 곧 景泰 5년(1454)에 緬甸이 思機發을 붙잡아 명에 바치고, 이어 그의 동생 思卜兒이 入貢함으로써 이후 평온해졌다.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卷30 『麓川之役』 참조.
- 319) 刀落硬: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永昌府 南甸宣撫司土官에 보면, 刀貢罕의 아들로 麓川의 정벌에 공이

면(劉思勉)을 토동지(土同知)로 삼았다.³²¹ [정통] 6년(1441)³²²에 금패·신부·감합(勸合)³²³을 내려주었고, 이에 더해 칙서를 내려 효유했다. [정통] 10년(1445)에 [규정예] 부족한 차발은량(差發銀兩)을 면제해 주고 본업에 충실히하도록 하게 한 후, 예전처럼 종래의 부세를 징수했다.³²⁴

天順二年復置南甸驛丞一人, 以土人之爲之. 時宣撫刀落蓋奏南甸寧伯毛勝違騰衝千戶蘭愈占其招入地, 逼民逃竄. 敕雲南三司官同巡按御史詣其地體勘, 以所占田寨退還, 治勝·愈罪.

천순 2년(1458)에 또 남甸(南甸) 역丞(驛丞) 1명을 설치하고 토착인(土着人)을 [역수에] 임명하였다.³²⁵ 당시 선무[사](宣撫使) 도락개(刀落蓋)³²⁶가 상주하기를, 남명백(南寧伯)

있어 正統 9년(1444)에 州를 宣撫司로 승격하여 刀落硬을 宣撫使로 삼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南甸司刀興世系宗譜』에 의하면 刀落硬은 刀貢蠻의 아들, 즉 刀貢罕의 동생이자 아들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 320) 通判: 府의 副職으로, 知府 밑에서 糧運·水利·屯田·牧馬·江海防務 등의 일을分管한 正六品의 관직이다.
- 321) 正統帝는 正統 9년(1444) 6월에 刀落硬 등이 여러 차례 征討하여 夷民을 拔遷했으므로 南甸, 干崖를 宣撫司로 승격시키려 한다는 雲南總督軍務 靖遠伯 王驥의 주청에 따라 南甸州 및 干崖長官司를 宣撫司로 하고, 南甸 知州 刀落硬을 南甸 宣撫使로, 通判 劉思勉을 同知로, 干崖의 長官 刀怕便을 干崖 宣撫使로, 副長官 劉奕을 同知로 임명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17 正統 9년 6월 癸未條 참조.
- 322) 正統 9년에 관한 내용 다음에 正統 6년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시대 순에 따른 문장의 구성상 여기에서의 正統 6년은 誤記인듯하다.
- 323) 勸合: 勸合符 혹은 勸合文冊이라고도 한다. 明朝에서 사절단의 眞節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한 증명서이다. 明朝는 외국의 조공사절을 하나의 典典으로 간주하여 조공의 회수, 선발의 수, 인원 등을 제한하고 자 했으며, 이 내용을 쓴 문서를 양쪽이 갈라진 한 면씩 보관하고 있다가, 사절이 도착하면 서로 맞추어보아 합치되어야 비로소 정식 사절로 인정했다. 勸合符는 洪武 16년(1383)에 占城을 비롯하여 暹羅·眞臘 등에 발급한 것이 최초의 일인데, 명의 改元, 즉 기본적으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새로 발급하였다.
- 324) 正統 10년(1445) 3월 당시 總兵官 都督 沐昂이 “南甸干崖二宣撫司, 先被麓賊侵擾民不安, 拖欠差發銀兩”이라 보고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27 正統 10년 3월 庚辰條 참조. 南甸宣撫司에서 징수한 差發銀數는 銀 一百兩이었다고 한다(萬曆『雲南通志』 卷16 羈屬差發條 참조).
- 325) 天順 2년(1458) 11월의 일로, 당시 南甸宣撫司 土官 宣撫使 刀落硬의 奏請에 따라 설치했다. 『英宗實錄』 卷297 天順 2년 11월 辛醜條 참조.

모승(毛勝)³²⁷⁾이 등충(騰衝)의 천호 인유(蘭愈)를 보내 그의 초팔(招八) 지역을 점령하고서 백성들을 꺾박하여 도망치게 했다고 했다. [이에] 운남 삼사관(三司官)³²⁸⁾에게 칙서를 내리, 순안어사(巡按御史)³²⁹⁾와 함께 그 지역에 나아가 몸소 조사하여 짐거한 전토와 채(寨)를 되돌려 주도록 하였으며, 모승·인유를 죄로 다스렸다.³³⁰⁾

南甸所轄羅卜思莊與小隴川，皆百夫長之分地，知事謝氏居巽宋，閔氏居蓋西，屬部直抵金沙江，地最廣，司東十五里曰蠻干，宣撫世居之，南百里有關，立木爲柵，周一里，曰南牙，甚高，山勢延袤一百餘里，官道經之，上有石梯，蠻人據以爲險。

남천(南甸)이 관할하는 나복사장(羅卜思莊)과 소농천(小隴川)³³¹⁾은 모두 백부장(百夫長)

326) 刀落蓋: 刀落硬의 아들이다. 『南甸司刀興世系宗譜』에 의하면, 刀落蓋가 죽자 그의 아들 刀落宜이 宣撫使의職을世襲했으며, 이후 宣撫使는 刀落遇, 刀落葉, 刀落成, 刀落正, 刀落太로 이어졌다. 刀落太는 萬曆 11년(1583) 겨울에 緬甸에 함락은 당했으나 그의 아들 刀落臨이 嶽鳳을 平定한 功으로 宣慰使로 拜封되어 임명되었다.

327) 毛勝(1401~1458): 字는 用欽이고, 初名은 福壽이며, 順天府 薊州(지금의 天津 薊縣) 사람으로, 元朝 右丞相 伯托花의 손자이다. 毛勝의 伯父인 那海는 洪武 元監(1368~1398)에 明朝에 귀부하여 '靖難'의 役에 참여하여 공을 세워 都指揮同知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어 毛勝의 父親 安太가 뒤를 이었다. 이후 羽林 指揮使에 올랐고, 아들 毛濤가 이 직을 이었는데 毛濤가 죽고 자식이 없자, 毛勝이 직을 이어받게 되었다. 毛勝은 여러 차례 成祖의 北征에 참여하여 都指揮使에 올랐고, 正統 7년(1442)에는 麓川 瑣里의 공을 세워 都督僉事가 되었으며, 이후 都督同知로 승차하였다. 正統 14(1449)년에, 也先이 명을 공격하자 그는 平鄯伯 陳懷 등과 함께 京軍을 이끌고大同에 진수하였고, 이후 武清伯 石亨의 천거로 左都督에 임명되었으며, 也先이 이끄는 몽골군을 격퇴하고, 또 湖廣叛亂을 토벌하여 南寧伯에 봉해졌다. 이후 英宗이 復辟한 지 2년이 되는 天順 2년(1458)에 세상을 떠났는데 後에 追贈되었고, 諡號는 莊毅이다.

328) 三司官: 일반적으로 三司라 하며, 明代 各省의 행정을 담당하는 承宣布政使로, 감찰을 담당하는 提刑按察使로, 군사를 담당하는 都指揮使司를 가리킨다.

329) 巡按御史: 본래 唐代에 御史臺를 설치하여 감찰의 임무를 맡도록 했는데, 明代에 어사대 대신 都察院을 설치하였다. 이때 都察院의 말직으로 13도에 監察御使를 두고 지방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그 별칭이 巡按御史이다. 都察院 소속으로 天子를 대신하여 지방을 순찰하고, 각 지방 정치의得失, 군민의 利病 등을直言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고, 官品은 正七品으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지방 정국에 관여하는 바가 많았다. 北直隸에 2명, 南直隸에 3명, 宣府·大同에 1명, 遼東·甘肅 및 13省에 각 1명을 두도록 했다. 『明史』 卷73, 『職官志』2 참조.

330) 天順 2년(1458) 12월의 일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98 天順 2년 12월 壬申條 참조.

의 관할 지역이다. 지사(知事)인 사씨(謝氏)는 낭송(曩宋)³³²⁾에 거주하고 민씨(閔氏)는 잔서(蓋西)³³³⁾에 거주하며, 소속되어 있는 부족이 곧바로 금사강(金沙江)에 맞닿아 있으니, 지역이 가장 넓다. [선무(宣撫)]사(司)의 동쪽 15리(里)³³⁴⁾에 만간(蠻干)³³⁵⁾이라는 곳이 있는데, 선무[사](宣撫[使])가 대대로 이곳에 거주했다. 남쪽으로 100리 떨어진 곳에는 관[關]³³⁶⁾이 있는데, 나무를 세워 성체를 만들었고 둘레가 1리였다. [이곳은] 남야(南牙)³³⁷⁾라 일컫는데, 매우 높고 산세(山勢)가 남북으로 1백여 리나 이어지며, 관도(官道)가 이를 경유한다. 위에는 돌로 만든 층계가 있는데, 만인(蠻人)이 이곳을 점거하여 장에물로 삼았다.

茫市 망시

茫市，舊曰怒謀，又曰大枯曠·小枯曠，在永昌西南四百里，即唐史所謂茫施蠻也。元中統初，內附。至元十三年立茫施路軍民總管府，領二甸。

망시(茫市)³³⁸⁾는 옛날에 노모(怒謀)라 불렀고, 또는 대고섬(大枯曠)·소고섬(小枯曠)이라 불리며 영창(永昌)에서 서남쪽으로 400리(里)에 있는데, 곧 『당사(唐史)』³³⁹⁾에서 일컫는 망시(茫施蠻)이다.³⁴⁰⁾ 원(元)나라 중통(中統) 초에 중국에 귀부했다. 지원(至元) 13년(1276)에

331) 小隴川: 지금의 雲南省 梁河縣 南部의 勐養鎮.

332) 曩宋: 지금의 雲南省 梁河縣城 東北에 있는 曩宋鎮.

333) 蓋西: 지금의 雲南省 盈江縣 東北에 있는 蓋西鎮.

334) 里: 明代에 길이를 표시하는 尺度는 畝丈·畝地尺·營造尺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明代 畝地尺의 1里는 360步이고, 『算法統宗』 卷3에 의하면 '5尺爲一步'로 되어 있음으로 1里는 1,800尺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里는 576m이다.

335) 蠻干: 지금의 雲南省 梁河縣 東北에 있는 九保街鎮.

336) 지금의 雲南省 盈江縣 서부에 있는 銅壁關을 일컫는다.

337) 南牙: 지금의 雲南省 盈江縣 서부 변경 銅壁關 지역에 위치한 南牙山을 일컫음.

338) 芒市: 지금의 雲南省 潞西市 市政府 소재지이다.

339) 『舊唐書』에는 茫施에 대한 언급이 없고 『新唐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唐史』는 『新唐書』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340) 『新唐書』에서 茫施에 대한 언급은 卷222 『南蠻傳』에 보이며, 『永昌의 남쪽에는 茫天連 茫吐薛 大曠

망시로(茫施路)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를 설립하여³⁴¹⁾ 두 개의 진(甸)을 다스리도록 했다.

洪武十五年，置茫施府。正統七年，總兵官沐晟奏：「茫市陶孟刀放革遣人來訴，與叛寇思任發有譽。今任發已逝去，思機發兄弟三人來居麓川者藍地方，願擒以獻。」兵部言：「放革先與任發同惡，今勢窮乃言結發，請詐難信。宜敕諭放革，如能去逆效順，當密調土兵助剿機發。」從之。八年，機發令其黨洞孟車等來攻茫市，為官軍所敗。放革來降，靖遠伯王驥請設茫市長官司，以陶孟刀放革為長官，隸金齒衛。

홍무 15년(1382)에 망시부(茫施府)를 설치했다.³⁴²⁾ 정통 7년(1442)에 총병관 목성(沐晟)이 상주하기를, “망시(茫市)의 도맹(陶孟)³⁴³⁾ 도방혁(刀放革)³⁴⁴⁾이 사람을 보내어 호소하기를, 반적(叛賊) 사임발(思任發)과는 원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임발은 이미 달아나버렸지만 사기발(思機發) 형제 3명이 녹천 자람(者藍) 지방에 와 거주하고 있으니, [이들을 붙잡아] 바치겠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병부(兵部)에서 아뢰기를, “도방혁은 이전에 사임발과 더불어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 형세가 궁박하여 곧 원한이 맺혀 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로 속이는 것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도방혁에게 칙서를 내려 효유하여, 만일 반역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함을 보이려거든 응당 비밀리에 토병(土兵)을 징발하여 사기발을 토벌하는데 도와야 할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정통] 7년(1442)에 이를 허락하였다.³⁴⁵⁾ [정통] 8년(1443)에 사기발이 그의 동당(同黨)인 연맹차(洞孟車) 등에게 와서 망시(茫市)를 공격하

341) 이에 관한 내용은 「元史」卷61「地理志」4에 보이는데, “中統初內附。至元十三年，立為路，隸宣撫使”라 기재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柔遠路의 남쪽, 瀘江의 서쪽에 있다고 하고 있다.

342) 洪武 15년(1382) 3월에元の官制를 고쳐雲南布政司所屬의 52府를 설치했는데, 이때茫施路를茫施府로 고쳤다. 실록에는茫施府로 기록되어 있음, 『太祖實錄』卷143 洪武 15년 3월 己未條 참조. 343) 陶孟: 頭目이라는 의미임.

344) 茫市 지역은 洪武 연간(1368~1398)에서 正統 연간(1436~1449) 초까지麓川平緬宣慰使司에 속했으며, 茫市의 刀氏는麓川 思氏의 屬官이었다. 그러다가 正統 7년(1442)에麓川의 思任發이 패배하여 도망간 후, 茫市의 刀放革이 비로소 明朝에 歸附했다(龔蔭, 1988: 209~210).

345) 이상의 내용은 『英宗實錄』卷93 正統 7년 6월 甲辰條에 보이는데, 실록에는 茫市의 陶孟 刀放革에 대해 上奏한 인물을 沐晟이 아니라 그의 동생 總兵官 右都督 沐迺으로 기재하고 있다.

라고 명하였는데, 관군에게 패하였다.³⁴⁶⁾ 도방혁이 투항해오자 정인백(靖遠伯) 왕기(王驥)가 망시장관사(茫市長官司)를 설립하기를 청했으며, 도맹(陶孟) 도방혁을 장관으로 삼고 금치위(金齒衛)에 예속시켰다.³⁴⁷⁾

成化八年，木邦翼弄弄亂，掠隴川。敕茫市等長官司整兵備調。萬曆初，長官放福與隴川岳鳳聯姻，導緬寇松坡營。事覺，伏誅，立倉目放緯領司事，轄於隴川。

성화 8년(1472)에 목방(木邦)의 낭한농(翼弄弄)이 반란을 일으켜 농천(隴川)을 약탈하였다. [이에] 망시(茫市) 등 장관사(長官司)에 칙서를 내려 군대를 정돈하여 징발에 대비하도록 했다.³⁴⁸⁾ 만력 초에 장관 방축(放福)이 농천의 악풍(岳鳳)과 혼인을 맺고서 면천(緬甸)을 인도하여 송파영(松坡營)을 침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이 발각되어 [방축이] 주살되었으며, 사목(舍目)인 방위(放緯)³⁴⁹⁾를 세워 장관사의 일을 관령하도록 하고서 농천의 관할을 맡도록 했다.³⁵⁰⁾

茫市川原廣遊，田土富饒，而人精脆弱云。

346)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卷100 正統 8년 춘정월 庚午條에 있는 兵部尙書 徐暉의 上言에 보이는데, “麓川賊思機發今遣進其弟招賽等朝貢謝罪，然又令其黨洞孟車等來攻茫市，為官軍所敗徙金沙江邊去”라 기재되어 있다.

347)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卷103 正統 8년 8월 4日 丁亥條 참조. 『明史』卷46「地理志」7 雲南條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茫市府는 洪武 15년(1382) 3월에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으며, 正統 8년(1443) 4월에 다시 설치되어 金齒軍民指揮司에 예속시켰다가 후에 布政司에 直屬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348)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卷125 成化 10년 2월 癸亥條에 있는 雲南 總兵官 黔國公 沐琛의 上奏에 보이는데, 당시 南甸, 干崖, 茫部 等 長官司에 칙령을 내려 군대를 정돈하여 방비토록 한 것은 成化 8년이 아니라 成化 10년의 일로 기재되어 있음.

349) 放緯에 관한 내용은 道光『雲南志鈔』「土司志」에 보이는데, 그는 茫市의 土酋 放福의 손자이며, 그를 이어 放瑄이 長官의 職을 잇고, 放瑄을 이어 放廷臣이 세습했다. 崇禎 12년(1642)에 放廷臣이 코끼리를 京師에 바침으로 인해 安撫使로 승임되었으며, 印信을 수여받았다(龔蔭, 1988: 210).

350) 『讀史方輿紀要』卷119「雲南」7에도 “萬曆初，茫市土酋放福導緬入寇，討斬之，立倉目放緯領司事，轄於隴把”라 기재되어 있다.

망시(芒市)의 평원은 매우 넓고 전토(田土)는 풍성하고 넉넉하지만, 사람이 점차 무르고 약해졌다고 한다.³⁵¹⁾

者樂甸 자락전

者樂甸，本馬龍他郎向猛摩地，名者島，洪武末，內附，隸雲南布政司。永樂元年設者樂甸長官司，改隸雲南都司，以沐晟言其地廣人稠也。十八年，長官司諱來朝，貢馬。自是，皆以刀氏世領司事。其地山險多瘴，介於鎮沅·元江·景東間，日事攻戰，器械犀利，兵冢而劬，諸部長憚之。

자락전(者樂甸)³⁵²⁾은 본래 마룡타랑전(馬龍他郎甸)의 맹마(猛摩) 지역이며, 자도(者島)라 불린다. 홍무 연간(1368~1398) 말에 중국에 귀부하여, 운남포정사에 예속시켰다. 영락 원년(1403)에 자락전장관사(者樂甸長官司)를 설치하고 운남도사(雲南都司)에 바꾸어 예속시켰는데,³⁵³⁾ [이는] 목성(沐晟)이 이 지역은 넓고 인구가 조밀하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³⁵⁴⁾ [영락] 18년(1420)에 장관 도담(刀談)이 내조하여 말을 바쳤다.³⁵⁵⁾ 이로부터 모두 도씨(刀氏)가 세대로 장관사의 일을 관령했다. 이 지역은 산이 험준하고 풍토병이 많으며, 진원(鎭沅)·원강(元江)³⁵⁶⁾·경동(景東) 사이에 끼여 있다. 날마다 싸움을 일삼고 있고, 갑옷과 무기는 견고하

- 351) 『讀史方輿紀要』 卷119 「雲南」7에 도 “其地原川曠遠，田土肥美，又饒銀礦，最稱殷富”라 기재되어 있다.
 352) 者樂甸: 지금의 雲南省 普洱市 鎮沅縣의 동북에 위치한 恩東이다. 『明史』 卷46 「地理志」7 雲南條에 보면, 者樂甸의 남쪽에는 瀾滄江이 있고, 또 동쪽에는 景來河가 있는데, 景東府로부터 흘러와 하류는 馬龍江으로 들어간다고 기재되어 있다.
 353) 者樂甸長官司는 永樂 원년(1403) 정월에 麓川平緬 지역을 나누어서 설치했으며, 雲南都司에 直屬시켰다가 후에 雲南布政司에 바꾸어 예속시켰다(『明史』 卷46 「地理志」7 雲南條 참조).
 354)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6 永樂 원년 춘정월 乙未條 참조.
 355) 永樂 18년(1420) 6월의 일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226 永樂 18년 6월 乙卯條 참조.
 356) 元江: 雲南省 中南部에 있으며, 元江 中上流에 위치한 지금의 元江哈尼族彝族自治州을 일컫는다. 至元 2년(1265)에 元江府가 세워졌는데, 至元 25년(1288)에 元江路로 바꾸었다가 明 洪武 15년(1382)에 다시 元江府로 했다. 이후 清代에 들어와 乾隆 35년(1770)에 元江直隸州로 되었다가 民國 2년(1913)

고 예리하며, 군대는 적으나 강하여 여러 부락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茶山 차산

茶山長官司，永樂二年頒給信符·金宇紅牌。八年，長官早張遣人貢馬。宣德五年置瀛灘巡檢司。以長官司奏瀛灘當茶山瓦高之衝，蠻寇出沒，民不能安，通事段勝頗曉道理，能安人心，乞置司，以勝爲巡檢，從之。

차산장관사(茶山長官司)³⁵⁷⁾는, 영락 2년(1404)에 신부·금자홍패를 내려주었다.³⁵⁸⁾ [영락] 8년(1410)에 장관(長官) 조장(早張)이 사람을 파견하여 말을 바쳤다.³⁵⁹⁾ 선덕 5년(1430)에 진탄순검사(瀛灘巡檢司)를 설치했다. [이는] 장관사에서 상주하기를, 진탄(瀛灘)³⁶⁰⁾은 차산(茶山)³⁶¹⁾과 와고(瓦高)³⁶²⁾의 요충지여서 만구(蠻寇)가 출몰하여 백성들이 편안할 수 없는데, 통사(通事)³⁶³⁾ 단승(段勝)이 다스리는 방도를 잘 알아 인심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 순검사를 설치해서 단승을 순검에 임용해 주기를 청했기 때문이었는데, [선덕에게] 이를 허락했다.³⁶⁴⁾

에 元江縣으로 강동되었다.

357) 明代에 지금의 怒江傣族自治州 瀾滄縣의 怒江 西岸 및 迤外 地區에 景頗族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長官司이다.

358)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35 永樂 2년 동10월 庚午條에 기재되어 있음. 또한 같은 내용이 道光 『雲南志鈔』 「土司志」에도 있는데, 여기에는 早張이 早후으로 기재되어 있음.

359) 永樂 8년(1410) 4월의 일이다. 『太宗實錄』 卷103 永樂 8년 하4월 庚申條 참조. 그런데 이보다 앞서 早張은 永樂 6년(1408) 6월에 직책을 수여해 준 은혜에 사은하기 위해 명에 사람을 보내 말과 방물을 바쳤다(『太宗實錄』 卷80 永樂 6년 6월 戊子條 참조).

360) 瀛灘: 지금의 雲南省 保山市 騰衝縣에 위치한 瀛灘鎮임.

361) 茶山: 怒江州 怒江 서쪽에 있는 高黎貢山 및 小江과 思梅開江 流域의 광대한 地區를 가리킨다.

362) 瓦高: 瀛灘 一帶에는 瓦高라는 地名이 없으며, 瓦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363) 通事: 원래 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관리였으나, 五代 당시 거란이 통역 관리를 양성할 목적으로 통사를 설치한 이후, 주로 譯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元代에는 怯里馬赤으로 불렸으며, 明初에는 通政使司를 설치하여 이에 속하게 했으나 이후 太常寺 四夷館에 속하도록 했다.

364) 瀛灘巡檢司 설치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67 宣德 5년 6월 丙子條 참조.

孟璉 卽猛臉

맹련 죽영검

孟璉長官司，永樂四年四月設。時孟璉頭目刀派送遺子壞平來言，孟璉舊屬麓川平緬宣慰司，後隸孟定府。而孟定知府刀名扛亦故平緬頭目，素與等夷，乞改隸。遂設長官司，隸雲南都司，命刀派送爲長官，賜冠帶・印章。

맹련장관사(孟璉長官司)는 영락 4년(1406) 4월에 설치했다. 당시 맹련의 부락 수령 도파송(刀派送)³⁶⁵이 아들 도괴한(刀壞罕)을 보내와 아뢰기를, 맹련은 옛날에 녹천평면선위사(麓川平緬宣慰司)에 속했는데 후에는 맹정부(孟定府)³⁶⁶에 예속했다고 했다. 그러나 맹정부 지부(知府) 도명강(刀名扛) 역시 원래 평면의 부락 수령으로 본디 우리의 동등하였으니, 바꾸어 예속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마침내 장관사를 설립하여 운남도사에 예속시켰으며, 도파송을 장관으로 삼고 관대·인장을 하사했다.³⁶⁷

正統四年，思任發反，以兵破孟璉，遂降於麓川，爲木邦宣慰罕蓋法擊敗。七年，總督王驥征麓川，招降孟璉・亦保等寨。敕賜孟璉故長官司刀派罕子派樂等綠幣，以麓川平故也。嘉靖中，孟璉與孟養・孟密諸部仇殺數十年，司廢。至萬曆十三年，隴川平，復設，稱猛臉云。

365) 刀派送에 대해서 道光『雲南志鈔』 「土司志」에 보면, “其先次把法, 本哈瓦蠻, 開闢荒地, 招集夷民, 守土傳世. 故名孟連”라 기재된 바와 같이 그는 哈瓦蠻族이며, 孟璉은 그의 선조인 坎把法(罕罷法)이라고도 함)이 세웠다. 이후 坎把法을 이어 그의 아들 刀罕很이 추장의 지위를 세습하고, 그 뒤를 이어 刀派送이 세습해서 세력을 확장시켜 명으로부터 長官에 임명되었으며, 장관의 직은 그의 아들 刀派罕으로 이어졌다. 한편 본문에 기재된 刀壞罕이 바로 刀派罕이었다고도 한다(陸泓·王筱春·朱彤, 2005, 20).

366) 孟定府: 孟定蠻夷府를 일컫는데, 元나라 至元 31년(1294)에 孟定路가 설치되었다가 洪武 15년(1382)에 府로 고쳤다(『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참조). 지금의 雲南省 臨滄市에 속해 있는 耿馬傣族佤族自治縣 지역이다.

367) 이상의 내용은 『太宗實錄』 卷53 永樂 4년 하4월 戊寅條에도 있음.

정통 4년(1439)에 사임발(思任發)이 반기를 들고서 군대를 이끌고 맹련을 격파하므로 마침내 녹천(麓川)에 항복하였으나³⁶⁸ [맹련은] 목방(木邦)의 선위(先) 한개법(罕蓋法)에게 공격을 받아 패하였다.³⁶⁹ [정통] 7년(1442)에 총독(總督) 왕기(王驥)가 녹천을 정벌하고서 맹련·역보(亦保) 등의 체(寨)를 초무하여 항복시켰다.³⁷⁰ [그리고] 칙서를 내려 맹련의 예전 장관사(長官司) 도파한(刀派罕)의 아들 도파락(刀派樂)³⁷¹ 등에게 체폐(祿幣)를 하사하였는데, [이에] 녹천이 평정되었기 때문이다.³⁷² 가정 연간(1522~1566)에 맹련은 맹양(孟養)·맹밀(孟密) 여러 부락과 원한으로 수십 년 동안 살육을 했고,³⁷³ 장관사가 폐지되었다. 만력 13년(1534)에 이르러서 농천(隴川)이 평정되자 다시 설치되었는데, 맹검(猛臉)이라 불렀다고 한다.³⁷⁴

里麻

리마

里麻長官司，永樂六年設，隸雲南都司，以刀恩放爲長官。時思放爲里麻招剛，招剛

368) 道光『雲南志鈔』 「土司志」에 의하면, 당시 麓川에 항복한 孟璉長官司의 長官은 刀派罕이었다.

369) 이에 관한 내용은 본시 뒤편에 있는 『木邦傳』에 서술되어 있다. 당시 木邦의 宣慰使인 罕蓋法과 그의 祖母 美罕板이 孟定·孟連 지역에서 麓川과 싸워 부락의 수령 20명을 죽이고 3만여 명을 참수했으며, 많은 말과 코끼리와 兵器를 노획했다. 正統帝는 이들의 戰功을 가상히 여겨 한개법에게 懷遠將軍을 더하여 제수하고 미한관을 太淑人에 봉했으며, 金帶와 綵幣을 하사했다

370)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88 正統 7년 춘정월 己丑條 참조. 『讀史方輿紀要』 卷119 『雲南』 7에는 “正統六年，討麓川，分軍從東路會合木邦諸軍，元江府同知杜凱率車里大侯諸蠻招降孟璉長官司亦保等寨，攻破其烏木弄，戛那等寨，餘黨悉詣軍門降附”라 기재되어 있다.

371) 孟連傣族宣撫司署 二十八代 土司名單에 刀派樂은 부친인 4대 刀派罕과 5대 刀派獻을 이어 6대 선무사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면, 刀派獻이 그의 형으로 보이거나와 형을 계위한 것으로 보인다.

372) 正統 7년(1442) 12월의 일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99 正統 7년 12월 癸丑條 참조.

373) 『世宗實錄』 卷93 嘉靖 7년 10월 戊辰條에 보면, “上曰雲南緬甸木邦隴川孟密孟定等處土夷，因寇爭仇殺，土民受害，致勞官司撫處，征調數十餘年，不得寧帖…”이라 기재되어 있다.

374) 이에 관한 내용은 道光『雲南志鈔』 「土司志」에 있는데, 刀派眞을 猛臉의 長官으로 삼았다. 그런데 오래 지 않아 叔父인 刀派漢이 車里에 장기들이 車里의 군대를 이끌고 와 刀派眞을 죽이고 長官 職을 탈취했다. 이후 刀派漢은 車里를 이끌고 入貢하였고, 萬曆 19년(1540)에는 緬甸에 入貢하기를 권했던 것으로, 明朝는 이전에 官職을 탈취한 그의 죄를 용서했다.

者，故西南蠻官名。思放籍其地來朝，請授職事，遂有是命，仍賜印章·冠帶。八年遣頭目貢馬。

리마장관사(里麻長官司)³⁷⁵⁾는 영락 6년(1408)에 설치하여 운남도사에 예속시켰으며, 도사 방(刀思放)을 장관으로 삼았다. 당시 도사방은 리마의 초강(招剛)이었다. 초강(招剛)이란, 옛날 서남쪽 만인(蠻人)의 관명(官名)이다. 도사방은 그가 관할하는 지역을 구실삼아 내조하여 직무를 수여해 주기를 청했는데, 마침내 이처럼 [장관에] 임명했고 이에 인장·관대를 하사했다.³⁷⁶⁾ [이에] 영락 8년(1410)에 부락의 우두머리를 보내 말을 바쳤다.³⁷⁷⁾

鈕兀
뉴울

鈕兀長官司，宣德八年置。鈕兀·五隆諸寨在和泥之地，其酋任者·陀比等朝貢至京，奏地遠蠻多，請授職以總其衆。兵部請設長官司，從之。遂以任者爲長官，陀比爲副。

뉴울장관사(鈕兀長官司)³⁷⁸⁾는 선덕 8년(1433)에 설치했다. 뉴울·오릉(五隆)의 여러 채

375) 里麻長官司: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 보면, 永樂 6년(1408) 7월에 孟養 지역을 나누어서 설치하고 곧바로 雲南都司에 예속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境城에 대해서는 康熙『雲南通志』 卷37에 '東으로는 茶山에 접해 있고, 西北은 모두 野人이며, 整冬과 溫冬이라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의 미얀마 카친주(Kachin State) 동북부 지역이다. 또한 『讀史方輿紀要』 卷119 『雲南』7에는, "永樂初, 置麻里長官司"通考': 麻里地與茶山接壤, 亦以拒孟養功, 授長官司, 土酋刁姓, 副罕姓"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麻里는 里麻를 잘못 기재한 듯하다.

376) 이상의 내용은 『太宗實錄』 卷81 永樂 6년 추7월 丙辰條에도 있음.

377) 永樂 8년(1410) 4월의 일이다. 『太宗實錄』 卷103 永樂 8년 하4월 庚申條 참조.

378) 鈕兀長官司: 鈕兀寨夷長官司를 일컫는데,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 보면, 宣德 8년(1433) 10월에 和泥의 鈕兀과 五隆 두 개의 寨로 설치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境城에 대해서는 萬曆『雲南通志』 卷4에 '東으로 元江軍民府界에 이르고, 南으로는 車里宣慰司界에 이르며, 西로는 威遠州界에 이르고 北으로는 臨安府 思陀長官司界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금의 雲南省 思茅市 江城哈尼族彝族自治縣 일대로 보인다.

(寨)는 화니(和泥)³⁷⁹⁾의 지역에 있는데, 그들 주장인 임자(任者)·타비(陀比) 등이 공물을 바치러 임조하여 경사(京師)에 이르러서 주청하기를,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만족의 무리가 많으니 관직을 제수하여 그 무리를 통령할 수 있도록 청하였다. [이에] 병부(兵部)에서 장관사를 설치하기를 청하니, [선덕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마침내 임자를 장관에 임명하고 타비를 부장관으로 삼았다.³⁸⁰⁾

東倘
동당

東倘長官司，宣德八年置，隸緬甸宣慰。時緬甸宣慰昔得謀殺當蕩頭目新把的，而奪其地。新把的遺子莽只貢象·馬·方物，乞置司，庶免侵殺，從之。置東倘長官司，命新把的爲長官。

동당장관사(東倘長官司)는 선덕 8년(1433)에 설치하여 면전선위사(緬甸宣慰[司]에 예속시켰다. 당시 면전의 선위사 식득(昔得)이 당탕(當蕩)의 두목(頭目) 신파직(新把的)을 죽이고 그 지역을 탈취하고자 했다. 신파직이 아들 신방지(新莽只)를 [조정에] 보내 코끼리·말·방물을 바치고서 [장관]사를 설치해서 침략을 당해 죽는 것을 면케 해달라고 청하니, [선덕제가] 이를 허락했다. [이에] 동당장관사를 설치하고 신파직을 장관에 임명했다.³⁸¹⁾

379) 和泥: 지금은 하니라 부르며, 하니족을 말한다.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雲南省 西南部 禮社江 하류인 紅河 서쪽 哀牢山區 新平·鎮源·墨江·元江·紅河·元陽·綠春·金平·江城 等 縣에 분포한다.

380) 이상의 내용은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동10월 庚戌朔條 참조.

381) 東倘長官司는 宣德 8년(1433) 9월에 설치되었으며, 이상의 내용은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9월 戊申條 참조.

瓦甸
와전

瓦甸長官司，初隸金齒，永樂九年改隸雲南都司。土官刀伯賴言金齒遠，都司近，故改隸焉。宣德八年置曲石·高松坡·馬緬三巡檢司。初，長官司言其地山高林茂，寇盜出沒，人民不安，乞置巡檢司，以授通事楊資·楊中·范興三人，從之。命資於曲石，中於高松坡，興於馬緬。正統五年，長官早貴爲思任發所獲，殺其守者十七人，挈家來歸。帝嘉其忠順，命所司褒賞，以早貴爲安撫，賜綵幣·誥命。

와전장관사(瓦甸長官司)³⁸²⁾는 처음에는 금치(金齒)에 예속했는데, 영락 9년(1411)에 운남 도사에 바꾸어 예속시켰다. 토관(土官) 도파뢰(刀伯賴)³⁸³⁾가 금치는 멀고 [운남]도사는 가깝다고 아뢰니, 이 때문에 [운남도사에] 바꾸어 예속시켰다. 선덕 8년(1433)에 곡석(曲石)·고송파(高松坡)·마면(馬緬) 세 개의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했다. 일찍이 장관사에서 이 지역의 산은 높고 산짐은 무성하며 도적이 출몰하여 백성들이 편하지 않다고 아뢰면서, 순검사를 설치하고 통사(通事)인 양자(楊資)·양중(楊中)·범흥(范興) 세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해 주기를 청하니, [선덕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양자는 곡석에, 양중은 고송파에, 범흥은 마면에 임명하였다.³⁸⁴⁾ 정통 5년(1440)에 장관 조귀(朱貴)가 사임발(思任發)에게 붙잡혀 있다가 그를 지키는 자 17명을 죽이고 가솔을 이끌고서 귀복에 왔다. 정통제는 그의 충순함을 가상히 여기고서 소관 부서에 명하여 상을 내리도록 했으며, 조귀를 안무사(安撫使)로 삼고 채페·고명(誥命)³⁸⁵⁾을 하사했다.³⁸⁶⁾

382) 瓦甸長官司: 『明史』卷46「地理志」雲南條에 보면, “瓦甸安撫司本瓦甸長官司。宣德二年置, 屬金齒軍民司。九年二月直隸都司。正統三年五月仍屬金齒軍民司。五年十一月升爲安撫司。嘉靖元年屬府”라 기재되어 있거나, 본문의 瓦甸長官司를 金齒軍民司에서 雲南都司로 바꾸어 예속시킨 永樂 9년(1411)은 宣德 9년(1434)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瓦甸長官司의 지역은 『永昌府志』「山川志」에 “瓦甸山在騰衝縣北百里”라 기재되어 있거나 지금의 雲南省 保山市 騰衝縣 북부에 위치한 龍江 東岸의 瓦甸으로 보인다(龔蔭, 1988: 215).

383) 刀伯賴: 宣德 초에서 正統 초년까지 10여 년간 瓦甸長官司의 長官으로 있었다(龔蔭, 1988: 215).
384) 이상의 내용은 『宣宗實錄』卷106 宣德 8년 동10월 庚戌朔條 참조.
385) 誥命: 誥와 命을 말한다. 『誥命』란 황제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하는 말이며, ‘命’은 명령을 내리는

促瓦·散金
촉와·산금

促瓦·散金二長官司，皆永樂五年設，隸雲南都司。其地舊屬麓川·平緬。土蠻註向八等來朝，請別設長官司，從之。命註向八等爲長官，各給印章。

촉와(促瓦)·산금(散金) 두 장관사는 모두 영락 5년(1407)에 설치하여 운남도사에 예속시켰다. 그 지역은 예전에 녹천(麓川)·평면(平緬)에 예속되었다. [그 곳] 토착 만인(蠻人) 주전팔(註向八) 등이 내조하여 따로 장관사를 설치해주기를 청하니, [영락제가] 이를 허락했던 것이다. 주전팔 등을 장관에 임명하고 각기 인장을 주었다.³⁸⁷⁾

木邦
목방

木邦，一名孟邦。元至元二十六年立木邦路軍民總管府，領三甸。洪武十五年平雲南，改木邦府。建文末，土知府孚的法遣人貢馬及金銀器，賜鈔幣。

목방(木邦)은 일명 맹방(孟邦)이라고 한다. 원나라 지원(至元) 26년(1289)에 목방(木邦

말을 뜻한다. ‘誥書’라고도 불리며 보통 황제가 관원에 대해 벼슬을 내릴 때 사용했던 문서이다. ‘誥’라는 말은 이미 周代부터 왕의 명령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宋代에 이르러 관직의 이동, 대신이나 그 가족들의 추중에 고명을 이용했다. 明代에는 1품에서 5품의 벼슬을 내릴 때 誥命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조정이 작위를 내릴 때 사용했던 辭命을 의미하게 된 것은 명청시대에 이르러서이다.

386)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卷73 正統 5년 11월 乙丑條에 있거나 “雲南瓦甸長官司長官早貴爲思任發所獲，殺其守者十七人，挈家來歸。上嘉其忠順，命所司褒賞，以早貴爲安撫，賜綵幣四表裏給授誥命”라 기재되어 있다.

387)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卷78 永樂 6년 하4월 癸未條와 『明史』卷46「地理志」雲南條에도 있다. 본문에 보면 促瓦·散金 두 長官司가 설치된 것을 永樂 5년(1407)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록이나 『明史』「地理志」에는 永樂 6년(1408) 4월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

로)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를 세워 세 개의 진(甸)을 관령하도록 했다.³⁸⁸⁾ 홍무 15년(1382)에 운남을 평정하고서 목방부(木邦府)로 고쳤다.³⁸⁹⁾ 건문(建文)³⁹⁰⁾ 말에 토지부(土知府) 한적법(罕的法)³⁹¹⁾이 사람을 보내 말과 금은기를 바치니, 초폐(鈔幣)를 하사했다.³⁹²⁾

永樂元年遣內官楊瑄齎敕諭木邦諸土官。明年遣人來貢。時麓川訴木邦侵地。命西平侯論之。因改木邦爲軍民宣慰使司。以知府罕的法爲使。賜詔印。時官軍征八百。罕的法發兵助戰。攻江下等十餘寨。斬首五百餘級。詔遣鎮撫張伯恭·經歷唐復往賜白金·錦幣。及其部領有差。明年遣使貢象·馬·方物。謝恩。頒賜如例。復加賜其母及妻錦綺。罕的法卒。其子罕賓發來朝。請襲。命賜冠服。七年遣使謝恩。又遣人奏緬甸宣慰使那羅塔教誘賓叛。賓發不敢從逆。若天兵下臨。誓當效命。帝嘉其忠。遣中官徐亮齎敕勞之。賜白金三千兩·錦綺三百表裏。祖母·母·妻織金文綺·紗羅各五十疋。自是。每三年遣使貢象馬。十一年。賓發遣使獻緬甸俘。時木邦攻破緬甸城寨二十餘。多所殺獲。獻於京師。

- 388) 三甸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元混一方輿勝覽」에 “木邦路領木都甸, 木該甸, 屬大理金齒等處宣慰司”라고 기재되어 있다(龔蘇, 1988: 216).
- 389) 洪武 15년(1382) 3월에 元代의 官制를 고쳐 雲南布政司 所屬의 52府를 설치했는데, 이때 木邦路를 木邦府로 고쳤다.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3월 己未條 참조.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 보면, 洪武 15년(1382) 3월에 木邦府를 설치한 후 폐지했다가 洪武 35년(1402) 12월에 다시 설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 390) 建文: 명 왕조 2대 황제인 朱允炆의 연호이다.
- 391)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木邦軍民宣慰使司條에 보면, 洪武 15년(1382)에 府를 설치하면서 罕의法을 知府로 삼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永樂 2년(1404)에 木邦府를 木邦軍民宣慰使司로 변경하였고, 土知府인 罕의法을 宣慰使로 삼았다. 木邦軍民宣慰使司 宣慰使의 계보는 罕의法, 罕賓法, 罕門法, 罕蓋法, 罕落法, 罕烈, 罕拔, 罕進忠, 罕欽으로 이어진다. 이들 중에 앞의 다섯 명의 이름에는 ‘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여섯 번째 인물부터는 ‘法’가 보이지 않는다. ‘法’은 곧 漢王 혹은 土司라는 의미인데, 罕烈부터 ‘法’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은 아마도 明朝가 취한 改土歸流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명 조정이 土司의 세력을 약화시켜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蔡蒙, 2011: 9~10).
- 392) 建文 말에 木邦 土官知府 罕의法이 刁孟宏 등을 명에 보내 말과 금銀器를 바쳤다. 『太祖實錄』 卷10下, 洪武 35년 7월 乙巳條 참조.

- 영락 원년(1403)에 내관 양선(楊瑄)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가 목방(木邦) 등 여러 토관(土官)을 효유하도록 했다.³⁹³⁾ 이듬해(1404)에 [목방에서]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공물을 바쳤다. 당시 녹천(麓川)에서 목방이 그들의 지역을 침입했다고 호소하니 서평후(西平侯)에게 명하여 이들(목방)을 효유하도록 했는데, 이를 계기로 목방[부]을 군민선위사사(軍民宣慰使司)로 바꾸고 지부(知府) 한적법을 선위사로 삼고서 고인(謄印)을 하사했다.³⁹⁴⁾ 당시 관군이 팔백(八百)을 징발했는데, 한적법이 군대를 보내 전쟁을 도와 강하(江下) 등 10여 채(寨)를 공격하여 500여 명을 참수했다. [이에] 조서를 내려 진부(鎮撫)³⁹⁵⁾ 장백공(張伯恭)·경력(經歷) 당복(唐復)을 보내어 [한적법에게] 백금(白金)³⁹⁶⁾·금폐(錦幣)를 하사하고 그의 부하 장령에게도 차등하여 하사하였다.³⁹⁷⁾ 이듬해(1405)에 [한적법이] 사신을 보내 코끼리·말·방물을 바치고 은혜에 감사했다. [이에] 전례에 따라 사여품을 내려주고, 또 그의 모친과 처에게 금기(錦綺)를 더하여 하사했다.³⁹⁸⁾ 한적법이 죽자 그의 아들 한빈발(罕賓發)이 내조하여 세습하기를 청하니, [영락제가] 관복을 내려주도록 명하였다.³⁹⁹⁾ [영락] 7년(1409)에 사신을 보내 사은하였다. 또 사신을 보내 상주하기를, 면천의 선위사 나라타(那羅塔)이 한빈발에게 만기를 들도록 여러 차례 유인을 했지만 한빈발은 감히 만역을 따를 수 없으며, 만약 관군이 이르면 마땅히 [조정에] 목숨을 바치기로 맹서했다고 했다. 영락제는 그의 충성을 가상히 여겨, 중관 서량(徐亮)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가 그를 위로하고 백금(白金) 3,000냥·금기(錦綺) 300포리(表裏)⁴⁰⁰⁾를 하사했으며, 그의 조모·모친·처에게 직금문기(織金文綺)⁴⁰¹⁾·사라(紗羅)⁴⁰²⁾ 각
- 393)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33 永樂 2년 7월 己丑條에 보이거나 “先是, 遣內官楊瑄等齎敕諭孟定孟養木邦麓川車里八百老撾割制, 詔調特令冬烏等處土官, 至是瑄等道經八百大甸爲土官刀招故所阻弗克進”이라 기재되어 있다.
- 394) 知府 罕의法을 宣慰使로 삼고, 謄印을 하사했다는 내용은 『太宗實錄』 卷32 永樂 2년 6월 癸酉條에 보임. 당시 木邦軍民宣慰使司의 境역은 『讀史方輿紀要』 卷119에 “東至八百大甸宣慰使司界, 南至連克刺蠻界, 西至緬甸宣慰使司界, 北至芒市長官司界”라 기재되어 있음.
- 395) 鎮撫: 衛所에 설치되는 世官으로 衛에 설치되면 衛鎮撫, 所에 설치되면 所鎮撫라고 하였다.
- 396) 白金은 銀을 가리킨다.
- 397) 이에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57 永樂 4년 5월 己巳條 참조.
- 398) 永樂 5년(1407) 6월의 일로, 木邦軍民宣慰司의 宣慰使 罕의法이 代扛 등 명에 보내 사해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68 永樂 5년 6월 丙戌條 참조.
- 399) 罕賓發이 宣慰使를 세습한 시기는 永樂 3년(1405)으로 보고 있다. 『讀史』 卷11에 보면, 永樂 3년에 明 朝廷은 都指揮 陳浚 등을 보내어 勁兵을 이끌고 八百을 토벌했는데, 이때 “木邦罕賓法起兵先入”라고 기재되었거나 당시 罕賓法이 이미 宣慰使의 職을 세습했음을 알 수 있다(龔蘇, 1988: 217).

50필(疋)을 하사했다. 이로부터 3년마다 사신을 보내 꼬끼리와 말을 바쳤다. [영락] 11년(1413)에 한빈발이 사신을 보내 면전의 포로를 바쳤다. 당시 목방이 면전의 20여 개 성寨(城寨)를 공파하고⁴⁰³⁾ 매우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았는데, 경사(京師)⁴⁰⁴⁾에 이르러 바쳤다.

宣德三年遼中宦徐亮齋敕及文綺賜襄職宣慰罕門法并及祖母·母·妻。八年，木邦與麓川·緬甸各爭地，訴於朝，帝命沐晟并三司巡按公勤。

선덕 3년(1428)에 증관 서관을 보내 칙서와 문기(文綺)⁴⁰⁵⁾를 가지고 가 직위를 세습한 선위[사] 한문법(罕門法)⁴⁰⁶⁾과 아울러 조모·모친·처에게 하사하도록 했다.⁴⁰⁷⁾ [선덕] 8년(1433)에 목방이 녹천·면전과 각기 토지를 다투면서 조정에 호소하니, 선덕제가 목성(沐晟)에게 삼사(三司) 순안(巡按)⁴⁰⁸⁾과 함께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명하였다.⁴⁰⁹⁾

正統三年征麓川，敕諭木邦以兵會剿。五年，總兵官沐昂遣人問道達木邦，得報，知

400) 表裏: 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비단이나 천의 안팎 감을 일컫음.

401) 織金文綺: 金織文綺라고도 하는데, 金絲로 무늬를 짜 넣은 두꺼운 비단을 말한다.

402) 紗羅: 가법고 엮은 명주와 삼으로 만든 織物로, 이는 여러 무늬를 넣어 전 열고 가벼운 비단을 일컫는다.

403) 永樂 11년(1413)에 木邦의 宣慰使 罕蓋發이 군대를 이끌고 明朝의 군대를 도와 緬甸을 토벌했다. 이때 목방이 緬甸의 20여 개 城寨를 공파했다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木邦軍民宣慰使司條에는 “攻破緬甸城寨二百餘所”라고 기재되어 있다.

404) 이때의 京師는 당시 明朝의 수도였던 應天府, 즉 오늘날의 南京을 가리킨다. 應天이란 명칭은 元 至正 16년(1356)에 朱元璋이 集慶路를 應天府로 개칭하면서 붙였으며, 明初에 이곳에 定都했다. 그러나 永樂 19년(1421)에 北京으로 遷都하면서 북경이 새로운 京師로 칭해졌고, 應天府는 이후 正統 6년(1441)에 南京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淸 順治 2년(1645)에는 江寧府로 개칭되었다.

405) 文綺: 화려한 무늬가 있는 비단을 일컫는다.

406) 罕門法: 罕蓋發의 아들로 宣德 3년(1428)에 木邦 宣慰使의 직을 세습했다(『舊唐書』 218).

407) 道光『雲南志鈔』 「土司志」에 “宣德三年，罕門法請賜，宣宗遣使賜賚，并及祖母·母·妻”라 기재되어 있거니와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41 宣德 3년 하4월 丁丑條에도 보임.

408) 巡按: 巡按御史의 약칭이다.

409)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106 宣德 8년 동10월 癸丑條 참조.

宣慰祖母美罕板·其孫宣慰罕蓋法與麓川戰於孟定·孟建地，殺部長二十人，斬首三萬餘級，獲馬象器械甚衆，帝嘉其功，加授罕蓋法懷遠將軍，封美罕板太淑人，貴以金帶·綵幣。七年，總督王驥奏，罕蓋法遣兵攻拔麓川板罕·貢章等寨，追至孟蒙，獲其孥七人，象十二，麓川酋思任發父子遁孟廣，帝命指揮陳儀往勞之，且曰：「木邦能自效，生繫賊首獻，其酬以麓川土地人民。」八年免木邦歲辦金萬四千兩。木邦遣人謝恩，并獻所獲思任發家屬，復賜敕及綵幣獎勞。十一年，緬甸獻任發首，木邦亦遣使與同獻，且修貢職，因求麓川地。兵部以麓川已設隴川宣撫司，請以孟止地給之，并遣官諭祭其母，以表忠勤，免木邦歲辦銀八錠三年，從之。

정통 3년(1438)에 녹천을 정벌하려는데 목방(木邦)에 칙서를 내려 병사를 이끌고 초토(剿討)에 최후하도록 효유했다.⁴¹⁰⁾ 정통 5년(1440)에 총병관 목양(沐昂)이 사람을 셋길로 보내 목방에 도달케 하여 [그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선위[사]의 조모(祖母) 미한판(美罕板)과 그녀의 손자인 선위[사] 한개법(罕蓋法)⁴¹¹⁾이 맹정(孟定)·맹련(孟連) 지역에서 녹천(麓川)과 싸워 부락의 수령 20명을 죽이고 3만여 명을 침수했으며, 많은 말과 꼬끼리와 병기(兵器)를 노획했음을 알았다. 정통제는 그의 공을 가장하여 여겨 한개법에게 회원장군(懷遠將軍)을 더하여 제수하고 미한판을 태숙인(太淑人)⁴¹²⁾에 봉했으며, 금대(金帶)·체폐를 하사했다.⁴¹³⁾ [정통] 7년(1442)에 총독 왕기(王驥)가 상주하기를, 한개법이 군대를 보내 녹천의 판한(板罕)·공장(貢章) 등의 체(寨)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추격하여 맹몽(孟蒙)에 이르러서 그(사임발)

410) 당시 木邦의 宣慰使 罕門法에게 勅書를 내려 효유하기를, “遷者麓川宣慰使發恣肆冥頑，擅率人馬攻劫孟蒙等地方，朝廷將討其罪，茲遣人齎敕及金牌信符諭爾，若我大軍臨地，爾即率兵會討，或攻其背，或攻其左右，或搗其巢穴，俾賊統擒，朕則重加賞賚，爾爾貴當悠久壽爾功名於青史”라 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43 正統 3년 6월 庚辰條 참조.

411) 罕蓋法: 罕門法의 아들로 正統 4년(1439)에 木邦 宣慰使의 직을 세습했다(『舊唐書』 218). 실록과 여타 서적에는 罕蓋發로도 기재되어 있다.

412) 太淑人: 明代에 文武官員 및 그의 妻室에 대해 爵位의 名號를 부여할 때 皇帝가 諡命과 敕命을 내렸는데, 五品 以上에는 諡命을 내려 諡封이라 칭했으며, 六品 以下에는 敕命을 내려 敕封이라 칭했다. 그리고 이들의 처에게 淑人, 太淑人이라는 封號를 내렸는데, 三品官의 妻에게는 淑人이라 칭했고 그의 母親과 祖母에게는 太淑人이라 칭했다.

413)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69 正統 5년 추7월 己酉條 참조.

의 자식 7명과 코끼리 12마리를 붙잡으니, 녹천의 추장 사임발 부자가 맹방(孟昉)으로 달아나다고 했다. [이에] 정통제는 지휘 진의(陳儼)에게 명하여 가서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고 또 이르기를, “목방(木邦)은 능히 스스로의 역량을 다하여 적의 우두머리를 산채로 잡아 바쳤으니, 녹천의 토지와 백성[을 중]으로써 이에 보상하여라”라고 했다.⁴¹⁴⁾ [정통] 8년(1443)에 목방에게 세관금(歲辦金)⁴¹⁵⁾ 14,000냥을 면제해 주었다.⁴¹⁶⁾ [이에] 목방이 사람을 보내 은혜에 감사하고 아울러 붙잡은 사임발의 가족을 바치니, 다시 칙서와 체계를 하사하여 노고를 표창했다.⁴¹⁷⁾ [정통] 11년(1446)에 면천이 사임발의 수급을 바칠 때 목방도 사신을 보내 [면천과] 함께 같이 바치고⁴¹⁸⁾ 또 공물을 바치는 일을 기다듬었는데, 이를 기회로 녹천의 땅을 요구하였다.⁴¹⁹⁾ [이에 대해] 병부(兵部)에서, 녹천에 이미 동천선무사(隴川宣撫司)를 설치했음으로⁴²⁰⁾ 맹지(孟止)의 땅을 [한개법에게] 주도록 하고,⁴²¹⁾ 아울러 관원을 보내어 그의 모친을 제사지내도록 유지를 내림으로써 [그녀의] 충심과 근로를 표창하며, 목방에 세관금(歲辦銀) 8경(錠)⁴²²⁾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도록 청하나, [정통제가] 이를 허락하였다.⁴²³⁾

- 414) 正統 7년 3월의 일로,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90 正統 7년 3월 戊寅條에 있는데, 당시 木邦의 宣慰使 罕蓋法은 陶孟 刀根送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가 麓川의 賊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 415) 歲辦金: 歲辦은 明代에 각지에서 매년 皇室에 물품을 진상하는 것을 말한다. 진상품 대부분은 각지의 특산물이었지만 이후 물품 대신 화폐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歲辦金 혹은 歲辦銀이라 한다.
- 416)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00 正統 8년 춘정월 壬戌條에 있는데, 麓川에게 침략을 당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문의 歲辦金이 실록에는 歲辦差發銀으로 기재되어 있다.
- 417)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01 正統 8년 2월 甲辰條 참조.
- 418)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44 正統 11년 8월 癸卯條에 있는데, 木邦의 宣慰 罕蓋法과 緬甸의 옛 宣慰의 아들 馬哈省 以速刺은 陶孟 刀路猛 등을 千戶 王政과 함께 명에 보내 思任發의 수급과 여러 포로의 수급을 바쳤다.
- 419) 緬甸과 木邦이 麓川의 땅을 나누어주길 청하자, 이에 대해 劉球는 ‘주지 않으니 원한을 불러올 것이고, 주면 兩夷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니, 하나의 麓川을 빼내어 두 개의 麓川을 덧붙이는 꼴이 될 것임이니 다르고 했다. 이후 明朝는 緬甸에게 孟蓋의 지역을, 木邦에게는 孟止의 지역을 주었는데, 과연 이들이 두 세력은 날로 강성해져 제거하기 어렵게 되었다(龔蔭, 1988: 218).
- 420) 正統 9년(1444)에 麓川平緬宣慰使司를 철폐하고 隴川宣撫司를 설치하여 隴川과 瑞麗 등지를 관리하도록 했다.
- 421)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44 正統 11년 8월 辛亥條 참조. 이때 緬甸에게는 孟蓋의 땅을 주었다.
- 422) 錠: 화폐를 헤아리는 단위로, 鈔 5貫에 해당한다. 참고로 明代에는 鈔 1貫은 錢 1,000文, 銀 1兩에 준하고, 4貫을 황금 1兩에 준하도록 정하였다. 『明史』 卷81 『食貨』 5 錢鈔條 참조.
- 423)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50 正統 12년 2월 癸丑條에도 있음. 당시 木邦軍民宣慰使司에서 정수한 差發額數는 銀 1,400兩이었다고 한다(萬曆『雲南通志』 卷16 彌蔭差發條 참조).

景泰元年, 罕蓋法奏乞隴川界者闡景線地, 未報, 蓋法子罕落法輒發兵據之, 隴川宣撫刀孟蓋訴於總兵官沐璘, 璘遣使諭歸之, 而與以底麻之地, 四年, 罕落法襲父賊, 族人擒獲, 落法避於孟更, 遣人赴總兵官求救, 璘以聞, 詔左參將胡志調兵撫諭之, 與其族人部眾設盟而還, 然落法猶避居孟更都不敢歸, 孟都蠻者, 地近隴川, 歲調蠻兵二百更番護之.

경태 원년(1450)에 한개법이 농천(隴川)의 경계(境界)에 있는 자란경선(者蘭景線) 지역을 요구하는 주청을 올렸는데, 아직 비답이 내리지 않아서 한개법의 아들 한락법(罕落法)이 갑자기 군대를 보내 이를 점거해버렸다. [이에] 농천의 선무[사](宣撫[使]) 도해맹(刀孟蓋)⁴²⁴⁾이 총병관 목린(沐璘)⁴²⁵⁾에게 호소하였다. 목린이 사신을 보내 효유하여 되돌려주게 하고서 저마(底麻)⁴²⁶⁾의 땅을 그에게 주었다.⁴²⁷⁾ [경태] 4년(1453)에 한락법이 부친의 직위를 세습하였다.⁴²⁸⁾ 죽인(族人)이 난리를 일으키자 한락법이 맹경(孟更)으로 피난하여, 사람을 보내 총병관에게 알리고 구원을 청하였다. 목린이 [이를 조정에] 알리자, 조서를 내려 좌참장(左參將) 호지(胡志)에게 군대를 징발해서 그들을 안무하고 효유하도록 했으며, [한락법으로 하여금] 그의 죽인 부하들과 맹서(盟誓)를 하게하고 돌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한락법은 그대로 맹도(孟都)⁴²⁹⁾에 피난하여 거주하며 감히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맹도(孟都)의 만인(蠻人)은 지역이 농천에 가까우므로, 해마다 만인(蠻人) 병사 200명을 징발하여 번갈아가며 그를 보호하였다.⁴³⁰⁾

- 424) 刀孟蓋: 隴川宣撫使司를 설치한 것은 正統 9년(1444)의 일인데, 正統 연간(1436~1449) 이전 이 지역의 宣慰使는 思氏였으나 이후에는 恭頌이 되어 刀孟蓋(혹은 多外頌)이 宣慰使가 되었다. 刀孟蓋 이후로는 多亨法, 多忠, 多士寧, 多安靖, 多思順 등이 宣撫使를 계승했다(余貽澤, 1968: 105).
- 425) 沐璘: 生卒年未詳. 沐의 장손으로 字는 廷章, 號는 軒軒이다. 指揮의 職을 세습하였고, 景泰: 天順 연간(1450~1464)에 右軍都督을 맡았다.
- 426) 底麻: 지금의 雲南省 文山壯族苗族自治州 馬關縣 木廠鎮 底麻村으로 보임.
- 427)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17 景泰 3년 6월 壬申條에 있음.
- 428)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27 景泰 4년 3월 己巳條 참조.
- 429) 孟都: 지금의 미얀마 라카인 주(Rakhine State) 마웅도(Maungdaw)임.
- 430) 이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英宗實錄』 卷241 景泰 5년 5월 庚申條에 있는데, 당시 族人 思指法 등은 罕落法이 계승한 것에 승복하지 않고 罕落法의 숙부인 罕窩를 추거하여 계승시키려 했으며, 罕窩

天順元年，鎮守中官羅珪奏：「罕落法與所部進攻，遣人求援。臣等議委南寧伯毛勝·都督胡志量調官軍，相機剿捕。」帝以非犯邊疆，不許。二年，落法奏爲思坑·曩罕弄等所攻，乞兵剿除，命總兵官區處。六年，總兵官沐瓚奏罕落法屢侵隴川地，欲以撥守貴州兵八千調回防禦，詔留其半。

천순 원년(1457)에 진수중관(鎮守中官)⁴³¹ 나규(羅珪)가 추정하기를, “한락법(罕落法)이 부하들과 서로 공격하면서 사람을 보내와 원조를 청했습니다. [이에] 신(臣) 등은 남녕백(南寧伯) 모승(毛勝)·도독(都督) 호지(胡志)에게 말겨, 관군을 헤아려 징발해서 시기를 살펴 초포(剿捕)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정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천순제는 변강(邊疆)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⁴³² [천순] 2년(1458)에 한락법이 추정하기를, 사경(思坑)·낭한농(曩罕弄) 등에게 공격당했다면서 군대를 보내 [이들을] 초무하여 멸해줄기를 청하나, [천순제가] 총병관에게 처리하도록 명하였다.⁴³³ [천순] 6년(1462)에 총병관 목찬(沐瓚)⁴³⁴이 상주하기를, 한락법이 누차 농천 지역을 침범하니⁴³⁵ 귀주(貴州)⁴³⁶를 수비

法을 세운 刀板放 등을 험박하고 무리를 모아罕落法을 죽이려고 했다.

- 431) 鎮守中官: 鎮守太監을 일컫는다. 앞의 鎮守太監에 대한 주 참조.
- 432)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76 天順 원년 3월 甲子朔條에 있는데, 당시 罕落法은 소속 부락의 두목 堪薄法 등과 서로 공격하고 살육을 했다.
- 433)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97 天順 2년 11월 丙午條 참조.
- 434) 沐瓚(1439~1481): 沐英의 曾孫子로 沐英의 셋째 아들인 沐昂의 손자이다. 景泰 3년(1452)에 그는 부친 沐昂의 직을 계승하여 錦衣衛 副千戶가 되었다. 이후 天順 2년(1459)에 右軍都督同知로 승진하였고, 鎮南將軍의 印을 수여받았고, 成化 4년(1468)에는 다시 副總兵이 되어 安南의 金龜, 騰衛를 진수하였다.
- 435) 本邦의 貴族分子들의 紛爭이 고치지 않았는데, 天順 2년(1458)에 罕落法이 明朝의 도움을 받아 이들 귀족들을 제압하였다. 이후 그의 세력은 점차 강해졌으며, 天順 6년(1462)에 隴川의 지역을 여러 차례 침략하였다(熊蔭, 1988: 219).
- 436) 貴州: 중국 서남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貴州 지역은 옛 黔陽國이 있었던 곳이며, 푼 통일 이후 巴郡, 蜀郡, 黔中郡, 象郡 관할로 각각 분할되었다. 적어도 3세기 이후부터 慕俄俄, 播磨, 烏蒙, 烏撒, 車里와 같은 다양한 소수민족 정권이 들어섰다는 설명으로 미워(John E. Herman, 2007: 24~28) 귀주 지역 일대는 옛날부터 소수민족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다. 귀주라는 명칭이 등장한 시기는 宋代부터였으며, 明 永樂 11년(1413)에 貴州承宣布政使司가 설치된 이후 정식으로 貴州省이라 불렀고, 府 8·州 1·縣 1·宣慰司 1·長官司 39곳을 관할하였다. 근자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

하러고 보낸 병사 8천 명을 되돌려서 방어하고자 한다고 하자, [천순제가] 조서를 내려 그 [병사들] 가운데 반수를 머물도록 했다.⁴³⁷

成化十年，木邦所轄孟密蠻婦曩罕弄等侵掠隴川，黔國公沐琮以聞。曩罕弄者，故木邦宣慰罕落法之女，嫁其孟密部長思外法。地有寶井。罕落法卒，孫法嗣。曩罕弄以尊屬不樂受節制，嗾族人與爭。景泰中，叛木邦，逐宣慰，據公署，殺掠隴境隴川·孟養，兵力日盛，自稱天娘子，其子思柄自稱宣慰。黔國公琮奏委三司官往撫，曩罕弄驕蹇不服，且欲外結交陞兵，過骨木邦·八百諸部，琮等復以聞。兵部尚書張鵬主用兵，詔廷臣集議，皆以孟密與木邦仇殺，並未侵犯邊境，止宣撫諭。因命副都御史程宗馳傳與譯者序班蘇銓往。時成化十八年也。驗年，孟密思柄遣人入貢，宴賜如土官例。已，孟密爲木邦所擾，乞別設安撫司。張鵬以太監聶平·御史程宗撫取已有成績，遂命宗巡撫雲南，致序班詣孟密勸諭之，其孟密地或仍隸木邦，或別設安撫，區處具奏。

성화 10년(1474)에 목방(木邦)이 관찰하는 맹밀(孟密)의 만인(蠻人) 부녀(婦女) 낭한농(曩罕弄) 등이 농천(隴川)을 침범하여 약탈하자, 검국공(黔國公) 목종(沐琮)이 [이를 조정에] 알렸다.⁴³⁸ 낭한농은 옛 목방의 선위사(宣慰使) 한살법(罕落法)⁴³⁹의 딸로, 맹밀 부락의 수령인 사외법(思外法)에게 시집을 갔다.⁴⁴⁰ 그 지역에는 보정(寶井)⁴⁴¹이 있었다. 한살법(罕落法)이 죽

구성 중 소수민족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苗族, 布依族, 土家族, 侗族, 彝族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 437)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341 天順 6년 6월 癸巳條 참조.
- 438)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125 成化 10년 2월 癸亥條에 있는데, 이에 대해 조정은 沐琮에게 太監 錢能 및 巡按 三司官 등과 會同하여 이들에게 군대를 물리도록 撫諭하도록 했다.
- 439) 罕落法: 여러 사적에 의하면, 本邦의 宣慰는 罕의 法에서 비롯되어 罕法, 罕門法, 罕蓋法, 罕落法으로 이어지며 罕落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본문의 바로 뒷 문장에 의하면 “罕落法이 죽자 그의 손자 罕落法이 계승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위의 계보와 견주어 보면 罕落法의 祖父는 罕門法으로 罕落法과 罕門法은 같은 인물로 보인다. 그렇다면 曩罕弄 역시 罕門法의 딸이 된다.
- 440) 毛奇齡의 『蠻司合志』에 보면, “木邦宣慰罕落者, 利寶井所有, 特以愛女曩罕弄妻思孟”과 기재되어 있거니와 본문에 있는 思外法은 思孟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熊蔭, 1988: 220).

자 그의 손자 한라범이 계승했다. 낭한농은 [한라범]의 존속(尊屬)이었기 때문에 [그의] 절제(節制)를 받는 것을 싫어하여 죽인들을 부추겨 그와 다투었다. 경태 연간(1450~1456)에 목방에 반기를 들어 선위[사]를 쫓아내고 관서(官署)를 점거했으며, 인접해 있는 농성·맹양(孟養)을 삼혹하고 약탈하여 병력(兵力)이 날로 강성해지자 천낭자(天娘子)라 자칭했으며, 그녀의 아들 사병(思柄)은 스스로 선위[사]를 칭했다. 검곡공 목종(沐琮)이 삼사관(三司官)에게 맡겨 가서 초무하도록 주청했는데, 낭한농은 오만하여 순종하지 않고 또 밖으로 교지(交趾)⁴⁴²⁾의 군대와 결탁하여 목방·괭백의 여러 부족을 협박하니, 목종(沐琮) 등이 다시 [이를 조정에] 알렸다. 병부상서 장봉(張鵬)⁴⁴³⁾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서를 내려 조정 대신들이 모여 의논하도록 했는데, 모두가 맹밀과 목방은 원한이 있어 서로 죽이고자 하지만 아직 변경을 침범하지 않았음으로 다만 마땅히 안무하고 효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부도어사(副都御史) 정종(程宗)⁴⁴⁴⁾에게 명하여 통역관인 서반(序班)⁴⁴⁵⁾ 소전(蘇

錠)과 함께 역참의 말을 타고 절주하여 가도록 하였다.⁴⁴⁶⁾ 때는 성화 18년(1482)이다. 이듬해(1483)에 맹밀의 사병(思柄)이 사람을 보내 입조하여 공물을 마치고, 토관의 예에 따라 연회를 베풀고 상을 내렸다.⁴⁴⁷⁾ 얼마 후, 맹밀이 목방에게 어지럽힘을 당했다고 상주하고서 별도로 안무사(安撫司)를 설치해 주기를 청하였다. 장봉이, 태감(太監)⁴⁴⁸⁾ 담평(潭平)·어사(御史)⁴⁴⁹⁾ 정종(程宗)이 안무(安撫)하고 길들여서 이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 마침내 정종에게 명하여 운남을 순찰하여 안무하도록 하고, 담평에게 칙서를 내려 [정종과] 함께 금치(金齒)에 나아가 이들을 권고하고 효유토록 하였으며, 그 맹밀 지역을 예전대로 목방에 예속시킬 것인지 혹 별도로 안무사를 설치할 것인지는 [일일] 처리한 후에 [문서로] 갖추어 상주하도록 했다.⁴⁵⁰⁾

初，曩弄弄竊據孟密，貳於木邦。畏降境不平，遣人從間抵雲南，至京，獻寶石·黃金，乞開設治所，直隸布政司。閩臣萬安欲許之，劉瑄·劉吉皆以孟養原木邦屬夷，今曩弄弄叛，而請命於朝，若許之，則土官誰不解體。蘇銘私以告於宗。宗復奏曩弄弄與木邦仇殺已久，勢難再合，已論諸蠻，示以朝廷德意，宥其罪，開設衙門，令還其所侵地，皆踴躍奉命，木邦亦已屈服，乞遂行之。訃覆，從之。二十年遂設孟密安

- 441) 寶井: 玉石을 채취하는 礦井으로, 孟密宣撫司의 서남쪽에 있었는데, 지금의 緬甸 椰那 蒙米特의 동남부에 위치한 抹谷으로 보임. 『讀史』에 보면, 이 곳 寶井에 대해 “孟密盛產寶石, 朝廷取寶石於此”라 기재되어 있고, 天啓 『讀志』에는 “有寶石金礦, 賈客雲集”이라 기재되어 있다(『舊唐』 1988: 220).
- 442) 交趾: 옛 南交의 땅으로 周代에는 越裳氏의 땅이었고, 秦始皇 初에 百粵과 병합하여 桂林·南海·象郡을 두었다. 前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南越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9郡 중의 하나로, 후에 交州로 개칭하였다. 元帝(전48~전33) 때에는 交趾刺史가 七郡을 다스렸는데, 그 중 交趾·日南·九真이 지금의 안남 땅이다. 교지는 지금의 통킹반 지역, 구진은 통킹반 남쪽 해안지대로 淸化·乂安·河靜等 등 지역이 해당하고, 일남은 구진의 남쪽인 廣平·廣治·承天省 등 지역을 가리킨다.
- 443) 張鵬(1420~1491): 字는 騰霄이며, 涿水 사람이다. 景泰 2년(1451)에 進士에 급제하여 監察御史에 제수되어 大同·宣府를 巡按했다. 天順 원년(1457)에 御史 楊瑄이 石亨과 曹吉祥을 탄핵했는데, 이후 이에 연좌되어 下獄되었다가 후에 遼東에 수자리로 보내졌다. 憲宗이 즉위해서 부름을 받아 原官에 복직되었다가 福建按察使로 발탁되었다. 이후 成化 4년(1468)에 右都禦史로서 廣西를 巡撫했는데 도 직을 劾辭하여 공을 세웠다. 이후 漕運總督으로 개임되어 漕務를 잘 행했고, 南京副都御史로 전임하였으며 寧夏를 巡撫했다. 이후 召還되어 兵部侍郎으로 승임하고, 成化 18년(1482)에 兵部尙書에 올랐다. 이후 太子少保가 더해졌지만 弘治 4년(1491)에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懿簡이다. 『明史』 卷160 張鵬傳 참조.
- 444) 程宗(1426~1492): 字는 濳伊이며, 直隸 常熟 사람이다. 景泰 2년(1451)에 進士에 급제하여 刑部主事に 제수되었으며 江西 吉安府 知府로 올랐다. 이후 四川 左參政으로 승임하고 陝西 右布政使와 左布政使를 거쳐 右都御史로 雲南 巡撫가 되어 木邦과 孟密 兩司의 충들을 처리하였으나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刑部右侍郎으로 승임하여 左侍郎으로 전임했으며, 南京 工部尙書로 발탁되어 仁政을 펼쳤다. 弘治 5년(1492) 10월에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司空集』, 『撫夷集』 등의 저서가 있다.
- 445) 序班: 明代 朝廷儀禮의 侍班, 齊班, 糾儀와 傳贊 등의 일을 맡은 從九品職이다. 鴻臚寺의 屬官으로 司儀,

- 司儀 兩府署에 각기 50명을 두었으나, 嘉靖 36년(1557)에 8명을 없앴다가 萬曆 11년(1583)에 다시 6명을設하였다. (『明史』 卷74 『職官志』 3 鴻臚寺條) 그날과 하면 翰林院 소속의 四夷館에도 序班을 두어 조공국에서 올린 表文을 번역하고, 번역을 학습하는 학생을 양성하였으며, 會同館에도 通事序班을 두어 통역의 일을 맡도록 했는데, 張字는 暉邊관의 통사서반이었다. 특히, 명대에 暉邊관의 통사서반에는 본국 언어를 잘하는 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조선의 통사서반의 경우 거의 조선 출신의 東寧衛人이었다.(鄭惠植, 2010: 54~55)
- 446) 이상 曩弄弄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229 成化 18년 3월7일 庚午條 참조.
- 447)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243 成化 19년 8월 甲申條에 있다. 당시 思悞는 陶孟 掃輝 등을 명에 사신으로 보냈다.
- 448) 太監: 宦官에 대한 칭호이다. 隋唐시대 이후로 지위가 높아진 內監을 太監이라고 불렀는데, 唐 高宗이 황제의 생활을 보좌하는 殿中署를 中御府로 바꾸고 宦官으로 하여금 太監과 少監을 맡도록 하자, 이후 환관들을 太監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明代에는 환관 기구인 12監(司禮, 內官, 御用, 司役, 御馬, 神宮, 尙膳, 尙寶, 印綬, 直殿, 尙衣, 都知監)의 長官을 太監이라 했으며 正四品職이었다.
- 449) 실록에는 都御史로 기재되어 있음.
- 45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244 成化 19년 9월 己亥條 참조.

抽司，以思禍爲使。時孟密據實井之利，資爲結納，而木邦爲孟密所侵，兵力積弱，不能報，雖屢奏訴，竟不得直云。

당초에 낭한농이 맹밀을 몰래 점거하고 목방을 배신하였다. [그리고] 인접한 지역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보내 셋길로 운남에 다다르고 경사에 이르러서, 보석·황금을 바치고 관서(官署)를 개설하여 포정사(布政司)에 직접 예속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내각(內閣)⁴⁵¹의 대신(大臣)인 만안(萬安)⁴⁵²이 이를 받아들일려고 하자, 유후(劉瑠)⁴⁵³·유길(劉吉)⁴⁵⁴이 함

451) 內閣: 明代 政務를 논하는 最高의 官署이다. 洪武 13년(1380)에 太祖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상제도를 폐지한 후, 洪武 15년(1382)에 宋代의 制度를 모방하여 華蓋殿·謹身殿·武英殿·文淵閣·東閣 등을 설치하고 이곳에 大學士를 두어 皇帝의 顧問 역할을 하도록 했는가 하면 文華殿 大學士를 두어 太子를 보필토록 하였다. 이후 永樂 연간(1403~1424)에 들어와 文淵閣의 대학사를 職務에도 참여하게 하면서 內閣이라 칭하게 되었다. 대학사는 초기에 正五品의 낮은 품계였지만 洪熙 연간(1425) 이후, 尙書의 職에 있던 楊士奇·楊榮은 華蓋殿·謹身殿의 大學士에 임용하면서 내각의 權力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점차 大學士의 朝位班次도 六部尙書의 앞에 서게 되었고, 地位도 높아져 內閣 大學士는 宰相의 이름은 없지만 실제로 宰相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452) 萬安(1417?~1488): 字는 循吉이며, 眉州(지금의 四川省 眉山市 東坡區 尚義鎮 萬衝村) 사람이다. 正統 13년(1448)의 進士로 庶吉士를 거쳐 編修에 제수되었다. 이후 成化 원년(1465)에 禮部左侍郎에 오르고 成化 5년(1469)에 入閣하였는데, 이를 先後로 吏部尙書에 오르고 太子少保·太子太保가 더해졌다. 成化 23년(1487)에 憲宗이 崩御하고 孝宗이 즉위해서 파직되었다. 그러나 그는 39년간의 정치생활을 하면서 正統·景泰·天順·成化 3帝 4朝를 모시면서 풍부한 정치 경험을 쌓았거니와 역사에서 그를 萬閣로라 칭한다. 『明史』 卷168 「萬安傳」 참조.

453) 劉瑠(1426~1490): 字는 叔溫이고, 號는 古直이며, 青州府 壽光縣 陽河里(지금의 青州市 高柳鎮 陽河村) 사람이다. 正統 13년(1448)에 進士에 급제하여 編修에 제수되었으며, 天順 연간(1457~1464)에 太子(뒷날 憲宗)의 侍講이 되었다. 憲宗이 即位한 후 太常卿에 陞任하여 侍講學士를 겸하였다. 이후 成化 10년(1474)에 吏部左侍郎에 올라 예전처럼 講官에 충임되었는데, 이듬해에 翰林學士를 겸했으나, 內閣에 들어가 職務에 참여했다. 憲宗은 그를 「東劉先生」이라 칭하기도 하고 印章 一枚를 하사했는데, 蓋款獻瑠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오래지 않아 吏部尙書로 승임하였는데, 太子少保와 文淵閣大學士가 더해졌다. 이후 밭을 받고 「文華大訓」을 편찬한 후 太子太保가 더해지고 謹身殿大學士로 전임하였으나 弘治 3년(1490)에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文和이다.

454) 劉吉(1427~1493): 字는 祐之이고, 保定府 博野縣 사람이다. 正統 13년(1448) 進士에 급제해 庶吉士에 선임되어 編修에 제수되었다. 이후 修撰으로 승임하고 天順 4년(1460)에는 東宮의 侍講에 보임되었다. 그런데 그는 계약에 능하고 좌우에 사람을 많이 두어 結黨을 함으로 때때로 言官의 비판과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內閣首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탄핵을 받았거니와 그럼에도 그

께 맹양(孟養)⁴⁵⁵은 원래 목방에 속했던 이족(夷族)인데 지금 낭한농이 반기를 들고 조정에 임명해 주기를 청한다고 해서 만일 이를 허락한다면, 어느 토관인들 떨어지나가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소진(蘇臣)이 사적으로 정종(程宗)에게 고하였다. [이에] 정종이 다시 상주하기를, 낭한농과 목방은 원한으로 서로 삼육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그 기세가 다시 합하기가 어렵고 이미 여러 만민에게 알려져 있으니, 조정의 은덕을 배후는 뜻을 널리 보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고, 관서는 개설하되 그들이 침탈한 땅을 되돌려 주라하고 명하여 모두가 기꺼이 명령을 받들고 목방 또한 진실로 신복하고 난 후에서야 마침내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청했다. 부서(部署)에서 [이를] 심의하여 올리니, [성화제가] 이를 허락했다.⁴⁵⁶ [성화] 20년(1484)에 마침내 맹밀안무사(孟密安撫司)를 설치하고, 사병(思柄)을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 당시 맹밀은 보정(寶井)의 이로움을 차지하여 이를 이용해 [상관에게] 주로서 결탁했으나 목방은 맹밀에게 침략을 당해 군사력이 쇠약해져 보복할 수 없었고, 비록 여러 차례 상주하여 호소하였지만 결국 억울함을 씻을 수 없었다고 한다.⁴⁵⁷

弘治二年，雲南守臣奏，孟密曩弄先後占奪木邦地二十七處，又誘其頭目放卓孟等叛，其勢必盡吞後已。乞敕八百筴慰司傳與木邦和好，互相救援，亦敕木邦宣慰收復人心，親愛骨肉，勿使孟密得乘間誘叛，自致孤弱。如孟密聽諭，方許曩弄孫承襲。報可。并敕雲南守臣親詣孟密曉諭，復降敕詰責前鎮巡官所以受賂召侮啓釁者。三年

자리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劉棉花」 칭했다. 憲宗이 즉위해서도 그는 侍講, 侍講學士를 거쳐 禮部左侍郎이 되었고, 成化 11년(1475)에는 劉瑠와 함께 入閣하여 翰林學士를 겸하였으며, 禮部尙書에 임명되었다. 이후 太子少保兼文淵閣大學士가 더해졌는데, 곧 「文華大訓」을 저술해 太子太保가 더해지고 武英殿大學士로 승임하였으며, 다시 또 少保兼太子太保가 더해졌다. 孝宗이 즉위해서 萬安과 尹勳이 선후로 물러나자 이들을 뒤이어 곧 首輔가 되었다. 이때 많은 인관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太監 蔣琮와 合作하여 오히려 이들을 몰아내었다. 이후 孝宗의 심임을 받으며 少保兼太子太保가 되어 吏部尙書에 올랐다. 이후 곧 「憲宗實蹟」을 완성하여 다시 少保에 오르고 華蓋殿大學士가 되었는데, 弘治 5년(1492)에 황후의 동생에 대한 討爵과 관련 弘治帝의 노여움을 사 致仕한 후 귀향했는데, 이때 해에 세상을 떠났다. 死後 太師에 追贈되고 諡號는 文穆이다.

455) 孟密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56)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憲宗實蹟」 卷244 成化 19년 9월 己亥條 참조.

457)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憲宗實蹟」 卷253 成化 20년 6월 庚午條에 보임.

道諭致仕南京工部尚書程宗罪。先是，宗以右副都御史奉命率蘇鎰往撫諭，而鎰受思栢金，紿宗奏爲設孟密安撫司。鎰復教思栢僞歸木邦地，而占據如故，思栢益橫。至是，木邦宣慰罕乞法發其事，時宗已致仕，巡按請追罪之。獄具，帝以事在赦前，不問。六年，雲南守臣奏孟密僞奪木邦，兵連禍結，垂四十餘年，屢撫屢叛，勢愈猖獗，請調兵往討。兵部議以孟密安撫，初隸布政司，今改隸木邦，以致爭殺，仍如初隸可息兵，從之。

홍치 2년(1489)에 윤남의 수신(守臣)이 상주하기를, 맹밀의 낭한농이 차례로 목방의 지역 27곳을 점령하여 탈취했고 또 그(목방) 부락의 두령 방탁맹(放卓孟) 등을 유인하여 반기를 들게 했는데, 그 형세가 만드시 [목방을] 모두 다 병탄하고서야 그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팔백선위사(八百宣慰司)에 칙서를 내려 목방과 더불어 사이종게 지내고 서로 구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청했다. [또한] 목방의 선위[사]에게도 칙서를 내려 인심(人心)을 다시 수습하고 골육간에 사이 좋게 지내어, 맹밀이 기회를 틈타 [이들을] 피어내 반기를 들게 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쇠약해지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맹밀이 혼유를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바야흐로 낭한농의 손자⁴⁵⁸⁾가 계승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홍치제가] 비답을 내려 허락하고, 아울러 윤남 수신에게 칙서를 내려 친히 금치(金齒)에 나아가 효유하도록 했으며, 또 칙서를 내려 이전에 진순관(鎭巡官)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업진여김을 당하는 단지를 초래한 것을 꾸짖었다.⁴⁵⁹⁾ [홍치] 3년(1490)에 관직에서 물러난 남경(南京) 공부상서(工部尙書) 정종(程宗)의 죄를 추구(追究)하였다.⁴⁶⁰⁾ 이보다 앞서, 정종은 우부도어사(右副都御史)로서 명을 받들고 소전(蘇鎰)을 데리고 나가 안무하고 효유했는데, 소전이 사병(思栢)이 [뇌물로] 준 금(金)을 받고서 정종을 속여 상주하도록 해 맹밀안무사를 설치하였다. 소전이 또 사병에게 목방의 땅을 거것으로 돌려주는 척하면서 예전처럼 점거하도록 교사(敎誨)하여, 사병은 더욱 방자해졌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목방의 선위[사] 한알법(罕乞法)⁴⁶¹⁾이

458) 義罕弄의 손자는 思栢이다.

459) 이상의 내용은 『孝宗實錄』 卷29 弘治 2년 8월 壬寅條에 있다. 실록에 義罕弄의 손자는 思栢으로 기재되어 있다.

460)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 卷34 弘治 3년 정월 壬申條에 보인다.

461) 道光『雲南志鈔』에 보면, “罕拙法，一作落法”이라고 되어 있다. 즉 罕拙法이 罕落法이라는 것인데, 이는

이 일을 들추어냈는데, 당시 정종은 이미 퇴임을 했지만 순안(巡按)이 그의 죄를 추구(追究)하여 징치(懲治)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구속으로 판결이 이미 정해졌지만 홍치제는 앞으로 사면령이 내려질 사건이라 하여 추구하지 않았다.⁴⁶²⁾ [홍치] 6년(1493)에 윤남의 수신이 상주하기를, 맹밀이 목방을 침략하여 약탈하고 병화(兵禍)가 계속해서 일어난 지가 40여 년이 되었는데, 여러 차례 초무했으나 다시 여러 차례 반기를 들어 기세가 점점 더 창렬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군대를 징발해 보내어 토벌해야 한다고 청했다. [이에] 병부(兵部)에서 의논하기를, 맹밀안무[사]가 당초에는 포정사(布政司)에 예속했는데 지금은 목방에 바꾸어 예속케 함으로써 쟁투와 살육을 초래했으니, 처음처럼 [포정사에] 그대로 예속케 하면 전쟁을 수그러들게 할 것이라고 하자, [홍치제가] 이를 허락했다.⁴⁶³⁾

初，孟密之復叛木邦也，因木邦宣慰罕乞法親迎婦於孟乃寨，孟密土舍思栢乘虛襲之，據木邦，誘降其頭目高答落等，聚兵阻路。罕乞法不得歸，依孟乃寨者三年。於是巡撫張誥等會奏，議遣文武大員詣孟密撫諭，思栢猶不服。詔乃遣官督率隴川·南甸·干崖三宣撫司，積糧開道，示以必征之勢，又命漢土官舍羅兵以威之。高答落等懼，謀歸罕乞法。思栢欲殺之，罕乞法乞教於隣部，調土兵合隴川等三宣撫兵至蠻邊，共圍之。思栢懼，乃罷兵。誥等奏其事，且乞賞有功者。兵部議，罕乞法雖還木邦，思栢猶未悔罪，必命歃血同盟，歸地獻款，永息爭端，乃可論功行賞，報聞。

당초에 맹밀이 다시 목방에 반기를 든 것은 목방의 선위[사] 한알법(罕乞法)이 친히 맹내채(孟乃寨)에서 아내를 맞이하려 나갔기 때문인데, 맹밀의 토사(土舍) 사설(思栢)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습격하여 목방을 점거하고서 그 부락의 두목 고답락(高答落) 등을 투항하도록 피어 군대를 모아 길을 막았다. 한알법은 돌아올 수 없어 맹내채에 3년간 의부(依附)하였다.⁴⁶⁴⁾

질문이다. 罕拙法和 罕落法은 서로 다른 인물이며,父子 관계이다. 罕落法은 景泰 4년(1453)에 襄職하여 成化 연간(1465~1487)까지 任職하였고, 罕拙法은 弘治 연간(1488~1505)에 襄職하여 嘉靖 연간(1522~1566)까지 임직하였다(僞監, 1988: 222).

462)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 卷51 弘治 4년 5월 甲午條에 있음.

463)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 卷79 弘治 6년 8월 庚辰條에 있음.

464)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正德 초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僞監, 1988: 223).

이에 순무 장고(張誥)⁴⁶⁵ 등이 모여 상주를 올려, 문무 대관을 맹일에 이르게 해 안무하고 효유하도록 건의했지만 사설(思揲)이 여전히 순복(順服)하지 않았다. 장고는 이에 관원을 보내 농천(隴川)·남건(南甸)·간애(干崖) 세 선무사(宣撫司)를 독속(督率)하여 양식을 쌓고 길을 열어 반드시 정벌하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또 한관(漢官)·토관사(土官)에게 무력시위를 하게 해 그들을 위협했다. [이에] 고달락 등은 두려워서 한알법이 돌아오도록 계획을 세웠다. 사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자 한알법이 인접해 있는 부족에게 구원을 청했고, 토병(土兵)을 징발하여 농천 등 세 선무사(宣撫[司])의 군대와 회합하여 만자(蠻遮)에 이르러서 함께 그를(사설) 포위하였다. 사설(思揲)은 두려워서 곧 싸움을 멈췄다. 장고(張誥) 등이 이 일을 상주하고, 아울러 또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병부(兵部)에서 건의하기를, 한알법이 비록 목방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이 여전히 죄를 누우치지 않으니, 반드시 [그들에게] 삼혈동맹(歃血同盟)을 하도록 해야 하고 땅을 되돌려 주고 반적(叛賊)들을 바치도록 해서 영원히 싸움의 실마리를 끝내고사야만 눈공행상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홍치제가] 비담을 내렸다.

九年，罕訖法及思揲各遣使來貢，報賜如例。初，思揲圍蠻遮，木邦宣慰妻求救於孟養思陸。孟密素畏思陸之兵，聞其將至，遂解去。木邦與思陸謀共取孟密，於是蠻中之患，又在孟養矣。自萬安·程宗勸處失宜，諸酋長紛紜進退，中國用兵且數十年。

[홍치] 9년(1496)에 한알법과 사설이 각기 사신을 보내 내조하여 공물을 바치니, 전례에 따라 보답하여 하사품을 내렸다. 당초에 사설이 만자(蠻遮)를 포위하자⁴⁶⁶ 목방 선위[사]의 처(妻)가 맹양의 사록(思陸)에게 구원을 청했었다. 맹밀(孟密)은 평소에 사록의 군대를 두려워했는데, 그들이 막 도달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침내 포위를 풀고 가버렸다. [이후] 목방이 사록과 함께 맹밀을 탈취하고자 회했는데, 이에 만족(蠻族) 가운데 환란이 또 맹양(孟養)에 있게 되었다. 만안(萬安)·정종(程宗)이 부당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면서부터⁴⁶⁷ 많은 추장들

465) 張誥: 生卒年未詳. 弘治 연간(1488~1505)에서 正德 초년에 걸쳐 雲南 巡撫를 역임하였다.

466) 正德 초 무렵 孟密의 土舍 思揲이 木邦의 宣慰使 罕訖法을 죽이고자 蠻遮를 포위했다(賈誼, 1988: 223).

467) 이와 관련된 내용이 倪輿의 『滇雲歷年傳』에 보이는데, “夫猛密之失, 萌於毛勝, 盛於錢能·王舉, 而成於

의 승진과 물러남이 어지러워져, 중국은 또 수십 년간 무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嘉靖初，思陸子思倫與木邦宣慰烈烈同擊緬甸薈葦紀，而分其地。後莽瑞體強，將修怨於木邦。隆慶二年，木邦土舍罕拔告衆，有司索賂不爲請。拔怒，與弟罕章集兵梗往來道，商旅不前，而已食盡亦乏絕，乞於緬。緬以五千叢饋之，自是反德緬，攜金寶象馬往謝之。瑞體亦厚報之，歡甚，約爲父子。瑞體死，子應裏用岳風言誘拔殺之。時萬曆十一年也。

가정 초에 사록(思陸)의 아들 사륜(思倫)이 목방의 선위[사] 한렬(罕烈)과 함께 면건의 추장 망기세(莽葦紀)를 공격하여 죽이고서 그의 땅을 분할하였다.⁴⁶⁸ 후에 망시제(莽瑞體)가 강대해져 목방에 원한을 갖고자 했다.⁴⁶⁹ 융경(隆慶)470) 2년(1568)에 목방의 토사(土舍) 한발(罕拔)이 세습하겠다고 고했는데, 담당 관원이 뇌물을 요구하면서 [조정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한발이 분노하여 그의 동생 한장(罕章)과 더불어 군대를 모아 왕래하는 길을 막아버렸는데, 장사하는 무리들이 나아가지 못하여 자기들이 먹을 소금마저도 떨어져버리자, 면건에 [소금]을 청하였다. 면건에서 그에게 [소금] 5,000광주리를 보내었는데, 이로부터 오히려 면건을 고맙게 생각하고, 금은(金銀)·재보(財寶)·코끼리·말을 가지고 가 면건에 사례했다. 망시제(莽瑞體)도 이에 후하게 보답하고 매우 기뻐했으며, 부자(父子)의 관계로 맹약을 맺었다.⁴⁷¹ 망시제가 죽은 후, [그의] 아들 망승리(莽勝裏)가 악봉(岳風)이 한 말을 이용해서 한발

万·程”이라 기재되어 있다(賈誼, 1988: 223).

468)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卷93 嘉靖 7년 10월 戊辰條 및 『滇雲歷年傳』 卷8에 있으며, 본문 앞부분에 있는 「緬甸傳」에도 있음.

469) 이와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482 嘉靖 39년 3월 甲午條에 있거니와 “先是, 雲南 緬甸 薈葦喇者, 先是紀歲爲孟密土官思與與孟養土夷思倫所殺, 欲報之”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嘉靖 39년(1560)이면 이미 莽瑞體는 세상을 떠났고 그를 이어 莽應龍이 緬甸의 추장으로 재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기재된 莽瑞體는 莽應龍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70) 隆慶: 明 왕조 13대 황제 穆宗 朱載堦의 연호이다.

471) 이에 대한 내용은 『滇史』 卷13 隆慶 2年條에도 있는데, 당시 罕拔이 사신을 보내어 襲殺하기를 청하자 金騰의 兵備가 관례에 따라 관원에게 寇帶를 가지고 가 그에게 주도록 했다. 그런데 이때 뇌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罕朝光(罕拔의 外侄)에게 職을 除授하려고 했다. 본문의 莽瑞體는 莽應龍을 잘못

을 유인하여 죽였다. 때는 만력 11년(1583)이었다.⁴⁷²⁾

拔子進忠守木邦， 應襄違弟應龍襲之， 其孿子罕鳳與取馬舍人罕度欲擒進忠獻應龍， 進忠攜妻子內奔， 度等追至姚關， 焚順寧而去， 十二年， 官軍破緬於姚關， 立其子欽， 欽死， 其叔罕禱約暹羅攻緬， 緬恨之， 三十四年， 緬以三十萬衆圍其城， 請救於內地， 不至， 城陷， 罕禱被擄， 緬乃立孟密思禮領其衆， 事聞， 黜總兵官陳賓， 木邦遂亡。

한발(罕拔)의 아들 한진중(罕進忠)이 목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망응리(莽應裏)가 동생 망응룡(莽應龍)⁴⁷³⁾을 보내 그를 습격하자 침의 자식인 한봉(罕鳳)과 경마(耿馬)⁴⁷⁴⁾의 사인(舍人) 한진(罕度)이 한진중을 붙잡아 망응룡에게 바치려고 했다. 한진중이 처자식을 데리고 내지로 달아나자⁴⁷⁵⁾ 한진 등이 추격하여 요관(姚關)에 이르렀으며, 순녕(順寧)을 불사르고 가버렸

기제한 것으로 보인다.

472)罕拔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澳史』 卷13 萬曆 10年 2月 18日條에 있는데, 『罕拔舊與莽應裏有隙， 時應裏新立， 拔應道質， 不得不在， 而拔至擺古， 又先見應裏之弟， 應襄遂疑私通緬國， 及岳鳳至， 又以拔之助兵多氏訴于緬， 耿馬罕度子時在緬， 亦潛拔心在漢朝， 應裏復差人探聽俱實， 乃縛拔置舟中， 實以絙， 去其繫絙， 而浮之海』라 기재되어 있다.

473)莽應龍(1516~1581): 미얀마 통구(Toungoo) 왕조의 다섯 번째 국왕으로, 이복 동생인 타빈수웨티(莽瑞體)의 뒤를 이어 1551에 즉위해서 1581년까지 30년간 재위하였다. 또한 그는 타빈수웨티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왕의 형'이라는 뜻인 '바인나웅(Bayinnaung)'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고 아바(阿瓦)를 복속시켰으며, 산족(掸族)을 지배하에 두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일원적 통합정책을 취하며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쳤다. 1558년에 타이 북부 차양마이(淸邁)의 란나(蘭納) 왕국을 정복하였고, 1559년에는 지금의 미얀마 영토 대부분과 인도의 마니푸르, 란형(蘭滄) 왕국의 수도 비엔티안(万象)까지 점령하였다. 또 1563년부터는 남부 타이의 아유타야(Ayutthaya) 왕조에 대한 공격을 가하여 타이족 지역인 캄펜툽과 수코타이를 점령하고 1564년에는 마침내 수도 아유타야를 점령하여 결국 아유타야 왕국 전역을 미얀마의 속령으로 만들었다. 당시 바인나웅의 군대는 아유타야 왕 및 대신들의 가솔들을 포함한 3천여 명을 포로로 잡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서 개신하였다. 그의 정복욕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는 1581년 66세의 나이로 97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는데 술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라카인의 정복을 위해 군대의 이동을 명령했을 정도였다. 이 왕의 집권기에 튕구 왕조는 폐구로 수도를 천도하였다. 그런데 본론에莽應龍을莽應裏의 동생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이며莽應龍의 장자가莽應裏이다.

474)耿馬: 지금의雲南省 臨滄市 耿馬傣族佤族自治縣이다.耿馬의耿은 係語로 '地方' 혹은 '地域'이라는 뜻이고, 馬는 漢語로 '말이 있는 地方'이라는 의미인데, 明代에耿馬安撫司를 설치했다.

다.⁴⁷⁶⁾ [만력] 12년(1584)에 관군이 요관에서 먼전의 군대를 격파하고서 그(한진중)의 아들 한흠(罕欽)을 세웠다. 한흠이 죽고, 그의 숙부 한개(罕袞)⁴⁷⁷⁾가 섬라(暹羅)와 맹약을 맺고서 먼전을 공격하니, 먼전이 그에게 원한을 품었다. [만력] 34년(1606)에 먼전이 30만 대군으로 그의 성(城)을 포위하였다. 내지에 구원을 청하였으나 [구원병이] 이르지 않아 성은 함락되고 한개가 사로잡혔다. 먼전이 제멋대로 맹민의 사례(思禮)를 세우니 그의 무리를 다스리게 했다. 사정이 [조정에] 알려지자 총병관 진빈(陳賓)을 파면시켰는데, 목방은 마침내 멸망하였다.

孟密安撫司

맹밀안무사

孟密自思柄授安撫， 繼之者曰思探， 曰思眞， 眞年至百十歲， 嘉靖中， 土舍兄弟爭襲， 走訴於緬， 緬人爲立其弟， 改名思忠， 思忠以其地附緬， 萬曆十二年， 土奢偪印來歸， 命授爲宣撫， 已而復叛緬， 乃以其母罕烘代掌司印， 緬攻孟密， 罕烘率子思禮·從子思仁奔孟廣， 而孟密遂失， 十八年， 緬復攻孟廣， 罕烘·思禮奔隴川， 思仁奔回， 而孟廣又失， 先是， 思仁從罕烘奔孟廣時， 有甘線姑者， 思忠妻也， 思忠旣投緬， 思仁通於線姑， 欲欲妻之， 而罕烘不許， 至是， 罕烘攜線姑走隴川， 思仁奔雅蓋， 率兵象犯隴川， 欲擄線姑去， 會隴川有備， 弗克， 思仁亦走歸緬， 緬爲署思仁於孟密， 食其地。

맹밀(孟密)은 사병(思柄) 때부터 안무사(安撫使)에 제수되었고⁴⁷⁸⁾ 그를 계승한 자료 사설

475) 이에 관한 내용은 『漢雲歷年傳』 卷8 萬曆 10年條에 기재되어 있다. 당시罕鳳과罕度이滿甸州의景宗眞을擄辱로 삼아罕進忠을 추격하자罕進忠은 황급히 처자를 데리고 내지로 달아났다. 이때 그를 따랐던 군대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緬國에 포로로 잡혔다.

476) 이에 관한 내용은 『漢考』에 기재되어 있다.莽應龍이姚關에 들어와 萬曆 11년(1583) 正月 朔日에施甸을焚掠했다. 이때 임신한 부녀자를 배어 짐을 쳐 사나이이던永昌을, 여자아이인順寧을 침략한다고 했는데, 결국 여자아이가 나오자順寧을 공격했다고 한다(熊政, 1988: 225).

477)罕袞는 萬曆 30년(1602)에木邦 宣慰使의職을 계승했다. 『漢雲歷年傳』에는 萬曆 31년(1603)에木邦의罕袞가 사신을 보내納貢했다고 기재되어 있다(熊政, 1988: 225).

478)孟密은 본래木邦의 부락이었다. 永樂 연간(1403~1424)에木邦의 宣慰使 罕賓法이 八百과緬甸을

(思標)과 사진(思眞)이 있는데, 사진의 나이는 110세에 이르렀다. 가정 연간(1522~1566)에 토사(土舍) 형제가 세습을 다투면서 면전에 달려가 호소하였다. 면전인은 동생을 세우도록 하고 이름을 고쳐 사충(思忠)이라 했는데, 사충은 마침내 그의 땅을 가지고 면전에 의부(依附)하였다.⁴⁷⁹⁾ 만력 12년(1584)에 사충이 위조한 인장(印章)을 가지고 조정에 귀순하니, 선무[사](宣撫[使])에 제수하도록 명했다.⁴⁸⁰⁾ [그런데] 오래지 않아 다시 면전에 의탁하니,⁴⁸¹⁾ 곧 그의 모친 한홍(罕洪)에게 선무사의 관인(官印)을 대신 관장하도록 했다. 면전이 맹밀을 공격하자⁴⁸²⁾ 한홍이 아들 사례(思禮)·조카 사인(思仁)을 데리고 맹광(孟廣)으로 달아났으며,⁴⁸³⁾ 맹밀은 마침내 함락되었다. [만력] 18년(1590)에 면전이 또 맹광을 공격하자 한홍·사례는 농천(隴川)으로 달아나고 사인은 공회(工回)로 달아나, 맹광도 함락되었다. 이보다 앞서 사인이 한홍을 따라 맹광으로 도망갔을 때, 감선고(甘線姑)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충의 처(妻)였다. 사충이 면전에 투항한 후, 사인이 감선고와 간통하여 마침내 그녀를 처로 삼으려

정벌하는데 궤이 있어 永樂帝가 孟密의 13개 지역을 그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후 天順, 成化 연간에 孟密은 점차 강성해졌으며, 금기야 孟密의 酋長 婦人인 異罕弄이 大學士 万安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서 木邦으로부터 孟密을 독립시켜주기를 청하였다. 成化 20년(1484)에 마침 孟密에 安撫하러 나간 副都御史 程宗이 상주하기를, 異罕弄과 木邦은 원한으로 서로 살육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그 기세가 다시 합해지기 어렵고 이런 사정이 이미 여러 蠻人에게 알려져 있으니, 조정의 은덕을 베푸는 뜻을 널리 보이고 木邦이 침탈한 땅을 되돌려 주게 하여 官物을 개설하기를 청하였다. 이를 部覆에서 심의토록 하고 황제가 이를 허락하니, 孟密安撫司를 설치하고, 異罕弄의 아들 思柄을 安撫使로 삼았다. 앞의 『木邦傳』 참조.

- 479) 天啓「瀛志」卷30 「羈縻志·土司官氏」 猛密宣撫司條에 보면, 嘉靖 초에 思奔과 思混이 世襲을 다투었는데, 緬甸이 思奔을 죽이고 思混을 세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 볼 때 思忠의 본래 이름은 思混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480) 이에 관한 내용은 天啓「瀛志」卷30 「羈縻志·土司官氏」 猛密宣撫司條에도 있는데, 思混이 思化, 思根, 丙淵을 데리고 가짜 인장을 가지고서 思忠이라改名을 하고 귀순해 오니, 마침내 宣撫使로 승진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 481) 『讀史方輿紀要』卷119 「雲南」7에 보면, “(萬曆)十三年, 升爲宣撫司, 授其酋思忠, 思忠投緬”라 기재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宣撫司는 宣撫使의 誤記인.
- 482) 緬甸이 孟密을 공격한 것은 萬曆 16년(1588)이었다고 한다(龔蔭, 1988: 226).
- 483) 본문에는 思禮와 思仁이 각각 罕洪의 아들과 조카로 기재되어 있는데, 天啓「瀛志」에 보면, “(萬曆)十六年, 緬攻猛密, 思母罕媯弱不能支, 率其孫思禮·思仁奔孟廣, 而猛密失”이라 기재되어 있거나 이들은 罕洪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들이다. 또한 思禮의 다른 이름은 思化이고 思仁은 思根이며, 思忠의 아들들이다(龔蔭, 1988: 226).

고 했지만 한홍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한홍이 감선고를 데리고 농천으로 도망갔고 사인은 아개(雅蓋)로 달아났는데, [사충이] 군대와 코끼리를 이끌고 농천을 침범하여 감선고를 붙잡아가려고 했다. 그때침 농천은 방비가 잘되어 있어 함락할 수 없었고, 사인(思仁) 역시 도망쳐 면전에 귀순하였으며, 면전은 사인을 맹밀에 제멋대로 임명해서 그(맹밀의) 땅을 식읍으로 삼아주었다.

初, 孟密實井, 朝廷每以中官出鎮, 司採辦. 武宗朝錢能最橫, 至嘉靖·隆慶時猶然. 萬曆二十年, 巡撫陳用賓言, 緬酋擁衆直犯蠻莫, 其款詞以奉聞採使命令, 殺蠻莫思正以開道路, 全漢之禍, 皆自開採啓之. 時稅使楊榮縱其下, 以開採爲名, 恣暴橫, 蠻人苦之. 且欲令麗江退地馳採, 緬酋因得執詞深入, 巡按宋與祖極言其害, 請追還榮等, 帝皆不納. 凡採辦必先輸官, 然後與商賈貿易, 每往五六百人, 其屬有地羊寨, 在孟密東, 往來道所必經. 人工幻術, 採辦人有強索其飲食者, 多腹痛死; 己所乘馬亦斃, 剖之, 則馬腹皆木石也. 思員嘗罰之, 殺數千人, 不得絕. 至是, 復議罰, 以兵少中止.

당초에 맹밀에 보정(寶井)이 있는데 조정에서는 항상 중관(中官)을 [이곳에] 보내어 진수(鎭守)하게 하고, 세관(採辦)⁴⁸⁴⁾을 맡도록 하였다. 무종(武宗, 1491~1521; 재위 1505~1521)⁴⁸⁵⁾ 시대에 진능(錢能)이 가장 횡포(橫暴)했는데, 가정·융정 시대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했다. 만력 20년(1592)에 순무 진용빈(陳用賓)이 아뢰기를, 면전의 추장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곧바

- 484) 採辦: 각지의 토산물을 貢納하도록 하여 上供하였는데, 이를 歲辦이라 했다. 그러나 공금이 부족하면 官에서 돈을 내어 물품을 上供하였는데, 이를 採辦이라 한다.
- 485) 武宗: 弘治帝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朱厚照이고, 명 황조 11대 황제이다. 孝宗 弘治帝가 150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15세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였으며, 年號를 正德으로 정하고 통치에 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환관들과 가까이 하면서 길들여진 방종과 안일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역조 황제 가운데서 유례없는 기인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劉瑾을 비롯한 八狐派 일컫는 惡宦官들이 둘러싸여 온갖 亂行을 일삼았다. 따라서 정치의 실권은 유근에게 장악되어 문란하였고,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워져 수많은 민란이 일어났으며, 황실 내부에서도 政變이 잇따랐다. 결국 그는 재위한 지 16년만인 1521년에 31세의 젊은 나이로 후사도 없이 豹房新寺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諡號는 毅皇帝이며, 陵은 康陵이다.

로 만막(蠻莫)을 침범하였는데, 그들은 개채사(開採使)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며 만막의 사정(思正)486)을 죽이고서 도로를 열었다고 했다.487) 모든 전(滇) 지역의 재화(災禍)는 모두 개채(開採)488)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세사(稅使) 양영(楊榮)489)이 그의 부하를 풀어 개채(開採)를 명분 삼아 마을대로 횡포를 부리니, 만인들은 고통을 당했다. 또 [양영이] 여강(麗江)490)에 토지를 반환시키고 개채를 받아들이게 하려 하자, 면진의 추장이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며 길숙이 들어왔다. 순안(巡按) 송홍조(宋興祖)491)가 그 해악(害惡)을 극력 아뢰고 양영 등을 소환시키도록 청하였으나, 만력제는 모두 가납(加納)하지 않았다. 무릇 채관(採辦)에는 반드시 먼저 관부에 물건을 옮긴 연후에 상인들과 무역을 하는데, 매년 5·6백 명이 간다. 그에 속한 지역에 지양채(地羊寨)가 있는데, 맹밀의 동쪽에 있으며 왕래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이곳] 사람들은 환술(幻術)492)을 잘했고, 493) 채관(採辦)하는 사람들은 마시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서 강제로 취했는데 대부분이 복통(腹痛)으로 죽고 자기들이 타는 말도 넘어져 죽자, 이를 해부하니 말의 배속이 모두 나뭇조각과 돌덩이였다. 사진(思眞)이 일찍이 이들을 초멸(剿滅)하여 수천 명을 죽였으나 단절시킬 수가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또 초멸하기로 의논을 정했으나 병력이 적어 증거했다.

- 486) 思正은 思化的의 아들로, 萬曆 11년(1573~1619) 蠻莫安撫司의 安撫使였다.
 487) 본문에는 緬甸이 思正을 죽인 것은 萬曆 20년(159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天啓「滇志」에 의하면, 萬曆 29년(1601)에 緬甸이 다시 공격해 오자 安撫인 思正이 衛衛으로 달아났는데, 緬甸이 이를 붙잡아 죽이고 多罕을 세워 宣撫使로 삼았다고 기재되어 있다(龔蔭, 1988: 227).
 488) 開採: 金銀礦을 연다는 말이다.
 489) 楊榮: 萬曆 시기의 太監으로 雲南의 賦稅를 감독하였는데, 원지의 백성들과 하급관료들이 그에 불만을 품고 반대하자 무력으로 진압하여 수천 명을 죽였다. 이에 民變이 일어나 그 참여자는 1만 명에 이르렀고, 결국 양영은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明史』 卷305 「楊榮傳」 참조.
 490) 麗江: 麗水라고도 칭했다. 洪武 15년(1382)에 麗江路를 바꾸어 麗江府를 설치했고, 이후 麗江軍民府로 고쳤다.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사부에 위치해 있었다.
 491) 宋興祖: 生卒年 未詳. 字는 維傑이며, 四川 漢州 中江縣 사람이다. 萬曆 11년(1583)의 進士로, 崇陽縣令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萬曆 12년(1584)에 喪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萬曆 20년(1592)에 다시 德清知縣을 거쳐 陝西御使로 나갔다. 萬曆 22년(1594)에 巡按遼東을 역임하고, 萬曆 26년(1595)에 福建巡察監察御史를 거쳐 巡按貴州가 되었으며, 萬曆 29년(1601)에 巡按雲南이 되었다. 이처럼 여러 관직을 거친 후 大理寺 少卿에 이르렀다.
 492) 幻術: 남의 눈을 속여 괴상한 것을 나타나 보이게 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493) 地羊寨의 人工幻術에 대해서 道光「雲南志鈔」에 “寨中男婦, 皆黃暗, 瘡面類鬼. 習舊銅器聯社之, 聽南民間以爲飾. 然工幻術, 能易人心腎手足致死. 即馬牛亦然”이라 기재되어 있다(龔蔭, 1988: 227).

孟養 맹양

孟養，蠻名迤水，有香柏城。元至元中，於孟養置雲遠路軍民總管府。洪武十五年改爲雲遠府。其地故屬平緬宣慰司。平緬思倫發爲其下所逐，走京師。帝命西平侯沐春以兵納之，還故地。

맹양(孟養)은 만인(蠻人)들이 이수(迤水)라 부르며, 향백성(香柏城)이 있다. 윈나라 지원(至元) 연간(1264~1294)에 맹양에 운원로(雲遠路)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를 설치했다.494) 홍무 15년(1382)에 운원부(雲遠府)로 고쳤다.495) 이 지역은 원래 평면선위사(平緬宣慰司)에 예속했다. 평면의 사유발(思倫發)이 그의 부하에게 쫓겨나 경사로 도망쳤다. 홍무제가 서평후(西平侯) 목춘(沐春)에게 군대를 이끌고 그를 돌려보내도록 명하니, 옛 지역으로 돌아갔다.496)

成祖即位，改雲遠府爲孟養府，以上官刀木旦爲知府。永樂元年，刀木旦遣人貢方物及金銀器，賜賚遣歸。二年改陞軍民宣慰使司，以刀木旦爲使，賜詔印。四年，孟養與夏里相仇殺，緬甸宣慰那羅塔乘奪劫之，殺刀木旦及子思榮發而據其地。事聞，詔行人張洪等齎敕諭責緬，那羅塔懼，仍歸其境土。會木邦宣慰使罕賓法以那羅塔侵據孟養，請自率兵討，遂破緬甸城寨二十餘，獲其象·馬獻京師。十四年復設孟養宣慰司，命刀木旦次子刀得孟爲使，以木旦侄玉賓爲同知。自木旦被害，司遠廢，孟養之

- 494) 天啓「滇志」에는 至元 26년(1289)에 처음 雲遠路軍民總管府가 설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元史」 「地理志」에는 元貞 2년(1296)에 설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至元 15·6년(1278·9)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龔蔭, 1988: 227~8).
 495) 洪武 15년(1382) 3월에 元代의 官制를 고쳐 雲南布政司 所屬의 52府를 설치했는데, 이때 雲遠路를 雲遠府로 고쳤다.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3월 己未條 참조.
 496) 麗川平緬의 宣慰使 思倫發은 洪武 30년(1397)에 刀幹孟이 난을 일으키자 高黎貢山으로 도망하였는데, 이듬해(1398)에 沐春이 刀幹孟을 멸하였기 때문에 다시 麗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人從玉賓散居千崖·金沙江諸處者三千餘人。朝廷嘗命玉賓署宣慰使以撫之，故仍命爲本司同知，令其率衆復業。十五年，刀得孟遣使貢馬及方物。

성조(成祖)⁴⁹⁷가 즉위해서, 운원부(雲遠府)를 고쳐서 맹양부라 하고⁴⁹⁸ 토관(土官) 도목단(刀木旦)을 지부(知府)로 삼았다.⁴⁹⁹ 영락 원년(1403)에 도목단이 사람을 보내 방물과 금은기(金銀器)를 바치니, 하사품을 내려 돌려보냈다.⁵⁰⁰ [영락] 2년(1404)에 [맹양부]를 바꾸어 군민선위사사(軍民宣慰使司)로 승격시켜 도목단을 선위사로 삼고, 고인(謫印)을 하사했다.⁵⁰¹ [영락] 4년(1406)에 맹양과 알리(斡里)가 서로 원수가 되어 삼육을 하자 면전의 선위[사] 나라탑(那羅塔)이 이 기회를 틈타 위협했으며, 도목단과 그의 아들 사란발(思樂發)을 죽이고서 그 지역을 점거하였다. 사정이 [조정]에 전해지자, 조서를 내려 행인 장홍(張洪) 등에게 칙서를 가지고 가 면전을 효유하고 꾸짖도록 했다. 나라탑이 두려워하여 예전처럼 그 경토(境土)를 되돌려 주었다.⁵⁰² 때마침 목방의 선위사 한빈법(罕賓法)이, 나라탑이 맹양을 침범하여 점거했기 때문에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토벌하겠다고 청하고서 마침내 면전의 20여 성체를 격파하고, 그(면전)의 코끼리·말을 노획하여 경사(京師)에 이르러 바쳤다.⁵⁰³

497) 成祖: 明 王朝 3대 황제인 永樂帝 朱棣의 廟號이다. 그는 太祖의 넷째 아들로, 성년이 되어 洪武 13년(1380)에 燕王에 봉해졌으며, 『靖亂의 變』을 통해 建文帝로부터 帝位를 찬탈하여 황제가 되었다. 이후 그는 北京으로의 遷都, 漠北에 대한 대대적인 親征, 南海 遠征 등 수많은 치적을 쌓았다. 그러나 그는 재위한 지 22년만인 1425년, 北征에서 돌아오는 길에 榆木川(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多倫縣 시북부임)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文皇帝이며, 廟號는 太宗이었으나 嘉禎 元年(1522~1566)에 成祖로 廟號를 바꾸었다. 그의 陵은 長陵이다.

498) 『明史』 卷46 『地理志』7 雲南條에 보면, 洪武 17년(1384)에 雲遠府를 고쳐 孟養府라 하고, 다시 폐지했다가 洪武 35년(1402) 12월에 다시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99)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5 洪武 35년 12월 丙辰條에 보이는데, “設雲南孟養木邦孟定三府威遠鎮沅二州。以土官頭目刀木旦爲孟養知府，罕的法爲木邦知府，刀彈立爲孟定知府，刀算黨爲威遠知州千夫長，刀平爲鎮沅知州”라 기재되어 있다.

500) 永樂 원년(1403) 7월의 일로, 刀木旦은 그의 조카 刀滿寶을 명에 사신으로 보내 방물을 바쳤다.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21 永樂 원년 추7월 壬午條 참조.

501)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32 永樂 2년 8월6일 癸酉條 참조.

502)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57 永樂 4년 윤7월 己巳條 참조.

503)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42 永樂 11년 8월 乙亥條에 보이는데, 木邦軍民宣慰司의 宣慰使 罕賓法이 刀不答 등을 명에 보내 노획한 물품을 바쳤다.

[영락] 14년(1416)에 다시 맹양선위사(孟養宣慰司)를 설립하고서 도목단의 둘째 아들 도득맹(刀得孟)을 선위사로 삼고, 도목단의 조카 도옥빈(刀玉賓)을 동지(同知)로 삼았다. 도목단이 해(害)를 당하면서부터 선위사는 마침내 폐해졌고, 맹양의 백성으로 도옥빈을 따라 간에(千崖·금사강(金沙江) 등 여러 곳에 흩어져 거주한 자가 3천여 명이나 되었다. 조정은 일찍이 도옥빈을 대리 선위사에 임명하여 그들을 안무했었는데, 이런 연고로 예전처럼 [그]를 임명하여 본사(本司)의 동지(同知)로 삼아 그에게 무리들을 이끌고 일상의 업(業)을 회복하도록 했다.⁵⁰⁴ [영락] 15년(1417)에 도득맹이 사신을 보내 말과 방물을 바쳤다.⁵⁰⁵

宣德五年，刀玉賓奏：「伯父刀木旦被殺，蒙朝廷遣官訪玉賓，授同知，又阻於緬難，寄居金齒者二十餘年。今孟養地又爲麓川宣慰使任發所據，乞遣兵送歸本土。」帝命黔國公沐晟遣還之，然其地仍爲任發所有。時爲孟養宣慰者名刀孟賓，亦寄居雲南。及任發敗奔緬甸，子機發潛匿孟養，求擒。

선덕 5년(1430)에 도옥빈이 상주하기를, “백부(伯父) 도목단(刀木旦)이 피살되고서, 조정이 관원을 보내 신 옥빈(玉賓)을 찾아 동지(同知)의 직을 제수해 주고, 또 면전의 면란을 막아주어 금치(金齒)에 20여 년 기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맹양의 지역은 또 녹천의 선위사[사] 사임발(思任發)이 점거하고 있으니, 군대를 보내 본토를 되돌려 주기를 청하나이다”라고 했다. 선덕제가 감국공(黔國公) 목성(沐晟)에게 명하여 이 지역을 되돌려 주도록 했지만 그 지역은 여전히 사임발이 소유하고 있었다.⁵⁰⁶ 당시 맹양의 선위[사]가 된 자는 도맹빈(刀孟賓)이라 불렀는데, 역시 운남에 기거하였다. 사임발이 패하여 면전으로 달아났을 때, 그 아들 사기발(思機發)이 맹양으로 숨어들자,⁵⁰⁷ 초무해 주기를 청하였다.

504) 永樂 14년(1416) 4월의 일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75 永樂 14년 하4월 丁丑條에 있음.

505) 永樂 15년(1417) 8월의 일로,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92 永樂 15년 8월 丁卯條에 보이는데, 당시 木邦 宣慰使 罕賓法도 명에 사신을 보내 말과 방물을 바쳤다.

506) 孟養軍民宣慰司 同知 刀玉賓의 上奏 내용과 이에 대한 宣德帝의 下命 내용은 『宣宗實錄』 卷69 宣德 5년 8월 丙申條 참조.

507) 正統 2년(1437)에 主驤가 思任發을 征討하자 思任發은 緬甸으로 도망쳤고, 그의 아들 思機發, 思卜發, 思祿發은 孟養으로 숨어들었다(興隆, 1988: 228).

正統十三年，敕孟養頭目伴送思機發來朝，許以陞賞，機發疑畏竟不至。帝以孟養宣慰頭目刀變蠻等匿機發，敕數其罪，曰：「孟養乃朝廷開設，爾刀變蠻等敢違朝命，一可伐。思機發係賊子，故縱不捕，二可伐。爾孟養被思任發奪地，遂爾宣慰，見在雲南優養，爾等與仇爲黨，三可伐。雲南總兵官世世管屬爾地，奉命捕取賊子，爾等不從調度，四可伐。爾等不過以山川險阻，官軍未易達到，又以為氣候瘴癘，官軍不可久居。勢強則拒敵，力弱則奔遁，殊不知昔馬援遠播銅柱，險阻無傷，諸葛亮五月渡瀘，炎蒸無害，皆能破滅蠻衆，開拓境土。況今大軍有必勝之機，麓川之師可爲前鑑。爾等速宜悔過自圖，令思機發親自前來，仍與一官一地，令享生全。如不肯出，爾等即擒爲上策；逆思機發所在，報與官軍捕取爲中策；若代彼支吾，令其逃匿，則并爾等剿滅，悔無及矣。」時已三征麓川，內旨必欲生擒機發，已密諭總督王驥，又敕諭以雲南安置孟養舊宣慰刀孟賓爲嚮導。及兵出征，機發卒遁去，不可得。於是乃以孟養地給緬甸宣慰馬哈省管治。命捕思機發。時正統十四年也。

정통 13년(1448)에 맹양 부락의 수령에게 칙서를 내려 사기발을 동반해 보내어 내조하면 관직을 올려주는 상을 내려 주겠다고 했으나, 사기발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결국 이르지 않았다.⁵⁰⁸⁾ 정통제는 맹양선위[사(孟養宣慰司)]의 두목 도변만(刀變蠻) 등이 사기발을 숨겨 주었으므로 칙서를 내려 그들의 죄를 열거하고서 이르기를, “맹양은 곧 조정이 설립했는데도 그대 도변만이 감히 조정의 명을 어겼으니, 이것이 토벌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이다. 사기발은 적구(賊寇)인데 고의로 풀어주고 잡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토벌해야 할 두 번째 이유이다. 너희 맹양은 사임발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너희 선위[사가]가 쫓겨났는데도 지금 운남에서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원수와 결당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토벌해야 할 세 번째 이유이다. 운남 총병관이 대대로 너희 지역을 관속하고 명령을 받들어 적구를 붙잡으려 하는데도 너희들이 지휘를 따르지 않으니, 이것이 토벌해야 할 네 번째 이유이다. 너희들은 기적해야 산천이 협준하여 관군이 빨리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기후가 덥고 습하여 창질(瘴疾)이 많아 관군이 오래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은] 세력이 강하면 적과 맞서 싸우고, 세력이 약하면 도망쳐 달아났다. 옛날에 마원(馬援)⁵⁰⁹⁾이 먼 곳에 동주(銅柱)⁵¹⁰⁾를

508)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63 正統 13년 2월 乙丑條 참조.

세우는데 협준한데도 손상을 입지 않았고, 제갈량(諸葛亮)⁵¹¹⁾이 5월에 노수(瀘水)⁵¹²⁾를 건너는데 켜는 더위에도 상해를 입지 않고서 [이들] 모두가 만인의 무리를 공파하여 멀고도 경토를 개척한 것을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하물며 지금 대군은 필승의 시세에 있으니, 녹천(麓川)의 전역(戰役)은 가히 [우리] 앞의 감계(鑑戒)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웅당 조속히 과오를 뒤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져 사기발로 하여금 친히 스스로 오게 하면, 예전처럼 하나의 관직과 한쪽 편 지역의 줄 것이고,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겠노라. 만일 [그가]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곧 [그를] 붙잡는 것이 상책(上策)이 될 것이고, 사기발이 있는 곳을 추적(追跡)해 알러서 관군과 함께 붙잡는다면 중책(中策)이 될 것이며, 만약 그를 대신해 맞서 버티어 그로 하여금 달아나 슬도록 하게 한다면 너희들도 아울러 초멸할 것이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⁵¹³⁾ 당시 이미 세 차례 녹천을 정벌했는데, 정통제의 뜻은 반드시 사기발을 사로잡으려는 것이었고, 이미 총독 왕기(王驥)에게 비밀리에 유지를 내렸으며, 또

509) 馬援(전14~49): 字는 文淵으로, 扶風 茂陵(현재 섬서성 興平縣 북동 지역) 사람이다. 그의 선조인 趙奢는 조나라의 장군으로 馬服君이라 호칭하였으므로, 자손들이 馬로 姓을 바꾸었다. 曾祖父 馬通은 漢 武帝 때 氐蠡의 亂을 평定하는데 功績을 세워 重舍侯가 되었다. 그의 兄 馬何羅의 罪에 연루되어 주살 당하였다. 이 때문에 조부의 부친은 높은 직책에 나아갈 수 없었다. 前漢이 멸망하고 王莽의 치세 말에 왕망의 從弟가 마원을 천거하여 新城 大尹이 되었다. 新 왕조가 망하여 형과 함께 涪州로 피신하였으나, 後에 隴西(甘肅省)에 할거하던 隴閫가 마원을 統德將軍에 임명하였다. 후한 建武 9年(33)에 隴閫가 병사하자, 그는 잔당을 토벌하는데 공적을 세워 隴西太守가 되었다. 建武 16年(40)에 交趾에서 徵側과 그의 여동생 徵氏가 반란을 일으키자, 마원은 伏波將軍에 임명되어 그들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여 新嘉坡에 봉해졌다. 建武 24年(48)에 武陵 五溪에서 蠻夷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62세였지만 광무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정하여 전쟁 중에 병으로 죽었다.

510) 銅柱: 광동성 欽州에 서쪽 300리 되는 곳에 分界嶺이 있다. 교차와의 경계가 되는 지점인데, 마원이 이 산 정상에 銅柱를 세웠다. 『廣東通志』 卷13 『山川志』 廉州府 4 欽州 참조.

511) 諸葛亮(181~234): 중국 삼국시대 蜀漢의 濶臣이다. 字는 孔明이며, 別號는 臥龍·伏龍이다. 後漢 末 魏延의 시대에 荊州의 초야에서 지내던 중 그의 나이 29세 때 劉備의 三顧茅廬로 세상에 나온 제갈량은 제략과 응제로써 유비를 도와 촉권을 건국하는 帝業을 이루었다. 적벽에서 孫權과의 연합을 이끌어내 최강의 세력인 曹操의 남하를 저지하였고 형양을 차지한 후, 익천을 도모해 유비를 제위에 오르게 하였고 제갈량은 승상의 직에 오르다. 유비의 사후 出師表를 後主 劉禪에게 올린 후 중원을 도모하였으나 次子 司馬懿와의 대결 도중 五丈原에서 나이 54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출사표는 후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울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라고 평할 정도로 명문으로 꼽히고 있다.

512) 瀘水: 雲南省 怒江(傣族自治州 南部)에 위치해 있음.

513) 이 칙서의 내용은 『英宗實錄』 卷164 正統 13년 3월 戊子條에 있음.

척서를 내려 운남을 효유하여 맹양의 옛 선위[사] 도맹빈(刀孟賓)을 안치해서 향도(嚮導)로 삼도록 했다.⁵¹⁴⁾ 군대가 출동하여 철저히 정토하러 할 즈음에, 사기발은 결국 달아나 숨어 버려 잡을 수 없었다. 이에 곧 맹양의 땅을 면전의 선위[사] 마합성(馬哈省)에 주어 관할하여 다스리도록 하고, 사기발을 체포하도록 명하였다.⁵¹⁵⁾ 때는 정통 14년(1449)이었다.

景泰二年，任發之子思卜發遣使來貢，求管孟養舊地。廷臣議，孟養地已與緬甸，豈可移易。時朝命雖不許，然卜發已潛據之，即緬甸不能奪也。卜發死，子思洪發嗣，自天順·成化，每朝貢輒署孟養地名，儼然自有其地矣。

경태 2년(1451)에 사임발의 아들 사복발(思卜發)이 사신을 보내 내조하여 공물을 바치고서 맹양의 옛 지역을 관할하겠다고 청하였다.⁵¹⁶⁾ 조정 대신들이 논의하기를, 맹양의 땅은 이미 면전에 주었는데 어찌 옮겨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⁵¹⁷⁾ 당시 조정은 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령했지만 사복발이 이미 몰래 이를 점거해버려 면전은 탈취할 수 없었다. 사복발이 죽자 아들 사홍발(思洪發)이 계승했는데, 친순·성화 연간부터 매번 입조하여 진공할 때마다 번번이 맹양 땅을 대신 다스린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그 지역을 소유한 것으로 했다.⁵¹⁸⁾

514)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64 正統 13년 3월 壬寅條 참조.

515) 正統 14년(1449) 2월의 일로,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75 正統 14년 2월 乙巳條 참조. 이에 관한 내용은 『雲南歷年傳』 卷7 正統 14년條에도 있는데, “緬甸이 思任發과 그의 아들 思機發을 습격하여 붙잡지 못했으니, 마침내 思任發이 孟養 지역을 緬甸에게 넘겨주었다. 緬甸은 그의 長子 銀起莽을 이곳에 거주하여 지키도록 했는데, 곧 思任發의 사신과 思機發을 京師로 보냈다. 오래지 않아 思任發의 어린 아들이 다시 무리들에 의해 용립되어 孟養을 공격하였는데, 緬甸은 이를 制御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고 마침내 孟養 지역을 모두 思氏에게 돌려주었으며, 銀起莽을 緬甸으로 돌아오게 하여 보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龔蔭, 1988: 229).

516) 이와 관련하여 『南園漫錄』에는 思氏가 緬甸을 驅逐하고 孟養을 점거한 후, “緬不能撫其人民, 思立思氏, 永當朝廷差發”이라고 상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대정발이 있는 직후였기 때문에 병사들이 피로해 있음으로 王驥가 그들을 允許했거나 孟養에 거주하여 해마다 差發을 하도록 했다(龔蔭, 1988: 229~30).

517)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24 景泰 3년 12월 丙午條에 있거나 본문에는 景泰 2년의 일로 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景泰 3년 12월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

518) 이에 관련된 내용이 道光『雲南志鈔』 「土司志」에 있는데, “卜發逃, 思祿仍据孟養, 夷衆推擁思祿爲主, 改

成化中, 孟養金沙江思陸發遣人貢象馬, 宴賜皆如例. 思陸發者, 思任發之遺孽也. 大監錢能鎮雲南, 思陸發數以珍寶進能, 因得入貢, 稱孟養金沙江思陸發, 常規立功以冀職職. 適孟密安撫土舍思揆僭據木邦地, 爭殺累年, 守臣議征之, 思陸發乃請自效. 時蠻衆相傳孟密畏思陸兵, 多攻毛科請於總兵鎮巡官, 許之. 思陸兵未至, 思揆解去. 巡撫張誥議調思陸兵, 令戮力捕思揆, 乃遣使促之發兵. 思陸遠陶孟倫索傾蠻兵象馬過江, 倫索既過江, 指屬謂使者曰: 「我曹徇此屬, 奪得土地, 即管食之耳.」 科聞之憂甚. 時思揆令陶孟思英以兵守蠻裝. 孟養兵至, 思英堅守不出, 已而請和. 孟養兵聞官軍聽思英約降, 頗有怨言. 官軍糧絕, 遽引退. 倫索亦恐思英絕其歸路, 取道千崖而還. 科念倫索前語, 急戒令孟養還兵守疆界, 孟養不聽. 初, 靖遠伯王驥與之約誓, 非總兵官符檄不得渡江, 自是違約犯, 數興兵過江與孟密戰.

성화 연간(1465~1487)에 맹양 금사강(金沙江)의 사육발(思陸發)이 사람을 보내 코끼리와 말을 바치니, 모두 이전의 예에 따라 연회를 베풀고 하사품을 내렸다.⁵¹⁹⁾ 사육발이란 자는 사임발(思任發)의 남거진 첩의 자식이다. 태감(太監) 진능(錢能)이 운남에 진수(鎮守)하자 사육발이 수차례 진귀한 보물을 전능에게 보냈는데,⁵²⁰⁾ 이로 인해 입조하여 공물을 바칠 수 있었고 맹양 금사강의 사육발이라 칭했으며,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공을 세웠으므로 할아버지의 직을 세습했다. 마침 맹민안부사(孟密安撫司)의 토사(土舍) 사설(思揆)이 목방의 땅을 침략하여 점거해 여러 해 동안 싸우고 살육했는데, 수신이 이를 정벌하기를 건의하자 사육발이 곧 스스로 출정함으로써 속죄하겠다고 청하였다. 당시 만인 무리들 사이에 맹민은 사육[발]의 군대를 두려워한다고 전해져 있었고, 참정(参政)⁵²¹⁾ 모코(毛科)⁵²²⁾가 총병(總兵)

名思洪. … 時雖授思氏金牌, 終無印信也. 凡通文書, 但稱金沙江奴婿而已”라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南園漫錄』에 보면, 당시의 실제 정황은 “彼雖無官, 其地自尊之如王者”라 기재하고 있다(龔蔭, 1988: 230).

519) 成化 18년(1482) 4월에 孟養 金沙江 思六發이 陶孟 刀揮等 등을 명에 보내 코끼리와 말 및 金銀器를 바쳤으며(『憲宗實錄』 卷226 成化 18년 4월 甲辰條), 成化 23년(1487) 3월에도 陶孟 刀肯班 등을 명에 보내 코끼리와 말 및 金銀器를 바쳤다(『憲宗實錄』 卷288 成化 23년 3월 辛亥條). 그런데 본문에는 思陸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思六發로 기재되어 있다.

520) 이에 관련된 내용이 道光『雲南志鈔』 「土司志」에 있는데, “成化中, 思祿以祖母珠帶及諸珍物賂鎮守大監錢能, 能召見飲食, 思祿稍稍放縱”이라 기재되어 있다(龔蔭, 1988: 230). 이 내용과 본문 내용을 견주어 볼 때, 思陸과 思祿은 같은 인물로 보인다.

진순관(鎭巡官)에게 [그의 출정을] 청하니, 이를 허락했다. 사육[말]의 군대가 미처 이르지 않아서 사실은 [군대를] 풀고 떠나버렸다.⁵²¹⁾ 순무 장교(張誨)가 사육[말]의 군대를 징발하여 사실을 붙잡는데 힘쓰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니, 이에 사신을 보내 군대를 보내도록 재촉하였다. 사육[말]이 대도맹(大陶孟) 윤색(倫索)을 보내 만인(蠻人)의 군대, 코끼리, 말을 이끌고 강을 건너도록 했는데, 윤색이 강을 건너고 나서 매를 가리키며 사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저 매와 같이 토지를 빼앗으며, 먹는 것만 생각할 뿐이다”라고 했다. 모과(毛科)가 이를 듣고 매우 우려하였다. 당시 사설(思揆)은 도맹(陶孟) 사영(思英)에게 군대를 이끌고 만막(蠻翼)을 지키도록 하였다. 맹양의 군대가 이르자 사영은 견고히 지키며 나가 싸우지 않았는데, 오래지 않아 화평을 청했다. 맹양의 군대는 관군이 사영의 투항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듣고서 매우 원망하는 말을 했다. 관군은 양식이 떨어지자, 재빨리 군대를 이끌고 퇴각했다. 윤색 역시 사영이 그의 귀로를 끊을까 염려하여 간예(干崖)를 경유하여 돌아갔다. 모과는 윤색이 이전에 한 말을 상기하고서 급히 경계하여 맹양으로 하여금 군대를 돌려 강계(疆界)를 지키도록 했으나 맹양이 듣지 않았다. 당초에 정원백(靖遠伯) 왕기(王驥)가 그들과 맹세하고 약속을 했으나 총병관의 부격(符檄)⁵²⁴⁾이 아니어서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이로부터 마침내 약속은 어긋나게 되고, 여러 차례 군사를 일으켜 강을 건너 맹밀과 전투를 벌였다.⁵²⁵⁾

弘治十二年，雲南巡按謝朝宣奏：孟養思陸本麓川叛種，窟居金沙江外，成化中，嘗據緬甸之聽盞。弘治七年徵調其兵渡江，遂復據騰衝之蠻翼。又糾木邦兵，攻燒孟密

安撫司，殺掠蠻民二千餘人，劫象馬金寶，有并吞孟密窺覷故土之志，逸西人恭們·騰衝人段和爲之謀主，屢撫不聽。雲南會城去孟養遠，聲勢難接。嚴於金騰添設鎭守太監，爲撫蠻安民之計。而近時太監吉慶貪暴無狀，雖當陽却思陸之贊，然蠻知其貪，又烏知不因其却而更進之。臣聞蠻翼等處，乃水陸會通之地，蠻方器用咸自此出，江西·雲南大理通逃之民多赴之。雲南差官每多齎違禁物往彼餽送，漏我虛實，爲彼腹心。蠻翼關一巡檢耳，安能禁制。臣計孟養甲兵不能當中原一大縣，以雲南之勢臨之，易於壓卵。奈何一調即來，屢撫不退，皆鎭守失之於初，通逃奸人謀之於中，撫蠻中官壞之於後。伏望垂念邊民困苦，將雲南鎭守太監止存一員，別用指揮一員守備蠻夷關，驅思陸退歸江外，而移騰衝司於蠻翼，并木邦·孟密不得窺伺，乃爲萬全之策。設思陸冥頑不聽撫諭，便當決策用兵，使無嘯類，以爲土官不法之戒。

홍치 12년(1499)에 윤남 순안(巡按) 사초신(謝朝宣)⁵²⁶⁾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맹양(孟養)의 사육[말](思陸[蠻])은 본래 녹천(麓川) 반적(叛賊)의 후예이며, 금사강(金沙江) 밖으로 도망가 거주하였습니다. 성화 연간(1465~1487)에 일찍이 면전의 청간(聽盞)을 점거하였습니다. 홍치 7년에 그의 군대를 징집하여 강을 건너 마침내 또 등충(騰衝)의 만막(蠻翼)을 점거하였습니다.⁵²⁷⁾ 또 목방(木邦)의 군대를 규합하여 맹밀안무사(孟密安撫司)를 공격하여 불사르고 만인 백성 2천여 명을 죽이고 약탈하고는 코끼리·말·금은재보를 탈취하였으며, 맹밀을 병탄하고서 옛 토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迤西) 사람인 공문(恭們)과 등충(騰衝) 사람인 단화(段和)가 그를 위해 계책을 세우는 주요 인물인데, 여러 차례 초무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남의 성성(省城)은 맹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성위(聲威)와 기세(氣

521) 參政: 左右參政을 말한다. 明代 布政使의 屬官으로 正四品의 관직이다. 布政使는 한 省의 政務를 관장하는데, 參政은 各道를 나누어 지키면서 아울러 糧儲·屯田·軍務·驛傳·水利 등의 일을 맡았다.
522) 毛科: 餘姚 豐山 毛氏의 일족으로 毛吉의 아들이다. 成化 13년(1477)에, 應天府 鄉試에서 舉人이 되었고, 다음해인 成化 14년(1478)에 進士가 되어, 南京工部主事에 제수되었다. 이후 山東按察使司 副使를 거쳐 雲南布政使司 左參議가 되었다.
523) 이와 관련된 내용이 道光“雲南志鈔”「土司志」에 있는데, 당시 思揆은 思聰에게 너를 주어 군대를 맡추게 하려했지만 思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思揆은 思聰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마침내 군대를 풀고 떠나버렸다(熊蔭, 1988: 230).
524) 符檄: 官符와 移檄 등 文書의 統稱이다.
525) 道光“雲南志鈔”「土司志」에 보면, 이보다 앞서 弘治帝가 즉위하면서 信符를 여러 土酋에게 주었는데, 당시 孟養의 宜慰司는 폐지된 지 오래되어 兵部에서 이를 살필 수 없었다. 따라서 옛 장부에 의거하여 信符를 반포해 주었는데 思聰이 이를 받았으며, 마침내 內 牌符를 가지고서 그는 여러 소수민족을 불러 모아 “天朝가 나를 復官시켜 주었도다”라고 하면서 주변의 부락을 취하여 땅을 넓혔다고 한다(熊蔭, 1988: 231~2).

526) 謝朝宣: 生卒年 未詳. 字는 汝爲이고, 西安衛 사람으로. 弘治 6년(1493)에 進士에 급제하여 이후 巡按雲南都御史로 漑 지역으로 나아갔는데, 이곳에 있으면서 弘治 12년(1499)에 大理蒼麓書院을 창건했다. 이후 正德 원년(1506)에는 浙江按察司 副使로 승임하였으며, 正德 3년(1508)에 湖北省 歸水縣 知縣이 되어 「龍泉泉辨」을 저술하기도 했다.

527) 道光“雲南志鈔”「土司志」에 보면, 이보다 앞서 弘治帝가 즉위하면서 信符를 여러 土酋에게 주었는데, 당시 孟養의 宜慰司는 폐지된 지 오래되어 兵部에서 이를 살필 수 없었다. 따라서 옛 장부에 의거하여 信符를 반포해 주었는데 思聰이 이를 받았으며, 마침내 內 牌符를 가지고서 그는 여러 소수민족을 불러 모아 “天朝가 나를 復官시켜 주었도다”라고 하면서 주변의 부락을 취하여 땅을 넓혔다고 한다(熊蔭, 1988: 231~2).

勢)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금등(金騰)에 진수태감(鎮守臺監)을 증설한 것은 만인을 안무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태감 길경(吉慶)의 탐하고 흥포함이 밀로 형용할 수 없는데, 비록 일찍이 사육[밭]이 보낸 예물을 걸으려는 물리쳤다고 하지만 만민들은 그(길경)가 탐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 물리쳤다고 해서 이를 다시 더 많이 바쳐야 한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신(臣)이 듣자올컨대, 만막(蠻莫) 등지는 수로와 육로가 합하여 통하는 지역으로, 만민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모두 이곳으로부터 나가고, 강서(江西)·운남(雲南)의 대리(大理)에서 조세를 체납하고 도망친 백성들이 대부분 이곳에 이릅니다. 운남에서 파견한 관원은 늘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이곳으로 가 선물로 보내고 우리의 허실을 누설하여 그들의 심복이 됩니다. 진이관(鎮夷關)⁵²⁸⁾은 일개 순검(巡檢)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능히 [이들] 금지하고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헤아리기로, 맹양의 군대는 중원의 하나의 큰 현(縣)[의 세력]을 당할 수 없으므로, 운남의 세력으로 이에 임하면 계란을 누르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어찌하여 [군대를] 징발하면 오지만 여러 번 초무해도 돌아가지 않게 된 것은, 모두가 처음에 진순관(鎮巡官)이 기회를 놓쳐서이고, 중간에 [체납하고] 도망친 간사한 사람이 계략을 꾸몄기 때문이며, 후에 만인(蠻人)을 안무(安撫)하는 중관(中官)이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변방 백성들의 괴로움을 풀어주시기를 잊으려 바라오며, 장차 운남의 진수태감을 단지 1명만 남기고 따로 지휘 1명을 임용하여 진이관(鎮夷關)을 수비토록 하며, 사육[밭]을 몰아내 금사강 밖으로 몰려나 돌아가게 하고, 등충사(騰衝司)⁵²⁹⁾를 만막(蠻莫)으로 이동시키고 아울러 목방(木邦)·맹밀(孟密)로 하여금 엿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곧 만전(萬全)을 기하는 책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육[밭]이 우매하고 완고하여 조정의 초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곧 마땅히 계획을 결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전부 쓸어버림으로써 토관(土官)이 범을 어기는 것에 대한 감계(鑑戒)도 삼아야 할 것입니다.

先是，吉慶已爲思陵請朝貢，至是因朝宣疏，并下鎮巡官議剿撫之宜，數年不決。

528) 鎮夷關: 騰越州에서 동쪽으로 50리 거리에 있으며, 지금의 雲南省 保山市 梁河縣 囊宋關임. 본문에서는 鎮夷關을 지키는 관원, 즉 巡檢을 일컫음.

529) 騰衝司: 지금의 雲南省 騰衝縣 지역에 명나라 때 설치된 騰衝軍民指揮使司의 약칭이다. 永樂 원년(1403)에 이곳에 騰衝守禦千戶를 설치했는데, 이를 正統 10년(1445) 3월에 騰衝軍民指揮使司로 승격시켜 雲南都司에 예속시켰다. 이후 嘉靖 10년(1531)에 騰衝軍民指揮使司를 騰衝衛로 고쳤다.

이보다 앞서 길경(吉慶)이 이미 사육[밭]을 위해 조공을 청했고, 이때에 사조신(謝朝宣)이 소(蘇)를 올림과 아울러 [이 소를] 진순관(鎮巡官)에게 내려 초무(剿撫)의 마땅한 방책을 의논케 했으나, 수년 동안 결정되지 못했다.⁵³⁰⁾

十六年，巡撫陳金乃遣金騰參將盧和撫諭思陵。和至騰衝，思陵遣陶孟投書，致方物。和諭以禍福，令擊兵過江，歸所占蠻莫等地，且調隴川·千崖·南甸三宣撫司蠻兵及戰象，隨官軍分道至金沙江。思陵乃遣大陶孟倫索·怕卑等率所部來見，和等再申諭之。思陵聽命，退還前所據蠻莫等地十三處，撤回象馬蠻兵，渡金沙江而歸。又遣陶孟·招剛等貢象六·銀六百兩并金銀器納款。鎮巡官以聞，并奏言：「蠻莫等地原隸木邦，成化間始爲孟密所有，近又爲思陵所據，連年構禍，今始平定。旣不可復與木邦·孟密，又不可割隴川·千崖·南甸三宣撫，宜暫於騰衝撒撤官軍四百番守之。思陵前有助平思謀功，今悔禍納款，請賜以名目·冠帶，仍降杖糶諭。」部議以蠻莫等處本木邦分地，在大義宣歸之木邦。其名目·冠帶，貢使已言思陵不願受，不宜輕昇，請賜杖厚勞還歸之。報可。時思陵親得宣慰司印，部執不予，於是仍數出兵與木邦·孟密仇殺無寧歲。

【홍치】16년(1503)에 순무 진급(陳金)⁵³¹⁾이 곧 금등(金騰)의 참장(參將) 노화(盧和)를 보내

530) 孟養에 대한 征討가 수년 동안 결정되지 않은 것은 剿撫에 대한 마땅한 방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滇雲歷年傳』 卷7에 보면, 弘治 11년(1498)부터 弘治 16년(1503)에 걸쳐 兵變과 아울러 雲南 여러 지역에 地震, 大風雨 등 자연재해가 연년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熊蔭, 1988: 232 참조).

531) 陳金(1446~1529): 字는 汝鵬이고, 號는 西軒이며, 湖廣 武昌縣(지금의 湖北省 武昌) 사람이다. 成化 8년(1472)의 進士로 婺源縣에 제수되었고 이어 南京御史로 승임하였다. 弘治 初에 浙江 지역을 巡按하고 돌아와 災異와 관련하여 文武臣僚 19명을 탄핵하였고, 곧 山西副使를 이어 雲南左布政使를 역임하면서 竹子勞 叛苗을 토벌하였다. 弘治 13년(1500)에 右副都御史로 雲南의 巡撫가 되어 孟養의 酋長 思祿과 孟密的 酋長 思謀를 征討하였다. 이후 南京戶部右侍郎이 되었고, 正德 연간(1506~1521)에 들어와 右都御史가 되어 兩廣軍務를 總督했으며, 苗民의 起義를 평정한 功으로 正德 3년(1508)에 南京戶部尙書가 되었다. 이듬해 左都御史에 임명되어 江西·福建 등지의 農民起義를 토벌하여 太子少保가 더해졌다. 正德 10년(1515)에 다시 兩廣軍務를 총독했으며, 正德 14년(1519)에 都察院의 일을 관장했다. 그러나 正德 16년(1521)에 노령을 이유로 歸鄉을 청하였고, 嘉靖 8년(1529)에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사육[발]을 안무하고 효유했다. 노화가 등충(騰衝)에 이르자, 사육[발]이 도맹(陶孟)을 보내 서신을 보내고 방물을 바쳤다. 노화는 이해득실로 효유하여 [그에게] 군대를 이끌고 금사강을 건너갈 것이며 정평한 만막(蠻莫) 등의 땅을 되돌려주라고 했고, 또한 농천(隴川)·간에(干崖)·남천(南甸) 세 선위사(宣撫司)의 만인(蠻人) 병사와 전투용 코끼리를 징발해서 길을 나누어 관군을 따르게 하여 금사강에 이르렀다. 사육[발]이 이에 대도맹(大陶孟) 윤색(倫索)·파탁(柏卓) 등에게 부하를 이끌고 가서 알현(謁見)하도록 했는데, 노화 등이 재차 되풀이하여 효유했다. 사육[발]이 명령에 따라, 이전에 점거한 만막 등 13곳을 되돌려 주고 코끼리, 말, 만인(蠻人)의 군대를 되돌려 금사강을 건너 돌아갔다. 또 도맹(陶孟)·초강(招剛) 등을 보내 코끼리 6두(頭)·은(銀) 600냥과 아울러 금은기를 바치고 귀순하겠다고 했다. 진순관(巡巡官)이 [조정]에 이를 보고함과 아울러 상주하여 아뢰기를, “만막 등지는 원래 목방에 예측되었는데 성화 연간(1465~1487)에 처음으로 맹밀의 소유가 되었고, 근자에는 또 사육[발]에게 점거되어 여러 해 계속해서 화란이 일어났다가 지금에서야 비로소 평정되었습니다. 이미 다시 목방·맹밀에게 줄 수 없고, 또 농천·간에·남천 세 선위[사]에게 나누어 줄 수 없으니, 마땅히 잠시 동안 등중에서 매년 격문을 보내 관군 400명을 불러 모아 윤번으로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육[발]이 전에 사설(私揆)을 평정하는데 도운 공이 있고 지금은 [과거에 저지른] 화란을 후회하고 귀순했으며, 명목(名目)·관대를 하사해 주기를 청하고 있으니, 예전처럼 칙서를 내려 표창하고 깨닫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부사에서 논의하기를, 만막(蠻莫) 등지는 본래 목방을 분할한 땅임으로 대의(大義)상으로는 마땅히 목방에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⁵³² [또] 그 명목(名目)·관대는, 진공 사신이 이미 사육[발]이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마땅히 가법계 수여할 수 없는 것이니, 칙서를 내려 후하게 위로하여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청하였다. [홍치제가]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 당시 사육[발]은 선위사(宣慰司)의 관인을 얻으려고 했고 부서에서는 쥐고서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⁵³³ 이에 거듭 수차례 출병해서 목방·맹밀과 원수가 되어 살육을 하여 편안한 세월이 없었다.

미다. 『明史』 卷187 「陳金傅」 참조.

532) 『滇雲歷年傳』 卷7 弘治 16年條에 보면, “三月, 詔以思祿地仍界木邦”이라 기재되어 있다.

533) 이와 관련된 내용이 道光『雲南志鈔』 「土司志」에 보이는데, 당시 思祿, 즉 思陸이 宣慰司의 官印을 얻으려고 했으나 部書에서는 이를 쥐고서 주지 않으려고 하자 마침내 自立하여 宣慰使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嘉靖七年, 總兵官沐紹勳·巡撫歐陽重遣參政王汝舟等徧歷諸蠻, 諭以禍福. 孟養思倫等各願貢象牙·土錦·金銀器, 退地贖罪. 乃以蠻莫等十三處地方寬廣, 諸蠻歷年所爭, 屬之騰衝司, 撤軍輪守, 則烟瘴可虞; 屬之木邦, 則地勢遼遠, 蠻心不順. 莫若仍屬孟密管領, 歲徵差發銀一千兩, 而剏孟乃等七處仍歸木邦管烈, 則分額均而忿爭息矣. 報可.

가정 7년(1528)에 총병관 목소훈(沐紹勳)⁵³⁴·순무 구양중(歐陽重)⁵³⁵이 참정(參政) 왕여주(王汝舟) 등을 보내 여러 만족(蠻族)을 편역(編譯)하게 하고, 이해득실로써 [그들을] 효유했다. 맹양의 사윤(思倫) 등이 각기 상아·토금(土錦)·금은기를 바치고, [탈취한] 땅을 되돌려 바쳐 속죄하기를 원했다. 이에 [총병관과 순무는] 만막 등 13곳의 지방이 아주 넓어지고 여러 만족이 여러 해 동안 다투었기 때문에, 등충사(騰衝司)에 이를 예측시켜 군대를 소집해 윤번으로 지키려 하자니 열대지방의 풍토병이 가히 염려스럽고, 목방에 이를 예측시켜려 하자니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 만인(蠻人)이 마음속으로 순복(順服)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만일 예전처럼 맹밀에 예측시켜 관할하지 못하게 하고, 해마다 차발은 1천 냥을 징수하면서 맹내 등 7곳으로 분할하여 예전처럼 목방의 한열(罕烈)에게 되돌려 준다면, 나누어서 균등함을 원했으므로 분쟁은 멈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가정제가] 비답을 내려 가답했다.⁵³⁶

534) 沐紹勳(?~1536): 沐昆의 아들로 安徽省 定遠 사람이다. 부친이 죽자 黔國公의 작위를 이어 받아 正德 16년(1521)부터 嘉靖 15년(1536)까지 黔府를 지키면서 鳳朝文의 적당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死後 太師에 追贈되었고 諡號는 敏節이다.

535) 歐陽重(1483~?): 字는 子重이고, 江西省 吉安府 廬陵縣(지금의 江西省 吉安市) 사람이다. 正德 3년(1508)에 進士에 급제하여 刑部主事에 제수되었다. 당시 劉瑾의 모이 세상을 떠났는데 百官이 모두 조문을 갖지만 오로지 그만이 가지 않았다. 또한 張銳과 錢寧이 東廠과 錦衣衛를 관장하여 연이어 官員과 樞紳士人들을逮捕하여 投獄시켰는데 이에 극력 반대하다가 그 역시도 투옥되었다. 이후 복직되어 刑部郎中을 거쳐 四川과 雲南의 提學副使를 역임했다. 嘉靖 6년(1527)에 右僉都御史로 應天 巡撫가 되었는데, 마침 雲南에서 土酋 安鈞과 鳳朝文이 謀反함으로 朝廷에서 그를 雲南 巡撫로 바꾸어 보냈다. 그는 雲南에 제입하면서 신속하게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민민을 구제하고 徭賦를 가볍게 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조정에 돌아와서도 환관들이 大理의 奇石을 採辦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朝廷의 費用을 줄였다. 이후 張璠과 赫黨한 雲南의 鎮守太監 杜唐과 黔國公 沐紹勳의 彈劾을 받아 좌천되어 外職으로 나아갔는데, 辭職을 청하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여 년 동안 言官들에 의해 천거되었지만 임용되지는 못하였다. 『明史』 卷203 「歐陽重傳」 참조.

萬曆五年，雲南巡按陳文燧言，孟養思箇與緬世仇，今更歸順於緬。因引弘治朝先臣劉健嘗議孟養事狀，謂思陸有官猶可制，卽無官，其借自若也，不如因而官之以抗緬。報可。十一年，緬爲遊擊劉綎所敗，孟養思威亦殺緬使降於綎。十三年，隴川平，乃於孟養立長官司。

만력 5년(1577)에 윤남 순안(巡按) 진문수(陳文燧)⁵³⁷⁾가 아뢰기를, 맹양(孟養)의 사개(思箇)는 면진(緬甸)과 세대로 원수였으나⁵³⁸⁾ 지금은 다시 면전에 귀순했다고 했다.⁵³⁹⁾ [조] 홍치 연간(1488~1505)의 대신 유건(劉健)⁵⁴⁰⁾이 일찍이 맹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논의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사육[발]은 관직을 주면 마땅히 가히 제어할 수 있고 관직을 주지 않으면

536)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世宗實錄』卷93 嘉靖 7년 10월 戊辰條 참조.

537) 陳文燧: 生享年未詳. 字는 汝相이고 號는 思所이며, 江西省 臨川 郭墟(지금의 羅針嶺에 속해 있음) 사람이다. 嘉靖 40년(1561)에 舉人이 되고 이듬해인 嘉靖 41년(1562)에 進士에 급제하였다. 이후 行人을 거쳐 監察御史에 제수되어 河南道에 보임되었으며, 宣府와 大同을 巡按했다. 그런데 이후 張居正의 奪情에 대해 謫名을 거부함으로써 雲南 巡按御史로 임명했다. 官職은 兵部主事에 이르렀으며, 『種慶知州耿公權武德政碑』를 撰했다.

538) 孟養의 思箇와 緬甸과의 다툼은 『瀛史』卷13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거니와 본문 앞부분에 있는 『緬甸傳』에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음.

539) 본문에는 孟養이 緬甸에 귀순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 앞부분에 있는 『緬甸傳』이나 『瀛史』卷13의 내용을 보면 萬曆 5년(1577) 이후에도 이들의 대립은 계속되었으며, 萬曆 7년(1579)에 이르러 孟養이 緬甸에 쫓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40) 劉健(1433~1526): 字는 希賢이고, 號는 晦菴이며, 河南省 河南府 洛陽縣(지금의 河南省 洛陽市) 사람이다. 天順 4년(1460)에 進士에 급제하여 翰林院 編修에 제수되었다. 成化 初에 『英宗實錄』을 찬수하여 修撰으로 승임하고, 이후 詹事府 少詹事가 되었으며 東宮의 講官으로 充任되었다. 孝宗이 繼位에서 禮部右侍郎兼翰林學士가 되어 內閣에 참여하여 機務를 보았다. 弘治 4년(1491)에 禮部尚書兼文淵閣大學士로 승임하고 太子太保가 더해졌으며, 곧 武英殿大學士로 改任했다. 弘治 11년(1498) 봄, 少傅兼太子太傅가 되어 徐溥를 대신하여 首輔가 되었다. 당시 謝遷, 李東陽과 함께 輔政했는데, 劉健은 決斷을 잘했고, 謝遷은 持論이 좋았으며, 李東陽은 智謀가 많아 “李公謀, 劉公斷, 謝公尤侃侃”라고 讚했다. 그런데 武宗이 繼位해서 황제 측근에서 讒言을 일삼는 劉瑾을 비롯 八虎라 불리는 환관을 탄핵하려다 실패하여 辭職을 하였다. 이후 劉瑾이 53명을 奸黨으로 지목하여 朝堂에 榜示했는데, 그 가운데 맨 앞에 게시된 자가 劉健이었다. 결국 削籍이 되고 誅命도 追奪되었는데, 劉瑾이 誅殺된 후에 官職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嘉靖 5년(1526)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太師에 贈追되고 諡號는 文靖이다. 『明史』卷181 『劉健傳』 참조.

스스로 봉관(封官)을 참칭할 것이지만, 이 때문에 그에게 관직을 주어 면진을 저지하게 해서 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만력제가]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 [만력] 11년(1583)에 면진은 유격 유정(劉經)에게 폐퇴를 당했고, 맹양(孟養)의 사위(思威)도 면진의 사신을 죽이고서 유정에게 투항했다.⁵⁴¹⁾ [만력] 13년(1585)에 농천(隴川)이 평정되자 이에 곧 맹양에 장관사(長官司)를 설립했다.

未幾，長官思眞復爲緬所擄，部長思遠奉思眞妻來歸，給以冠帶，令歸守。思遠乘亂自立爲宣慰，貢象進方物，然遠暴虐，諸部恨之，引緬兵至，聲言還思眞，思遠奔益西，有思彝者，內附，與蠻莫箇思正共據險抗緬。三十年，緬攻思正，率羣兵倍道馳救，至則正已被殺。三十二年，緬攻入迤西，彝走死，緬以頭目思華守其地。華死，妻怕氏代理，緬人更番戍守。連年徵發，從行甚苦，曰：“孟養不亡，蠻何得至此！”彝之後日放思祖，有衆千餘，不敢歸，寄食於千崖云。

얼마 지나지 않아 장관(長官) 사진(思眞)⁵⁴²⁾이 다시 면전에 포로로 붙잡히자 부락의 수령 사원(思遠)⁵⁴³⁾이 사진의 처를 받들고서 귀순해 오니, [그에게] 관대를 내리고 돌아가 지키도록 하였다. 사원이 난을 틈타 스스로 선위[사]라 칭하고, 코끼리를 바치고 방물을 진헌했다.⁵⁴⁴⁾ 그러나 사원은 포항하여 여러 부락이 그를 원망하고서 면진의 군대를 끌어들이와

541) 이와 관련된 내용이 道光『雲南志鈔』『土司志』에 보이는데, 萬曆 12년(1584)에 思義가 孟養으로 돌아왔으며, 萬曆 13년(1585)에 思威가 密塔에서 緬甸을 폐퇴시키고 緬甸의 頭目 多興長을 죽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熊蔭, 1988: 235에 보면, 思威는 萬曆 13년(1585)에 孟養의 土官이 되고, 思義는 思威 이전의 土官이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542) 道光『雲南志鈔』『土司志』 및 天啓『瀛志』 모두 당시 孟密長官司의 長官은 思威였다고 기재하고 있다(熊蔭, 1988: 235).

543) 思遠: 『瀛考』에 보면, “(萬曆)十七年, 迤西思威死. 其支子思明子思遠進象及方物, 朝廷令遠爲孟養酋長”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思遠은 思明的의 아들이며, 思威의 손자임을 알 수 있다(熊蔭, 1988: 235).

544) 道光『雲南志鈔』『土司志』에 보면, “萬曆十七年, 思遠貢方物, 賈以金幣, 授宣慰”라 기재되어 있거니와 思遠이 方物을 바친 것은 萬曆 17년(1589)의 일이며, 自立하여 宣慰使가 된 것이 아니라 明 宗정에서 그에게 宣慰使를 제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큰소리로 [면전이] 사전(思眞)을 돌려보냈다고 하니, 사원은 잔서(蓋西)⁵⁴⁵로 달아났다.⁵⁴⁶ 사평(思羸)⁵⁴⁷이라는 자가 있는데, 조정에 의부해 와서 만악의 추장 사정(思正)과 함께 협한 요새에 기대어 면전에 저항하였다.⁵⁴⁸ [만력] 30년(1602)에 면전이 사정을 공격하자 사평이 군대를 이끌고 급히 길을 달려와 구원하러 이르렀지만 사정은 이미 피살되었다. [만력] 32년(1604)에 면전이 이서(迤西)로 공격해 들어오자 사평이 달아나다 죽으니, 면전이 부락의 두령 사화(思華)에게 그 지역을 지키도록 하였다. 사화가 죽자, [그의] 처(妻) 파씨(伯氏)가 대리했다. 면전 사람은 번갈아가며 국경을 지키고 매년 계속해서 징발되었는데, 수행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워 말하기를, “맹양이 망하지 않으니, 만인이 어찌 이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사평을 뒤이은 사람은 방사조(放思祖)라 하는데, 천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감히 돌아갈 수가 없어 간애(干崖)에 의부하여 생활했다고 한다.

舊制，宣慰遣人俱稱頭目，唯木邦及緬甸又有陶孟及招剛等稱，孟養又有招八稱，皆見於奏章，因其俗不改。

옛 제도에서, 선위사(宣慰使)가 보낸 사람은 모두 두목(頭目)이라 칭했으나 오직 목방과 면전만은 또 도맹(陶孟) 및 초강(招剛) 등으로 칭했고, 맹양은 또 초팔(招八)이라 칭했는데, 모두 주장(奏章)에 보이며 그들의 풍속 때문에 바꾸지 않았다.⁵⁴⁹

545) 蓋西: 雲南省 德宏州 盈江縣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지대인 勐西鎮임.

546) 본문에는 여러 부락이 思遠을 원망하여 緬甸의 군대를 끌어들이고 쫓아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道光『雲南志』 「土司志」에 보면, “(萬曆)十八年, 緬報密堵之役, 思遠率其子昏奔蓋西, 緬以其目黃瓮振之”라는 내용이 있거나 思遠이 蓋西로 도망친 것은 緬甸이 萬曆 13년(1585)에 密堵에서 孟養의 思威에게 패한 것에 대해 보복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龔鵬, 1988: 236).

547) 思羸은 思遠을 계승한 자로, 緬甸에게 망하기 직전 孟養의 마지막 土官이다.

548) 이에 대한 내용은 道光『雲南志』 「土司志」에 보이는데, 이들은 金沙江에 의지하여 함께 緬甸에 대항하였다.

549) 『滇史』와 『土官底簿』에 보면, 陶孟, 招剛, 招八은 모두 頭目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車里

차리

車里，卽古產里，爲倭泥·紹黨諸蠻雜居之地，古不通中國。元世祖命將兀良吉解伐交趾，經所部，降之，置撒里路軍民總管府，領六向，後又置取凍路耿當·孟弄二州。

차리(車里)⁵⁵⁰는 곧 옛날의 산리(產里)인데, 왜니(倭泥)⁵⁵¹·초당(紹黨) 등 여러 만인이 잠거(雜居)하는 지역이며, 옛날에는 중국과 교통하지 않았다. 원나라 세조(世祖)⁵⁵²가 장군 유허길래(兀良吉解)에게 교지(交趾)를 정벌하도록 명했는데, [차리에] 소속된 부족을 경략하여 항복하니 [이곳에] 살리로(撒里路)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를 설치했고, 6개의 전(甸)을 관령하도록 했으며, 후에 또 경동로(耿凍路)⁵⁵³의 경당(耿當)⁵⁵⁴·맹농(孟弄)⁵⁵⁵ 2개의 주

550) 車里: 撒里, 撒里, 혹은 車厘라고도 하며, 원나라 世祖 至元末에 軍民總管府를 설치하고 明代 洪武 15년(1382)에 軍民府로 바꾸었다. 이후 洪武 19년(1386)에 軍民宣慰使司로 고쳤으나 永樂 연간(1403~1424)에 폐지되었다가 宣德 6년(1431)에 다시 설치되었다.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景洪市이다. 明代 車里軍民宣慰使司의 경역은 『讀史方輿紀要』 卷119에 “東至落恐蠻界, 南至波勒蠻界, 西至八百大甸宣慰使司界, 西北至元江軍民府界”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의 西雙版納傣族自治州 영역과 北部의 思茅, 普洱 兩縣, 남부 국경밖 猛烏, 烏得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龔鵬, 1988: 241~2).

551) 倭泥: 和夷, 和臘, 和泥, 禾泥, 窩泥 등과 더불어 哈尼族의 다른 名稱으로, 여러 漢文 史籍에 기재되어 있다.

552) 世祖: 칭기스칸의 손자이자 몽골제국 제5대 칸이며, 중국 원나라의 시조인 쿠빌라이(忽必烈)의 중국식 廟號이다. 1251년 형 몽케가 제4대 칸의 자리에 오르자, 쿠빌라이는 중국 방면의 대흥독에 임명되었다. 그는 고비사막 남쪽의 金蓮川을 근거지로 삼고 지금의 雲南省에 있던 大理國을 멸망시켰으며, 티베트와 베트남까지도 공격하였다. 1259년 南宋을 공격하던 4대 칸 몽케가 四川의 병영에서 병사하자, 쿠빌라이는 國都인 카라코룸을 지키고 있는 막내 아우 아릭 부케보다 먼저 중국의 開平府(上都)에서 대칸(大汗)의 자리에 올랐으며, 중국식으로 建元하여 中統이라 하였다. 그 뒤로 두 칸이 싸우기를 4년, 마침내 아릭 부케를 굴복시킨 쿠빌라이는 도읍을 大都(오늘날의 북경)로 옮기고, 1271년에 나라 이름을 元이라 하였다. 이후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키고 이만족으로서 최초의 중국 통일을 이루었다. 쿠빌라이는 바로 미얀마·참파·자바·일본 등을 공격하여,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그 영역 안에 넣었다.

553) 耿凍路: 원나라 順帝 至正 7년(1347)에 설치되었으며,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景洪市 북쪽에 있는 整董이다. 車里府에 예속했는데, 明 洪武 15년(1382)에 폐지하여 車里軍民府에 편입했다.

554) 耿當: 耿當州를 일컫는데, 원나라 順帝 至正 7년(1347)에 설치되었고, 治所는 지금의 雲南省 景洪市

(州)를 설치했다.⁵⁵⁶⁾

洪武十五年，蠻長刀坎來降，改置車里軍民府，以坎為知府。坎遣姪豐祿貢方物，詔賜刀坎及使人衣服·綉幣甚厚，以初奉貢來朝故也。十七年復遣其子刀思拂來貢，賜坎冠帶·紗幣，改置軍民宣慰使司，以坎為使。二十四年，子刀邏答嗣，遣人貢象及方物。二十八年以賜賚命謝恩，予賜皆如例。

홍무 15년(1382)에 만인의 두령 도감(刀坎)이 투항해 오니 차리군민부(車里軍民府)도 고쳐 설치하고, 도감을 지부(知府)로 삼았다.⁵⁵⁷⁾ 도감이 그의 조카 풍록(豐祿)을 보내 방물을 바치니, 조서를 내려 도감 및 사신에게 의복·기폐(綉幣)를 매우 후하게 하사했는데, 처음으로 내조하여 진공을 받들었기 때문이다.⁵⁵⁸⁾ [홍무] 17년(1384)에 다시 그의 아들 도사불(刀思拂)을 보내 와 진공하니 도감에게 관대·초폐를 하사했으며,⁵⁵⁹⁾ 군민선위사사(軍民宣慰使司)로 바꾸어 설치하고 도감을 선위사로 삼았다.⁵⁶⁰⁾ [홍무] 24년(1391)에 [그의] 아들 도섬담(刀濕

서북쪽에 있는 景東이다. 車里府에 예속했는데, 明 洪武 15년(1382)에 폐지하여 車里軍民宣慰使司에 편입했다.

- 555) 孟莽: 孟莽州를 일컫는데, 元나라 때 耿溥路에 속했고, 明나라 洪武 15년(1382)에 車里軍民府에 편입했다.
- 556) 이와 관련된 내용은 『讀史方輿紀要』 卷119 『雲南』 7에도 보이는데, “大德中, 雲南省言: 大嶺里與八百總婦大牙相踰, 今大嶺里會胡念已除, 小嶺里復控扼地利, 多相殺掠, 乞別立宣撫司, 擇通曉民情者為之帥, 招其來附. 乃立嶺里軍民總管府. 又府統六甸, 後又置耿溥路及耿當孟弄二州”라 기재되어 있다.
- 557) 車里路를 고쳐 車里軍民府로 하고, 그 지역 추장 刀坎을 知府로 삼은 내용은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윤2월 乙巳條 참조. 당시 刀坎을 知府로 삼은 것은 명나라 초기에 소수민족의 수명을 관직에 임명하는 최초의 예가 아닌가 한다. 한편 『讀史方輿紀要』 卷119 『雲南』 7에는 “洪武十七年, 改置車里軍民府. 十九年, 改宣慰使司”라 기재되어 있다.
- 558) 洪武 16년(1383) 3월의 일로,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153 洪武 16년 3월 辛酉條에 “車里土酋刀坎遣其任豐祿進象及方物, 詔賜豐祿衣一襲紗十錠, 尋又賜刀坎及豐祿織金文綺九匹帝知之鈔八十錠衣五十事, 以其初奉貢來朝故也”라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刀坎이 刀坎으로 기재되어 있다.
- 559) 洪武 17년(1384) 7월의 일로, 『太祖實錄』 卷163 洪武 17년 7월 丁巳條에 “雲南平里軍民府知府刀坎遣其子刀思拂來朝貢方物, 詔賜刀坎等文綺紗錠冠帶”라 기재되어 있다. 刀坎은 洪武 18년(1385) 6월에도 把事 混良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있다. 『太祖實錄』 卷173 洪武 18년 6월 乙卯條 참조.
- 560) 실록에 의하면, 車里軍民府를 宣慰使司로 고치고 知府인 刀坎을 宣慰使로 삼은 것은 洪武 19년(1386)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 『太祖實錄』 卷179 洪武 19년 11월 癸亥條 참조. 天啓 『滙志』 및 『明史』 『地理志』 에

답)이 뒤를 잇고서 사람을 보내 코끼리와 방물을 바쳤다.⁵⁶¹⁾ [홍무] 28년(1395)에 고명(誥命)을 내리자 사은하니, 모두 예제에 따라 상을 내려주었다.⁵⁶²⁾

永樂元年，刀邏答令其下剽掠威遠知州刀算黨及民人以歸。西平侯沐晟請發兵討，帝命晟移文諭之，如不悛，即以兵繼。又以車里已納威遠印，是悔過之心已萌，不必加兵。晟使至，邏答果懼，還刀算黨及威遠之地，遣人貢馬謝罪。帝以其能改過，宥之。自是類入貢。朝廷遣內官往車里者，道經八百大甸，為宣慰刀招散所阻。三年，刀邏答遣使請舉兵攻八百，帝嘉其忠，八百伏罪，敕車里班師，復加獎勞。四年遣子刀典入國學，實納貢。帝知其隱，賜衣幣慰諭遣還，以道里遠，命三年一貢，著為令。十一年，邏答卒。長子刀更孟自立，驕狠失民心，未幾亦卒。更孟長子霸爺年幼，衆推刀算署司事。刀算者，更孟弟刀怕漢也。怕漢死，妻以前夫子刀弄買為邏答孫，請襲。十五年命刀弄襲宣慰使，以更孟從弟刀雙孟為本司同知。十九年，雙孟言刀弄屢以兵侵劫蠻民，乞別設治所，以撫其衆。詔分其地，置靖安宣慰使司，陞雙孟為宣慰使，命禮部鑄印給之。

영락 원년(1403)에 도섬담(刀濕答)이 그의 부하에게 명하여 위원(威遠)⁵⁶³⁾ 지주(知州) 도산담(刀算黨)과 백성들을 노략질해서 돌아오게 했다. [이에] 평서후(西平侯) 목성(沐晟)이 군대를 보내어 토벌하기를 청하니, 영락제가 목성에게 명하여 격문을 보내 효유하도록 했는데, 만일 잘못을 누우치지 않으면 곧 군대를 이끌고 토벌하겠다고 했다. 또 차리가 이미 위원의 관인(官印)을 헌납한 것은 잘못을 누우치는 마음을 보인 것이니, 군대를 더 보낼 필요가 없다

- 도 洪武 19년에 宣慰使司로 고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龔鑑, 1988: 237).
- 561) 洪武 24년(1391) 10월의 일로, 刀濕答은 부친을 이어 宣慰使가 된 뒤, 그의 동생 刀三怕刺 등을 명에 보내 코끼리와 방물을 바쳤다. 『太祖實錄』 卷213 洪武 20년 10월 己未條 참조.
- 562) 洪武 28년(1395) 12월의 일로, 『太祖實錄』 卷243 洪武 28년 12월 癸巳條에 “車里軍民宣慰使刀邏答, 以賜賚命遣其弟刀吾等貢方物謝恩, 詔賜刀吾等文綺紗有差”라 기재되어 있다.
- 563) 威遠: 威遠州를 일컫는데, 元나라 至元 12년(1275)에 설치하여 威遠路에 예속시켰다. 明나라 洪武 15년(1382)에 威遠土知州를 만들어 楚楚府에 예속시켰으며, 洪武 17년(1384)에 威遠府로 승격시켜 布政使司에 직속시켰다. 疆域은 대략 지금의 雲南省 景谷傣族彝族自治州 지역인데, 『讀史方輿紀要』에는 “威遠州東至新化州界, 南至孟羅長官司界, 西至孟定府界, 北至景東府界”라 기재되어 있다.

고 했다.⁵⁶⁴ 목성이 보낸 사신이 이르자, 도섭담은 과연 두려워하여 [붙잡은] 도산당과 위원의 땅을 되돌려주었으며, 사람을 보내 말을 바치고 사죄했다. 영락제는 그가 잘못을 고침으로 용서하였다.⁵⁶⁵ 이로부터 빈번하게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다. 조정이 과견하여 차리에 간 내관(內官)이 팔백대천(八百大甸)을 지나는데, 선위(侍) 도초산(刀招散)에게 저지당했다.⁵⁶⁶ [영락] 3년(1405)에 도섭담이 사신을 보내어 군대를 동원해 팔백을 공격하겠다고 청하자, 영락제가 그의 충성을 가상히 여겼다. 팔백이 죄를 인정하자, 차리에 칙서를 내려 회군하도록 했고, 다시 더 많이 표창하고 위로를 하였다.⁵⁶⁷ [영락] 4년(1406)에 [도섭담의] 아들 도진(刀典)을 보내 국학(國學)⁵⁶⁸에 입학시켰는데, 실제로는 남모르게 스스로 인질을 보낸 것이다. 영락제가 그의 습은 뜻을 알아차리고서 의복과 껌백을 하사하여 위로하고 효유해서 돌려보냈으며, 오는 길이 멀기 때문에 3년에 한 차례 조공하도록 명하고서 제도도 정했다.⁵⁶⁹ [영락] 11년(1413)에 도섭담이 죽었다. 장자인 도경맹(刀更孟)이 스스로 선위(侍)를 청했는데, 교만하고 마음이 비뚤어져 민심을 잃었고, 오래지 않아 [그] 역시 죽었다. 도경맹의 장자인 도세(刀翬

羨)이 나이가 어려서, 무리들은 도세(刀翬)를 추가하여 선위사의 일을 대신하도록 했다.⁵⁷⁰ 도세는 도경맹의 동생 도파현(刀伯漢)이다. 도파현이 죽자, 그의 처(妻)가 이전 남편의 아들 도룡(刀弄)을 도섭담의 손자로 속여서 세습을 청했다.⁵⁷¹ [영락] 15년(1417)에 [조정은] 도룡에게 선위사를 계승하도록 명하고, 도경맹의 종제(從弟)인 도쌍맹(刀雙孟)을 본사(本司)의 동지(同知)로 삼았다.⁵⁷² [영락] 19년(1421)에 도쌍맹은 도룡이 여러 차례 군대를 이끌고 만인 백성을 침범하여 약탈한다고 말하고서 따로 관서(官署)를 세워 그 무리들을 안무하기를 청했다.⁵⁷³ [이에] 조사를 내려 그 땅을 나누어 정안선위사사(靖安宣慰使司)를 설치하고 도쌍맹을 승진시켜 선위사로 삼도록 했으며, 예부(禮部)에 명하여 관인을 주조하여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⁵⁷⁴

宣德三年，雲南布政司奏刀弄·雙孟相仇殺，弄棄地投老撾，請差官招撫。帝命黔國公計議。六年，黔國公奏，謂奉命招撫刀弄，其母具言布政司差官劉亨徵差發金，亨已取去，本司復來徵，蠻民因而激變遂弄，弄逃入老撾，尋還境內以死。未嘗棄地外投，亦未嘗與雙孟仇殺。帝命法司執劉亨等罪之。

선덕 3년(1428)에 운남포정사(雲南布政司)에서 상주하기를, 도룡·도쌍맹이 서로 원수가 되어 살육했는데 도룡이 땅을 버리고 노파(老婦)⁵⁷⁵에 투항하였으니, 관원을 보내 초무해야

570) 刀瀝容이 죽은 이후 그 계위에 대해서는 『太宗實錄』 卷145 永樂 11년 11월 戊戌條 참조. 그런데 본문에는 刀瀝容의 長子가 刀更孟으로 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刀良孟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실적으로는 刀弄이 宣慰使의 직을 맡았었다는 설도 있다. 熊蔭, 1988: 238 참조.

571) 이에 관한 내용은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및 民國『新纂雲南通志』 『土司考』에도 보이는데, 刀伯漢의 처의 이름이 密召로 기재되어 있다.

572)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85 永樂 15년 2월 己未條에 있는데, 이들을 임명한 것은 그 지역 土人들의 청에 따른 것이다.

573) 이에 관한 내용은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및 民國『新纂雲南通志』 『土司考』에도 보이는데, 「(永樂)十九年，雙孟惡刀弄反，事多掣肘，乘蠻人不服，奏言：弄篡民，民無寧日，乞別設治所，以撫其衆」이라 기재되어 있다(熊蔭, 1988: 238~9).

574)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233 永樂 19년 춘경월 甲申條 참조.

575) 老婦: 라오스를 가리킨다. 老撾는 민간에서 諸家로 부르는데, 東南에 三關이 있고 安南과 접경하고 있다. 옛적에는 中國과 왕래하지 않았으나, 영락제가 즉위하자 老撾土官 刀羅歹이 방물을 바쳐 처음으로

- 564) 永樂 원년(1403) 9월의 일로,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23 永樂 원년 9월 甲午條에 있음.
- 565)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30 永樂 2년 하4월 丙戌條에 보이는데, 刀瀝容이 그의 동생 刀鼎 等を 明의 京師에 보내 말과 방물을 바치며 사죄하였고, 당시 都察院에서 이들을 懲治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했지만 永樂帝는 용서하였다.
- 566) 內官 楊瑄이 勅書를 가지고 孟定, 孟養, 木邦, 麓川, 車里, 八百 등을 安撫하고 曉諭했는데, 八百大甸을 지나다 刀瀝散에게 저지당하여 나가지 못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33 永樂 2년 추7월 己丑條 참조.
- 567) 당시 刀瀝容이 頭目 攪羅思을 보내 군대를 동원해 八百의 宣慰使 刀招散을 공격하겠다고 주장했기과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44 永樂 3년 추7월 壬子條 참조.
- 568) 國學: 중국의 최고 교육기관인 國子監을 말한다. 국가감은 隋나라 大業 3년(607)에 처음 설치하여 祭酒 1명, 司業 1명, 丞 3명을 두었으며, 國子學, 太學, 四門學, 書學, 算學 등 官學을 統領했다.唐나라 초에 國子學으로 개편하고 太常寺의 관할 하에 두었으며, 國子學, 太學, 廣文, 四門, 律, 書, 算의 7學을 설치하였다. 宋, 元代를 거쳐 明代에 이르러 國子學은 최고 學府가 되었다. 洪武 15년(1382)에 國子監으로 개칭하여 수도인 南京에 설치했으며, 國學이라고도 불렀다. 永樂 원년(1403)에는 北京에도 국가감을 설치했으며, 永樂 18년(1420)에 北京으로 遷都해서도 남경과 북경 두 곳에 국가감을 설치 운용하였다. 당시 南京의 國子監을 南監 혹은 南雍으로 불렀고, 北京의 國子監을 北監 혹은 北雍으로 불렀다. 국가감의 長官으로 祭酒가 있고, 그 밑으로 여러 教授가 있으며, 학생을 監生이라 하는데, 捐納을 통해 입학한 사람들은 例監生이라 불렀다. 清代에도 明代의 예에 따라 順治 원년(1644)에 국가감을 설치하고 禮部 소속으로 두었지만, 이후 국가감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69)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53 永樂 4년 하4월 戊寅條 참조.

한다고 청하였다.⁵⁷⁶⁾ [이에] 선덕제가 검국공(黔國公)에게 계책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선덕] 6년(1431)에 검국공이 상주하기를, 명을 받들어 도룡을 초무했다고 아뢰고서 그의 모친이 상세하게 호소하건대, 포정사가 파견한 관원 유형(劉亨)이 차발금(差發金)을 징수했는데⁵⁷⁷⁾ 유형이 [차발금을] 거두어 가버린 뒤에 본사(本司)가 또 와서 징수하니, 만인의 백성들이 이로 인해 변란을 일으켜 도룡을 쫓아냈으며, 도룡이 도망쳐 노과로 들어갔지만 곧 경내(境內)로 돌아와 죽었다고 했다. [또한] 땅을 버리고 밖으로 투항한 적이 없고, 역시 도성평과 원수가 되어 살육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에] 선덕제는 법사(法司)⁵⁷⁸⁾에게 명하여 유형 등을 붙잡아 죄로 다스리도록 했다.⁵⁷⁹⁾

七年，車里土舍刀霸羨請襲，許之，遣行人陸垣齋杖賜冠帶·農衣，九年，靖安宣慰刀霸供言：「靖安原車里地，今析爲二，致有爭端，乞仍併爲一，歲貢如例。」帝從其請，革靖安宣慰，仍歸車里，命刀霸供·刀霸羨共爲宣慰使，俾上所授靖安宣慰司印。

[선덕] 7년(1432)에 차리(車里)의 토사(土舍) 도패선(刀霸羨)이 세습을 청하니 [조정은] 이를 허락하고, 행인(行人) 육훈(陸垣)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가서 관대·습의(襲衣)⁵⁸⁰⁾를 하사하도록 했다.⁵⁸¹⁾ [선덕] 9년(1434)에 정안(靖安)의 선위[사] 도패공(刀霸供)이 아뢰기를,

- 로 老鎭軍民宣慰使司를 두었다. 永樂 2년(1404)에 刀毅歹은 宣慰使로 삼고 印篆을 지급하였다. 9월에는 刀毅歹이 물레 安南의 黎季犛와 내통하자 사신을 파견하여 힐책하기도 하였다. 刀毅歹은 사신으로 하여금 陳 왕조의 후손인 陳天平을 남경까지 호송하였다. 『太宗實錄』 卷30 永樂 2년 7월 丁酉條 참조
- 576) 이에 관한 내용은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및 民國『新纂雲南通志』 「土司考」에 보이는데, 당시 이를 주청한 사람은 雲南布政司 承差인 洪澂이다.
- 577) 萬曆『雲南通志』 卷16 「職差」에 보면, 당시 車里宣慰使에서 징수되는 差發金은 50兩으로 기재되어 있다. 龔蔭, 1988: 239 참조.
- 578) 法司: 明代의 中央司法機關인 刑部·大理寺·都察院을 말하는데, 이들을 흔히 三法司라 칭한다.
- 579) 黔國公 沐英이 올린 上奏 내용과 이에 대한 宣德帝의 下命은 『宣宗實錄』 卷80 宣德 6년 6월 丙辰條에 보이는데, 당시 本司에서 보낸 징수관은 承差인 洪澂이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道 道光『雲南志鈔』 「土司志」 및 民國『新纂雲南通志』 「土司考」에도 기재되어 있다. 龔蔭, 1988: 239 참조.
- 580) 襲衣: 황제가 신하에게 내리는 服裝을 일컫는다. 고대에 예의를 행할 때, 褐衣 위에 입는 상의이다.
- 581) 宣德 7년(1432) 9월의 일이고, 이를 위해 車里는 召哀 등을 명에 사신으로 보냈다.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95 宣德 7년 9월 己未條 참조.

“정안(靖安)은 원래 차리의 땅인데 지금은 둘로 나뉘어 다투는데 힘쓰니, 예전처럼 합하여 하나로 해주시고, 예제에 따라 매년 조공하기를 청하나다”라고 했다. 선덕제는 그의 청을 허락하여, 정안선위[사](靖安宣慰司)를 혁제(革除)하고 예전처럼 차리에 귀속시켰으며, 도패공·도패선을 함께 선위사로 임명하고 수여했던 정안선위사의 관인을 바치도록 했다.⁵⁸²⁾

正統五年命貢使齋杖及綺帛歸賜刀霸羨及妻，嘉其勤修職貢也。六年，麓川宣慰思倫發叛，詔給車里信符·金牌，命合兵剿賊。景泰三年以刀霸羨奉調有功，免其積欠差發金。天順元年，總兵官沐瑋奏：「刀霸羨自殺，弟板雅忠等已推兄三寶歷代承職。今板雅忠又作亂，糾合八百相仇殺。」帝命瑋亟爲撫諭，并勸奏應襲者。二年，帝以三寶歷代者，雖刀更孟之子，乃庶孽奪嫡，謀害刀霸羨，致板雅忠借兵攻殺，不當襲。但蠻民推立，姑從衆願，命襲宣慰使。

정통 5년(1440)에 [조정은] 조공 사신에게 칙서 및 기복(綺帛)⁵⁸³⁾을 가지고 돌아가 도패선(刀霸羨)과 그의 처에게 하사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부지런히 조공의 직분을 수행한 것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다.⁵⁸⁴⁾ [정통] 6년(1441)에 늑천(麓川)의 선위[사] 사윤발(思倫發)이 반기를 들자, 조서를 내려 차리(車里)에 신부(信符)·금패(金牌)를 주고서 군대를 모아 적을 토벌하라고 명하였다.⁵⁸⁵⁾ 정태 3년(1452)에 도패선이 [군대의] 정벌에 응하여 공을 세웠음으로 아직 상환하지 않은 차발금(差發金)을 면제해주었다.⁵⁸⁶⁾ 천순 원년(1457)에 충명관

- 582)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113 宣德 9년 10월 丁巳條 참조.
- 583) 綺帛: 부녀를 넘어 짠 비단을 가리킨다.
- 584) 正統 5년(1440) 10월의 일로,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72 正統 5년 10월 壬申條에 있거니와 “車里並八百大甸宣慰使司頭目刀三等階辭，命齋杖並織文綺絨錦等物，歸賜其宣慰使刀霸羨刀指散及妻嘉其勤修職貢也”라 기재되어 있다.
- 585)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76 正統 6년 2월 戊寅條에 있는데, 車里뿐 아니라 木里, 緬甸, 八百大甸, 威遠, 大帳, 施甸 등 각 長官司에 信符와 金牌 각 하나씩을 주고 군대를 합하여 麓川의 叛寇 思任發을 토벌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반기를 든 麓川 宣慰사 思倫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思任發로 기재되어 있다.
- 586)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16 景泰 3년 5월 戊戌條에 있는데, 車里의 宣慰使 刀霸羨이 麓川을 정벌하는데 군대를 동원하고 양식을 준비해 보냈기 때문에 景泰 원년(1450) 이전의 差發金을 면제해

목린(沐瑀)이 상주하기를, “도패선이 자살하고, [그의] 동생 판아충(板雅忠) 등이 이미 형 삼보역대(三寶歷代)를 추거하여 직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아충이 또 난을 일으켜 팔백(八百)을 규합하여 [삼보역대와] 서로 원수가 되어 살육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천순제가 목린에게 명하여 조속히 안무하고 효유하도록 함과 아울러 [실상유] 조사하여 옹당 계승해야 할 사람을 상주하도록 하였다.⁵⁸⁷⁾ [천순] 2년(1458)에 천순제는, 삼보역대라는 자가 비록 도맹경(刀更孟)의 아들이지만 서열(庶孽)이 적위(嫡位)를 빼앗고 도패선을 모략하여 해하였으니, 판아충으로 하여금 군대를 빌려 공격하여 죽이도록 하여 당연히 계승하지 못하도록 했다.⁵⁸⁸⁾ 다만 만인 백성들이 추거하여 세웠으므로 잠시 무리들의 원(願)에 따라 선위사를 세습하도록 명하였다.

成化十六年，文陞黎灝叛，願僞救於車里，期會兵共攻八百，車里持兩端。雲南守臣以聞，遣使敕車里諸土官互相保障，勿懷二心。二十年復敕車里等部，慎固封疆，防交人入寇，不得輕與文移，啓啓納侮。嘉靖十一年，緬酋茶裏據據古，蠶食諸蠻，車里宣慰刀糯猛折而入緬，有大·小車里之稱，以大車里應緬，而以小車里應中國。萬曆十三年命元江土舍那恕往招，糯猛復歸，獻馴象·金屏·象齒諸物，謝罪。詔受之，聽復職。

성화 16년(1480)에 교지(交趾)의 여호(黎灝)⁵⁸⁹⁾가 반기를 들고서 차리에 거짓 칙서를 받고 주었다.

- 587)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卷275 天順 원년 2월 庚申條 참조.
- 588)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卷275 天順 원년 2월 庚申條에 기재되어 있다. 본문에 天順 2년(1458)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天順 2년의 실록 기사 가운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英宗實錄』卷292 天順 2년 6월 壬申條에 보이는데, “命故車里宣慰使司宣慰使刀更猛子三寶歷代襲父職，初刀更猛死三寶歷代隨母金氏條頭目刀思弄掌管車里地方，思弄死其子霸淡遂襲其職，霸淡死諸夷欲保三寶歷代繼之，而霸淡弟板雅忠等不從，遂構兵作亂。朝廷命三司官往撫之，且勸其事故有是命”라 기재되어 있다.
- 589) 黎灝：安南의 太宗 黎麟의 넷째 아들로, 또 다른 이름은 黎思誠이다. 대신 阮繼 등이 禁兵을 이끌고 范屯과 潘般 등의 무위를 토벌하였으며, 마침내 黎宜民을 폐하고 여호를 왕제로 맞아들였다. 漢나라의 武帝나 唐나라의 太宗도 여호를 능가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영웅으로서의 제약을 지녔던 인물이다.

하여 군대를 모아 함께 팔백(八百)을 공격하자고 약속했는데, 차리는 우물쭈물하였다. 윤남의 수신이 [이를 조정에] 알리자, 사신을 보내 차리의 여러 토관(土官)에게 칙서를 내려 서로 도와 막도록 했으며, 두 마음을 품지 말도록 했다.⁵⁹⁰⁾ [성화] 20년(1484)에 다시 차리 등 부락에 칙서를 내려 강역을 신중하고 굳건히 지켜 교지인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했으며, 가볍게 문서를 주고받고 환란을 일으켜 모욕을 당하지 말도록 했다.⁵⁹¹⁾ 가정 11년(1532)에 면전의 추장 망용리(莽應裏)가 파고(播古)⁵⁹²⁾를 점거하고서, 여러 만인을 점차 병탄하였다.⁵⁹³⁾ 차리의 선위[사] 도나맹(刀糯猛)이 굴복하여 면전에 귀순했으며, [당시] 대차리(大車里)·소차리(小車里)라는 명칭이 있는데 면전에 순응할 때는 대차리라 했으며 중국에 순응할 때는 소차리라 했다.⁵⁹⁴⁾ 만력 13년(1585)에 [조정이] 원강(元江)의 토사(土舍) 나서(那恕)에게 가서 초무하도록 명하였는데,⁵⁹⁵⁾ 도나맹(刀糯猛)이 다시 귀순해 와 길진인 코끼리·금병(金屏)⁵⁹⁶⁾·상아 등 여러 물건을 바치며 사죄했다.⁵⁹⁷⁾ [이에 만력제는] 조서를 내려

다. 38년간 제위하였고, 56세로 죽어 昭隱에 장사지냈다. 묘호는 聖宗이다. 『大越史記全書』卷12 『黎紀』 참조.

- 590)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卷206 成化 16년 8월 甲寅條에 있는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조정에 알린 雲南의 守臣은 總兵官 沐瑀이었다.
- 591)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卷252 成化 20년 5월 甲寅條에 있는 兵部尙書 張鵬 등이 上奏한 내용에 있는데, “乞命雲南鎮守總兵巡撫等官覃平等，督令車里八百老納等宣慰司孟良元江等府，各慎固封疆整飭武備，以防交人入寇，不得輕與文移容納侮”라 기재되어 있다.
- 592) 播古：지금은 勃固라 하며, 緬甸 緬仰光 동북 지역이다.
- 593) 본문에 嘉靖 11년(1532) 緬甸의 추장을 莽應裏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莽應裏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며 이 무렵 緬甸 통구(Toungoo)의 군주는 莽瑞體였던 것으로, 莽瑞體를 莽應裏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594) 嘉靖 11년(1532)에 緬甸의 추장 莽應裏가 播古를 점거하고서 여러 부락을 장악하였으며, 隆慶 2년(1568)에 車里를 공파하고 宣慰使 刀糯猛을 포로로 붙잡았다. 隆慶 3년(1569)에는 宣慰使 刀糯猛이 면전에 항복했는데, 이때부터 大車里, 小車里라는 명칭이 생겨 면전에 응할 때는 大車里라 했고, 중국에 응할 때는 小車里라 했다. 당시 宣慰使는 明朝와 緬甸 상방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熊蕃, 1988: 241 참조.
- 595) 道光『雲南志鈔』『土司志』 및 民國『新纂雲南通志』『土司考』에는 萬曆 11년(1583)의 일로 기재되어 있다. 熊蕃, 1988: 241 참조.
- 596) 金屏：금철을 하여 꾸민 병풍을 말할.
- 597) 이에 관한 내용은 『神宗實錄』卷161 萬曆 13년 5월 丙申條에 있거나 “雲南車里宣慰刀糯猛來降，獻馴象金瓶象齒西洋布緬盒旛檀諸物，以沉元江土舍那恕招之也。有詔受之聽襲職嗣，仍與那恕各賞銀幣有差”라 기재되어 있다.

이를 받아들이고, 복직을 허락하였다.

天啓七年，巡撫閩洪學奏，緬人侵孟艮，孟艮就車里求救，宣慰刀羅猛遣兵象萬餘赴之，緬人以此恨車里，興兵報復，羅猛年已衰，重賂求和，緬聞羅猛子召河璇有女名召烏阿色美，責獻烏岡，河璇別以女給之，緬知其詐，大憤，攻車里愈急，羅猛父子不能支，遁至思毛地，緬追執之以去，中朝不及問，車里遂亡。

천계 7년(1627)에 순무 민홍학(閩洪學)⁵⁹⁸이 상주하기를, 면전인이 맹간(孟艮)을 침범하니 맹간이 곧 차리에 구원을 청했는데, 신위[사] 도온맹(刀羅猛)이 코끼리와 군대 만여 [명]을 보내 이르렀다고 했다. 면전인이 이로 인해 차리를 원망하여 군대를 일으켜 보복하였는데, 도온맹은 이미 연로하여 많은 뇌물을 주고 화해를 청했다. 면전은 도온맹의 아들 소하선(召河璇)에게 소오강(召烏岡)이라는 미모의 딸이 있음을 듣고, 소오강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소하선은 다른 여자를 면전에 주었다. 면전은 그가 속였다는 것을 알고서 크게 노하여 차리를 공격하여 더욱 위급해졌다. 도온맹 부자는 지탱할 수 없게 되자 달이나 사모(思毛)⁵⁹⁹ 지역에 이르렀으나, 면전이 추격하여 그들을 붙잡아 가버렸다.⁶⁰⁰ [이에 대해] 중국 조정은 문책하지 않았으며, 차리는 마침내 멸망했다.⁶⁰¹

598) 閩洪學: 生卒年未詳. 浙江省 烏程(지금의 浙江省 湖州市 吳興區) 사람으로, 萬曆 26년(1598)에 進士가 되었다. 天啓 2년(1622)에서 天啓 6년(1626)까지 雲南 巡撫를 역임하면서 이 지역 소수민족의 반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또한 銅鐵을 주조하고 학교를 건설하며 이재민을 구휼하는 등 경제와 사회 각 방면에서 운남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雲南 巡撫로 재직할 당시 『撫滇奏草』 12권을 저술하였는데, 운남 지방사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崇禎 3년(1630)에 吏部尚書 王永光이罷官되자 그 뒤를 이어 吏部尚書로 발탁되었다.

599) 思毛: 지금은 思茅라고 부르며, 雲南省 思茅市 지역이다.

600) 天啓 7년(1627)에 緬甸이 제자 車里에 침범하여 宣慰使 刀羅猛과 江 서쪽에 있는 백성들을 붙잡아 갔으며, 이로부터 車里는 황폐해졌다. 당시 강 동쪽 지역은 元江의 那氏가 지배하고 있었다. 賈馱, 1988: 241 참조.

601) 明朝가 車里를 직접 지배할 수 없게 된 시기는 崇禎시기로 여겨진다. 이후 清初에 刀羅猛가 부왕하자, 다시 車里宣慰司를 설치하고 刀羅猛를 宣慰使로 임명해서 예전처럼 원래의 車里宣慰司의 지역을 관령하도록 했는데, 이 지역을 傣族名으로 西雙版納, 혹은 번역하여 十二版納이라 한다. 賈馱, 1988: 241~2 참조.

老撾 노과

老撾, 俗呼爲撾家, 古不通中國. 成祖卽位, 老撾土官刀線歹貢方物, 始置老撾軍民宣慰使司. 永樂二年以刀線歹爲宣慰使, 給之印. 五年遣人來貢. 旣而帝以刀線歹潛通安南季犛, 遣使詰責, 論其悔過. 六年, 刀線歹遣人貢象馬·方物. 七年復進金銀器·犀象·方物謝罪. 自是連年入貢, 皆賚予如例. 帝遣中官楊琳往賜文綺. 十年來貢, 命禮部加賜馬.

노과(老撾)는 민간에서 과가(撾家)라 부르는데, 옛날에는 중국과 왕래가 없었다.⁶⁰² 성조(成祖)가 즉위해서 노과의 토관(土官) 도선알(刀線歹)이 방물을 바치자,⁶⁰³ 비로소 노과(老撾) 군민선위사(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하였다.⁶⁰⁴ 영락 2년(1404)에 도선알을 선위사로 삼고 그에게 인장을 주었다.⁶⁰⁵ [영락] 5년(1407)에 [도선알이]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공물을 바쳤다.⁶⁰⁶ 오래지 않아 영락제는 도선알이 안남(安南)의 계리(季犛)⁶⁰⁷와 몰래 왕래함으로

602) 天啓『韻志』 및 『天下郡國利病書』에 老撾에 관해 “其夷僻難瓜爲節, 俗呼撾家, 卽古峽囊氏, 自周以後不通中國”이라 기재되어 있다. 賈馱, 1988: 242 참조.

603) 洪武 35년(1402) 9월에 老撾 土官이 車里의 宣慰使, 六百의 土官 등과 함께 명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太宗實錄』 卷12하, 洪武 35년 9월 戊戌條 참조.

604) 『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에 보면, 老撾軍民宣慰使司는 永樂 2년(1404) 4월에 설치했으며, 그 境土 동남쪽에는 세 개의 關이 있고, 安南과 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05) 永樂 2년(1404) 4월의 일로,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30 永樂 2년 4월 己亥條에 있음.

606)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71 永樂 5년 9월 辛亥朔條에 보이는데, 당시 八百大甸 宣慰使 刀羅散, 老撾 宣慰使 刀線歹 및 波勒 土官 麻哈旦, 麻刺明이 각각 부락의 頭目을 보내 金銀器와 方物을 바치니, 永樂帝는 이들에게 鈔幣와 布를 차등하여 하사했다.

607) 季犛: 黎季犛를 말하는데, 字는 理元이며, 號는 一元, 胡季犛라고도 한다. 그의 조상은 본래 胡氏로 중국 浙江에 살다가 五代(907~960)의 혼란기에 베트남 瀛州로 이주하였다. 그로부터 12대 후손이 타인 호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 집안이 들어 온 양자가 姓을 黎氏로 바꾸었다. 호계리는 바로 그의 4대孫이다. 陳叔明이 사망하자 명실상부한 베트남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유인선, 2002: 157~160 참조). 이후 그는 1400년에 권력을 탈취하여 국호를 大虞라고 하였으며, 이듬해에 아들 胡濠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太上皇으로 물러났다. 『大越史記全書』 卷8 『陳紀』 및 『太宗實錄』 卷30 永樂 2년 7월 丁酉條 참조.

사신을 보내 꾸짖고서, 잘못을 뉘우치도록 그를 효유하였다.⁶⁰⁸ [영락] 6년(1408)에 도선알이 사람을 보내 코끼리와 말·방물을 바쳤다. [영락] 7년(1409)에 또 금은기·서상(犀象)⁶⁰⁹·방물을 진헌하고 사죄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계속해서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는데, 모두 전례에 따라 하사품을 주었다. 영락제는 중관(中官) 양림(楊琳)을 보내어 문기(文綺)를 하사했다.⁶¹⁰ [영락] 10년(1412)에 내조하여 공물을 바치자, [영락제가] 예부에 명하여 더 많이 하사품을 내리도록 하였다.⁶¹¹

宣德六年遣使齎敕獎諭宣慰刀線達。九年，老撾貢使還，恐道中爲他部所阻，給信符，敕孟艮·車里諸部遣人護之。景泰元年請賜土官衣服。故事，無加賜衣服者，命加賜錦幣并及其妻。成化元年頒金牌·信符於老撾，七年鑄給老撾軍民宣慰使司印，以皆爲賊焚燬也。十六年，貢使至，會安南攻老撾，鎖守內官錢能以聞。因救其使兼程回，并量給道里費。明年，安南黎灝率兵九萬，開山爲三道，進兵破哀牢，入老撾境，殺宣慰刀板雅及其子二人。其季子怕雅賽走八百。宣慰刀撾那遣兵送至景坎，跨國公沐琮以聞，命怕雅賽襲父職，免其貢物一年，賜冠帶·絲幣，以示優恤。既怕雅賽欲報安南之仇，觀中國發兵爲助。帝以老撾·交趾皆服屬中國久，恤災解難，中國體也，命琮慎達人論之。

선덕(1431)에 사신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가 선위(사) 도선달(刀線達)⁶¹²에게 표창하고 효유하도록 했다.⁶¹³ [선덕] 9년(1434)에 노과의 조공사신이 돌아갔는데, 가는 도중에

- 608) 永樂 5년(1407) 10월의 일로, 老撾 宣慰使 刀線歹에게 내린 勅諭는 『太宗實錄』 卷72 永樂 5년 冬10월 戊子條에 보인다.
- 609) 犀象: 무소와 코끼리를 일컫음.
- 610)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12 永樂 9년 춘정월 壬申條 참조.
- 611)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33 永樂 10년 冬10월 己未條 참조.
- 612) 刀線達: 永樂 연간(1403~1424)에 老撾 宣慰使였던 刀線歹라 어떤 관계인지 확실치 않다. 다만 『滇雲歷年傳』 卷6에 “宣宗宣德元年春三月，命老撾宣慰司發兵會剿交趾反寇。時命成山侯王通討黎州，以老撾地近交趾。勅宣慰司刀線歹備兵，依王通臨近，會師進剿”라 기재되어 있거나와 宣德 元年(1426)까지는 刀線歹이 宣慰使의 자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刀線達이 襲職한 것은 宣德 2년(1427) 이후의 일로 보인다.

다른 부족에게 저지를 당할까 두려워하니 신부(信符)를 주었으며, 맹간(孟良)·차리(車里)의 여러 부족에 사람을 보내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경태 원년(1450)에 토관(土官)의 의복을 하사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옛 사례에 의복을 더하여 내려 준 일이 없음으로, 금폐(錦幣)를 더하여 내려 주도록 하고 아울러 그의 처에게도 하사하도록 명했다. 성화 원년(1465)에 노과에 금폐·신부를 내려주었다.⁶¹⁴ [성화] 7년(1471)에 노과군민선위사사인(老撾軍民宣慰使司印)을 주조해 주었는데, 모두 적에게 불태워져 훼손되었기 때문이다.⁶¹⁵ [성화] 16년(1480)에 전공 사절이 이르렀는데, 마침 안남(安南)이 노과를 공격하여 진수(鎭守) 내관(內官) 전능(錢能)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그 사신에게 칙서를 내려 서둘러 돌아가도록 하고, 아울러 [이런 사정을] 헤아려서 노정에 드는 비용을 주었다.⁶¹⁶ 이듬해(1481)에 안남의 여호(黎灝)가 9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산을 개통하여 3개의 길을 만들고서, 진군하여 예뢰(哀牢)⁶¹⁷를 격파하고 노과의 경내에 침입해 선위(사) 도판아(刀板雅)와 그의 두 명의 아들을 죽였다.⁶¹⁸ 그(도판아)의 막내아들 파야새(怕雅賽)가 팔백(八百)으로 달아났는데, [팔백(八百)의] 선위(사) 도판나(刀撾那)가 군대를 보내 [그를] 호송하여 경坎(景坎)⁶¹⁹에 이르렀다. 검국공 목종(沐琮)이 [조정에 이 소식을] 전하자, 파야새에게 아버지의 직을

- 613) 宣德 6년(1431) 5월의 일로, 당시 宣德帝는 內官 楊琳에게 勅書를 가지고 가 曉諭하고 綵幣를 하사하도록 했다. 『宣宗實錄』 卷79 宣德 6년 5월 壬申條 참조.
- 614) 成化 원년(1465) 2월에 雲南 威遠州 頭目 刀昔思 등에게 成化 원년에 새로 만들어진 陳文의 金牌, 信符, 勅書底簿를 반포했다. 『憲宗實錄』 卷14 成化 원년 2월 丁未條 참조. 그런데 이때 내린 金幣와 신부가 불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듬해에 다시 내렸다. 『憲宗實錄』 卷34 成化 2년 9월 丙申條 참조.
- 615)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91 成化 7년 5월 丙申條 참조.
- 616)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205 成化 16년 7월 辛丑條에 있는데, 이때 비용으로 官帑銀 20兩을 주었다.
- 617) 哀牢: 雲南과 緬甸 北部 지역의 옛 나라로, 西南夷의 百濮系統의 민족이 세웠으며, 대략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76년까지 존재했던 나라를 일컫는다. 傳說상에 哀牢의 開國 君主는 九隆으로, 東海 龍王의 어린 아들이었다고 하며, 이 때문에 哀牢에서는 龍神을 숭배했다고 한다. 전성기 때는 동서 3천 리, 남북 4천 6백 리를 통할했는데, 대체로 그 통치 범위는 남쪽으로 西雙版納에, 서쪽으로는 怒江, 북쪽으로는 橫斷山脈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洱海 일대까지 미친 西南夷의 霸主였다. 哀牢의 중심 구역은 지금의 雲南 保山 哀牢山 일대인데, 본문에서의 哀牢는 이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618) 刀板雅가 언제 宣慰使를 襲職했는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滇雲歷年傳』 卷6에 “成化十五年九月，安南攻老撾，殺其宣慰使”라 기재되어 있거나와 그가 安南의 黎灝에게 붙잡혀 죽은 것은 成化 15년(1479)으로 보인다.
- 619) 景坎: 지금의 雲南省 西雙版納 猛臘縣 猛捧鎮 景坎村임.

세습하도록 명하고, 그들이 보내야 할 1년 치의 공물을 면제해 주었으며, 관대·체계를 하사하여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제함을 보였다.⁶²⁰⁾ 오래지 않아 파야새가 안남의 원한을 보복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군대를 보내 도와주기를 바랐다. 성화제는 노과·교지 모두 중국에 복속한 지 오래되었고, 재화(災禍)를 구제하고 재난(災難)을 없애는 것이 중국의 준칙임으로, 목중에 게 신중하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효유하도록 했다.⁶²¹⁾

弘治十一年，宣慰舍人招攬章應襲職，遣人來貢，因請賜冠帶及金牌·信符。費賞如制，其金牌·信符，俟鎮巡官勘奏至日給之。十一月，招攬章遣使入貢。吏部言：「招攬章係舍人，未授職，僭稱宣慰使，雲南三司官冒奏違錯，宜治罪。」宥之。

홍치 11년(1498)에 선위[사]의 사인(舍人) 초람장(招攬章)이 마땅히 직을 계승하고자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공물을 바치고, 이를 기회로 관대 및 금패·신부를 하사해 주기를 청하였다. 상은 규정에 따라 주고, 금패·신부는 진순관(鎮巡官)이 실상을 조사한 상주가 이르는 날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주었다.⁶²²⁾ [같은해] 11월에 초람장이 사신을 보내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다. 이부(吏部)에서 아뢰기를, “초람장은 사인(舍人) 출신으로, 아직 직무를 받기 전에 친위사를 참정했는데,⁶²³⁾ 운남의 삼사관(三司官)이 제멋대로 상주하여 규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렀으니 마땅히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홍치제는] 그들을 용서했다.

62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216 成化 17년 壬子條 참조.

621)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230 成化 18년 辛酉條 雲南總兵官 黔國公 沐琮이 올린 上奏文에 보이거니와 이에 대해 成化帝는 “安陸老婦諸夷，服屬中國有年，朕視之譬如赤子，救急角口羊仇，此中國體也。其舍琮等遣人，諭之俾各守境土聽鄰保民”라 하였다.

622)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 卷153 弘治 12년 8월 丙申條에 있거니와 招攬章이 舍人을 襲職하고 頭目 乃刀 등을 명에 보낸 것은, 본문에는 弘治 11년(1498)으로 되어 있지만 이와는 달리 弘治 12년(1499)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23) 明나라 제도 하에서 土官의 職을 世襲할 때, 世襲하는 당사자는 이전 土官의 事跡, 職銜, 管轄 지역, 人口 및 貢賦 등을 친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또 인접 土官의 證明과 布政司의 조사를 거친 후 吏部에 보내 칙서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招攬章은 이를 수속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甄菴, 1988: 243~4 참조.

嘉靖九年，招攬章言：「交趾應襲長子光紹，爲叔所逐，出亡老撾，欲調象馬送回。」守臣言：「據招攬章之言，懼納亡之罪，且假我爲制服之資，留之啓釁，遣之招兵，宜聽光紹自歸，并責其私納罪。」報可。二十四年，雲南巡撫汪文盛言：「老撾土舍怕雅聞征討安南，首先思奮，且地廣兵多，可獨當一面。八百·車里與老撾相近，孟良在老撾上流，皆多兵象，可備征討。請免其察勘，就令襲襲，以備征調。」從之。四十四年，土舍怕雅聞章遣人進舞牌象二·母象三·犀角十，雲南守臣以聞。禮部以非貢期，且無漢·緬公文，第來路險遠，跋涉踰年，宜受其所貢，給賞遣之，毋令赴京。報可。時緬勢方張，剪除諸部，老撾亦折而入緬，符印俱失。

가정 9년(1530)에 초람장이 아뢰기를, “교지(交趾)는 용당 장자인 광소(光紹)에게 계승해야 했지만 숙부에게 쫓겨나 노과로 도망쳐 왔으니, 코끼리와 말을 동원해 [광소]를 호송하여 돌려보내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수신(守臣)이 아뢰기를, “초람장의 말에 의거하면, 도망한 자를 받아드린 죄를 두려워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가탁하여 계압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를 머물게 하면 화(禍)를 불러오고 그를 보내려면 군대를 모집해야 하니, 마땅히 광소(光紹)가 스스로 돌아가기를 기다려야 하며, 아울러 그(초람장)가 사적으로 죄인을 받아들인 것을 꾸짖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가정제가] 비답을 내리 기뻐하였다. [가정] 24년(1545)에 운남 총무 왕문성(汪文盛)⁶²⁴⁾이 아뢰기를, “노과의 토사(土舍) 파야(怕雅)가 안남을 정토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일 먼저 본격(奮激)한 테다가 또 땅이 넓고 군대가 많아 가히 훌륭한 방안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백(八百)·차리(車里)가 노과와 서로 가까이 있고 맹간(孟良)이 노과의 상류에 있으며 모두 많은 군대와 코끼리를 가지고 있어서, 가히 정토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하옥건대 현장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고 곧 계승하도록 하여 정토를 준비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가정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가정] 44년(1565)에 토사(土舍) 파야란장다(怕雅蘭章)이 사람을 보내

624) 汪文盛: 生卒年 未詳. 字는 希周로, 湖廣 武昌府 崇陽縣 사람이다. 正德 6년(1511)의 進士로 饒州 推官에 제수되었다. 正德帝의 南巡을 諫하다 闕下에서 杖刑을 당했다. 嘉靖 초에 제차 雲南按察使에 발탁되었고, 嘉靖 15년(1536)에 安南을 토벌하려고 할 때, 勳력을 인정받아 安南巡撫가 되었으며, 그 공적으로 大理寺卿에 승진하였다.

무패아상(舞牌牙象) 2두(頭)·모상(母象) 3두·서각(犀角)⁶²⁵ 10개를 진헌하자, 윤남 수신 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예부(禮部)에서는 조공할 기한이 아니고 또 한(漢)·면전(緬甸)의 공문(公文)이 없으며, 다만 오는 길이 험하고 멀어 고된 여정으로 해를 넘겼으니, 마땅히 그들이 바치는 공물을 받고 상을 주어 보내되 경사에는 이르지 말도록 하였다. [이에 가정제가] 비답을 내려 가납하였다. 당시 면전의 세력은 바야흐로 강대해져 여러 부락을 토벌했는데, 노과도 굴복하여 면전에 귀순하였으며, 부인(符印)도 모두 잃어버렸다.

萬曆二十六年，緬敗，老撾來歸，奉職貢，請頒印。命復鑄老撾軍民宣慰使司印給之。四十年貢方物，言印信毀於火，請復給，撫緞官以聞。明年再頒老撾印。時宣慰猶貢象及銀器·緬席，賜予如例，自是不復至云。

만력 26년(1598)에 면전이 패하자 노과가 귀복해 와 조공을 받들고서 인장을 하사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조정은] 다시 노과군민선위사인(老撾軍民宣慰使司印)을 주조하여 주도록 명하였다.⁶²⁶ [만력] 40년(1612)에 방물을 바치면서 인신(印信)이 불에 훼손되었다고 아뢰고 다시 주기를 청하니, 안무(安撫)하고 진수(鎮守)하는 관원이 [이를 조정에] 알렸다.⁶²⁷ 이듬해(1613)에 다시 노과에 인장을 내려주었다.⁶²⁸ 당시 선위[사]가 예전처럼 코끼리와 은기(銀器)·면전(緬甸)의 돛자리를 바치니, 전례에 따라 상을 하사했다.⁶²⁹ [그런데] 이로부터 다시는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625) 犀角: 무소의 뿔로, 犀牛角이라고도 한다. 고대 帝王과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 解毒辟邪의 효능이 있다고 하여 帝王이 사용하는 杯盞 등을 만드는데 이용되었다.
 626) 明 조정이 老撾에 老撾軍民宣慰司印을 鑄造하여 준 내용은 『神宗實錄』 卷329 萬曆 26년 12월 甲子條에 보임.
 627) 이에 관한 내용은 『神宗實錄』 卷493 萬曆 40년 3월 辛丑條에 있음.
 628) 이에 관한 내용은 『神宗實錄』 卷515 萬曆 41년 12월 癸巳條에 있거니와 “鑄給老撾軍民宣慰司印，先是老撾宣慰司悉夷目先倫等齎貢方物，因言先年所頒印符被毀於火，撫緞爲請補給，從之”라 기재되어 있다.
 629) 당시 老撾·車里 두 宣慰司는 龍康州의 土官과 더불어 각기 象·銀器·緬席 등 方物을 바쳤다. 이에 관한 내용은 『神宗實錄』 卷512 萬曆 41년 9월 戊寅條 참조.

其俗與木邦同，部長不知姓，有三等：一曰招木弄，一曰招木牛，一曰招木化，而爲宣慰者，招木弄也，代存一子，絕不嗣。其地東至水尾，南至交趾，西至八百，北至車里，西北六十八程至雲南布政司。

이곳의 풍속은 목방(木邦)과 같고, 부락의 수령은 성(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이곳의 사람들은] 세 개의 등급이 있는데, 하나는 초목롱(招木弄)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초목우(招木牛)라 하며, 나머지 하나는 초목화(招木化)라고 한다. 그리고 선위[사]가 되는 것은 초목롱인데, 매 1대(代)에 한 명의 아들만을 두어서 단절이 되어 계승하지 못했다. 그 지역의 동쪽으로는 수미(水尾)⁶³⁰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교지(交趾)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팔백(八百)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차리에 이르며, 서북쪽으로 68정(程)⁶³¹이면 윤남포정사에 이른다.⁶³²

八百 二宣慰司
팔백 이선위사

八百，世傳部長有妻八百，各傾一寨，因名八百媳婦。元初征之，道路不通而還，後遣使招附。元統初，置八百等處宣慰司。

팔백(八百)은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로, 부락의 수령에게 8백 명의 처(妻)가 있는데 [이들 처들이] 각자 하나의 채(寨)를 관령함으로 인해 팔백식부(八百媳婦)라 불렀다고 한다. 원나라 초에 이를 정벌했으나 도로가 통하지 않아 돌아왔으며, 후에 사신을 보내 초무(招撫)하니 의부(依附)해 왔다. 원통(元統)⁶³³ 초에 팔백등처선위사(八百等處宣慰司)를 설치했다.⁶³⁴

630) 水尾: 현재 베트남의 水尾縣으로 升華府 管轄 하에 있다.
 631) 程: 역참 노선 중 속막이나 휴식을 취하는 곳을 사이를 程이라고 부르는데 거리에 따라 程額, 程頭, 程歇이라고 한다.
 632) 이 境域에 대해 王宗載의 『四夷館考』에는 “東至水尾，南至交趾，西至寧遠，北至車里”라 기재되어 있는데, 오늘날 라오스의 境域이며, 宣慰司의 治所는 老撾 古都였던 지금의 琅勃拉邦(Luang Prabang)이다. 甄藍, 1988: 245 참조.

洪武二十一年，八百媳婦國遣人入貢，遂設宣慰司。二十四年，八百土官刀板冤遣使貢象及方物。先是，西平侯沐英遣雲南左衛百戶楊定者往八百招撫，至是來貢。帝諭兵部尚書茹瑺曰：「聞八百與百夷構兵，仇殺無寧日。朕念八百宣慰遠在萬里外，能修職奉貢，深見至誠。今與百夷構兵，當有以處之。可諭意八百，令練兵固守，俟王師進討。」自是及永樂初，頻遣使入貢，賜予如例。

홍무 21년(1388)에 팔백식부국(八百媳婦國)이 사람을 보내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자 마침내 선위사(宣慰司)를 설치하였다.⁶³⁵⁾ [홍무] 24년(1391)에 팔백(八百)의 토관(土官) 도판면(刀板冤)이 사신을 보내 코끼리와 방물을 바쳤다. 이보다 앞서, 서평후(西平侯) 목영(沐英)⁶³⁶⁾

633) 元統: 원나라 惠宗 順帝가 1333~1334년까지 사용한 연호이며, 이후 1335년부터 至元으로 바꾸었다.

634) 『元史』 「本紀」에 의하면, 泰定 4년(1327) 9월에 八百媳婦의 蠻人들이 官職을 청하니, 蒙慶宣慰司都元帥府를 설치하고 至順 2년(1331) 5월에 八百等處宣慰司都元帥府를 설치했다. 또 至正 2년(1342)에 蒙慶宣慰司를 설치하고 이를 蒙慶軍民府로 고쳐 八百宣慰司에 예속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 八百媳婦宣慰司는 蒙慶府, 木安府, 孟榮府, 孟絹路에 대해, 그 지역은 지금의 泰國 北部에 위치한 湄邁, 湄萊 地區이다. 曠蕪, 1988: 245 참조.

635) 道光『雲南志』 「土司志」 및 民國『新纂雲南通志』 「土司考」에는 본문의 내용과 같이 洪武 21년(1388)에 宣慰司를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天啓『滇志』 卷30 「屬縣志·土司官」에 보면, 洪武 24년(1391)에 그 후장이 來朝하여 공물을 바치자 八百大甸軍民宣慰司를 설치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明史』 卷46 「地理志」 7에 도 “八百大甸軍民宣慰使司, 元八百等處宣慰使司, 洪武二十四年改置”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八百大甸宣慰司는 洪武 21년보다는 洪武 24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曠蕪, 1988: 245~6 참조.

636) 沐英(1345~1392): 朱元璋의 義子로서 字는 文美이고, 安徽省 鳳陽府 定遠 사람이며, 明初의 개국 명將이다. 어려서부터 朱元璋을 따라서 여러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명조가 건립된 후에는 雲南에 주둔하면서 屯田을 크게 일으켰고, 그 후손들은 明末까지 대대로 雲南에서 살았다. 洪武 3년(1370)에 鎮國將軍으로 봉해지고 大都督府 僉事に 임명되었다. 이듬해에 大都督府 同知로 승진하였다. 당시 大都督府는 軍馬의 증후로서 兵馬를 관장하였는데 기밀업무가 산적했다. 그는 大都督府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여 朱元璋의 신임을 받았다. 洪武 10년(1377)에 征西副將軍에 임명되어 鄯愈를 따라서 吐蕃 공격에 참가하였으며, 서쪽으로 川·藏을 공략하여 西平侯로 봉해졌다. 洪武 13년(1380)에 朱元璋의 命을 받들어 陝西의 군대를 통령하여 북방으로 나가 亦集乃路를 공략하고, 黃河를 건너 賀蘭山(지금의 寧夏 지역)에 올라 北元軍을 대패시키고, 元의 國公 脫火赤 등을 붙잡았다. 洪武 14년(1381) 9월에는 征南將軍 傅友德, 左副將軍 藍玉과 함께 右副將軍으로서 30만 병사를 이끌고 운남 평정에 참여하였다. 명군은 通海에 屯田을 설치하고 臨安衛에 소속시켰는데, 둔전군 2,228명, 권속

이 운남좌위(雲南左衛)⁶³⁷⁾ 백호(百戶)⁶³⁸⁾ 양완자(楊完者)를 보내어 팔백(八百)에 가서 초무하니, 이때에 이르러 내조하여 공물을 바쳤다.⁶³⁹⁾ 홍무제가 병부상서 여위(茹瑺)에게 유지를 내려 이르기를, “듣자하니 팔백(八百)이 백이(百夷)와 전쟁을 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 살육하여 편안할 날이 없다고 한다. 짐이 생각건대, 팔백의 선위(사)는 만 리(里) 밖 먼 곳에서 진공을 만드는 일을 근면하게 잘 행하여 지극한 정성을 보였노라. 지금 백이와 싸우고 있는데, 그에 합당하게 잘 처리하도록 가라. 가히 팔백에 유지를 내려, 군사를 훈련시켜 굳게 지키고서 조정의 군대가 진군하여 토벌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⁶⁴⁰⁾ 했다. 이로부터 얼마 후에 이르기까지 빈번하게 사신을 보내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으며, 전례에 따라 하사품을 주었다.

永樂二年設軍民宣慰使司二，以土官刀招你爲八百者乃宣慰使，其弟刀招散爲八百大甸宣慰使，遣員外郎左洋往賜印信·冠帶·襲衣，刀招散遣人貢馬及方物謝恩，命五年一朝貢。

영락 2년(1404)에 두 개의 군민선위사(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하고서 토관(土官) 도초니(刀招你)를 팔백자내(八百者乃)의 선위사로 삼고,⁶⁴¹⁾ 그의 동생 도초산(刀招散)을 팔백대천(八百大甸)의 선위사로 삼았으며,⁶⁴²⁾ 외위랑(員外郎)⁶⁴³⁾ 좌양(左洋)을 파견하여 인고(印

1,325명, 예비병 1,500명 합계 5,053명이 주둔했다. 백의 방법에 따르면 軍戶는 永充하는 것으로士卒들은 家屬과 함께 둔전을 경작하며 그 지역의 民戶들과 混居할 수 없었다. 그러나 沐英은 屯田을 크게 일으켜 경작하고 군량을 자급함으로써 서남 지방이 안정되었다. 그는 임지인 雲南에서 사망하였는데, 南京으로 옮겨져 장사지냈고 黔寧王으로 추증되었다. 諡號를 昭勇이라 했다. 『明史』 卷126 『沐英傳』, 637) 雲南左衛: 雲南都司에 소속된 衛로, 洪武 15년(1382)에 中慶路(雲南府)에 설치되었다.

638) 百戶: 세습 軍職으로서, 元代에 처음 만들어진 관직명이다. 원래 上百戶 長官에는 몽골인과 한인 각각 1명씩, 下百戶에는 1명씩 두었으며 주戶所에 예속되었다. 원대의 계도를 계승해서 명대 역시 衛所제도 에 백호소를 설치해서 병사 112명씩을 두었다. 명대 역시 세습직이었지만, 除授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639) 洪武 24년(1391) 6월의 일로,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 卷209 洪武 24년 6월 壬午條에 있음.

640) 洪武帝가 兵部尚書 茹瑺에게 내린 諭旨의 내용은 『太祖實錄』 卷210 洪武 24년 7월 辛丑條에 있음.

641) 『明史』 卷46 「地理志」 7에 보면, “八百者乃軍民宣慰使司, 永樂二年四月分八百大甸地置”라 기재되어 있다. 八百者乃宣慰司는 달리 小八百이라고도 불리며, 景龍 일대(지금의 泰國 북부 湄邁府 지역)에 있었다. 曠蕪, 1988: 246 참조.

642) 八百大甸宣慰司는 달리 大八百이라 부르며, 湄邁 일대(지금의 泰國 북부 湄邁府 지역)에 있었다. 曠蕪,

語)⁶⁴⁴·관대·습의를 내려주었다.⁶⁴⁵ [이에] 도초산(刀招散)이 사람을 보내어 말과 방물을 바치고 은혜에 감사드리니, 5년에 한 차례 조공하도록 명하였다.

是歲，遣內官楊瑄齎敕諭孟定·孟養等部，道經八百大甸，爲土官刀招散所阻，弗克進。三年遣使諭刀招散曰：「朕特頒金字紅牌，敕諭與諸邊爲信，以禁戢邊吏生事擾害，用福爾衆。諸宣慰皆敬恭聽命，無所違禮。惟爾年幼無知，惑於小人孟乃朋·孟允公等，啓孽生禍，使臣至境，拒却不納。廷臣成請與師問罪，朕念八百之人豈皆爲惡，兵戈所至，必及無辜，有所不忍。茲特遣司賓田茂·推官林楨齎敕往諭，爾能悔過自新，卽將奸邪之人擒送至京，庶境土可保。其或昏迷不悛，發兵討罪，孳踐不貸！」并敕西平侯沐晟嚴兵以待，以馬軍六百·步軍一千四百護內官楊安·都斌前往。又慮老撾乘車里空虛，或發兵掩襲，或與八百爲援，可遣其部長率兵一萬五千往備。

동북아역사재단

이 해(1404)에 내관(內官) 양선(楊瑄)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가 맹정(孟定)·맹양(孟養) 등 부락을 효유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이] 팔백대전(八百大甸)을 차나는 중에 토관 도초산(刀招散)에게 저지를 당하여 나아갈 수 없었다.⁶⁴⁶ [영락] 3년(1405)에 사신을 보내 도초산에게 효유하여 이르기를, “짐은 특별히 금자홍패(金字紅牌)를 하사하고 칙유(勅諭)를 내려 여러 변읍(邊邑)과 더불어 신물(信物)로 삼음으로써, 변경 지역의 관리들이 일을 만들어 어지럽히고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시키고, 너희 무리에게 복을 베풀었다. 여러 선위[사]는 모두가 공손히 명을 따르고 예제(禮制)를 위배하는 바가 없었다. 오직 그대만이 나이가 어리고 무지

1988: 246 참조.

643) 貝外郎: 관직명으로,明代 각 부의 하부 조직으로 清吏司가 있는데, 그 소속에 郎中, 貝外郎, 主事를 두어서 세세한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貝外郎은 郎中の 보좌역으로 正五品의 관직이며, 貝外 혹은 外郎, 副郎이라고도 불렀다.

644) 印詔: 官印과 冊封의 詔書를 일컫는다. 명이 다른 나라에 수여하는 인장은 金印과 鍍金印이 있는데, 금인은 朝鮮과 日本에만 주었고, 琉球·安南·占城·爪哇에는 도금인을 주었다(鄭樸生, 1995: 148~149).

645) 이상의 내용은 『太宗實錄』 卷31 永樂 2년 5월 己巳條에 보인다.

646)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33 永樂 2년 추7월 己丑條에 있는데, 永樂 2년(1404)에 八百宣慰司가 설치되었지만 明朝에 곧 반기를 들었다.

해서 간사하고 도량이 좁은 맹내몽(孟乃朋)·맹윤공(孟允公) 등에게 현혹되어 화환(禍患)을 일으키는 단서를 열었고, 사신이 변경에 이르렀는데도 막아 물리쳐 받아들이지 않았노라. 조정의 대신들 모두가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청하고 있지만 짐은 팔백의 백성이 어찌 모두 악(惡)한 짓을 했겠는가라고 가엾게 여기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고한 사람 에게도 미치지 차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노라. 이에 특별히 사빈(司賓)⁶⁴⁷ 전무(田茂)와 추관(推官)⁶⁴⁸ 임정(林楨)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가서 효유케 하노니, 그대가 능히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지려거든 장차 간사한 자를 잡아 경사에 보내고, 경토를 보전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혹여 우매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군대를 보내 죄인들을 토벌할 것이고, 온 가족을 죽여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했으며, 아울러 서평후(西平侯) 목성(沐晟)에게 칙서를 내려 군대를 엄히 갖추어 대기하도록 하였다.⁶⁴⁹ 마군(馬軍) 600명·보군(步軍) 1,400명으로 내관 양안(楊安)·육빈(都斌)을 호위하여 가도록 했다. 또 차리(車里)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노과(老撾)가 군대를 보내어 들은 습격할 것인지 아니면 팔백을 지원할 것인지 염려되어, 그 부탁의 수령을 보내 1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가 방비하도록 했다.⁶⁵⁰

三年，刀招你等遣使奉金縷表文，貢金絲絲帽及方物。帝命受之，仍加賜予。西平侯

647) 司賓: 北周시대에 처음 설치되어 대외적으로 중요한 儀禮를 주관한 관직이었는데, 唐代에는 鴻臚寺에 소속되어 賓客凶儀에 관한 일과 諸蕃의 冊封에 관한 일을 맡았다.明代에는 鴻臚寺의 屬官으로 從八品이며, 外國의 朝貢使節에 대한 의례를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다.

648) 推官: 唐代에 최초로 설치된 관직으로, 節度使, 觀察使, 團練使 등의 幕府에 설치된 속관으로 地位는 判官 아래였으며, 刑獄을 담당하였다. 宋代에도 府와 三司, 各部에 推官을 설치하여 各案에 관련된 公事를 주관하게 했다. 開封府에는 左, 右 兩廳을 설치하고 每廳에 推官 1명을 두었다. 元代에는 各路의 總管府에 推官을 두어 刑獄을 담당시켰다.明代에는 各府에 推官을 설치하여 刑名을 담당하게 했다. 淸初에도 이를 답습하였으나 康熙 6년(1667)에 推官을 폐지했다. 光緒 33년(1907)에 大理院에 다시 推官을 설치하고 推事라고 개칭했다.

649) 明朝는 八百의 宣慰使 刀招散이 반기를 들자 이에 대해 현편으로 招撫를, 다른 현편으로 征討을 준비했는데, 결국 命을 듣지 않자 군대를 보내 征討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瀛史』 卷11에 “永樂三年乙酉, 八百蠻僞叛命, 沐晟奏遣都指揮陳浚等領勁兵三千往剿, 晟率師駐臺自縣爲聲援, 又令木邦罕資法起兵先入, 協力助功, 戮其渠魁, 餘黨不治”라 기재되어 있다.

650) 刀招散에게 勅諭와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44 永樂 3년 추7월 壬子條에 있음.

沐晟奏：「奉命率師及車里諸宣慰兵至八百境內，破其猛利石厓及者峇二寨，又至整線寨。木邦兵破其江下等十餘寨，八百恐，遣人詣軍門伏罪。」乃以所陳詞奏聞。因遣使敕諭車里·木邦等曰：「曩者八百不恭朝命，爾等請學兵誅討。嘉爾忠誠，已從所請。今得西平侯奏，言八百已伏罪納款，夫有罪能悔，宜赦宥之。敕至，其悉止兵勿進。」遂敕晟班師。四年降敕諭刀招散，刀招散遣人貢方物謝罪。帝以不誠，却之。五年貢使復來謝罪，命禮部受之。

[영락] 3년(1405)에 도초니(刀招你) 등이 사신을 보내 금루표문(金縷表文)을 올리고 금결사모(金結絲帽)와 방물을 바쳤다. 영락제는 이를 받도록 명하고서 예전처럼 더 많은 하사품을 내려주었다.⁶⁵¹⁾ 서평후 목성이 상주하기를, “명을 받들어 [우리] 군대와 차리(車里) 등 여러 선위[사]의 군대를 이끌고 팔백(八百) 경내에 이르러서, 그 곳 맹리(猛利)의 석에(石厓)와 자담(者峇) 두 개의 체(寨)를 공파하고 또 정선체(整線寨)⁶⁵²⁾에 이르렀습니다. 목방(木邦)의 군대는 그 곳(팔백) 강하(江下) 등 10여 개의 체를 공파했습니다. [이에] 팔백은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 군문에 이르러 죄를 청했습니다”라 하고, 곧 [팔백이] 진술하여 고한 내용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정은] 사신을 보내 차리·목방 등에 칙서를 내려 효유하여 이르기를, “이전에 팔백이 조정의 명령을 공손히 받들지 않으니 그대들이 군대를 보내 토벌하겠다고 청하였다. 그대들의 충성을 가상히 여겨 [그대들이] 청한 것을 이미 허락했노라. 지금 서평후가 올린 상주를 보니, 팔백이 이미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귀순했다고 한다. 무릇 죄를 지었으나 뉘우치니 마땅히 이를 용서하노라. 칙서가 이르면 모두 싸움을 그치고 진격하지 말라”고 했으며, 마침내 목성에게 칙서를 내려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오라고 했다.⁶⁵³⁾ [영락] 4년(1406)에 도초산에게 칙서를 내려 훈계하여 깨우치니 도초산이 사람을 보내 방물을 바치

651) 永樂 3年(1405) 10월의 일로,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47 永樂 3年 冬10월 壬午條에 있는데, 당시 波勒 土官 麻哈且, 麻刺과 아울러 八百者乃의 刀招你 등이 부락의 頭目 乃三哈柯 등을 보내 金縷表文을 올리고 金結絲帽 및 方物을 바치니 永樂帝는 鈔文翰을 차등하여 하사했다. 八百者乃宣慰司에 관한 기사는 이 시기 이후로는 어느 史書에도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52) 整線寨: 지금의 泰國 湄盛에 속한 지역임.
653) 이상의 西平侯 沐晟이 올린 上奏와 車里·木邦 등에 내린 勅書의 내용은 『太宗實錄』 卷49 永樂 3年 12월 戊辰條 참조.

고 사죄하였다. [그러나] 영락제는 진실되지 않다고 여겨 이를 물리쳤다.⁶⁵⁴⁾ [영락] 5년(1407)에 진공사신이 다시 와 사죄를 하니 [영락제가] 예부에 명하여 이를 받아들여도록 했다.⁶⁵⁵⁾

洪熙元年遣內官洪衍生齎敕諭刀招散。宣德七年遣人來貢，因奏波勒土酋常糾土雅之兵入境殺掠，乞發兵討之。帝以八百大甸去雲南五千餘里，波勒·土雅皆未嘗歸化，勞中國爲遠蠻役，非計，止降敕諭而已。

홍희 원년(1425)에 내관(內官) 홍자생(洪衍生)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가 도초산을 효유했다.⁶⁵⁶⁾ 선덕 7년(1432)에 [도초산이]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공물을 바쳤는데,⁶⁵⁷⁾ 이를 기회로 파륵(波勒)⁶⁵⁸⁾의 추장이 형상 토아(土雅)⁶⁵⁹⁾의 군대를 규합해 경내에 침입하여 살육과 약탈을 한다고 상주하면서 군대를 보내 토벌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선덕제는, 팔백대진(八百大甸)은 운남에서 5,000여 리 떨어져 있고 파륵·토아는 모두 아직 귀화하지 않아, 중국이 멀리 있는 만인과 싸우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어서 좋은 계획이 아니라 하고서, 다만 칙서를 내려 안무하고 효유할 뿐이었다.⁶⁶⁰⁾

正統五年，八百貢使奏：「遞年進貢方物，土民不識禮法，不通漢語，乞依永樂間例，

654) 永樂 4年(1406) 2월의 일로,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51 永樂 4年 2월 癸未條 참조.
655) 永樂 5年(1407) 4월의 일로, 八百大甸 軍民宣慰使 刀招散이 부락의 頭目 招板秃魯油 등을 보내 方物과 金銀器를 바치며 다시 와 謝罪하니, 永樂帝는 禮部로 하여금 받아드리도록 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66 永樂 5年 4하월 庚戌條 참조.
656) 洪熙 원년(1425) 3월의 일로, 明朝는 中官 洪衍生에게 칙서를 가지고 가서 車里 靖安宣慰使 刀覽孟 및 八百大甸 軍民宣慰使 刀招散에게 文翰과 鈔幣를 하사도록 했다. 『太宗實錄』 卷13 洪熙 원년 3월 己丑條 참조.
657) 『韻史』 卷11에 “宣德七年壬子，八百大甸宣慰使刀之雅遣人貢方物”이라 기재되어 있어, 당시 조공을 한 八百大甸의 宣慰使는 刀之雅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록에는 刀招散으로 기재되어 있다.
658) 波勒: 지금의 泰國 북부에 위치한 彭世洛府(Phitsanulok)의 지역임.
659) 土雅: 緬地亞의 同音譯寫로(尤中, 1987: 158), 즉 지금의 泰國 중부에 위치한 大城府(Ayurthaya)임.
660) 八百大甸 軍民宣慰使 刀招散이 올린 奏請과 이에 대해 宣德帝가 취한 조치의 내용은 『宣宗實錄』 卷96 宣德 7年 冬10월 辛亥條에 있음.

仍令通事齎捧金牌·信符，催督進貢，驛路令軍卒護送，庶無疏失。」從之。十年，給八百大甸宣慰司金牌·信符各一，以前所給牌符爲運羅國寇兵焚燬也。

정통 5년(1440)에 팔백의 진공사신이 상주하기를, “해마다 방물을 진공해오고 있는데,⁶⁶¹ 토착의 백성이 예법을 알지 못하고 중국말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청하유근대, 영락 연간(1403~1424)의 예에 따라 예전처럼 통사(通事)에게 금패·신부를 받들어 가져가게 해 진공을 제속하고 감독하옵고, 역(驛)으로 가는 길에 군졸로 하여금 호송하게 해서 소홀하고 잘못됨이 없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니, [정통제가] 이를 허락하였다.⁶⁶² [정통] 10년(1445)에 팔백대전선위사(八百大甸宣慰司)에 금패·신부 각 하나씩을 주었는데, [이는] 이전에 받은 금패와 신부가 섬라국(暹羅國)의 적병에 의해 불에 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⁶⁶³

成化十七年，安南黎灝已破老撾，頗僞敕於車里，期會兵攻八百，其兵暴死者數千，傳言爲雷所震。八百遣兵扼其歸路，獲殺萬餘，交人敗還，上官刀攬那以報。黔國公沐琮奏：「攬那能保障生民，擊敗交賊，救護老撾，交人嘗以僞敕脅誘八百，八百毀敕，以象蹤之，請頒賞以旌忠義。」帝命雲南布政司給銀百兩，絲幣四表裏以獎之。二十年，刀攬那遣人入貢。雲南守臣言：「交兵雖退，宜令八百諸部飭兵爲備。」弘治二年，刀攬那孫刀整賴貢方物，求襲祖職。兵部言：「八百遠離雲南，瘴毒之地，宜免勒予襲。」從之，仍給冠帶。

성화 17년(1481)에 안남(安南)의 여호(黎灝)가 노과를 공과하고서 차리에 거짓 칙서를 만포하고, 군대를 합해 팔백을 공격하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의 병사 수천 명이 갑자기

- 661) 明代 雲南 土官이 明朝에 바치는 方物은 大理石, 蟒蛇胆, 麝香, 孔雀, 叫鶴, 鸚鵡 그리고 隴川の 大芋, 芒市的 香橙, 孟定的 大香椽 등이다. 당시 八百에서 進貢하는 방물은 대부분 麝香, 孔雀, 象牙의 類였다고 한다. 熊蔭, 1988: 248 참조.
- 662) 正統 5년(1440) 9월의 일로, 八百大甸 宣慰使 刀招散이 보낸 부락의 頭目 刀三板 등 이 上奏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71 正統 5년 9월 乙卯條 참조.
- 663) 正統 10년(1445) 8월의 일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32 正統 10년 8월 壬寅朔條 참조.

죽었는데, 진하는 말에 의하면 천둥과 벼락을 맞았기 때문이라 한다. 팔백은 이 기회를 틈타 군대를 보내 그들의 귀로를 틀어쥐고서 만약 명을 습격하여 죽이니, 교지인(交趾人)은 패하여 돌아갔다. 토관 도람나(刀攬那)가 [이를] 보고하였다.⁶⁶⁴ 검국공(黔國公) 목종(沐琮)이 상주하기를, “도람나는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교지의 적을 공격하여 폐퇴시켜 노과를 구하여 보냈습니다. 교지인이 일찍이 거짓 칙서를 내려 팔백을 위협하고 유인하였으나 팔백은 칙서를 없애버리고 코끼리로 이들을 밟아버렸으니, 상을 내려주어 충의(忠義)를 밝히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⁶⁶⁵ 성화제는 운남포정사에 명하여 은 100냥·채포 4포리를 그에게 상으로 주도록 하였다.⁶⁶⁶ [성화] 20년(1484)에 도람나가 사람을 보내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다.⁶⁶⁷ 운남수신이 아뢰기를, “교지의 군대가 비록 물러갔지만 마땅히 팔백의 여러 부락에 명하여 군대를 잘 정비하여 방비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⁶⁶⁸ 홍치 2년(1489)에 도람나의 손자 도정뢰(刀整賴)가 방물을 바치며 할아버지의 직을 세습하기를 청하였다. 병부에서 아뢰기를, “팔백은 운남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장독(瘴毒)⁶⁶⁹이 많은 지역이니, 마땅히 조사를 면제하고 세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홍치제가] 이를 허락하고, 예전처럼 관대를 주었다.⁶⁷⁰

其地東至車里，南至波勒，西至大古喇，與緬隣，北至孟艮，自地關東南行五十程始至。平川數千里，有南格剎山，下有河，南屬八百，北屬車里，好佛惡殺，寺塔以萬

- 664)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憲宗實錄』 卷216 成化 17년 6월 壬子條에 보이거니와 八百 宣慰使 刀攬那가 이를 雲南守臣 黔國公 沐琮에게 보고하였다.
- 665) 黔國公 沐琮의 上奏는 『憲宗實錄』 卷228 成化 18년 6월 壬子條 참조.
- 666)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216 成化 17년 6월 壬子條에 보이거니와 刀攬那에게 상을 내린 본문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1년 뒤인 成化 18년(1482)에 黔國公 沐琮이 올린 上奏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667) 成化 20년(1484) 8월에 刀攬那는 頭目 板細嫩 등을 명에 보내 象牙, 犀角 등을 바쳤다. 『憲宗實錄』 卷255 成化 20년 8월 乙亥條 참조.
- 668)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257 成化 20년 동10월 丙寅條 참조.
- 669) 瘴毒: 악성 학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두통, 오한과 허리와 등이 뻣뻣하면서 무거운 증상이 나타난다.
- 670)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 卷29 弘治 2년 8월 庚子條에 있다. 실록에 刀攬那를 刀攬那로, 刀整賴를 刀岳整賴로 기재하여 있는데, 실록의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計。有見侵，乃舉兵，得仇卽已，俗名慈悲國。嘉靖間，爲緬甸所并，其酋避居景線，名小八百。自是朝貢遂不至。緬酋應裏以弟應龍居景線城，倚爲右臂焉。萬曆十五年，八百大向土書請恢復，不報。初，四譯館通事惟譯外國，而緬甸·八百知之，蓋二司於六慰中加重焉。

이 지역의 동쪽으로는 차리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파록(波勒)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대고라(大古喇)⁶⁷¹)에 이르고 먼진(緬甸)과 인접하며, 북으로는 맹간에 이르는데, 요관(姚關)에서부터 동남쪽으로 50정(程)을 가면 비로소 이른다. 수천 리의 평원이 있고 남격랄산(南格刺山)⁶⁷²)이 있으며 [산] 밑으로 강이 있는데, 남쪽 면은 팔백에 속하고 북쪽 면은 차리에 속한다. 불교를 숭상하여 살육을 싫어하며, 질과 불탑이 만(萬)을 헤아린다. 침범을 당하면 곧 군대를 일으키고 원수를 갚으면 곧 싸움을 그쳐, 민간에서는 자비국(慈悲國)이라고 부른다. 가정 연간(1522~1566)에 먼진이 병탄되자 그 추장이 경선(景線)⁶⁷³)으로 피하여 거주했는데, 소팔백(小八百)이라 불렀다. 이로부터 조공은 마침내 이르지 않았다. 먼진의 추장 망응리(莽應裏)는 동생 망응룡(莽應龍)을 경매성(景邁城)⁶⁷⁴)에 거주하도록 하고, [이름] 오른팔로 삼아 의지하였다.⁶⁷⁵ 만력 15년(1587)에 팔백대천(八百大甸)이 상서(上書)하여 회복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만력제가] 답보(答報)하지 않았다.⁶⁷⁶ 당초에 사역관(四譯館)⁶⁷⁷의 통사(通事)는 오로

지 외국만을 통역했으나, 먼진·팔백은 외국과 같이 통사를 두었는데 [이는] 무릇 여섯 개의 선위사(宣慰司) 가운데에 이 두 선위사가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 671) 大古喇: 伊洛瓦底江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三角洲에 있는 白古를 말하는데, 麓古라고도 일컫으며, 馬革과 德楞子的 지역이다.
- 672) 『讀史方輿紀要』 卷119 『雲南』7에 보면, 南格刺山은 八百大甸軍民宣慰使司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車里와 八百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위로 끝까지가 있는데, 남쪽 면은 八百에 속하고 북쪽 면은 車里에 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673) 景線: 孟獲長官司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讀史方輿紀要』 卷119 『雲南』7에 “道通車里, 出普洱元江, 可達交嵐. 又有路通老撾, 可達交趾”라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의 泰國 清萊府(Chiang Rai) 북부에 위치한 昌盛 지역이다.
- 674) 景邁城: 지금의 雲南省 思茅市 瀾滄拉祜族自治縣 惠民鄉의 지역일.
- 675) 본문에 莽應龍을 莽應裏의 동생으로 기재했는데, 莽應龍은 莽應裏의 부친이며 당시 景邁城에 거주하도록 한 莽應裏의 동생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676) 天啓『滇志』와 道光『雲南志鈔』에 보면 萬曆 15년(1587) 이후 八百은 마침내 緬甸의 소유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熊盛, 1988: 249 참조).
- 677) 四譯館: 明代에 외국과의 관계 및 국내의 여러 민족 간의 왕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언어와 문자의



翻譯이 중시되어 明初에 翻譯機構를 설치했는데, 四夷館이라 칭했다. 清代에 들어와서도 明의 舊制를 답습하여 이 기관을 두었는데, 다만 四譯館이라 개칭하였다. 乾隆 13년(1748)에는 會通館과 합하여 會通四譯館이라 불렀으며, 譯字生·通事 약간 명을 두어 오로지 翻譯과 漢語를 제외한 각종 언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註』, 서울: 신서원, 2004
-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1~1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3
- 박원호 등 역, 『명사식화지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08
-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四庫善本叢書初編, 1959~1963 年刊
- 顧祖禹 撰, 『讀史方輿記要』, 北京: 中華書局, 2005
-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臺灣: 商務印書館, 1956
- 談遷, 『國權』,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排印, 1958
- 劉文徵 纂條, 天啓『瀛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李拂一, 『訪史』, 昆明: 文建書局, 1947
- 毛奇齡撰, 『蠻司合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倪輓, 『滇雲歷年傳』,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1992
- 王崧, 道光『雲南志鈔』, 昆明: 雲南社會科學院文獻研究所出版社, 1995
-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 李賢 等撰, 『明一統志』(文淵閣四庫全書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佚名, 『明末滇南紀略』,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6
- 張毓碧, 康熙『雲南府志』(中國地方志集成), 南京: 鳳凰出版社, 2009
- 諸葛元聲 撰·劉亞朝 校點, 『滇史』, 德宏: 德宏民族出版社, 1994
- 周國林 分史 主編, 『二十四史全譯: 明史』,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馮魁 撰·李孝友 校點, 『滇考』, 昆明: 雲南民族出版社, 2002
- 『大明會典』(萬曆 15年刊本), 臺北: 新文豐出版公社 影印本
- 『明實錄』, 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校引本, 1965~1966
- 『土官底簿』(影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김성원, 『미얀마 왕조사』,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 테라다 다카노부 지·서인범, 송정수 역, 『대명제국』, 서울: 혜안, 2006
- 마크 엘빈 지·정철웅 역, 『코끼리의 후퇴』, 광주: 사계절, 2011

- 朴元煥,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서울: 일조각, 2002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2002
- 정철웅, 『자연의 지주-명청시대 장강 중류 지역의 개발과 환경』, 서울: 책세상, 2012
- 江應樑, 『明代雲南境內的土官與土司』,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58
- 江應樑, 『傣族史』, 成都: 四川民族出版社, 1984
- 熊蔭, 『明史雲南土司傳箋注』, 昆明: 雲南民族出版社, 1988
- 熊蔭, 『中國土司制度』, 昆明: 雲南民族出版社, 1992
- 林惠群, 『中國民族史』上·下冊, 臺北: 商務印書館, 1998
- 馬大政 主編, 『中國邊疆經略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0
- 楊紹猷·莫俊卿, 『明代民族史』, 成都: 四川民族出版社, 1996
- 尤中, 『中國西南邊疆變遷史』,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1987
- 張德信, 『明朝典章制度』,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9
- 程大位, 『算法統宗』, 上海: 江東書局印行, 1912
- 丁曉昌·冒志群, 『古代公文研究』, 安徽: 安徽文藝出版社, 2000
- 朱孟震, 『西南夷風土記』, 臺北: 廣文書局, 1979
- 陳慶江, 『明代雲南政區治所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002
- 陳名傑, 『明代西南土司制度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論文, 2002
- 余貽澤 等, 『明代土司制度』, 臺北: 臺灣學生書局, 1968
- 鄒逸麟, 『中國歷史地理概述』, 廈門: 福建人民出版社, 1999
- 佐藤長, 『チベット歴史地理研究』, 東京: 岩波書店, 1978
- H. J. Wiens, *Han Chinese Expansion in South China*, New Haven, 1954
- J. C. Scott,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 Yale University Press, 2010
- John E. Herman, *Amid the Clouds and Mist: China's Colonization of Guizhou, 1200-1700*, 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7
- Matthew T. Kapstein, *The Tibetans*, Blackwell, 2006
- Nicola Di Cosmo and Don J. Wyatt ed., *Political Frontiers, Ethnic Boundaries, and Human Geographies in Chinese History*, London & New York, 2003
- S. Harrell, ed., *Cultural Encounters on China's Ethnic Frontiers*, Seattle & London, 1995
- 김홍길, 『명대의 彝族 정권과 토사』,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2005

賈霄鋒,『近百年來中國土司制度的史料整理研究』,『貴州文史叢刊』,2004-1

賈霄鋒,『二十多年來土司制度研究綜述』,『中國邊疆史地研究』,2004-4

賈霄鋒·王力,『近百年來中國土司制度的史料整理及研究綜述』,『青海民族研究』,2003-3

高金和,『明朝三征麓川和麓川的興衰』,『都市家教』,2009-1

古永繼,『明代滇西地區內地移民對中緬關係的影響』,『中國邊疆史地研究』,2008-3

龔蕊,『20世紀中國土司制度研究的理論與方法』,『思想戰線』,2002-5

龔蕊,『關於明清雲南土司制度的幾個問題』,『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1986-3

龔蕊,『略論土司制度的作用與流弊』,『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1989-2

納春英,『明中央與西南土司關係:以賜服制為中心的考察』,『廣西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0, 2008

雷翔,『民初整齊土司官制過程小考』,『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4-1

劉藝兵,『論雲南土司制度與古代地方方法制』,『思想戰線』,1994-6

陸泓·王筱春·朱彤,『雲南孟連土司研究』,『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7, 2005-1

李建軍·譚運秀,『沐氏家族與雲南官民關係考』,『第十屆中國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2004

李麗雙·張陳皇,『讀“明史”雲南土司傳』札記,『思想戰線』34, 2008

李世檢,『明朝土司制度述略』,『中國邊疆史地研究』,1994-1

李正亭,『“析麓川地”與明代西南邊疆變遷關係析評』,『思想戰線』34, 2008

李正亭·孔令瓊,『試論明·清兩代朝廷控制雲南土司手段的二重性』,『學術探索』,2003

李正亭·孔令瓊,『試論明·清兩代朝廷控制雲南土司手段的二重性』,『學術探索』,2003

林超民,『漢族移民與雲南統一』,『雲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5-3

普永貴,『明末雲南的“沙普之亂”』,『學術探索』,2001-1

付春·於曉燕,『“奢安之亂”與“沙普之亂”比較研究』,『貴州民族研究』,2008-1

成錄銘,『明清時期湖廣土司自署職官初探』,『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23-4, 2002

楊炳堃,『土司制度在雲南的最後消亡』,『貴州民族研究』,1994-2

于玲,『土司制度新論』,『中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7-4

蔡豪,『夾縫中的抉擇:十六世紀後期緬甸之間的滇西土司』,南京大學碩士學位請求論文,2011

畢奧南,『洪武年間明朝與麓川王國關係考察』,『中國邊疆史地研究』15-2, 2005

賀聖達,『嘉靖末年至萬曆間的中緬戰爭及其影響』,『中國邊疆史地研究』,2002-2

許立坤,『明代土司制度述略—明王朝民族政策研究之一』,『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1998-3

華林,『明清西南土司承襲制度和文書』,『貴州文史叢刊』,1994-4

岡野昌子,『明代土司制度考』,『待蒙山論叢』1, 1967

岡田宏二,『明代華南地域における土司の設置について』,『東洋研究』170, 2008

栗原 悟,『明代彝族系土司にみられる種族連合の紐帯—彝族(ロロ・ノス系)の民族史的研究の一考察』,『東南アジア. 歴史と文化』11, 1982

山田勲之,『明代雲南麗江ナシ族・木氏土司による周邊地域への勢力擴張とその意義—中華世界とチベット世界の狭間で』,『史學雜誌』118, 2009

山田勲之,『明代の麗江ナシ族・木氏土司・“忠臣”と“自主”の間』,『中國研究月報』61, 2007

山田勲之,『明代の雲南麗江ナシ族・木氏土司とチベット世界との關係—カルマ派との關係を中心に』,『日本西藏學會會報』54, 2008

戴逸 主編,『二十六史大辭典』,吉林:吉林文史出版社,1993

史為樂 主編,『中國歷史地名大辭典』,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5

臧勵酥 等 編,『中國古今地名大辭典』,臺北:商務印書館,1931

中國古今地名大詞典編纂委員會,『中國古今大詞典』(上,中,下),上海辭書出版社,2005

中國歷史大辭典編纂委員會編,『中國歷史大辭典』,上海辭書出版社,2000

京大東洋史辭典編纂會,『新編東洋史辭典』,東京:創元社,1980

下中郭彦 編,『アシア歴史事典』,東京:平凡社,19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귀양·사남 사주부·진원·동인·
 여평·안순·도균·평월·석천·
 신첨위 금축안무사부전
 (貴陽·思南 思州附·鎮遠·銅仁·
 黎平·安順·都勻·平越·石阡·

명사(明史) 권316 귀주토사(貴州土司)

新添衛 金築安撫司附傳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明史 外國傳 譯註

「귀양·사남 사주부·진원·동인·여평·안순·도균·평월·석천·신첨위 금축안무사부전(貴陽·思南 思州附·鎮遠·銅仁·黎平·安順·都勻·平越·石阡·新添衛 金築安撫司附傳)」해제

귀주(貴州) 토사(土司) 열전(列傳)도 『명사』의 다른 토사전과 마찬가지로 편찬의 목적이 명 왕조의 토사 지역에 대한 통제나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명(明)을 이어 이 지역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한 청(淸) 왕조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지역 별로 서술된 귀주 토사전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명대 이전의 간략한 연혁을 서술한 뒤에는 거의가 홍무(洪武) 원간(1368~1398)부터 시작하여 명의 말기에 이르러까지 간헐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회유하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무렵 진압과 회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토사의 지배하에 원주민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토관(土官)들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등이 강조되어 있고 이 같은 자들이 대개 명조에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점이 은연중에 나타나 있다.

귀주 토사전의 지역별 구성은 중심지인 현재의 귀양(貴陽)을 포함하여 북서쪽을 먼저 서술한 다음, 이어서 북동쪽의 사남(思南)·진원(鎮遠)·동인(銅仁)을 서술하고, 다음으로는 남동쪽의 여평(黎平), 이어서 남서쪽의 안순(安順),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로 동서(東西)의 중간 지대에 해당하는 도균(都勻)·평월(平越)·석천(石阡)·신첨(新添) 등의 지역을 서술하고 있다. 그 서술의 분량은 처음의 귀양부(貴陽府), 즉 귀양을 포함하는 북서쪽 지역에 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체 서술의 거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이곳 토사인 귀주 선위사(宣慰使)가 다스리는 지역이 가장 광대하였고 명조도 다른 선위사보다 한 단계 높게 대우했던 데다가 명조 말기에 오늘날 이족(彝族)에 해당하는 나라족(羅羅族)의 거대한 무장 저항투쟁인 이른바 안방언(安邦彦)의 난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방언의 난은 인접한 사천(四川) 영녕(永寧)의 사승명(奢崇明)의 난과 함께 명 말 서남 지역을 뒤흔들었던 대사건이었다. 반란 기간도 천계(天啓) 원년(1621)부터 승정(崇禎) 2년(1629)까지 8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들이 차지했던 지역도 귀주와 사천 남부 및 운남의 동북방에 걸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사천의 성도(成都)까지도 오랫동안 포위 공격을 했던 정도여서 명조는 그 진압에 매우 많은 인적·물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였다. 이같은 상황이 이 지역 토사에 대한 기술의 비중을 크게 하였을 것이다.

두번째 사남(思南) 지역은 영락(永樂) 연간(1403~1424)에 사남(思南)과 사주(思州) 두 선위사간의 분쟁이 일어난 것을 기회로 영락 11년(1413) 아예 두 선위사를 폐지하고 귀주포정사(貴州布政使司)를 설치한 곳이니, 즉 귀주성(省)은 이때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음의 진원(鎭遠)과 동인(銅仁)은 묘족(苗族)의 저항이 치열했던 곳인데 특히 동인 지역은 인접한 호남성(湖南省) 서쪽의 진주(辰州) 지역과 함께 오랫동안 저항 투쟁이 지속되었던 곳이다.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 지역의 진압에 고심하던 명조는 말기에 이르러 현재 호남성의 길수(吉首)·봉황(鳳凰) 지역에 이른바 남방장성(南方長城)을 축조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인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여평(黎平) 지역인데 이곳도 묘족이 만만치 않은 저항을 벌였던 곳이다. 일찍이 천순(天順) 원년(1457)에 이쪽 지역의 동묘(東苗)가 귀주 묘족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들을 제압하면 다른 묘족들이 따를 것이라고 한 상소도 나올 정도였다. 홍무(洪武) 연간(1368~1398)에 이 지역을 통제하고자 용리위(龍里衛)와 오개위(五開衛)를 설치하였는데 특히 용리는 마치 원주민의 바다에 떠있는 섬과 같은 곳에 위치하여 그후 지속적으로 일어난 원주민의 저항 투쟁시 항상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지점이 되기도 하였다. 청대(淸代)에 용리(隆里)로 이름이 바뀐 이곳은 오늘날 묘족과 동족(侗族)이 주된 주민인 금평현(錦屏縣)에서 ‘용리 고성(古城)’이라는 이름의 관광지가 되어 있다.

다음 안순(安順) 지역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원주민의 저항이 종식되었는데 이는 이곳이 운남으로 가는 중요 교통로에 위치한 까닭에 홍무 시기로부터 대군이 진주하여 여러 곳에 성을 쌓고 주둔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오늘날 안순 지역 관광에 한몫을 하고 있는, 명대로부터 번치 않고 한족(漢族)의 습속(習俗)을 이어 보존해 오고 있다는 이른바 둔보(屯堡)문화를 낳은 원인이 되었다. 홍치(弘治) 11년(1498) 명대 이 지역의 거의 마지막을 장식한 대규모 저항 투쟁인 미로(米魯)의 난이 일어나는데 미로는 절세미인으로 알려진데다가 그녀의 반란

과 관련된 일들이 참으로 드라마틱하여 그야말로 매우 재미있는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 만한 소재를 제공해주고 있다.

도균(都勻) 지역은 흑묘(黑苗)라 불린 묘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어진 지속적인 저항 투쟁도 명조의 골머리를 앓게 한 것이었다. 가정(嘉靖) 15년(1536)에 도균부 남쪽의 평랑(平浪)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후에는 지역 이름을 멸묘진(滅苗鎮)이라고 바꿀 정도였다. 그러나 이곳 이외에도 도균의 중부와 북부 등 각 지역에서 일어난 저항은 명조 말기까지 이어졌다. 특히 사천(四川)과도 그리 멀지않은 현재 준의(遵義) 지역에 해당하는 파주(播州)는 당시 사천에 속했다, 중북부에 위치한 자아(者亞)·요표(天漂) 등 지역은 만력(萬曆) 6년(1578)부터 14년(1586) 경까지 간헐적으로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 후에 도균부 북부에 속하게 되는 향로산(香爐山) 일대의 저항 투쟁은 다음의 평월(平越) 지역에서 서술하고 있다.

평월 지역 동부의 향로산은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되어 있고 정상 부분은 평탄하여 모습이 향로와 같아서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해발 약 1,234m이고 사방 15km에 여러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정통(正統) 연간(1436~1449)부터 이미 묘족의 저항 투쟁의 근거지로 되었다. 이후 향로산을 둘러싼 공방전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치열하게 전개되어 천계(天啓) 4년(1624)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단락을 보게 된다.

석천(石阡) 지역은 원주민의 무장 투쟁 기록이 없어 아주 짝막한 서술로 끝나고 있고, 다음의 신철위(新添衛) 지역은 도균의 서쪽에 남쪽으로 가늘고 길게 자리잡고 있는데 경태(景泰) 연간(1450~1456)까지는 간헐적으로 반란과 진압의 기록이 있다가 그 후로는 소강 상태를 이루었던 듯하다. 그 후 만력 28년(1600) 이후 다시 저항 투쟁이 일어나는데 이는 사천 파주(播州)의 양응룡(楊應龍)의 난을 진압하느라 명조의 힘이 떨어진 때를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순무(巡撫) 곽자장(郭子章)과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병했던 진란(陳璘) 등에게 제압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금축(金筑)안무사(安撫司)는 명조에 계속 공순(恭順)하다가 만력 40년(1612)에 결국 개토귀류(改土歸流)가 이루어졌던 곳이니 이 토사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하다 하겠다.

이상 매우 간략하게나마 귀주 토사전 내용의 윤곽과 특기할 만한 사항을 덧붙였는데 이것으로서도 짐작이 가는 바와 같이 토사전 참자(撰者)는 그 지역 사회의 구조나 실상, 예컨대 토사 제도라든가 제도의 운용 방식, 그리고 주민의 삶의 방식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압도적인 서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처음의 귀양부(貴陽府) 부분, 즉 귀주 선위사에 대해서는 제법 언급이 되어 있어서 토사의 계보도 대체로 알 수 있는 정도이다. 원래 이곳의 토사와 주민은 상기한 바와 같이 오늘날 이족(彝族) 계통의 선조들인데 고대 시기에는 당당한 독립국을 세우고 살아왔다. 당대(唐代)의 남조(南詔)와 송대(宋代)의 대리(大理)가 바로 그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그밖에 여러 국가들이 많았다. 이들 국가는 몽골 제국 시기에 대부분이 멸망하게 되는데, 귀주 선위사의 직계 선조가 세운 국가도 원(元)의 세조(世祖) 쿠빌라이 때에 항복하였다. 그러나 그 통치권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고 원대로부터 시작된 소위 토사제도에 의해서 자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된 대로 명대 귀주 선위사의 계보를 구성해 보면 애취(霽翠) — 그의 처 사향(奢香)[1381] — 아들 안적(安的)[1387] — [안복파(安卜葩) — 안중(安中) — 안취(安聚)] — 안농부(安農富)[1442] — 조카 안관(安觀)[1462] — 아들 안귀영(安貴榮)[1474] — 안좌(安佐)[1501] — 안만중(安萬鍾)[1513] — 종제(從弟) 안만일(安萬鎰)[1521] — 동생 안만전(安萬鈗)[1528] — 안만일의 아들 안인(安仁)[1540] — 안국형(安國亨)[1555] — 안민(安民)[1571] — 동생? 안강신(安疆臣)[1598] — 동생 안요신(安堯臣)[1608] — 안위(安位)[1616]로 이어진다([]속의 인명은 토사전 본문에 없는 것을 보충한 것이다. 그리고 []속의 연도는 즉위한 해이다. 일부 연도는 실록의 기록을 이용하였다. 난을 일으킨 안방언은 바로 안위의 숙부인데 그가 패망한 이후에도 안위는 계속 선위사직을 유지하였고, 승정(崇禎) 10년(1637) 안위가 죽은 후에도 개토귀류는 단행치 못하였다. 귀주 선위사는 후일 청(淸)의 강희(康熙) 37년(1698)에 개토귀류를 당하고 만다.

귀양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개토귀류를 실시한 사남(思南)·사주(思州) 지역 이외에는 토사의 계보를 알 정도의 서술은 거의 없다. 이는 무엇보다 토사가 반란의 주체 세력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찬자(撰者)의 관심이 그리로는 별로 향하지 않았던 것이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귀주 선위사 이외 지역에서의 저항 투쟁의 주된 세력이었던 묘족에 대해서는 토사를 포함하여 그 사회를 엿볼 서술이 별로 없는 것이다. 다만 간간이 친족거리 결혼하는 풍습이라든가 그들 언어의 어휘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위와 같은 서술 방식으로 인하여, 명의 거의 전 시기에 걸쳐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묘족의 끈질긴 저항에 대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한족(漢族)

내지 국가권력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모순 등을 찾아보고자 하면 이 토사전은 극히 제한된 정보밖에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저항 투쟁 사건의 시말(始末)이나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간략하나마 기술하고 있으므로 그 같은 연구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명조가 얼마나 이 지역을 장악하고 지배하고자 했는지 그 집요성과 함께 그것을 낳은 원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할 때도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가 될 것이다.



「귀양·사남 사주부·진원·동인·여평·안순·도군·평월·석천·신첨위 금축안무사부진(貴陽·思南 思州附·鎮遠·銅仁·黎平·安順·都勻·平越·石阡·新添 金築安撫司附傳)」역주

貴州土司
귀주토사

貴州, 古羅施鬼國. 漢西南夷群祠. 武陵諸傍郡地. 元置八番·順元諸軍民宣慰使司, 以羈縻之. 明太祖既克陳友諒, 兵威遠振, 思南宣慰·思州宣撫率先歸附, 卽命以故官世守之, 時至正二十五年也. 及洪武五年, 貴州宣慰霽罕與宋蒙古歹及普定府女總管適爾等先後來歸, 皆予以原官世襲. 帝方北伐中原, 未遑經理南荒, 又田仁智等歲修職貢, 最恭順, 乃以衛指揮僉事顧成築城以守, 賦稅聽自輸納, 未置郡縣.

귀주(貴州)¹⁾는 옛 나시귀국(羅施鬼國)²⁾이다. 한(漢)나라 때는 서남이(西南夷)의 장가(將

- 1) 貴州: 중국 서남 지역에 위치한 쑤의 이름. 貴州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은 宋代이나 그 위치는 불분명하고元代에는 현재의 귀주성 惠水縣 峽哨鄉 지역에 있던 城의 이름이었다(翟玉前孫俊, 2008: 6). 貴州가 省의 이름으로 되는 것은 明 永樂 11년(1413)에 貴州承宣布政使司가 설치된 이후이다.
- 2) 羅施鬼國: 현재 중국의 서남 지역에서 苗族과 함께 양대 소수민족을 이루는 彝族의 선조가 오늘날 귀주의 서쪽 지역에 세웠던 나라이다. 이 나라는 前漢 말기 중국 왕조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蜀漢 시기에 그 수령 火濟(혹은 濟火라고도 하는데, 이는 중국의 호칭이고 자칭은 妥阿則일)가 諸葛亮의 南征에 공을 세워 羅甸國王으로 봉해졌다고 한다. 羅施鬼國(혹은 羅氏鬼國)이란 唐宋시기에 불린 명칭으로 역시 중국의 호칭이고, 그들의 자칭은 무어거(葛俄格)였다고 한다. 후에 원나라에 항복하여 토사가 되는데 元에서는 이사부쉬에(亦奚不薛)라 불렀다(김홍길, 2006: 393~395).

卿)³⁾·무릉(武陵)⁴⁾ 등 군(郡)의 부군 지역이었다.⁵⁾ 원(元)나라 때는 [이곳에] 팔반(八番)·순원(順元) 등 여러 군민선위사사(軍民宣慰使司)⁶⁾를 두어 통제하였다. 명(明) 태조(太祖)⁷⁾가 진우량(陳友諒)⁸⁾과 싸워 이겨 군대의 위력을 멀리 떨쳐자 사남(思南) 선위(宣慰司)⁹⁾·

- 3) 群卿: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설치한 郡의 이름이다. 당시 무제는 戰國시대 무렵부터 오늘날 貴州의 都勻, 福泉, 貴平, 貴定 등 지역에 있던 나라인 且蘭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이 群卿郡을 설치하였다. 郡治는 지금의 貴州 福泉縣 지역에 두었다.
- 4) 武陵: 漢 高祖 5년(전202)에 설치한 郡의 이름이다. 秦代의 黔中郡을 폐지하고 설치하였는데, 관할 지역은 沅江 유역 以西, 貴州省 동부, 湖北省 서남부 일대였고, 郡治는 지금의 湖南省 常德市 일대였다.
- 5) 漢代에 群卿郡은 西南夷 지역 안에 있었지만 武陵郡은 群卿郡의 동쪽에 위치한 荊州刺史 관할이어서 西南夷 지역 범위 안에 있던 것이 아니다. 武陵 대신에 群卿郡의 서쪽에 있었던 犍爲郡을 본문에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데 편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문의 '諸傍郡地'도 '諸郡傍地'도 보아야 뜻이 이해가 되므로 '諸郡傍地'의 誤記가 아닐까 생각된다. 翟玉前·孫俊, 2008: 4~5, 譚其驤 2책, 1982: 31~32 참조.
- 6) 軍民宣慰使司: 元代에 설치한 토司 칭호의 하나이다. 앞에 軍民의 두자를 붙여 이 토사가 軍과 民 양쪽을 다 관할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
- 7) 明太祖: 明을 건국한 朱元璋이다. 그는 元 天曆 원년(1328) 安徽省 鳳陽縣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元 至正 4년(1344)에 淮北 일대에 큰 가뭄이 들었을 당시, 부모와 형이 사망하게 되어 조구지책으로 김석승 행각을 하였다. 그 후 至正 12년(1352)에 郭子興 민란군에 들어가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자신의 세력을 키우게 되었다. 元末 등장했던 陳友諒, 張士誠, 方國珍 등 여러 반란군 지도자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至正 24년(1364)에 스스로 吳王에 올랐다. 이어 至正 27년(1367)에 徐達, 常遇春 등을 이끌고 중원 북벌을 단행해 성공했으며, 1368년 드디어 元 왕조를 몰아내고 明을 개국했다. 개국 후 甲申制를 실시하여 농혼을 인정시키는 한편, 원대의 中官을 폐지하여 제상을 없애고 지방에는 布政使司, 按察使司, 都指揮使司를 설립하여 재정, 감찰, 군사 등의 권한을 분리시키는 등 황제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서 開國 初 국가의 기초를 든든히 다졌다. 이 과정에서 '胡惟庸의 獄'과 같은 원인의 獄事 사건을 일으켜 가혹한 정치를 펼쳤던 군주이기도 하였다. 洪武 31년(1398)에 사망하였다.
- 8) 陳友諒(1320~1363): 元末 농민반란군의 지도자로, 湖北省 沔陽縣 사람이다. 원대 縣吏였던 그는 원 말 紅巾軍의 반란이 일어나자 元 至正 15년(1355) 당시 유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徐壽輝 휘하로 들어가 흥건군이 되었다. 至正 17년(1357)에 倪文俊이란 인물에 서수휘에 반기를 들자 진우량이 그를 죽여 서수휘의 신임을 얻었는데, 至正 19년(1359)에 이르러서는 진우량 자신이 서수휘를 살해하고 漢王이라 자칭하였다. 한때 朱元璋을 압도할 정도로 세력이 강대했지만, 至正 23년(1363) 鄱陽湖 전투에서 朱元璋에게 패하고 본인은 전사하였다.
- 9) 思南宣慰司: 元末 明玉珍이 思州宣慰司 지역을 따로 분리해 설치했으며, 治所는 貴州省 思南縣이었다. 관할 지역은 思南, 德江, 印江, 沿河, 務川 일대였으며,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永樂 연간(1403~1424)에 사남의 宣慰使 田宗鼎과 思州宣慰使 田琛이 서로 대립이 심해지자 永樂 11년(1413) 선위사를 폐지하고 귀주성에 예속시켰다.

사주(思州) 선무(宣撫司)¹⁰⁾가 앞서서 귀부(歸附)해오니 이에 주원장(朱元璋)은 그들에게 본래의 관직을 세습토록 하여 지키도록 했는데, 이때가 지정(至正)¹¹⁾ 25년(1365)이다. 홍무(洪武)¹²⁾ 5년(1372)에 이르러 귀주 선위(宣慰使)¹³⁾ 애취(爨翠)¹⁴⁾와 송몽골말(宋蒙古歹)¹⁵⁾ 그리고 보정부(保定府) 여총관(女總管)¹⁶⁾ 적이(適爾) 등이 잇달아 귀순하니, 모두 원래의 관직으로써 세습하도록 하였다. 홍무제가 마침 중원(中原)을 복벌하던 때라 남쪽 변방을 경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또 전인지(田仁智)¹⁷⁾ 등은 해마다 공물을 마치고 가장 공순하여, 위지휘사(衛指揮僉事)¹⁸⁾ 고성(顧成)¹⁹⁾에게 성을 쌓아 지키도록 하면서 조세를 스스

- 10) 思州宣撫司: 중국 사서에 田氏가 다스리는 思州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唐 貞觀 4년(630)이며, 그 지역 일대에 思鄆水라는 하천이 흘러 思州라 칭했다. 唐代 思州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元 왕조에 이르러 思州軍民宣撫司를 설치했다가 至元 18년(1281) 思州宣慰司로 바꿨다. 당시 治所가 龍泉縣(귀주성 鳳閣縣)이었으며, 역시 永樂 11년(1413) 思州府로 바뀌 귀주성에 예속시켰다.
- 11) 至正: 元 順帝(토근 테무르)의 세 번째 연호로, 1341~1367년까지의 시기이다.
- 12) 洪武: 明 太祖 朱元璋의 연호이다.
- 13) 宣慰使: 唐 憲宗이 潘青節度使 李師道를 평정한 뒤, 潘青 12州에 宣慰使를 두었지만 常制는 아니었다. 元朝가 宣慰使司를 설치하였는데, 宣慰使都元帥府 혹은 宣慰使兼管軍萬戶府라 칭하였고, 軍民의 事務를 관장하며 道를 나누어 郡縣을 관할하였다. 郡縣의 요청을 대신 行省에 전달하고, 行省의 政令을 郡縣에 전달함으로써 行省과 郡縣 사이의 承傳機關이 되었다. 沿邊 地區에 軍旅大事가 발생하면 都元帥府 혹은 元帥府를 겸하거나 管軍萬戶府를 겸하였다. 明代에 소수민족 지구에서는 土官을 기용하였으나, 元代에는 大개 流官으로 임명하였다. 宣慰使司에 宣慰使는 모두 3명 있었는데, 官秩은 從二品이었다. 한편 明代에는 宣慰使가 1명으로서 官秩은 從三品이었다. 黃開華, 1968: 34~35 참조.
- 14) 爨翠: 羅施鬼國 首長의 이름으로 彝族語의 '아이주이'를 음역한 것이다. 明初 朱元璋이 陳友諒과 明玉珍을 꺾으면서 西進하여오자 洪武 5년(1372) 四川의 播州 宣慰使 楊應과 貴州 지역의 鄭彥文, 宋蒙古歹 등이 명에 자진해서 入朝하였는데, 爨翠도 이때 이들과 함께 입조하였다(『太祖實錄』 卷71 洪武 5년 정월 乙丑條). 아이주이(爨翠)는 後漢 초기에 羅施鬼國을 세운 우야나(勿阿納)의 4대손으로 이들의 支派는 彝族語를 번역하여 출판된 『蠻文叢書』(四川民族出版社, 1986, 85~86)에 보인다. 김홍주, 2006: 392~396 참조.
- 15) 宋蒙古歹: 洪武 5년(1372)에 爨翠와 함께 入朝한 貴州宣慰使 同知之 이름. 후에 洪武帝로부터 '蠻'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는다.
- 16) 女總管: 彝族의 관습법에 따르면, 토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녀가 여러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토사의 정실 부인이 대신 정무를 처리하였는데, 여기의 女總管이 바로 그 예이다.
- 17) 田仁智: 본문에서 나온 思南 宣慰使의 이름이다. 뒤의 思南 宣慰司 부분 참조.
- 18) 衛指揮僉事: 명대 군사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衛所制의 衛에 두었던 正4品の 武職이다. 衛의 지휘관은 指揮使(正三品)이고 그 밑에 指揮同知(從三品)와 指揮僉事가 있었다. 이 위소를 統轄하는 것은各省의 都指揮使인데 최고 지휘관인 都指揮使(正二品) 밑에 都指揮同知(從二品), 都指揮僉事(正三品) 등이

로 남부토록 허가하고 郡縣(郡縣)은 설치하지 않았다.

永樂十一年, 思南·思州相仇殺, 始命成以兵五萬執之, 送京師. 乃分其地爲八府四州, 設貴州布政使司, 而以長官司七十五分隸焉, 屬戶部. 置貴州都指揮使, 領十八衛, 而以長官司七隸焉, 屬兵部. 府以下多用土官. 其土官之朝貢符信屬禮部, 承襲屬吏部, 領土兵者屬兵部. 其後府并爲六, 州并爲四, 長官司或分或合, 釐革不一.

영락(永樂)²⁰⁾ 11년(1413)에 사남(思南) [선위사]와 사주(思州) [선위사]가 원한으로 서로 죽이고 싸우자, [영락제가] 고성(顧成)에게 명을 내려 5만의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잡아오게 하니 [고성이 그들을 잡아] 경사(京師)²¹⁾로 보내었다. 이에 그들의 땅을 8부(府) 4주(州)로 나누어 귀주(貴州) 포정사사(布政使司)²²⁾를 설치하고 장관사(長官司)²³⁾ 75개를 나누어서 예

있었다. 都指揮使司는 중앙의 五軍都督府 휘하에 있었고 五軍都督府는 兵部에 속해 있었다.

- 19) 顧成(1330~1414): 字는 景韶이고, 南直隸 揚州府 江都縣 사람이다. 몸집이 거대하고 힘이 셸다고 한다. 朱元璋이 楊子江을 건널 때 뿔서서 호위병사가 되었고, 전투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워 승진하여 右軍都督僉事가 되었다. 洪武 8년(1375)부터 貴州를 지키 10년 동안에 수많은 苗族의 洞寨를 평정하였다. 建文 元年(1399)에 右都督이 되어 耿炳文을 따라 燕王의 군대를 막다가 사로잡혔으나 燕王은 그 결박을 풀어주고 北平으로 보내어 世子를 도와 지키게 하였다. 燕王이 永樂帝로 즉위한 후에는, 공로가 있다하여 鐵違侯에 봉해지고 이원감이 貴州를 지키도록 하였다. 죽은 후 夏國公에 추증되었고 諡號는 武毅이다.
- 20) 永樂: 명 황조 세 번째 황제인 成祖 朱棣의 年號이다.
- 21) 京師: 수도 지역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당시 명의 수도인 南京을 가리킨다. 永樂 19년(1421) 北京을 또 하나의 수도로 건설하기 전에 明初의 수도는 南京이었다. 明代의 행정구역으로 南直隸 應天府에 소속되어 있으며, 長江의 南岸과 맞닿아 있다.
- 22) 布政使司: 명대에 지방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의 이름. 承宣布政使司의 간칭이다. 『明史』 卷75 「職官」 4에는 “承宣布政使司, 左右布政使各一人, 左右參政, 左右參議, 無定員...布政使掌一省之政. 朝廷有德澤禁令, 承流宣播, 以下於有司”라고 되어 있다. 즉, 포정사사는 한 함의 戶口, 경자지 등의 조사와 등재를 포함한 모든 행정을 담당한 것이다. 明初에는 元의 行中書省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洪武 9년(1376)에 浙江, 江西, 福建, 北平, 廣西, 四川, 山東, 廣東, 河南, 陝西, 湖廣, 山西에 포정사사를 두었으며, 永樂 5년(1407)에 文班布政使司를 두었다가 宣德 3년(1428)에 폐지하였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永樂 11년(1413)에 귀주포정사사를 설치해서 결국 전국이 13포정사사가 되었다.
- 23) 長官司: 元代에 처음 설치된 지방관아인데 그 성격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즉 內蒙古, 河北, 河南, 陝西, 甘肅 등지에 설치된 長官司는 오로지 匠戶만을 통할하는 데 비하여 西南의 소수민족 지구에 설치한 蠻夷長官司는 蠻夷를 관할토록 하였다. 후자에는 다루가치(達魯花赤), 長官, 副長官 등을 두었는데, 대부

속시켜 호부(戶部)의 관할하에 두었다. [그리고] 귀주(貴州) 도지휘사(都指揮使)²⁴⁾를 설치하여 18개의 위(衛)를 통솔하고, 장관사 7개를 소속시켜 병부(兵部)의 관할하에 두었다. 부(府) 이하는 토관(土官)²⁵⁾도 혼합하여 임용하였다. 토관의 조공(朝貢)과 부절(符節)²⁶⁾ 인장(印章) 등은 예부(禮部)가 관할하였고, 그 세습과 관련된 일은 이부(吏部)에 속하였으며, 토병(土兵)을 관할하는 것은 병부(兵部)에 속하였다. 그 후 부(府)는 병합하여 여섯 개로 되었고, 주(州)는 병합하여 네 개로 되었는데, 장관사는 때로는 나누고 때로는 병합하여 변동이 많았다.

其地西接滇·蜀，東連荆·粵，太祖於「平滇詔書」言：「竊翠鞞不盡服也，雖有雲南不能守也」，則志已在黔，至成祖遂成之。然貴州地皆崇山深菁，鳥道叢叢，諸蠻種類，

嗜淫好殺，畔服不常。竊翠鞞附之初，請討其隴居部落。帝曰：「中國之兵，豈外夷報怨之具」，及仁智入朝，帝諭之曰：「天下守土之臣，皆朝廷命吏，人民皆朝廷赤子，汝歸善撫之，使各安其生，則汝可長享富貴。夫禮莫大於敬上，德莫盛於愛下，能敬能愛，人臣之道也。」二十一年，部臣以貴州連賦請，帝曰：「蠻方僻遠，來納租賦，是能遵聲教矣。連負之故，必由水旱之災，宜行蠲免。自今定其數以爲常，從寬減焉。」二十九年，清水江之亂既平，守臣以賊首匿宣慰家，宜并罪。帝曰：「蠻人鴟張鼠伏，自其常態，勿復問。」明初御蠻之道，其後世之龜鑑也夫。

이 지역은 서쪽으로는 진(滇)²⁷⁾·촉(蜀)²⁸⁾에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형(荆)²⁹⁾·월(粵)³⁰⁾에 접하고 있다. 태조(太祖)가 『평정조서(平滇詔書)』에서 이르기를, “웨취(竊翠)의 무리가 전부 귀순하지 않으면 비록 운남(雲南)³¹⁾을 차지하더라도 지켜낼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³²⁾ 그 때 이미 검(黔)³³⁾에 뜻이 있었는데 성조(成祖)³⁴⁾에 이르러서 마침내 실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분 土人으로 임명하였다. 明代에 이르러 전자는 폐지하고 후자만을 존속시켜 대개 土官이 세습하는 비교적 低級의 정식 지방정권으로 기능하였다. 湖廣, 四川, 雲南, 廣西, 貴州 등에 설치하였다. 黃國華, 1968: 34~35 참조.

24) 都指揮使: 명대 지방의 최고 군사기구인 都指揮使司의 장관. 『明史』 卷76 「職官5」에 “都指揮使司, 都指揮使一人, 都指揮同知二人, 都指揮僉事四人...都司掌一方之軍政, 各率其衛所以隸於五府, 而聽於兵部”라 기록되어 있다. 관품은 正二品이다.

25) 土官: 중앙 정부에서 파견하는 流官에 대비되는 말로서, 중국 왕조가 오늘날 소수민족 지역에서 대대로 통치해왔던 지배자를 인정해서 그 세습을 허용하면서 임명한 관리들을 지칭한다. 대체로 토사와 토관을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土官은 보통 文官職을, 土司는 武官職을 가리킨다. 소수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던 토관제도는 적어도 漢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며(Claudine Lombard-Salmon, 1972: 47), 宋代 이후 소수민족을 다스리는 그 지역 출신의 관원을 土官이라 불렀다.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명대에 이르러 서북과 서남 지방의 소수민족 지역에 본격적으로 토사제도를 설치했으며, 宣慰使, 宣撫使, 按撫使 등의 武官職과 土知府, 土知縣 등의 文官職을 두고 그 자손들이 세습하도록 허용하였다. 淸 雍正 연간(1723~1735)에 단행된 改土歸流 정책으로 이러한 토관들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26) 符節: 천자로부터 하사받은 符信을 말하는데, 사신임을 확인시켜 주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등장 초기에는 주로 대나무에 글씨 쓰고 증인을 찍어, 두 쪽으로 나눈 다음 각각 보관했다가 후일 그것을 서로 맞춰 증거로 삼았던 물건이다. 부절의 용도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정의 명령이나 군사를 발동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兵符 혹은 한나라 文帝 2년(전178)에 구리로 호랑이 형상으로 만든 銅虎符가 그 예이다. 둘째, 사신들이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先秦시기에 이미 존재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지니고 있다가 유사시 사신을 파견했을 때, 두 쪽을 서로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였다. 명정사대에는 符牌라고 불렀다.

27) 滇: 중국 雲南省의 별칭이다. 雲南省은 중국 서남 지역에 위치한 省으로서, 면적은 약 39만km²이며, 2010년 현재 인구는 약 4,600만 명이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秦始皇이 6國을 통일한 후, 雲南 동북부에 五尺道를 개척했으며, 전109년에 漢 武帝가 犍昌을 파견해서 益州郡과 24개 縣을 개설했다. 三國時代에는 南中이라 불렸으며, 唐宋시기에는 南詔國과 그를 뒤이은 大理國이 존재했던 곳이었다. 1253년에 쿠빌라이가 雲南을 정벌한 후, 1276년에 雲南行省을 설치해 비로소 雲南이란 명칭이 등장했다. 明 太祖 朱元璋도 洪武 14년(1381)에 傅友德 등을 파견해서 이 지역을 정벌해야 할 정도로 중국 내지라는 전혀 이질적인 곳이었으며,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28) 蜀: 四川省을 의미하는 별칭이기도 하고, 三國時代 蜀漢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이다. 촉이 지역 명칭으로 쓰인 것은 周代 四川省 成都 일대에 존재했던 제후국에서 유래한다. 그 후 전316년에 秦나라 惠王에게 蜀이 멸망한 후, 蜀은 秦의 중요한 식량 보급지가 되었다.

29) 荆: 지금의 湖南·湖北省 지역에 상당하는 春秋戰國時代 楚國의 별칭. 여기서는 明代의 湖廣을 가리킨다.

30) 粵: 고대 민족인 百粵이 살던 지역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廣東·廣西 지역을 아우른다. 현재는 廣東省의 별칭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廣西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31) 雲南: 「尚書」 「禹貢」의 梁州 塞外の 지역이다. 元代에 雲南等處行中書省을 설치하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이를 평정하고 雲南等處宣慰使司를 설치하여 府 58·州 75·縣 55·蠻部 6곳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후에는 府 19·慶府 2·州 40·慶州 3·縣 30·宣慰司 8·宣撫司 4·宣撫司 5·長官司 33·慶長官司 2곳을 관할케 하였다.

32) 平滇詔書를 내린 일은 『太祖實錄』 卷141 洪武 15년 정월 甲午條에 보이는데 당시 征南將軍 羅川侯 傅友德과 左副將軍 永昌侯 藍玉, 그리고 右副將軍 西平侯 沐英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른 것이다.

귀주 지역은 모두 높은 산에 죽림이 울창하고 산길은 극히 험악했으며, 험한 산속에서는 음육을 즐기고 살육을 좋아하는 만족 무리들이 반역과 귀순을 반복했다. 예취(鷲鷲)는 처음 귀순했을 때, 그 농거(隴居) 부락(部落)³⁵⁾을 토벌하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르기를, “중원국의 군사들이 어찌 외부 오랑캐들의 보복하는 도구가 되었는가?”라 하였다. 전인지(田仁智)가 조정에 들어오자 황제가 분부하여 이르기를, “천하의 지방을 다스리는 신하는 모두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고, 인민은 모두 조정의 자식들이다. 그대가 돌아가 그들을 잘 위로하여 각자 생업에 안주하게 하면, 그대는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예(禮)에는 임금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덕에는 아래 사람을 아껴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임금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아껴주는 것이 신하로써의 직책인 것이다”고 하였다. [홍무] 21년(1388)에, 호부 신하가 귀주(貴州)에서 조세를 체납한 것 때문에 주청하자 황제가 이르기를, “만족(蠻族)의 지역은 외지고 먼데, 조세를 바치러 오는 것은 성위(聲威)와 교화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체납하는 까닭은 반드시 수해 때문일 것이니 마땅히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액수를 정하여 상례(常例)로 삼고 관대하게 감해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홍무] 29년(1396)에 청수강(淸水江)³⁶⁾의 반란³⁷⁾이 평정된 후, 수신(守臣)³⁸⁾이

- 33)黔: 貴州省의 별칭. 貴州 지역은 옛 詳明國이 있었던 곳이며, 秦 통일 이후 巴郡, 蜀郡, 黔中郡, 象郡 관할로 각각 분할되었다. 적어도 3세기 이후부터 慕俄格, 播勒, 烏蒙, 烏撒, 車里와 같은 다양한 소수민족 정권이 들어섰다는 설명으로 미뤄(John E. Herman, 2007: 24~28) 귀주 지역 일대는 옛날부터 소수민족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다. 전체 인구 구성 중 소수민족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2010년 통계), 이 가운데 苗族, 布依族, 土家族, 仡族, 彝族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 34)成祖: 明 王朝 3대 황제인 永樂帝 朱棣의 廟號이다. 그는 太祖의 넷째 아들로, 성년이 되어 洪武 13년(1380)에 燕王에 봉해졌으며, ‘靖亂의 變’을 통해 建文帝로부터 帝位를 찬탈하여 황제가 되었다. 이후 그는 北元으로의 遷都, 漢北에 대한 대대적인 親征, 南海 遠征 등 수많은 치적을 쌓았다. 그러나 그는 재위한 지 22년만인 1425년, 北征에서 돌아오는 길에 榆木川(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多倫縣 서북부)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文皇帝이며, 廟號는 太宗이었으나 嘉靖 연간(1522~1566)에 成祖로 廟號를 바꾸었다. 그의 陵은 長陵이다.
- 35)隴居 部落: 貴州 宣慰使司의 예하에는 13則溪가 있고 그 밑에 48부가 있었는데 隴居 部落는 48部 중의 하나이다. 則溪란 원주민어로 창고라는 뜻인데 행정구역 명칭이 된 것이고 그 밑에 혈족의 지파로 구성된 48개의 部가 있었고 그 우두머리를 중국에서는 土目이라고 불렀다. 김홍길, 2005: 12 참조.
- 36)淸水江: 淸水라는 이름이 붙은 강은 여러 곳에서 보이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貴州省 都勻에서 시작해 湖南省 沅水로 흘러 들어가는 459km 길이의 강이다. 重安江이 청수강의 북쪽 水源이라면, 남쪽 수원인 都勻의 서북 지역과 貴定縣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牛蓬山이다. 天柱縣 金子 부근에서 湖南省으로 들어간다. 청수강은 예로부터 귀주와 호남성을 잇는 중요한 河川路였으며, 특히 귀주성 동부 지역 일대

도적 우두머리가 선위사(宣慰使)의 집에 숨은 일³⁹⁾로 마땅히 [선위사도] 함께 죄를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르기를, “만족들은 때론 올빼미와 같이 크게 소란을 떨다가 때론 쥐와 같이 숨는 것이 늘 있는 일이니, 다시 문책하지 마라”고 하였다. 아! 명(明)나라 초년에 만족을 다스린 방법은 후세의 귀감이 될진저!

貴陽

귀양

貴陽府, 舊爲程番長官司. 洪武初, 置貴州宣慰司, 隸四川. 永樂十一年改隸貴州. 成化十二年置程番府. 隆慶三年移程番府爲貴陽府, 與宣慰司同城, 府轄城北, 司轄城南. 萬曆時, 改爲貴陽軍民府. 傾安撫司一, 曰金築; 領長官司十八, 曰貴竹, 曰麻向, 曰木瓜, 曰大華, 曰程番, 曰韋番, 曰方番, 曰洪番, 曰臥龍番, 曰金石番, 曰小龍番, 曰羅番, 曰大龍番, 曰小程番, 曰上馬橋, 曰盧番, 曰廬山, 曰平伐. 其貴州宣慰司所領長官司九, 曰水東, 曰中曹, 曰青山, 曰劄佐, 曰龍里, 曰白納, 曰底寨, 曰乖西, 曰養龍坑.

귀양부(貴陽府)는 과거에는 정방(程番) 장관사(長官司)였다.⁴⁰⁾ 홍무(洪武) 초년에 귀주(貴

- 州)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목재는 이 하천을 따라 외부로 나갔다. 이 지역 일대 삼림 재배와 그 판매 실상을 알려주는 이른바 淸水江 文書 혹은 錦屏 文書라 부르는 다량의 계약 문서가 발견되어 이 지역의 실상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김홍길, 2009: 110 참조). 그러나 여기의 淸水江은 유명한 이 淸水江이 아니라 그 보다 북쪽의 銅仁地區를 흐르는 烏江의 한 지류를 가리킨다.
- 37) 淸水江 反亂: 貴州 淸水江 유역의 토착민 金牌黃이 일으킨 반란. 洪武 29년(1396) 貴州都司에 의해 진압되어 金牌黃은 달나 종적을 감추었다(『太祖實錄』卷244 洪武 29년 정월 乙酉條). 그리고 여기의 淸水江은 물론 원주에서 말한 烏江의 지류이다.
- 38) 守臣: 각 지역을 지키고 다스리는 臣下, 즉 각 省의 巡撫, 布政使, 都事 등 鐵道官을 일컫는다.
- 39) 반란이 일어난 淸水江이 烏江의 지류 지역이라 이곳을 다스린 宣慰는 宣慰使가 아니라 宣慰同知인 宋氏였다. 따라서 반란을 일으킨 金牌黃이 숨어들은 곳도 宋氏家였다. 이는 본문의 貴陽府 부분에도 나오지만 다음과 같은 실록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貴州都指揮使司言, 近發兵討淸水江作亂蠻民, 惟賊首金牌黃未獲. 今廉知宦士官宣慰宋滅家, 誠不捕送, 請俱罪之.”(『太祖實錄』卷246 洪武 29년 8월 辛丑條).
- 40) 程番長官司: 元 至元 16년(1279) 順元路宣慰司를 설치해 播州行省에 예속시킬 당시, 서남 지역의 여러

州) 선위사(宣慰司)⁴¹⁾를 설치하여 사천(四川)⁴²⁾에 예속시켰다. 영락(永樂) 11년에 바꾸어 귀주(貴州)에 소속시켰다. 성화(成化)⁴³⁾ 12년(1476)에 정번부(程番府)를 설치하였다.⁴⁴⁾ 융경(隆慶)⁴⁵⁾ 3년(1569)에 정번부(程番府)를 귀양부(貴陽府)로 옮기니 선위사(宣慰司)와 성(城)이 갈아져서, 부(府)는 성의 북쪽을 관할하고 사(司)는 성의 남쪽을 관할하였다. 만력(萬曆)⁴⁶⁾ 연간(1573~1619)에 귀양(貴陽) 군민부로 바꾸었다. 안무사(安撫司)⁴⁷⁾ 하나를 관할했는데 이름은 금죽(金筑)이었고, 장관사는 18개를 관할했으나⁴⁸⁾ 이름은 귀죽(貴竹), 마향(麻向), 목과(木瓜), 대화(大華), 정번(程番), 위번(韋番), 방번(方番), 흥번(洪番), 와룡번(臥龍番),

소수민족이 안撫司를 제수받았는데, 大龍番, 小龍番, 臥龍番, 洪番, 定番, 石番, 盧番, 韋番이었으며, 그것을 이른바 八番이라 했다. 팔번 가운데 하나였던 定番司를 제수받은 시기는 順元宣慰司 蕭黎와 同知 宋蒙古歹 등이 歸附했던 洪武 5년(1372)의 일이다.

- 41) 宣慰司: 宣慰使司의 약칭이다. 宣慰使司는 元代에 行省과 州 사이에 있는 군사적인 감찰기구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는 軍民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장관은 宣慰使였고 軍政의 최고 책임자였다. 宣慰司는 元代에 전국적으로 설치되었고, 명청시대에는 소수민족 지역에 설립되어, 그 이전에 비해 숫자가 줄어들었다. 전말리안은 각 행정시 성에 60개의 선위사를 설치하였고, 각 선위사는 대략 180개의 길을 관할하였다. 지역의 宣慰司에는 宣慰使 3명(從二品), 宣慰司同知 1명(從三品), 副使 1명(正四品), 經歷과 都事 등의 관원을 두었다. 명대에는 宣慰使를 1명을 두고 관품도 從三品이 되었다. 주13도 참조.
- 42) 四川: 『尙書』 『禹貢』의 梁·荆 二州의 지역이다. 元代에는 四川等處行中書省과 羅羅蒙處等處宣慰司를 두었는데, 雲南行中書省에 속하였다. 洪武 4년(1371)에 明夏정권의 明拜를 평정하고, 다음 달에 四川等處行中書省을 설치하였다. 招討司 1·宣慰司 2·安撫司 5·長官司 22개 및 諸衛所를 관할하였다.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고, 府 13·直隸州 6·宣撫司 1·安撫司 1·屬州 15·縣 111·長官司 16곳을 관할하였다.
- 43) 成化: 명조 제9대 황제인 憲宗 朱見深의 연호이다.
- 44) 『憲宗實錄』 卷154 成化 12년 7월 壬子條 참조. 다만 청대 발간된 지방지에는 定番長官司 지역에 定番府가 설치된 시기가 成化 10년(1474)으로 기록되어 있다. 乾隆 『貴州通志』 卷3 『地理』(建圖) 참조.
- 45) 隆慶: 명조 제13대 황제인 穆宗 朱載堉의 연호이다.
- 46) 萬曆: 명조 제14대 황제인 神宗 朱翊鈞의 연호이다.
- 47) 安撫司: 元代에 四川과 湖廣 등 소수민족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한 官署이다. 각 司에 두루가치 1명(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음), 安撫使 1명을 두었고, 그 밑으로 同知, 副使, 僉事, 經歷, 知事 등의 관직이 있었으며, 그 외에 또 照磨, 鑑樵 등도 추가로 두었다. 명청시대에도 安撫使司를 두어 安撫使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 48) 金筑安撫司는 宋代 南寧州에 해당했던 지역으로서, 元代 金竹府가 설치되어 順元等路에 예속되었던 곳이다. 洪武 4년(1371) 金筑長官司로 바뀌었으며, 洪武 10년(1377) 安撫司로 승격했다. 이 지역이 귀주성 관할로 편입된 시기는 正統 10년(1445)이었으며, 成化 11년(1475) 정번부로 되었다가 隆慶 2년(1568) 貴陽府로 바뀌었다.

금석번(金石番), 소룡번(小龍番), 나번(羅番), 대룡번(大龍番), 소정번(小程番), 상마교(上馬橋), 노번(龍番), 노산(廬山), 평벌(平伐)이었다. 귀주(貴州) 선위사가 관할하는 장관사는 9개였는데 이름은 수동(水東),⁴⁹⁾ 중조(中曹),⁵⁰⁾ 청산(青山),⁵¹⁾ 차라(剉佐),⁵²⁾ 용리(龍里),⁵³⁾ 백납(白納),⁵⁴⁾ 저채(底寨),⁵⁵⁾ 괴사(乖西),⁵⁶⁾ 양용갱(養龍坑)⁵⁷⁾이었다.

自蜀漢時，濟火從諸葛亮南征有功，封羅向國王。後五十六代爲宋普貴，傳至元阿蓋，

- 49) 水東: 貴州省 중부에서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흘러가는 烏江의 상류 지류인 鴨池河를 경계로 그 동쪽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貴陽市 동쪽의 龍里縣·貴定縣과 동북쪽의 開陽縣 등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元代에는 水東蕃長官司가 설치되었다. 洪武 5년(1372) 土酋 向四가 귀부해서 水東長官司를 제수하였다. 顧祖禹, 『讀史方輿紀要』 卷121 참조. 이하 貴州宣慰司 관할의 長官司는 顧祖禹, 『讀史方輿紀要』 卷121에 근거하였다.
- 50) 中曹: 貴陽府 동남쪽 30리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元代의 白納縣 阿蓋寨 일대 지역이며, 白納等處長官司가 있었다. 明 洪武 5년(1372)에 土酋 謝石寶와 劉體賓이 귀부해 中曹長官使를 제수하였다.
- 51) 青山: 貴陽府 동북쪽 40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元代에 青山遠地等處蠻夷軍民長官司가 있던 곳이다. 洪武 5년(1372)에 土酋 蔡箭과 劉士眞이 귀부해 설치하였다.
- 52) 剉佐: 貴陽府 북쪽 50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원대에 落邦箭佐等處長官司가 있었으며, 明 洪武 5년(1372)에 土酋 宋文忠이 귀부해 설치되었다.
- 53) 龍里: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貴州省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북부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명대에는 貴州 宣慰司, 清代에는 貴陽府 관할하에 있었다. 龍里라는 명칭은 元 至元 20년(1283)에 처음 등장하였고, 明 洪武 23년(1390)에 龍里衛를 설치해서 貴州都指揮使 관할 하에 두었으며, 淸 康熙 21년(1682)에 貴陽府에 예속되었다.
- 54) 白納: 貴陽府 동쪽 50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元代에 茶山白納等處長官司가 있었으며, 明 洪武 初年 中曹司로 편입되었다. 永樂 4년(1406)에 장관사를 회복시켰으며, 土酋 周可敞이 귀부해 설치되었다.
- 55) 底寨: 貴陽府 북쪽 100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元代에 底寨長官司가 설치된 지역이다. 洪武 5년(1372) 土酋 蔡永昌이 귀부해 설치했다.
- 56) 乖西: 貴陽府 동북쪽 150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元代에 雍眞乖西葛蠻等處長官司가 설치된 지역이다. 洪武 5년(1372) 土酋 楊文眞이 귀부하면서 설치되었다.
- 57) 養龍坑: 貴陽府 북쪽 225리에 위치해 있으며, 元代 養龍坑循徵等處長官司가 있었던 지역이다. 洪武 5년(1372)에 土酋 蔡普化가 귀부해 설치했다. 한편 양용갱이라는 지역은 장관사 옆에 위치한 협곡으로서 그 사이로 깊은 물이 흘러 이른바 용이 산다고 알려진 곳이다. 이른 봄 그 옆에 알소과 말을 방목했으며, 龍駒라 부르는 말이 생산된 곳이다. 참고로 소수민족 지역에서 나온 말은 명 왕조에게 매우 귀중한 품목이었으며, 그만큼 소수민족 지역의 말이 매우 우수했다. 이에 관해서는 嚴如煜, 『苗防備覽』 卷8과 Claudine Lombard-Salmon, 1972: 126 참조.

世有土於水西宣慰司。竊翠，其裔也，後爲安氏。洪武初，同宣慰宋蒙古歹來歸，賜名欽，俱令領原職世襲。及設布政使司，而宣慰司如故。安氏領水西，宋氏領水東，八番降者，皆令世其職。六年詔竊翠位各宣慰之上。竊翠每年貢方物與馬，帝賜錦綺鈔幣有加。十四年，宋欽死，妻劉淑貞隨其子誠入朝，賜米三十石·鈔三百錠·衣三襲。時竊翠亦死，妻奢香代襲。都督馬驥欲盡滅諸羅，代以流官，故以事撻香，淑爲兵端。諸羅果怒，欲反。劉淑貞聞止之，爲走愬京師。帝既召問，命淑貞歸，招奢，賜以綺鈔。十七年，奢香率所屬來朝，并訴驛激變狀，且願效力開西鄙，世世保境。帝悅，賜香錦綺·珠翠·如竟冠·金環·襲衣，而召驛驛，罪之。香遂開偏橋·水東，以達烏蒙·烏撒及容山·草塘諸境，立龍場九驛。二十年，香進馬二十三匹，每歲定輸賦三萬石。子安的襲，貢馬謝恩。帝曰：「安的居水西，最爲誠恪。」命禮部厚賞其使。二十五年，的來朝，賜三品服并襲衣金帶·白金三百兩·鈔五十錠。香復遣其子奢勛助及其部長來貢馬六十六匹，詔賜香銀四百兩，錦綺鈔幣有差。自是每歲貢獻不絕，報施之隆，亦非他土司所敢望也。二十九年，香死，朝廷遣使祭之，的貢馬謝恩。

촉한(蜀漢)⁵⁸⁾ 시기부터 제화(濟火)⁵⁹⁾는 제갈량(諸葛亮)을 따라 남정(南征)을 하여 공이 있어 나진국왕(羅甸國王)으로 봉해졌다. 그 후 56대는 송대(宋代)의 보귀(普貴)이고 그 후 원대(元代)에 이르러 아화(阿書)로 전해졌으며, 대대로 수서(水西)⁶⁰⁾ 선위사(宣慰司)의 영토

- 58) 蜀漢: 三國時代 때 前漢 景帝의 후손 玄德 劉備가 蜀(지금의 四川省) 지역에 세운 나라이다. 漢 皇室의 후예가 세운 마지막 한나라이기에 季漢이라고도 불린다. 220년에 漢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던 魏王 曹조가 獻帝를 내쫓고 帝位를 찬탈하자, 당시 益州와 漢中을 점거하고 있던 劉備가 漢 왕실의 후예라는 정통성을 내세워 이들에게 황제임을 선언하고, 國號를 漢이라 하였다
- 59) 濟火: 귀족이 사족에 있던 羅施鬼國(자칭은 무어계(慕俄格)) 수장의 이름이다. 火濟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자칭은 安阿則이다. 濟火는 蜀漢 諸葛亮의 南征 때 공을 세워 '羅甸國王'으로 봉해진 일이 유명하다. 羅施鬼國(혹은 羅氏鬼國)은 후연 唐宋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불려진 명칭이다. 그들은 현재 彝族의 선조로, 오늘날 중국의 서남 지역에 苗族과 함께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의 하나이다.
- 60) 水西: 貴州 彝族의 土官이 管轄한 지역이다. 처음에는 四川 소속이었으나, 永樂 11년(1413)에 貴州로 예속되었다. 水西 彝族의 遠祖는 古代 서북의 氐·羌族의 한 支派였는데 지금의 貴州 경내로 轉入하였다. 蜀漢 시기에 그 수명 火濟(혹은 濟火라고도 하는데, 彝族의 명칭은 安阿則)가 諸葛亮의 南征에 공을 세워 '羅甸國王'으로 봉해졌다. 이후 역대의 中原 왕조와 연계를 유지하여, 唐宋 시기에는 '羅施鬼國'

였다. 에취(霽翠)는 그 후에인데, 후에 안씨(安氏)가 되었다.⁶¹⁾ 홍무(洪武) 초년에 선위사(宣慰司) 송몽골알(宋蒙古歹)과 함께 귀순하였는데, 송몽골알은 흥(欽)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고 모두 원대 직위를 세습하도록 명을 받았다. 포정사사(布政使司)를 설치하였고, 선위사(宣慰司)도 예전과 같았다. 안씨(安氏)는 수서(水西)를 관리하고, 송씨(宋氏)는 수동(水東)을 관리하였다. 여덟 개의 번에서 귀순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원대 직무를 세습하도록 명을 받았다. [홍무] 6년(1373)에 조서(詔書)⁶²⁾를 내려 에취(霽翠)의 직위를 각 선위사(宣慰使)들보다 높이도록 했다. 에취(霽翠)는 해마다 토산물과 말을 공물로 바치니, 황제는 더 많은 금기(錦綺)⁶³⁾와 조폐(鈔幣)⁶⁴⁾를 그에게 하사했다. [홍무] 14년(1381)에 송흥(宋欽)이 죽자 부인 유숙정(劉淑貞)이 그의 아들 송성(宋誠)을 따라 조정에 들어와서 쌀 30석(石)·초(鈔) 300경(錠)·옷 세 벌을 하사 받았다. 그때 에취(霽翠)도 또한 죽어서 부인 사양(奢香)⁶⁵⁾이 그를 뒤이

혹은 '羅氏鬼國'으로 칭해졌다. 관할 지역은 지금의 貴州省 서부와 중부에 걸쳐 있는데, 烏江 상류의 鴨池河를 경계로 水東, 水西로 나뉘고, 治所는 水西에 속하는 지금의 大方縣城이다. 元代에는 水西를 亦西不詳總管府로 고쳐 水西 首領 阿察를 總管으로 삼으면서 처음으로 土司制度를 수립하였다. 그 후로 宣撫使 직위를 세습하여 黔의 西北에서 黔中 일대의 최고 土官이 되었다.

- 61) 에취가 洪武 5년(1371) 명에 歸附하자 주원장이 安氏를 하사하였다. 주 14 참조.
- 62) 詔書: 황제가 관리와 천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문서로 말한다. 周代에는 君臣 모두가 "조서"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秦이 천하를 통일한 후, 진시황이 자신을 이른바 "삼황의 덕을 겸비하고, 공은 五帝보다 드높다(德兼三皇, 功高五帝)"라는 건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칭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詔'라 부르게 되었다. 唐宋 시기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元代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明代에는 조서를 이용하여 중대한 명령을 발표하거나 신하들을 훈계했다. 명대에 황제가 반포하는 문서에는 詔·諭·敕·勅·勅·勅·冊文·諭·諭·書·令·符·檄·批答·敕書 등이 있었다. 詔는 중대한 政令을 천하의 臣民에게 포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 63) 錦綺: 여러 빛깔로 무늬를 넣은 직물을 일컫는다.
- 64) 鈔幣: 고대의 지폐를 일컫는데 여기서는 明代의 법정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明朝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舉司를 설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통행시켰다. 秦檜, 즉 팽나무 가지껍질로 만든 선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였고, 높이는 1리, 폭은 6리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옹의 문양과 꽃무늬였다. 황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라 쓰고, 그 안의 상반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썼다. 가운데에는 동전꾸러미를 그려 넣었는데,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급은 모두 여섯으로 1관, 500문, 400문, 300문, 200문, 100문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전담케 했으나, 中書省이 철폐된 뒤에는 戶部에서 발행하도록 하였다. 보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禱 등, 2008: 314~319 참조.
- 65) 奢香(1361~1396): 四川 남쪽의 彝族土司 永寧宣撫司(지금의 四川 叙永縣) 拉勒都 君長의 가정에서 태어나 洪武 8년(1375) 14살 때 貴州宣慰使 霽翠에게 시집갔다. 洪武 14년(1381)에 霽翠가 죽었는데

세습하였다. 도독(都督)⁶⁶ 마염(馬驥)은 여러 나라(羅羅)⁶⁷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관(流官)⁶⁸으로써 대신 다스리게 하려고, 일부러 사향(奢香)에게 매를 때려 그들을 격노하게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다. 여러 나라족들은 과연 정말로 노하여 반기를 들려하였다. 유숙정(劉淑貞)이 이를 듣고서 그들을 제지하고 경사(京師)로 달려가 호소하였다. 황제는 [그녀를] 불러 알아보고 나서 유숙정(劉淑貞)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사향(奢香)을 부르게 하고는 [그녀에게] 비단과 돈을 하사하였다. [홍무] 17년(1384)에 사향이 예하 무리들을 이끌고 조정에 와 마염(馬驥)이 변란을 유도했던 상황을 호소하고, 서부 변경(邊疆)을 개척하는데 충성하고 대대로 변경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황제는 기뻐하며 사향에게 금기(錦綺)·주취(珠翠)·여의관(如竟冠)·금환(金環)·습의(襲衣)⁶⁹를 하사했고, 마염(馬驥)을 소환하여 징벌하였다. 사향은 마침내 편교(偏橋)⁷⁰·수동(水東)을 개척하고 오몽(烏蒙)⁷¹·오산(烏

- 아들이 여러 쑹족이 그 뒤를 이어 貴州宣慰使가 되었다. 洪武 29年(1396)에 쑹족이 족자 朱元璋은 쑹족에게 “大明順天師”이라 칭호를 내리고 사자를 보내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현재 貴州省 畢節地區 大方縣에 쑹족의 묘가 조성되어 있고 동상이 서 있으며 墓園 내에 彝族的 문물을 전시한 奢香 博物館이 있다.
- 66) 都督: 明代 전국의 군대를 통괄하는 五軍都督府의 長을 말한다. 左·右都督이 있으며, 品階는 正一品이고, 그 밑에 從一品인 都督同知와 正二品인 都督僉事가 이를 보좌하였다.
- 67) 羅羅: 彝族的 전근대 시대의 호칭. 元代의 烏蠻 諸部는 대부분 자신의 部族 이름을 따르 갖고 있었는데 羅羅란 이들의 統稱이었다. 南詔 烏蠻의 일곱 部落 가운데 鹿蠻濮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는데 여기서 羅羅란 명칭이 유래하였다. 몽골인들은 이 명칭 뒤에 ‘스’라는 복수의 의미를 붙였는데 이것을 漢語로 음역하면 羅羅斯이다. 四川 涼山自治州 및 西昌地區에 羅羅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원래에는 여기에 羅羅斯宣慰司를 설치하였다. 烏蒙, 烏撒 地區도 역시 羅羅인의 集中居住地이다. 당시 농업은 대체로 刀耕火種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 68) 流官: 明清時代 四川, 雲南, 貴州, 廣西 等省의 少數民族이 集居하는 地區에 중앙정부가 임명한 행정관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들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하여 임기가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절에서 새습하는 土官과는 다르기 때문에 流官이라고 칭하였다.
- 69) 襲衣: 고대에 예의를 행할 때 곁에 입는 상의이다.
- 70) 偏橋: 지금의 貴州省 施秉縣 동쪽에 위치하며, 雲南에서 貴陽을 거쳐 河南으로 통하는 要道이다. 元至元 연간(1264~1294)에 偏橋·德勝·施秉·前江等處 蠻夷長民官司를 설치하였다. 明 洪武 5년(1372)에 偏橋 일대에 偏橋長官司를 설치하고, 前江 일대에는 施秉蠻夷長官司를 설치하였다. 洪武 23년(1390)에 偏橋衛를 설치하였고, 正統 3년(1438)에 鎮遠府에 편입시켰다. 또한 施秉蠻夷長官司는 正統 8년(1443)에 施秉縣으로 바꾸었다. 天啓 元年(1621)에는 縣을 폐지하였으나 崇禎 4년(1631)에 다시 施秉縣을 설치하였다. 淸 康熙 26년(1687)에는 偏橋衛를 철폐하여 施秉縣에 편입하고 縣의 治所를 이전의 偏橋衛城으로 옮겼다.
- 71) 烏蒙: 당시 四川에 속했던 烏蒙軍民府를 가리킨다. 지금은 雲南省의 昭通市이다.

撒)⁷² 및 용산(容山)⁷³·초당(草塘)⁷⁴ 등의 경계에 도달하였으며, 용장(龍場)의 아홉 역(驛)⁷⁵을 설립하였다. [홍무] 20년(1387)에 사향(奢香)은 말 23필을 진상하고 해마다 3만 석을 정액으로 하여 조세를 바쳤다. 아들 안적(安)이 세습하고서 말을 공물로 바쳐 사은하였다. [이에] 황제가 이르기록, “안적(安)은 수서(水西)에 있으면서도 가장 충성스럽고 공손하다”고 하면서 예부(禮部)에 명하여 그의 사자에게 후한 상을 내리도록 하였다. [홍무] 25년(1392)에 안적이 내조하자, 삼품(三品)의 관복과 습의(襲衣)·금대(金帶)⁷⁶·백금 300냥·초(鈔) 50정(錠)을 하사하였다. 사향(奢香)이 또 그의 머느리 사조(劬助)와 그 부장을 보내 말 66필을 공물로 바치니, [황제는] 조서를 내려 사향에게 은(銀) 400냥을 하사하고, 금기(錦綺)와 초폐(鈔幣)를 차등하여 하사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조공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상을 하사 받았는데, 이것은 다른 토사들이 감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홍무] 29년(1396)에 사향이 죽자 조정에서는 사자를 보내 그녀를 제사 지내주었고, 안적(安)은 말을 바쳐 사은하였다.

- 72) 烏撒: 당시 四川에 속했던 烏蒙軍民府를 가리킨다. 현재는 貴州省 畢節地區 威寧彝族苗族自治縣이다. 前漢 이래 淸初까지 1,200여 년 동안 彝族들은 水西와 烏撒의 두 개의 정권을 수립하고 있었다. 烏撒部 彝族政權의 세력 범위는 지금의 雲南 鎮雄縣, 貴州 威寧縣, 赫章縣 일대에 걸쳐 있었다. 烏撒이라는 명칭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명과 관계가 있다. 彝族들의 여섯 갈래 分支 가운데 다섯 번째 支系인 慕克克的 第24世 孫인 默運俄索이 族人들을 이끌고 이 땅에 정착하자 후손들이 그를 기려서 그의 이름으로 지명과 부족명을 삼았다. “默運俄索”의 漢語 譯音이 “物叙, 烏撒, 五叙”이다.
- 73) 容山: 지금의 貴州省 遵義市 湄潭縣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다. 당시에는 播州 土司 楊氏의 관할하에 있어서 四川에 속해 있었다.
- 74) 草塘: 지금의 貴州省 貴陽市 修文縣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다.
- 75) 龍場九驛: 쑹족이 朱元璋을 만나고 돌아온 후 각 부족을 이끌고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草塘(貴州 修文縣)으로부터 大方縣(貴州 畢節地區)에 이르는 길을 내고 건설한 9개의 역이다. 각 역의 이름은 龍場驛(貴州 貴陽市 修文縣)·六廣驛(修文縣 六廣鎮)·穀里驛(貴州 黔西縣 谷里鎮)·水西驛(黔西縣城 東南)·西溪驛(일명 奢香驛, 黔西縣城 남쪽)·金鷄驛(西溪 奢香 大方縣 境계)·團鵲驛(大方縣 大寨鄉)·歸化驛(大方縣 雙山鎮)·畢節驛(畢節地區 畢節市)이다. 龍場驛은 후일 王陽明이 驛조으로 좌천되어 와서 道를 깨친 이른바 ‘龍場悟道’도 유명하다.
- 76) 金帶: 명대에는 품계나 지위에 따라 허리띠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朝會時 복장은 公服을 착용하였으며, 腰帶도 一品은 紫玉帶, 二品은 紫犀帶, 三品·四品은 紫金帶, 五品은 紫角帶, 六品·七品은 緋角帶, 八品·九品은 緋角帶를 착용했다(『明集禮』 卷39 「冠服」 참조).

正統七年，水西宣慰隴富自陳：「祖父以來，累朝皆賜金帶。臣蒙恩受職，乞如例。」從之。是時，宋誠之子斌年老，以子昂代，昂死，然代，十四年賜敕隴富母子，嘉其調兵保境之功。隴富頗驕。天順三年，東苗之亂，富不時出兵，聞朝廷有意督之，乃進馬謝罪，賜敕警之。富死，侄觀襲。觀老，子貴榮襲。巡撫陳儀以西堡獅子孔之平，由觀與子貴榮統部衆二萬攻白石崖，四旬而克，家自饋餼，口不言功，特給觀正三品昭勇將軍誥。

정통(正統) 77) 7년(1442)에 수서(水西)의 신위(申) 안농부(安隴富) 78)가 스스로 말하기를, “선조 때부터 역대 조정에서 모두 금대(金帶)를 하사 받았습니니다. 79) 신(臣)도 은혜를 입어 직무를 세습하였으니 관례대로 상을 내려 주시기를 청합니다.”고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80) 그 때 송성(宋誠)의 아들 송빈(宋斌)은 나이가 들어 그의 아들 송양(宋昂)이 대를 이어 세습하였다. 송양(宋昂)이 죽자 송연(宋然)이 세습하였다. [정통 14년(1449)에 안농부 모자에게 칙서를 내려보내 그들이 병력을 징발하여 변경을 지키는 공로를 칭찬하였다. 81) [이에] 안농부는 매우 오만해졌다. 천순(天順) 82) 3년(1459)에 동묘(東苗) 83)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77) 正統: 명 왕조 6대 황제인 英宗 朱祁鎮의 年號이다.

78) 安隴富(?~1462): 水西 출신의 貴州 宣慰使이며, 安聚의 아들로, 蕭琴의 5대손이다.

79) 여기서 祖父는 선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 명조로부터 金帶를 처음 하사받은 것은 蕭琴의 아들인 귀주 선위사 安的의 때이니 安隴富의 4대조가 된다. 『太祖實錄』 卷217 洪武 25년 5월, 辛巳條에 貴州 水西 宣慰使 安의가 來朝하여 말을 바치니 이에 三品の 公服과 비단 옷 金帶, 그리고 은 300兩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80) 이 기사는 『英宗實錄』 卷88 正統 7년 정월 甲申條에 나온다.

81) 『英宗實錄』 卷186 正統 14년 12월 丁巳條 참조.

82) 天順: 명 왕조 8대 황제인 英宗 朱祁鎮의 두 번째 年號이다. 영종은 명 왕조 6대 황제였지만 ‘土木堡의 변’으로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生還하여, 天順 원년(1457)에 이른바 ‘奪門의 변’이라는 政變을 통해 景泰帝를 이어 8대 황제로 재차 즉위하였고, 이때 天順이라는 年號를 새롭게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洪武帝 이래 1世 1元制가 확립되어 명 왕조의 황제는 각기 하나만의 연호를 제정해 사용했지만, 이와 같이 英宗은 황제에 두 차례나 즉위했기 때문에 명칭시대 황제 가운데 유일하게 ‘正統’과 ‘天順’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83) 東苗: 자칭 乞蒙이라고 하는데, 史書에서는 東苗라는 명칭 외에 養鴨苗, 養鴨吃兒 혹은 鴨子苗 등으로 기재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貴陽, 修文, 龍里, 淸鎮, 長順 일대에 살고 있었으며, 오리를 기르는데 익숙했다. 아울러 매년 봄에 산으로 사냥을 나가 잡은 鳥類를 조상에게 바치는 독특한 풍습을 지니고 있었다

안농부가 때에 맞춰 출병하지 않았는데, 조정에서 그를 책벌하려는 뜻이 있는 걸 듣고는 이에 말을 바쳐 사죄하니, [황제가] 칙서를 내려 경고하였다. 안농부가 죽자 조카 안관(安觀)이 세습하였다. 84) 안관이 나이가 들자 아들 안귀영(安貴榮)이 세습하였다. 85) 순무(巡撫) 86) 진의(陳儀)가 서보(西堡) 87) 사자공(獅子孔)을 평정할 때에, 안관과 아들 안귀영이 2만 명의 군사를 통솔하여 백석(白石崖)를 공격했기 때문에 40일 만에 이길 수 있었는데, 자신들의 집에서 군량도 냈지만 스스로 공로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안관(安觀)에게 특별히 정삼품(正三品) 소용장군(昭勇將軍) 88)을 봉하였다.

初，安氏世居水西，管苗民四十八族，宋氏世居貴州城側，管水東·貴竹等十長官司，皆設治所於城內，衙列左右。而安氏掌印，非有公事不得擅還水西。至是總兵官爲之請，許其以時巡歷所部，趣辦貢賦，聽暫還水西，以印授宣慰宋然代理。貴榮老，請以子佐襲，命賜貴榮父子錦符。

당초에 안씨(安氏)는 태대로 수서(水西)에 거주하며 묘민(苗民) 48족(族)을 관리했고, 송씨(宋氏)는 귀주(貴州) 성 옆에 거주하며 수동(水東)·귀죽(貴竹) 등 10개의 장관사(長官司)를

『黔記』 卷3 참조), 본문의 내용은 天順 2년(1458)에 東苗의 수령 干把諸營이 왕을 청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귀주의 龜甸을 공격하고, 明軍을 살해했던 사건에 대한 트윗을 말한다.

84) 이는 天順 6년(1462) 때의 일이다. 『英宗實錄』 卷347 天順 6년 12월 壬午條 참조.

85) 이는 成化 10년(1474) 때의 일이다. 『憲宗實錄』 卷129 成化 10년 6월 丁丑條 참조.

86) 巡撫: 본래는 지방을 巡視하면서 그 지역의 按撫를 담당했던 임시관원이었다. 唐 高宗 때에 河南과 河北 일대에 발생한 제해 문제를 위해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후 安撫, 存撫, 宣撫 등의 명칭으로 불리면서 모두 구휼을 담당하는 특별 관원이었다. 宋代에 이르러 정식 관원으로 등장했으며, 관직의 고저에 따라 巡撫大使, 副大使, 安撫使 등의 명칭으로 불렸지만 관직이 낮은 자에게는 ‘使’자를 뺀 巡撫라 칭했다. 明初에 이르러서도 정식 지방관은 아니었으며, 事案이 해결되면 職務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宣德 5년(1430)에 각 함께 정식으로 설치됐으며, 清代에는 각 함께 고루 설치되어 軍政과 관리들의 평가, 구휼 등을 폭넓게 담당하였다.

87) 西堡: 貴陽府 서북쪽 90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西堡長官司가 있었다. 이 지역에는 元代 西堡寨가 있었으며, 洪武 19년(1386) 長官司를 설치하고, 洪武 25년(1392) 土酋 卜却에게 長官使를 제수해 휘하에 寨를 거느리도록 하였다.

88) 昭勇將軍: 明代 正三品の 武官散官이며, 그 위로 昭毅將軍과 昭武將軍이 있다.

관리했는데, 치소(治所)⁸⁹⁾는 모두 성내에 두어 각기 좌우에 배치되어 있었다. 안씨(安氏)는 관인(官印)을 관리했는데 공무가 아니면 마음대로 수서(水西)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⁹⁰⁾ 총병관(總兵官)⁹¹⁾이 그들을 위해 추정하여, 때를 맞추어 관할 지역을 순찰하고 공물과 조세 조달을 독촉하라고 잠시 수서(水西)에 돌아가도록 허락했고, 관인은 선위 [사] 송연(宋然)에게 주어 대신 관리하도록 하였다.⁹²⁾ 안귀영(安貴榮)이 나아가 들자 아들 안좌(安佐)에게 세습하기를 청하니, 이에 안귀영 부자에게 금저(錦紵)를 하사하도록 명하였다.⁹³⁾

先是，宋然貪淫，所管陳湖等十二馬頭科害苗民，致激變。而貴榮欲并然地，誘其衆作亂。於是阿朶等聚衆二萬餘，署立名號，攻陷寨堡，襲據然所居大羊腸，然僅以身免。貴榮遽以狀上，冀令已按治之。會阿朶黨泄其情，官軍進討。貴榮懼，乃自率所部爲助。及賊平，貴榮已死，坐追奪，然坐斬。然妻受爵土，負國厚恩。但變起於榮，而身陷重辟，乞分釋。因從未減，依土俗納粟贖罪，都御史請以貴筑，平伐七長官司地設立府縣，皆以流官撫理。巡撫覆奏以蠻民不願，遂寢。宋氏亦遵養，子孫守

世官，衣租食稅，聽徵調而已。

이전에 송연(宋然)이 지나치게 탐욕을 내어 관할 지역의 진호(陳湖) 등 12개 마두(馬頭)의 묘(苗)족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변란이 일어날 상황을 초래하였다. 안귀영(安貴榮)은 송연의 관할 지역을 차지하고자 그 무리들에게 난을 일으키도록 꼬드겼다. 이에 아타(阿朶) 등이 2만여 명을 모아 임시로 명호(名號)를 세우고는 체보(寨堡)를 공격하여 함락하고 송연(宋然)이 거처하는 대양장(大羊腸)을 기습 점령하니, 송연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달아났다.⁹⁴⁾ 안귀영은 바로 상황을 보고하고는 본인에게 그곳을 다스리도록 명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때에 마침 아타(阿朶)의 무리가 그 정황을 누설하니, 관군이 나아가 토벌하였다. 안귀영은 두려워하여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협조하였다. 도적들을 평정하였을 때에 안귀영은 이미 죽었으나 죄를 물어 관직이 박탈되고 송연(宋然)은 참수로 판결이 났다. 송연(宋然)은 상주하여, 대대로 관좌와 토지를 받았으면서도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지버렸으나 다만 변란은 안귀영으로부터 연유하여 자신이 무거운 벌을 받게 된 것이니 헤아려 주기를 빌었다. 이에 죄를 감면하여 토착민의 방식대로 곡식을 납부하는 것으로 죄를 대신 갚게 하였다.⁹⁵⁾ 도어사(都御史)⁹⁶⁾가 귀축(貴筑)·평벌(平伐)의 7개 장관사 관할지에 부(府)·현(縣)을 설립하여, 모두 유관(流官)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청하였다. [그러나] 순무(巡撫)는 만족(蠻族)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상주하여 마침내 [그 논의가] 멈추게 되었다.⁹⁷⁾ 송씨(宋氏)도 또한 마침내 쇠약해

94) 阿朶가 일으킨 이 사건은 正德 6년(1511)에 일어났다(『武宗實錄』 卷74 正德 6년 4월 乙未條).
 95) 宋然의 사건이 이같이 낙착된 것은 正德 8년(1513)의 일이다.(『武宗實錄』 卷101 正德 8년 6월 壬寅條).
 96) 都御史: 관료의 감찰과 탄핵을 직무로 하는 都察院의 長官이다. 明代 都察院의 長官으로 左右都御史(正二品) 설치되었고 그 아래에 左右副都御史, 左右僉都御史 및 110명에 달하는 13道 監察御史를 두었다. 都察院은 洪武 15년(1382)에 창설된 것으로 6部和 함께 七都御史라 불렀다. 清代에는 都察院이 감찰 등의 업무 외에 皇室의 일을 관장했던 宗人府와 內務府의 일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都御史 중에는 巡撫나 總督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문에서 改土歸流를 奏請한 都御史도 巡撫를 겸하고 있었던 沈林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都御史만 쓰고 본문의 바로 뒤에 改土歸流를 반대한 사람을 巡撫라고만 쓴 것은 같은 시기의 다른 두 사람이라고 독자들을 誤導하기 쉽다. 뒷부분의 巡撫도 都御史로 시기가 뒤이다(『武宗實錄』 卷116 正德 9년 9월 戊辰條). 沈林(1453~1521)은 字가 材莫으로 南直隸 長洲 사람이다. 成化 17년(1481)의 進士로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正德 때 환관 劉瑾에게 밀보여 削職되었다가 후에 다시 기용되어 都察院 右副都御史로 貴州 巡撫가 되었다.
 97) 改土歸流를 반대한 巡撫는 都御史 陳天祥이었다(『武宗實錄』 卷116 正德 9년 9월 戊辰條). 陳天祥(?~

89) 治所: 각급 지방관이 駐在하며 정사를 보는 관아를 말한다. 그 등급에 따라 省治·府治·廳治 등으로 簡稱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물론 水西와 水東의 宣慰司의 관아를 가리킨다.
 90)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成化 22년(1486)이다. 실록에 보면 본문 아래 부분의 조치를 요청한 것은 苗民의 우두머리 未則 등이 먼저 한 듯하다. 실록의 원문에 “……督置治所于貴州城內，徧列左右，而貴榮掌印非有公事，不得擅還水西，即還須照知守臣乃聽，而苗民首領未則等，請教其不妨司事，以時巡歷所部聽職貢賦，總兵官與經亦爲之請”(『憲宗實錄』 卷278 成化 22년 5월 己巳條)이라 하였다.
 91) 總兵官: 明清時代 武官名이다. 明 황조는 수도와 지방에 衛所를 설치하고, 그 군사들을 통할하는 總兵과 副總兵을 두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를 지휘관을 總兵官으로 임명해 衛所軍의 동원과 지휘를 담당하도록 했다. 전쟁이 끝나면 위소의 군대는 본래 지역으로 돌아갔으므로 明初 總兵官은 임시직이었으며, 품계나 정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正統 연간(1436~1449) 이후 잦은 전란 때문에 고정 武官職으로 되었는데, 雲南은 征南將軍, 湖廣은 平蠻將軍 등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清代에는 軍權이 巡撫나 提督에게 귀속됐지만, 그들 휘하의 總兵官 품계는 正二品에 달해 결코 낮은 지위는 아니었다. 다만 실제 휘하의 병력은 많게는 1만 5천 명에서 적게는 수백 명까지 다양했다. 본문에서의 總兵官은 『憲宗實錄』 卷278 成化 22년 5월 己巳條에 보이는 바와 같이 異經이다.
 92) 이 기사는 『憲宗實錄』 卷278 成化 22년 5월 癸酉條에 나온다.
 93) 이는 弘治 14년(1501)에 일어난 일이다. 『孝宗實錄』 卷179 弘治 14년 9월 乙未條 참조.

지고, 자손들이 대대로 관직은 세습하였으나 조세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조정(朝廷)의] 인연이나 물자의 징발에 따를 뿐이었다.

時安萬鍾應襲，驕縱不法。漢民張純·土目烏掛等學之遊獵，酒酣，輒射人爲戲。又嘗捷其左右，爲所殺。無子，其從弟萬鎰宜襲，鎰以賊未獲辭。烏掛等遂以疏族幼子普者冒萬鎰弟曰萬鈞告襲，承勅官入其賄，遂暫委鍾妻耆播攝事。萬鎰悔不立，而恨烏掛之主其謀也，遂以兵襲烏掛，烏掛亦發兵相仇殺，皆以萬鍾之死爲辭。巡按御史上其狀，以萬鎰宜襲，但與烏掛相誣訐，宜各有輸贖。而象殺鍾者，并戍純等，受其賄者亦罰治，詔知之。

그때에 안만중(安萬鍾)이 관례에 따라 [신위사] 직위를 세습하였는데,⁹⁸⁾ [그는] 오만하고 방종하여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였다. 한족(漢族)인 장순(張純)과 토목(土目)⁹⁹⁾ 오괘(烏掛) 등이 그를 여기저기 사냥 다니도록 이끌고, 술을 마시다 흥이 나면 사람을 쏘아 맞추는 놀음을 하도록 하였다. 또 일찍이 [안만중은] 자기 주위 사람들을 때려 결국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에게] 아들이 없어 그의 사촌 동생 안만일(安萬鎰)이 세습해야 했으나 안만일은 도적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오괘(烏掛) 등은 마침내 먼 친척의 어린 아이 안보(安普)를 안만중의 동생인 안만균(安萬鈞)으로 하여서 세습을 고(告)한다고 죽이고, 승감관(承審官)¹⁰⁰⁾은 뇌물을 받고 마침내 안만중의 처 사과(奢媧)에게 잠시 위임하여 일을 맡아보도록 하였다. 안만일(安萬鎰)은 세습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오괘(烏掛)가 이 일을 주도한 것을 원망하여,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오괘(烏掛)를 습격하였고 오괘(烏掛)도 또한 군대를 내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니, 모두 안만중의 죽음을 구실로 삼았다. 순안위사(巡按御史)¹⁰¹⁾

1516)은 字는 元吉이고 南直隸 吳江 사람이다. 弘治 9년(1496)의 進士로 山東 青州府 推官을 거쳐 御史로 발탁되어 左僉都御史를 지낸 후 貴州 巡撫가 되었다. 陳天祥은 기민하고 才略이 있어 일 처리를 잘하여 가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다고 한다.

98) 여기서 安萬鍾이 세습한 때는 正德 8년(1513)이다(『武宗實錄』卷105 正德 8년 10월 甲寅條).

99) 土目: 土司制度 下에서 土司에 隸屬된 一種의 官銜이다. 封土와 軍隊 등을 擁有하여 文武를 兼理하는 比較적 높은 지위이며 世襲職이었는데, 그들의 권력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100) 承審官: 朝廷의 명을 받아서 사실을 조사하는 判官을 이르는 말이다.

가 그 상황을 상주하여, 안만일이 마땅히 세습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오괘(烏掛)와 서로 무함(誣陷)하고 공격하였으니 마땅히 속죄의 재물을 남부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안만중을 죽인 자는 효수하고, 강순 등은 변방을 지키는 군사로 보내며, 뇌물 받은 자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하니, [황제는] 조서를 내려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未幾，鎰死，子阿窩幼，命以萬鎰借襲。萬鎰有助平阿向功，提督尚書伍文定爲之請。萬鎰亦自陳其功，乞加參政銜，賜蟒衣，帝命賜以應得之服。後阿窩長，襲職，改名仁。未幾死，子國亨襲。淫虐，乃以事殺萬鎰之子信。信兄智與其母別居於安順州，聞之，因告國亨反。巡撫王誼遣請發兵誅國亨，智遂爲總兵安大朝畫策，且約輸兵糧數萬。及師至陸廣河，智糧不至，誼乃令人諭國亨，而止大朝毋進。兵已渡河，爲國亨所敗。國亨懼大誅，遣使哀辭乞降，朝廷未之許。巡撫阮文至中，撤捕請反者，密使誘國亨，亟出諸奸徒，割地以處安智母子，還所費兵糧，朝廷當待汝以不死。於是國亨悉聽命，帝果赦不誅，而命國亨子民襲。國亨事起於隆慶四年，至萬曆五年乃已。

얼마 안가서 안만일이 죽었는데,¹⁰²⁾ 아들 안아사(安阿窩)가 나이가 어려 안만전(安萬鎰)¹⁰³⁾으로 하여금 대신 세습하도록 명하였다. 안만전이 아향(阿向)을 평정하는데 도운 공로

101) 巡按御史: 明清시대 감찰을 담당한 都察院에는 전국을 관할하는 監察御史가 존재했다. 보통은 수도에서 업무를 진행하지만(內差 혹은 常差라 불렀다), 황제의 명에 따라 특정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시를 할 경우(外差 혹은 特差라 불렀다) 巡按御史라 불렀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역의 소금이나漕運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한 巡鹽御史나 巡漕御史도 있었다. 보통 監察御史는 正七品이었지만, “代天子巡狩”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明史』卷73 『職官』2), 황제의 명을 받고 지방을 순시하는 巡按御史의 권한은 상당히 컸으며, 관할 사안도 폭넓었다. 본문에 나온 巡按御史는 胡瓌(?~1524?)은 字는 國華이고 福建 南平 사람이다. 正德 6년(1511)의 進士로 慈谿 知縣을 거쳐 御史가 되어 貴州에 巡按하였다. 嘉靖 초기 大禮儀의 논쟁에서 상소를 올리고 밋을 하며 謙하다가 杖을 맞고 죽었다.

102) 未幾(얼마 안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安萬鎰이 宣慰使職을 받은 것은 正德 16년(1521)이고(『武宗實錄』卷196 正德 16년 2월 辛卯條), 죽은 것은 嘉靖 7년(1528)이다(『世宗實錄』卷96 嘉靖 7년 12월 乙未條).

103) 安萬鎰: 生卒年 未詳. 貴州 水西(지금의 大方 일대) 사람으로, 貴州宣慰使 安萬鍾, 安萬鎰의 동생이다. 그의 형 安萬鍾이 貴州宣慰使를 세습한 뒤로 布政司 參政도 겸하게 되었는데,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술에 취하면 타인을 구타하곤 했고, 사냥 중에 활로 사람을 맞추는 놀이를 하다가 결국 射殺되었다.

가 있어 제독상서(提督尙書)¹⁰⁴⁾ 오문정(伍文定)¹⁰⁵⁾이 그를 위해 청한 것이었다. 안만전도 또한 스스로 자신의 공로를 진술하여 참정(參政)¹⁰⁶⁾의 직함을 더하고 망의(蟒衣)¹⁰⁷⁾를 하사

이후 安萬鎰이 직위를 승계하였지만 얼마 안 가 병사하였는데, 그의 아들 안仁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결국 그 동생 安萬鎰이 대신 승계하여 嘉靖 7년(1528)에 선위사가 되었다. 安萬鎰은 전에 都勻에서 王阿向을 평정한 공이 있었지만 선위사가 되어서도 다시 王聰 등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安萬鎰은 조카 안仁이 성인으로 성장하자 宣慰使 직위를 그에게 넘겨주었지만 곧 안仁 또한 사망했고, 안仁의 아들 安國亨도 아직 나이가 어려 계속해서 安萬鎰이 선위사의 직위를 담당하면서 參政직도 맡아보아 昭勇將軍에 봉해졌다. 安萬鎰은 私財를 들여서 大方城 서쪽의 가파른 險路를 정비하였는데, 行人들이 이에 감격하여 安萬鎰의 장수를 축원하였고 이 길을 '千歲壩'라 불렀으며, 길가의 암석 위에 '千歲壩碑'라는石碑를 세웠다. 水西의 宣慰使 가운데 安萬鎰이 가장 뛰어난다고 일컬었는데, 그는 결국 嘉靖 41년(1562)에 安國亨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하였다.

- 104) 提督尙書: 軍務를 맡아본 尙書라는 뜻. 이때 伍文定이 兵部尙書 兼 都察院 右都御史이면서 雲南·貴州·四川·廣西의 軍務를 提督하였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 105) 伍文定(1470~1530): 字는 時泰, 號는 松月이며, 湖廣 松滋縣 사람이다.弘治 11년(1498)에 進士로 官界에 진출하였는데, 관직이 兵部尙書까지 이르렀다. 처음에는 常州推官에 제수되었는데, 단결을 잘 하였으며, 魏國公 徐佃이 백성과 토지를 다투었을 때 그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할 정도로 강직하였다. 劉瑾이 徐佃의 뇌물을 받아 大獄을 일으켰는데, 伍文定도 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아 평민이 되었다. 결국 劉瑾이 체포되면서 실각하자 伍文定이 다시 기용되었다. 이후 江西 峽流 王浩八 등의 반란을 평정하여 河南府知府로 승진하였고, 張勇·李文簡의 반란도 진압하여 이 공로로 吉安府知府가 되었다. 이후로도 永豐과 大茅山의 반란도 평정하였고, 巡撫 王守仁을 보좌하여 樞關·橫水를 평정하였다. 寧王 朱宸濠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吉安府의 관민들이 서로 도망하였지만 伍文定이 본보기로 한 사람을 죽여 군중들을 안정시킨 후, 임성하여 王守仁을 영접하여 적에게 대항하였다. 반란을 평정한 후에 그 공로로 江西按察使로 승진하였다. 中官 張忠·許泰가 南昌에 이르러 그의 공로를 가말해리 하였지만, 王守仁이 이미 사로잡은 朱宸濠를 浙江으로 보냈다. 張忠이 伍文定을 체포하였으나 그 탁월한 공로로 廣東右布使가 되었다. 이때 이미 嘉靖帝가 즉위하였는데, 伍文定이 張忠·許泰를 탄핵하였 으며, 이후 논공행상으로 右副都御史로 승진하였다. 嘉靖 3년(1524)에 海賊 董效를 토벌하고는 사직을 청하였으나 嘉靖 6년(1527)에 兵部右侍郎이 되었고, 같은 해 都察院사가 되어 都察院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듬해 兵部尙書가 되어 雲南·四川·貴州·湖廣의 군대를 협서하여 雲南 土酋 安鈞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嘉靖 9년(1530)에 사망하였으며, 天啓 연간(1620~1627) 초에 忠義이라는 시호를 받았다(『明史』, 卷200『伍文定傳』 참조).
- 106) 參政: 宋代에는 最高 政務長官의 하나인 參知政事를 일컫는 말로서 平章事, 樞密使, 樞密副使와 함께 宰執으로 칭해졌다.元代에는 中書省의 平章政事, 左, 右丞 아래에 參政을 두었다.明代에는 各省의 布政使 아래에 左右參政을 설치하고 各道를 나누어 관할하게 하였다. 清 入關 이전에는 六部와 理藩院에 承政과 參政을 두었다. 順治 元年(1644)에는 이를 각각 尙書와 侍郎으로 고쳤다. 이로 보아 參政의 지위는 侍郎과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淸初에는 各省의 布政使 아래에 參政, 參議를 설치하였는데,

해줄 것을 청하나, 황제는 상응하는 의복을 내려주라고 명하였다. 후에 안아사(安阿窩)가 성장하여 [선위사의] 직을 세습하고 이름을 인(仁)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아들 안국형(安國亨)이 이어 받았다.¹⁰⁸⁾ [그는] 방탕하고 포학하게 굴다가 끝내는 구실을 붙여서 안만전의 아들 안신(安信)을 죽였다. 안신(信)의 형 안지(安智)는 그의 어머니와 따로 안순주(安順州)에 거주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안국형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고하였다. 순무 왕정(王諍)¹⁰⁹⁾이 곧바로 군사를 내어 안국형을 죽일 것을 청하자, 안지는 마침내 총병(總兵)¹¹⁰⁾ 안대조(安大朝)를 위하여 책략을 내고 또한 수만의 군량을 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군대가 육광하(陸廣河)¹¹¹⁾에 이르렀을에도 안지의 군량은 도달하지 않았다. 왕정은 사람을 시켜 안국형을 효유하고 안대조의 진군을 막았다. [그러나] 군사들은 이미 강을 건넜고 [거기서] 안국형에게 패배하였다. 안국형은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 사자를 보내어 애원하는 말로 항복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순무 원문중(阮文巾)¹¹²⁾이 이르러, 반란을 일으킨 여러 무리들을 잡아들이도록 격문을 보내고는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안국형에게 알려, 즉시 간사한 무리들을 넘기고 땅을 할양하여 안지(安智) 모자에게 거처토록 하고

- 乾隆 18년(1753) 이후 폐지하였다.
- 107) 蟒衣:明代에 만들어진 蟒을 수놓은 官服을 말한다.蟒은 龍과 비슷하나 발톱이 작아 “五龍四蟒”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옷 위에 金線 자수를 놓는다. 明初에 皇帝 左右의 宦官과 龍冠, ...二品官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후에는 群臣에 널리 하사되었다. 天順 연간(1457~1464)·弘治 연간(1470~1505)에 이르러 平民 衣服에 蟒龍과 飛魚, 犀牛 등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 108) 未幾(얼마 지나지 않아)라고 하였는데 安仁은 嘉靖 19년(1540)에 이미 宣慰使職에 있었고(『世宗實錄』, 卷241 嘉靖 9년 9월 乙巳條), 安國亨이 선위사직을 이은 것은 嘉靖 34년(1555)이라서(『世宗實錄』, 卷425 嘉靖 34년 8월 庚午條) 未幾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 109) 王諍: 生卒年 未詳. 字는 子孝이고, 號는 竹巖이며, 浙江 溫州府(지금의 溫州市) 永嘉縣 사람이다. 嘉靖 39년(1560)의 進士로, 관직이 右倉都御史에 이르고 貴州 巡撫가 되었다. 저술로는 『大學衍義通略』이 있다.
- 110) 總兵: 總兵官, 즉 鎮守總兵을 일컫는다. 주 91 참조.
- 111) 陸廣河: 烏江의 중요한 지류인 鴨池河의 지류로, 鴨池河와는 貴州省 貴陽市 修文縣 陸廣鎮 附近에서 만난다. 이곳은 水西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이어서 전투에서 늘 차지하려고 다투는 지역이었다.
- 112) 阮文巾: 生卒年 未詳. 字는 用和이고, 江西省 南昌 사람이다. 嘉靖 32년(1553)의 進士로, 南京兵部郎中을 지내고 湖廣按察副使로 발탁되었다. 이후 太僕寺卿을 역임하고 右倉都御史로 승진하여 貴州 巡撫가 되었다. 그대에 토착의 강력한 세력이 군대를 일으켜서 청호를 침칭하였는데, 담당 관원이 제어하지 못하였으며 중앙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阮文巾이 그들을 잡아 斬하니 그 일대가 평안해졌으며, 그 공으로 승진하여 副都御史로서 湖廣 巡撫가 되었다. 그러나 관직 책임 중 사망하였다.

소비한 균량을 물어주면, 조정에서는 사형으로써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안국형이 모든 것을 다 그 명에 따르니, 황제는 과연 사면하여 죽이지 않았으며 안국형의 아들 안민(安民)이 [신위사직을] 세습하도록 명하였다. 안국형의 이 일은 융경(隆慶) 4년(1570)에 일어나 만력(萬曆) 5년(1577)에 이르러 끝이 났다.

國亨既革任，日遣人至京納賂，爲起復地。十三年，播州宣慰楊應龍以獻大木得賜飛魚服，國亨亦請以大木進，乞還給冠帶詔封如播州。既而木竟不至，乃謫罪於木商。上怒，命奪所費。國亨請補貢以明不欺，上仍如所請。

안국형이 직위에서 해임된 후 매일같이 사람을 경사에 보내 뇌물을 바쳤으니, 자신의 직위와 영지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만력] 13년(1585)에, 파주(播州)¹¹³⁾의 선위사(宣慰使) 양응룡(楊

113) 播州: 지금의 貴州省 遵義市이다. 漢 武帝 元光 5년(전130)에 犍爲郡을 설치하였는데, 郡治는 繁縣 즉 지금의 遵義市 中心城區 附近에 두었다. 무제는 또한 元鼎 6년(전111) 남쪽의 夜郎에 牂牁郡을 설치하였다. 南北朝時代에는 신후로 平夷郡, 平縱郡에 속했다. 唐 貞觀 9년(635)에 牂牁郡의 犍柯縣에 郎州를 설치하고 恭水, 高山, 貢山, 柯盈, 邪施, 釋燕의 6개 縣을 소속시켰다. 貞觀 11년(637)에 郎州와 그에 소속되었던 6縣을 폐지하였다. 貞觀 13년(639)에 다시 郎州와 그에 소속된 恭水, 高山, 貢山, 柯盈, 邪施, 釋燕의 6개 縣을 설치하고 播州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경내에 播川이 흘렀으므로 그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貞觀 14년(640)에 播州 소속 6개 縣의 이름을 모두 바꾸어 恭水를 羅蒙, 高山을 舍月, 貢山을 湖江, 柯盈을 帶水, 邪施를 羅爲, 釋燕을 胡刀라고 고쳤다. 貞觀 16년(642)에 다시 羅蒙을 遵義라고 고쳤다. 顯慶 5년(660)에 舍月, 湖江, 羅爲縣을 폐지하였다. 唐末에는 土豪인 楊端이 이곳을 차지하였다. 宋 大觀 2년(1108)에 首領 楊光榮, 楊文貴가 각각 그 땅을宋에 바치고 귀순하였으므로 播州와 遵義軍을 나누어 설치했다. 宣和 3년(1121)에 播州를 폐지하고 城으로 삼아 南平軍에 소속시켰으며, 또 遵義를 폐지하여 峒로 삼고 珍州에 소속시켰다. 嘉熙 3년(1239)에 다시 播州安撫司를 설치하였다. 元 至元 12년(1275)에 世祖 쿠빌라이가 조서를 내려 招撫하였다. 至元 14년(1277)에 楊邦憲이 播州, 珍州, 南平軍을 이끌고 元에 투항함으로써 다시 播州安撫司가 설치하여 楊邦憲을 播州安撫使로 삼았다. 그가 죽자 아들 漢英이 직책을 세습하였는데 元에서는 漢英에게 楊賢不花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至元 28년(1291)에 播州宣撫司를 바꾸고 四川行省에 소속시켰다. 大都로 갈 때 사천보다 湖廣을 통해 가는 것이 편리했으므로 이듬해에 湖廣行省으로 소속을 바꾸었다. 播州宣撫司에서는 19개 長官司와 여러 峒寨를 통할하였다. 至正 23년(1363)에 사천에서 활거한 明玉珍에게 투항하였고, 洪武 5년(1372)에는 明에 항복했으며, 이듬해에 播州宣慰司로 승격되었다. 萬曆 28년(1600)에 楊應龍의 반란을 평정한 후 明朝에서는 改土歸流를 단행하여 播州를 둘로 나누어 遵義軍民府를 설치하여 四川에 소속시켰으며,

應龍)¹¹⁴⁾이 큰 목재를 바친 일로 비어복(飛魚服)¹¹⁵⁾을 상으로 하사받았는데, 안국형도 또한 큰 목재를 진상할 테니, 파주의 예처럼 관내와 고봉(誥封)을 둘러줄 것을 청하였다.¹¹⁶⁾ 그 후 얼마간 지난 후에도 목재는 결국 이르지 않았는데, 안국형은 목재상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에] 황제가 노하여 하사한 것을 박탈하라고 명하였다.¹¹⁷⁾ 안국형은 공물을 보태어 내어 자신이 기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청하나, 황제는 이에 그가 청한 대로 처리하도록 하였다.¹¹⁸⁾

며, 平越府를 설치하여 貴州에 소속시켰다. 唐末 楊端이 播州를 차지한 후 明末 萬曆 연간(1573~1619) 楊應龍에 이르기까지 29세 800여 년이 경과했다. 淸 順治15년(1658)에 清兵이 遵義를 점령하고 明制를 답습하여 軍民府라하고 四川에 소속시켰다가 雍正 5년(1727)에 貴州에 예속시켰다. 114) 楊應龍(1551~1600): 播州의 제29대 세습 토司이다. 토司 楊烈의 아들이다. 隆慶 6년(1572)에 播州宣慰使를 승계 받았고, 驍騎將軍으로 加封되었다. 萬曆 20년(1592) 말 王繼光이 四川巡撫가 되었는데, 이듬해(1593) 정월에 楊應龍을 체포하여 조사를 청하였다. 이때는 비야호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 중이었는데, 楊應龍이 병사를 거느리고 조선을 구원할 것을 자원하자 조정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양응룡이 행군하던 도중 일본군이 조선에서 물러나 양응룡은 播州로 되돌아 왔다. 萬曆 21년(1593)에 王繼光이 계속하여 양응룡으로 하여금 重慶에 와서 조사를 받고 贖索을 내도록 압박하였으나, 양응룡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왕계광은 總兵 劉承勳, 參將 郭成 등과 함께 공동작전을 구사하여 진격해서 婁山關(지금의 遵義 북부 지역)에 이르렀다. 都司 王之翰이 병사를 거느리고 공격했으나, 양응룡 군에게 패하였다. 萬曆 24년(1596)에 양응룡이 반란을 일으켜 戰火가 四川, 貴州, 湖廣 등 3省에 미쳤다. 貴州巡撫 江東之가 공격을 가하였으나 오히려 全軍이 覆沒되다 말았다. 萬曆 27년(1599)에 萬曆帝는 江東之의 관직을 박탈하고, 郭子章을 右副都御史兼貴州巡撫로 삼아 貴州 지역의 軍政을 총괄토록 하였다. 郭子章은 부임 후 糧草를 저장하고 勁軍을 조직하며 주민의 각 토기를 안정시키고 楊氏土司를 고립시킨 뒤 湖廣川貴總督 李化龍과 회동하여 이듬해(1600) 반란을 평정하였다. 양응룡은 자살하고 이로써 29대 800여 년의 楊氏土司는 종언을 고하였다. 115) 飛魚服: 飛魚 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高官의 官服을 가리킨다. 飛魚는 신하 속의 하늘을 날 수 있는 물고기다. 龍의 형상을 수놓지 않은 복식은 모두 飛魚服 계통이라 할 수 있는데, 『明史』 卷67 『輿服』 3에 의하면, 嘉靖 16년(1537) 이후 대신들이 함부로 蟒衣, 飛魚, 斗牛 등이 새긴 복식의 착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6部 대신과 出征하는 將軍 등에게 飛魚服을 하사하였다. 116) 安國亨이 일을 청한 것은 그 다음 해인 萬曆 14년(1586)의 일이다(『神宗實錄』 卷178 萬曆 14년 9월 庚戌條). 117) 이 일은 다시 그 다음 해인 萬曆 15년(1587)에 일어났다(『神宗實錄』 卷190 萬曆 15년 9월 乙巳條). 118) 安國亨이 다시 청하여 허락을 받은 것은 萬曆 16년(1588)의 일이다. 본문에는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실록을 보면 萬曆 18년(1591) 12월에 안국형이 보낸 大木이 도착하여 박탈했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神宗實錄』 卷230 萬曆 18년 12월 壬辰條).

萬曆二十六年，國亨子疆臣變賊，會播州楊應龍反，疆臣亦以戕殺安定事爲有司所案。科臣有言其逆節漸前者，詔不問，許殺賊圖功。疆臣奏稱：「擄警方叛，臣心未白。」上復優詔報之。巡撫郭子章許疆臣以應龍平後還播所侵水西烏江地六百里以酬功，於是疆臣兵從沙溪入。有蜚語水西佐賊者，總督李化龍檄詰之，疆臣遂執賊二十餘人，率所部奪落濠關，至大水田，焚桃溪莊。應龍伏誅。

만력 26년(1598)에 안국형의 아들 안강신(安疆臣)이 직위를 이어받았다. [그때] 마침 파주(播州)의 양응룡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안강신도 안정(安定)을 죽인 일 때문에 담당 관원에게 조사를 받았다. 과신(科臣)¹¹⁹ 중에 그가 반역할 생각이 점점 싹트고 있다고 진언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황제가] 조서를 내려 불문에 붙이고 적을 죽여 공을 세우도록 허락하였다. 안강신이 상주하기를, "파주의 경보가 매우 급하여 신의 마음을 미처 밝히지 못하였습니"고 하니, 황제가 다시 표창하는 조서를 보내 답하였다.¹²⁰ 순무(巡撫) 곽자장(郭子章)¹²¹이 안강신에게 양응룡을 평정한 후에 파주(播州)가 점령한 수서(水西)의 오강(烏江)¹²² 지역 600리를 주어 그의 공로에 보답해 주겠다고 허락하였다.¹²³ 이에 안강신의 군대는 사계(沙溪)로부터

- 119) 科臣: 명청시대에 존재했던 科道官 중 전자인 科官, 정확히는 吏·戶·禮·兵·刑·工의 6科 給事中을 일컫는 말이다. 과도관은 6科給事中和 都察院의 各道 監察御史를 합해서 부르는 명칭으로서, 기본적인 감찰 가능 외에 조정에 여러 정책을 건의하고 관리를 탄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言官'이라 불렀다. 명대에는 6科와 도찰원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청대 雍正 연간(1723~1735)에 이르러 6科와 都察院이 통합되었다. 본문에서의 科臣은 兵科給事中 張輔之로, 萬曆 26년(1598) 7월에 "貴州土酋安疆臣, 及廣西孫賊, 逆節漸萌, 宜行各撫按相機制剿"(『神宗實錄』卷324 萬曆 26년 7월 庚寅條)라고 상소하였다.
- 120) 安疆臣의 이같은 취지의 상주는 萬曆 28년(1600)에 한 것으로(『神宗實錄』卷346 萬曆 28년 4월 己丑條),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萬曆 27년의 巡撫 郭子章의 기사보다 몇 시기의 일이다.
- 121) 郭子章(1542~1618): 字는 相奎이고, 號는 青樓, 自號는 蟻衣生이다. 江西 泰和縣의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隆慶 5년(1571)의 進士로, 누차 승진하여 貴州巡撫가 되었다. 播州의 楊應龍이 明朝에 저항하여 봉기하였을 때, 좌자장이 이를 크게 격파하였으며, 그 공으로 太子少保·兵部尙書가 되었다. 좌자장은 재주가 탁월하여 책을 읽어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저술한 것도 매우 많아 『易解』·『平播始末』·『郡縣釋名』·『阿育王山志』·『聖門人物志』·『豫章書』·『劄記』·『馬記』·『勇草』·『黔草』·『晉草』·『蜀草』·『楚草』·『家草』·『豫章詩話』 등이 있다.
- 122) 烏江: 貴州省에서 제일 큰 하천으로 黔江이라고도 한다. 威寧縣 香爐山에서 발원해서 귀주성 북부와 彭水縣을 경유해 四川省 重慶에서 長江으로 유입된다. 총 길이는 1,037km이다.

진입하였다. 수서(水西)가 반적(叛賊)을 도왔다는 풍설이 있어 이화룡(李化龍)¹²⁴이 격문을 보내 그를 힐책하니, 안강신은 마침내 반적 20여 명을 붙잡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낙봉(落濠關)을 탈취한 후, 대수전(大水田)에 이르러 도계강(桃溪莊)을 불살랐다. [이에] 양응룡은 죄값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¹²⁵

初，應龍之祖以內難走水西，客死。宣慰萬銓挾之，索水煙·天旺地，聽還葬，其地遂爲水西所據。及播州平，分其地爲遵義·平越二府，分隸蜀·黔，以渭河中心爲界。總督王象乾代化龍，命疆臣歸所侵播州地。子章奏言：「侵地始於萬銓，而非疆臣。安氏迫取於楊相喪亂之時，非擅取於應龍蕩平之日，且臣曾許其裂土，今反奪其故地，臣無面目以謝疆臣，願罷去。」象乾疏言：「疆臣反番，殲應龍子惟棟不實，首功可知。至俘敗葉陣，送葉往來，欺君助逆，跡已昭然。今還侵地，不替既往，已屬國家寬大。若因其挾而予之，彼不爲恩，我且示罰。疆臣既無功，不與之地，正所以全撫臣之信。宜留換臣罷臣，以爲重臣無能兼葉爾苗鳴遷者之戒。」於是清議之議，累年不決。兵部責令

- 123) 본문에 의하면 楊應龍 亂의 평정에 공을 세우면 烏江 지역 600리를 주겠다는 허락을 郭子章 혼자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록을 보면 郭이 朝廷의 정책을 따라 그같이 했음을 알 수가 있다. 萬曆 27년(1599) 9월 己酉條의 기사에 "兵部覆 御史涂宗濬 征播州議。一正辭伐罪以彰天討。……若安氏及七姓五司沿播苗苗，有擒楊會以獻者，即裂分其地，使各世守。……上曰：……有能俘應龍以獻，即許代其世職。若合謀成功，各裂土酬賞"(『神宗實錄』卷339)이라고 하여, 양응룡을 사로잡아 바치는 변방 민족에게 땅을 떼어 주자고 하는 [貴州州] 御史 涂宗濬의 건의를 萬曆帝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본문 바로 앞에 上復優詔報之라는 글귀가 있지만, 위의 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연결성이 약하여 『明史』의 논조가 郭子章 개인에게 쏠려있는 혐의가 있다. 涂宗濬은 江西 南昌 사람으로 萬曆 11년(1583)의 進士인데 후에 兵部尙書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讜號가 恭襄으로 『續資治通鑑長編』, 『檮杌』의 저술이 있다.
- 124) 李化龍(1554~1611): 字는 子田이고, 號는 霖賓으로 北直隸 大名府 長垣縣 사람이다. 萬曆 2년(1574)에 進士가 되어 약관 20세에 高縣縣丞으로 부임하였다. 南京工部主事로 승진된 뒤 右通政使를 거쳐 右倉都御史로 발탁되었다. 萬曆 22년(1594)에 遼東巡撫가 되어 크게 軍政을 정돈하고 여러 차례 몽골의 침입을 저지하였다. 다시 總督湖廣川桂軍務가 되어 楊應龍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후에 兵部尙書로 승진하여 少保가 추가되었고, 다시 工部右侍郎總理河工을 맡았다. 桂國이 터져서 少傅兼太子太保가 되었으나 임기 중에 病死하였다. 讜號는 襄毅였고, 少師로 追贈을 받았다가 다시 太師가 더해졌다.
- 125) '伏誅'를 글자 그대로 죄값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楊應龍은 위의 주에서도 밝힌 것처럼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패망 직전에 자살하였다.

兩省巡按御史劾報，而南北言官文章詆象乾貪功起釁。科臣呂邦耀復劾子章納賄縱奸，子章求去益力。象乾執疆臣所遣入京行賄之人與金，以聞於朝。然議者多右疆臣，尚書蕭大亨遂主巡按李時華疏，謂：「征播之役，水西不惟假道，且又助兵。芻失之土司，得之土司，播固輸糧，水亦納賦，不宜以土地之故傷字小之仁，地宜歸疆臣。」於是疆臣增官進秩，其母得賜祭，水西尾大之患，亦於是乎不可制矣。

당초에 양용룡의 조부가 내란 때문에 수서(水西)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죽었다.¹²⁶⁾ 선위 [사] 안만진(安萬鎔)이 그 시신을 끼고 수연(水煙)·천왕(天旺) 지역을 요구하면서, [이를] 따라야 [시신을] 돌려보내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 하여, 그곳은 마침내 수서에 접거되었다. 파주(播州)를 평정하고 나서 그 땅을 준의(遵義)¹²⁷⁾·평원(平遠)¹²⁸⁾ 두 부(府)로 나누어 각각 사천과 귀주에 속하게 하고,¹²⁹⁾ 위하(渭河)의 중심을 그 경계로 삼았다. 충무 왕상건(王象乾)¹³⁰⁾이 이화룡(李化龍)을 대신하였는데, 안강신(安疆臣)에게 침략하여 점거한 파주(播

- 126) 楊應龍의 조부는 楊相으로 嘉靖 6년(1527)에 堂叔인 楊張과 원수가 되어 싸웠다(『世宗實錄』卷82 嘉靖 6년 11월 庚寅條). 그러나 실록에 楊相이 水西에서 객사하였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楊相의 조정에 공물을 바쳤다는 내용과 같은 기사는 그 후에도 계속 나와서(嘉靖 9년 8월 乙亥條, 12년 9월 癸卯條, 15년 9월 丙辰條, 17년 3월 甲申條, 19년 9월 乙巳條) 객사에 관하여 의문이 남는다.
- 127) 遵義: 遵義府를 일컫는다. 萬曆 29년(1601)에 改土歸流하여 遵義府를 설치하고 四川省에 귀속시켰다. 淸 雍正 5년(1727)에 遵義府를 四川省에서 貴州省으로 바꾸어 귀속시켰다. 府治는 지금의 贵州省 遵義市이다.
- 128) 平遠: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의 福泉市 지역이다. 漢代에는 牂柯郡 관할이었지만 唐代에는 播州郡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다. 明 洪武 8년(1375)에 平遠按撫司가 설치되었고, 萬曆 28년(1600)에 平遠府로 승격하였다.
- 129) 播州 지역을 遵義와 平遠로 나눈 시기는 萬曆 28년(1600)이다. 그런데 顧祖禹, 『讀史方輿記要』卷121에 는 그 시기를 萬曆 27년(1599)으로 기록하여 史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당시 양용룡이 다스린 평원위 지역에 平遠軍民府를 설치하고, 黃平安撫司를 黃平州로, 韋塘과 雍水 두 안무사를 慶安縣으로, 餘慶과 白泥 두 곳을 餘慶縣으로, 峒竹壩, 三里七壩를 潮潭縣으로 바꿔 귀주성 平遠府에 예속시켰다. 아울러 평원사를 貴定縣으로 바꿔, 平遠府는 州 하나, 縣 5개를 거느림과 동시에, 黃平州가 楊義長官司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한편 준의부는 萬曆 29년(1601) 遵義軍民府 및 鎮安, 遵義, 桐梓, 綏陽, 仁懷를 四川省 관할하에 두었다.
- 130) 王象乾: 生卒年 未詳. 字는 子廓 또는 贊字이고, 山東 濟南府 新城縣 사람이다. 隆慶 5년(1571)의 進士로, 僉都御史를 역임하고 李化龍을 대신하여 播州 일을 처리하였으며, 砂溪와 銅仁의 여러 묘족을 처서

州) 지역을 반환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과자장(郭子章)이 상주하기를, “토지의 침탈은 안만 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안강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안씨(安氏)는 양상(楊相)이 난리로 죽었을 때 협박하여 탈취한 것이지 양용룡이 평정될 때 멋대로 점거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신은 일찍이 그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허락한 적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오히려 그의 옛 땅을 빼앗으면 신은 안강신에게 사죄할 면목이 없으니 과직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왕상건(王象乾)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안강신이 파주를 정벌하여 양용룡의 아들 양유동(楊惟棟)을 섬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저 참수한 것으로써 공을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패전한 채하고 진영을 버렸으며 약을 보내어 왕래하였으니, 군주를 기만하고 역적을 도와준 행적이 이미 명백합니다. 점거한 땅을 반환토록만 하고 그의 이전 죄를 추궁하지 않는 것은 이미 나라가 관대한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토지를 그에게 주면, 그는 은혜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 쪽도 또한 나약함을 보여주는 게 될 것입니다. 안강신은 공이 없으니 그에게 토지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순무의 신의를 온전히 하는 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순무는 유입시키고 신을 과직하여 신의 무능함과 자그마한 묘족(苗族)¹³¹⁾이 떠드는 소리를 힐책하는 경계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평정하였다. 이후 누차 승진하여 관직이 兵部尙書에 이르렀다. 崇禎 초년에 璫政이 山西에 침입하기를 도모하였는데, 그때 王象乾의 나이가 83세였지만 바로 집에서 나와 宣大山西의 軍務를 總督하자 璫政이 이질같이 동색을 맡겼다고 하였다. 王象乾는 위급한 일에 잘 대처하였고 담담이 있어 總督과 巡撫를 두루 역임하면서 그 위임있는 명성을 九邊에 떨쳤다. 太子 天啓가 태어났는데 병으로 집에 돌아와 세상을 떠났다.

- 131) 苗族: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민족의 하나로서, 湖北, 湖南, 四川, 雲南, 貴州, 廣西 壯族自治區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廣東省에도 일부 묘족이 살고 있지만 貴州省에 약 400만 정도(전체 묘족 인구의 약 48.8%) 거주하고 있다. 이어 호남성에 180만(21.9%)이 거주하며 호북성은 26만 명이 살고 있어(3.17%) 묘족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吳榮臻 主編, 2007(년): 41). 이처럼 그 거주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일한 묘족 내에서도 언어가 달라 대략 5개의 방언을 지니고 있다(다바타 하사오 등, 2006: 232~233). 이들의 자칭은 이미 甲午文에 등장하지만 『史記』卷1 “五帝本紀” 1에 의하면, 堯帝 당시 江淮와 荊州 일대의 三苗가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殷周시대 이전에 長江 일대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묘족들 가운데 侗, 龍, 石, 麻, 寥 5姓이 이른바 黃苗라 알려져 있으며, 租, 施, 彭, 張, 洪氏는 의족이 그들과 편입되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들과 동화된 존재였다(鄂西土家族苗族自治州民族事務委員會編, 1986: 60). 그러나 『明史』土司傳에서 언급되고 있는 苗族은 오늘날 소수민족 분류상의 묘족이 아니라, 貴州·湖廣·四川·雲南 등 서남 지역에 살던 원주민을 통틀어 가리키고 있는 칭호이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논의가 몇 년째 결말이 나질 않았다. 병부는 두 성의 순안어사(巡按御史)에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책임을 지웠는데, 남북 [양경(兩京)]의 언관(言官)들은 계속해서 상주문을 올려, 왕상진이 공로를 탐하여 화를 불러왔다고 비방하였다. 과신(科臣) 여방요(呂邦耀)¹³²⁾가 또 꼭자장이 뇌물을 받고서 간사한 무리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었다고 탄핵하니, 꼭자장은 더욱 힘써 과직을 청하였다. 왕상진은 안강신이 경사로 보내어 뇌물을 바치도록 한 사람을 붙잡고 그 돈을 확보하였다고 조정에 아뢰었다. 그러나 논의하는 자들은 대부분 안강신을 감싸고 돌았고, 상서(尙書) 소대형(蕭大亨)¹³³⁾은 마침내 순안(巡按)¹³⁴⁾ 이시화(李時華)¹³⁵⁾의 상소를 위주로 하여 아뢰기를, “파주(播州)를 정벌한 전투에서 수서(水西)는 단지 길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병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토사에게서 얻은 것을 토사에게서 얻는 것임에 불과한 일이 아닙니까? 파주가 본래 양식을 납부했지만 수서도 또한 세금을 납부했으니, 토지 때문에 어린아이를 기르던 인덕을 손상해서는 안 될

것이며, 토지는 마땅히 안강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안강신에게 관작을 높여주고 그 어미에게는 사절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으니, 수서 세력의 강대함에 대한 근심이 이에 이르러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三十六年，疆臣死，弟堯臣襲。四十一年，烏撒土舍謀逐安效良，堯臣以追印爲名，領兵數萬長驅入滇，直薄霑益州，所過焚掠，備極慘毒。朝廷方以越境擅兵欲加堯臣罪，而堯臣死。子幼幼，命其妻奢社輝攝事。社輝，永寧宣撫奢崇明女弟。崇明子寅獯悍，與社輝爭地，相仇恨。而安邦彥者，位之叔父也，素懷異志，陰與崇明合。及崇明反，調兵水西，邦彥遂挾位叛以應之，幼弱不能制。邦彥更招寇宣慰土舍宋萬化爲助，率兵趨畢節，陷之，分兵破安順·平羅·霑益。而萬化亦率苗仲九股陷龍里，遂圍貴陽，自稱嚮王，時天啓二年二月也。

- 132) 呂邦耀: 生卒年 未詳. 字는玄縮이고, 錦衣衛籍의 順天 사람이다. 萬曆 29년(1601)의 進士로, 관직은 通政司參議에 이르렀다. 저술로는 『續宋宰輔編年錄』과 『國語證析』이 있다.
- 133) 蕭大亨(1532~1612): 字는夏卿이고, 號는岳峯이며, 山東 濟南府 泰安州(지금의 泰安市) 사람이다. 嘉靖 41년(1562)의 進士로, 榆次 知縣에 제수되었고 누차 승진하여 兵部侍郎에 이르렀다. 저술로 『兩鎮奏議』·『藩封紀略』·『夷俗記』가 있다.
- 134) 巡按: 唐代 天寶 5년(746)에 관원을 파견하여 『巡按天下風俗, 黜陟官吏』했다는 데서 巡按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나온다. 明代 永樂 元年(1403) 이후에 정식으로 御史들의 巡按制度를 확립하고 13道監察御史 110명을 선발하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다시 巡按御史를 뽑아 파견했다. 13道監察御史 가운데서 巡按御史를 골라서 파견하는 절차는 무척 엄격하였다. 巡按御史 1명을 선발하기 위해 먼저 都察院에서 2명의 후보자를 골라서 황제에게 천거하면 황제가 그들을引見한 후에 1명을 골랐다. 13道監察御史는 평소에는 中央의 都察院에서 관리했지만 그 임무를 수행할 때는 都察院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황제에게 직접 책임을 졌다. 이들은 매년 8월에 出巡하여 各道를 巡視하고 吏治를 살폈다. 巡按御史의 品級은 비록 官階보다 높았으나(監察御史는 正七品) 天子의 巡狩를 대신하는 임무를 맡았으므로 各省 및 府, 縣의 行政長官들이 모두 그의 감찰 대상이 되었다. 大事는 皇帝의 裁決를 奏請했고, 小事는 즉시 處理하였으므로 권한이 막중했다. 淸初에도 巡按御史를 두었으나 順治 17년(1660)에 폐지하였다.
- 135) 李時華: 生卒年 未詳. 字는芳麓이고, 貴州 貴陽 사람이다. 萬曆 10년(1582)의 舉人으로, 누차 승진하여 監察御史가 되었다. 사람됨이 강직하고 아첨하지 않았으며, 백성의 어려움에 관심이 많아서 탐욕스러운 지방관을 과감하게 탄핵하였다. 四川總督 王象乾이 水西 土司 安疆臣이 차지한 水壩·天旺 등의 지역을 四川에 귀속시키려 하자, 李時華는 水西가 반란을 평정한 것에 공이 있으니 토지를 빼앗지 말자고 상소하여 그 일을 막았다. 또한 李時華는 貴州에 縣學를 많이 세울 것을 주장하여 그 의견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만력] 36년(1608)에 안강신이 죽고 동생 안요신(安堯臣)이 뒤를 이었다. [만력] 41년(1613)에 오살(烏撒)의 토사(土舍)¹³⁶⁾가 모의하여 안효량(安效良)을 쫓아내자, 안요신은 인장을 찾아야 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먼 거리를 신속하게 진군하여 운남에 들어가 곧바로 집익주(霑益州)¹³⁷⁾에 쳐들어갔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여 그 비참함과 잔인함이 들에 달하였다. 조정에서는 바로 경계를 넘어 멋대로 출병한 일로써 안요신에게 죄를 더하려 하였는데, 안요신이 마침 죽었다.¹³⁸⁾ 그때 아들 안위(安位)가 어려서, 안요신의 처 사사위(奢社輝)에게 대리로 일을 맡아보도록 명하였다. 사사위는 영녕(永寧)¹³⁹⁾ 선무사(宣撫使) 사승명(奢崇明)¹⁴⁰⁾의 여동생이다. 사승명의 아들 사인(奢寅)은

136) 土舍: 본래 다음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된 관직 명칭이다. 우선, 明清時代 土官의子弟와 族人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둘째, 명칭시대 土司의 屬官으로서 정해진 직함은 없으며 토관의 일가가 주로 담당했지만 종종 異姓들도 土舍職을 맡았다. 토사의 일상 잡무를 담당했으며 세습되었다. 또한 토관이 집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토관을 대신해서 政事를 담당했다. 셋째, 清代 土司 등급 가운데 하나로서, 토사의 庶屬 등을 관리한 土目 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넷째, 청대 소수민족 구구의 村寨를 관리하는 수령을 지칭하는 말로서, 內地의 鄉長이나 保長과 성격이 비슷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다.

137) 霑益州: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霑益縣 지역으로, 예로부터 ‘入滇鎖鑰’·‘入滇門戶’로 불렸다. 원나라 初에 摩彌萬戶府를 두었는데, 至元 13년(1276)에 霑益州로 고쳤다.

138) 安堯臣이 죽은 해는 萬曆 44년(1616)이다. 『神宗實錄』 卷543 萬曆 44년 3월 癸巳條 참조.

포악하여 사사휘와 토지를 다투어 서로 원수가 되었다. 그리고 안방언(安邦彦)¹⁴¹⁾이란 자는 안위(安位)의 숙부인데, 본디 다른 뜻을 품고 사승명과 암암리에 결탁하고 있었다. 사승명이 반란을 일으키고 수서에 군사를 이동시키자 안방언은 마침내 안위를 겁박하여 반란을 일으켜 [사승명]에 호응하였는데, 안위는 나이가 어리고 세력이 약하여 [안방언]을 억제할 수 없었다.

139) 永寧: 지금의 四川省 敘永, 古蘭 등 縣에 상당한다. 天啓 3년(1623)에 敘州府로 편입되었다.

140) 奢崇明(?~1629): 四川 永寧(지금의 敘永) 사람이다. 明代의 彝族 酋長으로 自立하여 西南의 할거정권을 수립하였다. 조상이 역대로 明朝로부터 封贈을 받아 永寧宣撫司職을 세습하였는데, 특히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彝族과 苗族 병사를 장악하여 그의 아들 奢寅 등과 함께 오래 전부터 反明白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天啓 원년(1621)에 後金이 遼東에서 驅逐하여 明軍이 계속 패하자 다음해인 明 조정은 奢崇明을 징발하여 兵馬를 이끌고 遼東을 구원하도록 하였다. 奢崇明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사위 樊龍과 部將 張形을 파견하여 騎兵 2만 명을 데리고 重慶에 이르도록 하였다. 9월 17일 教場에서 演武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침내 巡撫 徐可弼 등 軍政 官員 20여 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重慶을 점거하고, 合江을 공격했으며, 瀘州를 격파하고 遺義를 압박시켜 ‘大梁國’을 세워 丞相과 五府 등의 관직을 두니, 四川 전 지역이 震動하였다. 10월 18일 奢崇明은 군대를 거느리고 成都를 포위하였는데, 당시 成都의 수비 병사는 겨우 2,000명에 불과했다. 布政使 朱雙元은 급히 石砭宣慰司, 龍安府 등지의 官軍을 징발하여 구원도록 했다. 明 조정은 朱雙元을 四川 巡撫로 승진시켜 반란을 평정토록 했다. 출몰 명조정에 충성을 바치던 저명한 女將인 石砭宣慰使 秦良玉이 동생 秦民昇과 조카 秦賢明 등을 보내 4,000명을 대동하여 南坪關(지금의 四川 南川 西南)에 주둔해서 重慶의 叛軍의 歸路를 막는 한편 병사를 나누어 忠州(지금의 四川 忠縣)에 주둔시켰다. 秦良玉은 스스로 정예병 6,000명을 거느리고 長江을 따라 서쪽으로 진격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걸쳐 크고 작은 100여 차례의 전투에서 叛軍 1만 여명을 소멸시키고, 앞뒤로 遺義, 綏陽 등지를 수복하였다. 이에 奢崇明 父子는 永寧으로 후퇴하였고, 5월 28일에 明軍이 重慶을 수복하였다. 天啓 3년(1623) 봄에 明軍은 永寧을 공격하여 4월에 함락시켰다. 奢崇明 부자는 패잔병을 거느리고 水西의 龍場으로 후퇴하였고, 거듭되는 明軍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달아났다. 明 조정은 永寧宣撫司를 폐지하고 道府를 설치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天啓 6년(1626) 아들 奢寅이 부하에게 괴살되었다. 崇禎 2년(1629) 8월에는 奢崇明이 大梁王이라 자칭하고 土司 安邦彦이 四裔大長老라 칭하여 양인이 군대를 합쳐 전력을 다하여 永寧을 공격했지만, 朱雙元이 거느리는 明朝의 여러 黔軍에게 포위되어 결국 전군이 覆沒되고, 奢崇明은 安邦彦과 함께 사망하였다.

141) 安邦彦(?~1629): 貴州 織金藏廠(지금의 織金官寨) 사람으로 明末의 유명한 彝族 반란의 수령이다. 天啓 2년(1622)에 四川 永寧宣撫使 奢崇명의 반란에 호응하여 스스로 ‘羅甸大王’이라 칭하며 彝族의 反明 반란을 일으켰다. 10만 명의 叛軍을 거느리고 黔中の 首府 貴陽으로 進攻하였다. 貴陽은 10개월 동안 마치 孤島와 같이 밖으로는 援軍도 없고, 안으로는 식량이 부족하여 성내의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崇禎 2년(1629) 兵部尙書 朱雙元에 의하여 겨우 반란이 진압되었는데, 그는 그해 8월에 水西에서 斬殺되었다.

안방언은 또 이전 선위의 토사(土舍) 송만화(宋萬化)를 불러 돕도록 하고, 군사를 이끌고 필절(畢節)¹⁴²⁾로 가서 그 곳을 함락하고는 군사를 나누어 안순(安順)·평패(平壩)·짐익(窩益)을 공파하였다. 송만화(宋萬化)도 또한 묘중(苗仲) 구고(九股)를 이끌고 용리(龍里)를 점령하여, 마침내 귀양(貴陽)을 포위하게 하니 [안방언]은 나전왕(羅甸王)이라 자칭하였는데, 이때가 천계(天啓)¹⁴³⁾ 2년(1622) 2월이었다.

巡撫李樞方交代, 聞變, 與巡按御史史永安悉力拒守. 賊攻不能克, 則沿巖制柵, 斷城中出入. 鎮將張彥芳將兵二萬赴援, 隔龍里不得進. 貴州總兵楊愈懋·推官郭象儀與賊戰於江門而死. 外援絕, 攻益急, 城中糧盡, 人相食, 而拒守不遺餘力. 中朝方急遼, 不之省. 已, 以王三善爲巡撫, 倉卒調兵食, 大會將士, 分兵二道進. 三日抵龍頭營, 屢敗賊兵, 遂奪龍里. 邦彥聞新撫自將大兵數十萬, 懼甚, 遂退也龍河. 前鋒楊明楷率烏羅兵擊死安邦後, 遂乘勝拔貴陽城下, 先以五騎呼曰:「新撫至矣。」舉城歡呼更生. 貴陽被圍十餘月, 城中軍民男婦四十萬, 至是餓死幾盡, 僅餘二百人. 詳李樞及三善傳中.

순무 이운(李樞)¹⁴⁴⁾이 막 임기만료로 이임을 준비하던 차에 변란이 일어난 것을 듣고는 순안어사 사영안(史永安)과 힘을 다하여 방어하고 지켰다. 반격이 공격하였으나 이길 수 없자, 산 들레를 따라 목책을 치고 성의 출입로를 끊어놓았다. 진장(鎮將) 장원평(張彦芳)은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왔으나 용리(龍里)에서 막혀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귀주 총병 양유무(楊愈懋)·추관(推官)¹⁴⁵⁾ 광산의(郭象儀)가 강문(江門)에서 적과 싸우다가 죽었다. 외

142) 畢節: 秦代에 이곳에 漢陽縣이 설치되었고, 漢代에는 平夷郡, 唐代에는 羅州府, 宋代에는 羅羅州, 元代에는 平遠安得長官司가 각각 설치되었다. 洪武 17년(1384)에 畢節衛, 赤水衛가 설치되었는데, 清 康熙 26년(1687)에는 두 개의 衛를 합병하여 畢節縣을 설치하였다.

143) 天啓: 明 왕조 16대 황제인 熹宗 朱由校의 年號이다.

144) 李樞: 生卒年 未詳. 字는 長樞이며 浙江省 鄞縣 사람이다. 萬曆 29년(1601) 進士에 올라 廣東鹽法僉事, 山東參議, 陝西提學副使 등을 역임했으며, 貴州巡撫로 발탁된 시기는 萬曆 47년(1619)이다. 天啓 원년(1621) 四川에서 奢崇명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 여파가 분명 귀주까지 미칠 것을 염려해, 병력과 군량을 조정에 신청했지만 오히려 조정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결국 그를 대신해 王三善이 貴州巡撫로 부임하였다.

부의 지원은 차단되고 공세는 더욱 급박해졌는데 성안에는 양식이 떨어져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형편이 되었지만, 성을 지키는 데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했다. 조정은 그때 요동(遼東)의 사태가 위급하여 이를 돌보지 못하였다.¹⁴⁶ 그 후 왕삼선(王三善)¹⁴⁷이 순무로 임명되어 신속하게 군사와 양식을 징발하고 대대적으로 강졸들을 모집하여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진격시켰다. 3월 만에 용두영(龍頭營)¹⁴⁸에 도착하여 여러 차례 적들을 패배시키고 마침내 용리(龍里)를 탈환하였다. 안방언은 새로 부임한 순무가 스스로 대군 수습만을 거느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마침내 물러나 용동(龍洞)에 주둔하였다. 선봉장 양명해(楊明楷)¹⁴⁹는 오라(烏羅) 군사들을 이끌고 안방준(安邦俊)을 공격하여 죽이고,¹⁵⁰ 마침내 승세

145) 推官: 唐代에 최초로 설치된 관직으로, 節度使, 觀察使, 團練使, 防禦使 등의 幕府에 설치된 속관으로 地位는 判官 아래였으며, 刑獄을 담당하였다. 宋代에도 府와 三司, 各部에 推官을 설치하여 各案에 관련된 公事를 주관하게 했다. 開封府에는 左, 右 兩廳을 설치하고 每廳에 推官 1명을 두었다. 元代에는 各路의 總管府에 推官을 두어 刑獄을 담당시켰다. 明代에는 各府에 推官을 설치하여 刑名을 담당하게 했다. 淸初에도 이를 답습하였으나 康熙 6년(1667)에 推官을 폐지하였다. 光緒 33년(1907)에 大理院에 다시 推官을 설치하고 推事라고 개칭하였다.

146) 萬曆 46년(1618) 後金에 의해 撫順이 함락되고 이어 萬曆 47년(1619) 사르후 전투에서 명과 朝鮮 연합군이 후금에 대항했지만 패전한 후, 開原이 함락된 사태를 말한다.

147) 王三善(1565~1623): 字는 尤名으로 河南 永城 사람이다. 萬曆 29년(1601)에 進士로 급제하여 荊州 推官으로 제수되었는데, 公경하고 淸廉하였으므로 輿論이 공평하였다. 후에 吏部文選으로 임용되었는데, 인사 조처에 權貴에게 기부하지 않았다. 泰昌 元年(1620) 가을에 太常少卿으로 승진하였고, 天啓 원년(1621) 10월에는 右僉都御史로 승진하였다. 당시 貴州의 소수민족 酋長 安邦彦과 奢崇明이 거병하여 明朝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는 巡撫로서 명사를 거느리고 원정에 가서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는 敵을 경시하여 天啓 3년(1623)에 적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가 대패를 당했다. 安邦彦과 奢崇明이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貴陽을 공격하였는데, 王三善은 부하를 보내어 토벌하였으며, 그 공으로 兵部侍郎이 되었다. 이때 그는 조정에 반항하는 소수민족은 이미 다 평정되었다고 생각하였는 土司를 두어 다스리려 하였는데, 조정 내에서 郡縣으로 바꾸려는 議論이 일어나 일부 소수민족과 土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으므로 이들 토사들은 점차 安邦彦에게 기울게 되었다. 天啓 4년(1624) 정월 王三善이 동으로 嶺軍하자 叛軍의 공격을 받아 中軍參將과 副總兵 등이 전사하였다. 明軍은 싸우면서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거짓으로 明軍에 투항했던 陳其惠는 王三善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항상 兵事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陳其惠는 자연히 明軍의 實情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없었다. 陳其惠의 계약에 걸려든 王三善은 결국 말에서 떨어져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생포된 후 살해되었다. 당시 나이 60세였다. 死後에 그는 조정으로부터 太子太保, 兵部尚書로 追贈되었고, 忠烈이란 諡號를 받았다.

148) 龍頭營: 龍里洞 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149) 楊明楷: 生享年 未詳. 귀주성 銅仁府 烏羅 출신이다. 안방언 반란 당시 參將이었으며, 한때 안방언에게

를 몰아 귀양(貴陽)성 밑에 도착하여 먼저 5명의 기병들로 하여금 “새로 부임한 순무가 왔다”고 전하여 의척케 하니, 온 성안이 살 수 있게 된 것에 환호하였다. 귀양은 포위된 지 10여 개월이어서 성안에 군사들과 남녀 40만 명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거의 굶어 죽고 겨우 2백 명이 남아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윤(李樞)과 왕삼선(王三善)의 열전에 상세하다.

貴陽圍既解, 邦彦遠遁陸廣河外. 三善遣使諭社輝母子縛邦彦以降. 大軍至者日益衆, 三善欲因糧於敵. 又諸軍視賊過易, 楊明楷營於三十里外. 邦彦復糾諸苗來攻, 師敗, 明楷爲所執. 邦彦勢復張, 合衆欲再圍貴陽. 三善遣兵三路御之, 破生苗寨二百餘, 擒萬化等, 焚其精聚數萬. 龍里·定番四路并通, 諸苗畔者相繼降. 邦彦氣奪不敢出, 於鴨池·陸廣諸要地掘堑屯兵, 爲自守計. 時奢崇明爲蜀兵所敗, 計窮投水西, 與邦彦合.

귀양의 포위가 풀리자 안방언은 밀리 육광하(陸廣河)¹⁵¹ 밖으로 달아났다. 왕삼선은 사자를 파견하여 사사휘(奢社輝) 모자에게 안방언을 포박하여 투항하도록 호유하였다. 대군이 이르러 그 수가 날로 증가하자, 왕삼선은 적들로부터 식량을 얻어내려고 하였다. 또 각 군이 적을 지나치게 경시하여 양명해(楊明楷)는 30리 밖에 군영을 두고 있었다. 안방언은 다시 여러 묘족들을 규합하여 공격해 왔는데, 관군은 패배하고 양명해는 사로잡히고 말았다. 안방언 세력은 다시 커져서 무리를 모아 다시 귀양을 포위하고자 하였다. 왕삼선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적을 막고 생묘(生苗)¹⁵²의 산채 200여 곳을 깨트려 송만화(宋萬化) 등을 사로잡

생포되기도 했지만 탈주해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다. 崇禎 元年(1628) 貴州副總兵에 올랐다. 150) 이때가 天啓 2년(1622) 12월로 『明史紀事本末』 卷69 平奢安, 安邦彦은 砲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明史』 卷249 列傳 王三善). 151) 陸廣河: 順慶州 修文縣 縣城에서 서쪽으로 30리 지점에 흐르며, 威寧縣 七星關에서 발원한다. 大定과 黔西의 여러 하천이 모이는 상류는 鴨池河이며 하류는 烏江으로서, 모두 옛 水西의 驛道였다. 주 111 참조.

152) 生苗: 漢族 문화에 동화된 熟苗과 대립되는 말로서, 漢族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활방식이 漢族과 동일한 지의 여부가 生苗과 熟苗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일찍이 嚴如煜이 “邊境內, 間有與民相錯居住, 或佃耕民地, 供賦當差, 與內地人民無異, 則熟苗也”라고 기술한 바와 같이(『苗防備覽』 卷8 「風俗考」), 명 萬曆 43년(1615) 鳳凰廳 남부부터 乾州까지 약 360여 리의 邊境을 설치하고 그 밖에

고 그들이 모아놓은 [식량] 수만 [식]을 불태웠다. 용리(龍里)·정번(定番)의 사방의 길은 모두 원활해졌고 반란을 일으켰던 묘족의 무리는 잇달아 투항하였다. 안방언은 용기를 상실하여 감히 출전하지 못하고 압지(鴨池)·육광(陸廣) 등 요충지에서 참호를 파고 군대를 주둔시켜 스스로 수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때 사승명(奢崇明)이 사천의 군대에 패배하여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수서에 의탁해와 안방언과 [군사를] 합쳤다.

三年，三善督兵攻大方賊寨，擒土司何中尉等，進營紅崖。連破天台·水脚等七圍，奪其天險。別將亦破賊於羊耳，迨至鴨池河，奪其戰象。遂深入至紅鳥岡，諸苗奔潰。三善率兵直入大方，奢社輝·安位焚其寨，竄火灼堡，邦彥奔織金。位違達人趙遠，乞降於總督楊連中。許之，令擒崇明父子自贖，一意主撫。而三善責并獻邦彥，當并用剿，議不合。往返間已逾數月，邦彥得益兵爲備。三善糧不繼，焚大方，還貴州。道遇賊，三善爲所害。邦彥率數萬衆來追，總理營欽力御之。大戰數日，大軍無糧，乘夜皆潰，欽自剄。賊燒劫諸堡，苗兵復動逆，貴陽三十里外蕪蕪不行，城中復大震。

[천계] 3년(1623)에, 왕삼선은 군사를 독려하여 대방(大方)의 반적 소굴을 공격하여 토사 하중위(何中尉) 등을 사로잡고, 홍애(紅崖)로 나아가 병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는] 잇달아 천태(天台)·수각(水脚) 등의 7개 산체를 격파하고, 그 천험의 요새지를 탈취하였다. 다른 장수들도 또한 양이(羊耳)에서 반적을 공격하고 압지(鴨池河)¹⁵³까지 추격하여, 적의 전투 용 코끼리를 빼앗고 마침내 홍조강(紅鳥岡)까지 깊이 들어가니, 여러 묘족들이 패하여 달아났다. 왕삼선이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대방(大方)으로 쳐들어가니, 사사휘(奢社輝)와 안위(安位)는 그들의 소굴을 불사르고 화작보(火灼堡)로 도망갔으며, 안방언은 직금(織金)으로 달아났다. 안위는 마침내 사람을 진원(鎮遠)¹⁵⁴으로 보내 총독 양술중(楊連中)¹⁵⁵에게 투항할

있는 묘족들을 생포라 칭한 것으로 보아, 생포와 숙묘의 구분에는 행정단국의 자의적인 기준도 많이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153) 鴨池河: 永寧州 清鎮縣 縣城 西北 90리 距離에 흐르며 본래는 甲池河지만, 보통 鴨池河라 불린다. 귀주성 서부 고원에 위치한 烏蒙山에서 발원하는 남쪽 水源과 북쪽에서 발원하는 六冲河가 만나 압지를 이루며, 陸廣河의 상류에 해당한다.

154) 鎮遠: 貴州省 鎮遠府에 있는 鎮遠衛를 가리킨다. 洪武 4년(1371)에는 思南宣慰司에 소속시켰다가 이듬

것을 청하였다. [양술중은] 이를 허락하면서 사승명 부자를 잡아 죄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오직 초무하는 데 뜻을 둔 것이다. 그러나 왕삼선은 안방언을 함께 바치라고 책임지우면서 마땅히 토벌책도 병용해야 한다고 하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의견 교환을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시간은 이미 몇 달이 지나, 안방언은 군사를 늘려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왕삼선은 군량 공급이 이어지지 않자 대방을 불사르고 귀주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반적을 만나 살해되었다. 안방언이 군사 수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추격해 오자 총리(總理) 노흠(魯欽)¹⁵⁶이 힘써 방어하여 큰 싸움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대군은 군량이 없어 밤중을 이용해 모두 도망가고, 노흠은 자결하였다. 반적들은 여러 보루를 불태우고 겁락하였으며, 묘족 군사들은 다시 반적을 돕게 되어서 귀양 30리 바깥으로는 나무꾼들이 다니질 못하고, 성안은 다시 크게 진동하였다.

初，大方東侍播，北侍簡，相爲犄角。後播·簡既平，賊惟恃烏撒爲援，而畢節爲四夷交通處。當三善由貴陽陸廣深入大方百七十里，皆驅鬼窟，以失地利而陷。天啓間，朱燮元爲蜀督，建議滇兵出露登，選安效良應援，分兵於天生橋·尋甸等處，以絕其走。蜀兵臨畢節，扼其交通之路，而別出龍場巖後，以奪其險；黔兵由普定渡臘河，徑趨邦彥巢，由陸廣·鴨池搗其虛；粵西兵出河城，分道策應；然後大軍由遵義鼓行而前，尋以憂去。未及用，總督閻夢得繼之，亦以貴州抵大方路險，賊惟恃畢節一路外通。戡兵宜從永寧始，自永寧而普市，而摩泥，而赤水，百五十里皆坦途。

해에는 직접 湖廣에 예속시켰다. 그후 永樂 11년(1413)에는 貴州에 소속시켰다. 2개 縣과 3개의 長官司를 관할하였다(『明史』 卷46, 地理志7). 鎮遠이란 명칭은 한 곳이 더 있는데, 湖北省 恩施縣에 위치한 鎮遠蠻長官司가 그것이다.

155) 楊連中: 生卒年 未詳. 사천 남부에 위치한 富順縣 출신으로, 天啓 4년(1624)에 王三善이 패하자, 운남, 귀주, 호광의 軍務를 총괄하는 총독에 올라 天啓 4년까지 그 지위에 있었다.

156) 魯欽: 生卒年 未詳. 山東省 長清縣 사람이다. 天啓 연간(1621~1627)에 奢崇明과 安邦彥이 貴州에서 明朝에 저항하여 봉기하자, 그는 杜文煥을 대신하여 四川·貴州·湖廣의 군사를 이끌고 王三善을 보좌하여 싸웠다. 왕삼선이 적의 계략에 걸려 죽자 노흠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돌아왔다. 얼마 안가서 직명을 대과하였으나 후에 안방언이 다시 대대적으로 공격해왔는데, 이때 노흠이 그를 막아 여러 날 싸웠지만 장졸들이 도망쳐 버려, 노흠은 마침내 자결하였다.

赤水有城郭可憑而守，宜結營進逼。四十里爲白巖，六十里爲層台，又六十里爲華節。華節至大方不及六十里，賊必并力來御，須重兵扼之，斷其四走之路，然後遣義·貴陽起期而進，亦不果用。及是黔事棘，詔起變元總督貴·雲·川·廣。於是變元再遣黔，時崇禎元年也。

당초에 대방(大方)은 동쪽으로는 파주(播州)의 세력에 의지하고, 북쪽으로는 인주(蘭州)¹⁵⁷⁾에 의지하여 서로 호응하고 협공하는 형세를 갖추고 있었다. 후에 파주와 인주가 평정되자 반격은 오직 오살(烏撒)을 지원군으로 의지하게 되어 필절(華節)이 사망 오랑캐가 교통하는 곳이 되었다. 왕상신이 귀양(貴陽)의 육광(陸廣)으로부터 대방으로 길이 들어간 170리 어간이 모두 나라(羅羅)족 소굴이어서, 지리적으로 우위에 서지 못하고 패배한 것이었다. 천계 연간(1621~1627)에 주שמ원(朱燮元)¹⁵⁸⁾이 사천 총독이 되어 건의하기를, 운남의 군사는

157) 蘭州: 四川 분지 남쪽과 雲貴 고원 북쪽 지점에 위치한 곳이며 서쪽으로는 敘永縣과 동남북쪽으로는 貴州省의 畢節, 仁懷, 그리고 四川의 赤水와 교차 지역이다. 唐元和 원년(806) 蘭州가 처음 설치되었으며, 元代에 이르러 四川省 永寧州에 속했다. 명대에 永寧長官司, 永寧安撫司 등에 예속되어 있다가 淸 雍正 5년(1727) 永寧縣에 편입되었다.

158) 朱燮元(1566~1633): 원래의 이름은 懋實이며, 字는 懋和, 號는 恒岳, 別號는 石芝였다. 山陰(지금의 浙江 紹興)의 白洋村 출신이다. 萬曆 13년(1585)에 舉人이 된 후 紹興知府, 蕭良于의 조빙을 받고 諸子書를 2년 간 전수하였다. 萬曆 20년(1592)에 進士로 급제하여 大理評事에 제수되었다. 당시 山西 襄陽 劉申 등이 鄕里에서 橫行하여 죽은 자가 즐비하였다. 이 일이 드러났지만 10년 동안 편집이 나지 않았다. 그는 이 案件을 受理해서 權貴의 請을 물리치고 즉각 판결하여 300여 명을 구원하였다. 후에 蘇州知府로 부임하여 부정행위를 직방하는 등의 治績을 올렸다. 萬曆 29년(1601)에 鹽稅使 孫麟이 蘇州에서 무리하게 徵稅를 감행하여 葛成을 우두머리로 하는 1만여 명의 織工이 민變을 일으켰다. 이때 그는 이미 川南道로 승진하여 행장을 쟁겨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大吏들이 다급한 나머지 그에게 폭동 진압을 요청했는데, 그는 “官兵은 外寇를 방어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군 동원을 통한 폭동 진압을 거부하고 恩義로써 해산을 권하였다. 결국 葛成이 자수하면서 민變은 일단락되었다. 萬曆 35년(1607)에는 부모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辭職하고 귀향하여 10년 동안 불양하였다. 萬曆 44년(1616)에 陝西按察使로 기용되었고, 萬曆 46년(1618)에는 四川右布政使로 부임하였다. 天啓 원년(1621)에 永寧土司 奢崇明이 반란을 일으켜 41개 州縣을 연속으로 격파한 뒤 水陸으로 成都를 포위하였는데, 이때 그는 “賊勳我止, 賊止我勳” 전술로 반란군을 유인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 공로로 兵部侍郎과 四川, 湖廣, 陝西 등지의 軍務를 총괄하게 되었다. 奢崇明이 그 후에 貴州 水西土司 安邦彥과 연합하여 다시 거병하여 貴州를 침범하였고, 貴州巡撫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자 조정에서는 다시 朱燮元에게

점익(蓄益)¹⁵⁹⁾으로 나와 안효량(安效良)이 지원하는 것을 막고, 군사를 천생교(天生橋)와 심전(尋甸)¹⁶⁰⁾ 등의 곳에 나누어 보내 적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도록 하며, 사천의 군사는 필절로 가서 교통로를 경악하고 따로 용강암(龍場巖) 뒤로 나가서 그 험한 곳을 빼앗고, 귀주(貴州)는 보정(保定)으로부터 사랍하(思臘河)¹⁶¹⁾를 건너 곧바로 안방연의 소굴로 향하는데 육광(陸廣)과 암지(鴨池)를 경유하면서 적의 허약한 곳을 공격토록 하고, 평서 군사는 사성(泗城)¹⁶²⁾으로

출정토록 하였다. 이후 兵部尙書로 승진하여 貴州, 四川, 湖廣, 雲南, 廣東等 5省의 軍務를 총괄하였다. 崇禎 2년(1629) 8월에 水西로 진격하여 奢崇明과 安邦彥을 죽이고 서남의 반란을 평정했으며, 이 공로로 少保로 승진하여 少傅兼太子太傅가 더해졌고, 후에 少師, 左柱國이 추가되었다. 崇禎 11년(1633)에 殉職하였는데, 처음에는 襄毅라는 諡號를 받았으나 후에 忠定으로 바뀌었다. 저술로 『督蜀疏草』 12卷, 『朱襄毅疏草』 12卷, 『朱少師奏疏』 8卷이 있다.

159) 蓄益: 秦代 五尺道를 개척할 당시 이곳을 통과했으며, 현재 雲南省 曲靖市에 위치한 지역이다. 宋代 大理國 磨彌部の 蠻族 蒙提가 沾益 老城을 건설해서 이름을 賊臘이라 했으며, 元 至元 13년(1276) 露益州를 설치한 이후 점익주란 명칭이 등장했다. 蠻族 지역인 이 일대 주민들은 관대히 처리해 朝廷의 이익이 두루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불인 명칭이다. 明초에 交水縣을 폐지해서 露益州가 편입시키고 曲靖府 관할에 두었다. 淸 順治 16년(1659) 露益州의 治所를 현재 宣威市에서 交水城(현재 平西鎮)으로 이전했다.

160) 尋甸: 지금의 雲南省 東北部에 위치한 尋甸回族彝族自治州이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漢·回·彝·苗·傣·拉祜·佤·納西族 등 2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少數民族인 인구는 11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8%에 달한다. 尋甸은 운남 동북부의 요충지로서 漢 武帝 元封 2년(전109)에는 牧靡로 칭해져 益州郡에 속했다. 明代에 이르러 洪武 15년(1382)에 尋甸軍民府가 설치되었고, 成化 12년(1476)에는 改土歸流가 취해져서, 토관에 대체하여 유관이 부임했다. 淸代에는 順治 8년(1730)에는 尋甸縣에 進東兵備道를 설치하였다가 후에 進東兵備道水陸道로 고쳤다. 道台는 尋甸縣城에 설치하고 13개 府를 관할하였다.

161) 思臘河: 貴州 安順州 普定縣 서북쪽에서 흘러들어 동서 방향으로 흐르다가 안순주 북서쪽 平壩衛 부근에서 다시 남북으로 암지와 합쳐지는 하천의 이름이다. 이 하천은 지역마다 그 명칭이 달랐는데, 우선 현 서쪽 50리에서 흐르는 하천은 谷龍河라 했으며, 西壩 부근부터 바로 思臘河라 불렀다. 지방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상류를 다시 猛浪河라 했다. 이어 이 사람들이 縣城 북쪽 30리 지점부터 다시 三岔河라 불렀다. 다만 乾隆 『貴州通志』에 목룡하가烏江으로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대체로 위 세 강을 모두 오강의 지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인다. 현대 중국에서 발견된 지도에는 이러한 하천 명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지 삼차하라고 표기하고 있다. 각각 咸豐 元年(1851) 『安順府志』 卷10 『地理志·(水)·乾隆 『貴州通志』 卷5, 『地理』·(山川)· 『中華人民共和國地圖集』 참조.

162) 泗城: 泗城州를 일컫는다. 송나라 皇祐 연간(1049~1054)에 州를 설치하였는데, 治所는 오늘날 廣西 凌云縣의 西南쪽에 두었다. 명나라 때에는 治所를 오늘날의 凌云縣으로 옮겼다. 淸나라 順治 초년에 府로 승격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軍民府가 되었다가 雍正 연간에 다시 府가 되고 道官이 설치되

로 나와 길을 나누어 각 군과 호응토록 하며, 그런 연후에 대군이 준의(遵義)로부터 크게 세력을 보이면서 진군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섭원]이 부모상을 당하여 관직을 떠났기 때문에 [건의가] 채용되지 않았다. 총독 민몽득(閔夢得)¹⁶³이 직무를 이어받았는데, [그] 역시 “귀주(貴州)에서 대방(大方)에 도달하는 길이 험하여 적들은 단지 필절(畢節) 한길에 의지하여 외부와 통하고 있다. [그러니] 아군은 마땅히 영녕(永寧)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영녕으로부터 보시(普市), 마니(摩泥), 그리고 다시 적수(赤水)에 이를 때까지 150리 길은 모두 평탄한 도로다. [그런데] 적수(赤水)에는 의지해 지킬만한 성곽이 있으니 마땅히 군영을 설치하고 나가 공격해야 한다. 40리 지나면 백암(白巖)이 있고 60리 지나면 층대(層台)가 있으며 다시 60리 지나면 필절(畢節)이다. 필절에서 대방까지는 60리가 되지 않으니 반적들은 반드시 힘을 다하여 방어하러 올 것이니, 마땅히 강력한 군사들로 그곳을 장악하여 그들이 사방으로 도망가는 길을 끊어 놓아야 한다. 그런 후 준의(遵義)와 귀양(貴陽)에서 때맞춰 진군토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 또한 끝내 실행되지 않았다. 이때 귀주의 사태가 긴박하여 황제는 조서를 내려 주섭원(朱燾元)을 기용하여 귀주·운남·사천·광서(廣西)¹⁶⁴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주섭원이 다시 귀주에 부임하였는데, 이때가 승정(崇禎)¹⁶⁵ 원년(1628)이었다.

있다. 乾隆 초년에 波雲縣에 府治를 중심하고 그 境內를 확장하였는데, 오늘날 廣西 西部의 柳柳河, 澄碧水 流域 서쪽 지방이었다. 그후 1913년에 폐지되었다.

163) 閔夢得: 生卒年 未詳. 天啓 6년(1626) 6월부터 12월까지의는 귀주, 사천, 호광, 총독을, 天啓 6년 12월부터 崇禎 원년(1628)까지는 귀주, 사천, 호광, 광서 총독을 역임하였다. 그 뒤를 이은 주섭원은 崇禎 원년 6월에 부임하였다.

164) 廣西: 중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省으로, 현재는 소수민족 자치구로 되어 있으며, 2010년 현재 인구는 약 4,600만 명이다. 『尚書』 『禹貢』의 기록을 보면, 荊州와 揚 荆 2州的 塞外 지역으로, 원나라에서는 廣西兩江道宣慰使司를 두고 靜江路를 治所로 삼았다. 湖廣行中書省에 속하였으나 順帝 至正 연간(1341~1367) 말에 宣慰使司를 廣西等處行中書省으로 고쳤다. 명에 들어와 초기에는 원의 제도를 답습하여 廣西等處行中書省으로 그대로 칭했으나,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다. 府 11·州 48·縣 50·長官司 4곳을 관할하였다. 漢나라 때에는 南海郡尉 趙佗가 이 지역의 桂林郡, 象郡 등을 점령해 南越國을 세웠지만,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漢 나라에게 점령당했다. 명 洪武 9년(1376)에 이 지역을 廣西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면서 廣西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이후 1957년에 이곳을 廣西僮族自治區로 설치 인준했으며, 1965년에 國務院은 그 명칭을 廣西壯族自治區로 바꾸었다.

165) 崇禎: 명 왕조의 마지막인 제17대 皇帝 思宗 朱由檢의 年號이다.

崇禎明自號大梁王, 安邦彦自號四裔大長老, 其部衆悉聽元帥. 悉力趨永寧, 先犯赤水. 燾元授意守將伴北, 誘深入, 度賊已抵永寧, 分遣別將林兆鼎從三岔入, 王國禎從陸廣入, 劉養縱從遵義入. 邦彦分兵四應, 力不支. 羅乾象復以奇兵繞其背, 急擊之, 賊大驚潰, 崇禎·邦彦皆授首. 邦彦亂七年而誅, 燾元乃移檄安位, 赦其罪, 許歸附. 位堅子不能決, 其下謀合濱兵來拒. 燾元扼其要害, 四面進攻, 斬首萬餘級. 復得向導, 輒發窖粟就食, 賊益饑. 復遣人至大方燒其室廬, 位大恐, 遂率四十八日出降. 燾元奏請許之, 報可. 而前助邦彦故宣慰宋萬化之子嗣殷亦至是始割滅. 乃以宋氏洪逢十二馬頭地置開州, 建城設官. 燾元復遣兵平擺金五洞諸叛苗, 水西勢益孤. 十年, 安位死, 無嗣, 族屬爭立. 朝議欲乘其敝郡縣之. 燾元奏未可驟, 乃僅撤去目, 諭以威德, 諸苗爭納土獻印. 貴陽甫定, 而明亦旋亡矣.

사승명은 스스로 대량왕(大梁王)이라 칭하고 안방언은 사예대장로(四裔大長老)라고 자칭하였는데, 그의 부하들은 모두 원수(元帥)라고 불렀다. 전 병력을 영녕(永寧)으로 출동시켜 먼저 적수(赤水)를 점령하였다. 주섭원(朱燾元)은 지키는 장수에게 거짓으로 패한 체라라 하고서 적들을 깊이 들어오도록 유인하고는, 적이 이미 영녕(永寧)에 도착했을 것이라 예측하고서 별장(別將) 임조정(林兆鼎)을 삼차(三岔)로부터 진입시키고, 왕국정(王國禎)은 육광(陸廣)으로부터 들어가게 하고, 유양군(劉養縱)은 준의(遵義)로부터 진입시켰다. 안방언은 군사를 나누어 사방에 대응하는데 세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건상(羅乾象)은 또 기습하는 군사를 이끌고 적의 후방으로 돌아가 급히 공격을 가하니, 반적 무리가 크게 놀라 패하였고 사승명과 안방언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안방언이 반란을 일으킨 지 7년 만에 죽음에 처해진 것이다. 주섭원은 안위(安位)에게 격문을 보내어 그의 죄를 사면해 주고 귀순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였다. 안위가 나이가 어려 결정할 수가 없었는데, 그의 수하들은 패잔병들을 모아 저항하기를 계획하였다. 주섭원은 그 요청지를 장악하고 사면으로 번갈아가며 공격하여 만여 명을 참수하였다. [그리고] 다시 길 안내자를 얻어 곡식 숨겨놓은 곳을 발견한 하면 곧 먹어버리니, 적들은 더욱 굶주리게 되었다. 또한 사람을 대방으로 보내 그들의 집을 불사르니, [이에] 안위는 크게 두려워하여 48명의 두목들을 거느리고 투항하였다. 주섭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주청(奏請)하니,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안방언을 도왔던 전(前) 선위

[사] 송만화(宋萬化)의 아들 송사은(宋嗣殷) 또한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토벌되었다. 이에 송씨(宋氏)의 흥변(興邊)¹⁶⁶ 등 12개 마두(馬頭) 지역에 개주(開州)¹⁶⁷를 설치하고 성을 건설하여 관리를 두었다. 주섭원이 다시 군사를 보내어 과금(攏金)¹⁶⁸의 5개 마을의 반란을 일으킨 여러 요족들을 평정하니, 수서의 세력은 더욱 고립되었다. [승정] 10년(1637)에 안위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종족들은 용입을 둘러싸고 싸움을 하였다. 조정에서는 그들이 쇠퇴한 틈을 타서 군현(郡縣)을 설립하려고 논의를 하였다. 주섭원이 급히 헤서는 안 된다고 상주하고서 이에 토목(土目)에게 격문을 보내 위엄과 덕으로 깨우치니, 여러 요족들이 다투어 토지와 인장을 바쳤다. 귀양(貴陽)이 방금 평정되었으나 명조도 또한 얼마 안가 멸망하였다.

思南思州 사남 사주

思南，即唐思州。宋宣和中，番部田祐恭內附，世有其地。元改宣慰司。明洪武初，析爲二宣慰，屬湖廣。永樂十一年置思南府，領長官司四：曰水德江，曰蠻夷，曰沿河祿溪，曰朗溪。思州領長官司四：曰都坪峨異溪，曰都素，曰施溪，曰黃道溪。

사남(思南)은 곧 당(唐)나라 때의 사주(思州)이다.¹⁶⁹ 송(宋)나라 선화(宣和) 연간(1119~1125)에 번부(番部)의 전우공(田祐恭)¹⁷⁰이 조정에 귀순하여 대대로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

- 166) 洪邊: 元代 至元 연간(1264~1294)에 설치된 洪邊州를 말하며 당시 八番羅甸宣慰司에 속해 있었다가 洪武 연간(1368~1398)에 폐지되었다. 이른바 鴨池河 以東 지역에 해당하는 龍里와 貴定 일대 지역에 있었던 水東土司의 근거지였다.
- 167) 開州: 崇禎 4년(1631)에 설치되었으며 貴陽府 관할로, 治所는 현재 貴州省 開陽縣이었다. 1914년 湄江縣으로 명칭을 바꿨다.
- 168) 攏金: 현재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관할 惠水縣 지역을 말한다. 본문에 등장하는 金溪安撫司 관할 程番長官司 지역 일대에 해당한다.
- 169) 隋나라 초기에는 庸州 관할이었으며, 唐 高祖 武德 4년(621) 이 지역에 務州를 설치했다가 太宗 貞觀 4년(630) 思州로 바꿨다.
- 170) 田祐恭(?~1154): 宋代 思州 출신으로 宋 哲宗 元符 원년(1098) 敎諭使를 계승받은 이후, 이 지역 통치에 많은 업적을 남겨 다양한 직위를 하사받았다. 특히 宋 徽宗 宣和 원년(1119) 貴州防禦大使라는

원(元)나라 때에 이르러 선위사(宣慰司)로 바꿨다.¹⁷¹ 명(明)나라 홍무(洪武) 초년에 두 개의 선위[사]로 나누어 호광(湖廣)¹⁷²에 예속시켰다.¹⁷³ 영락(永樂) 11년(1413)에 사남부(思南府)를 설치하고¹⁷⁴ 네 개의 장관사를 거느리도록 하였는데, 수덕강(水德江), 만이(蠻夷),¹⁷⁵ 연하우계(沿河祿溪),¹⁷⁶ 낭계(朗溪)¹⁷⁷라 한다. 사주(思州)는 네 개의 장관사를 예하에 두었는데, 도평야이계(都坪峨異溪),¹⁷⁸ 도소(都素),¹⁷⁹ 시계(施溪),¹⁸⁰ 황도계(黃道溪)¹⁸¹라 한다.

적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貴州라는 명칭이 행정구역 명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소나라의 침입에 저항한 공로로 知思州軍民事에 올랐다.

- 171) 이 지역의 元代 土司 관련 기록은 자세하지 않지만, 史書의 기록에 따르면 宣慰司가 아닌 安撫司가 설치되었다. 즉 顧祖禹『讀史方輿紀要』卷122와 乾隆『貴州通志』卷3『地理(建置)』에는 각각 思州軍民安撫司와 思州宣撫司로 기록되어 있다. 원대 이 지역에는 水特美長官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土酋 張坤元이 존재하였다.
- 172) 湖廣: 『尚書』『禹貢』의 荆·揚·梁·豫 四州의 지역으로, 元代에 湖廣等處行中書省을 두었다. 太祖 甲辰年(1364)에 陳理를 평정하고 湖廣等處行中書省을 두었다.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고, 府 15·直隸州 2·屬州 17·縣 108·宣慰司 2·宣撫司 4·安撫司 5·長官司 21·蠻夷長官司 5곳을 관할하였다.
- 173) 思州가 두 宣慰司로 나뉜 시기는 洪武 3년(1370)이다. 당시 이 지역이 두 곳으로 분리된 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하지만, 思南 일대를 田仁厚에게, 思州를 田玄正에게 계수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 시기 이후 思州가 둘로 나뉘어졌다.
- 174) 당시 宣慰使 田宗鼎의 不法을 개혁하고, 단행한 조치이다.
- 175) 蠻夷(長官司): 思南府 서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실제로는 洪武 10년(1377)에 설치했으며, 당시 이곳의 土酋 安輝世가 다스렸다.
- 176) 沿河祿溪: 思南府 동북쪽 200리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播州軍民安撫司 관할로 당시 土酋는 張文龍이 었다.
- 177) 朗溪: 사남부 동쪽 45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당대에는 巫州, 명대에는 湖廣省 沅州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仡佬族이 살았으며, 洪武 10년(1377)에 처음 설치되었다. 思南宣慰司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永樂 11년(1413) 烏羅府로 예속시켰다가 正統 4년(1439) 오라부를 폐지하였다.
- 178) 都坪峨異溪: 元代 臺蓬若洞溪溪等處軍民長官司를 두고 思州軍民安撫司에 예속돼 있던 지역으로 洪武 6년(1373)에 이름을 바꾼 현재의 장관사를 설치했으며 土酋 何夢霖이 다스렸다. 본문의 설명대로 永樂 11년(1413) 다시 현재 장관사를 설치할 당시 土酋는 周斌이었으며, 이후 周氏와 何氏가 이 지역을 번갈아 다스렸다.
- 179) 都素: 思州府 서쪽 9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明初에는 馬口峯라는 명칭으로 黃道司에 예속돼 있었다.
- 180) 施溪: 思州府 북쪽 25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元代에는 施溪溪頭等處長官司를 설치해 順元等路軍民安撫司에 예속시켰다. 洪武 5년(1372) 施溪長官司를 설치하고 治所를 平地峯에 두었으며, 土酋 劉道忠이 다스리도록 하였다. 당시 湖廣省 沅州衛에 예속시켰지만, 곧 思州宣慰司 관할로 바꾸었다.
- 181) 黃道溪: 사주부 동북쪽 130리에 위치해 있으며, 元代 黃道溪軍民長官司였다. 洪武 25년(1392) 治所를

初, 太祖起兵平僞漢, 略地湖南, 思南宣慰使田仁智遣都事楊琛來歸附, 并納元所授宣慰詔。帝以率先來歸, 俾仍爲思南道宣慰使, 以三品銀印給之, 并授琛爲宣撫使。思州宣撫使田仁厚亦遣都事林憲、萬戶張思溫來獻鎮遠、古州軍民二府, 婺川·功水·常寧等十縣, 龍泉·瑞溪·沿河等三十四州, 於是命改思州宣撫爲思南鎮西等處宣慰使司, 以仁厚爲使, 俱歲朝貢不絕。

당초에 태조(太祖)가 군사를 일으켜 차진 한(漢)나라를 평정하고 호남(湖南)¹⁸²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에] 사남(思南) 선위사(宣慰使) 전인지(田仁智)가 도사(都事)¹⁸³ 양철(楊琛)을 보내 귀순하고, 아울러 윈나라에서 제수한 선위[사]의 임명장을 바쳤다. 황제는 그가 출신하여 귀순하니 이전대로 사남도(思南道) 선위사로 임명하고 삼품(三品)의 은인(銀印)¹⁸⁴을 주었으며, 아울러 양침에게는 선무사(宣撫使)¹⁸⁵를 제수하였다. 사주(思州) 선무사(宣撫使)

武陵坪으로 옮기고 思州宣慰司에 예속시켰다.

182) 湖南: 長江 중류의洞庭湖 남쪽 지역을 가리킨다. 현재는 省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울러 省의 境內에 湘江이 남쪽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湖'으로 略稱한다. 面積은 약 21만km²이며, 인구는 2010년 현재 약 6,500만 명이다. 春秋戰國 시대에는 楚나라 영역이었으며, 秦代에 이르러 長沙郡이 설치되었다. 漢 高祖 劉邦이 桂陽郡과 武陵郡을 두어 長沙郡이라 칭했다. 唐 肅宗 至德 2년(757)에 荊州防禦使를 설치해서 衡州, 岳州, 潭州, 郴州, 邵州, 永州, 道州를 管轄하도록 했지만 上元 3년(676)에 폐지했다. 이어 唐 代宗 廣德 2년(764)에 湖南觀察使를 두어 衡州, 潭州, 邵州, 永州, 道州를 管轄하게 하고 治所는 衡州에 두었다(嘉慶『湖南通志』卷6『建置沿革』3). 이 시기 이후 행정구역상 湖南이란 명칭이 등장했다. 北宋 시기에 荊湖南路와 荊湖北路로 나뉘었으며, 元代에는 湖廣等處行中書省으로 되었다가 明代에 湖廣布政使司를 설치했다. 康熙 3년(1664)에 湖廣을 湖廣左右布政使司로 분리했으며, 雍正 원년(1723)에 湖廣右布政使司를 湖南布政使司로 바꾸어 湖南이 정식 省 행정 단위가 되었다.

183) 宣慰使司에 속해있는 正八品의 직책이다.

184) 銀印: 銀으로 만든 官印을 가리킨다.

185) 宣撫使: 宣撫司의 長官 명칭이다. 이 명칭 자체는 唐 玄宗 開元 16년(728)에 처음 나타난다. 金代에는 章宗 泰和 6년(1206)에 陝西路宣撫司를 설치하고 陝西右監軍, 右都監兵馬 등의 公事를 節制하게 했다. 泰和 8년(1208)에는 陝西宣撫司를 安撫司로 고쳤으며, 山東 東西, 大名, 河北 東西, 河東 南北, 遼東, 陝西, 咸平, 隆安, 上京, 肇州, 北京 등 선후로 모두 10곳의 安撫司를 설치했다. 元代에는 邊방의 少數民族 地區에 宣撫司를 설치하여 地方行政機構로 활용했는데, 達魯花赤, 宣撫使, 同知, 副使 등의 官職을 두었다. 明清 시대에도 소수민족 거주지에 宣撫司를 설치했는데, 모두 토리들의 世襲官職이었다.

전인후(田仁厚) 역시 도사(都事) 임헌(林憲)과 만호(萬戶)¹⁸⁶ 장사온(張思溫)을 보내 진원(鎮遠)과 고주(古州)¹⁸⁷의 두 군민부(軍民府)와 무천(婺川)·공수(功水)·상녕(常寧) 등 10개 현, 그리고 용천(龍泉)·서계(瑞溪)·연하(沿河) 등 34개의 주를 바쳤다. 이에 사주선무(思州宣撫)를 사남·진서등처선위사사(思南·鎮西等處宣慰使司)로 바꾸도록 명하고 전인후를 선위사로 임명하니 그들 모두가 해마다 조정에 공물을 바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

二年, 仁厚死, 子弘正襲。帝以思南土官世居荒服, 未嘗詣闕, 詔命率其部長入朝。九年, 仁智入覲, 加賜織金文綺, 并諭以敬上愛下保守爵祿之道。仁智辭歸, 至九江龍城驛病卒, 有司以聞, 遣官致祭, 并敕送柩歸思南。時思州田弘正與其弟弘道等來朝, 帝命禮部皆優賜。十一年, 仁智子大雅襲, 奉表謝恩, 命思南收集各洞弩手二千人, 備征調。十四年, 大雅入朝。十八年, 思州諸洞蠻作亂, 命信國公湯和等討之。時寇出沒不常, 聞師至, 輒輿山谷間, 退則復出剽掠, 和等師抵其地, 恐蠻人驚潰, 乃令軍士於諸洞分屯立柵, 與蠻人雜耕, 使不復疑。久之, 以計擒其魁, 餘黨悉定, 留兵鎮之。二十年移思南宣慰於鎮遠。大雅來謝恩。思州宣慰弘正死, 子琛襲。三十年, 大雅母楊氏來朝。

[홍무] 2년(1369)에 전인후가 죽자 아들 전홍정(田弘正)이 세습하였다. 황제는 사남(思南)의 토관들이 대대로 먼 변경지에서 살면서 대궐에 와 본직이 없었다고 해서, 조서를 내려 그들의 부락 우두머리들을 거느리고 조정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홍무] 9년(1376)에 전인지(田仁智)가 조정에 와서 [황제를] 알현하니, 직급(職金)¹⁸⁸과 문기(文綺)¹⁸⁹를 하사하고 아울

186) 萬戶: 金나라 初에 설치된 관직으로, 世襲官職이다. 都統에 예속되어 千戶(猛安)·百戶(謀克)를 統轄하였다. 元代에도 이를 이어받아 萬夫의 長으로 萬戶를 설치하여 樞密院에 예속시켰으며, 각 路에 駐劄하는 萬戶는 行省에 分屬시켰다. 萬戶府는 千戶所를 統轄했는데, 7천 명 이상의 군사를 통솔하는 萬戶를 上萬戶府라 칭하고, 5천 명 이상을 통솔하는 萬戶를 中萬戶府, 3천 명 이상을 통솔하는 萬戶를 下萬戶府라 칭하였다. 路의 萬戶府는 각기 達魯花赤 1명, 萬戶(正三品) 1명을 두었다.

187) 古州: 지금의 貴州省 黎平에 있는 苗族自治州榕江縣 일대 지역을 말한다. 元 至元 20년(1283)에 9廳 18洞을 평정하고 古州를 설치했으며 順元路宣慰司 管轄에 두었다. 이어 洪武 5년(1372)에 古州蠻夷 長官司를 설치하고 土酋 楊秀茂를 長官使로 임명했으며, 思州宣慰司에 예속시켰다. 永樂 원년(1403)에 다시 貴州衛 소속으로 되었다.

러 뒷사람을 공경하고 앞사람을 아끼며 작위와 봉록을 지키는 도리를 깨우쳐주었다. 전인지(田仁智)가 차별인사를 고하고 돌아갔는데, 구강(九江) 용성역(龍城驛)에서 병으로 죽었다. 담당 관원이 보고를 올리지 관리를 보내 계사를 지내주었으며, 칙서를 내려 영구를 호송하여 사남(思南)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때 사주(思州) 전홍정(田弘正)이 동생 전홍도(田弘道) 등과 함께 조정에 오니, 황제는 예부에 명령하여 모두 두둑이 하사품을 주도록 하였다. [홍무] 11년(1378)에 전인지(田仁智)의 아들 전대야(田大雅)가 세습하고 표문(表文)¹⁹⁰⁾을 올려 은혜에 감사하였다. [황제는] 사남(思南)에 명하여 각 동(洞)¹⁹¹⁾에서 궁노수 2천 명을 모아 징집에 대비토록 하였다. [홍무] 14년(1381)에 전대야(田大雅)가 조정에 들어왔다. [홍무] 18년(1385)에 사주(思州) 여러 동(洞)의 만인(蠻人)이 난을 일으키자, 신국공(信國公) 탕화(湯和)¹⁹²⁾ 등에게 명하여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당시 반적들의 출몰은 일정치 않아

188) 織金: 금실로 무늬를 넣은 옷인데 보통 朝服을 가리킨다.

190) 文錦: 화려한 무늬를 넣은 비단이다.

191) 表文: 漢代에 상급기관에 올리던 一種의 公文에서 기원한 것으로, 臣下가 君主에게 政事에 관해 陳述하거나 請願을 드리는 글이다. 東漢 이후에는 陳述과 請願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三國兩晉 시대에는 陳述하는 性格의 上行文을 모두 表라고 칭했다. 그 內容도 贊揚위해서 論議, 勸諭, 陳乞, 進獻, 推薦, 慶賀, 慰安, 訟理, 彈劾 등을 포함하였다. 唐宋 이후에는 表가 가진 進言議事하던 작용은 점차 다른 奏류의 公문으로 대체되었다. 대신에 陳謝(謝官 및 謝賜), 慶賀, 進獻 하는 일에만 사용되었다. 明代에는 朝廷에서 舉行하는 慶典, 萬壽節, 元旦, 冬至 等에는 內外臣僚들이 모두 例에 따라 進賀表나 箋을 올렸다. 表는 皇帝와 皇太后에게 箋은 皇后에게 올렸다. 表의 格式은 일반적으로 서두에는 「臣某言」 末尾에는 「臣某誠惶誠恐頓首, 死罪死罪」라고 썼으며, 最後에는 「某官臣上」이라고 썼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表의 程式도 부단히 변화하여 清代에 表는 완전히 統治者의 功績을 기리거나 太平을 粉飾하는 禮儀文書로 변화하였다.

192) 洞: 대체로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을 지칭하는 단어는 「洞(洞)」과 「寨」라는 명칭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나 사료의 설명으로 미뤄 「洞」이란 단어는 漢族이 자신의 전통적인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붙였던 명칭이며, 「寨」는 소수민족 지역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와 그 구성이 지닌 특성을 살려 부른 명칭으로 판단된다. 즉, 同治「來鳳縣志」卷27 「土司志」에 등장하는, 「宋參唐制折其種落, 大者爲州, 小者爲縣, 又小者爲洞, 其酋皆世襲」이란 말은 전자의 경우이고, 嚴如煜이 生苗의 풍습을 설명하면서 「寨中有父子兄弟數人數十人, 強梁健勝或能見官府講客話者, 則寨中民之, 共推爲寨長...又各自爲黨, 故一寨一長, 或一寨數長, 皆以盛衰強弱, 運變更易, 不能如他部之有酋長, 世受統轄也」라는 언급은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嚴如煜, 「苗防備覽」卷8 「風俗」上 참조.

192) 湯和(1326~1395): 字는 鼎信이고, 南直隸 鳳陽縣(지금의 安徽省 소속)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뜻이 있어서 놀이를 즐기면서도 항상 말타고 활쏘는 것을 익히며 여러 아이들을 거느렸다. 성장해서는 탁월하게 계략을 잘 세웠다. 元末에 변란이 일어나자 至正 12년(1352)에 자체들을 이끌고

서 관군이 오는 소식을 들으면 곧 산골짜기에 숨어들어 갔다가 관군이 물러가면 다시 나와 약탈을 하였다. 탕화(湯和) 등의 군대는 그곳에 도착하자 만인들이 놀라 달아날까 염려하여,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여러 동(洞)에 나누어 주둔하여 목책을 세우고 만인들과 뒤섞여 농사를 지어 그들이 다시는 의심하지 않도록 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계책을 꾸며 그들의 우두머리를 붙잡고 나머지 무리들도 모두 평정한 다음, 군사를 남겨 이곳을 진수(鎮守)하도록 하였다. [홍무] 20년(1387)에 사남선위사(思南宣慰司)를 진원(鎮遠)으로 옮겼고, [선위사] 전대야(田大雅)가 와서 사은(謝恩)하였다. 사주 선위사 전홍정(田弘正)이 죽자 그 아들 전침(田琛)이 세습하였다. [홍무] 30년(1397)에 전대야의 어머니 양씨(楊氏)가 조정에 왔다.

永樂八年, 大雅死, 子宗鼎襲. 初, 宗鼎凶暴, 與其副使黃禧構惡, 奏許旱年. 朝廷以田氏世守其土, 又先歸誠, 曲與保全, 改禧爲辰州知府. 未幾, 思州宣慰田琛與宗鼎爭沙坑地有怨. 禧遂與琛結, 圖宗鼎, 構兵. 琛自稱天主, 禧爲大將, 率兵攻思南. 宗鼎挈家走, 琛殺其弟, 發其墳墓, 并戮其母屍. 宗鼎訴於朝, 屢枚琛·禧去聞自辨, 皆拒命不至, 潛使奸人入教坊司, 伺隙爲變. 事覺, 遣行人蔣廷瓚召之, 命鎮遠侯顧成以兵壓其境, 執琛·禧械送京師, 皆引服. 琛妻冉氏尤悍悍, 遣人招誘台羅等寨苗普亮爲亂, 冀朝廷遣琛還招撫, 以免死. 帝聞而錮之.

영락 8년(1410)에 전대야(田大雅)가 죽고 아들 전종정(田宗鼎)이 세습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종정이 흉포하여 그의 부[선위사]副[宣慰使] 황희(黃禧)와 원한을 맺고 서로 비방하는 말을 상주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전씨(田氏)가 대대로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으며 또 술선해서 귀순했으므로, 가능한 한 [직위를] 보전해 주고자 하여 황희의 자리를 바꾸어 진주(辰州)¹⁹³⁾ 지부(知府)로 임명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주 선위사] 전침(田琛)과

郭子興軍에 가담했으며, 이듬해 朱元璋에게 귀속했다. 전투에 일해서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어, 그 공으로 御史大夫에 이르고 信國公에 봉해졌다. 죽은 후에는 東廠王에 追封되었고 諡號는 襄成이다. 湯和는 晩年에 더욱 공손하고 신중해져 별근을 내놓기를 청하였다. 이 때문에功名을 맡가지 유지할 수 있었다.

193) 辰州: 지금의 湖南省 懷化市 沅陵縣 일대에 해당한다. 春秋시대 楚나라 당시 巫郡에 속했으며, 秦始皇 24년(전223)에 秦이 楚를 멸망시키고 이 곳에 黔中郡을 설치했다. 이어 前漢 高祖 5년(전202)에 설치된

[사남 선위사] 전종정(田宗鼎)은 모래가 퇴적된 웅덩이를 차지하려고 다투어 원한을 맺었다. 황희는 마침내 전침과 결탁하여 전종정을 도모하려고 군사를 일으켰다. 전침(田琛)은 자칭 천주(天主)라 하고 황희를 대장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사남(思南)을 공격하였다. 전종정(田宗鼎)은 가족을 데리고 도망갔고, 전침(田琛)은 그의 동생을 죽이고서 그 집 모지를 파헤쳐 어머니의 시체를 도굴했다. 전종정이 조정에 호소하자 [조정에서는] 누차 칙서를 내려 전침과 황희에게 대결에 와서 스스로 변론토록 하였으나, 모두 명령을 거부하여 오지 않고 비밀리에 정답권을 교방사(敎坊司)¹⁹⁴에 잠입시켜 틈을 보아 변란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조정에는] 행인(行人)¹⁹⁵ 장정찬(蔣廷瓚)을 보내 그들을 불러오도록 하고 진원후(鎭遠侯) 고성(顧成)에게 명하여 군사로써 그 영역을 압박해서, [고성이] 전침과 황희를 붙잡아 형구를 씌워 경사(京師)로 압송하니 [그들은] 모두 죄를 인정하였다. 전침의 처 여씨(冉氏)는 특히 강하고 용맹스러워서 사람을 보내 대라(臺羅) 등 세(寨)로 보내어 묘족 보광(普光)을 꾀어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이는 조정에서 전침을 둘러보내 초무(招撫)토록 함으로써 죽음을 면하도록 해주기를 바라서였다. [그러나] 황제는 이를 듣고 그를 감금시켜 버렸다.

以宗鼎窮蹙來歸，得末滅，令復職，還恩州。而宗鼎必得報怨，以絕禍根。帝以宗鼎幸免禍，不自懲，乃更寔忿，亦留之。宗鼎出怨言，因發祖母陰事，謂與楊奸，實造禍本。祖母亦發宗鼎縊殺親母瀆亂人倫事。帝命刑部正其罪，諭戶部尚書夏原吉曰：「琛·宗鼎分治思州·思南，皆為民害。琛不道，已正其辜。宗鼎滅倫，罪不可宥。其思州·思南三十九長官地，可更郡縣，設貴州布政使司總轄之。」命顏成剽盜羅諸寨，成斬苗賊普亮，思州乃平。十二年遂分其地為八府四州，貴州為內地，自是始。兩宣慰廢，田氏遂亡。

전종정이 궁궁한 지경에 몰려서 귀순해왔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덜어주고서 복직시켜 사남(思南)에 돌아가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전종정은 오직 복수하여 화근을 끊고자 하였다. [이에] 황제는 전종정이 다행스럽게 화를 면하고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여 그를 보내지 않았다. 전종정이 비방하는 말을 했는데, 조모(祖母)의 은밀한 일을 까발려서 그녀가 황희(黃希)와 간통한 것이 실제로 화근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조모 역시 전종정이 어머니를 목을 졸라 죽여 인륜을 어지럽힌 일을 폭로하였다. 황제는 형부(刑部)에 명하여 그의 죄를 다스리도록 하고 호부상서(戶部尙書) 하원길(夏原吉)¹⁹⁶에게 유지를 내려 이르기를, “전침과 전종정이 사주와 사남을 나누어 통치했는데, 모두가 백성에게 해를 끼쳤다. 전침이 무도한 것임 이미 그 죄를 다스렸다. [그러나] 전종정이 인륜을 저버린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 사주(思州)·사남(思南)의 39개 장관사(長官司)의 땅을 군과 현으로 바꾸고 귀주포정사사(貴州布政使司)를 설립하여 총괄토록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성(顧成)에게 명하여 대라(臺羅)의 여러 묘寨(苗寨)를 토벌토록 하였다. 고성이 묘적 보광(普光)을 침수하니, 사주(思州)가 이에 평정되었다. [영락] 12년(1414)에 마침내 그 지역을 나누어 8개의 부(府)와 4개 주(州)로 하였으니, 귀주(貴州)가 내지(內地)로 된 것이 이때부터였다. 두 선위사가 폐지되어 전씨(田氏)는 마침내 멸망하였다.

武陵郡 지역이 편입되었다가, 隋 開皇 9년(589) 처음으로 辰州가 설치됐다. 元 至正 24년(1364) 朱元璋은 徐達을 보내 辰州를 공략한 후 비로소 元代의 辰州路를 辰州府로 고치고 沅陵, 盧溪, 辰溪, 溆浦의 네 縣을 관할하도록 했다. 이어 吳 禎년(1367) 辰州衛를 설치했으며,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혁파하고 湖廣布政使司를 설치해 辰州를 그 관할 하에 두었다. 淸 康熙 3년(1664) 湖南省에 예속시켰다. 194) 敎坊司: 중국 고대 궁정의 음악을 담당하는 가부로서 唐代에 처음 창설되었으며, 당시에는 敎坊이라 했다.明代에 敎坊司라 고쳐 禮部에 속하도록 했으며, 淸 雍正 연간(1723~1735) 和聲樂과 다시 개칭하였다. 195) 行人: 조공 관련 외교 업무를 담당하던 관직명으로, 行人司의 약칭이다. 周代에는 秋官에 속해 大行人과 小行人 2급이 있었고, 멀리서 天子를 알현하고자 온 賓客의 접대를 맡았다. 漢代에는 大鴻臚의 屬官으로 行人司가 있었지만 內內 郎官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했다. 『明史』 『職官志』에 따르면, 明代 行人司에 장관인 司正(正七品)과 부관인 左右司副(從七品)을 보좌하는 行人 37명(正八品)을 두어 捧節과 出使 등의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洪武 13년(1380)에 처음으로 行人司가 설치될 때 行人은 正九品이었으나, 洪武 27년(1394)에 品秩을 승격시키고 孝廉科 출신의 인재를 동용하였다. 建文帝는 行人司를 없애고 鴻臚寺에 예속시켰으나 永樂帝가 다시 복귀시켰다. 행인은 행인사에 소속되었는데 행인사는 조직반포, 종실 책봉, 변방 위무, 인제 조빙, 賞賜, 위문, 제단구제, 군대, 제사 등의 일에 관여하였다(全 淳東, 2007: 114~115).

196) 夏原吉(1366~1430): 字는 惟楙이다. 그의 선조는 江西 饒州府 德興縣(지금의 德興市)에 살다가 湖廣 長沙府 湘陰縣(지금의 湖南省 岳陽市 岳陽市 岳陽市)으로 이주하였다. 洪武 23년(1390)에 鄉里의 천거를 받아 太學에 들어가서 戶部主事로 발탁되었다. 다섯 임금을 섬겼고 누차 승진하여 관직이 戶部尙書에 이르렀고, 太子少傅가 더해졌다. 宣德 연간(1426~1435)에 內閣에 들어가서 機密을 다루는 사무에 참여하였는데,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大體를 잘 파악하였다. 諡號는 忠靖이고, 저술로 『夏忠靖公集』이 남아 있다.

正統初，蠻夷長官司奏土官衙門婚姻，皆從土俗，乞頒恩命。帝以土司循舊俗，因親結婚者，既累經赦宥不論，繼今悉依朝廷禮法，違者罪之。景泰間，思南府奏府四面皆山，關隘五處，無城可守，乞發附近土軍修築。命巡撫王來經畫之。

정통(正統) 초년에, 만이장관사(蠻夷長官司)¹⁹⁷⁾가 상주하여 토관(土官) 아문(衙門)의 혼인은 모두 그 지역의 풍속을 따르고 있으니, [그것을 허용하는] 은혜로운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 황제는 토사들이 계속 구습을 따르고 있어 친족끼리 결혼하는 자들을 이미 누차 관대히 용서하여 죄를 묻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모두 조정의 예법을 따라야 할 것이고 어기는 자는 죄를 물겠다고 하였다. 경태(景泰)¹⁹⁸⁾ 연간(1450~1457)에 사남부(思南府)에서 상주하기를, 부(府)의 사면이 모두 산으로 되어있는데 험준한 길목 다섯 곳에 지킬 만한 성이 없으니, 부근의 토군(土軍)을 징발하여 수축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순무(巡撫) 왕래(王來)¹⁹⁹⁾에게 명하여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고 하였다.

197) 蠻夷長官司: 思南府에서 직할한 長官司의 하나이다. 주 175 참조.

198) 景泰: 명 왕조 7대 황제인 景宗 朱祁鈺의 年號이다.

199) 王來(?~1470): 그의 字는 原之이고, 浙江 慈溪 사람이다. 宣德 2년(1427)에 會試 乙榜으로 第74하여 新建의 教諭로 拜受되었다. 宣德 6년(1431)에 御史로 발탁되어 蘇州, 松江, 常州, 鎮江 등 4府를 巡按하였다. 英宗 즉위 후에 楊士奇의 추천으로 山西左參政으로 발탁되었는데, 청렴하고도 노련하게 정무를 집행하였다. 당시 山西巡撫로 임명된 侍郎 于謙이 王來의 재능을 칭찬하면서 조정의 近臣을 맡을 만하다고 여겼다고 한다. 正統 13년(1448)에 河南左布政使로 승진했고, 이듬해(1449)에 左副都御史가 되어 河南, 湖廣, 襄陽 等府를 巡撫하였다. 오이타르의 예센이 침입하여 京師 부근까지 압박해오자 王來는 勤王兵을 이끌고 黃河를 건넜는데, 예센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야 撤軍했다고 한다. 景泰 원년(1450)에 貴州의 苗族이 반란을 일으키자, 王來는 右都御史의 직함으로 總督湖廣貴州軍務가 되어 반란을 평정하였다. 景泰 3년(1452) 10월에는 大理寺卿을 겸임하였다. 이듬해(1453)에 南京工部尙書가 되었다. 英宗의 復辟 이후 조정의 모든 尙書가 파면될 때, 王來도 落鄣하였다. 成化 6년(1470)에 사망하였다.

鎮遠 진원

鎮遠, 故爲暨眼大田溪洞。元初, 置鎮遠沿邊溪洞招討使, 後改爲鎮遠府。洪武五年改爲州, 隸湖廣。永樂十一年仍改府, 屬貴州。領長官司二: 曰偏橋, 曰邛水十五洞。領縣二: 曰鎮遠, 卽金容金達·楊溪公俄二長官司地; 曰施秉, 卽施秉長官司地也。

진원(鎮遠)은 예전에 수안대전계동(暨眼大田溪洞)이었다.²⁰⁰⁾ 원(元)나라 초기에 진원연변계동초토사(鎮遠沿邊溪洞招討使)를 설치하였다가 후에 진원부(鎮遠府)로 바꾸었다.²⁰¹⁾ 홍무(洪武) 5년(1372)에 주(州)로 바꾸어 호광(湖廣)에 소속시켰다. 영락(永樂) 11년(1413)에 다시 부(府)로 바꾸고 귀주(貴州)에 소속시켰다. 예하의 장관사는 두 개로, 편교(偏橋), 공수십오동(邛水十五洞)²⁰²⁾이라 한다. 예하의 현은 두 개인데, 하나는 진원(鎮遠)으로 바로 금용금달(金容金達)²⁰³⁾과 양계공아(楊溪公俄) 두 장관사 지역이고²⁰⁴⁾ 다른 하나는 시병(施秉)으로 곧 시병장관사(施秉長官司)²⁰⁵⁾ 지역이었다.

200) 鎮遠은 唐代 思州에 속했던 지역이었으나, 이 일대가 蠻族에게 함락당한 이후 바꾼 이름이 暨眼大田溪洞이었다.

201) 鎮遠沿邊溪洞招討使가 설치된 시기는 元 至元 12년(1275)이며, 이후 鎮遠부로 바뀌어 思州軍民宣慰司에 예속시켰다.

202) 邛水十五洞: 鎮遠府 동쪽 8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元代 이 지역에 安寧縣을 설치했다가 바로 邛水縣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洪武 5년(1372) 開羅, 得民, 晚隘, 敵帶, 邛水의 다섯 장관사를 두었지만, 洪武 25년(1392) 네 장관사를 邛水司로 편입시키고 思州宣慰司에 예속시켰다.

203) 金容金達: 金容金達舊長官司를 말하며 鎮遠府 동쪽 80리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204) 金容金達舊長官司 자리에는 楊溪公俄等處蠻夷長官司가 아울러 존재했으며, 元代 思州安撫司에 속해 있었는데, 明初에 그 지역을 합병해 鎮遠金容金達長官司를 설치했다. 이 지역에는 이외에도 晚愛溪洞赤溪等處長官司와 다시 동쪽 70리에 非帶洞大小田等處長官司가 있었으나 明初에 모두 합병되었다.

205) 施秉長官司: 元代 至元 20년(1283) 施秉前江等處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해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洪武 5년(1372) 施秉蠻夷長官司를 설치해서 思州宣慰司에 예속시키고 土酋 楊氏 일가에게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永樂 10년(1412) 長官使 楊政獻가 宣慰使 田琛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폐지했으며, 正統 9년(1444)에 施秉縣을 설치하였다.

洪武二十年，土官趙士能來朝，貢馬。三十年，鎮遠逸長菁等處苗民作亂，指揮萬繼·百戶吳彬戰死。都指揮許能率兵會偏橋衛軍擊敗之，衆散走。

홍무 20년(1387)에 토관(土官) 조사능(趙士能)이 조정에 와서 말을 공물로 바쳤다. [홍무] 30년(1397)에 진원(鎮遠)의 귀장정(鬼長菁) 등지에서 묘족이 난을 일으켜 지휘(指揮)²⁰⁶ 만계(萬繼)와 백호(百戶)²⁰⁷ 오빈(吳彬)이 전사하였다. 도지휘(都指揮) 허능(許能)이 군사를 이끌고 편교위(偏橋衛) 군과 회동하여 그들을 쳐서 패배시키니, 묘족들이 흩어져 달아났다.

永樂初，鎮遠長官何惠言：「每歲修治清浪·焦溪·鎮遠三橋，工費浩大，所部臨溪部民，皆伴·僮·備·佬，力不勝役，乞令軍民參助。」從之。

영락 초년에 진원(鎮遠)의 장관 하혜(何惠)가 아뢰기를, “해마다 청랑(淸浪)·초계(焦溪)·진원(鎮遠)의 세 다리를 수리하는데,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관할 지역의 임계(臨溪) 주민들은 모두 양(佯)·광(廣)·묘(苗)·노(佬)족들인데 요역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 군사 와 백성으로 하여금 참여하여 돕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宣德初，鎮遠平水輿洞蠻苗章奴劫掠清浪道中，爲思州都坪峨巽溪長官司所獲。其父苗銀總劫取之，聚兵欲攻思州。因令赤溪洞長官楊通諒往撫，銀總伏兵殺諒，又掠搜洞。命總兵官蕭授調辰·沅諸衛兵萬四千人剿之，會於清浪衛，指揮張名討銀總，克輿洞，盡殺其黨，銀總遁。正統三年革鎮遠州，以鎮遠·施秉二長官司隸鎮遠府。十二年，巡

206) 指揮: 衛의 지휘관인 指揮使의 약칭이다. 지방의 군정장관인 都指揮使 밑에 都指揮同知 2명(從二品)과 都指揮僉事 4명(正三品)이 보좌하는데, 이들 밑에 衛가 있었다. 주 18도 참조.

207) 百戶: 세습 軍職으로서, 元代에 처음 만들어진 관직명이다. 원대 上百戶 長官에는 몽골인과 한인 각각 1명씩, 下百戶에는 1명씩 두었으며 千戶所에 예속시켰다. 元代의 제도를 계승해서 明代 역시 衛所制度에 百戶所를 설치해서 병사 112명씩 두었다. 명대 역시 세습적이었지만, 除授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按御史虞積奏：「貴州蠻賊出沒，撫之不從，捕之不得，若非設策，難以控制。臣親觀水江等處，峭壁層崖，僅通一徑出入，彼得恃險爲惡，若將江外山口盡行閉塞，江內山口并津渡俱設關堡，屯兵守御，又擇峯長有才干者爲辦事官，庶毋疏虞。」從之。十四年命振偏橋衛，以被苗寇殺掠，不能自存，有司以請，從之。

선덕(宣德)²⁰⁸ 초년에 진원(鎮遠)의 공수(邛水) 오동(輿洞)의 만족 묘장군(苗章奴)가 청랑(淸浪)의 도로에서 약탈을 자행하다가 사주(思州)의 도평(都坪)·아(峨)·이계(異溪) 장관사에게 사로잡혔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 묘은총(苗銀總)은 [압송 도중에] 공격하여 그를 빼내고 군사를 모아 사주(思州)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적계동(赤溪洞) 장관 양통량(楊通諒)에게 명하여 가서 무마하도록 하였는데, 묘은총은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양통량을 죽이고 또한 경동(庚洞)을 약탈하였다. [이에] 총병관(總兵官) 소수(蕭授)²⁰⁹에게 명하여 진(辰)·원(沅)의 여러 위(衛)의 군사 14,000명을 소집하여 그를 토벌케 하였는데, 그들은 청랑위(淸浪衛)에서 모였다. 지휘(指揮) 장명(張名)이 묘은총을 토벌했는데, 오동(輿洞)을 점령하고 그 무리들을 전부 죽이니 묘은총은 달아났다. 정통(正統) 3년(1438)에 진원주(鎮遠州)를 폐지하고 진원(鎮遠)·시병(施秉) 두 장관사를 진원부(鎮遠府)에 예속시켰다. [정통] 12년(1447)에 순안어사(巡按御史) 우정(虞禎)이 상주(上奏)하기를, “귀주(貴州)에 만인(蠻人) 도적들이 출몰하는데, 위무해도 따르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으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들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신이 보건대, 청수강(淸水江) 등지는 가파른 절벽이 겹겹이 있어서 단지 적은 통로 하나로만 출입할 수 있어 저들이 협준함을 믿고 악행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 밖의 산의 출입구를 모두 봉쇄하고 강 안의 산 출입구와 나루터에 모두 관문과 보루를 설치하여 군사들을 주둔시켜 지키도록 하고, 아울러 채(寨)의 우두머리 가운데 재능 있는 자들을 택해 공무를 처리하는 관원으로 임명하면, 소홀히 되어 근심거리가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²¹⁰ [정통] 14년(1449)에 편교위(偏橋衛)를

208) 宣德: 명 황조 5대 황제인 宣宗 朱瞻基의 年號이다.
209) 蕭授(?~1445): 湖廣 岳州府(지금의 湖南省 岳陽市) 華容縣 사람이다. 千戶로써 永樂조의 거병에 참가하여 공을 쌓아 都督僉事에 이르렀다. 永樂 연간(1403~1424)에 總兵官으로 발탁되어 湖廣·貴州를 鎮守하였다. 鎮守하는 20여 년 동안에 苗族의 수습 부족을 쳐서 威名을 날려 左都督으로 승진하였다. 諡號는 靖襄이다.

구휼토록 명하였는데, [이는] 묘직(苗賊)에게 살육과 약탈을 당해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어 담당 관원이 요청하니, 이를 허락한 것이다.²¹¹⁾

天順七年，鎮守湖廣太監郭閔奏：「貴州洪江賊苗蟲蝦等糾合二千餘人，僞稱王侯，攻劫鎮遠地寨。撫諭不服，請合兵進討。」命總兵官李宸·李安等分道入，賊退守平坤寨，官兵追至清水江，獲蟲蝦，并斬賊首飛天侯·苗老底·顏頭等六百四十餘人，并復黎平之赤溪湍洞，賊平。弘治十年改鎮遠金盆金達長官司爲鎮遠州，設流官。時土官確父子罪死，土人思得流官，守臣以聞，報可。

천순(天順) 7년(1463)에 호평(湖平)을 진수(鎮守)하는 태감(太監)²¹²⁾ 관인(郭閔)이 상주하

210) 『英宗實錄』 卷159 正統 12년 10월 乙亥條 참조.

211) 이 일이 발생한 것은 正統 14년이 아니라 그 다음해인 景泰 원년(1450)으로 해야 한다. 『英宗實錄』 卷192, 景泰附錄 卷10 景泰 원년 5월 庚戌條에 보면 “戶部에서 상주하기를 湖廣 偏橋衛에서 苗賊이 城池를 포위 공격하여 軍民을 살육하고 포로로 잡으며 牛馬를 약탈해 갔습니다. 거기에도 屯堡에 남아 있는 양식은 다 불타고 없어져서 경각할 소와 중자가 없으니 조세를 감면해 주시길 청합니다”고 하니 侍郎 王一寧에게 명해서 부근에서 곡식을 운반하여 구제토록 해주시고 라고 하여서, 이를 허락하였다.”(戶部奏, 湖廣偏橋衛言, 苗賊攻圍城池, 殺傷軍民, 劫奪牛馬, 原立屯堡除糧子粒, 燒燬殆盡, 牛種俱缺, 不能耕種, 請蠲其賦. 仍令侍郎王一寧于附近處運米糧, 以濟其用. 從之.)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212) 太監: 宦官을 가리킨다. 전통시대 중국에서 거세되어 생식능력이 상실되어 남자도 여자도 아닌 中人以上로서 황제나 군주 및 그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던 관원을 지칭한다. 하지만 선진시대나 전한시대에는 환관이 모두 거세된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으며, 후한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환관들은 모두 거세되었다. 그 계기는 외부와 격절된 황궁에 황태후나 태후, 황후, 비빈, 궁녀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출입하는 男侍들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환관은 寺人·宦(奄)人·宦官·宦者·中官·內官·內臣·內侍·內監 등으로 칭해지기도 했다. 환관은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터키 등 유럽과 이슬람 세계 및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가장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환관을 유지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唐 高宗 시절에 殿中省을 中御府로 고치면서 宦官을 太監과 少監으로 充任시켰는데 이후에 비교적 지위가 높은 宦官을 太監으로 칭하는 관행이 생기기 되었다. 明代에 이르러 宦官들의 권세가 날로 강화되어 이때부터는 모든 宦官들을 太監으로 존칭하게 되었고, 태감은 환관의 대명사가 되었다. 환관이 득세했던 원인으로는 환관 자신들이 황제에게 기부하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지만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 환관은 권력을 찬탈하여 새로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존재였다는 점이다. 관원들의 경우 황제와 잠재적인 권력의 경쟁자였지만 거세된 환관은 신체적 결합으로 인해 황제의 경쟁자가 될 수

기를, “귀주(貴州) 홍강(洪江)²¹³⁾의 도적 묘충하(苗蟲蝦) 등이 2천여 명을 규합하여 자칭 왕후(王侯)라 칭하고 진원(鎮遠)의 둔채(屯寨)를 공격하여 왔습니다. [그들을] 달래고 깨우쳐 주었는데도 복종하지 않으니 군사를 모아 나아가 토벌하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다. [이에] 총병관 이진(李震)²¹⁴⁾·이안(李安)²¹⁵⁾ 등에게 명하여 길을 나누어 진격하도록 했는데, 반격들이 평곤채(平坤寨)로 물러나 지키자 관군이 추격하여 청수강(清水江)까지 이르러 묘충하(苗蟲蝦)를 사로잡고 반격들의 우두머리 비천후(飛天侯)·묘로저(苗老底)·액두(顏頭) 등 640여 명을 침수하였으며, 여평(黎平)의 적계남동(赤溪湍洞)을 탈환하니 반적이 평정되었다. 홍치

있었다. 따라서 황제들은 환관들이 자신의 수족 노릇을 수행하는 한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 주었다. 황제 독재권력이 강화된 明代에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던 환관이라도 황제가 총애를 거두는 즉시 제거할 수 있었으므로 황제는 관료들보다는 훨씬 편하게 환관을 심복으로 부렸다. 명 중기 이후에 황제들이 東廠, 西廠과 같이 환관으로 조직한 特務機構를 만들어 운용한 사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환관들의 진척이 도를 넘으면 왕조의 멸망을 초래하기도 했는데 후한, 당, 명조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도 환관들의 고유한 업무 자체는 방대한 규모의 궁궐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였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明代 官廷에는 司禮·內官·御用·司設·御馬 등 12監과 惜薪·鐘鼓·寶鈔·混堂 등 4司, 兵仗·銀作 등 8局 총칭해서 24衛만이 있었는데, 각각의 아문이 수행할 기능을 예컨대 器物을 마련한다든가, 말을 돌본다거나, 뿔나무를 구한다거나 하는 따위가 할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황제가 政事를 돌보고 황족들이 궁궐에서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213) 洪江: 현재 貴州省 黔东南苗族侗族自治州 錦屏縣을 관동하는 清水江의 지류로, 당시의 鎮遠府와 黎平府의 경계를 흐르는 강이다.

214) 李震: 生卒年 未詳, 字는 懋譽이고, 河南省 南陽 사람으로 都督僉事를 지낸 아버지 李謙의 지위를 세습해 指揮使의職을 받았다. 正統 연간(1436~1449)에 兀良哈를 정벌하는데 공이 있어서 승진하여 都指揮僉事가 되었다. 이후 누차 王驥·王來·方瑛 등을 따라 묘족들을 정벌하는데 공이 있어 總兵官으로 임명되어, 方瑛을 대신해서 貴州와 湖廣을 지휘했다. 뒤에 孫雍이 난을 일으키자, 湖廣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廣西의 孫雍을 격파하여 서남 지역의 묘족과 孫族은 그의 이름만을 듣고도 두려워하여 金牌라하고 불렀다고 한다. 이후 軍功으로 인하여 興寧伯에 봉해졌다.

215) 李安: 生卒年 未詳, 南直隸 陽州府 懷遠縣(지금의 安徽省 懷遠縣) 사람이다. 부친인 安平伯 李達이 '정난의 역' 때에 공을 세워 本府都督同知가 되고 安平伯의 작위를 얻었는데, 永樂 7년(1409)에 右參將으로 몽골 정벌에 참여하다 전쟁 중에 죽자 李安이 그 爵位를 계승하였다. 洪熙 원년(1425)에 交際參將을 맡았지만, 작진의 실패로 귀국 후 하옥되고 卹問은 박탈당했다. 英宗 즉위 이후 都督僉事로 기용되어 都督同知를 거쳐 總兵이 되어 松潘을 鎮守하였다. 正統 6년(1441)에는 定西伯 蔣貴의 副將이 되어 龍川을 토벌하였다. 蔣貴가 李安에게 龍江에 주둔하면서 軍餉 보호를 명했지만, 李安은 이를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관대를 거느리고 정벌에 나섰다가 완패를 당했다. 이에 李安이 하옥되어 囹圄로 구양을 가서 거기서 후에 사망하였다.

(弘治) 10년(1497)에 진원(鎭遠)의 금용금달(金容金達) 장관사를 진원주(鎭遠州)로 바꾸고 유관(流官)을 설치하였다. 그때 토관 하문(何暉) 부자가 죄를 지어 죽자 토착민들이 유관을 두는 것을 희망해서 수신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니 [황제가] 답을 내려 허락하였다.

萬曆末，平水長官司楊光春貪暴，土目彭必信濟之箕箒。苗不堪，將上訴改設流官，光春與必信謀反，言官兵欲剽諸苗，當斂金贖，得金五百餘。都御史何起鳴訶知之，捕光春下獄，瘐死。於是每四戶擇壯兵一人，立四哨，不爲兵者佐糗糧魚鹽，簡土吏何文奎等掌之。必信復贖諸苗金，訴於朝，言巴也·梁止諸寨爲亂，指揮使陶效忠不問，反索土官楊光春金而殺之。改舊例用新法，不便。書上，意自得，歸謁知府王一麟。一麟縛之下獄，撤諸苗，言：「若等十五洞所苦者，以兵餉月米三斗過甚耳。然歲給白蟲鋪米，每洞月八斗，他於平溪驛剩餘微銀兩，皆可足餉。我爲若通之，毋爲必信所誣。」苗皆悅服，乃坐必信罪。時有土舍楊裁濟者應推官，嘗中貴州鄉試，命於本術加俸級優異之。

만력(萬曆) 말년에, 공수장관사(平水長官司)의 [장관] 양광춘(楊光春)이 탐욕스럽고 포악하였는데, 토목(土目) 팽필신(彭必信)이 그를 도와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묘족들이 견디지 못하고 장차 상부에 호소하여 유관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려 하였다. 양광춘과 팽필신은 마침내 반란을 모의하고서 관군이 여러 묘족을 토벌하고자 하니 응당 돈을 모아 속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는 500여냥을 모았다. 도어사(都御史) 하기명(何起鳴)²¹⁶이 이를 탐지하고 양광춘을 잡아 감옥에 넣으니, [그는] 굶주림과 추위로 옥사하였다. 이에 네 호(戶)마다 건장한 병사 한 명을 뽑아 네 개의 초소를 설치하고, 병사가 되지 않은 자들은 건량과 물고기, 소금을 지원토록 하고, 토리(土吏) 하문규(何文奎) 등을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팽필신(彭必信)은 다시 여러 묘인(苗人)에게서 돈을 거두면서 조정에 호소하여 아뢰기를, 파야(巴也)·양지(梁止)의 여러 채(寨)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지휘사(指揮使) 도효충(陶效忠)은 물어

216) 何起鳴: 生卒年 未詳. 字는 應蛟이고, 號는 來山이며, 四川 成都府 內江縣(지금의 內江市) 사람이다. 嘉靖 38년(1559)에 進士가 되어 藍屋 知縣을 재수받았고, 禮 禮科給事中으로 발탁되었다. 이후 누차 승진하여 順天府丞을 거쳐 工部左侍郎이 되었다.

보지도 않고 오히려 토관 양광춘(楊光春)의 돈을 다 뺏고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전 관례를 고쳐 새로운 법을 쓰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고 했습니다"고 하였다. 글을 올린 후 뜻을 얻었다고 여기고는 돌아와서 지부(知府) 왕일린(王一麟)을 뇌러갔다. [그때] 왕일린은 그를 포박하여 감옥에 넣고 묘인들에게 알려 말하기를, "너희들 15동(洞)의 괴로움 마는 군량으로 매달 쌀 3두(斗)를 바치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매년 백충포(白蟲鋪)에 주는 쌀이 동(洞)마다 매월 8두가 되고, 그밖에 평계역(平溪驛)에서 징수한 은량이 남는 게 있어서 모두 군량으로 댈 수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그것을 쓰도록 할 것이니, 팽필신에게 속지 말라"고 하니, 묘인들이 모두 기뻐 복종하였고 이에 팽필신에게 죄를 물었다. 그때에 토사(土舍) 양재청(楊裁淸)이란 자가 있어 응당 추관(推官)을 세우해야 되었는데, 일찍이 귀주(貴州) 향시(鄉試)²¹⁷에 합격한 일이 있어 본 위(衛)에서 녹봉과 직급을 높여 우대하도록 명하였다.

天啓五年，巡撫傅宗泰：「苗寇披猖，地方受害，乞敕偏沅撫臣移鎮偏橋，勿復回沅，凡思·石·偏·鎮等處俾練兵萬餘人，平時以之剿苗，大征即統爲督臣後勁，庶苗患寧而西賊之氣亦漸奪矣。」報可。

천계(天啓) 5년(1625)에 순무 부종룡(傅宗龍)²¹⁸이 상주하기를, "묘적(苗賊)이 창궐하여
217) 鄉試: 중국 역대 과거 가운데 첫 단계 시험으로 唐宋代에는 鄉貢 혹은 解試라 불렀다. 일반적으로 8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秋闈라고도 했다. 명청시대에는 北京을 포함한 각 성에서 3년에 한 번씩 실시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生員, 監生, 廩生 등이 모두 응시할 수 있었다. 四書와 經典 등을 시험했으며, 향시에 합격한 사람을 舉人, 1등을 解元이라 불렀다. 향시 외에 나머지 두 시험은 會試와 殿試이다.
218) 傅宗龍(?~1642): 字는 仲翰·元憲이며, 號는 括蒼이다. 萬曆 38년(1610)의 進士로, 銅梁縣, 巴縣의 知縣을 거쳐 戶部主事가 되었다. 天啓 4년(1624)에 貴州巡撫兼監軍이 되었고, 崇禎 3년(1631)에 右倉都御史에 임명되어 順天을 巡撫하였다. 崇禎 10년(1637)에는 楊嗣昌의 천거로 四川 巡撫에 임명되었고, 崇禎 12년(1639)에 京師로 불려와 兵部尙書에 올랐지만 3개월도 못되어 황제의 뜻에 不合하여 解職되었으며, 2년간 下獄되었다. 崇禎 14년(1641)에 流寇가 河南 지역을 격파했는데 당시 楊嗣昌이 병으로 죽고 北京이 진동하자 尙書 陳新甲의 추천으로 그는 출옥이 되어 兵部右侍郎兼副都御史에 임용되어 丁啓睿를 대신하여 陝西三邊軍務를 總督하였다. 그런데 그해 8월에 李自成이 55년의 병력으로 河洛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는데, 이때 그는 겨우 2만의 병력으로 맞서 싸우다 불합격 살해당하였다. 死後 太子少保에 追封되었고, 謚號는 忠壯이다.

지방 [사람들]이 해를 입고 있으니, 편원(偏沅) 순무의 주재지(駐在地)를 편교(偏橋)로 옮기고 다시 원(沅)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칙명을 내려 주십시오. 무릇 사남(思南)·석천(石阡)·편교(偏橋)·진원(鎮遠) 등지에 군사 만여 명을 훈련시켜 평소에는 그들로써 묘책을 토벌하고, 큰 정벌 때는 통합하여 총독의 후열(後列) 정병(精兵)으로 쓰면, 묘적으로 인환 근심은 없어야 하고 서쪽 변경의 도적들의 기세도 점차 사그라질 것입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비담을 내려 허락하였다.

銅仁 동인

銅仁, 元爲銅人大小江等處軍民長官司, 洪武初, 改爲銅仁長官司, 永樂十一年置銅仁府, 萬曆二十六年始改銅仁長官司爲縣治, 領長官司五: 曰省溪, 曰提溪, 曰大萬山, 曰烏羅, 曰平頭著可, 烏羅者, 本永樂時分置貴州八府之一也, 所屬有朗溪長官司·答應長官司·治古長官司, 而平頭著可長官司亦隸焉.

동인(銅仁)은 원(元)나라 때 동인(銅人) 대소강(大小江) 등지의 군민장관사(軍民長官司)였는데, 219) [명대] 홍무 초년에 동인(銅仁) 장관사(長官司)로 바꿨다. 220) 영락 11년(1413)에 동인부(銅仁府)를 설치하였다. 만력 26년(1598)에 처음으로 동인 장관사를 고쳐서 현(縣)의 치소(治所)로 하였다. 관할하는 장관사는 5개인데, 성계(省溪), 221) 제계(提溪), 222) 대만산(大萬山), 223) 오라(烏羅), 224) 평두저가(平頭著可) 225)라 한다. 오라(烏羅)는 본래 영락 시기에 나

- 219) 元代에 설치된 大小江等處蠻夷長官司는 처음에 都雲定雲安撫司에 예속되었다가, 이후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220) 洪武 5년(1372)의 일이다.
 221) 省溪: 銅仁府 서쪽 100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元代 省溪等處軍民長官司로 都雲定雲安撫司에 예속되어 있었다.
 222) 提溪: 銅仁府 서쪽 140리 위치해 있었으며, 元代 提溪等處軍民長官司로서 처음에는 都雲定雲安撫司에 예속되었다가 이후 思州軍民安撫司에 예속되었다.
 223) 大萬山: 銅仁府 남쪽 100리에 있던 지역으로서 元代 大萬山蘇葛蠻等處軍民長官司로 思州安撫司에 예속되어 있었다.

누어 설치했던 귀주(貴州) 8부(府) 중의 하나로서, 예하에 낭계(朗溪)·답의(答應)·치고(治古) 장관사가 있었으며, 평두저가(平頭著可) 장관사도 속해 있었다.

宣德五年, 烏羅知府嚴律己言: 「所屬治古·答應二長官石各野等聚衆出沒銅仁·平頭·瓮橋諸處, 誘脅蠻賊石鷄娘并草子坪長官吳畢郎等共爲亂, 招撫不從. 緣其地與鎮溪·西陽諸蠻接壤, 恐相煽爲亂. 請調官土軍分據要地, 絕其糧道, 且捕且撫. 事平之後, 宜置衛所巡司以守之.」事聞, 命總兵官蕭授及鎮巡諸司議. 於是築二十四堡, 環其地守之. 兵力分, 卒難扞御. 賊四出劫掠, 殺清浪衛鎮撫葉受, 勢益熾. 七年, 巡按御史以聞, 且言生苗之地不過三百餘里, 乞別遣良將督諸軍殄滅, 投言: 「殘苗吳不爾等遁入草子坪, 結生苗龍不登等攻劫湖廣五峯及白崖諸寨, 爲患滋甚. 宜令川·湖·貴州接壤諸官軍·土兵分路并力攻剿, 底除邊患.」從之. 既降敕諭投, 言: 「暴師久, 恐惡賊爲蠻羞, 或撫或剿, 朕觀成功, 不從中制.

선덕(宣德) 5년(1430)에 오라(烏羅) 지부(知府) 엄율己(嚴律己)가 아뢰기를, “예하의 치고(治古)·답의(答應) 두 곳의 장관인 석각야(石各野) 등이 무리를 모아 동인(銅仁)·평두(平頭)·옹교(瓮橋)의 여러 곳에 출몰하여, 만인 도적 석계랑(石鷄娘)과 간자평(草子坪) 장관 오굉랑(吳畢郎) 등을 꾀고 위협하여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조무(招撫)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대는 진계(鎮溪)·유양(西陽) 226)의 여러 만족과 접경 지역이므로 서로 선동하여

- 224) 烏羅: 銅仁府 서쪽 20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宋代 烏羅洞으로서 思州에 속해 있었다. 宋代 群興 원년(1278) 湖南制置使 張烈良 등이 興崖山에서 기병했지만, 패해서 烏羅로 도망갔다. 元 왕조 군사들이 이곳을 습격해 그들을 소탕했는데, 이 반란 때문에 원 왕조는 이곳에 烏羅龍子等處長官司를 설치하고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225) 平頭著可: 銅仁府 서북쪽 130리에 위치했으며, 元代 平頭著可通遠等處長官司를 설치해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226) 西陽: 지금의 土家族苗族自治縣으로서 重慶 동남부의 武陵山區에 위치한다. 重慶, 湖北, 湖南, 貴州 4개省市의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데, 重慶의 동남 방향의 중요 門戶이다. 西陽縣은 『禹貢』에서 梁州에 속한다. 周商시대에는 蠻夷의 땅이었고, 춘추전국시대에는 楚國 소속이었다. 秦代에는 黔中郡에 예속되었는데, 西漢 高祖 5년(전202)에 武陵郡으로 바꾸어 境內에 西陽縣을 두었다. 王莽은 이를 建平郡으로 바꾸었지만 東漢이 다시 武陵郡으로 복구시켰다. 獻帝 建安 19년(214)에 劉備와 孫權이 연합하여 荊州를

난을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청하읍건대 관군과 토군(土軍)을 징발하여 요충지를 나누어 점거해 그들의 식량 보급로를 끊고, 한편으로는 잡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위무하십시오. 평정한 후에는 마땅히 위소(衛所),²²⁷⁾ 순사(巡司)²²⁸⁾를 설치하여 그 곳을 수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누어 다스릴 때 縣의 경계는 여전히 武陵郡에 속했다. 이후 역대로 약간의 변동이 반복되었는데, 宋代 紹興 원년(1131)에 思州의 일부를 나누고 西陽寨를 합하여 西陽縣州를 두었다. 元代에는 계속 西陽州를 두고 冉氏 자손이 세습도록 했으며, 四川南道宣慰司懷德府에 예속시켰다. 延祐 원년(1314)에는 西陽州를 西陽軍民宣慰司로 바꾸었다. 元末 明玉珍이 四川에서 할거정권을 세우면서 유양군민신위사를 西陽沿邊溪洞軍民宣慰司로 바꾸었다. 明 洪武 5년(1372) 4월에 西陽州를 다시 설치하고 아울러 西陽宣慰司都元帥府를 두었고, 洪武 8년(1375)에는 四川布政使司에 예속시켰으며, 天曆 원년(1621)에 西陽宣撫使를 宣慰司로 승격시켰다.

227) 衛所: 명대의 대표적인 군사제도다. 지역의 대단위 부대인 衛와 그 이하 부대인 所를 합쳐 부른 이름이다. 軍戶에서 징발된 軍丁은 각 지방의 衛所에 분산 소속되어 군역에 종사하였는데, 명대 위소제에 대해서는 『明史』의 기록에 근거하여 劉芻가 확립한 것이라는 견해를 많은 학자들이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위소제도는 유기에 의해 처음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元代 軍事制를 모방하여 주원장이 원 말 農民叛亂에 참가하였을 때, 이미 확립된 제도였다. 위소제도의 특징은 평시에는 군대를 각 지방에 분산시켜 주둔케 하고 전시에만 장수로 하여금 총병하게 하였다. 이때 장수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개인적으로는 평시에 사병을 거느리지 못하고, 전시에만 이들을 이끌고 싸움에 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상시의 군사들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솔하는 將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적이나 출병권에 의해 황제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즉, 군호를 기입한 군적은 병부가 관리하고 군사의 통솔권만 五軍都督府가 장악하였는데, 이때 출병의 명령은 황제나 빈왕의 수중에 있어 장수는 전시에만 조정에서 파견되어 군사를 통솔하여 싸움에 임할 뿐이었다. 이처럼 명대의 군사권은 철저하게 견제를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황제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명대 위소제도에 관해서는 『明史』 卷90 『兵志』2에 보면 一衛는 대체로 5,600명, 一千戶所는 1,120명, 一百戶所는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百戶所에는 2개의 總旗가 있다. 一總旗는 5小旗를 거느리고, 小旗는 1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 위소제도가 성립되었을 때는 현대 군사제도와 마찬가지로 十·千·萬 單位로 구성되었다. 즉 一衛는 10千戶所, 一千戶所는 10百戶所로 되었고, 百戶所에는 2總旗, 一總旗는 5小旗를 거느리고, 一小旗는 10명의 군사를 통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당초의 一衛의 軍官과 軍士를 계산해 보면, 모두 11,311명(군사 10,000, 소기 1,000, 총기 200, 백호 100, 천호 10, 도지휘 1)이 된다. 그런데 위소제도가 실시된 후 얼마 뒤에는 一衛의 군관과 군사수가 실제로는 5,656명(군사 5,000, 소기 500, 총기 100, 백호 50, 천호 5, 도지휘 1)이 되는데, 명대는 계속하여 이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명대 위소제도가 완비되었을 때는 군사의 숫자가 이전보다 약 2분의 1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위소는 각 도에 소속되었는데 洪武 26년(1393)에는 전국적으로 도사 17개, 행도사 3개, 유수사 1개이며, 內外衛 329개, 守禦千戶衛 65개였다. 永樂 연간(1403~1424) 이후에는 위소가 증설되어 도사가 21개, 유수사 2개, 내외위 493개, 守禦屯田群牧千戶衛가 359개로 되었다(윤정분, 1984: 315~317).

다.²²⁹⁾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총병관(總兵官) 소수(蕭瑄) 및 진순(鑑巡)하는 여러 관원에게 상의토록 명하였다. 이에 소수는 24개의 보루(堡壘)를 쌓아 그 지역을 둘러싸고 지켰다. [그런데] 병력이 분산되어서 결국 방어하기가 어려웠다. 반쪽은 사방에서 나와 검략하였고, 청랑위(淸浪衛) 진부(鑑撫)²³⁰⁾ 섬수(葉受)를 죽이고 기세가 더욱 올랐다.²³¹⁾ [선덕] 7년(1432)에 순안어사(巡按御史)가²³²⁾ 보고하면서 또 아뢰기를, 생묘(生苗)의 땅은 300여 리(里)에 불과하니, 따로 훌륭한 장수를 보내어 여러 부대를 거느리고 감독하여 섬멸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이에] 소수(蕭瑄)가 아뢰기를, “패잔 묘적(苗賊) 오불이(吳不爾) 등은 간자평(竿子坪)의 여러 채들을 공격하여 약탈해서 재난 상황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천(四川)·호광(湖廣)·귀주(貴州) 집경 지역의 여러 관군과 토병에게 길을 나누어 [진격하여] 힘을 합쳐 토벌토록 하면, 변경의 재난을 없앨 수가 있을 것입니다”고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고는] 소수(蕭瑄)에게 칙유를 내려 이르기를, “군사들이 오랫동안 밤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면 만민들에게 수치를 당할까 걱정이 된다. 위무하는 토벌하던 짐은 성공을 기대할 것이니, 조정의 체약을 받지 말라”고 하였다.

八年，授奏言：「臣愛命統率諸軍進攻賊寨，破新郎等寨，前後生擒賊首吳不跳等二百一十二人，新吳不爾·王老虎·龍安軸等五百九十餘級，皆梟以徇，餘黨悉平。還所掠軍民男婦九十八口，悉給所贖，獲賊婦女幼弱一千六百餘口，以給從征將士。」并敕吳不跳等獻京師。帝頗謂侍臣曰：「蠻苗好亂，自取滅亡，然於朕心，不能無惻然也。」授成服南荒，前後凡二十餘年。

228) 巡司: 巡檢司를 지칭한다. 元, 明, 清代에 縣級 衙門의 밑에 治安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下級官署이다.

229) 『宣宗實錄』 卷69 宣德 5년 8월 丙申條 참조.

230) 鑑撫: 衛所에 설치되는 世官이다. 衛에 설치되면 衛鑑撫, 所에 설치되면 所鑑撫라고 하였다.

231) 본문에서 淸浪衛 鑑撫 葉受를 죽인 것이 宣德 5년의 기사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일은 宣德 7년에 발생한 것이다. 『宣宗實錄』 卷86 宣德 7년 2월 己未條에 보면, 여기 토사진 본문에서 宣德 7년의 기사로 쓰고 있는 바로 그 巡按御史가 당시의 일로 보고하고 있다.

232) 이때의 巡按御史는 巡按貴州監察御史 陳爽이었다. 『宣宗實錄』 卷86 宣德 7년 2월 己未條 참조.

[선덕] 8년(1433)에 소수(蕭授)가 상주하여 아뢰기를, “신은 명을 받고 계군을 통솔하여 나아가 반적의 소굴을 공격하여 신랑(新郎) 등의 채(寨)를 격파하고, [그때를] 전후해서 반적의 우두머리 오불도(吳不跳) 등 212명을 사로잡고 오불이(吳不爾)·왕노호(王老虎)·용안축(龍安축) 등 590여 급을 참수하여 모두 효수해서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잔당들도 모두 평정되었습니다. 약탈당한 군민 남녀 98명을 돌려받아 모두 친족들에게 보내고, 사로잡은 반적의 부녀자와 어린아이들 1,600여 명을 정벌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하고²³³⁾ 오불도(吳不跳) 등을 형구를 채워 경사(京師)²³⁴⁾로 호송하였다. 황제가 곁의 신하에게 회고하며 말하기를, “만인(蠻人) 묘족이 반란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멸망하였으나, 짐의 마음속에는 가엾은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구나”라고 하였다. 소수(蕭授)가 남쪽의 변방 지역을 위엄으로 복종시킨 것이 전후해서 모두 20여 년이 걸렸다.

正統三年革烏羅府，所屬治古·答意二長官司，亂後殘民無幾，亦并革之，以烏羅·平頭著可錄銅仁，以朗溪隸思南，從巡按御史請也。景泰七年，平頭著可長官司奏其地多爲蠻賊侵害，乞立土城固守，從之。

정통(正統) 3년(1438)에 올라부(烏羅府)를 없애고, 관할하던 치고(治古)·답의(答意) 두 장관사는 전란 후에 남은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 또한 모두 함께 없었으며, 오리와 평두저가(平頭著可)는 동인에 예속시키고 낭계(朗溪)는 사남에 예속시켰는데, [모두] 순안어사의 주청에 따른 것이었다.²³⁵⁾ 경태(景泰) 7년(1456)에 평두저가(平頭著可) 장관사가 상주하여 그 지역에 만인 반적의 침해를 많이 입어서 토성을 세워 굳게 지키도록 해달라고 청하니, [황제

233) 『明實錄』에 따르면 당시 蕭授의 작전에는 귀주의 烏羅, 銅仁, 思南 세 府, 湖廣의 水順과 保靖의 두 宣慰司와 五寨長官司, 사천 소속의 유양선무사, 석야와 평차 장관사 등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었다. 다만 『明實錄』에는 이 사실이 宣德 7年條에 기록되어 있다. 『宣宗實錄』 卷88 宣德 7年 3월 壬申條 참조.

234) 여기서의 京師는 北京이다. 명조는 처음에는 南京을 수도로 정하였으나 永樂 元年(1403)에 북경을 順天府라 하고, 永樂 19년(1421)에 이곳으로 遷都하였으며, 이후로 중국의 수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235) 『明實錄』에 의하면 순안어사뿐 아니라 삼리 관원을 모두가 함께 주청한 내용이다. 『英宗實錄』 卷42 正統 3年 5월 庚寅條 참조.

가] 이를 허락하였다.

成化十一年，總兵官李震奏：「烏羅苗人石全州，妄稱元末明氏子孫，僭稱明王，糾衆於執銀等處作亂，隣洞多應之。因調官軍往剿，石全州已就擒，而諸苗攻劫未已。」命鎮巡官設策撫捕，未幾平。

성화(成化) 11년(1475)에 총병관 이진(李震)이 상주하기를, “오라(烏羅)의 묘인(苗人) 석전주(石全州)가 원나라 말년의 명씨(明氏) 자손이라고 멋대로 칭하여 명왕(明王)이라고 참칭하며, 무리를 규합하여 집은(執銀) 등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웃한 동(洞)에서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군을 동원하여 토벌하려 가서 석전주는 이미 사로잡았으나 여러 묘족의 공격과 약탈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진순관(鎮巡官)²³⁶⁾에게 명하여 방책을 세워 초무하거나 잡아들이도록 해서 얼마 안가 평정되었다.

嘉靖二十二年，平頭苗賊龍葵科作亂，流劫湖廣桂陽間，甚擾。帝以諸苗再叛，責勸亂者，而起都御史萬鏗往討之。明年，鏗奏叛苗以次殄滅，惟龍母叟雖降，然其罪大，宜置重典。命安置遼東。未幾，龍子賢復叛。二十六年，湖廣巡按御史秦官軍討賊不力，降旨切責。三十九年，總兵官石邦憲剿之，擒首惡龍老羅等，遂平。

가정(嘉靖) 22년(1543)에, 평두(平頭) 묘적(苗賊) 용상과(龍桑科)가 난을 일으켜 호광(湖廣)의 계양(桂陽) 어간을 다니며 약탈을 하였는데, 그 기세가 맹렬하였다. 황제는 묘족 무리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반란을 일으키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고, 도어사(都御史) 만당(萬鏗)²³⁷⁾을 기용하여 가서 토벌케 하였다. 이듬해(1544)에 만당이 상주하기

236) 鎮巡官: 鎮守와 巡撫의 합칭이다. 明代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관원을 파견해 변방 지역의 민정을 살피도록 했는데, 文官을 巡撫, 武官을 鎮守라 하였다.

237) 萬鏗(1485~1565): 字는 仕鳴이고, 號는 治齋이며, 江西省 南昌府(지금의 南昌市) 進賢縣 사람이다. 弘治 연간(1488~1505)에 仁政을 펼친 관원으로 이름이 있던 萬福의 아들이다. 弘治 18년(1505)의 進士로, 刑部主事를 제수받았다. 嘉靖 연간(1522~1566)에 누차 승진하여 南京右都御史가 되었으나

를, 반란을 일으킨 묘족들을 차례차례 섬멸하였는데 다만 용모수(龍母叟)는 비록 항복은 하였지만 그의 죄가 크니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해서²³⁸ 요동(遼東)에 안치하도록 명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용자현(龍子賢)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²³⁹ [가정] 26년(1547)에 호광(湖廣)과 귀주(貴州)의 순안어사(巡按御史)가 상주하기를, 관군이 반적을 토벌하는 데 힘을 다하지 않으니 유지(諭旨)를 내려 엄하게 질책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⁴⁰ [가정] 39년(1560)에 총병관 석방현(石邦憲)²⁴¹이 그들을 토벌하여, 수괴 용노라(龍老羅) 등을 사로잡아 마침내 평정하였다.

黎平 여평

黎平, 元潭溪地也. 洪武初, 仍各長官司. 永樂十一年改置黎平·新化二府. 宣德十年并新化入黎平. 領長官司十三: 曰潭溪, 曰八舟, 曰洪舟泊里, 曰曹澗洞, 曰古州.

- 인동으로 배척이 되어 집에 10년간 머물러 있었다. 이후 嚴嵩이 권력을 잡자 그를 불러들이 관직이 吏部尙書까지 이르렀는데, 매사에 嚴嵩을 따랐고 선물을 잘 갖다 바쳤다고 한다. 마침내 趙文華에게 배척당하여, 쫓겨나서 백성의 신분으로 강등되어 오랫동안 살다 죽었다. 저술로는 『治瘡集』이 있다.
- 238) 龍桑科 등의 저항투쟁이 일어난 연도는 嘉靖 22년(1543)이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과 사후 대책을 다룬 시기는 이듬해인 嘉靖 23년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世宗實錄』 권281 嘉靖 22년 12월 乙亥條와 『世宗實錄』 권286 嘉靖 23년 5월 辛亥條 참조.
- 239) 龍子賢의 반란이 『明實錄』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嘉靖 22년(1543)이다(『世宗實錄』 권270 嘉靖 22년 정월 辛酉條 참조). 당시 묘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탓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李英, 李義壯, 楊雷 등이 처벌을 받았다.
- 240) 당시 巡按御史는 董威였으며, 그는 鄒御史 任職, 總兵官 沈希儀, 參議 劉覽?, 僉事 俞冲, 參將 石邦憲 등의 죄를 묻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世宗實錄』 권372 嘉靖 34년 4월 庚午條에 등장하므로, 뒤에 나오는 石邦憲의 總兵官이라는 지위는 이후에 제수받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241) 石邦憲(?~1568): 字는 希尹, 號는 南隱으로 貴州 淸平衛(지금의 凱里市) 사람이다. 嘉靖 7년(1528)에 世職을 세습하여 指揮使가 된 이래로 공을 쌓아 銅仁參將이 되었고, 후에 貴州總兵官이 되어 17년 동안 크고 작은 수백 차례의 전투를 수행했고, 앞뒤로 세 차례에 걸쳐 秩俸이 더해지는 등 공적이 현저하였다. 隆慶 2년(1568)에 현직을 수행하던 중 순직하였는데, 左都督으로 追贈되었다. 銅仁에 石公祠가 세워졌는데, 바로 石邦憲을 제사지내기 위한 것이었다. 史書에서 칭하기를, “石邦憲은 何陋, 沈希儀와 이름을 나란히 한다”고 하였다. 현재 萬山巖에 그가 세운 큰 石橋 하나가 남아 있다.

曰西山陽洞, 曰湖耳, 曰亮寨, 曰歐陽, 曰新化, 曰中林驗洞, 曰赤溪滿洞, 曰龍里.

여평(黎平)은 윈난과 때는 담계(潭溪) 지역이었다.²⁴² 홍무 초년에는 종진대로 각 장관사를 두었다. 영락 11년(1413)에 여평(黎平)·신화(新化) 두 개의 부(府)로 바꾸어 설치하였다. 선덕 10년(1435)에는 신화를 여평에 병합시켰다. 예하의 장관사는 13개인데, 담계(潭溪)²⁴³ 팔주(八舟),²⁴⁴ 홍주파리(洪舟泊里),²⁴⁵ 조적동(曹澗洞),²⁴⁶ 고주(古州),²⁴⁷ 서산양동(西山陽洞),²⁴⁸ 호이(湖耳),²⁴⁹ 양채(亮寨),²⁵⁰ 구양(歐陽),²⁵¹ 신화(新化),²⁵² 중림험동(中林驗洞),²⁵³ 적계남동(赤溪滿洞),²⁵⁴ 그리고 용리(龍里)이다.

- 242) 元代에 潭溪等處長官司가 있었다고 한다.
- 243) 潭溪: 黎平府 동남쪽 3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미 宋代에 潭溪澗蠻夷軍民長官司가 설치되었으며, 元朝가 그것을 답습했다.
- 244) 八舟: 黎平府 북쪽 7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宋代 八舟蠻夷軍民長官司가 설치되었다. 元 왕조도 송대 제도를 답습했으며,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 245) 洪舟泊里: 黎平府 동남쪽 120리에 위치했으며 그 영역은 동쪽으로는 湖南省 通道와 남쪽으로 廣西省 羅城縣에 이르렀다. 宋代 洪舟泊里等洞蠻夷軍民長官司가 설치되고, 원대도 그것을 답습했으며,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 246) 曹澗洞: 黎平府 서북쪽 100리에 위치했으며, 元代 曹澗洞洞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해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 247) 古州: 黎平府 서북쪽 80리에 위치했으며, 宋 咸平 연간(998~1003) 초에 古州刺史 向通履가 入貢한 이후 이 지역 일대 수장들이 모두 歸附했다. 元代 古州八萬洞軍民長官司가 설치되어 思州安撫司에 예속되었다.
- 248) 西山陽洞: 黎平府 서남쪽 200리에 위치했으며, 예로부터 生苗의 지역이었다. 永樂 5년(1407)에 長官司가 설치되고, 土酋 牟方魁가 관할했다.
- 249) 湖耳: 黎平府 동북쪽 12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元代 湖耳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했다.
- 250) 亮寨: 黎平府 동북쪽 90리에 위치했으며, 元代 亮寨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해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 251) 歐陽: 黎平府 동북쪽 80리에 위치했으며, 元代 歐陽洞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해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 252) 新化: 黎平府 동북쪽 6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원대 新化等處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해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 253) 中林驗洞: 黎平府 북쪽 100리에 위치했으며, 元代 中林驗洞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해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 254) 赤溪滿洞: 黎平府 동북쪽 300리에 위치했으며, 元代 赤溪滿洞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해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洪武 5년(1372) 土酋 吳世路이 다스렸으며, 永樂 6년(1408) 楊通諤이란 자가 공을 세워 이 지역 長官이 되었다.

初, 洪武三年, 辰州衛指揮劉宣武率兵招降湖耳·潭溪·新化·萬平江·歐陽諸洞, 於是諸洞長官皆來朝, 納元所授印敕, 帝命皆仍其原官, 以轄洞民, 隸辰州衛. 既改龍里長官司爲龍里衛, 又增立五開衛以鎮之, 隸思州. 二十九年, 清水江蠻金牌黃作亂, 都司發兵捕之, 金牌黃遁去, 捕獲其黨五百餘人, 械至京, 以其脅從, 宥死, 戍遠衛. 既有言金牌黃匿宣慰家者, 詔勿問.

이전 홍무(洪武) 3년(1370)에 진주위(辰州衛)²⁵⁵ 지휘(指揮) 유선무(劉宣武)가 군사를 이끌고 호이(湖耳)·담계(潭溪)·신화(新化)·만평강(萬平江)·구양(歐陽) 등 여러 동(洞)을 권유하여 항복을 받아내었는데, 이에 여러 동 의 장관이 모두 조정에 와서 원나라에서 준 인장과 칙서를 바쳤다. 황제는 모두에게 원래의 관직을 그대로 가지고 동(洞)의 백성을 관할토록 하고 진주위(辰州衛)에 예속시키도록 명하였다. 얼마 후에 용리장관사를 용리위(龍里衛)로 바꾸고, 또 오개위(五開衛)²⁵⁶를 더 설치하여 그곳을 진수(鎭守)토록 하고 사주(思州)에 소속시켰다. [홍무] 29년(1396)에 청수강(淸水江)의 만족 김패황(金牌黃)이 난을 일으키자, 도사(都司)²⁵⁷에서 출병시켜 그를 잡으려 했으나 김패황은 도망갔다. 그의 무리 500여 명을 붙잡아 형구를 채워 경사로 압송했는데, 그들은 협박으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사형을 면해 주고 먼 곳의 위(衛)로 보내 지키게 하였다. 후에 김패황이 선위사(宣慰使)의 집에 숨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조서를 내리 알아보지 말도록 하였다.

三十年, 古州洞蠻林寬者, 自號小師, 聚衆作亂, 攻龍里. 千戶吳得·鎮撫并爭力戰死之. 寬違犯新化, 突至平茶, 千戶紀達率壯士擊之, 達突陣殺數人, 以楯橫挑一人擲之, 流矢中臂, 達拔矢復戰. 賊驚曰: 「是平茶紀蒙邪?」遁去. 蠻稱官爲蒙云. 已,

255) 辰州衛: 명나라 초에 湖廣都司가 관할하던 衛 가운데 하나이다. 治所는 지금의 호남성 懷化 지역이다.
 256) 五開衛: 휘하에 黎平, 中湖, 新化完寨, 隆里, 新化屯의 5개 所가 있었다. 明 洪武 18년(1385)년에 衛가 설치되었는데, 당시 湖廣都司에 속했다. 지금의 貴州省 黎平縣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淸 雍正 3년(1725)년에 開泰縣을 설치했다. 顧祖禹, 『讀史方輿紀要』 卷120 『貴州』 1참조.
 257) 都司: 都指揮使司를 일컫으며, 一省의 軍政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都指揮使(正二品) 1명, 都指揮同知(從二品) 2명, 都指揮僉事(正三品) 4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復戰, 命湖廣都指揮使齊讓爲平光將軍, 統兵五萬征之. 既以讓逗留, 命楊文代之. 又命楚王禎·湘王柏各率護衛兵進討, 城銅鼓衛. 未幾, 讓擒寬等, 械入京, 誅之. 三十一年復平其餘黨, 并俘獲三十岡等處洞蠻二千九百人以歸, 遂班師.

[홍무] 30년(1397)에 고주(古州)의 한 동(洞)의 만족 임관(林寬)²⁵⁸이란 자가 스스로 소사(小師)라 칭하고서,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켜 용리(龍里)를 공격하였다. 천호(千戶)²⁵⁹ 오득(吳得)·진부(鎮撫) 정부(井孚)가 힘써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임관(林寬)은 마침내 신화(新化)를 침범하고 평차(平茶)까지 돌격해 들어왔는데, 천호(千戶) 기달(紀達)이 용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격퇴시켰다. 기달이 적전에 돌진하여 여러 명을 죽이고 창으로 한 사람을 찍어 던지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팔뚝을 맞았으나 화살을 뽑아 버리고 다시 싸웠다. 적들이 놀라서 “이는 평차(平茶)의 기몽(紀蒙)인가?”라고 말하며 도망갔다. 만족들은 관원을 몽(蒙)이라 칭한다고 한다. 얼마 후 [적의] 기세가 다시 올라가자, 호평(湖平) 도지휘사 계양(齊讓)을 평광(平光)장군으로 삼아 군사 오만 명을 통솔하여 거느리고 토벌토록 명하였다. 얼마 후에 계양이 진격하지 않고 머뭇거리니, 양문(楊文)²⁶⁰에게 명하여 그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또 초왕

258) 林寬(?~1397): 貴州 銅鼓衛(지금의 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銅鼓縣) 上婆洞 사람이다. 洪武 30년(1397)에 明朝가 지금의 銅鼓縣 지역에 銅鼓衛를 설치하고 토지 354頃을 몰수하자, 그해 4월에 그는 토착 농민들을 규합하여 무장 저항 투쟁을 일으켰는데, 한때 10만 명이 모였다고 일컬어졌다. 그들이 龍里·新化·平茶 등의 千戶所를 공격하여 전가하자 明朝에서는 湖廣의 군대를 보내어 진압에 나섰으나 패퇴하였다. 이에 다시 30만 대군을 보내어 공격하였으며, 林寬은 잡혀서 죽고 다음 해 초에 봉기는 실패로 막을 내렸다.

259) 千戶: 明代 각 지역에 주둔하는 衛所制 下 世襲職의 하나인 千戶所의 長으로서 軍戶 1,120명을 거느리도록 되어 있었다.

260) 楊文(1350?~1406): 福建 福州府 閩縣(지금의 福州市) 倉山 사람으로, 原籍은 直隸 和州 盩厔縣(오늘날의 安徽省 盩厔縣)이다. 그의 아버지 楊興이 원나라 至正 15년(1355)에 朱元璋에게 투항하여 管軍總管의 관직을 받았다. 至正 21년(1361)에 江州(오늘날의 江西省 九江市)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楊文이 아직 어렸으므로 從軍할 수가 없어서 그의 叔父 楊旺이 대신해서 참전하였다. 그러다가 至正 23년(1363)에 楊旺도 鄱陽湖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楊文은 至正 24년(1364)부터 주원장의 군대에서 從軍하였다. 洪武 2년(1369)부터 이듬해에 걸쳐 楊文은 명군을 따라서 서북 지방의 鳳翔等地를 종군하였다. 이때 세운 공을 인정받아 洪武 3년(1370)에 皇陵衛 百戶의 관직을 제수받았다. 洪武 4년(1371)에 廣西衛에 소속되었고, 그 후 그는 계속해서 남방에서 주둔하면서 군무를 집행하였다. 洪武 11년(1378)에 湖廣 安陸衛 右所의 試百戶를 제수받았다가 이듬해에 본 위의 副千戶가 되었다. 洪武 17년(1384)에

(楚王) 주경(朱楨)²⁶¹·상왕(湘王) 주백(朱柏)²⁶²에게 각기 호위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토벌하고 동교위(銅鼓衛)²⁶³에서 성을 쌓으라고 명하였다. 얼마 안가서 제양은 임관 등을 사로잡아 형구를 채워 경사로 압송하여 처형하였다. [홍무] 31년(1398)에, 다시 그 잔당들을 평정하고 아울러 삼십관(三十關) 등지의 동만(洞蠻) 2,9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오니, 마침내 개선한 것이었다.

永樂五年，寨長韋萬木來朝，自陳所統四十七寨，乞設官。因設西山陽洞長官司，以萬木爲屯長。宣德六年改永從蠻夷長官司爲永從縣，置流官，以上官李瑛絕故也。又割思州新溪等十一寨隸黎平赤溪洞洞長官司。正統四年，計砂苗賊苗金蟲等糾合洪江生苗，僞立統千侯·統萬侯名號，劫掠四出，命都督蕭授調兵剿之。賊首苗總牌等爲都督吳亮所戮，洪江生苗遂詣軍門降。按諭達之，命千戶尹勝誘執苗金蟲，斬以徇。

영락 5년(1407)에 채장(寨長) 위만목(韋萬木)이 조정에 와서 자신이 관할하는 47개의 채

楊文은 傅友德的 雲南 征伐에 功을 立었기에 功을 因정받아서 建昌衛 世襲 指揮使가 되었다. 洪武 25년(1392)에 建昌衛 指揮使인 月魯帖木兒가 叛亂을 일으키자 楊文도 藍玉을 따라 토벌에 功을 立었다. 征討가 完了된 이후에 右軍都督府 都督僉事로 승진하고 世襲指揮使가 되었다. 洪武 27년(1394)에 倭寇가 浙東沿海를 침범하자 楊文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都督 劉德과 함께 嶺南 지방에서 왜구 捕어를 지휘하였다. 燕王 朱棣가 薊難의 役을 일으키자 遼東 지방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지만, 이때 惠帝는 楊文을 鎮守遼東으로 삼았다. 이에 楊文은 명나라의 첫 總兵 遼東總兵官이 되었다. 이때 楊文은 여러 차례 遼東의 병사들을 이끌고 산둥 일대에서 남하하는 燕王軍을 견제하였으나 패전하여 결국 포로가 되었다. 영락제가 즉위한 후에 開國老將을 처형할 수 없다하여 석방하였으나 곧 病死하였다.

- 261) 朱楨(1364~1424): 明 太祖의 여섯 번째 아들이다. 朱元璋이 武昌을 공략할 당시 武昌에서 태어났으며, 洪武 3년(1370)에 楚王으로 봉해졌다. 후에 貴州의 소수민족의 저항을 진압하는데 여러 차례 功을 세웠다. 시호가 昭이기 때문에 楚昭王으로도 불린다.
- 262) 朱柏(1371~1399): 明 太祖의 열두 번째 아들이다. 湘王에 봉해져 荊州에 왕부를 열었다. 性酷이 학문을 좋아하여 景元閣을 열어 俊才들을 불러 모아 매일같이 典籍을 校讎하였다. 그런가 하면 完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일찍이 楚王 朱楨을 따라 古州蠻을 토벌하는데 功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道家의 말을 좋아해서 紫虛子라든가 自號하기도 하였다. 建文 초년에 朱柏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고발이 있자, 그는 두려워하여 궁중에 불을 지르고 죽었다. 諡號가 戾인데, 永樂 初에 獻으로 고쳤다.
- 263) 銅鼓衛: 洪武 30년(1397)에 銅鼓千戶所를 고쳐 衛를 설치하고 湖廣都司에 예속시켰으며,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歸銀縣 일대였다. 淸 雍正 5년(1727)에 歸銀縣으로 고쳤다.

(寨)에 관부를 설치해 줄 것을 자청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서산양동(西山陽洞) 장관사를 설치하고 위만목을 둔장(屯長)으로 임명하였다. 선덕 6년(1431)에 영종(永從) 만이(蠻夷) 장관사를 영종현(永從縣)으로 바꾸고 유관(流官)을 설치하였는데, 토관 이영(李瑛)이 죽고 후사가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주(思州)의 신계(新溪) 등의 11寨(寨)를 나누어 여평(黎平)의 격계남동(赤溪溪洞) 장관사에 소속시켰다. 정통(正統) 4년(1439)에 계사(計砂)²⁶⁴의 묘적(苗賊) 묘금충(苗金蟲) 등이 홍강(洪江)²⁶⁵의 생묘(生苗)를 규합하여 제멋대로 통천후(統千侯)·통만후(統萬侯)라는 칭호를 세우고 사방으로 약탈을 다니니, 도독(都督) 소수(蕭授)에게 명하여 군사를 동원해 토벌토록 하였다. 도직의 우두머리 묘총패(苗總牌) 등이 도독 오량(吳亮)²⁶⁶에게 죽임을 당하자, 홍강(洪江)의 생묘(生苗)는 마침내 군문에 나와 항복하였다. 소수(蕭授)는 그들을 효유하여 돌려보내고, 천호(千戶) 윤승(尹勝)에게 명하여 묘금충(苗金蟲)을 유인하여 사로잡아 참수하여 무리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景泰五年，巡撫王永壽以苗賊蒙能攻圍龍里·新化·銅鼓諸賊，乞調兵剿之。時賊欲取龍里爲巢穴，攻破亮寨·銅鼓，羅圍堡諸城，都指揮汪迪爲賊所殺。朝議以南和伯方瑛爲平蠻將軍，統湖廣諸軍討之，蒙能糾賊衆三萬出攻平溪衛，瑛遣指揮鄭泰等以火槍攻，斃賊三千人，能亦死。而能黨李珍等尚煽惑苗衆，官軍計擒之，克復銅鼓·藕洞，連破鬼板等一百六十餘寨，覃洞·上隆諸苗悉降。

경태(景泰) 5년(1454)에, 순무 왕영수(王永壽)²⁶⁷가 묘적(苗賊) 몽능(蒙能)이 용리(龍里)·

- 264) 計砂: 古州 長官司 영역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 265) 洪江: 지금의 黎平縣 동쪽에 위치하며 洪舟泊寨 長官司 관할 내에 있다.
- 266) 吳亮(?~1446): 南直隸 蘇州(지금의 安徽省 蘇州市)에 안縣 人이다. 永樂 元年(1402~1424) 초에 旗手衛 指揮使가 되었고, 蕭授의 副將으로 湖廣과 貴州를 진수하였다. 普定 阿運의 반란을 평정하여 都督同知로 승진하였고, 이후 苗民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右都督이 되었다. 方政이 麓川에서 사망하자 英宗은 吳亮을 京師로 불러 副總兵에 임명하였고, 병사 5만 명을 이끌고 麓川 思任發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후 都督僉事로 좌천되었으나 여전히 征南副將軍印을 가지고 湖廣과 貴州를 鎮守하였다.
- 267) 王永壽(?~1462): 字는 延齡이고, 山西省 太原 사람이다. 正統 2년(1437)의 舉人으로서 麓州 推官에 제수되었는데, 이후 곧 監察御史로 발탁되었다. 이후 工部尚書를 역임하고 湖廣 巡撫가 되어 軍務를 아울러 맡아 銅鼓·五開 등의 苗族을 정벌하는데 功을 세웠다. 南京 工部尙書로 임명하여 제임 중 사망하였다.

신화(新化)·동고(銅鼓) 등 여러 성을 공격하여 포위하고 있다고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하기를 청하였다. 그때 반적들은 용리(龍里)를 탈취하여 소굴로 만들고자 하여 양채(亮柴)·동고(銅鼓)·나위보(羅圍堡)의 여러 성을 공격하여 격파하였고, 도지휘 왕적(汪迪)은 적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조정에서는 의논하여 남화백(南和伯) 방영(方瑒)²⁶⁸을 평반(平蠻)장군으로 삼아 호광(湖廣)의 여러 부대를 이끌고 도적들을 토벌하도록 건의하였다. 몽능(蒙能)이 적의 무리 삼만 명을 규합하여 평계위(平溪衛)를 공격하니, 방영(方瑒)은 지휘(指揮) 정태(鄭泰) 등을 보내어 화승총으로 공격하도록 해서 적 삼천 명을 죽였는데, 몽능도 또한 죽었다. 그러나 몽능의 무리 이진(李珍) 등이 여전히 묘족 무리를 선동하고 미혹하여서, 관군은 계획으로 그를 사로잡고 동고(銅鼓)·우동(藕洞)을 회복하였으며, 귀판(鬼板) 등 160여 체(寨)를 연달아 격파하니 담동(潭洞)·상릉(上隆)의 여러 묘족이 모두 항복하였다.

天順元年，鎮守太監阮讓言：「東苗爲貴州諸苗之首，負固據險，僭號稱王，逼脅他種，東苗平則諸苗服，臣會同方瑒計議，并請師期。」於是頒諭四川·湖廣諸宣慰·宣撫會師討賊。三年，督理軍務都御史白圭以谷種山箐，乃東苗羽翼，宜先剽。因同瑒進青崖，令總兵李貴進牛皮箐，參將劉玉進谷種，參將李震進鬼山，所向皆捷，克水車壩等一百七十七寨。諸將復合兵青崖，攻石門山，克擺傷等三十九寨，仍分兵四路，進攻董董·竹蓋·甲底等四百三十七寨。賊首干把豬退守六美山，合兵大進，斬五千餘級，生擒干把豬，送京師伏誅。

천순(天順) 원년(1457)에 진수태감(鎮守太監)²⁶⁹ 원양(阮讓)이 아뢰기를, “동묘(東苗)는

268) 方瑒(1414~1459): 都督을 역임한 方政의 아들로, 송사의 자격으로 麓川 정벌에 아버지를 따라 종군했다가 부친이 사망하자, 소수민족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였다. 正統 6년(1441)에 다시 麓川 정벌에 참여했으며, 景泰 원년(1450)에 그의 지략이 인정되어 都督同知를 제수받고 北京에 도착했지만, 귀주 지역에 소수민족의 반란이 일어나 다시 내려갔다. 본문에 등장하는 天順 원년(1457)의 일은, 전년인 景泰 7년(1456)에 蒙能이 반란을 일으키자 都指揮 鄭泰 등과 함께 그들을 격파했고, 다시 石瑛이 이끄는 병사들과 함께 天堂 일대의 반란을 진압한 이야기이다. 이 진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莫宗이 復位에 성공하였다(『明史』 卷166 「方瑒傳」).

269) 鎮守太監: 鎮守는 한 지방을 總鎮하는 자라는 뜻으로 明代 武官職의 하나였는데, 洪熙 元年(1425)에 환관인 王安이 감속성의 鎮守가 됨으로 최초로 환관이 鎮守에 임명되었고, 이후 正統 연간(1436~

귀주 여러 묘족의 우두머리로 지형이 견고하고 험한 것에 의지하여 참람되어 왕을 칭하면서 다른 종족들을 협박하고 있으니, 동묘를 평정하면 여러 묘족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신(臣)이 방영(方瑒)과 회동하여 계획을 상의할 것이니 출정 날짜를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²⁷⁰ 이에 사천(四川)·호광(湖廣)의 여러 선위(宣慰)·선부(宣撫)들에게 유지(諭旨)를 내려 군사를 합쳐 반적을 토벌하라고 하였다. [천순] 3년(1459)에 독립군무(督理軍務) 도어사(都御史) 백유(白圭)²⁷¹가, 곡종(谷種)이 산이 높고 죽림이 우거져 동묘(東苗)의 우익(羽翼)이 되니, 마땅히 먼저 토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백유]는 방영(方瑒)과 함께 청애(靑崖)로 나아가고, 총병 이귀(李貴)에게는牛皮箐으로 진군토록 하였으며, 참장(參將) 유옥(劉玉)에게는 곡종(谷種)으로 나아가고, 참장 이진(李震)은 귀산(鬼山)으로 진군토록 하였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두 승리하여 수차패(水車壩) 등 147개의 체(寨)를 공격하여 깨트렸다. 여러 장수들은 다시 청애(靑崖)에서 군사를 합쳐 석문산(石門山)을 공격하여 과상(擡傷) 등 39개의 체를 공격하여 깨트렸다. 이어 군사를 네 길로 나누어 동농(董農)·죽개(竹蓋)·갑저(甲底) 등 437개의 체로 나아가 공격하였다. [이에] 도적의 우두머리 간과저(干把豬)는 육미산(六美山)으로 물러나 지켰다. [관군은] 군사를 합쳐 크게 나아가 5,000여 급을 참수하고, 간과저를 사로잡아 경사(京師)로 압송하여 처형하였다.²⁷²

1449)에는 각省的 여러 鎮에 환관이 두루 임명되었다. 鎮守太監 혹은 鎮守宦官이라는 명칭은 이로부터 나타났습니다. 『明史』 卷74 「職官」 3 宦官條 참조.

270) 『明實錄』에는 이 기록이 天順 2년(1458)에 등장한다. 『英宗實錄』 卷293 天順 2년 7월 辛卯條 참조. 阮讓의 언급 중 흥미로운 대목은 당시 東苗들이 騎戰에 능한 반면, 명나라 군대는 대부분 步兵이기 때문에 말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다. 대개로 소수민족 지역이 산악 지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阮讓의 이 언급은 당시 전투 기구 배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71) 白圭(1419~1474): 字는 宗玉이고, 北直隸 冀定府 南宮縣 사람이다. 正統 7년(1442)에 進士가 되었다. 이후 御史를 제수받고 山西巡按이 되었는데,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제대로 밝힌 것이 100여 건이나 되었다. 후에 陝西按察副史가 되었다가 浙江右布政使로 발탁되었다. 天順 2년(1458)에는 貴州의 묘족을 토벌하여 右副都御史로 승진하여 軍務를 관리하였다. 湖廣에 재난이 발생하여 이차 巡撫로 임명되었다. 이후 朝廷에 들어가 兵部右侍郎이 되었고 다시 工部尚書로 승진하였다. 成化 元年(1465)에 薊襄에서 劉通 등이 난을 일으키자 提督軍務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서 평정하니 太子少保 직함이 더해지고 兵部尚書가 되어 12團營을 아울러 감독하였다. 諡號는 恭敏이다. 백유의 성품은 간결하고 장중하여公務가 끝나 집에 오면 문을 닫아걸고 누워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체 보지 않았다고 한다.

272) 당시 이들은 각 지역에서 다수의 소수민족을 살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英宗實錄』 卷302 天順 3년 4월 己巳條에 따르면 水車壩에서 756명을 참수하고 900여 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당시 擺傷 등지에서

先是，麻城人李添保以逋賦逃入苗中，詭稱唐後，聚衆萬餘，僭稱王，建元武烈。署故賊首蒙能子聰爲總兵官，遺之銀印敕書，縱兵剽掠，震動遠近。至是爲李震所敗，餘賊大潰。添保僅以身免，潛入兔池及蛟洞諸寨，復煽諸苗劫攻中林·龍里，亦爲震擒，伏誅。

이보다 앞서 마성(麻城) 사람 이첨보(李添保)가 조세를 체납하여 묘(苗)족 지역으로 도망쳐 들어왔는데, 당(唐) 황실의 후예라 사칭하고 무리 만여 명을 규합하여 왕이라 칭칭하고 무렬(武烈)이라고 연호를 세웠다. [그리고는] 죽은 도적 두목 몽능(蒙能)의 아들 몽충(蒙聰)을 총병관으로 임명하여 그에게 은도장과 칙서를 건네주고, 군사를 풀어 약탈을 자행하여 원근을 진동시켰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진(李震)에게 패배하고 잔적들도 크게 무너졌다.²⁷³⁾ 이첨보는 몸만 겨우 달아나서 귀지(鬼池)와 교동(蛟洞)의 여러寨(寨)에 감입하였으며, 다시 여러 묘족을 선동하여 중림(中林)·용리(龍里)를 공격하였으나 역시 이진에게 사로잡혀 처형되었다.

萬曆二十八年，皮林逆苗吳國佐·石纂大等作亂。國佐本洪州司特洞寨苗，頗知書，嘗入永從學爲生員，素桀黠，皮林諸苗推服之。因娶叛人吳大棠妾，爲黎平府所持，遂反。自稱天皇上將，陽聽撫而陰與播賊通。纂亦自稱太保，殺百戶黃鍾等百餘人，與國佐合兵圍上黃堡。參將黃沖霄討之，敗績。殺守備張世忠，焚五開，破永從縣，圍中湖所。總兵陳良批·陳璘合湖·貴兵進討，亦失利，國佐益橫。二十九年命巡撫江鐸會兵分七路進剿，苗據險不出，陳璘潛師奪隘，縱火焚其巢。國佐逃，擒之，纂

는 310명을 참수하고 270명을 사로잡았다. 이어 董胤 일대 공격을 통해 5,200여 명을 참수했으며, 궁지에 몰린 干把猪가 六甲 일대로 퇴각하자 연합작전을 전개해 干把猪와 그 일당 620명을 생포하는 한편, 4,700여 명을 참수했다. 이어 민간인 5,500여 명을 감옥에 가뒀다. 당시 소수민족의 인구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전투에 참여한 소수민족의 주요한 하더라도 1만여 명이 넘는다. 이런 사실은 명대 일부 소수민족 지역의 인구 규모가 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273) 李添保는 湖廣省 麻城縣 출신이었으며, 약을 판다는 구설로 묘족 지역에 들어가 唐太宗의 후예라 자칭했다. 다만 『明實錄』에는 관련 기사가 天順 4년(1460)에 등장한다. 『英宗實錄』卷319 天順 4년 9월 壬辰條 참조.

太亦爲他將誘縛，皆伏誅。

만력 28년(1600)에, 피림(皮林)의 반역 묘족 오국좌(吳國佐)²⁷⁴⁾와 석찬태(石纂太) 등이 난을 일으켰다.²⁷⁵⁾ 오국좌는 본래 홍주사(洪州司)²⁷⁶⁾ 특동채(特洞寨)의 묘족으로 자문 글을 알아 일찍이 영종(永從) 현학(縣學)²⁷⁷⁾에 들어가 생원(生員)이 된 적이 있는데, 본디 흉악하고 간교하여 피림의 여러 묘족들이 그를 받들고 북돋았다. 이로 말미암아 반역사 오대영(吳大榮)의 침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녀를] 여평부(黎平府)가 잡아들이자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다. 자칭 천황상장(天皇上將)이라 하고 걸요로는 초무를 따르는 체했지만 뒤로는 과주(播州) 반적과 내통하였다. 석찬태도 또한 태보(太保)라고 자칭하고서 백호(百戶) 황충(黃鍾) 등 100여 명을 죽이고, 오국좌(吳國佐)와 군사를 합쳐 상황보(上黃堡)를 포위하였다. 참장(參將) 황충소(黃沖霄)가 그들을 쳤으나 패배하였다. [오국좌 등은] 수비(守備)²⁷⁸⁾ 장세충(張世忠)을 죽이고 오개(五開)를 불살랐으며, 영종현(永從縣)을 격파하고 중조소(中湖所)를 포위하였다. 총병(總兵) 진량빈(陳良批)·진린(陳璘)²⁷⁹⁾이 호광·귀주의 군사를 합쳐 나아가 공격

274) 吳國佐: 生享年未詳. 귀주성 黎平府 永從縣 출신으로, 본문에서는 통칭해서 묘족이라 했지만 侗族이다. 楊應龍의 반란으로 賦役이 과다해지자, 이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켰다.

275) 『神宗實錄』卷366 萬曆 29년 12월 乙丑條 참조.

276) 洪州司: 洪舟泊里的 長官司를 말하며,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黎平縣 東南쪽에 위치한 洪州區이다.

277) 縣學: 明清시대 각 지방관아에 학교로 儒學을 설치했는데, 縣의 儒學을 縣學이라 하였다.

278) 守備: 明代에 변방에 嚴守한 官관으로 그 지위는 遊擊장군 아래였으나 품급은 없었다. 또한 정해진 정원도 없어서 사안에 따라 증설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79) 陳璘(1543-1607): 字는 朝暉, 號는 龍崖로, 廣東 翁源縣 龍田鋪(지금의 周陂 龍田村) 사람이다. 신체가 壯健하고 힘이 남달랐으며 劍術을 연마하고 韜略을 익혔다. 嘉靖 41년(1562) 潮州, 連江 등지에서 수만 명이 반란을 일으켜 廣東 지역이 큰 혼란에 빠지자 總督이 兵法에 밝은 자를 萬戶로 封爵하겠다는 수을 내렸다. 이때 陳璘이 軍門에 獻策하니, 총독이 크게 칭찬하고는 軍衛를 주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嘉靖 말년에 指揮僉事로 승진하였는데, 英德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廣東守備로 진급하였다. 萬曆 초년에도 몇 차례 농민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舊都指揮僉事, 僉事廣東都司, 高州參將 등으로 승진하였다. 廣東總督 凌雲翼이 羅霧를 정벌할 때 陳璘이 참전하여 크게 전공을 세워 副總兵 兼 署東安參將이 되었다. 萬曆 25년(1597) 朝鮮에서 丁酉再亂이 일어나자 陳璘은 조정의 명을 받고 廣東兵 5,000명을 거느리고 朝鮮으로 出征하였다. 이듬해 2월 御倭總兵官으로 승진하여 水軍을 提督하였다. 陳璘은 水軍 13,000명과 戰船 500여 척을 지휘하여 조선의 충청, 전라, 경상도 등의 海口로 진군하였다. 얼마 후 일본의 豊臣秀吉이 사망하여 倭軍의 사기가 동요되었다.

하였으나 또한 패배하니, 오국좌는 더욱 황포해졌다. [만력] 29년(1601)에 순무(巡撫) 강탁(江鐸)²⁸⁰에게 명하여 군사를 모아 일곱 개의 길로 나누어 진군하여 토벌토록 하였으나, 묘족들은 협준한 곳에 의지하여 나오지 않았다. 진린은 몰래 군사를 보내 협준한 길목을 탈취하여 불을 놓아 그 소굴을 불살랐다. 오국좌는 도망가다가 붙잡혔고, 석탄도 다른 장수의 유인에 걸려 포박되어 모두 처형되었다.

安順 안순

安順, 普里部蠻所居. 元世祖置普定府, 成宗時改普定路, 又爲普安路, 并屬雲南. 洪武初爲普定府, 十六年改爲安順州, 隸四川. 正統三年改屬貴州, 萬曆中改安順軍民府, 以普安等州屬焉. 普安, 故軍民府也, 初隸雲南, 尋廢爲衛, 永樂間改爲州, 始隸貴州, 領長官司二: 曰寧谷, 曰西堡.

안순(安順)은 보리(普里)부의 만인들이 거주하던 지방이다. 원나라 세조(世祖)²⁸¹는 보정

陳瑄은 鄧子龍과 조선의 명장 李舜臣과 함께 挾擊하였다. 비록 鄧子龍과 李舜臣이 희생되었지만, 이 전투에서 倭船은 큰 타격을 입었다. 倭軍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는 농공행상을 할 때 陳瑄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이 劉繼, 그 다음이 麻貴였다. 陳瑄은 都督同知로 승진하고, 指揮僉事는 세습되었다. 萬曆 28년(1600)에 湖廣總兵官이 되어 播州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정하였으나, 탄핵을 받고 貴州로 돌아왔다. 萬曆 34년(1606)에 다시 명을 받고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水良의 苗族 반란을 평정하여 苗族 13,000명을 항복시킨 뒤 廣東으로 돌아와 總兵官이 되었다. 左都督이 추가되어 指揮使는 세습되었다. 이듬해(1607) 任地에서 병사하였다. 그해 9월에 朝廷에서 太子太保로 追贈하였다. 한편 朝鮮에서는 陳瑄의 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陳瑄이 倭軍을 멸한 皇朝里에 陳瑄別廟를 세웠고, 城內에는 ‘太保祖祠’와 ‘太保祠’를 세웠다고 한다.

- 280) 江鐸: 生卒年 未詳. 字는 士振이고, 浙江省 杭州府 仁和縣 사람이다. 成化·弘治 연간에 고위직을 지낸 江灝의 증손자이다. 萬曆 2년(1574)의 進士로 刑部主事に 제수되었고, 누차 승진하여 山西 按察使가 되었다가 偏沅 巡撫로 발탁되어 楊應龍을 협공하는데 공을 세웠다. 후에 皮林의 여러 洞蠻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는데, 피로와 질병으로 집으로 돌아와 세상을 마쳤다.
- 281) 원나라 世祖(1215~1294): 칭기스칸의 손자이자 몽골제국 제5대 칸이며, 중국 원나라의 시조인 쿠빌라이(忽必烈, Kubilai)의 중국식 廟號이다. 1251년에 형인 몽케(蒙哥, Möngke)칸이 제4대 칸의 자리에

부(普定府)를 설치했고, 성종(成宗) 때는 보정로(普定路)로 바뀌었으며, 또 보안로(普安路)로 되었는데, 모두 운남(雲南)에 속해 있었다. 홍무 초년에 보정부(普定府)로 하였고, [홍무] 16년(1383)에 안순주(安順州)로 바꾸어 사천(四川)에 소속시켰다.²⁸² 정통(正統) 3년(1438)에 고쳐서 귀주(貴州)에 소속시켰다. 만력(萬曆) 연간(1573~1619)에는 안순군민부(安順軍民府)로 바꾸어²⁸³ 보안(普安) 등의 주(州)를 관할케 하였다. 보안(普安)은 이전에 군민부였는데, 처음에는 운남(雲南)에 속해 있었고 얼마 안가 폐지되어 위(衛)가 되었다. 영락 연간(1403~1424)에 주(州)로 바꾸어 처음으로 귀주(貴州)에 속하게 되었다. 장관사 등을 관할하였는데 영곡(寧谷)²⁸⁴과 서보(西堡)라 한다.

洪武五年, 普定府女總管適爾及其弟阿剌來朝, 遂命適爾爲知府, 許世襲. 六年設普定府流官二員, 十四年城普定, 十五年, 普定軍民知府者額來朝, 賜米及衣鈔, 命諭其部衆, 有子弟皆令入國學. 十六年, 者額遣弟阿昌及八十一岩長阿窩等來朝. 二十年詔徵普定·安順等州六長官赴京, 命以銀二十萬備輓, 遂普定侯陳桓等率諸軍駐普安屯田, 明年, 越州叛酋阿資罕衆寇普安, 燒府治, 大肆剽掠. 征南將軍傅友德擊走之, 且詣軍門降, 遂改軍民府爲指揮使司. 二十三年, 西平侯沐英奏普安百夫長密即叛, 殺屯田官軍及驛卒試百戶, 調指揮張泰討之於盤江木窄關, 官軍失利, 更調指揮

오르자, 쿠빌라이는 중국 만원의 대총독에 임명되었다. 그는 고비사막 남쪽의 金蓮川을 근거지로 삼고 지금의 雲南省에 있던 大理國을 멸망시켰으며, 티베트와 베트남까지도 공격하였다. 1259년 南宋을 공격하던 4대 칸 몽케가 四川의 병영에서 병사하자, 쿠빌라이는 國都인 카라코룸(和林, Karakorum)을 지키고 있는 막내아우 아릭 부케보다 먼저 중국의 開平府(上都)에서 大洋의 자리에 올랐으며, 중국식으로 建元하여 中統이라 하였다. 그 뒤로 두 칸이 싸우기를 4년, 마침내 아릭 부케를 굴복시킨 쿠빌라이는 도읍을 大都(오늘날의 北京)로 옮기고, 1271년에 나라 이름을 원이라 하였다. 이후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키고 이민족으로서 최초의 중국 통일을 이루었다. 쿠빌라이는 바로로 미얀마·찰과·자바·일본 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 282) 당시 安順州는 普定府에 속해 있었지만, 洪武 18년(1385) 보정부를 폐지했기 때문에 안순주를 普定府에 예속시켰다.
- 283) 萬曆 30년(1602)의 일이다.
- 284) 寧谷: 安順府 서남쪽 30리에 위치했으며, 元代에는 寧谷寨를 설치한 곳이다. 洪武 19년(1386) 長官司를 설치하고 土酋 顧興仁을 副長官으로 임명했으며, 正統 초년에는 그의 三世孫인 顧雄이 장관이 되었다.

蔣文統烏撒·畢節·永寧三衛軍剿之，乃遁。二十六年，普定西堡長官司阿德及諸寨長作亂，命貴州都指揮顧成討平之。二十八年，成討牛西堡土官阿傍。三十一年，西堡澆滾寨長必莫者聚眾亂，阿草傍等亦糾三千餘人助惡，成皆擊斬之，其地悉平。

흥무 5년(1372)에 보정부(普定府)의 여총관(女總管) 적이(邁爾)와 그의 동생 아웅(阿嬰)이 조정에 오자, 마침내 적이(邁爾)를 지부(知府)로 임명하고 세습을 허락하였다. [흥무] 6년(1373)에 보정부에 유관(流官) 두 명을 설치하였다. [흥무] 14년(1381)에 보정(普定)에 성을 쌓았다. [흥무] 15년(1382)에 보정(普定) 군민(軍民) 지부(知府)인 자액(者額)이 조정에 오니, 쌀과 의복 및 지폐를 하사하고 그 무리를 효유하여 자제가 있는 자들은 모두 국가감(國子監)²⁸⁵에 입학시키도록 명하였다. [흥무] 16년(1383)에 자액(者額)이 동생 아창(阿昌)과 81개 채(砦)의 우두머리 아와(阿窩) 등을 보내어 조정에 왔다. [흥무] 20년(1387)에 조사(詔書)를 내려 보정(普定)·안순(安順) 등 주(州)의 6명의 장관들을 수도로 불러 은(銀) 20만 냥으로 식량을 사들이 비축하라고 하고, 보정후(普定侯) 진환(陳桓)²⁸⁶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이끌고 보안(普安)에 주둔하여 둔전을 하도록 명하였다. 이듬해(1388) 월주(越州)에서 반란을 일으킨 묘족 아자(阿賚)가 무리를 이끌고 보안(普安)을 침범하여, 관청을 불사르고 대대적으로 약탈을 자행하였다. 정남(征南)장군 부우덕(傅友德)²⁸⁷이 공격하여 패퇴시켰다. [반역 무리

- 285) 國子監: 隋代에 창설되었으며, 이후 중국 제국의 최고 官學 기관의 이름이 되었다. 북송 때는 應天府監을 慶曆 3년(1043)에 南京國子監으로 전환시킨 예도 있다. 明代에는 명 태조가 南京을 점령 한 후, 당시 應天府學을 國子學으로 고쳐 부르다가, 명 양조가 건립되고 나서 國子監으로 개칭했다. 한편 北京의 國子監은 永樂 18년(1420) 北京으로 천도한 이후, 北京國子監을 京師國子監으로 바꿨다. 洪武~永樂 연간에는 학생 수가 8000~99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번성했으며, 조선과 일본 등에서는 유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 286) 鳳陽(?~1393): 安徽 濠州(鳳陽) 사람으로, 명 초기의 武將이었다. 주원장이 거병하자 그를 따라 참전하여 濠州와 和州를 점령하였고, 후에 集慶(지금의 南京) 전투에도 참가했다. 寧國, 金華, 龍江, 彭蠡 등지를 점령하는데 공을 세워 都督僉事가 되었다. 洪武 4년(1371)에 四川으로 進攻하였으며, 洪武 14년(1381)에는 胡海, 郭英 등과 함께 5만의 군대로 雲南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洪武 17년(1384)에 普定侯에 봉해졌으며, 洪武 20년(1387)에 靖寧侯 葉升과 함께 東川을 평정하였다. 雲南에 주둔한 군대를 총지휘하면서 九溪洞蠻을 다시 평정하고 營盤을 세우고 屯田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藍玉의 案에 연좌되어 죽임을 당했다. 『明史』 卷132 『陳桓傳』 참조.
- 287) 傅友德(?~1394): 宿州(지금의 安徽省 宿縣) 사람으로, 후에 臨山(지금의 安徽省 陽山縣)으로 이주했다.

들은] 날이 밝자 군문에 와서 항복하여 마침내 군민부(軍民府)를 지휘사(指揮使司)로 바꾸었다. [흥무] 23년(1390)에 서평후(西平侯) 목영(沐英)²⁸⁸이 상주하여, 보안(普安)의 백부장

어려서부터 용맹하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였는데 元末에 백련교 반란이 일어나자 劉福通의 군대에 가담하였다.李喜福를 따라서 四川으로 들어갔다 가 후에 明玉珍에게 투항하였으나 명목진이 동용하지 않자 武昌으로 가서 陳友諒에게 투항했다. 元 至正 21년(1361)에 朱元璋이 江州(지금의 江西 九江)을 공격하자 부우덕은 무리를 이끌고 투항했다. 주원장이 그의 재주를 기이하게 여겨 군사를 주어 蘆州(지금의 安徽 合肥)를 공략하게 했다. 이후 鄱陽湖의 전투에 참전하여 진우량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 후 호북, 강소 일대의 전장을 누비며 전공을 세우고 江進省 參知政事로 승진했다. 洪武 元年(1368) 5월에서 8월 사이에 산둥 臨清 일대에 주둔했으며, 그해 11월에서 12월에 太原에서 벌어진 擴廓帖木兒(Koke Temür)와의 전투에서 元軍을 물리쳤다. 洪武 3년(1370)에 徐達를 따라 서쪽으로 진공하여 擴廓帖木兒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사천으로 진격하고 나아가 漢中을 취하였다. 이 전공으로 이해 말에 顧川侯에 봉해졌다. 朱元璋은 『平西蜀文』에서 부우덕의 공이 첫째라고 상찬하였다. 洪武 5년(1372)에 주원장이 두 번째로 北征을 지시하였을 때, 부우덕은 갑숙 일대의 원군과 일곱 명씩 싸워 모두 승리하고 평정하였다. 洪武 13년(1380)에 朱元璋은 徐達, 湯和, 傅友德에게 바다와 육지로 進取로 가서 나하추(納哈出)와 高麗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였다. 洪武 14년(1381) 9월에 征南將軍의 벼슬을 받고 左副將軍 藍玉, 右副將軍 沐英과 함께 步兵과 騎兵 30만을 이끌고 雲南을 공격하여 元軍을 격파하고 평정하였다. 洪武 17년(1384)에는 顧國公에 봉해졌다. 洪武 20년(1387)에 제5차 北征沙漠 및 洪武 23년(1390) 제7차 北征沙漠에도 참전하여 전공을 세우고 太子太師의 벼슬을 더하였다. 太祖는 晩年에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신들을 대거 숙청하였는데, 이때 부우덕도 숙청당했다. 洪武 27년(1394) 朱元璋이 문무관원을 모아 놓고 연회를 베풀면서 갑자기 부우덕의 둘째 아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부우덕에게 둘째의 목을 베어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둘째 아들의 목을 베어오자 주원장은 아직도 분노를 식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부우덕은 ‘단자 죄의 무죄의 미련만을 원하실 뿐이다’며 주원장의 면전에서 자결하였다. 주원장은 傅家의 모든 남녀들을 요동과 운남으로 유배시켰다. 큰 아들 傅雍은 綱을 면하고서 주원장의 외손자인 壽春公主의 아들의 집에서 살았다. 崇禎 17년(1644)에 가서야 麗江 王으로 도호되고, 武肅이라는 諡號를 받았다. 『明史』 卷129 『傅友德傳』 참조.

- 288) 沐英(1345~1392): 字는 文英이며, 安徽省 臨陽府 定遠 사람이다. 어려서 고아가 되어 朱元璋이 養子로 삼음으로써 朱姓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나이 18세 때에 顧前都尉에 제수되어 江京을 지켰다. 이후 福建을 정벌하는데 참여하여 崇安을 평정하고 龍溪十八寨를 격파했으며, 洪武 원년(1368)에는 다시 沐姓을 사용했다. 洪武 3년(1370)에 鎮國將軍으로 봉해지고 大都督府 僉事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에 大都督府 同知로 승진하였다. 당시 大都督府는 軍事的 중추로서 兵馬를 관장하였는데 기밀업무가 산적했다. 그는 大都督府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여 朱元璋의 신임을 받았다. 洪武 10년(1377)에 征西副將軍에 임명되어 鄧愈를 따라서 吐蕃 公국에 참가하였으며, 공을 세워 西平侯로 봉해졌다. 洪武 13년(1380)에 陝西의 군대를 통령하여 북방으로 나가 亦集乃路를 공략하고, 黃河를 건너 賀蘭山(지금의 宁夏 지역)에 올라 北元軍을 대패시키고, 元의 國公 脫火赤 등을 붙잡았다. 洪武 14년(1381) 9월에는 征南將軍 傅友德, 左副將軍 藍玉과 함께 右副將軍으로서 30만 병사를 이끌고 운남

(百夫長) 밀측(密卽)이 반란을 일으켜 둔전의 관군 및 역승(驛丞)²⁸⁹ 시보(試補) 백호(百戶)를 죽였다고 하였다. [이에] 지휘(指揮) 장태(張泰)를 기용하여 반강(盤江)²⁹⁰ 목착관(木窄關)에서 이들을 쳤으나 관군이 패배하였다. 다시 지휘 장문(蔣文)을 기용하여 오살(烏撒)·필절(畢節)·영녕(永寧) 세 위의 군사를 이끌고 토벌케 하니, [반적들이] 이에 달아났다. [홍무] 26년(1393)에 보정(普定)의 서보(西堡)장관사(長官司) 아덕(阿德)과 여러 채장(寨長)이 난을 일으키니, 귀주(貴州) 도지휘(都指揮) 고성(顧成)에게 이들을 토벌하여 평정토록 명하였다. [홍무] 28년(1395)에 고성(西堡)²⁹¹ 토관(土官) 아방(阿傍)을 공격하여 평정하였다. [홍무] 31년(1398)에 서보(西堡) 창랑채(滄浪寨)의 우두머리인 필막(必莫)이란 자가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키고, 아혁방(阿革傍) 등도 또한 3,000여 명을 규합하여 약행을 도왔다. 고성(西堡)이 모두 공격하여 참수하니 그 지역이 다 평정되었다.

永樂元年，故普安安撫者昌之子慈長言：「建文時父任是職，宜罷，吏部罷之。本地地闊民稠，輜糧三千餘石，乞仍前職報效。」命仍予安撫。十三年改普安安撫司爲普安州。十四年，慈長謀占營長地，且強娶民人妻爲妾，殺其夫，闔其子。事聞，命布政司孟驥按狀。慈長糾兵萬餘圍驥，驥以計擒之，逮至京，死於獄。

영락 원년(1403)에 옛 보안(普安) 안무[사](按撫[使]) 자창(者昌)의 아들 자장(慈長)이 아뢰기를, "건문(建文)²⁹² 시기(1399~1402)에 저의 아버지는 이 직무를 맡았으며 마땅히 세습

평정에 참여하였다. 명군은 通海에 屯田을 설치하고 臨安衛에 소속시켰는데, 둔전군 2,228명, 권속 1,325명, 예비역 1,500명 합계 5,053명이 주둔했다. 명의 법령에 따르면 軍戶는 永充하는 것으로士卒들은 家屬과 함께 둔전을 경작하며 그 지역의 民戶들과 混居할 수 없었다. 沐英은 屯田을 크게 일으켜 경작하고 군량을 자급함으로써 서남 지방이 안정되었다. 그는 임지인 雲南에서 사망하였는데, 南京으로 옮겨져 장사지냈고 黔寧王으로 追封되었다. 鑑覽은 昭輝이고 그의 후손들은 명 말까지 대대로 雲南에서 살았다. 『明史』 卷126 『沐英傳』 참조.

289) 驛丞: 州縣 소속으로 郵傳과 迎送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290) 盤江: 北盤江을 가리킨다. 지금 귀주성 晴隆·關嶺 두縣의 경계에 있는 강이다.

291) 西堡: 앞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安順州에 속한 두 개의 長官司 중 하나이다. 이 장관사의 治所는 지금의 귀주성 普定縣 남부의 西堡이다. 그 영역은 지금의 安順市 서부, 鎮寧縣의 동북부, 紫雲縣의 서북부도 널리 퍼져 있다.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苗族과 仡佬族들이다.

해야 했는데, 이부(吏部)가 그것을 그만 두게 했습니다. 본 지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세금 바치는 것이 3,000여 석(石)이니, 이전의 직책을 이어받아 은혜에 보답하여 힘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고 하니, 이전대로 안무[사]의 직위를 주도록 명하였다.²⁹³ [영락] 13년(1415)에 보안(普安)안무사(按撫司)를 바꾸어 보안주(普安州)로 하였다. [영락] 14년(1416)에 자장(慈長)이 영장(營長)²⁹⁴의 지역을 차지하려고 꾀했으며, 또한 백성의 아내를 빼앗아서 첩으로 삼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들을 거세시켰다.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포정사(布政司) 맹기(孟驥)에게 명하여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자장은 군사 만여 명을 모아 맹기를 포위하였는데, 맹기는 계략으로 그를 사로잡아 경사로 압송하였으며, [자장은] 감옥에서 죽었다.²⁹⁵

天順四年，西堡蠻賊聚衆焚劫，鎮守貴州內官鄧忠·右副總兵李貴請調川雲都司官兵二萬，并貴州宣慰安隴當兵二萬進剿。至阿果，擒賊首楚得隆等，斬首二百餘級。餘賊奔白石崖，復斬級七百餘，焚其巢而還。十年，安順土知州張承祖與所屬寧容寨長官顧鍾爭地仇殺，下巡撫究治，命各貢馬贖罪。

천순(天順) 4년(1460)에 서보(西堡)의 만적(蠻賊)이 무리를 모아 방화와 약탈을 일삼으니, 귀주에 질수(鎮守)하는 내관(內官) 정충(鄧忠)·우부총병(右副總兵) 이귀(李貴)가 사천(四川)·운남(雲南) 도사(都司)의 관병 이만 명과 아울러 귀주(貴州) 선위사(宣慰使) 안릉부(安隴富)의 군사 이만 명을 징발해서 진군하여 토벌하기를 청하였다.²⁹⁶ 아과(阿果)에 이르러 도적 두목 초득룡(楚得隆) 등을 사로잡고, 200여 급을 참수하였다. 잔적들이 백석애(白石崖)로 도망치자, 다시 700여 급을 참수하고 그 소굴을 불사르고 돌아왔다. [성화(成化)] 10년

292) 建文: 明 王朝 2대 皇帝인 建文帝 朱允炆의 年號이다.

293) 『太宗實錄』 卷16 永樂 원년 정월 甲辰條 참조.

294) 營長: 普安지역 토목 예하의 속관을 일컫는 용어이다. 앞서 나왔던 水西 지역의 頭目이나 部長에 상당한다. '營'은 토착민의 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牧場'을 뜻한다고 한다.

295) 『太宗實錄』 卷174 永樂 14년 3월 庚申條 참조.

296) 『明實錄』에 따르면, 귀주 소속의 官軍과 土兵 및 운남과 사천의 두 都司에서 동원된 병력은 3만 5,000여 명이었다. 『英宗實錄』 卷323 天順 4년 12월 癸酉條 참조.

(1474)²⁹⁷에 안순(安順) 토지주(土知州) 장승조(張承祖)와 예하의 영곡채(寧谷寨)의 장관 고종(顧鍾)이 토지를 다투어 서로 원수가 되어 죽었다. 순무에게 조사하여 다스리도록 하고 각기 말을 공물로 바쳐 속죄하도록 명하였다.²⁹⁸

成化十四年，貴州總兵吳經奏，西堡獅子孔洞等苗作亂，先調雲南軍八千助防守。聞雲南有警，乞改調沅州·清浪諸軍應援。十五年，經奏已擒新賊首阿屯·堅婁等，以捷聞。

성화(成化) 14년(1478)에 귀주(貴州) 총병(總兵) 오경(吳經)이 상주하여 서보(西堡) 사자 공동(獅子孔洞) 등의 묘족이 난을 일으켰다고 보고하니, 먼저 운남(雲南)의 군사 8,000명을 동원하여 수비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오경이] 운남(雲南)에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는, 바루어서 원주(沅州)·청랑(淸浪)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지원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²⁹⁹ [성화] 15년(1479)에 오경(吳經)이 이미 도적의 두목 아둔(阿屯)·견루(堅婁)를 잡아 참살했다고 상주하며 승리를 보고하였다.

弘治十一年，普安州土判官隆暢妻米魯反。米魯者，霑益州土知州安民女也，適暢被出，居其父家。暢老，前妻子禮農，父子不相能。米魯與營長阿保通，因令阿保誡禮迎己，禮與阿保同蒸之。暢聞怒，立殺禮，毀阿保寨。阿保挾魯與其子阿蚌等攻暢，暢走雲南。時東寧伯焦俊爲總兵官，與巡撫錢鉞和解之。魯於道中毒暢死，遂與保挾

297) 원문에는 '10년'으로 기록되어 문장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天順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天順은 8년까지 밖에 없으므로 그 다음의 成化 10년(1474)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한다. 實錄을 보면 여기서 서술된 사건은 成化 10년의 일로 나타나고 있다. 『憲宗實錄』 卷134, 成化 10년 10월 庚寅條 참조.

298) 이 일 역시 『憲宗實錄』 卷134 成化 10년 10월 庚寅條에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말 두 마리를 바쳤다.

299) 吳經은 당시 雲南에도 변란이 발생한 탓에, 湖廣 지역의 衛所軍 5,000여 명을 동시에 동원하도록 상주했으며, 貴州와 湖廣의 總兵과 巡撫 등이 이를 허락한 내용이다. 『憲宗實錄』 卷134 成化 14년 10월 庚子條 참조.

寨反。暢妻曰適烏，生二子，別居南安。米魯欲并殺之，築寨圍其城。又別築三寨於普安，而令阿蚌等防守。名所居寨曰承天，自號無敵天王，出入建黃纛，官兵不能制，鎮巡以聞。發十衛及諸土兵萬三千人分道進，貴安民殺賊自贖。民乃攻斬阿保父子於查刺寨，米魯亡走。焦俊等貴安民獻魯，民陰資魯兵五百襲殺適烏及其二子，據別寨殺掠，又自請襲爲女土官。鎮巡官皆受賂，請宥魯。嚴旨切責，必得魯乃已。貴州副使劉福陰賂於魯，故緩師。賊益城，官兵敗於阿馬城，都指揮吳遠被擄，普安幾陷。帝命南京戶部尚書王軾·巡撫陳金·都指揮李政進剿，破二十餘寨。魯竄馬尾龍，官兵圍之，就擒，伏誅。安民自辨，得赦。正德元年，暢族婦適擦農土判官，赴京朝貢，帝嘉之，或曰適擦亦暢妻云。

홍치(弘治) 11년(1498)에, 보안주(普安州) 토판관(土判官) 융창(隆暢)의 처 미로(米魯)³⁰⁰가 반란을 일으켰다.³⁰¹ 미로란 자는 점익주(霑益州) 토지주(土知州) 안민(安民)의 딸인데, 융창에게 시집갔다가 쫓겨나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융창이 늙자 전처의 아들 융례(隆禮)가 직위를 물려받았는데 부자간에 화목하지 않았다. 미로는 영장(營長) 아보(阿保)와 사통하고 아보로 하여금 융례에게 [미로] 자기를 맞아주도록 하였으니, 융례와 아보(阿保)는 같이 뒷사람인 그녀와 간통한 것이다. 융창이 이를 듣고 노하여, 즉시 융례를 죽이고 아보의 산체를 불살랐다. 아보는 미로와 그 아들 아저(阿鉞) 등을 데리고 융창을 공격하니, 융창은 운남(雲南)으로 달아났다. 그때 동녕백(東寧伯) 초준(焦俊)이 총병관(總兵官)이 되어서 순무(巡撫) 전월(錢鉞)³⁰²과 함께 그들을 화해시켰다. 미로는 도중에 융창을 독살하고, 아보와 함께 산채

300) 米魯(?~1502): 貴州 普安州 苗族의 土判官인 隆暢의 妻로, 절세의 미녀로 알려졌다. 沾益州의 土知州 安民의 딸인 그녀는 결국 隆暢과의 불화로 친정으로 돌아와 현지의 또 다른 土司인 阿保와 私通하였다. 이때 隆暢은 이미 年老하여 米魯와의 사이의 자식이 아닌 그의 아들 隆禮에게 土司 직위를 넘겨주고, 隆禮를 米魯에게 보내어 돌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隆禮는 米魯와 通姦하고 阿保와 결탁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隆暢은 크게 노하여 阿保를 공격하여 근거지를 불태우는 한편 숨어있던 아들 隆禮를 죽였다. 이에 米魯는 阿保와 연합하여 반격을 가해 隆暢을 죽이고서 더 나아가 倂 조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301) 『憲宗實錄』 卷151 弘治 12년 6월 癸卯條 참조.

302) 錢鉞: 生卒年 未詳. 浙江省 杭州府 錢塘縣 사람이다. 天順 8년(1464)의 進士로 弘治 초년에 승진하여 浙江 按察使가 되었고, 얼마 안가 都御史로 승임하여 山東과 河南의 巡撫가 되었다. 貴州의 묘족이

를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융창의 첩은 적오(迺烏)라고 하였는데 아들 두 명을 낳아 따로 남안(南安)에서 살고 있었다. 미로는 그들도 함께 죽일 생각으로, 산채를 쌓고 그 성을 포위하였다. 또 보안(普安)에 따로 산채 세 개를 쌓고, 아저(阿爺)에게 수비하도록 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산채는 승천(承天)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스스로 무적천왕(無敵天王)이라고 칭하고 출입할 때는 황색 깃발을 세웠는데, 관군이 제압할 수 없다고 진순(鎭巡)이 보고하였다. [이에] 10개의 위(衛)와 여러 토병(土兵) 13,000명을 정찰하여 길을 나누어 나아가게 하고, 안민(安民)에게 반적을 죽여 스스로 속죄하도록 책임을 지웠다. 안민은 이에 사찰채(查刺寨)에서 아부 부자를 죽였는데, 미로는 도망쳤다. 초준(焦俊) 등이 안민에게 미로를 붙잡아 바치도록 책임을 지웠는데, 안민은 몰래 미로에게 군사 오백 명을 지원하여 적오(迺烏)와 그녀의 두 아들을 급습해 죽이고 다른 산채를 점거하여 살인과 약탈을 자행했으며, 또 스스로 자리를 이어 여토관(女土官)으로 해주기를 청했다. 진순관(鎭巡官)들은 모두 미로의 뇌물을 받고 미로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다. [황제는] 유지를 내려 엄하게 질책하고, 반드시 미로를 잡아들여야 일이 끝난다고 하였다. 귀주(貴州) 부사(副使) 유복(劉福)이 몰래 미로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고의로 진군을 지연시켰다. 반직은 더욱 기세가 올라 관군은 아마파(阿馬坡)에서 패배했으며, 도지휘(都指揮) 오원(吳遠)이 사로잡히고 보안(普安)은 거의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다. 황제는 남경(南京) 호부상서(戶部尚書) 왕식(王軾)³⁰³·순무(巡撫) 진금(陳金)³⁰⁴·도

소란을 일으키자 貴州 巡撫에 제수되었다.

- 303) 王軾(1439~1506): 字는 用敬이고, 湖北省 公安 사람이다. 天順 8년(1464)의 進士로 大理評事에 제수되었고, 이후 四川 按察使에 올랐다. 이후 弘治 연간(1488~1505)에 승진하여 戶部尚書가 되었으며, 군대를 이끌고 貴州 普安의 女首領인 米魯의 난을 평정하였는데, 用兵한 지 5개월에 적의 산채 천여 곳을 격파하였다. 후에 南京兵部의 參贊機務를 맡아보았다. 諡號는 襄簡이다. 저술로 『平蠻錄』이 있다.
- 304) 陳金(1446~1529): 字는 汝礪이고, 號는 西軒이며, 湖廣 武昌縣(지금의 湖北省 武昌) 사람이다. 成化 8년(1472)의 進士로 婺源縣에 제수되었고 이어 南京御史로 승임하였다. 弘治 初에 浙江 지역을 巡按하고 돌아와 災異와 관련하여 文武臣僚 19명을 탄핵하였고, 곧 山西副使를 이어 雲南左布政使를 역임하면서 竹子筍 叛亂을 토벌하였다. 弘治 13년(1500)에 右副都御史로 雲南의 巡撫가 되어 孟養 酋長 思祿과 孟崇 酋長 思揆을 征討하였다. 이후 南京戶部右侍郎이 되었고, 正德 연간(1506~1521)에 들어와 右都御史가 되어 兩廣軍務를 總督했으며, 苗民의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正德 3년(1508)에 南京戶部尚書가 되었다. 이듬해 左都御史에 임명되어 江西·福建 등지의 農民 반란을 토벌하여 太子少保가 더해졌다. 正德 10년(1515)에 다시 兩廣軍務를 총독했으며, 正德 14년(1519)에 都察院의 일을 관장했다. 그러나 正德 16년(1521)에 나이를 이유로 歸鄉을 청했으며, 嘉靖 8년(1529)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83세였다. 『明史』 卷187 「陳金傳」 참조.

지휘(都指揮) 이정(李政)에게 명하여 나아가 토벌토록 하여 이십여 개의 산채를 공파했다. 미로는 마미룡(馬尾籠)으로 도망가 숨었으나 관군이 포위하여 사로잡혔으며, 처형을 당하였다. 안민은 스스로 변론하여 사면되었다. 정덕(正德)³⁰⁵ 원년(1506)에 융창(隆暢) 일족의 머느리 적찰(積擦)이 토판관(土判官)의 직을 이어받아 경사에 와서 조공을 바치자, 황제는 그녀를 칭찬하였다. 후자는 적찰 역시 융창의 첩이었다고 한다.

西堡阿得·獅子孔阿江二種, 皆革僚也. 初據滄浪六寨, 不供常賦. 土官溫愷懼罪自縊, 其子廷玉請免賦, 不允. 往徵, 爲其寨長七呂等所殺. 六年, 廷玉弟廷瑞訴於守臣, 會七呂死, 指揮楊仁撫其衆. 巡撫蕭紳請令其輸賦, 免用兵, 從之.

서보(西堡)의 아득(阿得)·사자공(獅子孔)에 거주하는 아강(阿江) 두 종족은 모두 혁료(革僚)³⁰⁶이다. 이전에 청량(滄浪)의 여섯 산채를 점거하고 조세를 바치지 않았다. 토관(土官) 온개(溫愷)는 죄를 두려워하여 목을 매어 자살했고, 그의 아들 온정옥(溫廷玉)은 조세를 면제해 주기를 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이에 온정옥이] 징수하러 갔는데 寨長(寨長) 마러(七呂) 등에게 살해되었다. [정덕] 6년(1511)에 온정옥의 동생 온정서(溫廷瑞)가 지방관에게 호소하였는데, 마침 마러는 죽고 지휘(指揮) 양인(楊仁)이 그 무리들을 위무하였다. 순무 소총(蕭紳)³⁰⁷이 그들에게 조세를 바치게 하되 군에 복무하는 것은 면제해 주기를 청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305) 正德: 明 왕조 제10대 황제인 武宗 朱厚照의 年號이다.

306) 革僚: 명나라 후기 仡佬族을 일컫는 말 중의 하나이다.

307) 蕭紳: 生年未詳. 字는 渡溪이고, 四川省 內江縣 사람이다. 成化 17년(1481)의 進士로, 霍丘 知縣에 제수되었다가 刑部主事로 발탁되었다. 이후 山東布政使를 거쳐 누차 승진하여 右都御史 兩廣總督이 되었다. 正德 16년(1521)에 관직에서 물러났다.

都勻, 元曰都雲. 洪武十九年置都勻安撫司. 二十九年改爲軍民指揮使司, 屬四川. 永樂十一年改隸貴州. 弘治七年置府, 傾州二, 曰麻哈, 曰獨山, 卽合江洲陳蒙爛土長官司地. 傾縣一, 曰清平, 卽清平長官司地也. 傾長官司八: 屬府者曰都勻, 曰平浪, 曰邦水, 曰平州六洞; 屬獨山者曰九名九姓, 曰甯寧; 屬麻哈者曰樂平, 曰平定.

도균(都勻)은 원나라 때는 도운(都雲)³⁰⁸이라고 불렀다.³⁰⁹ 홍무 19년(1386)에 도균안무사(按撫司)를 설치하였다. [홍무] 29년(1396)에 군민지휘사사(軍民指揮使司)³¹⁰로 바꾸고 사천(四川)에 소속시켰다. 영락 11년(1413)에 바꾸어서 귀주(貴州)에 소속시켰다. 홍치 7년(1494)에 부(府)를 설치하고 두 개의 주(州)를 관할시켰다. 그 둘의 이름은 마합(麻哈)과 독산(獨山)이라 하는데, 곧 합강주(合江洲)의 진몽(陳蒙) 난토(爛土)장관사(長官司)의 땅이었다. 현(縣)은 한 개를 관할하였으며 청평(淸平)이라 하는데, 곧 청평(淸平)장관사의 땅이었다. 여덟 개의 장관사를 관할했는데, 부(府)에 소속된 것은 도균(都勻),³¹¹ 평랑(平浪),³¹² 방수(邦水),³¹³ 평주육동(平州六洞)³¹⁴ 이었고, 독산(獨山)에 소속된 것은 구명구성(九名九姓)³¹⁵과 풍녕(豊

- 308) 都雲: 『元史』地理志의 기록에 따르면, 都雲은 상·중·하 세 국이 있는데, 명나라 때의 都勻府는 그 관할 지역이 원대의 中都雲에 위치하고 있다.
- 309) 元代에 이 지역에는 都雲桑林獨立等處蠻夷軍民長官司와 定遠府 관할 都雲縣이 존재했다. 또한 都雲洞長官司가 존재해 新添葛蠻安撫司에 예속되어 있었다. 한편 역시 元代에 雲南行省 관할의 都雲等處安撫司가 존재했지만, 이 모든 구역의 소재지는 불분명하다.
- 310) 軍民指揮使司: 軍과 民을 모두 관할하여 등급이 보통의 衛보다 높다.
- 311) 都勻: 都勻府 남쪽 7리에 위치했으며, 元代 上都雲等處軍民長官司가 설치되었다.
- 312) 平浪: 都勻府 서쪽 5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元代 都雲安撫司 지역으로 洪武 16년(1383) 이곳을 나눠 長官司를 설치했다. 土官 王應韶가 세습하였다.
- 313) 邦水: 都勻府 서쪽 20리에 위치했으며, 원대 中都雲板水等處軍民長官司가 설치되었던 지역이다. 명 洪武 16년(1383) 長官司를 설치하고 土官 吳氏들이 세습하였다.
- 314) 平州六洞: 都勻府 서남쪽 15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원대 六洞柔遠等處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한 지역이다. 洪武 16년(1383) 장관사가 설치되었으며, 土官 楊氏들이 세습하였다.
- 315) 九名九姓: 元代 新添葛蠻安撫司 소속의 獨山州軍民長官司가 있었던 곳으로서, 洪武 12년(1379) 이것을

寧)³¹⁶이고, 마합(麻哈)에 소속된 것은 낙평(樂平)³¹⁷과 평정(平定)³¹⁸이었다.

洪武二十二年, 都督何福奏討都勻叛苗, 斬四千七百餘級, 擒獲六千三百九十餘人, 收降寨洞一百五十二處. 二十三年城都勻衛, 命指揮同知董蒲守之. 二十五年, 九名九姓蠻亂, 命何福平之. 二十八年, 甯寧三監等寨亂, 命顧成平之. 二十九年, 平浪蠻殺土官王應名, 都指揮程暹平之. 應名妻吳攜九歲子阿童來訴, 詔予贖. 永樂四年, 鎮遠侯顧成招諭合江州十五寨來歸.

홍무 22년(1389)에 도독(都督) 하복(何福)³¹⁹이 도균(都勻)에서 반란을 일으킨 묘족들을

九名九姓獨山州長官司로 바꿨다. 이곳에는 구명구성묘라는 별도의 묘족이 살았다. 묘족 모두가 다른 사람의 환을 빌어 쓴다는 사료의 기록을 믿을 수 있다면, 그런 전통 때문에 명칭이 구명구성일 가능성이 많다. 상당히 호전적이었으며, 상을 치를 때나 혼례를 올릴 때, 소를 잡고 닭을 마셨다.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종족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으며, 부상을 당한 죽이 소로 매상하는 풍습이 있었다. 『黔記』 卷3 참조.

- 316) 豊寧: 獨山州 서남쪽 7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元代 都雲安撫司 자리였다. 洪武 23년(1390) 豊寧長官司를 설치해 土官 楊氏들이 관할했으며, 都雲衛에 예속시켰다.
- 317) 樂平: 麻哈州 서북쪽 4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元代 彭澤營 지역이었다. 洪武 5년(1372) 樂平長官司를 설치해 土官 宋氏들을 副長官으로 임명하는 한편, 平越衛에 예속시켰다.
- 318) 平定: 麻哈州 북쪽 10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洪武 22년(1389) 설치되어 土官 吳氏가 관할했다. 초기에는 平越衛 소속이었지만, 洪武 30년(1397) 淸平衛에 소속시켰다.
- 319) 何福(?~1410): 濠州(지금의 安徽省 鳳陽縣) 사람이다. 洪武 초에 여러 공을 세워 金吾衛指揮同知가 되었다. 이후 傅友德을 따라 雲南 征討에 나가 공을 세워 前軍都督府都督僉事로 승임했으며, 藍玉과 함께 北元을 공격하여 捕魚兒海에서 大勝을 거두었다. 洪武 24년(1391)에 平羌將軍에 임명되어 越州의 叛蠻 阿資를 토벌하였으며, 洪武 30년(1397)에는 征虜左將軍에 임명되어 西平侯 沐春을 보좌하여 麓川의 叛蠻 刀幹孟을 토벌하였고, 이듬해 都督 程能과 함께 高良公山을 넘어 南畝으로 들어가 2 餘長 刀名孟을 붙잡았다. 建文 원년(1399)에 刀幹孟이 再次 叛亂을 일으키자, 何福은 征虜將軍에 임명되어 敵寨를 공격하고 刀幹孟을 사로잡았는데, 이때 敵軍 七萬여 명이 투항하였다. 이에 대한 論功에서 都督同知가 되었고, 곧 左都督에 올랐다. 燕王 卽位해서도 將領에 임용되어 征虜將軍印을 패용하고 總兵官이 되어 寧夏에 鎮守하여 山西·陝西·河南 등의 부대를 관령했다. 이때 그는 德惠를 宣布하였는데, 이로 인해 塞外의 여러 민족이 투항해 왔다. 永樂 7년(1409)에 本雅失里가 瓦剌에게敗하여 麓陽河로 逃走해 왔으며, 이때 何福은 單騎의 전투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遼北의 王子·國公·司徒 이하 10여 명이 亦集乃에 이르러 명에 귀부해 왔다. 何福은 이를 조정에 보고하고 친히 亦集乃를 巡撫하여

토벌하여 4,700여 급을 침수하고 6,390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채(寨)와 동(洞) 152곳의 항복을 받았다고 상주하였다. [홍무] 23년(1390)에 도균위(都勻衛)에 성을 쌓고 지휘동지(指揮同知) 동옹(董庸)에게 명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홍무] 25년(1392)에 구명구성(九名九姓)의 만족이 난을 일으키자, 하복(何福)에게 명하여 평정토록 하였다. [홍무] 28년(1395)에 풍녕(豊寧)³²⁰의 삼람(三藍)³²¹ 등의 채(寨)에서 난을 일으키자, 고성(顧成)에게 명하여 평정토록 하였다. [홍무] 29년(1396)에, 평랑(平浪)³²²의 민족(蠻族)이 토관(土官) 왕응명(王應名)을 죽이자, 도지휘(都指揮) 정섬(程暹)이 평정하였다. 왕응명의 처 오(吳)씨가 아홉 살 된 아들 아동(阿童)을 데리고 와서 호소하자, 조서(詔書)를 내려 세습하도록 하였다. 영락 4년(1406)에 진원후(鐵遠侯) 고성(顧成)이 합강주(合江州)³²³ 열다섯 개의 채(寨)를 타일러 귀순시켰다.

宣德元年，平浪賊紀那·阿魯等占副長官地，殺掠菓果諸寨，招諭不聽，詔蕭授平之。七年，陳蒙燭土副長官張勉奏，所司去衛遠，地連古州生苗，與廣西僚洞近，化從寨長韋翁同等煽亂，乞立堡，并請洞洞州州兵一千鎮守，從之。九年，翁同斜下高大刀蠻廣西賊韋萬良等恣殺掠，指揮陳原討擒萬良等三人，翁同遂聽換，而落昌·蔡郎等四十寨仍聚眾拒敵，總兵蕭授遣指揮顏勇進討，平之。

선덕(宣德) 원년(1426)에 평랑(平浪)의 도적 기나(紀那)·아로(阿魯) 등이 부장관(副長官)의 땅을 점거하고 엽과(葉果) 등 여러 산채를 살육하고 약탈하여, 귀순하도록 효유했는데 듣지 않았다. [이에] 소수(蕭)에게 조서를 내려 평정토록 하였다.³²⁴ [선덕] 7년(1432)에

이 공로로 李遠侯에 봉해졌다. 그런데 永樂 8년(1410)에 永樂帝의 漠北에 대한 친정에 참여한 그는 황제에게 많은 총예를 받음으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左都御史 陳瑛에게 彈劾을 당해 결국 목을 매 죽었다. 『明史』 卷144 「何福傳」 참조.

- 320) 豊寧: 豊寧 長官司를 말하며, 獨山 지역에 있다. 豊寧 長官司는 上·下 구별이 있는데, 즉 지금 都勻市の 上司鄉과 下司鄉이다. 주 316 참조.
- 321) 三藍: 寨의 이름이며, 현재 이 지역에 주로 사는 사람들은 布依族이다.
- 322) 平浪: 長官司 이름이며, 治所는 지금의 귀주성 都勻市の 서쪽 平浪鎮이다. 주 312도 참조.
- 323) 合江州: 여기서서는 元나라 때의 전례를 좇아 부른 것이다. 元代에 이 주의 관할 지역은 지금의 都勻市와 三都水族 자치현의 인접 지역이다.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은 水族과 布依族이다.

진몽(陳蒙) 난토(爛土)의 부장관(副長官) 장면(張勉)이 상주하기를, 관할 지역이 위(衛)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리적으로 고주(古州)의 생묘(生苗)와 접해 있어, 광서(廣西) 요동(僚洞)³²⁵과 가까워서 화종(化從)의 채장(寨長) 위옹동(韋翁同)³²⁶ 등이 반란을 선동하니 보루를 설치할 것을 청하며, 아울러 사성주(泗城州)³²⁷의 토병(土兵)³²⁸ 1,000명을 동원하여 지키도록 해주기를 청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³²⁹ [선덕] 9년(1434)에 위옹동(韋翁同)이 하고대도(高大刀)의 민족(蠻族)을 규합해서 광서(廣西)의 도적 위만량(韋萬良) 등과 회합하여 멋대로 살육과 약탈을 행하였다. 지휘(指揮) 진원(陳原)이 토벌하여 위만량 등 세 사람을 사로잡자, 위옹동은 마침내 조무(招撫)를 받아들였으나 낙창(落昌)·채랑(蔡郎) 등의 40채(寨)는 여전히 무리를 모아 저항하였다. 총병(總兵) 소수(蕭)가 지휘(指揮) 고용(顧勇)을 보내어 나아가 토벌케 하여 평정하였다.

成化十四年，陳蒙爛土長官司張鏞奏：「天瑞干賊首齋果侵掠，請於所侵大陳·大步等寨設一司，隸安寧宣撫。」而豐寧長官司楊泰亦奏峯峯陸光翁等聚爛土爲亂，先是，宣慰楊輝平天瑞干後，即潛溪立安寧宣撫司。爛土諸酋惡其逼己，至是果等既陷天漂，遂圍宣寧。時輝已致仕，子愛承襲，力弗支，求援於川·貴二鎮。各奏聞，命仍起輝，會兵討之。十六年，鏞復奏齋果糾合九姓·豐寧并荔波賊萬人，攻剽愈亟，帝責諸守臣玩寇，於是巡撫謝景言：「自天順四年以來，諸苗攻劫舟溪等處，不靖至今。」

- 324) 紀那와 阿魯의 반란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그들을 招撫하라 명령했으며, 조무가 효력이 없을 경우 군사를 동원해 진압하도록 했다. 『宣宗實錄』 卷19 宣德 元年 7월 丙申條 참조.
- 325) 僚洞: 洞은 이 지역의 촌락을 행정 부문에서 기층단위로 하여 부른 명칭이다. 僚는 당나라 때부터 불려온 종족 명칭으로 百越族 계통의 민족이다. 본문의 지역은 都柳江 하류로 지금의 廣西 環江, 三江 일대이다. 僚는 현재 이 지역에 사는 壯族, 侗族, 毛南族, 仫佬族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26) 韋翁同(?~1451): 都勻衛 合江州 化從 출신으로 이 지역 일대 묘민과 함께 抗糧을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며, 본문에 등장하는 張勉을 살해했다. 景泰 2년(1451) 官軍이 香爐山을 점령했을 당시 체포당해 북경으로 압송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 327) 泗城州: 廣西 서북쪽에 위치하여 貴州와 접하고 있다. 주 162 참조.
- 328) 泗城州의 土兵: 명나라 때의 典籍에서 狼兵으로 일컬어졌고 전투력이 강하였다고 한다.
- 329) 『明實錄』의 기록에 따르면, 본문의 설명처럼 광서성의 병력을 동원했던 예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宣宗實錄』 卷95 宣德 7년 9월 丁巳條 참조.

乃命鎮守大監張成·總兵吳經相機剿撫。二十年，爛土苗賊龍洛道潛號稱王，聲言犯都勻·清平諸衛。叟寧長官楊泰與土目楊和有隙，誘廣西泗城州農民九千，於鏡坑等一百餘寨殺掠，於是苗患愈盛。

성화(成化) 14년(1478)에 진몽(陳蒙) 난토(爛土)장관사(長官司)의 장웅(張鏞)이 상주하기를, “요괘간(天瑞干)³³⁰의 도적 두령 재과(齋果)가 침범하여 약탈하니, 침입을 받은 대진(大陳)·대보(大步) 등의 체(寨)에 사(司)를 하나 설치하여 안녕(安寧)선무사(宣撫司)에 소속시켜 주십시오”라 하고, 풍녕(豊寧)장관사의 양태(楊泰)도 봉동(峰桐)의 육광옹(陸光翁) 등이 난토(爛土)에서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켰다고 상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선위(先衛) 양휘(楊輝)가 요괘간(天瑞干)을 평정한 뒤 바로 만계(灣溪)³³¹에 안녕(安寧)선무사(宣撫司)를 설치하였다. 난토(爛土)의 여러 묘족들은 [선무사가]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을 증오하여 이때에 이르러 재과(齋果) 등이 요표(天漂)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서 마침내 풍녕(豊寧)을 포위했던 것이다. 이때 양휘는 이미 관직을 퇴임하였고 아들 양애(楊愛)가 관직을 물려받았는데, 힘이 지탱하지 못하자 사천(四川)·귀주(貴州)의 두 진(鎭)에 지원을 요구하였다. 각기의 상주가 올라오자, [조정에서는] 예전대로 양휘를 기용하도록 명하여 군사를 모아 토벌케 하였다. [성화] 16년(1480)에 장웅이 다시 상주하기를, 재과(齋果)가 구성(九姓)·풍녕(豊寧), 그리고 여과(荔波)³³²의 도적 무리 만 명을 규합하여 공격과 약탈을 더욱 심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황제는 여러 수신들이 도적들을 경시했다고 질책하였다. 이에 순무(巡撫) 사교(謝景)가 아뢰기를, “천순 4년(1460) 이래로 여러 묘족이 주계(舟溪) 등지를 공격하고 약탈해서 편안치 못한 것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라 하니, 이에 진수태감(鎮守太監) 장성(張成)·총병(總兵) 오경(吳經)에게 명하여 기회를 보아 초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성화] 20년(1484)에 난토(爛土)의 묘적(苗賊) 용락도(龍洛道)가 참람되어 왕이라 칭하고, 도군(都勻)·청평(淸平)³³³ 등 여러 위(衛)들을 치겠다고 큰소리쳤다. 풍녕(豊寧)의 장관 양태(楊泰)가 토목(土目) 양화(楊和)와

330) 天瑞干: 지금의 貴州省 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丹寨縣의 興仁鄉 부근이다.

331) 灣溪: 지금의 貴州省 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凱裏市의 青曼鄉 부근이다.

332) 荔波: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에 있는 縣의 이름이나 明代에는 廣西省 慶遠府에 소속되어 있었다.

333) 淸平衛: 貴州 都司의 관할하에 있었고,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麻江縣이다.

알력이 있어, 광서(廣西) 사성주(泗城州)의 농민 9,000명을 꺾어 이갱(鉢坑) 등 100여 체(寨)에서 살육과 약탈을 행하도록 하니, 이에 묘족에 의한 재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弘治二年，苗賊七千人攻圍楊安堡，都指揮劉英統兵視之，爲所困，命鎮巡官往援，乃得出。五年命鎮遠侯顧溥率官兵八萬人，巡撫鄧廷瓚提督軍務，大監江德監諸軍，往征之。七年，諸軍分道進剿，令熱苗詐降於賊，誘令入寇，伏兵擒之，直搗其巢，凡破一百十餘寨，以捷聞。於是開置都勻府及獨山·麻哈二州。

홍치(弘治) 2년(1489)에 묘적(苗賊) 7,000명이 양안보(楊安堡)³³⁴를 공격하여 포위하자, 도지휘(都指揮) 유영(劉英)이 군사를 이끌고 정찰하다가 곤경에 처하였다. [조정에서] 진순관(鎮巡官)에게 가서 구원하도록 명하여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었다. [홍치] 5년(1492)에, 진원후(鎮遠侯) 고부(顧溥)³³⁵는 군사 팔만 명을 이끌고, 순무(巡撫) 등정찬(鄧廷瓚)³³⁶은 군무(軍務)를 지휘 독려하고, 태감(太監) 강덕(江德)은 제군(諸軍)을 감독하여 가서 토벌토록 명하였다. [홍치] 7년(1494)에 제군(諸軍)이 길을 나누어 나아가 토벌하는데, 숙묘(熟苗)로 하여금 적에게 거짓으로 항복하게 해서 그들을 유인하여 침범하게 하고는, 부병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곧바로 그 소굴을 공격하여 모두 110여 체(寨)를 깨트리고 승리를 보고하였다. 이에

334) 楊安堡: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의 三都水族自治縣 서부에 위치한다.

335) 顧溥(1461~1505): 字는 宗泰이고 江蘇省 江都縣 사람으로, 永樂에서 正統 연간에 걸쳐 고관을 지낸 顧興祖의 손자이다. 成化 9년(1473)에 작위를 세습받아 鎮遠侯가 되었다. 弘治 초년에 平賊將軍으로 임명되어 湖廣을 지졌는데, 都勻의 夷族이 난을 일으키자 토벌하여 참수한 자가 萬으로써 헤아려서 太子太保가 더해졌다. 諡號는 襄愷이다. 顧溥는 관직에 있으면서 청렴하고 법을 지켜 죽는 날에도 재산이 별반 없었다고 한다.

336) 鄧廷瓚(1430~1500): 字는 宗器이고, 湖南省 巴陵縣 사람이다. 景泰 5년(1454)의 進士로 淳安 知縣에 제수되었는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정치를 하였다. 이후 승진하여 太僕寺에 되었다가 貴州 程番 知府로 발탁되었는데, 9년간 재임하면서 업적이 탁월하였다. 弘治 초년에 右副都御史로 승진하였고 貴州 巡撫가 되어 묘족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어서 兩廣의 軍務를提督하면서 巡撫를 겸하였는데, 역시 업적이 뛰어난다는 명성이 있었다. 죽은 후 太子少保에 추증되었고 諡號는 襄愷이다. 鄧廷瓚은 아량이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데 의심하지 않았고 세상에서長者로 불렸다. 그의 일 처리는 마땅한 기회를 잘 잡아서 누차 軍務를 담당하였고 나아가서는 반드시 성공하였다(“明史”卷172『鄧廷瓚傳』참조).

도균부(都勻府) 및 독산(獨山)·마합(麻哈) 2개 주(州)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正德三年，都勻長官司吳欽與其族吳敏爭鬻仇殺，鎮巡以聞，言：「欽之祖賴洪武間立功爲長官，陣亡。子琮幼，弟貴署之。及琮長，仍鬻，傳至欽三世。敏不得以貴故妄爭。」詔可之。

정덕(正德) 3년(1508)에 도균(都勻) 장관사(長官司)의 오흠(吳欽)이 그의 일족 오민(吳敏)과 세습을 두고 다투어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이자 진순(鑑巡)이 아뢰기를, “오흠의 조부 오뢰(吳賴)는 홍무 연간(1368~1398)에 공을 세워 장관이 되었는데 전쟁(戰場)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오릉(吳琮)이 나이가 어려 동생 오귀(吳貴)가 대신했습니다. 오귀가 성장하자 예전대로 세습했고 오흠에까지 이어져 3대를 내려왔습니다. 오민은 [이 같은] 오귀의 연고 때문에 자리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고 하니,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³³⁷⁾

嘉靖十五年，平浪叛苗王聰攻奪凱口屯，執參將李佑等。初，王阿向先世爲土官，爲王仲武先人所奪，至阿向，與仲武爭印煽亂。總兵楊仁·巡撫陳克宅平之，新阿向等，盡逐其黨，以地屬都勻府，改名減苗鎮。仲武因諸苗失業，陰爲招復，旋科索之。諸苗不勝怨，遂推阿向餘孽王聰·王佑爲主。巡按楊春芳達李佑等撫諭之，賊賈佑等，乞還土田官印，乃釋佑。春芳以聞，詔巡撫調官軍三萬人集地下。地故絕險，其要害處置弩樓，壘石爲防。攻之三月不克，復調宣慰安萬鎰兵合剿。萬鎰力戰破賊，聰等皆伏誅，前後斬首二百六十餘級，降苗寨一百五十餘，男婦二萬餘口。捷聞，敕功賞費有差。

가정(嘉靖) 15년(1536)에 평랑(平浪)에서 반란을 일으킨 묘족 왕충(王聰)이 개구문(凱口屯)³³⁸⁾을 공격하여 빼앗고, 참장(參將) 이우(李佑) 등을 사로잡았다. 이전에 왕아향(王阿向)

337) 당시 吳敏은 토속 지위에 있었다. 『武宗實錄』 卷42 正德 3년 9월 丁未條 참조.
338) 凱口屯: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의 都勻市 凱口鎮에 위치하며, 명나라 때 이 지역에 군영을

의 선조는 토관(土官)이었는데, 왕중무(王仲武)의 선조에게 빼앗겼다가 왕아향에 이르자 왕중무와 관인(官印)을 다투어 난을 일으키기를 선동하였다. 총병(總兵) 양인(楊仁)·순무(巡撫) 진극택(陳克宅)³³⁹⁾은 반란을 평정하여 왕아향 등을 침수하고, 그 무리를 다 쫓아내고서 그 지역을 도균부(都勻府)에 소속시키고, 이름을 멸묘진(滅苗鎮)이라고 바꿨다. 왕중무는 여러 묘족이 세산을 잃었기 때문에 은밀히 [그들을] 불러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로부터 과도하게 세금을 걸었다. 여러 묘족들은 원망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왕아향의 남은 후손 왕충(王聰)·왕우(王佑)를 추대하여 두목으로 삼았다. 순안(巡按) 양춘방(楊春芳)이 이우(李佑) 등을 보내어 위무하고 타일렀으나, 도적들은 이우 등을 인질로 삼아 토지와 관인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야 이우를 풀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양춘방이 이를 보고하자, 조서를 내려 순무(巡撫)에게 관군 삼만 명을 동원하여 둔보(屯堡) 밑에 집결시키도록 하였다. 둔보는 원래 극히 험한 지대였고, 그 요충지에 쇠뇌를 쏘는 누(樓)를 설치하고 둘을 쌓아 방어물로 하였다. [그 때문에] 3개월 동안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여 다시 선위사(安萬鎰)의 군사를 동원하여 함께 토벌하였다. 안만전은 힘써 싸워 적을 깨트리고, 왕충(王聰) 등은 모두 처형을 당했으며, 전후해서 침수한 것이 260여 급(畝)이요, 항복한 묘체가 150여 개에 남자와 부녀자가 2만여 명이었다. 승리가 보고되자, 공(功)에 따라 크고 작은 상을 주었다.

又有黑苗曰天漂者，在湖·貴·川·廣界，與者亞鼎爰居。萬曆六年，天漂請內附，都御史遣指揮郭懷恩及長官金象往問狀，而阻於者亞，乃遠從丹彭間道通天漂。會苗坪·黨銀等亦以格於者亞不得通，都御史王緝遣使責者亞部長阿斗。斗願歸坪平定，緝謂斗故養善牌部，何故欲屬平定，必有他謀。下吏按驗，果得實，蓋欲往平定借諸

설치하였으므로 凱口屯이라고 불렀다.
339) 陳克宅(1474~1540): 字는 卽卿, 號는 省齋이고, 浙江省 餘姚縣 사람이다. 正德 9년(1514)의 進士로 嘉定 知縣에 제수되었다. 嘉靖 연간(1522~1566)에 御史가 되었는데, 直諫을 하여 獄에 갈리고 廷杖을 당하였다. 풀려난 뒤론 누차 승진하여 右副都御史에 이르고, 貴州 巡撫가 되어 都勻의 묘족 王阿向의 반란을 토벌하였다. 얼마 안가 蘇松 巡撫가 되었는데, 王阿向의 무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그로 말미암아 파면되었다.

蒙兵襲養善，皆內地奸人天金貴等導之。遂治金貴罪，以者亞仍屬養善，路逢通。於是苗坪·天漂皆請奉貢賦，比編氓，名其地曰歸化，隸都勾府。凡使命往來，自生齒以上，悉跪拜迎送，夾騎從行。前吹簫笙，唱贊歌，呼導而馳。事聞，帝嘉之。七年，者亞·阿斗以反誅，乃罷樂平吏目，增設麻哈州州判一員，令居樂平司，以養鶴·者亞·羊腸諸苗屬之。

또 흑묘(黑苗)³⁴⁰에 요표(天漂)라는 곳이 있어 호광(湖廣)·귀주(貴州)·사천(四川)·광서(廣西)의 경계(境界) 지대에 있었는데, 자아(者亞)³⁴¹와 함께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만력 6년(1578)에, 요표의 묘족이 조정에 귀순하겠다고 청했다. [이에] 도어사(都御史)가 지휘(指揮) 관희은(郭懷恩)과 장관사 김진(金薰)을 파견하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였는데, [그들은] 자아에서 저지당하자 이에 멀리 단창(丹彰)³⁴²의 사잇길을 통해 요표(天漂)에 갔다. 마침 묘평(苗坪)·당은(黨銀)³⁴³ 등의 곳도 자아(者亞)에 의해 저지당해 통행할 수 없게 되자, 도어사 왕집(王緝)은 사자를 보내 자아 채(寨)의 우두머리 아두(阿斗)를 질책했다. 아두가 평정(平定)에 귀순하기를 원하자, 왕집이 아두는 원래 양선패(養善牌)³⁴⁴ 마을에 속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평정(平定)에 예속되려 할까? 반드시 다른 모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범사관에게 내려 조사해서 과연 그 실상을 알게 되었는데, 무릇 그것은 평정에 가서 여러 몽(蒙)의 군사를 빌려 양선(養善)을 공격하려고 한 것이었으니, 모든 것이 한족(漢族)의 간사

340) 黑苗: 都勾의 八寨와 丹江, 鎮遠의 清江, 黎平의 古州 등지에 존재했던 묘족으로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했다. 따라서 산에 거주한 흑묘를 山苗 또는 高坡苗라 했으며, 하천 부근에 사는 흑묘들은 湖苗라 불렀다. 이들의 풍습 또한 매우 독특해서,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색실로 엮은 대나무를 묘지 옆에 꽂아 두고 제사를 올렸다. 乾隆 『貴州通志』에서 토사가 있는 집단을 熟苗, 토사가 없는 집단을 生苗라 한다고 기술한 것은 漢化의 정도에 따라 熟苗와 生苗를 구분하는 것으로 한족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한 것임은 물론이다. 乾隆 『貴州通志』 卷7 『地理』와 『黔記』 卷3 참조.

341) 者亞: 지금의 貴州省 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麻江縣 東南쪽에 위치한다.

342) 丹彰: 지금의 貴州省 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雷山縣에 있으며, 당시 生苗 지구에 속하였다.

343) 苗坪·黨銀: 지금의 貴州省 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丹寨縣 북부와 黔西南布依族苗族自治州的 都勻市 사이에 있다.

344) 養善牌: 養善은 지금의 貴州省 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麻江縣에 있으며, 牌는 당시의 말단 행정 조직으로 明代의 대표적인 주민 조직인 里甲制의 甲에 상당한다. 養善牌는 樂平 長官司에 속하였다.

한 자인 요금귀(天金貴) 등이 꾀한 것이었다. [이에] 드디어 요금귀를 책벌하고 자아를 예전대로 양선에 속하게 하니, 길이 마침내 통하게 되었다. 이에 묘평·요표는 모두 공물과 조세를 바치고 내지(內地)의 백성과 같이 되기를 청하니, 그 지역 이름을 귀화(歸化)라고 짓고 도균부(都勻府)에 소속시켰다.³⁴⁵ 무릇 사자들이 오고 갈 때면, 어린아이부터 모두 엎드려 송영하고 호위하면서 수행했으며, 앞에서 생활을 불고 만족 노래를 부르며 큰 소리로 외치며 인도하여 내달랐다. 이 일이 보고되자 황제는 그들을 칭찬하였다. [만력] 7년(1579)에, 자아의 아두가 반란을 일으켜 처형되자 낙평(樂平)의 이목(吏目)³⁴⁶을 없애고, 마합주(麻哈州)의 주판(州判) 한 명을 증설하여 낙평사(樂平司)에 주재하게 하고, 양아(養鶴)·자아(者亞)·양장(羊腸)의 여러 묘족을 거기에 소속시켰다.

初，者亞·阿斗反，答干寨阿其應之。斗誅，阿其屢犯順。十四年，土舍英楠·王國聘應阿其巨測禍及己，請以答干·錫賈·甲多諸寨屬蒙詔，立宣威營，歲輸賦。獨阿其不服，引者亞殘苗圍宣威營大噪，曰：「此我地，誰令爾營此？」蒙詔當徵秋稅，阿其度使至，以血擊門，令勿通。居常張傘鼓角，繪龍鳳器，逢與錫賈·甲多·仰枯諸苗擊牛酒爲誓，劫歸化，官兵不敢近。獨山土吏蒙天春願以兵進剿，乃使人佯言，漢已聽蒙詔，令以宣威營地還阿其，旦暮撤兵去矣。阿其乃親馳樂邦牛場詞視，言人人同，遂弛備。天春驟入，斬阿其，錫賈·甲多皆降。

당초에 자아의 아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담간寨(答干寨)³⁴⁷의 아기(阿其)가 호응하였다.

345) 본문에는 天漂 등이 歸附를 요청한 시기가 萬曆 6년(1578)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明實錄』에 따르면 萬曆 8년(1580)에 처음 歸附를 요청했으며, 당시 시 공을 인정해 撫臣 왕繼과 전임 苗臣 何起鳴, 그리고 道臣 蘇愚 등에게 각각 상을 하사했다. 이어 이들이 다시 萬曆 9년(1581)에 156寨의 苗民들의 귀부를 요청하자 都勾府에 편입시켰다. 각각 『神宗實錄』 卷106 萬曆 8년 11월 丙子條와 『神宗實錄』 卷117 萬曆 9년 10월 壬寅條 참조.

346) 吏目: 관부의 문서를 관장하는 직이다. 이미 元나라 때에 提舉司 및 中·下 규모에 州에 관원을 보좌하는 吏目을 두었고, 明代에도 太常寺·鹽課提舉司·市舶提舉司·京衛指揮使司·太醫院·五城兵馬司 및 지방의 知州 아래 吏目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하였다. 淸朝에서에도 太醫院·五城兵馬司 및 知州 아래 吏目을 두어 刑獄과 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 본문에서의 吏目은 長官司의 문서를 담당하는 관원으로 보인다.

347) 答干寨: 지금의 貴州省 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凱里市的 西南쪽 青曼鄉 일대에 위치했다. 이는 앞의

아두가 처형되자 아기(阿其)는 누차 반기를 들었다. [만력] 14년(1586)에 토사(土叞) 오남(吳楠)·왕국빙(王國聘)은 아기의 예측할 수 없는 화근이 자신들에게 미칠까 걱정되어 담간(答干)·계가(鷄賈)·갑다(甲多) 등 여러寨(寨)를 몽조(蒙詔)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며, 선위영(宣威營)을 세우고 해마다 조세를 바쳤다. 홀로 아기만이 순종하지 않고 자아의 남은 묘족을 이끌고서 선위영을 포위하고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여기는 나의 땅인데 누가 너희들에게 이곳에 군영을 설치하게 했는가?”라고 하였다. 몽조는 늘 추세(秋稅)를 징수했는데, 아기는 사자가 이를 때를 헤아려 피를 문에 바르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기의] 거처에는 늘 산(傘)을 펴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불었으며 그곳에 용과 봉황을 그렸고, 마침내는 계가(鷄賈)·갑다(甲多)·앙고(仰枯)의 여러 묘족과 소를 잡아 슬자리를 마련하여 맹세를 하고 귀화(歸化)를 겁박하니, 관군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독산(獨山)의 토리(土夷) 몽천권(蒙天眷)은 군사를 이끌고 진군하여 공격하기를 청하고서, 이에 사람을 보내 거짓으로 말하기를, 한(漢)이 이미 몽조(蒙詔)를 내쫓고 선위영 지역을 아기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니, 곧 군사를 철수하여 떠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기는 이에 친히 낭방우장(樂邦牛場)³⁴⁸에 달려와 살펴보았는데, 사람들마다 모두 똑같이 말하니 마침내 방비를 느슨하게 하였다. 몽천권이 갑자기 들어다쳐 아기를 참살하자, 계가·갑다가 모두 항복하였다.

其屬蒙詔者，自答干·鷄賈·甲多外，有塘蛙·當井·斗坡等十七寨，小橋熟苗龍木恰視寨事，年老，子休農，額強者遂不及恰，恰輒奪休之有以爲養，休訴於官，官遣問恰，非罪之也，恰輒饋漢使，已而遂之曰：「速去，此我家事，再來我當以烏鴉諸寨踐漢邊矣。」官以計擒之，死獄中，無何，龍化龍羊山苗引川苗作亂，曰：「漢無故殺苗，苗請報之。」官軍戰不利，旣而都司蔡兆吉招諭命降，待以不死，於是諸苗皆散，休視事如故。

본문에서 나온 두 개의 寨, 즉 天漂·者亞와 함께 삼각형을 이루어서 위 본문의 그 다음 부분에서 棚尼居라고 하였다. 이 세 개의 寨는 명의 萬曆 이전에 모두 生苗 지역에 속했는데 명군의 침공을 거치면서 차례로 개척되어 군사를 주둔시켜 방어하고 토사를 설치하였다.

348) 樂邦牛場: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의 都勻市 東北쪽에 위치한 牛場鄉을 가리킨다.

몽조에 소속된 것은 담간·계가·갑다 이외에도 당와(塘蛙)·당정(當井)·두과(斗坡) 등 17개의 寨(寨)가 있었다. 소교(小橋)³⁴⁹의 숙묘(熟苗) 용목흡(龍木恰)이 寨의 일을 보다가 나이가 들자 아들 용봉(龍俸)이 직을 이었다. [이에 봉급으로 주는] 양식이 마침내 용목흡에게 주어지지 않자 용목흡은 곧 용봉의 것을 빼앗아 호구지책으로 삼았다. 용봉이 관부에 호소하자, 관부는 용목흡에게 가서 심문했으나 그에게 죄를 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용목흡은 번번이 한족 사자를 구류하였다가 조금 지나 그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어서 가라. 이는 우리 집안 일이다, 다시 오면 나는 오계(烏鷄)의 여러 寨 사람들로 한족의 변경을 밟아줄 것이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계략으로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는] 감옥에서 죽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용화(龍化)의 용양산(龍羊山)³⁵⁰ 묘족이 사천(四川)의 묘(苗)족을 이끌고 난을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한족은 이유 없이 묘족을 살해하였다. 묘족은 청천대 원수를 갚으라”고 하니, 관군은 싸움에 불리하였다. 얼마 안가서 도사(都司) 채조길(蔡兆吉)이 [그들을] 초무하여 효유에서 항복하도록 해 죽음을 면하도록 했는데, 이에 여러 묘족이 모두 흩어져 용봉은 천저협[寨의] 사무를 보았다.

四十三年，平州長官楊進雄兇惡，土人苦之，雄無子，以兄繼祿子珂爲後，旣生子治安，而疏珂，珂怨雄，雄乃奪珂財產，并其父逐之，珂頗得民心，遂爲亂，據唐宿地，攻雄，雄敗走，虜其家，各上疏計奏，詔推問，都御史趙欽以雄不法，逮之獄，撤獨山土酋蒙繼武諭珂歸命，許改土爲流以安之，治安計不便，乃陰許以六洞路繼武借兵，繼武乃發兵攻珂，復平州，珂走廣西之泗城，繼武遂屯耕六洞地，六洞民不服，復助珂，與繼武相攻，珂復據平州，巡撫吳岳招降其父繼祿，六洞乃安。

만력 43년(1615)에 평주(平州)³⁵¹의 장관 양진웅(楊進雄)이 흉악하여 토착민들이 고통을

349) 小橋: 지금의 貴州省 黔南苗族苗族自治州 麻江縣 동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명대에 四川과 貴州의 경계에 인접해 있었다.

350) 龍化 龍羊山: 龍化와 龍羊 모두 苗語의 지역 이름을 음역한 것이며, 위치는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의 福泉市와 黔南苗族苗族自治州 麻江縣 일대이다.

351) 平州: 平州 六洞 長官司를 말한다. 그 관할 영역은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平塘縣의 平州·牙州 일대이며, 현재 주민들은 주로 布依族과 毛南族이다.

당하였다. 양진웅은 아들이 없어 형 양계록(楊繼祿)의 아들 양가(楊珩)를 후사로 하였다가 아들 양치안(楊治安)을 낳자 양가(珩)를 멀리 하였다. 양가가 양진웅을 원망하자, 양진웅은 양가의 재산을 빼앗고 그의 아버지도 같이 내쫓았다. 양가는 자못 민심을 얻고 있어서 마침내 난을 일으켜 당숙둔(唐宿屯)³⁵²을 점거하고서 양진웅을 공격하였다. 양진웅이 패주하자 그 집안을 도둑내었다. [그들이] 각각 사료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니, 조서를 내려 심리하도록 했다. 도어사(都御史) 조익(趙欽)³⁵³은 양진웅이 불법적이라 하여 그를 옥에 가두고, 격문을 써서 독산(獨山)의 토추(土酋) 몽계무(蒙繼武)에게 양가(楊珩)를 효유하여 귀순토록 하고, 토관을 유관으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여 이곳을 안정시키도록 하였다. 양치안(楊治安)은 불편하다고 여기고, 이에 몰래 여섯 동(洞)으로써 몽계무에게 뇌물을 바치고 군사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몽계무가 출병하여 양가를 공격해서 평주(平州)를 회복하자, 양가는 광서(廣西)의 사성(泗城)으로 달아났다. 몽계무는 마침내 여섯 동(洞)에 주둔하여 경작을 시켰으나, 동(洞)의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고 다시 양가를 도와 몽계무와 서로 공격하였다. [이에] 양가가 다시 평주(平州)를 차지하였다. 순무(巡撫) 오악(吳岳)³⁵⁴이 양가의 아버지 양계록을 불러 향복시키니, 여섯 동이 비로소 안정되었다.

平越
평월

平越，古黎峴里。元爲平月長官司，洪武十四年置衛，十七年改爲軍民指揮使司，屬四川。萬曆中，始置府，屬貴州。傾州一，曰黃平，即黃平安撫司地。傾縣四：曰平

352) 唐宿屯: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平塘縣에 위치한다.
 353) 趙欽(1512~1569): 字는 子學 또는 龍卿이고, 號는 柱野이며, 安徽省 桐城縣 사람이다. 嘉靖 23년(1544)의 進士로 刑部主事에 제수되었다. 이후 禮科給事中이 되었다가 南京太僕寺少卿을 거쳐 관직이 右僉都御史에 이르렀고, 貴州 巡撫가 되었다. 저술로는 『古今原始』와 『無聞堂稿』가 있다.
 354) 吳岳(1501~1568): 字는 汝喬이며, 山東省 汶上縣 출신이다. 嘉靖 11년(1532) 進士에 올라 戶部主事を 제수받았다. 保定知府, 湖廣按察使, 山西布政使, 貴州巡撫 등을 지냈으며, 南京戶部尙書로 있다가 75세에 병사했다. 사망 당시 전 재산이 100萬 정도인 토지가 유산했음 정도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明史』 卷201, 『列傳』 89 참조.

越，曰涇潭，曰豐安，即豐水·草塘二長官司地；曰餘慶，即白泥·餘慶二長官司地。傾長官司一，曰揚義。

평월(平越)은 옛 여아리(黎峴里)³⁵⁵이다. 원(元)나라 시기에는 평월(平月) 장관사(長官司)였다.³⁵⁶ 홍무(洪武) 14년(1381)에 위(衛)를 설치하였다. [홍무] 17년(1384)에 군민지휘사사(軍民指揮使司)로 바꾸고 사천(四川)에 소속시켰다. 만력(萬曆) 연간(1573~1619)에 처음으로 부(府)를 설치하여 귀주(貴州)에 소속시켰다. 관할한 주(州)는 하나로 황평(黃平)이라 하였으니 곧 황평안무사(黃平安撫司)³⁵⁷ 지역이었다. 관할한 현(縣)은 넷이니 평월(平越)³⁵⁸·미담(湄潭)³⁵⁹·옹안(甕安)³⁶⁰, 즉 응수(甕水)·초당(草塘)³⁶¹ 두 장관사의 지역과 여경(餘慶)³⁶²이니 곧 백니(白泥)³⁶³와 여경(餘慶)³⁶⁴ 두 장관사의 지역이었다. 관할한 장관사는 하나였고 양의(揚義)³⁶⁵라 하였다.

初，洪武八年，貴州江力·江松，剽四四十餘寨苗把具，搃共桶等連結苗·僚二千作亂，平越安撫司乞兵援，命指揮同知胡汝討之。九年，黃平蠻僚都麻廛亂，宣撫司捕之，不克，千戶所以兵討之，亦敗。乃命重慶諸衛合擊，大破之，平其地。十九年，平

355) 黎峴里: 土家語로 추정되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는 아직 알리지 있지 않다.
 356) 원대에 平越等處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해 管番軍民總管府에 예속시켰다.
 357) 黃平安撫司: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黃平縣의 舊州에 있었다.
 358) 平越縣: 명대 平越府의 府廳 소재지로 府廳·縣廳·衛廳이 모두 이 성안에 있었다. 지금의 福泉市이다.
 359) 湄潭縣: 관할 지역이 지금의 貴州省 遵義市 예하의 湄潭縣과 거의 같다.
 360) 甕安縣: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의 甕安縣과 관할 지역이 거의 같다.
 361) 草塘長官司: 지금의 甕安縣 동쪽 지역을 관할하였다.
 362) 餘慶縣: 지금의 貴州省 遵義市 동남의 끝자락에 있는 縣으로, 遵義市·銅仁地區·黔東南布依族苗族自治州·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363) 白泥長官司: 지금의 餘慶縣 남쪽 지역을 관할하였다.
 364) 餘慶長官司: 황평주 서쪽 16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元末에는 餘慶州였다. 洪武 15년(1382)에 長官司로 바뀌어 播州宣慰司에 예속시켰다. 萬曆 27년(1599) 縣으로 되었다.
 365) 揚義長官司: 治所가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福泉市の 서쪽 揚義鄉이었다.

越嶲麻哈苗楊孟等作亂，命傅友德平之。時麻哈長官宋成陣歿，命其子襲。二十二年，察隆·牛場·乾溪苗亂，傅友德平之。二十三年命延安侯唐勝宗往黃平·平越·鎮遠·貴州諸處訓練軍士，提督屯田，相機剿寇。

이전 홍무(洪武) 8년(1375)에 귀주(貴州)의 강력(江力)·강송(江松)·날회(刺回)의 40여 채(寨)의 묘족 파구(把具)와 파공통(播共桶) 등이 묘족과 요족(僚族)이 친 명과 연결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평월(平越) 안무사(按撫司)가 원병(援兵)을 청하니 황제는 지휘동지(指揮同知) 호여(胡汝)에게 명하여 토벌케 하였다. [홍무] 9년(1376)에 황평(黃平)의 오랑캐 요족(僚族) 도마연(都麻堧)이 반란을 일으켜 선무사(宣撫司)가 그를 잡으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천호소(千戶所)가 군사로 쳤으나 역시 패하였다. 이에 중경(重慶)³⁶⁶의 여러 위(衛)에 명하여 군사를 합쳐 치도록 해서 크게 격파하여 그곳을 평정하였다. [홍무] 19년(1386)에 평월위(平越衛) 마합(麻哈)의 묘족 양맹(楊孟) 등이 난을 일으키자 부우덕(傅友德)에게 명하여 평정토록 하였다. 그때 마합(麻哈) 장관사(長官司) 송성(宋成)이 전사하니 그의 아들이 세습토록 명하였다. [홍무] 22년(1389)에 찰릉(察隆)·우장(牛場)·건계(乾溪)³⁶⁷의 묘족이 난을 일으켰는데 부우덕(傅友德)이 평정하였다. [홍무] 23년(1390)에 연안후(延安侯) 당승중(唐勝宗)³⁶⁸에게 명하여 황평(黃平)·평월(平越)·진원(鎮遠)·귀주(貴州)의 여러 곳에 가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둔전(屯田)을 관리 감독하며 기회를 보아 도적을 토벌토록 하였다.

- 366) 重慶: 長江 상류에 위치한 도시로서, 과거 先秦 시기에는 巴國이 존재했으며 진이 천하를 통일한 후 설치한 36郡 중의 하나였던 巴郡이 되었다. 南宋 孝宗 淳熙 16년(1189) 당시 恭州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곳을 重慶府로 승격시켰다. 원 말 농민 전쟁 당시인 至正 10년(1357) 明玉珍이 사천 지역으로 들어가 무라는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한 곳이 重慶이었다. 내내 四川省 관할로 있었지만, 1929년 巴縣에서 重慶을 분리해 市로 승격시켰으며, 1997년에 직할시가 되었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서부 개발의 중심지로서, 중국 도시 가운데 7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 367) 察隆·牛場·乾溪: 이 세 곳은 모두 지금의 貴州省 黔东南苗族侗族自治州 黃平縣 남쪽에 있으며, 거주하는 사람들은 묘족의 중부 계통에 속하여 明代 中後期 典籍에 일컫던 이른바 黑苗이다.
- 368) 唐勝宗(1335~1390): 安徽省 涇州 출신으로, 그의 나이 18세에 洪武帝 휘하로 들어갔다. 徐達이 常州를 공격할 때와 陳友諒을 공격할 당시 많은 전공을 세워, 龍驤衛 指揮僉事に 올랐다. 이후 浙東 지역의 반란 토벌, 陝西 지역의 지방 행정 등에서 탁월한 공적을 쌓아, 名臣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洪武 23년(1390) 胡惟庸의 죄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

正統末，鎮遠蠻苗金臺僞稱順天王，與播州苗相煽亂，遂圍平越·新添等衛，半年城中糧盡，官兵逃者九千餘人，貴州東路閉。時王驥在麓川，班師過其地，不之顧。景泰元年命保定伯梁瑄佩平蠻將軍印督師進剿，大破之，平八十餘寨，擒賊首王阿同等，平越諸衛圍乃解。二年，都御史王來奏，貴州苗韋同烈聚眾於興隆之澗河，復攻平越·清平等衛，梁瑄自沅州發兵由東路，都督方瑛由西路，合兵興隆，擊破之，同烈退保香爐山，瑛由龍場，都督陳友由萬湖山，都督毛福壽由重安江，攻破黎樹·翁滿等三百餘寨，斬三千餘級，招撫哀水等二百餘寨，合兵香爐山下，衆縛同烈降，械至京。

정통(正統) 말년에 진원(鎮遠)의 오랑캐 묘족 김태(金臺)가 순천왕(順天王)이라 멋대로 칭하고 파주(播州)의 묘족들과 서로 선동하여 난을 일으켜 마침내 평월(平越)과 신첨(新添) 등의 위(衛)를 포위하였다. 반년이 지나자 성안에 양식이 떨어져 관병도 도망친 자가 9,000여 명이었고 귀주(貴州)의 동쪽 길도 폐쇄되었다. 당시 왕기(王驥)³⁶⁹는 녹천(麓川)³⁷⁰을 토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을 통과했으나 돌아보지 않았다. 경태(景泰) 원년(1450)에 보정백(保定伯) 양보(梁瑄)³⁷¹에게 명하여 평만장군(平蠻將軍)의 인수를 차고 군사를 통솔하여

- 369) 王驥(1378~1460): 字는 尚德이며, 北直隸 保定府 東龐縣 사람이다. 永樂 4년(1406)의 進士로 兵科給事中에 제수되어 山西에 巡按했다. 곧 山西按察使司의 副使로 승임하였으며, 洪熙 원년(1425)에 順天府尹을 거쳐 宣德 초에 兵部右侍郎에 발탁되었다. 이후 오래지 않아 兵部尙書 서리가 되고, 宣德 9년(1434)에 兵部尙書에 올랐다. 正統 元年(1436)에 몽골의 침입이 격화되면서 북면 방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樞兵部尙書로서 직임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일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몽골이 甘州, 涼州 일대를 침범하고 명의 장수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자 正統 2년(1437)에 王驥는 便宜行事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甘州, 涼州 일대의 북면 방어를 지휘하였는데,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아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다. 이 공로로 병부상서에 임명되었으나 연로하여 곧 사직하였고, 이로부터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忠毅이다.
- 370) 麓川: 지금의 雲南 瑞麗縣 및 畹町鎮 등의 지역으로 緬甸에 접해 있다. 원나라 때 이 지역에 宣慰使司를 설치했는데, 명 太祖가 雲南을 평정한 후 洪武 17년(1384)에 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하고 이 지역 수령을 宣慰使로 삼았다. 正統 2년(1437) 10월에 麓川宣慰使 思任發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듬해에 孟養, 騰衝을 공략하고 潞江을 점령하여 스스로 滇王이라 칭하였다. 이에 明綱은 수년에 걸쳐 이를 진압했는데, 이를 麓川의 役이라 한다. 이후 正統 9년(1444)에 麓川軍民宣慰使司를 宣撫司로 바꾸고 治所를 隴把에 두었는데, 이 때문에 麓川宣撫司라고도 일컫는다.

나아가 토벌토록 하여 그들을 대파(大破)하고, 80여 채(寨)를 평정하고 반적 우두머리 왕아동(王阿同) 등을 사로잡으니, 평월(平越)의 여러 위(衛)의 포위가 비로소 풀렸다. [경태] 2년(1451)에 도어사(都御史) 왕래(王來)가 상주하여, 귀주(貴州)의 묘족 위동렬(韋同烈)이 흥룡(興隆)의 절동(截洞)에서 무리를 모아 평월(平越)과 청평(淸平) 등의 위(衛)를 다시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양보(梁瑄)는 원주(沅州)로부터 군사를 출발시켜 동쪽 길로 오고, 도독(都督) 방영(方瑒)은 서쪽 길로 와 흥룡(興隆)에서 군사를 합쳐 적을 격파하니, 위동렬(韋同烈)은 물러나 향로산(香爐山)³⁷²⁾을 지켰다. 방영(方瑒)은 용장(龍場)으로부터, 도독 진우(陳友)는 만조산(萬潮山)³⁷³⁾으로부터, 도독 모복수(毛福壽)는 중안강(重安江)³⁷⁴⁾으로부터 와서 여수(黎澍)와 용만(翁滿) 등 300여 채(寨)를 공파(攻破)하고 향로산 아래에 군사를 집결시켰다. [이에 반적]무리들은 위동렬을 포박하여 항복하니, [위동렬을] 형구를 채워 수도로 압송하였다.

五年，副總兵李貴奏，黎從等寨賊首阿峯·王阿傍·苗金虎等偽號苗王，與銅鼓諸賊相應，乞加兵。七年，巡撫蔣琳奏，剿苗賊於平越，斬四百餘級，其阿傍等據車碗寨，

仍爲亂於清平·平越地方，殺指揮王杞，據香爐山，掠偏橋。

[경태] 5년(1454)에 부총병(副總兵) 이귀(李貴)가 상주하여, 여종(黎從) 등 채(寨)의 반적 우두머리 아나(阿拏)·왕아방(王阿傍)·묘금호(苗金虎) 등이 제멋대로 묘왕(苗王)이라 칭하고, 동고(銅鼓)의 여러 반적들과 서로 호응하고 있으니 군사를 더해 달라고 청하였다. [경태] 7년(1456)에 순무(巡撫) 장림(蔣琳)³⁷⁵⁾이 상주하여, 평월(平越)에서 묘족 반적을 토벌하여 400여 급(級)을 참수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왕아방 등은 차완채(車碗寨)를 점거하고 여전히 청평(淸平)과 평월(平越) 지방에서 난을 일으켜, 지휘(指揮) 왕기(王杞)를 죽이고 향로산(香爐山)을 점거하여 편교(偏橋)³⁷⁶⁾를 약탈하였다.

正德十一年命巡撫秦金剿之。初，黔·楚之交，群苗嘯聚，連寨相望。而香爐山周四四十里，高數百尋，四面陡絕，其上平衍，向爲叛苗巢穴。阿傍等據之，糾諸寨苗作亂。巡撫鄧文盛·總兵官李昂等分派·上兵爲五，克其前柵。密遣人援崖先登，殺賊守路者，衆蟻附而上，焚賊巢，擒阿傍，餘賊猶堅守不下。參將洛忠等謔言招撫，自山後擊之，殲焉。遂移師龍頭·黎·蘭等寨，悉破之，賊遂平。

정덕(正德) 11년(1516)에 순무(巡撫) 진금(秦金)³⁷⁷⁾에게 명하여 반적을 토벌하였다. 이보

371) 梁瑄: 生卒年 未詳. 河南 汝寧府 汝陽縣(지금의 河南省 汝南縣) 사람이다. 梁銘의 아들로서 保定伯이었다. 正統 말년에 副總兵이 되어 福建 邵茂七의 반란을 토벌하고 餘賊을 추격하여 九龍山에서 斬殺하였으나, 回軍 후에 반란이 다시 일어나 事官으로 강등되었다가 京師 保衛戰 과정에서 공을 세워 爵位를 회복하였다. 景泰 원년(1450)에 平蠻將軍으로拜受되어 王驥를 대신하여 貴州의 苗族반란을 진압하였으며, 그 공으로 侯爵과 500석의 祿을 받았다. 天順 원년(1457)에 陝西를 鎮守하면서 涼州에서 침입한 몽골군을 격퇴하였고, 돌아와서 左軍都督府事務를 관장하였으나 成化 초에 타계하였다. 墓國公으로 追贈되고 襄靖이란 諡號를 받았다.

372) 香爐山: 貴州省 黔南苗族自治州 凱里市 서쪽으로 15km에 있는 산이다. 사면이 절벽으로 되어있고 모습이 향로와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단지 하나의 작은 길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데, 해발 1,233.8m이고 사방 15km에 여러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김이나 창칼이 하늘을 찌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 明清時代에 苗族이 이곳을 근거지로 여러 차례 무력투쟁을 전개하였다. 民國시기 香爐縣을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1957년에 凱里市에 병합시켰다.

373) 萬潮山: 지금의 貴州省 黔南苗族自治州 凱里市의 萬潮鄉에 위치한다. 香爐山의 동남쪽이다.

374) 重安江: 淸水江 上流 左岸으로 흐르는 청수강 지류이다. 麻江縣에서 出源해서 福泉, 麻江, 黃平 등을 경유해 凱里縣 桐木寨에서 청수강으로 들어간다. 猪梁河와 麻哈河 등의 支流를 가지고 있으며, 총 길이는 약 144km이다.

375) 蔣琳: 生卒年 未詳. 浙江省 杭州府 錢塘縣 사람이다. 고관을 자낸 아버지 蔣綱의 庇蔭으로 관리가 되어 누차 승진하여 左副都御史가 되었는데, 사납됨이 강직하고 戰場에서 용감하였다. 貴州 巡撫가 되어 군사를 지휘하는데, 일 처리가 엄정하였다. 革塘의 苗族이 반란을 일으켜 關屯이 여러 차례 패하였는데 蔣琳이 이르러 계책을 세웠다. 이에 장수들이 모두 어렵다고 반대하였지만 그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직접 적의 근거지로 쳐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여러 묘족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후에 于謙의 黨人이라고 하여 사형으로 論罪되었다.

376) 偏橋: 偏橋衛를 가리킨다.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黔南苗族自治州 施秉縣이며, 당시 湖廣都司에 소속되어 있었다. 주 70 참초.

377) 秦金(1467~1544): 字는 國聲이고, 號는 鳳山이며, 江蘇省 無錫 사람이다. 弘治 6년(1493)의 進士로 右副都御史를 지내면서 湖廣巡撫가 되어 桂陽의 苗族을 토벌하였다. 嘉靖 연간(1522~1566)에 호부상서로 발탁되었는데 嘉靖帝가 興獻帝를 추종하려고 하자 대궐에 앞드려 諫爭하였고, 또 張璠이 건의한 것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성품이 낙천적이었고 관부에 있을 때는 한결같이 청렴하고

다 앞서 귀주(貴州)와 호광(湖廣)의 경계 지역에서 여러 묘족들이 서로 불러 무리를 지어 산체들이 이웃하여 서로 바라보게 되었다. 향로산(香爐山)은 주위가 40리에 달하고 높이가 수백 리(畝)³⁷⁸⁾인데 사면이 가파르게 끊어져 있고 그 위는 평탄하여 예전부터 반란을 일으킨 묘족들의 소굴이었다. 왕야방(王阿傍) 등이 그 곳을 점거하고 여러 채(寨)의 묘족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순무 추문성(鄒文盛)³⁷⁹⁾과 총병관(總兵官) 이양(李昂) 등은 한족 병사와 토병(土兵)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그 앞쪽의 목책(木柵)을 격파하였다. [그리고는] 물레 사람을 파견하여 절벽을 타고 먼저 올라가 길을 지키던 반적(叛賊)을 죽이자 무리들이 개미떼 같이 붙어 올라가 반적의 소굴을 불사르고 왕야방을 사로잡았는데 나머지 적들은 여전히 굳게 지키고 있어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참장(參將) 낙충(洛忠) 등이 거짓으로 초무(招撫)한다고 말하고는 산 뒤로부터 공격하여 섬멸하였다. 드디어 군사를 용두(龍頭)·여(黎)·난(蘭) 등의 채로 이등시켜 다 격파하니 반적이 마침내 평정되었다.

天啓四年，凱里土司楊世慰叛，合安邦彥兵與平茶群苗來修怨，復窺香爐山，搖動四衛，梗塞糧運。總督楊廷中檄總兵魯欽馳至清平，相機進剿，調副使顏欲章等爲後援。欽督將傾攻破巖頭，分遣朗溪司田景祥截平茶賊援。用藥弩及砲殺傷賊衆，賊乘夜遠遁。自是不敢再窺爐山，四衛得安。

천계(天啓) 4년(1624)에 개리(凱里) 토사(土司) 양세위(楊世慰)가 반란을 일으켜, 안방언(安邦彥) 군사들과 평차(平茶)의 여러 묘족과 회합하여 옛 원한을 갚으러 와서 다시 향로산(香爐山)을 엿보아 4개 위(衛)를 동요시키고 식량 운반을 막았다. 총독 양승중(楊廷中)은

정적함을 유지하였다. 벼슬은 南京兵部尙書로 마감하였다. 諡號는 端敏이고 저술로는 「安楚錄」과 「鳳山詩集」이 있다.

378) 1畝은 8尺이다.

379) 鄒文盛(1458~1536): 字는 時鳴, 號는 黃山으로 公安 사람이다. 弘治 6년(1493)에 進士가 되었다. 吏科 給事中으로 除投되어 兩廣의 兵儲를 조사하고 奸人과 각종 弊害를 제거하였다. 「顯進六策」을 지어 올렸는데, 이에 대하여 尙書 劉大夏가 크게 칭찬하여 결국 進東로 임명되었으나, 당시 전황을 일삼던 환관 劉瑾의 미움을 받고 保定知府로 임명되었다. 劉瑾이 誅殺된 이후 山東布政使司左參政, 福建右布政使 등을 역임하였다. 任職 기간 내에 節儉을 숭상수범했고, 權貴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총병 노흠(魯欽)에게 격문을 보내어, 청평(淸平)으로 달려가 상황을 보아 나아가 반적을 토벌케 하고 부사(副使) 안욕장(顔欲章) 등을 보내어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노흠은 장수들을 독려하여 압두(巖頭)를 격파하고, [군사를] 나누어 낭계사(朗溪司)³⁸⁰⁾ 전경상(田景祥)을 파견하여 평차(平茶) 반적의 지원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독화살과 대포로 적의 무리를 살상하니 반적들은 밤을 타서 멀리 달아났다. 이로부터 감히 다시는 향로산(香爐山)을 엿보지 못하여 4개 위(衛)가 안정을 얻었다.

石阡

석천

石阡，本思州地，永樂十一年置府，隸貴州，領長官司四：曰石阡，曰苗民，曰葛彰葛高，曰龍泉坪。宣德六年，葛彰葛高長官安民奏：「前以官鈔權糧儲備，令蠻民守視，溪洞險僻，無所支用，恐歲久腐爛，賠納實難，請以充有司祭祀遇使饋給之用。」從之。萬曆中，改龍泉坪爲縣。

석천(石阡)³⁸¹⁾은 본래 사주(思州) 땅이었다. 영락(永樂) 11년(1413)에 부(府)를 설치하여 귀주(貴州)에 소속시키고 장관사(長官司) 넷을 관할케 하였으니 곧 석천(石阡), 묘민(苗民)³⁸²⁾ 갈장갈상(葛彰葛高)³⁸³⁾ 용천평(龍泉坪)³⁸⁴⁾이었다. 선덕(宣德) 6년(1431)에 갈장갈상 장관(長官) 안민(安民)이 상주하여 "이전에 관아의 돈으로 식량을 사서 비축하고 만민(蠻民)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습니니다. 계동(溪洞)³⁸⁵⁾은 험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지출하여 쓸

380) 朗溪司: 朗溪 長官司를 말한다.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銅仁地區 印江縣 동쪽의 朗溪이며, 당시 思州府가 관할하였다.

381) 石阡: 명나라 때의 石阡府를 가리킨다.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銅仁地區 石阡縣이다.

382) 苗民長官司: 石阡府 남쪽 8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壁林으로도 불렸다. 建文帝 初年에 土酋 汪得英을 장관으로 임명했으며, 당시에는 思南宣慰司에 속했다.

383) 葛彰葛商: 石阡府 남쪽 100리에 위치했으며, 원래 葛彰葛商等處長官司를 설치해 思州安撫司에 예속시켰다. 洪武 5년(1372) 元代의 예를 따라 그대로 장관사를 설치했으며, 土酋 安永이 다스렸다.

384) 龍泉坪: 石阡府 서쪽 120리에 위치해 있으며, 元나라 初年에 大保龍泉長官司를 설치했다가 곧 龍泉坪長官司로 바꾸었다. 思州安撫司의 治所가 있었던 곳이다.

곳이 없어서 아마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 [곡식이] 부패되어 배상하기가 실로 어려운 것이니 담당 관직의 제사와 지나가는 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쓰기를 청합니다”고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³⁸⁶⁾ 만력(萬曆) 연간(1573~1619)에 용천평(龍泉坪)을 현(縣)으로 바꾸었다.³⁸⁷⁾

新添衛 신첨위

新添衛，故麥新地也。宋時克麥新地，乃改爲新添。元置新添葛蠻安撫司。洪武四年置長官司。二十三年改爲衛。二十九年置新添衛軍民指揮使司，領長官司五：曰新添，曰小平伐，曰把平寨，曰丹平，曰丹行。

신첨위(新添衛)³⁸⁸⁾는 이전 맥신(麥新)의 땅이었다. 송(宋)나라 때 맥신(麥新) 지역을 공격해 빼앗아 신첨(新添)으로 바꾸었다.³⁸⁹⁾ 원(元)나라 때는 신첨갈만(新添葛蠻) 안무사(安撫司)를 설치하였다.³⁹⁰⁾ 홍무(洪武) 4년(1371)에 장관사(長官司)를 설치하고, [홍무] 23년(1390)에는 위(衛)로 바꾸었다.³⁹¹⁾ [홍무] 29년(1396)에 신첨위(新添衛) 군민지휘사사(軍民指揮使司)를 설치하고 장관사(長官司) 다섯을 관할케 하였으니 신첨(新添), 소평벌(小平伐)³⁹²⁾, 파평채(把平寨)³⁹³⁾, 단평(丹平)³⁹⁴⁾, 단행(丹行)³⁹⁵⁾이었다.³⁹⁶⁾

385) 溪洞: 貴州 동부 소수민족 지역의 발달 행정 기구를 당시에 溪洞이라고 불렀다.

386) 『宣宗實錄』卷75 宣德 6年 正月 辛巳條 참조.

387) 龍泉坪은 元代 思州按撫司의 治所가 있던 지역이었다. 明 洪武 初년에 다시 思南宣慰司 관할로 두었다가, 永樂 11년(1413) 龍泉坪長官司를 石阡府에 移속시켰다. 本문의 龍泉縣을 설치했다는 언급은 萬曆 32년(1604) 용천장관사를 용천현으로 개편해 석천부에 移속시켰다는 내용이다. 乾隆 『貴州府志』卷3 『地理』(建置) 참조.

388) 新添衛: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貴定縣이다.

389) 宋 寧宗 嘉泰 연간(1201~1204) 초 土官 宋永高가 麥新 지역을 정복했다.

390) 설치 初期에는 湖廣行省에 移속시켰다가 이후 雲南行省으로 바꾸었다.

391) 명 洪武 4년(1371)에 新添長官司를 설치한 데 이어, 洪武 22년(1389) 新添千戶所를 설치했으며, 洪武 23년(1390) 千戶所를 衛로 바꾸었다가 洪武 29년(1396) 軍民指揮使司로 승격시켜 貴州都司에 移속시켰다.

392) 小平伐: 지금은 小平伐村이 되었다. 貴定縣 서남쪽에 위치한다.

洪武五年春，新添安撫宋亦憐眞子仁來朝。其秋，平伐·蘆山·山木等峇長來降。七年，平伐·谷實·谷浪等苗攻劫的教諸寨，指揮僉事張岱討之。岱攻谷峽·刺向關破之，追至的教，大破之，擒的令·的若而還，蠻大驚。

홍무(洪武) 5년(1372) 봄에 신첨(新添) 안무(安撫) 송역런진(宋亦憐眞)의 아들 송인(宋仁)이 조정에 왔다. 그해 가을에 평벌(平伐)·노산(蘆山)·산목(山木)³⁹⁷⁾ 등 채(峽)의 우두머리들이 와서 항복하였다. [홍무] 7년(1374) 평벌(平伐)·곡하(谷霞)·곡랑(谷浪)³⁹⁸⁾ 등의 묘족이 적오(的放)의 여러 채(寨)를 공격하고 약탈하여 지휘첨사(指揮僉事) 장대(張岱)가 그들을 쳤다. 장대는 곡협(谷峽)·날향관(刺向關)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추격하여 적오(的放)에 이르러 크게 깨트리고 적령(的令)과 적약(的若)을 사로잡아 돌아오니 만족(蠻族)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永樂二年置丹行·丹平二長官。宣德元年，新添土舍宋志道糾洞蠻肆掠，蓋授討擒之。九年，丹行土舍羅朝煽誘寨長卜長·逃民羅阿記等侵占臥龍番長官龍保地，又攻狻平寨焚劫。時苗民素樞指揮李政，尚書王驥因奏遣政往擒諭。景泰二年，苗賊有在新添行劫，聚於西廬者，官軍破之以聞。成化九年，以早災免新添衛糧。

영락(永樂) 2년(1404)에 단행(丹行)과 단평(丹平)의 두 장관(長官)을 설치하였다. 선덕(宣德) 원년(1426)에 신첨(新添) 토사(土舍)인 송지도(宋志道)가 동만(洞蠻)을 규합하여 제멋대

393) 把平寨: 지금은 把平村이 되었다. 역시 貴定縣 서남쪽에 위치한다.

394) 丹平: 丹平長官司의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平塘縣 서남쪽에 丹平에 있었다.

395) 丹行: 丹行長官司의 治所는 平塘縣 서남쪽의 黨振에 있었다.

396) 洪武 연간(1368~1398) 당시 이 다섯 장관사 외에도 龍里衛 관할 平伐와 大平伐 두 長官司도 新添衛에 移속시켰으며, 萬曆 33년(1605)에 평벌 지역에 縣을 설치해 平越府 관할로 두었다. 乾隆 『貴州府志』卷3 『地理』(建置) 참조.

397) 平伐·蘆山·山木: 宋亦憐眞이 관할하던 苗族 촌락들이다. 이 지역의 묘족은 天順 연간(1457~1464) 이후에 부르던 東苗이며,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惠水縣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묘족이다.

398) 穀霞·穀浪: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貴定縣 서남쪽의 仰望鄉이다.

로 약탈하니 소수(蕭授)가 토벌하여 사로잡았다. [선덕] 9년(1434)에 단행(丹行)의 토사(土舍) 나초(羅朝)가 채장(寨長) 복장(卜長)과 도망친 백성 나아가기(羅阿記) 등을 선동하여 와룡번(臥龍番)의 장관 용보(龍保)의 땅을 쳐들어가 점거하고 또 노평寨(孫平寨)³⁹⁹를 공격하여 불사르고 약탈을 행하였다. 그때 묘족 백성들이 본디 지휘(指揮) 이정(李政)을 두려워하여 [병부(兵部)]상서(尙書) 왕기(王驥)는 이 때문에 이정(李政)을 파견하여 위로하고 타이르게 해줄 것을 상주하였다. 경태(景泰) 2년(1451)에 묘족 반적(叛賊) 중에 신침(新添)에서 약탈하고 서러(西廬)에 모인 자들이 있었는데 관군이 격파하고 조정을 보고하였다. 성화(成化) 9년(1473)에 가름으로 신침위(新添衛)의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⁴⁰⁰

萬曆三十四年，貴州巡撫郭子章討平貴州苗，斬獲苗長吳老喬·阿倫·阿皆等十二人，招降男婦甚衆。先是，東西二路苗名曰仲家者，盤踞貴龍·平新之間，爲諸苗渠帥。其在水硯山介於銅仁·思·石者，曰山苗，紅苗之羽翼也，窺黔自平播後財力殫竭，有輕漢心，經年剽掠無虛日。子章奏討之，命相機進兵。子章乃命總兵陳璘·參政洪澄源率官軍五千，益以土兵五千，攻水硯山，監軍布政趙健率宣慰土兵萬人，使遊擊劉巖等督之。及兩路會師，皆九十餘日而克。二寇既平，專命總兵陳璘率漢·土兵五千移營新添，進攻東路苗，不一月復克其六等，諸苗盡平。

만력(萬曆) 34년(1606)에 귀주(貴州) 순무 좌자장(郭子章)은 귀주(貴州)의 묘족을 토벌하여 평정하고, 묘족 우두머리 오로고(吳老喬)·아륜(阿倫)·아개(阿皆) 등 열두 명을 참수하거나 사로잡으니, 초무(招撫)하여 항복한 남녀가 매우 많았다. 이보다 앞서 증가(仲家)⁴⁰¹라고

399) 孫平寨: 지금의 貴州省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平塘縣의 북쪽에 위치한다.

400) 당시 新添衛長官司 뿐 아니라 貴州宣慰司, 金筑按撫司, 普安州 등에 가름이 들어 모두 12,060여 석의 稅糧을 면제해주었다. 『憲宗實錄』 卷116 成化 9年 5월 己酉條 참조.

401) 仲家: 논란이 있지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仲家族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시기를 대체로 明代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구 학자들이 증가족을 포의족과 동류로 보는 견해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Claudine Lombard-Salmon, 1972, 2장 참조). 묘족이 후대 한족들에 의해서 단순히 그들의 옷 색깔에 따라, 혹은 거주 지역에 따라 白苗, 黑苗, 靑苗 등의 명칭이나 山苗와 洞苗처럼 불리듯이, 증가족도 그 부류가 매우 다양하다. 古州, 清江, 丹江 등에 주로 살며 푸른 옷을 입고 입었다는 靑仲家, 荔波縣 동지에서 흰옷을 착용하며 살았던 白仲家, 그리고 湄江縣 일대에 산 黑仲家 등이 명칭시대 사료에

불리는 동서(東西) 이로(二路)의 묘족이 귀주·용리(龍里)·청평(淸平)·신침(新添) 사이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묘족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수간산(水硯山)에 있어서 동인(銅仁)·사주(思州)·석천(石阡)에 자리잡고 있는 자들을 산묘(山苗)라 부르는데, 홍묘(紅苗)의 보좌역이 되었다. 귀주 지역이 파주(播州)를 평정한 후로 재력이 고갈된 것을 살피고는 한족(漢族)을 가버려 여기는 마음이 있어 여러 해 동안 약탈을 멈추지 않았다. 좌자장(郭子章)이 그들을 토벌하자고 상주하자, 상황을 보아 군사를 진격시키라고 명하였다. 좌자장은 이에 총병(總兵) 진린(陳璘)과 참정(參政) 홍정원(洪澄源)에게 명하여 관군 5,000명여가 토병(土兵) 오천 명을 더하여 수간산(水硯山)을 공격토록 하였다. 감군포정(監軍布政) 조건(趙健)은 선위(宣慰)의 토병(土兵) 10,000명을 거느렸는데 유격(遊擊) 유악(劉巖) 등으로 하여금 통솔토록 하였다. 양쪽의 군대가 모여 모두 90여 일에 승리를 거두었다. 두 반적이 평정된 후, 특히 총병 진린(陳璘)에게 명하여 한병(漢兵)과 토병(土兵) 5,000명을 거느리고 신침(新添)으로 병영을 이동케 하였고, 동로(東路)의 묘족을 나아가 공격하게 하여 한 달이 되기 전에 육정(六箚)을 다시 쳐서 이기니, 여러 묘족들이 다 평정되었다.

金筑安撫司
금축안무사

金筑安撫司，洪武四年，故元安撫密定來朝貢馬，請賜文綺三匹，置金築長官司，秩正六品，隸四川行省，以密定爲長官，世襲。十四年敕勞密定曰：「西南諸部雖歸附，然暫入貢而已。爾密定首獻馬五百匹，以助征討，其誠可嘉，故遣特使往諭，俟班師之日，重勞爾功。」陞金築長官司爲安撫司，仍以密定爲安撫使，予世襲。十六年，密定遣使貢方物。十八年，密定遣弟保珠來貢。二十九年以金筑安撫司隸貴州軍民指揮使司。

등장하는 仲家族 부류이다(『黔記』 卷3 참조). 한편 乾隆 『貴州通志』 卷7에는 증가족을 補胤, 卞尤, 靑胤의 세 종족이 존재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만큼 묘족 못지않게 다양한 종족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경작을 했으며, 또 산림 재배에 능해 나무를 의지에 팔았던 점에서 다른 소수민족들과는 달리 꽤 理財에 밝았으며, 농업 기술도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금축안무사(金筑安撫司)는 홍무 4년(1371)에 이전 원(元)나라의 안무(安撫) 밀정(密定)이 조정에 와서 말을 공물로 바치니, 조서(詔書)를 내려 무늬 있는 비단 세 필을 하사하며 금축(金筑) 장관사(長官司)를 설치하고 관품은 정6품으로 하여 사천행정(四川行省)에 소속시키고 밀정(密定)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세습토록 하였다.⁴⁰²⁾ [홍무] 14년(1381)에 칙서를 내려 밀정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서남(西南)의 여러 부(部)는 비록 귀순했지만 그러나 잠시 들어와 공물을 바쳤을 뿐이다. 너 밀정은 가장 먼저 말 500필을 바쳐 정벌을 도왔으니 그 성심이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특사를 보내어 선유(宣諭)하노니 군대가 개선하여 돌아오는 날 너의 공로를 크게 포상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금축 장관사를 안무사로 승급시키고 이전과 같이 밀정을 안무사(安撫使)로 임명하고 세습토록 하였다. [홍무] 16년(1383)에 밀정이 사자를 보내어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 [홍무] 18년(1385)에 밀정이 동생 보주(保珠)를 보내어 [조정에] 와서 공물을 바쳤다. [홍무] 29년(1396)에 금축 안무사를 귀주(貴州) 군민지휘사(軍民指揮使司)에 소속시켰다.

동북아역사재단

永樂初年，金筑安撫得琛來朝，賜錦文綺。洪熙·宣德改元，皆貢馬。十年，直隸貴州布政司。正統五年，安撫金鑄貢馬。成化·弘治·隆慶時歷朝貢。

영락(永樂) 초년에 금축(金筑) 안무[사](安撫[使]) 득琛(得琛)가 조정에 오니, 고문 비단과 무늬있는 비단을 하사하였다. 홍희(洪熙)⁴⁰³⁾와 선덕(宣德)으로 연호가 바뀔 때에 모두 말을 공물로 바쳤다. [선덕] 10년(1435)에 귀주(貴州) 포정사(布政司)에 직속시켰다. 정통 5년(1440)에 안무[사](安撫[使]) 김용(金鑄)이 말을 공물로 바쳤다. 성화(成化)·홍치(弘治)·융경(隆慶) 시기에도 역대로 조공(朝貢)을 하였다.

萬曆四十年，吏部覆巡撫胡桂芳奏：「金筑安撫土舍金大章乞改土爲流，設官建治，欽

402) 元 至正 15년(1278) 당시 貴州 지역에 있던 羅氏鬼國王 阿榨과 番主 草昌이 歸附해 오자 元 왕조는 그들을 安撫使로 임명했다. 이어 至元 17년(1280)에 羅氏鬼國을 順元宣撫司로 바꿨으며, 至元 27년(1290)에 金竹府長官司를 설치했다. 金竹이란 명칭이 金筑으로 바뀐 시기는 至元 30년(1293)이다.
403) 洪熙: 명 왕조 4대 황제인 仁宗 朱高熾의 年號이다.

定州名，鑄給印信，改州判爲流官。授大章土知州，予四品服色，不許管事，子孫承襲，隸州於貴陽府。」遂改金筑安撫司爲廣順州。

만력(萬曆) 40년(1612)에 이부(吏部)에서 순무(巡撫) 호계방(胡桂芳)⁴⁰⁴⁾의 상주에 회답하기를, “금축안무사(金筑安撫司)의 토사(土舍) 김대장(金大章)이 개토귀류(改土歸流)⁴⁰⁵⁾를 청하여, 관부를 설치하고 치소(治所)를 건립하며 황제께서 주(州)의 이름을 정해주시고 인장을 주조해서 하사하며 주판(州判)을 유관(流官)으로 바꾸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김대장(金大章)에게 토지주(土知州)를 제수하고 4품의 관복을 주되 정사를 관할할 수 없고 자손은 세습을 허가하며 귀양부(貴陽府)에 소속시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금축 안무사가 광순주(廣順州)로 바뀐 것이었다.

404) 胡桂芳: 生卒年 未詳. 號는 璫之이고, 江西省 金谿縣 사람이다. 嘉靖 38년(1559)의 進士로, 이후 승진하여 湖廣大參이 되었다. 당시 환관이 專賣稅를 거두어 상인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호계방이 엄정하게 일을 처리하므로 환관의 횡포가 조금 줄었다고 한다. 후에 副都御史로서 貴州巡撫가 되었고 이어서 河道總督을 역임했다. 諡號는 忠壘이다.
405) 改土歸流: 土司를 流官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즉, 소수민족의 수령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료로 교체하는 것을 뜻한다.

| 참고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註』, 서울: 신서원, 2004
-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1~1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3
- 박원호 등 역, 『명사식화지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08
- 『明會要』, 北京: 中華書局, 1957
- 『追遂黔豫略』(『黔南叢書』本)
- 『土官底簿』(『四庫全書珍本初集』)
- 嘉慶 『欽定平苗紀略』
- 江之春, 『安龍紀事』(中國歷史研究資料叢書)
- 乾隆 『貴州通志』(四庫全書本)
- 黔霖, 『黔西古蹟考』(『小方壺齋輿地叢鈔』本)
- 高岱, 『鴻猷錄』
- 顧祖禹 撰, 『讀史方輿紀要』, 北京: 中華書局, 2005
-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臺灣: 商務印書館, 1956
- 檀萃, 『說蠻』(『小方壺齋輿地叢鈔』本)
- 唐樹義, 莫友芝, 黎兆勳, 『黔詩紀略』
- 董誥, 乾隆 『皇清職貢圖』
- 羅繞典, 光緒 『黔南職方紀略』
- 毛奇齡, 『蠻司合志』(『西河合集』本)
- 徐家幹, 『苗疆聞見錄』(『黔南叢書』)
- 舒位, 嘉慶 『黔苗竹枝詞』(『香艷叢書』本)
- 徐霞客, 『徐霞客遊記』, 上海大眾書局: 上海(발행 시기 불분명), 4卷
- 徐鼎, 『小腆紀傳』, 北京: 中華書局, 1958
- 善一如純, 『黔南會燈錄』
- 宋應星, 『天工開物』, 上海: 商務印書館, 1954
- 愛必達, 乾隆 『黔南職略』
- 嚴如煜, 嘉慶 『苗防備覽』

- 吳文溥, 『苗疆指掌』(『南野堂全集』과 『南野堂續集』所收)
- 吳省蘭, 『楚詞志略』(『叢書集成』本)
- 吳振械, 咸豐 『黔語』
- 王鳳階, 『改土歸流說』(『小方壺齋輿地叢鈔』)
- 王士性, 『黔志』(叢書集成本)
- 王軾, 『平蠻錄』(『紀錄彙編』)
- 魏源, 道光 『聖武記』
- 猶法賢, 『黔史』(光緒 15년『黔志四種』)
- 陸次雲, 康熙 『北墅緒言』
- 陸次雲, 『剛溪織志』(『小方壺齋輿地叢鈔』本)
-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 李宗昉, 『黔記』(『小方壺齋輿地叢鈔』本)
- 張澍, 『續黔書』(『黔志四種』)
- 張天復, 『皇輿考』(玄覽堂叢書本)
- 田雯, 『黔書』(叢書集成本)
- 田汝成, 『炎徽紀聞』(叢書集成本)
- 中國科學院北京天文臺 主編, 『中國地方志聯合目錄』, 北京: 中華書局, 1985
- 貝青喬, 『苗俗記』(『小方壺齋輿地叢鈔』本)
- 包汝輯, 『南中紀聞』(『叢書集成』本)
- 咸豐 元年(1851) 『安順府志』
- 鄺露, 『赤雅』(『嘯園叢書』本)
- 『明實錄』, 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校引本, 1965~1966

- 강현사 외,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2008
- 김광영 외, 『중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2005
- 김용완, 『中國納西族文化』, 궁미디어, 2010
- 김한규, 『古代中國의 세계秩序研究』, 一潮閣, 1982
- 다바타 히사오(田畑久夫) 등 지, 원정식·이연주 역, 『중국소수민족입문』, 현학사, 2006
- 마크 엘빈 저·정철웅 역, 『코끼리의 후퇴』, 파주: 사계절, 2011
- 정철웅, 『자원의 지주-명청시대 장강 중류 지역의 개발과 환경』, 서울: 책세상, 2012
- 龔蔭, 『中國土司制度』, 昆明: 雲南民族出版社, 1992

凌純聲·芮逸夫,『湘西苗族調查報告』,上海:商務印書館,1947

譚必友,『清代湘西苗疆多民族社區的近代重構』,北京:民族出版社,2007

馬學良 主編,『增訂雲文叢刊』(上·中·下),成都:四川民族出版社,1986·1987·1988

范同壽,『貴州簡史』,貴陽:貴州民族出版社,1991

史繼忠,『西南民族社會形態與經濟文化類型』,昆明:雲南民族出版社,1997

成臻銘,『清代土司——種政治文化的歷史人類學觀察』,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8

楊國楨 外,『明史新編』,北京:人民出版社,1993

楊紹猷·莫俊卿,『明代民族史』,成都:四川民族出版社,1996

楊庭頌·羅康隆,『西南與中原』,昆明:雲南民族出版社,1992

余貽澤 編,『明代土司制度』,臺北:學生書局,1968

易謀遠,『彝族史要』(上·下),北京:民族出版社,2000

伍新編,『中國苗族通史』(上·下),貴陽:貴州民族出版社,1999

伍新編·龍伯亞,『苗族史』,成都:四川民族出版社,1992

吳榮臻 主編,『苗族通史』(5卷),北京:民族出版社,2007

吳澤霖·陳國鈞 等,『貴州苗夷社會研究』,北京:民族出版社,2004

王笛,『跨出封閉的世界——長江中上游區域社會研究,1644-1911』,北京:中華書局,1993

尤中,『雲南民族史』,昆明:雲南民族出版社,1994

牛平漢 主編,『清代政區沿革綜表』,北京:中國地圖出版社,1990

游俊 外,『湖南少數民族史』,北京:民族出版社,2001

翟玉前·孫偉 編著,『明史貴州土司列傳考證』,貴陽:貴州人民出版社,2008

陳賢波,『土司政治與族群歷史——明代以後貴州都柳江上游地區研究』,北京:三聯書店,2011

湖南省民族研究所編,『湖南民族關係史』(上·下),北京:民族出版社,2006

侯紹庄·史繼忠·翁家烈,『貴州古代民族關係史』,貴陽:貴州人民出版社,1991

小谷仲男 編,『東アジア史における文化傳播と地方差の語相』,富山,1988

松久道雄 等編,『中國史』(明清),東京:山川出版社,1999

J. E. Herman, *Amid the clouds and mist: China's colonization of Guizhou, 1200-1700*,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7

Yves Hervouet, *Un poète à la cour des Han: Sseu-ma Siang-jou*,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64

R. D. Jenks, *Insurgency and Social Disorder in Guizhou, The Miao Rebellion, 1854-1873*,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1994

Claudine Lombard-Salmon, *Un exemple d'acculturation chinoise: La Province du Guizhou au 18e siècle*,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Paris, 1972

H. J. Wiens, *China's march toward the tropics: A discussion of the southward penetration of China's culture, peoples, and political control in relation to the non-Han Chinese peoples of south China and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and cultural geography*, The Shee String Press: Hamden, 1954

김한규, 『7~8세기 동아시아 세계秩序的 構造의 特性과 그 運營體制의 機能』, 『叢檀學報』 88, 1999

김호동,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993

김홍길, 『명대의 彝族 정권과 토司』 『중국과 한국』(崔紹子教授停年紀念論叢), 서해문집, 2005

김홍길, 『청대 서남 지역의 목재교역과 소수민족 상인: 귀주 금명현 지역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권32, 2009

박희, 『중국 남서부지역 소수민족의 문화변동—내부식민지화와 발전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아시아연구』 권13 3호, 2010

윤정분, 『明代 軍戶制와 衛所制에 대하여』, 『동방학자』 43, 1984

賈霄鋒·王力, 『近百年來中國土司制度的史料整理及研究綜述』, 『民族歷史研究』 14-3, 2003

龔茲, 『20世紀中國土司制度研究的理論與方法』, 『思想戰線』 28-5, 2002

羅康智·翟玉前, 『論明代“理苗”之失』,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28-4, 2007

戴楚洲, 『湘鄂川黔土家族地區衛所制度初探』, 『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2-3, 1994

石邦彥, 『苗疆邊境試析』,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 11-1, 1990

成臻銘, 『論湖南元明時期的土司——兼與新添葛嶺安撫司在湖南論者商榷』, 『民族研究』 5, 1996

伍新編, 『明代湘黔邊“苗疆”“堡哨”“邊境”考』, 『貴州民族研究』, 2001-3

林建會, 『試論“改土歸流”政策形成·推行的幾個階段』, 『廣西民族研究』(南寧), 1988-2

張德強, 『邊境興廢與明清苗疆社會』,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1-2

張捷夫, 『關於奢香的功績和史料』, 『貴州社會科學』, 1982-1

田敏, 『論明中後期鄂西土司的反抗與明朝控制策略的調整』, 『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7-4, 1999

鄒珺, 『湘西明清邊境的修築及其歷史價值』, 『懷化學院學報』 26-10, 2007

胡慶鈞, 『明代水西彝族的奴隸制度』, 『歷史研究』, 1964-5·6

岡野昌子, 『明代土司制度考』, 『待兼山論叢』(大阪大學) 史學篇1, 1967

- 大林太郎, 『中國邊境の土司制度についての民族學的考察』, 『民族學研究』 35-2, 1970
- C. Daniels, 『少數民族の歴史をどうみるのか—近年の研究紹介をかねて』, 『アジア遊學』 9, 1999
- 道上峰史, 『明代の南方長城について』, 『中國史研究』(한국 중국사학회) 62, 2009
- 栗原信, 『明代彝族系土司にみられる種族連合の紐帶—彝族(ロロ・ノス系)の民族史的 연구の一考察』, 『東南アジア 歴史と文化』 11, 1982
- 栗原信, 『社會變動の中の少數民族—少數民族に見る傳統と近代』, 宇野重昭 等 編, 『岩波講座現代中國 第3卷, 靜かな社會變動』, 東京, 1989
- Feng Han-yi and J.K. Shryock,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Lolo,"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3, no.2, 1938
- John E. Herman, "The Mu'ège Kingdom, A brief history of a frontier empire in southwest China", Nicola Di Cosmo and Don J. Wyatt ed., *Political Frontiers, Ethnic Boundaries, and Human Geographies in Chinese History*, London & New York, 2003
- John E. Herman, "The Kingdoms of Nanzhong China's South Border Region Prior to the Eighth Century," *T'oung Pao*, second series, vol.95, Fasc. 4/5, 2009
- S. Harrell, "The History of the History of the Yi", do. ed., *Cultural Encounters on China's Ethnic Frontiers*, Seattle & London, 1995
- 戴逸 主編, 『二十六史大辭典』, 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93
-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臧勵酥 等 編, 『中國古今地名大辭典』, 臺北: 商務印書館, 1931
- 中國古今地名大詞典編纂委員會, 『中國古今大詞典』(上, 中, 下), 上海辭書出版社, 2005
- 中國歷史大辭典編纂委員會編, 『中國歷史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00
- 『中國歷史地圖集』, 北京: 地圖出版社, 1987
- 京大東洋史辭典編纂會, 『新編東洋史辭典』, 東京: 創元社, 1980
- 下中邦彦 編, 『アジア歴史事典』, 東京: 平凡社, 1962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35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5
明史 外國傳 譯註 · 6—土司傳 · 中

초판 1쇄 인쇄 2014년 10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10월 22일

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4

ISBN 978-89-6187-346-8 94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 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l.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4029908)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